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

초판 1쇄 인쇄 2005년 6월 28일 ‖ 초판 1쇄 발행 2005년 6월 30일 ‖ 지은이 이광호·김병선·황문환·김태환 ‖ 펴낸이 지현구 ‖ 펴낸곳 태학사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7-42 ‖ 전화 (02) 584-1740(代) ‖ 팩스 (02) 584-1730 ‖ 등록 제 22-1455호 ‖ 전자우편 thaehak4@chollian.net ‖ 홈페이지 http://www.thaehaksa.com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값 25,000원

ISBN 89-7626-969-1 94810
ISBN 89-7626-968-3 (세트)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2002.12.01 ~ 2003.11.31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국학고전연구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I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합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연 구 책 임 자 : 이광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공 동 연 구 원 : 김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연구 전임 인력 : 김태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 강문종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김훈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박숙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태학사

■ 이 저서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1－AM2508)

간행사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도구로 삼고 인터넷을 매체로 삼아 이른바 전자 우편을 주고 받는 것이 상례이지만, 통신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간찰(簡札)을 가장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삼았다. 문안(問安), 경하(慶賀), 조문(弔問), 청탁(請託), 권계(勸戒) 따위의 통신 내용이 모두 간찰에 담겼다. 따라서 간찰은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보는 데 있어서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조선 시대의 한글 간찰은 당시의 일상 언어를 고루 잘 반영하고 있는 까닭에 학술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예컨대 국어사, 생활사 그리고 여성사를 위시하여, 한글 간찰이 한국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는 물론이고 아직 학계에조차 이것이 널리 소개되지 못하여, 한글 간찰의 학술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 간찰은 대개가 난해한 흘림체 글씨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독해 능력과 숙련 과정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비록 그것을 읽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옛말과 한글 간찰의 독특한

투식(套式)에 대한 식견이 없으면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글 간찰을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원전 자료를 정확하게 판독하여 주석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글 흘림체 글씨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학술 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을 풍부히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우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글 간찰 연구팀을 만들어 역주 연구 사업을 서두른 까닭은 대체로 위와 같은 데 있었다. 그런데 매우 다행하게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 2002년도 1개년의 단기과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성과를 3권의 연구서로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역주 연구의 대상 자료는 총9개 가문에 걸쳐서 수집된 한글 간찰 270여건이다.

이번의 역주 연구 성과에 수록된 대상 자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간찰류(簡札類)와 고목류(告目類)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연구팀을 위하여 개인 소장가 및 단체에서 제공한 여러 간찰첩(簡札帖)이 그것이다. 특히 선대 가문의 진귀한 친필 수고(手稿)를 기꺼이 내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임형택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연구팀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도 또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겠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 심사단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 연구팀이 수행하려는 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학계에 두루 알려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역주 연구의 성과물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윤문과 교열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

를 드린다. 김일근 선생님, 안병희 선생님, 이익섭 선생님께서 윤문과 교열을 기꺼이 맡아 주셨고, 이양순 박사와 허원기 박사도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우리 연구팀의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해 주신 김병선, 김건곤, 임치균, 황문환 교수의 협력에 감사를 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김목한, 김태환, 백낙천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우리 연구팀이 이번에 간행하려는 역주 연구의 성과는 하나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3년 뒤에는 이것의 다섯 배에 이르는 연구 성과가 더 배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서는 또한 원전 자료의 영인본과 함께 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방대한 분량을 상재하는 작업이 또한 어렵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주기로 약속한 태학사의 지현구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5. 4.

연구책임자 이 광 호 씀.

일러두기

본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문육성사업의 하나로서 2003년도 인문사회과학분야 단기과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를 수행한 성과를 엮었다. 본서는 특히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와 전주유씨 안동수곡파의 한글 간찰에 대한 역주 연구의 성과를 합편한 것이다. 역주의 체재는 크게 판독(判讀), 전사(轉寫)·주석(註釋), 현대어역(現代語譯), 참고(參考)와 원전(原典)의 순서로 짜였다. 원전은 자료를 축소 영인해서 붙인다. 자료의 구별과 배열 및 역주의 체재와 방식에 적용한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구별과 배열

(1) 간찰 1편을 기본 단위로 삼아 자료의 총량에 따른 일련 번호를 붙이되, 발신자와 수신자의 존수 관계 및 사회 관계에 따른 9등급의 하위 번호를 다시 붙이고, 또한 9등급의 분량에 따른 일련 번호를 거듭 붙인다. 따라서 자료의 총량에 따른 번호, 관계의 등급에 따

른 번호, 등급의 분량에 따른 번호가 다음의 예와 같이 제시될 것이다. 예) 01 0-01.

(2) 발신자와 수신자의 촌수 관계 및 사회 관계에 따른 9등급은 다음의 예와 같이 설정하되, 조손간은 2촌에 해당하는 것이나 1촌의 항렬에 두며, 재종형제자매 이상의 관계는 간찰의 왕래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6촌의 항렬에 둔다. 만약에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교우 관계로 처리한다. 예) 부부=0, 부모자식 및 조손=1, 형제자매=2, 숙질=3, 종형제자매=4, 종숙질=5, 재종형제자매 및 그 이상=6, 사돈 및 교우=7, 상전하인=8.

(3) 이어서 자료의 출처 및 소장처의 분류 방식에 따른 식별 기호·번호를 붙이되, 아울러 실물의 크기를 괄호에 밝힌다. 다만 자료의 출처는 약호를 쓴다. 다음의 예에서, 맨 처음의 '海尹'은 약호로서 '해남윤씨 고문서'를 뜻하고, 그 다음의 'MF35-3208'은 마이크로필름 번호를 뜻하고, 맨 끝의 '606-1'은 필름에 들어 있는 문서의 일련 번호를 뜻한다. 예) 海尹_MF35-3208_606-1(17x100cm).

(4) 끝으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밝히되, 발신 연도를 또한 괄호에 밝힌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저마다 다음과 같은 표제를 통하여 구별될 것이다. 예) 01 0-01. 海尹_MF35-3208_606-1(17x100cm) : 남편 → 아내(1925).

(5) 여러 가문의 간찰을 합편할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방식을 가문별로 새롭게 적용한다.

2. 역주의 체제와 방식

판독

(1) 판독문은 원전 자료의 서사 형태와 동일하게 적어 나가되, 다만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바꾼다. 만약에 원전 자료가 여백에 적은 글자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문단을 중심으로 여백의 위치와 항수를 밝혀 [上1]·[下1]·[左1]·[右1]과 같은 약호를 항의 맨 앞에 넣는다.

(2) 원전 자료의 서사 형태에 있어서 격식의 요구에 따라 문항과 글자에 적용된 대두법(擡頭法)·격간법(隔間法) 및 소체법(小體法)은 글자수를 함께 밝혀 [擡1]·[隔1]·[小1]과 같은 약호를 그 격식이 적용되기 시작한 글자의 앞에 넣는다. 다만 이항법(移行法)은 [移1]과 같은 약호를 그 격식이 적용되어 끊어진 글줄의 끝에 넣는다.

(3) 이상을 제외하고, 때로 다음과 같은 약호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원전 자료의 형태나 격식을 판독문에 반영할 것이다. 예) 添 : 첨가한 글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첨가된 위치에 적어 넣되, 첨가되기 시작한 최초의 글자 앞에 그 첨가된 수량을 함께 밝혀 [添1]와 같은 약호를 넣는다. 削 : 삭제한 글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삭제된 위치에 그대로 적어 두되, 삭제되기 시작한 최초의 글자 앞에 그 삭제된 수량을 함께 밝혀 [削1]과 같은 약호를 넣는다. 本·修 : 수정한 글자가 있을 경우에, 본래의 글자 앞에는 [本1]과 같은 약호를, 수정한 글자 앞에는 [修1]과 같은 약호를 넣는다. 본래의 글자를 판독할 수 없으면 [修]만 넣는다. 符 : 원전 자료에 교정 부호가 들어 있을 경우에, 교정이 시작된 위치에 [符]를 넣고 그

모양과 기능을 전사문의 각주에 밝힌다.

(4) 글자에 오물이 묻거나 종이가 찢기어 글자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총수를 낱낱 □로 표시한다. 난해한 글자는 ▣로 표시하고 그 사정을 전사문의 주석으로 밝힌다.

전사 · 주석

(1) 전사문은 판독문의 항오(行伍)를 해체하고 약호도 모두 제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현대의 띄어쓰기를 적용해서 적어 나가되, 별도로 문장 부호를 삽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자어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한자를 괄호에 밝혀 적는다.

(2) 삭제된 글자는 판독문에만 반영하고 전사문에서는 수정된 글자만 남긴다. 반면에 원전 자료와 판독문에서 동자 반복을 표시한 〈〃〉는 반복된 글자를 살려 적는다. 예) 답〃ᄒᆞ더니 → 답답ᄒᆞ더니, 잔혹〃 → 잔혹잔혹

(3) 주석은 모두 전사문에 붙이되, 주석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석 대상을 또한 명확히 한정해서 제시한다. 예) 근치읍 : 그치옵[니다]. '근치다'는 '그치다'의 전라도 사투리.

(4) 주석은 원전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어 베풀되, 경우에 따라 국어학의 방법과 이론을 원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일반인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현대어역

(1) 현대어역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되, 전사문에 의거하여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전에 생략·비약이 극심할 경우에,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구를 [ ]에 넣어 제시한다. 예) 그러하나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출발하여 갔다.'고 답전(答電)을 하였삽.

(3) 판독할 수 없는 구절이나 해석하지 못한 구절은 번역하지 않고 []에 넣어 제시한다.

(4) 현대어역은 난해한 한자만 괄호에 밝힌다.

참고

(1) 원전 자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고증하여 제시한다. 간찰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신분 및 관계, 발신 연도·일자, 발신과 수신이 이루어진 지역,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고증이 우선이다.

(2) 사실 관계를 자세히 고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다.

(3)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항목을 생략한다.

간행사 / 5
일러두기 / 9

해제

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25
2.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27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01. 海尹_MF35-3208_606-1(17x100cm): 남편 → 아내 39
02. 海尹_MF35-3208_605(23x15cm): 남편 → 아내 45
03. 海尹_MF35-3208_679(23x15cm): 남편 → 아내 53
04. 海尹_MF35-3208_619(19x20cm): 남편 → 아내 57
05. 海尹_MF35-3208_606(17x100cm): 아내 → 남편 59
06. 海尹_MF35-3208_609(14x38cm): 어머니 → 딸 66
07. 海尹_MF35-3208_610(17x7cm): 어머니 → 딸 69
08. 海尹_MF35-3208_615(17x23cm): 어머니 → 아들 71
09. 海尹_MF35-3208_617(27x12cm): 어머니 → 아들 74
10. 海尹_MF35-3208_622(18x12cm): 어머니 → 아들 76

11. 海尹_MF35-3208_628(10x21cm):. 어머니 → 아들 ···························· 78
12. 海尹_MF35-3208_611(19x20cm): 어머니 → 아들 ···························· 80
13. 海尹_MF35-3208_613(22x16cm): 어머니 → 아들 ···························· 82
14. 海尹_MF35-3208_614(24x18cm): 어머니 → 아들 ···························· 85
15. 海尹_MF35-3208_616(20x19cm): 어머니 → 아들 ···························· 88
16. 海尹_MF35-3208_629(18x23cm): 시어머니 → 며느리 ······················ 91
17. 海尹_MF35-3208_639(24x45cm): 아들 → 어머니 ···························· 93
18. 海尹_MF35-3208_644(32x24cm): 아들 → 어머니 ···························· 96
19. 海尹_MF35-3208_608(48x34cm): 며느리 → 시어머니 ······················ 98
20. 海尹_MF35-3208_607(20x205cm): 사위 → 장모 ···························· 103
21. 海尹_MF35-3208_626(29x37cm): 언니 → 아우 ······························ 114
22. 海尹_MF35-3208_648(27x48cm): 사내 아우 → 누이 ······················· 121
23. 海尹_MF35-3208_642(21x53cm): 사내 아우 → 손위누이 ················ 132
24. 海尹_MF35-3208_647(22x35cm): 고모 → 조카딸 ···························· 137
25. 海尹_MF35-3208_657(29x42cm): 시백부 → 조카며느리 ·················· 143
26. 海尹_MF35-3208_624(24x42cm): 사촌 오빠 → 사촌 누이 ··············· 147
27. 海尹_MF35-3208_631(27x40cm): 사촌 아주머니 → 사촌 아주버니 ·· 152
28. 海尹_MF35-3208_635(20x55cm): 외사촌 오빠 → 외사촌 누이 ········ 156
29. 海尹_MF35-3208_627(18x26cm): 외사촌 아우 → 외사촌 형 ·········· 160

30. 海尹_MF35-3208_636·634(41x45cm): 사돈 → 사돈(1917) ··············· 167
31. 海尹_MF35-3208_638(23x43cm): 이웃 아우 → 이웃 형(1890) ········ 176
32. 海尹_MF35-3208_633(41x54cm): 조객 → 상제(1926) ······················ 180
33. 海尹_MF35-3208_641(25x14cm): 의원 → 환자 ································ 185
34. 海尹_MF35-3207_2(33x37cm): 전호 → 전주 ···································· 187
35. 海尹_MF35-3207_8(40x25cm): 전호 → 전주 ···································· 190
36. 海尹_MF35-3207_13(25x51cm): 전호 → 전주 ································· 193
37. 海尹_MF35-3207_5(27x26cm): 하인 → 상전 ···································· 196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01. 全柳_MF35-006421_620(29x55cm): 남편 → 아내 ···························· 201
02. 全柳_MF35-006421_681-1(22x19cm): 남편 → 아내 ························ 207
03. 全柳_MF35-006422_979(17x38cm): 딸 → 아버지 ···························· 210
04. 全柳_MF35-006422_1000(18x43cm): 딸 → 아버지 ·························· 215
05. 全柳_MF35-006422_1175(21x24cm): 딸 → 아버지 ·························· 220
06. 全柳_MF35-006424_1715(23x24cm): 딸 → 아버지 ·························· 224
07. 全柳_MF35-006424_1718(24x32cm): 딸 → 아버지 ·························· 232
08. 全柳_MF35-006424_1763(30x30cm): 딸 → 아버지 ························ 239
09. 全柳_MF35-006425_2270(26x40cm): 아들 → 아버지 ······················ 243

10. 全柳_MF35-006421_651(18x160cm): 아들 → 아버지 ······················ 248
11. 全柳_MF35-006421_634(23x31cm): 아들 → 아버지 ························ 256
12. 全柳_MF35-006421_615(23x45cm): 아들 → 아버지 ························ 261
13. 全柳_MF35-006422_932(23x48cm): 며느리 → 시아버지 ················· 266
14. 全柳_MF35-006422_940(24x62cm): 며느리 → 시아버지 ················· 271
15. 全柳_MF35-006422_1156(23x48cm): 며느리 → 시아버지 ··············· 278
16. 全柳_MF35-006421_613(25x41cm): 며느리 → 시아버지 ················· 283
17. 全柳_MF35-006421_629-1(31x30cm): 며느리 → 시아버지 ·············· 289
18. 全柳_MF35-006422_1105(24x35cm): 며느리 → 시아버지 ··············· 294
19. 全柳_MF35-006422_1110(26x20cm): 며느리 → 시아버지 ··············· 300
20. 全柳_MF35-006421_676(17x6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04
21. 全柳_MF35-006422_933(18x37cm): 며느리 → 시아버지 ················· 310
22. 全柳_MF35-006422_1068(18x47cm): 며느리 → 시아버지 ··············· 316
23. 全柳_MF35-006422_961(18x62cm): 며느리 → 시아버지 ················· 321
24. 全柳_MF35-006422_942(18x32cm): 며느리 → 시아버지 ················· 326
25. 全柳_MF35-006422_1125(16x35cm): 며느리 → 시아버지 ··············· 330
26. 全柳_MF35-006422_1109(18x3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35
27. 全柳_MF35-006424_1803(16x5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39
28. 全柳_MF35-006424_1890(18x66cm): 며느리 → 시아버지 ··············· 344

29. 全柳_MF35-006424_1889(24x54cm): 며느리 → 시아버지 ················ 350
30. 全柳_MF35-006422_1004(18x54cm): 며느리 → 시아버지 ················ 353
31. 全柳_MF35-006422_1077(18x8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56
32. 全柳_MF35-006421_633-1·2(17x5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62
33. 全柳_MF35-006421_635(19x7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68
34. 全柳_MF35-006421_635-1(19x4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73
35. 全柳_MF35-006424_1188(20x31cm): 며느리 → 시아버지 ················ 378
36. 全柳_MF35-006421_662(26x46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 ········ 381
37. 全柳_MF35-006425_2257(24x53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 ······ 386
38. 全柳_MF35-006425_2282(23x42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 ······ 390
39. 全柳_MF35-006422_1082(18x74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 ······ 394
40. 全柳_MF35-006421_633(17x33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 ········ 399
41. 全柳_MF35-006421_632(17x51cm): 누이 → 오빠 ···························· 404
42. 全柳_MF35-006421_694(17x28cm): 누이 → 오빠 ···························· 409
43. 全柳_MF35-006421_791-1(27x10cm): 누이 → 오빠 ························ 413
44. 全柳_MF35-006422_1215(24x16cm): 누이 → 오빠 ························· 416
45. 全柳_MF35-006425_2260(18x59cm): 사내 아우 → 누이 ·················· 420
46. 全柳_MF35-006422_952(26x43cm): 아우 아내 → 아주버니 ············· 424
47. 全柳_MF35-006424_1759(70x50cm): 조카며느리 → 아주버니 ········· 430

48. 全柳I_MF35-006422_960(25x44cm): 사돈 → 사돈 ………………………… 433
49. 全柳I_MF35-006425_2053(25x24cm): 의원 → 환자 ……………………… 438
50. 全柳I_MF35-006421_667(22x32cm): 여관 주인 → 사가 호주 ……… 441
51. 全柳I_MF35-006420_105(25x33cm): 전호 → 전주 ………………………… 446
52. 全柳I_MF35-006422_957(25x46cm): 전호 → 전주 ………………………… 449
53. 全柳I_MF35-006421_600(18x75cm): 전호 → 전주 ………………………… 452
54. 全柳I_MF35-006429_100(26x44cm): 하인 → 상전 ………………………… 456
55. 全柳I_MF35-006421_786(26x96cm): 하인 → 상전 ………………………… 460
56. 全柳I_MF35-006420_322(26x76cm): 하인 → 상전 ………………………… 467
57. 全柳I_MF35-006429_101(26x26cm): 하인 → 상전 ………………………… 471
58. 全柳I_MF35-006421_563(25x35cm): 하인 → 상전 ………………………… 474
59. 全柳I_MF35-006421_596-1(22x19cm): 하인 → 상전 ……………………… 478
60. 全柳I_MF35-006422_997(24x65cm): 하인 → 상전 ………………………… 480

참고문헌 / 487



해제

해제

간찰(簡札)은 곧 서신(書信)을 담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말한다. 간찰은 간독(簡牘)과 거의 같은 뜻을 지닌다.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대쪽이나 나무판에 글을 적었고, 서신도 그렇게 적어 보냈다. 그러한 대쪽을 가리켜 간(簡)이라 하고, 그러한 나무판을 가리켜 독(牘)이라 했다. 독(牘)은 참(槧)과 같은 것이나, 독(牘)은 이미 쓰인 것을 말하고, 참(槧)은 아직 쓰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독(牘)의 작고 엷은 것을 또한 찰(札)이라 했다. 찰(札)을 또는 첩(牒)이라 한다. 간독(簡牘)을 흔히 척독(尺牘)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서함(書函)의 길이를 대개는 한 척(尺)으로 삼았던 데 그 까닭이 있었다.

서신은 의사(意思)를 말로써 전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정황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상대에게 그것을 글로써 대신하는 모든 소통의 수단이다. 따라서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넓고 많다. 예컨대 어명(御命) · 윤음(綸音) · 장계(狀啓) · 상소(上疏)와 같은 따위의 공문서도 그것의 본질은 서신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공적 서신을 곧 서신이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른바 서신을 공적 사무 관계에 따른 규식의 제약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문서로 용인하는 까닭일 것이다.

간찰은 그것의 길이와 크기가 작고 짧은 문서로 제한되고, 그것의 격식과 내용이 우선은 사적 필요에 제한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편지(片紙·便紙)라고 부르는 문체와 그 문서를 곧 간찰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인·천인이 그의 상관·상전에게 보내는 이른바 고목(告目)과 같은 부류는 그것을 흔히 공적 서신으로 보아 공문서의 범위에 넣고 간찰의 범위에 넣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의외로 여기에는 사적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서신이 그 태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따라서 고목의 상당한 분량을 간찰의 범위에서 다룰 필요가 생긴다.

한글로 쓰인 간찰을 이른바 한글 간찰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만 내간(內簡)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류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글 간찰에는 부녀자가 써 보낸 내간도 있고 또한 남자가 써 보낸 외간(外簡)도 있다. 여기에다 한글로 쓰인 것이면서 간찰의 범위에서 다룰 만한 고목을 더하여 그 모두를 한글 간찰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의 역주 대상에는 내간·외간과 아울러 고목의 일부를 선정해 넣었다. 해남윤씨(海南尹氏)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의 한글 간찰 총37편과 전주유씨(全州柳氏) 안동수곡파(安東水谷派)의 한글 간찰 총60편을 합편하고, 각각의 서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해제로 삼는다.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본서의 역주 대상으로 삼은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한글 간찰 총37편은 모두 연동종택(蓮洞宗宅)에서 나온 것이다. 198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집하여 정리하고 아울러 35mm 크기의 필름으로 촬영하여 축자(軸子) 형태로 제작한 고문서 집성물의 간찰류(簡札類)와 고목류(告目類)에 수록되어 있다. 필름 번호는 MF35-3207~3208이다. 원본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종손 윤형식(尹亨植)이 소장하고 있으며,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이다.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한글 간찰은 그 총량이 한글로 작성된 고목(告目)을 포함하여 모두 51편에 이른다. 여기서 문서의 일부가 파손되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오염되어 문자를 판별할 수 없거나, 또는 글씨가 너무 난삽하여 완전한 판독이 불가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37편을 본서의 역주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들의 작성 시기는 대체로 17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치는데, 남성 발신자의 것이 많이 들어 있을 뿐더러 작성 시기가 이른 것도 더러 끼어 있는 까닭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만하다. 분류 목록은 [부록 : 표1-1]에 제시되어 있고, 발신 연대가 확실한 간찰은 [부록 : 표1-2]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해남윤씨의 한 지파가 해남에 세거지를 두게 된 것은 12세손 윤효정(尹孝貞, 1476~1543)이 해남에 세거지를 두고 있던 해남정씨(海南鄭氏)의 딸과 혼인을 맺고서 또한 그곳으로 이주한 때로부터 비롯된 일인 듯하다. 이로부터 윤효정의 호를 따서 어초은공파라고 부르는 하나의 지파가 형성되었다. 이전에는 지금의 강진군에 해당하는 탐진현(耽津縣)에 세거지를 두고 있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구복(1986)의 해제를 참고하길 바라며, 해남윤씨 연동종가의 세계에 관해서는 [부록 : 표 1-3]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본서의 역주 대상으로 삼은 전주유씨 안동수곡파의 한글 간찰 총60편은 모두 정재종택(定齋宗宅)에서 나온 것이다. 1994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집하여 정리하고 아울러 35mm 크기의 필름으로 촬영하여 축자 형태로 제작한 고문서 집성물의 간찰류와 고목류에 수록되어 있다. 필름 번호는 MF35-6410～6433이다. 원본은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 유성호(柳成昊, 1949～)가 소장하고 있으며, 본래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이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의 한글 간찰은 그 총량이 한글로 작성된 고목(告目)을 포함하여 모두 84편에 이른다. 여기서 문서의 일부가 파손되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오염되어 문자를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60편을 본서의 역주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들의 작성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치는데, 태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간 간찰이다. 특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분류 목록은 [부록 : 표 2-1]에 제시되어 있고, 발신 연대가 확실한 간찰은 [부록 : 표 2-2]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는 대체로 16세기를 통하여 형성된 지파이다. 애초에 서울을 세거지로 삼고 있던 전주유씨 가문의 한 지파가 경상도 안동으로 낙향하게 된 데는 혼인에 말미암은 두 차례의 계기가 있었다. 첫째 계기는 7세손 유윤선(柳胤善, 1500~1557)이 경상도 영주에 세거지를 두고 있던 반남박씨(潘南朴氏) 가문의 딸과 혼인을 맺고서 그곳으로 이주한 것이다. 둘째 계기는, 첫째 계기보다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서, 8세손 유성(柳城, 1533~1560)이 경상도 안동에 세거지를 두고 있던 의성김씨(義城金氏) 가문의 딸과 혼인을 맺고서 그곳으로 이주한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안승준(1999)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라며, 전주유씨 안동수곡파의 세계에 관해서는 [부록 : 표 2-3]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安承俊, 「安東 水谷 全州柳氏家의 古文書와 사회 경제적 기반」, 『古文書集成 四十四 - 安東 全州柳氏篇 I (水谷宗宅)』(성남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3~16쪽.

柳青, 『全州柳氏大同普』(전주 : 全州柳氏時思齋大同普所, 1976), 1~160쪽.

鄭求福, 「古文書集成 三 - 海南尹氏篇 : 解題」, 『古文書集成 三 - 海南尹氏篇』(성남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3~17쪽.

海南尹氏兵曹參議公派門中, 『海南尹氏兵曹參議公派世譜』(광주 : 精微文化社, 1998), 漁樵隱公派 卷一~四.

【도표 1-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 한글 간찰의 분류

등급	관계	발신자	수신자	MF 문서 번호	편수
0	부부	남편	아내	MF35-3208_605, 606-1, 619, 679	4
		아내	남편	MF35-3208_606	1
1	부모자식(조손)	어머니	딸	MF35-3208_609, 610	2
			아들	MF35-3208_611, 613, 614, 615, 616, 617, 622, 628	8
		시어머니	며느리	MF35-3208_629	1
		아들	어머니	MF35-3208_639, 644	2
		며느리	시어머니	MF35-3208_608	1
		사위	장모	MF35-3208_607	1
2	형제자매	언니	아우	MF35-3208_626	1
		사내 아우	누이	MF35-3208_642, 648	2
3	숙질	고모	조카딸	MF35-3208_647	1
		시백부	조카며느리	MF35-3208_657	1
4	종형제	사촌 오빠	사촌 누이	MF35-3208_624	1
		사촌 아주머니	사촌 아주버니	MF35-3208_631	1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이	MF35-3208_635	1
		외사촌 아우	외사촌 형	MF35-3208_627	1
5	종숙질				0
6	재종형제				0
7	사돈교우	사돈	사돈	MF35-3208_636·634	1
		이웃 아우	이웃 형	MF35-3208_638	1
		기타	기타	MF35-3208_633, 641	2
8	상전하인	전호	전주	MF35-3207_5	1
		하인	상전	MF35-3207_2, 8, 13	3

【도표 1-2】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 한글 간찰의 연대

연대	편수	발신자	수신자	MF 문서 번호
1664	2	사내 아우	누이	MF35-3208_648 MF35-3208_642
1677	1	아들	어머니	MF35-3208_639
1753	1	사촌 아주머니	사촌 아주버니	MF35-3208_631
1756	1	고모	조카딸	MF35-3208_647
1856	1	사촌 오빠	사촌 누이	MF35-3208_624
1886	1	언니	아우	MF35-3208_626
1890	1	이웃 아우	이웃 형	MF35-3208_638
1899	1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이	MF35-3208_635
1903	1	시백부	조카며느리	MF35-3208_657
1917	1	사돈	사돈	MF35-3208_636·634
1918	1	사위	장모	MF35-3208_607
1925	3	남편	아내	MF35-3208_606-1
		아내	남편	MF35-3208_606
		며느리	시어머니	MF35-3208_608
1926	3	남편	아내	MF35-3208_605 MF35-3208_679
		조객	상제	MF35-3208_633

【도표 1-3.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의 세계 (1)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①	-孝貞-	-衢- 衖 行 復	-弘中- 毅中 恭中	-唯幾- (系子)	-善道- (系子) 善養	-仁美- •義美• 禮美 循美 直美	-爾錫- 爾服 爾成	-斗緖- (系子)
②			-毅中-	-唯深- •唯幾• 唯順	-善言- •善道• 善下	-義美- (系子)	-爾久- •爾厚•	-宗緖- (系子)
③						-禮美-	-爾厚- (系子)	-昌緖- 興緖 •宗緖• •斗緖• 光緖

【도표 1-3.2】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의 세계 (2)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①	-德熙- 德謙 德熏 德照 德烈 德廉 德顯 德烋 德烝	-悰- 愹 它 宏 宁	-持貞-	-鍾慶- (系子)	-光浩-	-柱興- (系子)	-觀夏- •益夏• 泰夏	-在衡- 在斗
④		-它-	-奎常-	•鍾慶• -鍾直- 鍾敏				
⑤	-德熏-	寘 -嶌-	-持敬- 奎會	鍾承 鍾純 -鍾耇-	-命浩- 性浩 氣浩 錫浩	•柱興•	-益夏- (係嗣)	

【도표 1-3.3】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의 세계 (3)

구분	28	29	30	31				
①	-定鉉- 昌鉉 應鉉 大鉉	-泳善- 泳禧 泳秀 泳麟 泳杓	環植 -亨植- 德樑 恒樑 義植 椿植	-性喆- 炳畯				

【도표 2-3.1】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의 세계(1)

구분	1	2	3	4	5	6	7	8
①	濕	克剛 -克恕-	汀 -濱-	敬孫 -義孫- 信孫 末孫	-季滴- (系子)	-軾- 轅 轃 轂	胤德 胤福 胤弼 -胤善- 胤誠 胤生 胤清 胤良	-城- 垣 倸
②				-末孫-	-季渟- •季潼•			

【도표 2-3.2】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의 세계(2)

구분	9	10	11	12	13	14	15	16
①	-復起- 復立	-友溍- 得溍 知溍 守溍 宜溍 希溍	-樹- 梭 榔 桴 格	-振輝- 挺輝 增輝 益輝	宗時 -奉時-	升鉉 -觀鉉-	-通源- •道源• 長源 拱源 還源	-星休- 川休 龜休
②						-升鉉-	-道源- (系子) 演源	-範休- 洛休 玄休
③								

부록

【도표 1-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 한글 간찰의 분류

등급	관계	발신자	수신자	MF 문서 번호	편수
0	부부	남편	아내	MF35-3208_605, 606-1, 619, 679	4
		아내	남편	MF35-3208_606	1
1	부모자식 (조손)	어머니	딸	MF35-3208_609, 610	2
			아들	MF35-3208_611, 613, 614, 615, 616, 617, 622, 628	8
		시어머니	며느리	MF35-3208_629	1
		아들	어머니	MF35-3208_639, 644	2
		며느리	시어머니	MF35-3208_608	1
		사위	장모	MF35-3208_607	1
2	형제자매	언니	아우	MF35-3208_626	1
		사내 아우	누이	MF35-3208_642, 648	2
3	숙질	고모	조카딸	MF35-3208_647	1
		시백부	조카며느리	MF35-3208_657	1
4	종형제	사촌 오빠	사촌 누이	MF35-3208_624	1
		사촌 아주머니	사촌 아주버니	MF35-3208_631	1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이	MF35-3208_635	1
		외사촌 아우	외사촌 형	MF35-3208_627	1
5	종숙질				0
6	재종형제				0
7	사돈교우	사돈	사돈	MF35-3208_636·634	1
		이웃 아우	이웃 형	MF35-3208_638	1
		기타	기타	MF35-3208_633, 641	2
8	상전하인	전호	전주	MF35-3207_5	1
		하인	상전	MF35-3207_2, 8, 13	3

【도표 1-2】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 한글 간찰의 연대

연대	편수	발신자	수신자	MF 문서 번호
1664	2	사내 아우	누이	MF35-3208_648 MF35-3208_642
1677	1	아들	어머니	MF35-3208_639
1753	1	사촌 아주머니	사촌 아주버니	MF35-3208_631
1756	1	고모	조카딸	MF35-3208_647
1856	1	사촌 오빠	사촌 누이	MF35-3208_624
1886	1	언니	아우	MF35-3208_626
1890	1	이웃 아우	이웃 형	MF35-3208_638
1899	1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이	MF35-3208_635
1903	1	시백부	조카며느리	MF35-3208_657
1917	1	사돈	사돈	MF35-3208_636·634
1918	1	사위	장모	MF35-3208_607
1925	3	남편	아내	MF35-3208_606-1
		아내	남편	MF35-3208_606
		며느리	시어머니	MF35-3208_608
1926	3	남편	아내	MF35-3208_605 MF35-3208_679
		조객	상제	MF35-3208_633

【도표 1-3.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의 세계 (1)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①	-孝貞-	-衢- 衎 行 復	-弘中- 毅中 恭中	-唯幾- (系子)	-善道- (系子) 善養	-仁美- •義美• 禮美 循美 直美	-爾錫- 爾服 爾成	-斗緖- (系子)
②			-毅中-	-唯深- •唯幾• 唯順	-善言- •善道• 善下	-義美- (系子)	-爾久- •爾厚•	-宗緖- (系子)
③						-禮美-	-爾厚- (系子)	-昌緖- 興緖 •宗緖• •斗緖• 光緖

【도표 1-3.2】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의 세계 (2)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①	-德熙- 德謙 德熏 德照 德烈 德廉 德顯 德烋 德烝	-悰- 愹 它 宏 宁	-持貞-	-鍾慶- (系子)	-光浩-	-柱興- (系子)	-觀夏- •益夏• 泰夏	-在衡- 在斗
④		-它-	-奎常-	•鍾慶• -鍾直- 鍾敏				
⑤	-德熏-	寅 -嶠-	-持敬- 奎命	鍾承 鍾純 -鍾耉-	-命浩- 性浩 氣浩 錫浩	•柱興•	-益夏- (孫嗣)	

【도표 1-3.3】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연동종택의 세계 (3)

구분	28	29	30	31				
①	-定鉉- 昌鉉 應鉉 大鉉	-泳善- 泳禧 泳秀 泳麟 泳杓	環植 -亨植- 德楪 恒楪 義植 椿植	-性喆- 炳畯				

【도표 2-1】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 한글 간찰의 분류

등급	관계	발신자	수신자	MF 문서 번호	편수
0	부부	남편	아내	MF35-6421_620, 681-1	2
1	부모자식(조손)	딸	아버지	MF35-6422_979, 1000, 1175 MF35-6424_1715, 1718, 1763	6
		아들	아버지	MF35-6421_615, 634, 651 MF35-6425_2270	4
		며느리	시아버지	MF35-6421_613, 629-1, 633-1, 635, 635-1, 676 MF35-6422_932, 933, 940, 942, 961, 1004, 1068, 1077, 1105, 1109, 1110, 1125, 1156, 1188 MF35-6424_1803, 1889, 1890	23
		손자며느리	할아버지	MF35-6421_633, 662 MF35-6422_1082 MF35-6425_2257, 2282	5
2	형제자매	누이	오빠	MF35-6421_632, 694, 791-1 MF35-6422_1215	4
		사내 아우	누이	MF35-6425_2260	1
		아우 아내	아주버니	MF35-6422_952	1
3	숙질	조카며느리	숙부	MF35-6424_1759	1
4	종형제				0
5	종숙질				0
6	재종형제				0
7	사돈교우	사돈	사돈	MF35-6422_960	1
		기타	기타	MF35-6421_667 MF35-6425_2053	2
8	상전하인	전호	전주	MF35-6420_105 MF35-6421_600 MF35-6422_957	3
		하인	상전	MF35-6429_100, 101 MF35-6420_322 MF35-6421_563, 596-1, 786 MF35-6422_997	7

【도표 2-2】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 한글 간찰의 연대

연대	편수	발신자	수신자	MF 문서 번호
1882 壬午	2	하인	상전	MF35-006421_786 MF35-006429_100
1883 癸未	2	하인	상전	MF35-006420_322 MF35-006429_101
1901 辛丑	1	사돈	사돈	MF35-006422_960
1904 甲辰	2	손자며느리	시할아버지	MF35-006422_1082
		하인	상전	MF35-006421_563
1905 乙巳	1	의원	환자	MF35-006425_2053
1906 丙午	1	전호	전주	MF35-006420_105
1907 丁未	1	전호	전주	MF35-006422_957
1908 戊申	1	조카며느리	아주버니	MF35-006424_1759
1914 甲寅	2	며느리	시아버지	MF35-006421_676 MF35-006422_933
1916 丙辰	3	며느리	시아버지	MF35-006422_1068 MF35-006422_961 MF35-006422_942
1919 己未	2	며느리	시아버지	MF35-006422_1125 MF35-006422_1109
1920 庚申	4	며느리	시아버지	MF35-006421_651 MF35-006424_1803 MF35-006424_1890 MF35-006424_1889
1921 辛酉	7	며느리	시아버지	MF35-006422_1004 MF35-006422_1077 MF35-006421_633-1 MF35-006421_635 MF35-006421_635-1 MF35-006424_1188 MF35-006421_667
1935 乙亥	3	남편	아내	MF35-006421_620
		아들	아버지	MF35-006421_615
		사내 아우	누이	MF35-006425_2260

【도표 2-3.1】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의 세계(1)

구분	1	2	3	4	5	6	7	8
①	潶	克剛 -克恕-	汀 -濱-	敬孫 -義孫- 信孫 末孫	-季潼- (系子)	-軾- 轒 輮 轂	胤德 胤福 胤弼 -胤善- 胤誠 胤生 胤清 胤良	-城- 垣 㙐
②				-末孫-	-季涼- •季潼•			

【도표 2-3.2】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의 세계(2)

구분	9	10	11	12	13	14	15	16
①	-復起- 復立	-友潛- 得潛 知潛 守潛 宜潛 希潛	-樕- 椶 梆 桴 格	-振輝- 挺輝 增輝 益輝	宗時 -奉時-	升鉉 -觀鉉-	-通源- •道源• 長源 拱源 還源	-星休- 川休 龜休
②						-升鉉-	-道源- (系子) 演源	-範休- 洛休 玄休
③								

【도표 2-3.3】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종택의 세계(3)

구분	17	18	19	20	21	22		
①	-晦文- 暾文 晫文 鼓文 昶文 晈文	-致明-	-止鎬- (系子)	-淵博- 淵成	-東蓍-	-澤蕃- 重蕃 必蕃		
					-東著-	-萬榮- 尙榮 禹榮		
					-東英-	-興蕃- 吉蕃		
②	-魯文- 鼎文	致任 -致儉- 致儼	•止鎬• -廷鎬-					
③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01 0-01. 海尹_MF35-3208_606-1(17x100cm): 남편 → 아내(1925)

1. 판독

두어쥴등ᄒᆞ의적으오니
긤족하시옵거번츌발ᄒᆞ
든날일긔설넝ᄒᆞᆫ즁무ᄉᆞ
이득정ᄒᆞ엿난지ᄋᆞ지못ᄒᆞ
여궁금ᄒᆞ압어연다일되ᄆᆡ
그동안[隔1]신상노희업시안즁
ᄒᆞ시고유ᄋᆞ연ᄎᆞ즁의성화
업시가서무톨ᄒᆞ난게옵[移1]
[右添13]
[隔2]큰ᄋᆞ도무톨ᄒᆞ고박실갓
[隔2]ᄂᆞᆫ게옵[移1]
친당상근력손섭지절업
ᄉᆞ오시고성빈제절이ᄐᆡ평
들하신게옵두루탐염이
옵이곳은즁당근력첨손
지절은아니게시고ᄋᆞ희들
ᄃᆡ탈업고각가현고업스니
든〃ᄒᆞ나즁녹이놈이가아려
잘먹지못ᄒᆞ니답〃ᄒᆞ압
거긔신혼일ᄌᆞ지격ᄒᆞᆫ듯

ᄒᆞ여ᄒᆞ인부리나ᄋᆞ모것보
날것업서빈ᄒᆞ인지방ᄒᆞ
여도리여무안ᄒᆞᆯᄯᅳᆺᄒᆞ압
도야지은관조가먹인거슨
파려서장에서ᄒᆞᆫ마리ᄉᆞ오
라ᄒᆞ엿더니ᄉᆞ온게너머적
어볼품이업슬ᄯᅳᆺᄒᆞ압연
이ᄂᆞ금번근친길ᄒᆞ신거
슨홍상울〃이지ᄂᆡ인고
로말유치ᄋᆞ이하여ᄉᆞᆸ가
사ᄲᅮᆫᄋᆞ이라유ᄋᆞ다리고광
일되는게불긴ᄒᆞ고세시
가ᄯᅩᄒᆞᆫ임박ᄒᆞ여오니두
루관염된일이만치ᄋᆞ
이하압슈일전에강동서
영히속키보ᄂᆡ여달ᄂᆞ고
전보가왓섯ᄉᆞᆸᄋᆞ마강동
서전보친은날증용이
가강동드러갓슬듯ᄒᆞᄋᆞᆸ
그러ᄒᆞ나발정ᄒᆞ여갓다
고답전ᄒᆞ엿삽게서더ᄉᆞ
보고ᄂᆡ월초육일에기여
히ᄂᆡ려오시ᄋᆞᆸ초칠팔일
경에ᄂᆡ가츌립ᄒᆞ려ᄒᆞ
ᄋᆞᆸ어린연집이ᄉᆡᆼ각ᄋᆞ이

ᄒᆞ난게ᄋᆞᆸᄂᆞ난ᄋᆞᆫ에드러가
면어린연이보이지ᄋᆞ이ᄒᆞ
여ᄋᆞ모푸접이업ᄂᆞᆫ것갓
ᄉᆞᆸ초육일에ᄋᆞᆫ기여히너
려오시ᄋᆞᆸ등ᄒᆞ의정신ᄒᆞ
리여이만근치ᄋᆞᆸ[移1]
[隔1]을축지월염팔일
[隔4]윤명현상장

2. 전사 · 주석

두어 ᄌᆞᆯ 등ᄒᆞ(燈下)의 적으오니 짐족(斟酌)[1]하시ᄋᆞᆸ 거번(去番) 츌발(出發)ᄒᆞ든 날 일긔(日氣) 설닝(雪冷)ᄒᆞᆫ 즁(中) 무ᄉᆞ(無事)이 득정(得程)[2]ᄒᆞ엿난지 ᄋᆞ지 못ᄒᆞ여 궁금ᄒᆞ압 어연 다일(多日) 되미 그 동안 신상(身上)[3] 노희(路害) 업시 안즁(安重)ᄒᆞ시고 유ᄋᆞ(乳兒)연[4] ᄎᆞ즁(車中)의 셩화(成火)[5] 업시 가서 무톨(無頉)ᄒᆞ난 게ᄋᆞᆸ[6] 큰 ᄋᆞ도 무톨ᄒᆞ고 박실[7] 갓ᄂᆞᆫ 게ᄋᆞᆸ 친당상(親堂上)[8] 근력(筋力) 손 섭지절(損攝之節)[9]

---

1) 짐족(斟酌) : 짐작. 얼추 헤아림.
2) 득정(得程) : 득도(得道). 득달(得達). 득정(得程).
3) 신상(身上) : (사람의) 몸이나 처신(處身),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그 형편. 득정(得程) : 득도(得道). 득달(得達).
4) 유ᄋᆞ(乳兒)연 : 젖먹이 계집아이를 '-년'으로 낮추어 가리킨 말.
5) 셩화(成火) : 몹시 귀찮게 구는 일.
6) 게ᄋᆞᆸ : 것이옵[니까].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을 때에 '게ᄋᆞᆸ'을 쓰는 사례가 흔히 보인다.
7) 박실 : 지명.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박동리(朴東里) 박동.

업ᄉᆞ오시고 성번제절(盛蕃諸節)[10]이 태평(太平)들하신 게옵 두루 탐염(探廉)[11]이옵 이곳은 중당(中堂)[12] 근력 첨손지절(添損之節)[13]은 아니 게시고 ᄋᆞ희들 대탈(大頉) 업고 각가(各家) 현고(顯故)[14] 업스니 든든ᄒᆞ나 중녹[15]이놈 이가 아려 잘 먹지 못ᄒᆞ니 답답ᄒᆞ압 거긔 신혼(新婚) 일ᄌᆞ(日字) 지격(至隔)[16]ᄒᆞᆫ 듯ᄒᆞ여 ᄒᆞ인(下人) 부리나 ᄋᆞ모 것 보낼 것 업서 빈 ᄒᆞ인 ᄌᆡ방(再訪)ᄒᆞ여 도리여 무안(無顔)ᄒᆞᆯ 쯧ᄒᆞ압 도야지[17]은 관조[18]가 먹인 거슨 파려서[19] 장에서 ᄒᆞᆫ 마리 ᄉᆞ오라 ᄒᆞ엿더니 ᄉᆞ온 게 너머 적어 볼품이 업슬 쯧ᄒᆞ압 연(然)이ᄂᆞ 금번(今番) 근친(覲親)[20] 길ᄒᆞ신[21] 거슨 ᄒᆞᆼ상(恒常) 울울(鬱鬱)이 지니인 고(故)로 말유(挽留)치 ᄋᆞ이하여습 가사(家事)ᄲᅮᆫ ᄋᆞ이라 유ᄋᆞ(乳兒) 다리고 광일(曠日)[22]되는 게

---

8) 친당상(親堂上) : 친부모. 여기서는 근친하러 간 수신자 아내의 어버이, 곧 발신자 남편의 장인·장모.
9) 손섭지절(損攝之節) : 입맛이 떨어져 먹는 것이 덜리게 되는 건강상의 악화.
10) 성번제절(盛蕃諸節) : 여러 식솔들의 기거와 동작. '제절'(諸節)은 존처(尊處)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집안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그 형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11) 탐염(探廉) : 염탐(廉探). 남의 사정을 몰래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흔히 '염탐'(廉探)이라고 하나, 여기서 말하는 '탐염'(探廉)은 단순히 '궁금하게 여기다'의 뜻으로 쓰였다.
12) 중당(中堂) : 안채에 계신 어버이.
13) 첨손지절(添損之節) : 병환이 더치게 되는 건강상의 악화.
14) 현고(顯故) : (걱정거리로서)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연고(緣故).
15) 중녹 : 인명. 집에서 부리던 종의 이름인 듯하다.
16) 지격(至隔) : 정해진 날이 가까이 닥쳐옴.
17) 도야지 : 돼지.
18) 관조 : 인명. 집에서 부리던 노비의 이름인 듯하다.
19) 파려서 : 팔아서.
20)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뵘.
21) 길ᄒᆞ신 : 길을 가신. '길을 가다'라는 뜻으로 '길하다'라는 말을 쓰는 사례가 다른 편지에서도 더러 보인다.
22) 광일(曠日) :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냄.

불긴(不緊)ᄒᆞ고[23] 세시(歲時)[24]가 ᄯᅩᄒᆞᆫ 임박(臨迫)ᄒᆞ여 오니 두루 관념(關念)[25]된 일이 만치 ᄋᆞ이하압 슈일(數日) 전(前)에 강동[26]서 영히[27] 속키 보ᄂᆡ여 달ᄂᆞ고 전보(電報)가 왓삽 ᄋᆞ마 강동서 전보 친은 날 증용[28]이가 강동 드러갓슬 듯ᄒᆞ옵 그러ᄒᆞ나 발정(發程)[29]ᄒᆞ여 갓다고 답전(答電)ᄒᆞ엿삽 게서 ᄃᆡᄉᆞ(大事) 보고 ᄂᆡ월(來月) 초육일에 기여히[30] ᄂᆡ려 오시옵 초칠팔일 경에 ᄂᆡ가 츌립(出入)ᄒᆞ려 ᄒᆞ옵 어린연[31] 집이 싱각 ᄋᆞ이ᄒᆞ난 게옵 ᄂᆞ난 온에 드러가면 어린연이 보이지 ᄋᆞ이ᄒᆞ여 ᄋᆞ모 푸접[32]이 업ᄂᆞᆫ 것 갓삽 초육일에은 기여히 ᄂᆡ려 오시옵 등ᄒᆞ(燈下)의 정신 흐리여 이만 근치옵[33]

을축(乙丑 : 1925) 지월(至月) 염팔일(念八日)[34] 윤뎡현(尹定鉉)[35] 상장(上狀)

---

23) 불긴(不緊)ᄒᆞ고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고.

24) 세시(歲時) : 설. 또는, 한 해의 절기나 계절에 따른 때. 여기서는 '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25) 관념(關念) : 관심(關心).

26) 강동 : 지명.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永東里) 강동(講洞).

27) 영히 : 인명. 발신자의 둘째 아들 '영희'(泳禧, 1908~1951).

28) 증용 : 인명. 집에서 부리던 노비의 이름인 듯하다.

29) 발정(發程) : 길을 떠남.

30) 기여히 : 기어이. 꼭. 반드시.

31) 어린연' : 인칭. 발신자의 막내딸 '영순'(泳順). 큰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얻은 딸이자 자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였던 까닭에 더욱 그리웠던 듯하다.

32) 푸접 : ('있다'·'없다'·'좋다' 따위와 함께 쓰여) 남에게 인정이나 붙임성·포용성 따위를 가지고 대하는 성질. 여기서는 '(집안이 텅 빈 듯하여) 마음을 붙일 만한 데'라는 뜻으로 쓰였다.

33) 근치옵 : 그치옵[니다]. '근치다'는 '그치다'의 전라도 사투리.

34) 염팔일(念八日) : 28일.

35) 윤뎡현(尹定鉉) : 인명.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

3. 현대어역

두어 줄 등불 아래에서 적으오니 짐작하시옵. 접때 출발하던 날, 날씨가 눈 속에 추운 가운데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궁금하옵. 어언 여러 날 되매, 그 동안 몸에 여독(旅毒) 없이 안녕하시고, 젖먹이 년은 차 속에 귀찮게 구는 일 없이 가서 아무 탈 없는 것이옵[니까]? 큰 아이도 아무 탈 없고, 박실에 간 것이옵[니까]? 친정 어버이 근력에 드시는 것이 줄어들 만큼 나쁜 병환은 없으시고, 집안의 여러 식솔들이 태평들 하신 것이옵[니까]? 두루 궁금하게 여겨지옵. 이곳은, 안채 어버이 근력에 더친 병환은 아니 계시고, 아이들 큰 탈 없고, 여러 집 특별한 연고(緣故) 없으니 든든하나, [다만] 증록이 놈이 이가 아려서 잘 먹지 못하니 답답하옵. 거기 신혼(新婚) 날짜 가까이 다가온 듯하여 하인을 부리[기는 하]나, 아무 것도 [마땅히] 보낼 것이 없어, 빈 하인만 거듭 오가게 되어 무안할 듯하옵. 돼지는, 관조가 먹인 것은 팔아서 장에서 한 마리 사오라고 하였더니, 사온 것이 너무 적어 볼품이 없을 듯하옵. 그러하나, 이번에 근친(覲親)하러 길을 나신 것은, [당신이] 언제나 답답하게 지내던 까닭에 말리지 아니하였삽. 집안일뿐만 아니라 젖먹이 데리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꼭 그렇게 할 바는 아니고 설이 또한 가까워 오니 두루 마음을 쓸 일이 많지 아니하옵. 며칠 전에 강동에서 영희를 빨리 보내어 달라고 전보가 왔었삽. 아마 강동에서 전보 치던 날, 증용이가 [이미] 강동에 들어갔을 듯하옵. 그러하나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출발하여 갔다.'고 답전(答電)을 하였삽. 거기에서 대사(大事) [치르는 것을] 보고 다음달 초엿새에는 꼭 내려 오시옵. 초칠팔일 경에 내가 나들이하려 하옵. 어린년, 집 생각은 아니하는 것이옵[니까]? 나는 집안에 들어가면 어린년이 보이지 아니하여 아무런 마음을 붙일 데가 없

는 것 갈삽. 초엿새에는 꼭 내려 오시옵. 등불 아래에 [쓰는 터라] 정신이 흐리어 이만 그치옵.

을축(乙丑 : 1925)년 동짓달 28일, 윤정현 올림.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이 그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보낸 1925년 12월 2일의 편지이다.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06의 뒤에 딸려 있지만, 사실은 별개의 편지인 까닭에 '606-1'이라고 임의로 번호를 붙였다.

02 0-02. 海尹_MF35-3208_605(23x15cm): 남편 → 아내(1926)

1. 판독

상장
집떠ᄂᆞᆫ지어연다일되니멀니잇
서답울이옵요싀츈긔점〃화
충ᄒᆞ난ᄃᆡ두로노신ᄒᆞ오신신상
누리ᄋᆞᆫ즁ᄒᆞ시고죠부쥬엄〃

ᄒᆞ오신근력이간엇더ᄒᆞ시와쳠
환지절아이게시오며가ᄋᆞ들여러
놈믜무톨ᄒᆞ고혼솔이무탈
ᄒᆞ는게ᄋᆞᆸ며느리둘다무톨ᄒᆞ난
게ᄋᆞᆸ큰ᄋᆞ은염소고녀여요식먹
난게ᄋᆞᆸ믜일식전과낫식이의ᄒᆞᆫ
보우식데워먹으라ᄒᆞ시ᄋᆞᆸ타조
은요세식시ᄋᆞᆸᄐᆞᆫᄒᆞ면우선열
섬문축실ᄒᆞᆫ것들만쥬어식킈
시ᄋᆞᆸ진쥬히ᄋᆞ의게ᄒᆞᆨ비부치라ᄒᆞ
엿더니붓치여는지모르겟습금쇄
동남무을몰예ᄒᆞᆫ놈들을녀가
집이잇슬ᄊᆡ경츈이을돈밧더오
긔로보녀여더니경츈온걸못보
고왓섯삽ᄋᆞ마언마느바더왓슬
듯ᄒᆞ오니무러보서서바더왓스면
그돈이언마가되넌지삼십니환가
량을곳전보로진쥬ᄋᆞ히의게급피
부치시고그돈못바더왓다ᄒᆞ면여현
이식긔여벼여돈이라도거긔부칠
만굼잡버오라ᄒᆞ여급피부치여
쥬시ᄋᆞᆸ영히처놈형제일전
에진쥬녀려갓스니ᄋᆞ마저의여려
놈믜동힝ᄒᆞ여히놉ᄶᅡ지갈듯
ᄒᆞᄋᆞᆸ반촌이던지술이느좀쥰

비ᄒᆞ여두시옵두로원염이옵이곳
은예와ᄋᆞ즉긔톨업스니다힝이
옵환가은경성서오육일더
유련ᄒᆞ고너려갈ᄯᅢ의광쥬로가
서ᄒᆞ루유련ᄒᆞ고환가ᄒᆞ려ᄒᆞ옵
저간십여일유련광일이될
ᄯᅳᆺᄒᆞ옵밤이면ᄋᆞᆫ팟문을단속
ᄒᆞ라ᄒᆞ시옵갈머리서벼갑사십
팔환과싱청갑이왓스면큰ᄋᆞ
더러여현이와의논ᄒᆞ여그돈과벼
여돈잡어빅ᄉᆞᆷ십환만너게편지
써서편지즁에돈표너어관슈동
사가번지로급피부치라ᄒᆞ시옵
이곳은경성와서ᄉᆞ관은티평동
티평여관에ᄒᆞ여ᄋᆞ즉잇쓰ᄂᆞᆫ슉
박요가ᄒᆞ루삼환식되니너머빗
ᄉᆞᆫ고로명일ᄐᆞ처로사관을옴
긔려ᄒᆞ옵적선동염여은족금치
도마시옵그러ᄂᆞᆫ억지로거절ᄒᆞ
려ᄒᆞ니그역우섭ᄉᆞᆸ등ᄒᆞ이만근
치오니긤족ᄒᆞ시옵윤정현상장
병인정월염칠일
[皮封]
全南海南郡海南面蓮洞[移1]
尹[隔1]參議[小2]定鉉本第[移1]

[隔5]內第

京城府太平通太平旅館丙

謹丶[隔3]尹定鉉[小2]心付

2. 전사 · 주석

상장(上狀)[1]

집 떠ᄂᆞᆫ 지 어연 다일(多日) 되니 멀니 잇서 답울(-鬱)[2]이ᄋᆞᆸ 요ᄉᆡ 츈긔(春氣) 점점 화ᄎᆞᆼ(和暢)ᄒᆞ난ᄃᆡ 두로 노신(老身)ᄒᆞ오신 신상(身上)[3] 누리[4] ᄋᆞᆫ즁(安重)ᄒᆞ시고 죠부쥬(祖父主) 엄엄(奄奄)[5]ᄒᆞ오신 근력(筋力)이 간(間) 엇더ᄒᆞ시와 첨환지절(添患之節) 아이 게시오며 가ᄋᆞ(家兒)들 여러 놈ᄆᆡ 무ᄐᆞᆯ(無頉)ᄒᆞ고 혼ᄉᆞᆯ(渾率)이 무탈ᄒᆞᄂᆞᆫ 게ᄋᆞᆸ[6] 며ᄂᆞ리 둘 다 무ᄐᆞᆯᄒᆞ난 게ᄋᆞᆸ 큰 ᄋᆞ은 염소 고ᄂᆡ여 요ᄉᆡ 먹난 게ᄋᆞᆸ ᄆᆡ일(每日) 식전(食前)과 낫 ᄉᆡ이의 ᄒᆞᆫ 보우식[7] 데워 먹으라 ᄒᆞ시ᄋᆞᆸ 타조(打租)[8]은 요세

---

1) 상장(上狀) : 올리는 글월. 편지 받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쓰는 말이다.

2) 답울(-鬱) : 답답함. 서로 같은 뜻을 지니는 '답답(하다)'와 '울적(鬱寂)(하다)'를 하나로 붙여서 심정이 답답함을 강조한 말이다.

3) 신상(身上) : (사람의) 몸이나 처신(處身),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그 형편.

4) 누리 : ᄂᆞᆯ. 언제나.

5) 엄엄(奄奄) : (숨이 곧 끊어지기라도 할 듯이) 매우 약한 모양.

6) 게ᄋᆞᆸ : 것이옵니까.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을 때에 '게ᄋᆞᆸ'을 쓰는 사례가 다른 편지에서도 흔히 보인다.

7) ᄒᆞᆫ 보우식 : 한 보시기씩. '보우'는 '보ᄉᆞ'에서 바뀌어 나온 바로서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작은 사발을 뜻한다.

8) 타조(打租) : 타조법(打租法).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를 '타조법'(打租法)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주가 소

식시옵[9] 투(打)ᄒᆞ면[10] 우선 열 섬[11]만 축실(着實)ᄒᆞᆫ 것들만 쥬어 식킈시옵 진쥬(晉州)[12] 히ᄋᆞ(禧兒)의게[13] ᄒᆞㄱ비(學費) 부치라 ᄒᆞ엿더니 붓치여ᄂᆞᆫ지 모르겟숩 금쇄동(金鎖洞)[14] 남무을 몰예 ᄒᆞᆫ[15] 놈들을 너가 집이 잇슬 ᄯᅢ 경츈[16]이을 돈 밧더 오긔로 보ᄂᆡ여더니 경츈 온 걸 못 보고 왓섯삽 ᄋᆞ마 언마ᄂᆞᆫ 바더 왓슬 듯ᄒᆞ오니 무러 보서서 바더 왓스면 그 돈이 언마가 되넌지 삼십니 환(圜) 가량을 곳 전보(電報)로 진쥬 ᄋᆞ히의게 급(急)피 부치시고 그 돈 못 바더 왓다 ᄒᆞ면 여현[17]이 식긔여 벼여돈[18]이라도 거긔 부칠 만굼 잡버 오라 ᄒᆞ여 급피 부치여 쥬시옵 영히[19] 처남(妻娚) 형제 일전에 진쥬 너려 갓스니 ᄋᆞ마 저의 여려 놈미(娚妹) 동ᄒᆡᆼ(同行)ᄒᆞ여 ᄒᆡ남(海南)[20]ᄭᅡ지 갈 듯ᄒᆞ옵 반츤(飯饌)이던지 슐이ᄂᆞᆫ 좀

작인을 시켜서 하는 '탈곡'(脫穀), 특히 '정미'(精米)의 과정을 거치는 탈곡을 말하는 듯하다. 지주가 한 해의 소작료를 곡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추수기에 그냥 그것을 낟알로 받거나 또는 추수기를 넘겨서 소작인이 저장해 둔 곡식을 정미(精米)해서 받거나 할 수 있다.

9) 식시옵 : 시키시압. '식킈시옵'이라고 적어야 할 데서 '-킈'를 실수로 빠뜨리고 적었다.

10) 투(打)ᄒᆞ면 : 타조(打租)를 하면. 한어 '打'는 '作'·'爲'와 같은 뜻을 지니는 바로서 우리말 '-하다'로 더불어 비슷한 기능을 보이는 말이다.

11) 섬 : 곡식이나 가루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쓰는 분량의 단위. 한 섬은 열 말이고, 한 말은 열 되이다.

12) 진쥬(晉州) : 지명. 경상남도 진주시(晉州市).

13) 히ᄋᆞ(禧兒)의게 : 발신자의 둘째 아들 '영희'(泳禧, 1908~1951)를 어버이의 지위에서 일컬어 '희아'라고 한 것이다. 당시에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듯하다.

14) 금쇄동(金鎖洞) : 지명.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금쇄동. '금쇗골'이라고도 이른다.

15) 남무을 몰예ᄒᆞᆫ : 나무를 몰래 한.

16) 경츈 : 인명.

17) 여현 : 인명.

18) 벼여돈 : 빌려서 쓰는 돈.

19) 영히 : 인명. 발신자의 둘째 아들 '영희'(泳禧, 1908~1951).

20) ᄒᆡ남(海南) : 지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군이

쥰비(準備)ᄒᆞ여 두시ᄋᆸ 두로 원염(遠念)[21]이ᄋᆸ 이곳은 예 와 ᄋᆞ즉 ᄀᆡᆨ톨(客頉) 업스니 다ᄒᆡᆼ(多幸)이ᄋᆸ 환가(還家)은 경셩(京城)서 오육 일 더 유련(留連)ᄒᆞ고 ᄂᆡ려갈 ᄯᅵ의 광쥬(光州)[22]로 가서 ᄒᆞ루 유련ᄒᆞ고 환가ᄒᆞ려 ᄒᆞᄋᆸ 저간(這間) 십여 일 유련 광일(曠日)[23]이 될 ᄯᅳᆺᄒᆞᄋᆸ 밤이면 ᄋᆞᆫ팟 문을 단속(團束)ᄒᆞ라 ᄒᆞ시ᄋᆸ 갈머리[24]서 벼갑 사십팔 환과 ᄉᆡᆼ청(生淸) 갑[25]이 왓스면 큰 ᄋᆞ더러 여현이와 의논ᄒᆞ여 그 돈과 벼여돈 잡어 ᄇᆡᆨ숩십 환만 ᄂᆡ게 편지 써서 편지 즁에 돈표[26] 너어 관슈동(觀水洞)[27] 사가(私家)[28] 번지로 급피 부치라 ᄒᆞ시ᄋᆸ 이곳은 경성 와서 ᄉᆞ관(舍館)[29]은 ᄐᆡ평동[30] ᄐᆡ평여관에 ᄒᆞ여 ᄋᆞ즉 잇쓰ᄂᆞ 슉박요가 ᄒᆞ루 삼 환식 되니 너머 빗ᄉᆞᆫ 고(故)로 명일(明日) ᄐᆞ처(他處)로 사관을 옴기려

면의 안동, 오천, 백야, 부흥, 구리, 온인, 남천, 세정, 기동, 장호, 신리, 부호, 송용, 용정의 14개 동리를 병합하여 해남면이라 하였다. 1955년 6월 29일, 법률 제359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쪽은 옥천면, 남쪽은 삼산면과 화산면, 서쪽은 바다 건너 황산면, 북쪽은 마산면에 닿는다.

21) 원염(遠念) : 먼 데서 걱정이 됨.

22) 광쥬(光州) : 지명.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23) 광일(曠日) :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냄.

24) 갈머리 : 지명.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금당리(金塘里) 갈머리. 금당 동남쪽에 있는 마을.

25) ᄉᆡᆼ청(生淸) 갑 : 생청 값. 벌의 꿀물에서 떠낸,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꿀을 '생청'(生淸)이라 이른다.

26) 돈표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표로서, 수표(手標)·어음 따위를 말한다.

27) 관슈동(觀水洞) : 지명.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에 따라, 이전 장통방의 입동·비파동·모곡동 및 상판교 등지의 일부를 병합하여, 청계천의 유수(流水)를 관망한다는 뜻에서 관수동(觀水洞)이라 하였다.

28) 사가(私家) : 사삿집. 여기서는 발신자가 머무르던 하숙집을 뜻한다.

29) ᄉᆞ관(舍館) : 사관(私館). 하숙(下宿). 객지에 있는 동안에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머무는 남의 집. 또는, 그렇게 숙식하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30) ᄐᆡ평동(太平洞) : 지명.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태평동.

ᄒᆞᄋᆸ 적선동(積善洞)[31] 염여(念慮)은 족금치도 마시ᄋᆸ 그러ᄂᆞ 억지로 거절(拒絶)ᄒᆞ려 ᄒᆞ니 그 역(亦) 우섭ᄉᆸ 등ᄒᆞ(燈下) 이만 근치오니 김족[32]ᄒᆞ시ᄋᆸ 윤정현[33] 상장

병인(丙寅 : 1926) 정월 염칠일(念七日)[34]

[皮封]

全南 海南郡 海南面 蓮洞 尹參議[35]定鉉 本第 內第

京城府 太平通 太平旅館 丙[36]

謹封 尹定鉉 心付

3. 현대어역

올림

집 떠난 지 어언 여러 날 되니, 멀리 있어 답답이옵. 요새 봄기운이 점점 화창한데, [어버이들] 두루 늙으신 몸은 늘 안녕하시고, 할아버지

---

31) 적선동(積善洞) : 지명.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에 따라, 이전 적선방의 어교·월궁동·십자교와 사온동 일부와 인달방의 장흥동 종교 등지의 일부를 병합하여 적선동이라 하였다.

32) 김족 : 짐작(斟酌).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림.

33) 윤정현 : 인명.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

34) 염칠일(念七日) : 27일. 스물을 뜻하는 한어 '卄'(二十)의 중국 속음이 '念'과 더불어 [nian⁴]으로 같아지면서 '念'으로써 '卄'을 대신해서 적는 속습이 생겼다.

35) 參議 : 관직. 참의(參議)는 조선시대에 육조의 정3품 당상관직을 말하는 바이나, 여기서는 일제(日帝)의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中樞院)의 찬의(贊議)·부찬의(副贊議)를 아울러 말하는 바이다.

36) 丙 : 여관 숙소의 등급을 갑(甲)·을(乙)·병(丙)으로 나눌 때에 그 셋째에 드는 집채를 가리켜 말한 듯하다.

여리신 근력은 이 사이 어떠하시어 더치신 병환(病患) 아니 계시오며, 집 아이들 여러 남매(娚妹) 아무 탈 없으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아무 탈 없는 것이옵[니까]? 며느리 둘 다 아무 탈 없는 것이옵[니까]? 큰 아이는 염소를 고아 내어 요새 먹는 것이옵[니까]? 날마다 식전과 낮 사이에 한 보시기씩 데워 먹으라고 하시옵. 타조(打租)는 요새 시키시옵. 타조하게 되면 우선은 열 섬만, 착실한 것들만 주어 시키시옵. 진주(晉州)[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에게 학비를 부치[어 보내]라 하였더니, 부쳤는지 모르겠삽. 금쇄동(金鎖洞) 나무를 몰래 한 놈들을 내가 집에 있을 때에 경춘이를 [시켜서] 돈 받아 오라고 보냈더니, 경춘이가 [돈을 받아] 온 것을 [미처] 못 보고 [서울에] 왔었삽. 아마 얼마나 받아 왔을 듯하오니, 물어보셔서, 받아 왔으면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 32환 가량을 곧 전보로 진주 아이에게 급히 부치시고, 그 돈 못 받아 왔다 하면, 여현이 시키어 빌려 쓰는 돈이라도 거기에 부칠 만큼 잡아 오라 하여 급히 부쳐 주시옵. 영희네 처남 형제가 며칠 앞서 진주로 내려 갔으니, 아마 저희 여러 남매와 동행하여 해남까지 갈 듯하옵. 반찬이라든지 술이나 좀 준비하여 두시옵. 두루 멀리서 걱정이 되옵. 이곳은, 여기에 와서 아직 다른 탈은 없으니 다행이옵.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서울에서 오륙 일 동안 더 머물러 있다가, 내려갈 때에 광주(光州)로 가서 하루 머물고 돌아가려 하옵. 이 동안 십여 일 머무른 일은 [그저]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만 보낸 것이 될 듯하옵. 밤이면 안팎으로 문을 단속하라 하시옵. 갈머리에서 벼값 48환과 꿀값이 왔으면, 큰 아이더러 여현이와 의논하여, 그 돈과 빌려 쓰는 돈을 잡아 130환만 내게 편지 써서 편지 속에 돈표 넣어 관수동(觀水洞) 하숙집 번지로 급히 부치라 하시옵. 이곳은, 서울에 와서, 하숙집은 태평동 〈태평여관〉에 [머물기로] 하여 아직 있으나, 숙박료가 하루 3환씩 되니, 너무 비싸서 내일 다른 곳으로 하숙집을 옮기

려 하옵. 적선동 염려는 조금치도 마시옵. 그러나 억지로 거절하려 하니 그 또한 우습삽. 등불 아래[에서 적는 터이오라], 이만 그치오니 짐작하시옵. 윤정현 올림.

병인(丙寅)년 정월 27일.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이 1926년에 서울에서 해남으로 그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보낸 편지이다. 당시에 그는 일제(日帝) 총독부의 자문기관 중추원(中樞院)에 참의(參議)의 자격으로 서울에 내왕했던 듯하다. 요즘의 풍습에 비하면, 부인을 대단히 깍듯하게 예대(禮待)하고 있음이 편지의 격식이나 용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03 0-03. 海尹_MF35-3208_679(23x15cm): 남편 → 아내(1926)

1. 판독

양ᄎᆞ서봉을일시의바더적조궁
금ᄒᆞ든가신을듯사오니희힝만
〃이옵서후다일되여도로히궁금

ᄒᆞᆫ마ᄋᆞᆷ일반이온ᄃᆡᄎᆞ시츈긔완
연ᄒᆞ온즁ᄇᆡᆨ사어득골물ᄒᆞ신신상
느리안즁ᄒᆞ오시고즁당근력ᄃᆡ단쳠
손지환은업ᄉᆞ시고ᄋᆞ희들다남
ᄆᆡ무톨ᄒᆞ고부ᄋᆞ들형제평길
ᄒᆞ고혼가이여전무탈ᄒᆞᄋᆞᆸ고각
들안온ᄒᆞ나잇가원렴부리이ᄋᆞᆸ
곳은ᄀᆡᆨ즁시사여전ᄒᆞ고게제무
ᄉᆞ리도ᄒᆞ니든〃ᄒᆞ고진쥬히ᄋᆞ난작
일ᄋᆞ침ᄎᆞ의저의남ᄆᆡ진쥬서경
성으로ᄂᆡ도ᄒᆞ엿ᄉᆞᆸ금일제큰
처남과동ᄒᆡᆼᄒᆞ여희남ᄂᆡ려간다
고ᄒᆞ압ᄂᆡ가다리고ᄒᆞᆫ긔가려ᄒᆞ
엿더니ᄂᆞ은슈일더유련ᄒᆞ고ᄂᆡ
려갈ᄭᆡ광쥬들이여ᄒᆞ로만유
즉시환가ᄒᆞ려ᄒᆞ압집의나온제
너머광일되여가즁여려가지
볼일관염이ᄋᆞᆸ여즁ᄀᆡᆨ번ᄒᆞ
여이만ᄭᅳᆫ삽[移1]
[隔3]병인니월초십일일[移1]
[隔8]상장

2. 전사 · 주석

양ᄎᆞ(兩次) 서봉(書封)을 일시(一時)의 바더 적조(積阻)[1] 궁금ᄒᆞ든 가신(家信)을 듯사오니 희ᄒᆡᆼ(喜幸) 만만(萬萬)이ᄋᆸ 서후(書後) 다일(多日) 되여 도로히 궁금ᄒᆞᆫ 마ᄋᆞᆷ 일반(一般)이온ᄃᆡ ᄎᆞ시(此時) 츈긔(春氣) 완연(完然)ᄒᆞ온 즁(中) ᄇᆡᆨ사(百事) 어득[2] 골물(汨沒)ᄒᆞ신[3] 신상(身上) 느리[4] 안즁(安重)ᄒᆞ오시고 즁당(中堂)[5] 근력(筋力) ᄃᆡ단 첨손지환(添損之患)은 업ᄉᆞ시고 ᄋᆞ희들 다남ᄆᆡ(多娚妹) 무톨(無頉)ᄒᆞ고 부ᄋᆞ(附兒)[6] 들 형제 평길(平吉)ᄒᆞ고 혼가(渾家)[7]이 여전(如前) 무탈(無頉)ᄒᆞᄋᆸ고 각(各)들[8] 안온(安穩)ᄒᆞ나잇가 원렴(遠念) 부리(不已)이ᄋᆸ 곳은 ᄀᆡᆨ즁(客中) 시사(時事) 여전ᄒᆞ고 게제(季弟) 무ᄉᆞ(無事) ᄅᆡ도(來到)ᄒᆞ니 든든ᄒᆞ고 진쥬(晉州)[9] 희ᄋᆞ(禧兒)[10]난 작일(昨日) ᄋᆞ침 ᄎᆞ(-車)의 저의 남ᄆᆡ 진주서 경성(京城)으로 ᄂᆡ도(來到)ᄒᆞ엿ᄉᆸ 금일(今日) 제 큰 처남(妻娚)과 동ᄒᆡᆼ(同行)ᄒᆞ여 ᄒᆡ남(海南)[11] ᄂᆡ려간다고 ᄒᆞᆸ ᄂᆡ가 다리고 ᄒᆞᆫ긔[12]

---

1) 적조(積阻) :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소식이 막힘.
2) 어득 : (심기가) 언짢을 정도로 암울한 모양. 여기서는 '언짢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3) 골물(汨沒)ᄒᆞ신 : 고달프신. '골몰'(汨沒)은 본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한 가지 일에 깊이 파묻힘'을 뜻하는 것이나, 일부 지역의 사투리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됨'을 뜻한다.
4) 느리 : 늘. 언제나.
5) 즁당(中堂) : 안채에 계신 어버이.
6) 부ᄋᆞ(附兒) : 딸린 아이들. 어떤 사정으로 집안에 따로 거두어 두고 사는 아이들을 말하는 듯하다.
7) 혼가(渾家) : 온 집안.
8) 각들 : 각가(各家)들. 실수로 글씨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9) 진쥬(晉州) : 지명. 경상남도 진주시(晉州市).
10) 희ᄋᆞ(禧兒) : 발신자의 둘째 아들 '영희'(泳禧, 1908~1951)를 어버이의 지위에서 일컬어 '희아'라고 한 것이다. 당시에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듯하다.

가려 ᄒᆞ엿더니 ᄂᆞ은 슈일(數日) 더 유련(留連)ᄒᆞ고 ᄂᆡ려갈 ᄯᅵ 광쥬(光州)[13] 들이여 ᄒᆞ로 만유(挽留) 즉시(卽時) 환가(還家)ᄒᆞ려 ᄒᆞ압 집의 나온 제 너머[14] 광일(曠日)[15] 되어 가즁(家中) 여려 가지 볼 일 관염(觀念)[16]이ᄋᆞᆸ 여즁(旅中) ᄀᆡᆨ번(客煩)[17]ᄒᆞ여 이만 ᄉᆞᆲ

병인(丙寅 : 1926) 니월(二月) 초십일일(初十一日) 상장(上狀)

3. 현대어역

두 차례에 걸친 편지를 한꺼번에 받아,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궁금하던 집안 소식을 듣사오니, 거듭거듭 기쁘고 다행스럽사옵. [그러나] 편지를 받은 뒤로 [또한] 여러 날 되어 도리어 궁금한 마음 마찬가지이온데, 이즈음 봄기운이 뚜렷해진 가운데, 온갖 일로 언짢이 고달프신 몸 늘 편안하오시고, 안채에 계신 어버이 근력에 대단히 더치신 병환은 없으시고, 아이들 여러 남매 아무 탈 없고, 딸린 아이들 형제 평안하고, 온 집안이 여전히 아무 탈 없고, 여러 집들 조용하고 편안하나이까? 멀리서 걱정하는 마음 마지 못하옵. 이곳은 객지에서 지내는 동안 때때로 겪는 일이 여전하고, 막내아우 무사히 오니 든든하고, 진주 아이는 어제 아침

11) ᄒᆡ남(海南) : 지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海南邑).

12) ᄒᆞᆫ긔 : 함께.

13) 광쥬(光州) : 지명.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14) 너머 : 너무.

15) 광일(曠日) :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을 보냄. 여기서는 '오랜 나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16) 관염(觀念) : 마음이 쓰임. 관심(關心).

17) ᄀᆡᆨ번(客煩) : 나그네 처지에 있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

차편으로 저희 남매가 진주에서 경성으로 왔사옵. 오늘 제 큰 처남과 함께 해남으로 내려간다고 하옵. 내가 데리고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는 며칠 더 머물러야 하겠고 [또] 내려갈 때 광주에 들려 하루 머물고 곧 집에 돌아가려 하옵. 집에서 떠나온 적에, [이제까지] 너무 오랜 나날이 되어, 집안의 여러 가지 볼 일에 마음이 쓰이옵. 객지에 여러 가지로 번거로와 이만 그치옵.

병인년 이월 십일일, 올림.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이 1926년에 서울에서 해남으로 그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월에 보낸 MF35-3208_605의 편지와 더불어 사연의 맥락이 이어진다.

04 0-04. 海尹_MF35-3208_619(19x20cm): 남편 → 아내(20세기 전반)

1. 판독

살피시옵쥰식어미의니

증후종기에우무가조흘

듯ᄒᆞ니우무가시리를좀
듸려보닉여고아먹게ᄒᆞ시
ᄋᆞᆸ무근ᄃᆡ구가잇스면ᄒᆞᆫ
나보닉여쥬시ᄋᆞᆸ[移1]
[隔4]즉일ᄉᆞᆼ즁

2. 전사 · 주석

살피시ᄋᆞᆸ

쥰식[1] 어미의 니증후(理症後)[2] 종기(腫氣)에 우무[3]가 조흘 듯ᄒᆞ니 우무가시리[4]를 좀 듸려[5] 보닉여 고아 먹게 ᄒᆞ시ᄋᆞᆸ 무근[6] ᄃᆡ구(大口)가 잇스면 ᄒᆞᆫ나 보닉여 쥬시ᄋᆞᆸ

즉일(卽日)[7] ᄉᆞᆼ즁(上狀)

---

1) 쥰식 : 인명. 발신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손자 윤준식(尹駿植, 1927~).
2) 니증후(理症後) : 병을 다스린 뒤에 생긴.
3) 우무 :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식혀 만든 끈끈한 물질. 음식이나 약 또는 공업용으로 쓴다.
4) 우무가시리 : 우뭇가사리. 해조(海藻)의 일종. 높이는 10~30cm이고 줄기에 잔가지가 많이 나 나뭇가지 모양이며 몸빛은 주로 검붉다.
5) 듸려 : 드려.
6) 무근 : 묵은.
7) 즉일(卽日) : (편지를 받은) 바로 그 날. 당일(當日). 편지를 받은 그 날로 답장을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3. 현대어역

살피시압

준식이 어미의 병을 다스린 뒤에 생긴 종기에 우무가 좋을 듯하니, 우뭇가사리를 좀 보내어 드려 고아 먹게 하시압. 묵은 대구가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시압.

바로 그 날에, 올림.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이 그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보낸 편지이다. 본문의 이른바 "준식 어미"는 그의 둘째 아들 윤영희(尹泳禧, 1908~1951)의 큰아들 윤준식(尹駿植, 1927~)의 어머니, 곧 윤영희의 부인 초계정씨(草溪鄭氏) 정맹석(鄭孟碩, 1905~1981)을 가리킨다.

05 0-05. 海尹_MF35-3208_606(17x100cm): 아내 → 남편(1925)

1. 판독

야심반야의두어ᄌᆞ적

ᄉᆞ오려ᄒᆞ오니졍신샹막ᄒᆞ
와두어ᄌᆞ젹ᄉᆞ오니감ᄒᆞ시
ᄋᆞᆸ훌〃이츌발후다
일되오니궁굼하든ᄎᆞ
묵보놈님녀ᄒᆞ여글월
밧ᄌᆞᆸ고안부술피오니
관즁ᄒᆞ신기후다요즁안
녕ᄒᆞ심ᄉᆞ횡이옵고식
품범졀이여젼ᄒᆞ신잇
가인ᄒᆞ녀왕간ᄉᆞ오일
되오니원문이조ᄉᆞ이다
그간층〃뎌되일안ᄒᆞ
오며녀증눅치오려심
히알는듯외오안ᄌᆞ오인
〃잇지못ᄒᆞ게ᄉᆞᆸ불초
어미ᄂᆞᆫ쥬야잇지못결
니고잇지못ᄒᆞ게ᄉᆞᄋᆞᆸ져
의다형제음식못먹
든것들오인〃잇치지
못ᄒᆞ게ᄉᆞᆸ강동셔ᄂᆞᆫ젼
보온듯오족답답ᄒᆞ여
젼보ᄒᆞ여실게ᄋᆞᆸ무ᄉᆞ
의간소식드라신듯신
통〃ᄒᆞᄋᆞᆸᄎᆞ인은슈연
만의우리편친비오니

오히려심회ᄉᆡ룹ᄉᆞ
오며젼일우리션모쥬
어ᄃᆡ가시고흔젹이망연
ᄒᆞ신고힛분심ᄉᆞ젼일
에비승〃ᄒᆞ오이다연니
오나예도우리부쥬게
ᄋᆞᆸ셔도융노톄운이강
녕ᄒᆞᄋᆞᆸ시고안힝ᄂᆡ외
분긴〃ᄒᆞᆫᄌᆞ미즁안상
ᄒᆞ시고층솔이무ᄉᆞ들ᄒᆞ
니든든ᄒᆞ오이다ᄎᆞ인도
ᄂᆡᄉᆡᆨ기ᄃᆞ리고무고ᄒᆞ오며
일문족당이쥬야히
소로지ᄂᆡ오나나의오ᄆᆡ
에ᄆᆡ친몽혈과울〃
분심은오나가나다를
게ᄋᆞᆸ이ᄆᆞᄋᆞᆷ도쵸육일
은갈족졍이ᄋᆞᆸ영션도
져의빙가의가이일
유련ᄒᆞ여ᄌᆡ족일에
와습모ᄌᆞ환가ᄒᆞ려
ᄒᆞᄋᆞᆸᄉᆡ로두시에시족
ᄒᆞ여글이오니김족ᄒᆞ
시ᄋᆞᆸ글씨츄필이라보
시기어려울ᄃᆞᆺᄒᆞᄋᆞᆸᄂᆞ이다

닉〃만슈무강ᄒᆞ옵시기
혈축만원이옵낫미
조ᄉᆞ오이다
[隔1]납월초이일불민
[隔6]셔촐

2. 전사 · 주석

야심(夜深) 반야(半夜)의 두어 ᄌᆞ(字) 젹ᄉᆞ오려 ᄒᆞ오니 졍신(精神) 상막ᄒᆞ와[1] 두어 ᄌᆞ 젹ᄉᆞ오니 감(鑑)ᄒᆞ시옵 훌훌이[2] 츌발(出發) 후 다일(多日) 되오니 궁굼하든 ᄎᆞ(次) 묵보[3]놈 님닉(臨來)ᄒᆞ여 글월 밧ᄌᆞᆸ고 안부(安否) 술피오니 관즁(款重)ᄒᆞ신[4] 기후(氣候) 다요즁(多搖中)[5] 안녕(安寧)ᄒᆞ심 ᄉᆞ힝(似幸)이옵고 식품(食稟)[6] 범졀(凡節)[7]이 여젼(如前)ᄒᆞ신잇가 인ᄒᆞ(姻下)[8] 닉왕간(來往間) ᄉᆞ오일(四五日) 되오니 원문(遠聞)이 조ᄉᆞ이다 그간 층층(層層)[9] ᄃᆡ되[10] 일안(一安)ᄒᆞ오며 닉즁(內

---

1) 샹막ᄒᆞ와 : (생각이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아리송하여.
2) 훌훌이 : 훌훌히. 거침이 없고 시원스럽게.
3) 묵보 : 인명. 집에서 부리던 종의 이름인 듯하다.
4) 관즁(款重)ᄒᆞ신 : 소중(所重)하신.
5) 다요즁(多搖中) : 요동치듯 번거러운 일이 많은 가운데.
6) 식품(食稟) : 먹음새.
7) 범졀(凡節) :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그러나 여기서는 '신체 활동상의 모든 위의(威儀) 및 거동(擧動)'의 뜻으로 쓰였다.
8) 인ᄒᆞ(姻下) : 인말(姻末). 편지에서, 발신자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그러나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이르는 말로 쓰였다.
9) 층층(層層) : 위아래로 거듭 늘어선 웃어른들. 발신자 아내의 시부모와 시조부모.

症)[11] 눅치오려[12] 심히 알는 듯 외오[13] 안즈 오인[14] 오인 잇지 못ᄒᆞ게 습 불초(不肖) 어미는 쥬야(晝夜) 잇지 못 걸니고 잇지 못ᄒᆞ게ᄉᆞ옵 져의 다형제(多兄弟) 음식 못 먹든 것들 오인 오인 잇치지 못ᄒᆞ게습 강동[15] 셔는 젼보(轉報)[16] 온 듯 오족 답답ᄒᆞ여 젼보ᄒᆞ여실 게옵[17] 무ᄉᆞ(無事)의 간 소식 드라신 닷 신통(神通)[18] 신통ᄒᆞ옵 ᄎᆞ인(此人)은 슈연(數年)만의 우리 편친(偏親) 비오니 오히려[19] 심회(心懷) 시롭ᄉᆞ오며 젼일(前日) 우리 션모쥬(先母主)[20] 어ᄃᆡ 가시고 흔젹(痕迹)이 망연(茫然)ᄒᆞ신고[21] 헛분[22] 심ᄉᆞ(心思) 젼일에[23] 비승(倍勝) 비승ᄒᆞ오이다[24] 연(然)니오나 예도 우리 부쥬(父主)게옵셔도 융노(隆老)[25] 톄운(體運)[26]이 강녕

---

10) ᄃᆡ되 : 대되. 모두. 통틀어.
11) ᄂᆡ증(內症) : 속병.
12) 눅치오려 : 누그러지게 하려고. '누그러지다'의 옛말로서 '눅다다'가 있었고, 이것의 사동형으로서 '눅자치다'가 또한 있었다. 본문의 '눅치오려'는 '눅자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눅치다'의 활용형이라고 할 것이다.
13) 외오 : 멀리. 멀리에.
14) 오인 : '참으로'를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인 듯하다.
15) 강동 : 지명.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永東里) 강동(講洞).
16) 젼보(轉報) : (소식 따위를) 인편으로 알림.
17) 게옵 : 것이옵니까.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을 때에 '게옵'을 쓰는 사례가 흔히 보인다.
18) 신통(神通) : 대견하고 훌륭함.
19) 오히려 : 생각한 바와는 다르게.
20) 션모쥬(先母主) : 돌아가신 어머님.
21) 망연(茫然)ᄒᆞ신고 : 아득하신고.
22) 헛분 : 헛된. 허전한. 여기에 보이는 접미사 '-부다'의 옛 형태는 곧 '-ᄇᆞ다'이고, 이것은 '깃ᄇᆞ다'(기쁘다)·'슳ᄇᆞ다'(슬프다) 따위에서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내는 데 흔히 쓰이던 것이다.
23) 젼일에 : 예전보다. 여기에 쓰인 조사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보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24) 비승(倍勝) 비승ᄒᆞ오이다 : 갑절이나 더하고 또 더하오이다.
25) 융노(隆老) : 칠팔십 세 이상 되는 노인, 또는 그런 나이.

(康寧)ᄒᆞᄋᆞᆸ시고 안ᄒᆡᆼ(雁行)[27] ᄂᆡ외(內外)분 긴긴ᄒᆞᆫ[28] ᄌᆞ미즁(滋味中)[29] 안상(安常)ᄒᆞ시고 층솔(層率)이 무ᄉᆞ들ᄒᆞ니 든든ᄒᆞ오이다 ᄎᆞ인도 ᄂᆡ 식기 ᄃᆞ리고 무고(無故)ᄒᆞ오며 일문(一門) 족당(族黨)이 쥬야 히소(喜笑)로 지ᄂᆡ오나 나의 오ᄆᆡ(寤寐)에[30] ᄆᆡ친 몽혈(夢血)[31]과 울울(鬱鬱) 분심(憤心)은 오나가나 다를 게ᄋᆞᆸ 이 ᄆᆞᄋᆞᆷ도 쵸육일(初六日)은 갈 ᄌᆞᆨ정(作定)이ᄋᆞᆸ 영션[32]도 져의 빙가(聘家)[33]의 가 이일(二日) 유련(留連)ᄒᆞ여 ᄌᆡᄌᆞᆨ일(再昨日)[34]에 와습 모ᄌᆞ(母子) 환가(還家)ᄒᆞ려 ᄒᆞᄋᆞᆸ 싀로 두 시(時)에 시ᄌᆞᆨᄒᆞ여 글이오니 짐ᄌᆞᆨ(斟酌)ᄒᆞ시ᄋᆞᆸ 글씨 츄필(醜筆)이라 보시기 어려울 듯ᄒᆞᄋᆞᆸᄂᆞ이다 ᄂᆡᄂᆡ 만슈무강(萬壽無疆)ᄒᆞᄋᆞᆸ시기 혈츅만원(血祝萬願)[35]이ᄋᆞᆸ 낫미[36] 조ᄉᆞ오이다

납월(臘月)[37] 초이일 불민(不敏)[38] 셔찰(書札)

---

26) 톄운(體運) : 체후(體候). 남의 기거(起居)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
27) 안ᄒᆡᆼ(雁行) : 안항(雁行). 기러기의 행렬이란 뜻으로, 남의 형제를 높여 이르는 말.
28) 긴긴ᄒᆞᆫ : 진진한. '(재미가) 톡톡한'·'(재미가) 퍽 대단한'의 뜻이다.
29) ᄌᆞ미즁(滋味中) : 재미를 누리는 가운데.
30) 오ᄆᆡ(寤寐)에 : 오매간(寤寐間)에. 자나 깨나. 언제나.
31) 몽혈(夢血) : 꿈결에도 지니는 바의 근심이나 마음의 상처. 몽혈(夢恤).
32) 영션 : 인명. '영선'(泳善)으로서, 발신자 윤정현의 첫째 아들이다. 1948년에 광주시장을 역임하였고,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성균관 이사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
33) 빙가(聘家) : 처가(妻家).
34) ᄌᆡᄌᆞᆨ일(再昨日) : 그저께.
35) 혈츅만원(血祝萬願) : 진심으로 빌고 또 거듭 바람.
36) 낫미 : 좁쌀. '조'를 '낫'이라고도 이른다.
37) 납월(臘月) : 음력 섣달.
38) 불민(不敏) : 어리석고 둔하여 재빠르지 못한 사람. 자기의 겸칭(謙稱).

3. 현대어역

이숙한 한밤에 두어 글자 적사오려 하오니 정신이 아리송하여, [그런 대로] 두어 글자 적사오니 살펴보시옵. 훌훌히 떠나온 뒤로 여러 날 되오니 궁금하던 겨를에, 묵보 놈이 와서 [보내오신] 글월 받잡고 안부 살피오니, 소중하신 몸 건강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안녕하시매 다행스럽고.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여전하십니까? 오가는 사이 너댓새 되오니, 멀리 와서 듣는 바가 좋소이다. 그동안 웃어른들 모두 한가지로 안녕하시고, [다만] 속병 누그러뜨리느라 매우 앓는 듯[하매], 멀리에 있어 온통 잊지 못하겠삽. 못난 어미는 밤낮으로 [자식들을] 잊지 못[하여], [마음에] 걸리고 잊지 못하겠사옵. 저희 여러 형제들 음식 [제대로] 못 먹던 것들, 온통 잊히지 못하겠삽. 강동에서는 전보가 왔던 듯[한데], 오죽 답답하여 전보했을 것이옵[니까]? 무사히 갔다는 소식 들으신 듯[하니], 대견스럽고 또 대견스럽사옵. 이 사람은 몇 년 만에 우리 편친(偏親) 뵈오니, 오히려 심회(心懷)가 새롭사오며, 지난날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어디 가시고 자취가 아득하신지, 헛된 심사만 전보다 더욱 더하더이다. 그러하오나 이곳도, 우리 아버님께옵서도 칠팔십이 넘도록 늙으신 기체후 강녕하시고, 여러 형제 내외분들 [살아가는 일에서] 톡톡한 재미를 누리는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아래로 여러 식솔들도 무사들 하니 든든하오이다. 이 사람도 내 새끼 데리고 무고하오며, 한 집안 족속(族屬)이 밤낮 즐겁게 웃으며 지내오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맺혀 있는 근심과 답답한 분기(憤氣)는 오나가나 다를 것이옵[니까]? 이 마음으로도 초엿새 날에는 갈 작정이옵. 영선이도 저희 처가에 가서 이틀 머물다가 그저께에 왔삽. 모자(母子)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하옵. 새로 두 시에 시작하여 [쓰는] 글이오니 짐작하시옵. 글씨가 못

나서 보시기 어려울 듯하옵나이다. 내내 건강하오시기를 빌고 또 바라옵니다. [보내주신] 좁쌀, [품질이] 좋사오이다.

섣달 초이틀, 어리석고 둔한 이 사람이 씀.

4. 참고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06은 두 건의 편지가 하나의 문서로 잘못 처리되어 있다. 그래서 앞의 것을 「606」으로 두고, 다만 뒤의 것을 「606-1」로 따로 떼어 놓고자 한다. 그런데 양자는 같은 해의 11월과 12월에 서로 주고받은 편지이다. 「606-1」이 앞서 보낸 편지이다. 「606-1」에 보이는 연기(年紀)에 따르면, 이 편지는 1925년 12월 2일에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가 쓴 것이다.

06 1-01. 海尹_MF35-3208_609(14x38cm): 어머니 → 딸(19세기 후반)

1. 판독

밧바약간적으며[移1]
ᄒᆞᆫ이틀사이무ᄉᆞᄒᆞ며님
셔방도그ᄉᆞ이더나으시

며두로몰나답〃ᄒᆞ고
어제보내야ᄒᆞ여시나돈
변통을못ᄒᆞ여이지야
보내니죽히답〃히너겨시
랴싹도ᄒᆞᆫ젹으니ᄀᆞ이업
다퇴물언쇼곰져으니젹
보내고돈ᄒᆞᆫ냥보내니여
ᄃᆞᆯ돈은쓰고두돈은
동빅기옴사보내여라
이만근치며내내
무ᄉᆞ하다가오기ᄇᆞ란다
[隔1]즉일모

2. 전사 · 주석

밧바 약간(若干) 젹으며

ᄒᆞᆫ 이틀 사이 무ᄉᆞ(無事)ᄒᆞ며 님셔방[1]도 그 ᄉᆞ이 더 나으시며 두로 몰나 답답ᄒᆞ고 어제 보내야 ᄒᆞ여시나 돈 변통(變通)을 못ᄒᆞ여 이지야 보내니 죽히[2] 답답이 너겨시랴 싹[3]도 ᄒᆞᆫ[4] 젹으니 ᄀᆞ이업다 퇴물(退

1) 님셔방 : 인칭. 발신자의 사위.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6세손 윤관하(尹觀夏, 1841～1926)의 큰사위 나주임씨(羅州林氏) 임회규(林澮圭)로 추정된다.
2) 죽히 : 작히나. 오죽이나.
3) 싹 : 닭. '닭'의 첫소리를 때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데서 이와 같은 표기가 비롯된 듯하다.

物)[5]언 죠곰 져으니 젹[6] 보내고 돈 훈 냥(兩) 보내니 여돏[7] 돈[8]은 쓰고 두 돈은 동빅기옴[9] 사 보내여라 이만 근치며 내내 무亽하다가 오기 브란다

즉일(卽日)[10] 모(母)

3. 현대어역

바빠 조금 적으며

한 이틀 사이 무사하며, 입서방도 그 사이 [좀] 더 나았으며. 두루 몰라 답답하고. 어제 보내야 하였으나, 돈 변통을 못하여 이제야 보내니, 오죽이나 답답하게 여기었으랴. 닭도 너무 작으니 [서운하기] 가이없다. 퇴물(退物)은 조금 적으니, 조금 보내고. 돈 한 냥 보내니, 여덟 돈은 [네가] 쓰고, 두 돈은 동백기름 사 보내어라. 이만 그치며, 내내 무사히 지내다가 오기 바란다.

바로 그 날에, 어미.

---

4) 훈 : 많이. 크게. 여기서는 '너무'의 뜻이다.
5) 퇴물(退物) : 윗사람이 쓰던 것을 물려받은 물건.
6) 젹 : 조금. '조금'의 옛말 '젹곰'을 줄여서 '젹'이라고 적은 듯하다.
7) 여돏 : 여덟.
8) 돈 : 금품이나 금전에 있어서, 1냥(兩)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
9) 동빅기옴 : 동백기름.
10) 즉일(卽日) : (편지를 받은) 바로 그 날. 당일(當日). 편지를 받은 그 날로 답장을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6세손 윤관하(尹觀夏, 1841~1926)의 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 1836~1913)가 큰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당시에 큰딸이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에 세거하던 나주임씨가(羅州林氏家)의 임회규(林澮圭)에게 출가하여 있었다. 이 밖에 종가의 여식으로서 '임씨'에게 출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무안은 해남의 북쪽에 연접한 군이므로, 이것은 또한 이 편지가 다시 친정집에 놓이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된다.

07 1-02. 海尹_MF35-3208_610(17x7cm): 어머니 → 딸(19세기 후반)

1. 판독

죠히득난ᄒᆞ여약간적으며[移1]
풍셔리괴약ᄒᆞ니엇지올고
념녀무궁ᄒᆞ다돈은성냥
보낸다바다라

2. 전사 · 주석

죠히[1] 득난(得難)ᄒᆞ여 약간(若干) 적으며

풍셔리(風雪이) 괴약ᄒᆞ니[2] 엇지 올고 념녀(念慮) 무궁(無窮)ᄒᆞ다 돈은 성 냥(兩) 보낸다 바다라

3. 현대어역

종이 얻기 어려워 조금 적으며

눈보라가 고약하니 어찌 올꼬? 염려[하기] 그지없다. 돈은 석 냥(兩) 보낸다. 받아라.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6세손 윤관하(尹觀夏, 1841~1926)의 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 1836~1913)가 큰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편지의 서체가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09와 완전히 동일하다. 더욱이 「609」의 "돈 ᄒᆞᆫ 냥 보내니 [···] 내내 무ᄉᆞ하다가 오기 ᄇᆞ란다"라고 한 사연과 바로 이 「610」의 "풍셔리 괴약ᄒᆞ니 엇지 올고 [···] 돈은 성 냥 보낸다"라고 한 사연의 맥락이 일치한다.

---

1) 죠히 : 종이.

2) 괴약ᄒᆞ니 : 고약하니.

08 1-03. 海尹_MF35-3208_615(17x23cm): 어머니 → 아들(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수영형으게
날포소식모ᄅᆞ니답〃그립기
층냥업고나리이상치우니
ᄀᆡᆨ지의무양ᄒᆞ며ᄌᆞ시올고져
ᄒᆞᆫ다너의아버님그날저의드
러계시더냐덥자리ᄂᆞᆫ넙고넘
녀롭다여도어린것들다
무양ᄒᆞ고피영과히나으니ᄀᆡ특
ᄒᆞ다이만근치며내내무ᄉᆞ
이잇기ᄇᆞ란다자반죠곰보낸
다돈한돈보내니조희나사
써라[隔2]즉일모

2. 전사 · 주석

수영[1] 형으게[2]

---

1) 수영 : 인명.
2) 수영 형으게 : 수영이의 형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수신자의 이름을 곧장 적지 아니하고 그가 데리고 지내는 동생의 이름을 적고 있

날포[3] 소식 모ᄅᆞ니 답답 그립기 ᄎᆞᆼ낭(測量) 업고 나리 이상(異常) 치우니 ᄀᆡᆨ지(客地)의 무양(無恙)ᄒᆞ며 ᄌᆞ시[4] 올고져 ᄒᆞᆫ다[5] 너의 아버님 그날 저(邸)[6]의 드러 계시더냐 덥자리[7]는 넙고 념녀(念慮)롭다 여도 어린것들 다 무양(無恙)ᄒᆞ고 피영[8] 과(過)히[9] 나으니 긔특(奇特)ᄒᆞ다 이만 근치며 내내 무ᄉᆞ(無事)이 잇기 ᄇᆞ란다 자반(佐飯)[10] 죠곰 보낸다 돈 한 돈[11] 보내니 조희[12]나 사 써라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수영이 형에게

하루 남짓한 동안 [오고 가는] 소식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게 그립기 헤아릴 수 없고, 날이 이상하게 추우니, 객지에서 아무 탈 없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 너의 아버님께서는 그날 집에 들어와 계시더냐? 이부자리는 엷고, 염려스럽다. 여기도 어린것들 다 아무 탈

다. 다른 편지도 이와 같다.
3)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4) ᄌᆞ시 : 자세히.
5) 올고져 ᄒᆞᆫ다 : 알고 싶다.
6) 저(邸) : 집.
7) 덥자리 : 이부자리.
8) 피영 : 인명. 발신자의 아들 '필영'(畢泳)을 가리키는 듯하다.
9) 과(過)히 : 지나치게. 여기서는 '생각보다 빨리'의 뜻이다.
10) 자반(佐飯) :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
11) 돈 : 금품이나 금전에 있어서, 1냥(兩)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
12) 조희 : 종이.

없고, [앓던] 필영이가 생각보다 빨리 나으니 기특하다. 이만 그치며, 내내 무사히 있기 바란다. 자반 조금 보낸다. 돈 한 돈을 보내니 종이나 사 써라.

바로 그 날에, 어미.

4. 참고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15에 들어 있는 이 편지를 비롯해서 MF35-3208_617·622·628에 들어 있는 편지는 모두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가 그의 둘째 아들 윤영희(尹泳禧, 1908~1951)에게 보낸 편지이다. 부부는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길렀는데, 자녀들의 이름에 모두 '泳'이라는 글자를 앞에 두었다. 예컨대, 泳善·泳禧·泳秀·泳麟·泳杓·泳順이 그것이다. 그래서 때로 이들을 '秀(로 부르는)泳(이)'·'畢(로 부르는)泳(이)' 따위로 불렀던 듯하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하고도 종가에 전해지는 필사본 족보에는 泳日·泳畢·泳雲·泳鱐이라는 이름도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요절한 이의 이름이거나 또는 앞에 예거한 자녀들을 어려서 부르던 이름인 듯하다.

09 1-04. 海尹_MF35-3208_617(27x12cm): 어머니 → 아들(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수영형으게[移1]
날포소식모ᄅᆞ니어득즁이나답〃ᄒᆞ다요ᄉᆞ이나리심이
ᄎᆞ니ᄀᆡᆨ즁의무양ᄒᆞ고쇠놈도무ᄉᆞ하며너젹은것누
슌바다반겨ᄌᆞ시보고긋ᄶᅦ무양ᄒᆞ니깃부나답장이나
ᄒᆞ고시부나가ᄂᆞᆫ쥴몰나못ᄒᆞ고섭〃ᄒᆞ더라여도다
평안ᄒᆞ고제물산장와엿슨고와시니ᄎᆞ〃아니ᄒᆞ
랴만ᄂᆞᆫᄉᆡᆼ션이심이빗ᄊᆞ니민망ᄒᆞ고내가졈
〃더괴로우니위ᄐᆡᄒᆞᆯ가ᄎᆞ마민망ᄒᆞ기층낭업다
슌ᄌᆡᄂᆞᆫ와홍졍축시리ᄒᆞ여와시니깃부다무궁
ᄒᆞ나ᄃᆡ강근친다장은발셔보내거ᄉᆞᆯ이ᄌᆡ야보내니ᄋᆡᄃᆞᆸ다
[추신]
[右]쇠놈보션믜영아니사다주기못ᄒᆞ여
[隔20]보ᄂᆡᆫ다

2. 전사 · 주석

수영[1] 형으게

1) 수영 : 인명.

날포[2] 소식 모ᄅᆞ니 어득 즁(中)이나[3] 답답ᄒᆞ다 요ᄉᆞ이 나리 심(甚)이 ᄎᆞ니 긱즁(客中)의 무양(無恙)ᄒᆞ고 쇠놈[4]도 무ᄉᆞ(無事)하며 너 젹은 것 누슌(累順)[5] 바다 반겨 ᄌᆞ시[6] 보고 긋믜[7] 무양(無恙)ᄒᆞ니 깃부나 답장(答狀)이나 ᄒᆞ고 시부나 가ᄂᆞᆫ 쥴 몰나 못ᄒᆞ고 셥셥ᄒᆞ더라 여도 다 평안(平安)ᄒᆞ고 제물(祭物) 산장[8]와 엿슨 고와시니 ᄎᆞᄎᆞ(次次) 아니ᄒᆞ랴만 ᄂᆞᆫ 싱션(生鮮)이 심이 빗ᄊᆞ니 민망(憫惘)ᄒᆞ고 내가 졈졈(漸漸) 더 괴로우니 위티(危殆)ᄒᆞᆯ가 ᄎᆞ마 민망ᄒᆞ기 층냥(測量) 업다 슌지[9]ᄂᆞᆫ 와 홍졍[10] 착시리(着實이) ᄒᆞ여 와시니 깃부다 무궁(無窮)ᄒᆞ나 ᄃᆡ강(大綱) 근친다 장(醬)은 발셔[11] 보내 거술[12] 이지야 보내니 이ᄃᆞᆸ다

[추신]

쇠놈 보션 믜영[13] 아니 사다 주기 못ᄒᆞ여 보낸다

---

2)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3) 어득 즁(中)이나 : 어득한 속에 오죽이나. 이른바 '어득'은 '어득하다'의 어간으로서 '매우 멀거나 까마득하게 오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의 작은 말로 '아득하다'가 있다.

4) 쇠놈 : 인명. 발신자 집안에서 부리던 사내종인 듯하다.

5) 누슌(累順) : 여러 차례.

6) ᄌᆞ시 : 자세히.

7) 긋믜 : 그때(마다).

8) 산장(糤子) : 산자(糤子). 뒤따르는 '-와'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받침 'ㅇ'이 들어간 것이다. '산자'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하게 만들어 말린 것을 기름에 튀기고 꿀을 바른 후 그 앞뒤에 튀긴 밥풀이나 깨를 붙여 만든 유밀과의 한 가지를 말한다.

9) 슌지 : 인명.

10) 홍졍 : 흥정.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값 따위를 의논하는 일.

11) 발셔 : 벌써. 일찍이 앞서 빨리.

12) 보내 거술 : 보낼 것을. '보낼'에 들어갈 받침을 실수로 빠뜨린 것이다.

13) 믜영 : 인명.

3. 현대어역

수영이 형에게

하루 남짓한 동안 소식 모르고 있으니 어득한 속에 오죽이나 답답하다. 요사이 날이 매우 차니, 객지(客地)에 있는 동안 아무 탈 없고, 쇠놈도 무사하며…. 너 적은 것 여러 차례 받아 반겨 자세히 보고, 그때[마다] 아무 탈 없으니 기쁘나, 답장(答狀)이나 하고 싶으나,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줄 몰라 [답장을] 못하고, [그래서 내내] 섭섭하더라. 여기도 다 평안하고…. 제물(祭物), 산자와 엿은 [이미] 고[아 놓]았으니, [나머지야] 천천히 아니하랴마는, 생선(生鮮)이 너무 비사니 답답하고, 내가 조금씩 더 [몸이] 괴로우니 [이러다가] 위태(危殆)로와질까 [싶어서] 차마 걱정스레 여겨지기 헤아릴 수 없다. 순재는 와서 흥정을 착실(着實)히 하여 왔으니 기쁘다. [할 말은] 그지없으나, 얼추 [적고 이만] 그친다. 장(醬)은 벌써 보낼 것을 이제야 보내[게 되]니 애달프다.

[추신]

쇠놈, 보선을 미영이에게 아니 사다 줄 수 없어서, [거기로] 보낸다.

10 1-05. 海尹_MF35-3208_622(18x12cm): 어머니 → 아들(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수영형으게[移1]

어제뎌강드ᄅᆞ니다무양들ᄒᆞᆫ
가시부니깃부더라슈영이가
집을못이저ᄒᆞ더라니족히괴
로오라내야과겨찬니너기되너의
아버지계셔ᄎᆞ마못이저ᄒᆞ시고필
영도수영부으며우니 졍이긔특
고우숩다무으장이나ᄒᆞ여보내
려ᄒᆞ여더니가ᄂᆞᆫ줄몰나못ᄒᆞ여
보내고ᄀᆡ이업다이만근친다[隔1]즉일모

2. 전사 · 주석

수영[1] 형으게

어제 뎌강(大綱) 드ᄅᆞ니 다 무양(無恙)들 ᄒᆞᆫ가 시부니 깃부더라 슈영이가 집을 못 이저 ᄒᆞ더라니 족히[2] 괴로오라 내야 과겨찬니[3] 너기되[4] 너의 아버지계셔 ᄎᆞ마 못 이저 ᄒᆞ시고 필영[5]도 수영 부으며[6] 우니 졍이 긔특(奇特)고 우숩다 무으장[7]이나 ᄒᆞ여 보내려 ᄒᆞ여더니 가ᄂᆞᆫ 줄 몰나 못ᄒᆞ여 보내고 ᄀᆡ이업다[8] 이만 근친다

---

1) 수영 : 인명.
2) 족히 : 작히나. 오죽이나.
3) 과겨찬니 : 대수롭지 않게.
4) 너기되 : 여기되.
5) 필영 : 인명.
6) 부으며 : 부르며.
7) 무으장 : 무장아찌. 무를 썰어 말려서 간장에 절이고 양념을 해서 묵혀 두고 먹는 반찬.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수영이 형에게

어제 얼추 들으니, 다들 아무 탈 없는가 싶으니 기쁘더라. 수영이가 집을 못 잊어 하더라니 오죽이나 괴로우랴. 나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되, 너의 아버지께서 차마 못 잊어 하시고, 필영이도 수영이를 부르며 우니, [형제에 대한] 정이 기특하고 우습다. 무장아찌나 하여 보내려 하였더니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줄 몰라 못하여 보내고, [서운하기] 가이없다. 이만 그친다.

바로 그 날에, 어미.

11 1-06. 海尹_MF35-3208_628(10x21cm): 어머니 → 아들(20세기 전반)

1. 판독

슈영형답

수일소식모ᄅᆞ니답〃ᄒᆞ다그ᄉᆞ이긔지의

8) ᄀᆡ이업다 : 가이없다. 'ᄀᆞ'에 뒤따르는 '이'에 이끌려 'ᄀᆞ'를 'ᄀᆡ'로 적은 것이다.

무양ᄒᆞ냐동졉이나맛당ᄒᆞ여공부나착실
ᄒᆞᆯ덧시부냐네도다무양ᄒᆞ나필영ᄀᆞ금셩
치못ᄒᆞ니괴롭다곡셩셩쥬니오ᄂᆞᆯ보내나
네편지업셔섭〃ᄒᆞ여ᄒᆞ겟다무궁ᄒᆞ나이만근
치며내내무양ᄒᆞ고공부착실ᄒᆞ기밋는다
ᄒᆞ섭〃ᄒᆞ여무의장보낸다[隔2]즉일모

2. 전사 · 주석

슈영 형(兄) 답(答)

수일(數日) 소식(消息) 모ᄅᆞ니 답답ᄒᆞ다 그 ᄉᆞ이 ᄀᆡᆨ지(客地)의 무양(無恙)ᄒᆞ냐 동졉(同接)[1]이나 맛당ᄒᆞ여 공부(工夫)나 착실(着實)ᄒᆞᆯ 덧시부냐 네도 다 무양ᄒᆞ나 필영[2] ᄀᆞ금 셩치 못ᄒᆞ니 괴롭다 곡셩[3] 셩쥬니[4] 오ᄂᆞᆯ 보내나 네 편지(便紙) 업셔 섭섭ᄒᆞ여 ᄒᆞ겟다 무궁(無窮)ᄒᆞ나 이만 근치며 내내 무양ᄒᆞ고 공부 착실ᄒᆞ기 밋는다 ᄒᆞ 섭섭ᄒᆞ여 무의장[5] 보낸다

즉일(卽日) 모(母)

---

1) 동졉(同接) :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 동무.
2) 필영 : 인명.
3) 곡셩 : 지명.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4) 셩쥰니 : 성준이. '성준'은 인명.
5) 무의장 : 무장아찌.

3. 현대어역

수영이 형에게 답한다

며칠 동안 소식을 모르니 답답하다. 그 사이 객지에서 아무 탈 없느냐? 함께 공부하는 동무나 마땅하여 공부나 착실히 할 듯싶으냐? 여기도 다 아무 탈 없으나, 필영이가 가끔 성하지 못하니 괴롭다. 곡성 선중이를 오늘 보내나, 네 편지 없어서 섭섭해 하겠다. [할 말] 그지없으나, 이만 그치며, 내내 아무 탈 없이 공부 착실히 하기 믿는다. 하도 섭섭해서 무장아찌 보낸다.

바로 그 날에, 어미.

12 1-07. 海尹_MF35-3208_611(19x20cm): 어머니 → 아들

1. 판독

경하게[移1]
무ᄉᆞ이간일든〃ᄒᆞ고밤ᄉᆞ이무ᄉᆞ
이인ᄂᆞ냐ᄉᆡᆼ각집다여도아직
은ᄃᆡ도일양들ᄒᆞ시고한미도
더낫고아기형제도무양ᄒᆞ니
다힝ᄒᆞ며절의ᄂᆞᆫ에우못현
다ᄒᆞ시고못보내게ᄒᆞ시되네죵

ᄌᆞ보내며ᄉᆡ우젓과콩장과죠곰
보니ᄌᆞ시바드래[隔1]무궁ᄒᆞ나
이만근치며내내ᄀᆡᆨ즁의잘
잇다가오기ᄇᆞ란다[移1]
즉일모

2. 전사 · 주석

경하[1]게

무ᄉᆞ이 간 일 든든ᄒᆞ고[2] 밤ᄉᆞ이 무ᄉᆞ이 인ᄂᆞ냐 ᄉᆡᆼ각 집다[3] 여도[4] 아직은 ᄃᆡ도[5] 일양(一樣)들 ᄒᆞ시고 한미[6]도 더 낫고 아기 형제도 무양(無恙)ᄒᆞ니 다ᄒᆡᆼᄒᆞ며 졀의는[7] 에우(愛友) 못현다[8] ᄒᆞ시고 못 보내게 ᄒᆞ시되 네 죵ᄌᆞ(從子)[9] 보내며 ᄉᆡ우젓과 콩장과 죠곰 보니[10] ᄌᆞ시[11] 바드라 무궁(無窮)ᄒᆞ나 이만 근치며 내내 ᄀᆡᆨ즁(客中)의 잘 잇다가 오기 ᄇᆞ란다

---

1) 경하 : 인명.
2) 든든ᄒᆞ고 : 미덥고.
3) 집다 : 깊다.
4) 여도 : 여기도.
5) ᄃᆡ도 : 대되. 모두. 통틀어.
6) 한미 : 인명. 사투리일 것을 가정하면 '할머니'로 볼 수도 있으나, 공대하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건대는 인명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7) 졀의는 : 저리는. 저리해서는.
8) 못현다 : 못한다. 전라도 사투리에서, '하다'를 더러 '혀다'라고 말한다.
9) 죵ᄌᆞ(從子) : 조카.
10) 보니 : 보내니. 실수로 '-내-'를 빠뜨린 것이다.
11) ᄌᆞ시 : 자세히. 여기서는 '낱낱 찬찬히 잘 살펴서'의 뜻이다.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경하에게

무사히 간 일, 미덥게 여겨지고. [또한] 밤사이[도] 무사히 있느냐. 생각 깊다. 여기도 아직은 모두 한가지로 지내고 한미도 더 나았고, 아기 형제도 아무 병 없으니 다행스러우며. [네 아버지께서] '저리는 우애(友愛) 못한다.'고 하시고, 네 조카 보내며. 새우젓과 콩장 조금 보내니 잘 살펴서 받아라. [할 말] 그지없으나, 이만 그치며, 객지에 있는 동안 내내 잘 있다가 오기 바란다.

바로 그 날에, 어미.

13 1-08. 海尹_MF35-3208_613(22x16cm): 어머니 → 아들

1. 판독

판길부답봉

어제의외억남오며ᄌᆞ시드ᄅᆞ니ᄀᆡᆨ즁

ᄆᆡ셔삼형제무양ᄒᆞᆫ가시부니깃

부다여도다무ᄉᆞᄒᆞ고삼슈슉질

무ᄉᆞᄒᆞ니다ᄒᆡᆼᄒᆞ나아직도ᄆᆞᄋᆞᆷ은놋
틀못ᄒᆞ리다드ᄅᆞ니너의어루신
너식ᄉᆞ을지ᄉᆞ의셔ᄒᆞᆫ다니오죽
어려워ᄒᆞ시랴엇지그리ᄒᆞ나냐ᄶᅡᆨ마리
어더장이나ᄒᆞ여보낼거술미처못
ᄒᆞ고삼쥰과의논ᄒᆞ여안악의셔반찬
ᄒᆞ여보내던가시부다돈닷돈과결안
여나문보내니너의아버님긔드
려라나도신업서민망ᄒᆞ다이만
근친다[移1]
[隔4]즉일모

2. 전사 · 주석

판길[1] 부(付) 답봉(答封)

어제 의외(意外) 억남[2] 오며 ᄌᆞ시[3] 드ᄅᆞ니 ᄀᆡᆨ즁(客中) ᄆᆡ셔[4] 삼형제(三兄弟) 무양(無恙)ᄒᆞᆫ가 시부니[5] ᄌᆞᆺ부다 여도 다 무ᄉᆞ(無事)ᄒᆞ고 삼슈(三嫂) 슉질(叔姪)[6] 무ᄉᆞᄒᆞ니 다ᄒᆡᆼ(多幸)ᄒᆞ나 아직도 ᄆᆞᄋᆞᆷ은 놋틀[7] 못

1) 판길 : 인명.
2) 억남 : 인명.
3) ᄌᆞ시 : 자세히.
4) ᄆᆡ셔 : 모시고. 편지 글에서, 웃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거나 안부에 관하여 말할 때에 흔히 쓰는 말이다.
5) 시부니 : 싶으니.
6) 슉질(叔姪) : 아저씨와 조카. 여기서는 '조카들'을 뜻한다.

ᄒᆞ리다[8] 드ᄅᆞ니 너의 어루신ᄂᆡ 식ᄉᆞ(食事)을 지ᄉᆞ[9]의셔 ᄒᆞᆫ다니 오ᄌᆞᆨ 어려워ᄒᆞ시랴 엇지 그리ᄒᆞ나냐 ᄯᅡᆨ[10] 마리 어더 장(漿)[11]이나 ᄒᆞ여 보낼 거술 미처 못ᄒᆞ고 삼쥰[12]과 의논(議論)ᄒᆞ여 안악[13]의셔 반찬(飯饌) ᄒᆞ여 보내던가 시부다 돈 닷 돈[14]과 결안(鷄卵) 여나문[15] 보내니 너의 아버님긔 드려라 나도 신(信)[16] 업서 민망(憫惘)ᄒᆞ다 이만 근친다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판길에게 부치는 답장

어제 뜻밖에 억남이가 오면서 자세히 들으니, 객지에 있는 동안 [웃어른] 모시고 삼형제가 아무 탈 없이 있는가 싶으니 기쁘다. 여기도 다 무사하고 [너의] 셋째 형수 및 조카들 무사하니 다행하나, 아직도 마음은 놓지 못하겠다. 들으니, 너의 어르신네께서 식사를 지사에서 한다니 오

7) 놋틀 : 놓지를. '놓들'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8) 못ᄒᆞ리다 : 못하겠다. 미래·추측·의지·가능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리-'를 쓰는 용례가 더러 보인다.

9) 지ᄉᆞ : 장소명.

10) ᄯᅡᆨ : 닭. 'ᄃᆞᆰ'의 첫소리를 때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데서 이와 같은 표기가 비롯된 듯하다.

11) 장(漿) : 자장(煮醬). 장조림. '장'(漿)은 본디 간장·된장 따위를 말하나, 여기서는 살코기를 간장에 넣고 조린 것으로서의 자장을 가리켜 말했다.

12) 삼쥰 : 인명.

13) 안악 : 지명. 여기서는 그곳에 있는 친척집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14) 돈 : 금품이나 금전에 있어서, 1냥(兩)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

15) 여나문 : 여남은. 열이 좀 더 되는 수.

16) 신(信) : 미더움. 미덥게 하는 처신(處身).

죽 어려워하시랴. 어찌 그리하느냐? 닭 마리[깨나] 얻어서 장조림이나 하여 보낼 것을 미처 못하고, 삼준이와 의논하여 안악에서 반찬을 하여 보냈던가 싶다. 돈 닷 돈과 달걀 여남은 개 보내니, 너의 아버님께 [반찬으로] 드려라. 나도 미더움 없어 딱하다. 이만 그친다.

바로 그 날에, 어미.

14 1-09. 海尹_MF35-3208_614(24x18cm): 어머니 → 아들

1. 판독

[隔1]아기아뷔답[移1]
무망의네글시바다반갑고ᄌᆞ시술피니
긔상이무양ᄒᆞ니든〃다힝ᄒᆞ다여긔도
대도무양ᄒᆞ고산모도ᄑᆞ존ᄒᆞ여죠곰낫
고신ᄋᆞ도나ᄂᆞ리달너가니ᄎᆞ마ᄌᆞ미지기
충냥업다집을이저보리고공부나
측시리ᄒᆞ여라아모반촌니나어더보
낼거술그도못ᄒᆞ고ᄒᆞ섭ᄒᆞ여쓰던돈너
푼잇거든보내니선물사먹어라표고
바다먹긴다닙도졈〃낫게먹으나양
식이업다ᄒᆞ니딱ᄒᆞ다이만근친니내〃
긔즁무양ᄒᆞ고공부착실도여귀ᄒᆞᆫ골

수이보기ㅂ란다[隔1]즉일모

2. 전사 · 주석

아기 아뷔 답(答)

무망(無望)의[1] 네 글시 바다 반갑고 ᄌᆞ시[2] 술피니 긱상(客狀)[3]이 무양(無恙)ᄒᆞ니 든든 다힝(多幸)ᄒᆞ다 여긔도 대도[4] 무양ᄒᆞ고 산모(産母)도 ᄑᆞ죵(破腫)[5]ᄒᆞ여 죠곰 낫고 신ᄋᆞ(新兒)도 나ᄂᆞ리 달너가니 ᄎᆞ마[6] ᄌᆞ미(滋味)지기 ᄎᆞᆼ냥(測量) 업다 집을 이저보리고 공부(工夫)나 착시리(着實이) ᄒᆞ여라 아모 반촌(飯饌)니나 어더 보낼 거술 그도 못ᄒᆞ고 ᄒᆞᆫ 섭ᄒᆞ여 쓰던 돈 너 푼[7] 잇거든[8] 보내니 선물(鮮物)[9] 사 먹어라 표고[10] 바다 먹긴다 닙도[11] 졈졈 낫게 먹으나 양식(糧食)이 업다 ᄒᆞ니 딱ᄒᆞ다 이만 근친니 내내 긱즁(客中) 무양(無恙)ᄒᆞ고 공부 착실 도여[12] 귀(貴)ᄒᆞᆫ

---

1) 무망(無望)의 : 바라지도 않던 마당에.
2) ᄌᆞ시 : 자세히.
3) 긱상(客狀) : 객지에서 지내는 형편.
4) 대도 : 대되. 모두. 통틀어.
5) ᄑᆞ죵(破腫) : 앓던 종기(腫氣)를 터뜨리는 일.
6) ᄎᆞ마 : 무척. 다른 것에 견줄 바가 없이. '차마'는 흔히 부정이나 의문을 나타는 말 앞에서 '가엾고 애틋하여 어찌'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나, 여기서는 '무척'의 뜻으로 쓰였다.
7) 푼 : 금전에 있어서, 돈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 돈은 냥(兩)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8) 잇거든 : 있어서.
9) 선물(鮮物) : 선어물(鮮魚物). 생선(生鮮).
10) 표고 : 송이(松栮) 과에 속하는 버섯의 일종.
11) 닙도 : 입맛도.
12) 도여 : 되어.

골[13] 수이[14] 보기 ᄇᆞ란다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아기 아비에게 답함

바라지도 않던 마당에 네 글씨 받아 반갑고, 자세히 살피니 객지에서 지내는 형편이 다른 탈 없으니 든든하고 다행스럽다. 여기도 모두 아무 탈 없고, 산모도 앓던 종기를 터뜨려 조금 낫고, 새로 낳은 아기도 나날이 달라가니 견줄 데 없이 재미있어 헤아릴 수 없다. 집을 잊어버리고 공부나 착실히 하여라. 아무 반찬이나 얻어 보낼 것을 그도 못하고, 하도 섭섭하여 쓰던 돈 네 푼 있어서 보내니, 생선[이나] 사 먹어라. [보내준] 표고, [잘] 받아 먹인다. 입맛도 [이전보다] 낫게 먹고 있으나, [다만] 양식이 없다 하니 딱하다. 이만 그친다. 객지에 있는 동안 내내 아무 탈 없고 공부 착실히 되어 귀하게 되는 모양 빨리 보기 바란다.

바로 그 날에, 어미.

13) 골 : 꼴. 모양.
14) 수이 : 쉽게. 여기서는 '빨리'의 뜻이다.

15 1-10. 海尹_MF35-3208_616(20x19cm): 어머니 → 아들

1. 판독

[隔1]아ᄃᆞ의게[移1]
날포소식몰나답〃ᄒᆞ더니죵철오며ᄌᆞ시
드ᄅᆞ니ᄀᆡᆨ상이무ᄉᆞᄒᆞ니다힝ᄒᆞ다여도
ᄃᆡ도평안들ᄒᆞ시고아기도무양ᄒᆞ니깃
부다모는셔감으로수일치알흐니
심이괴옵다ᄂᆡ아소아그러ᄒᆞᆫ지너그
럽고아소아못견ᄃᆞ리다보리도여드랜
날보쩌어러지고공참ᄒᆞ더니빈짐와
시니다힝ᄒᆞ나두가지미슈가만타ᄒᆞ니
ᄋᆡ답다아모반찬도못ᄒᆞ여보내니모
ᄌᆞ정이ᄋᆞ닌듯ᄀᆞ이업더라ᄒᆞ섭〃
ᄒᆞ여편죠곰슈박셋싱복굴근
놈으로다숫가니ᄌᆞ시바다라무궁ᄒᆞ
나정신어득근치며[移1]
내내ᄀᆡᆨ싱이무ᄉᆞ이잇다가오기ᄇᆞ라며[移1]
즉일모

2. 전사 · 주석

아ᄃᆞ[1]의게

날포[2] 소식 몰나 답답ᄒᆞ더니 죵철[3] 오며 ᄌᆞ시[4] 드ᄅᆞ니 ᄀᆡ상(客狀)[5]이 무ᄉᆞ(無事)ᄒᆞ니 다ᄒᆡᆼ(多幸)ᄒᆞ다 여도 ᄃᆡ도[6] 평안(平安)들 ᄒᆞ시고 아기도 무양(無恙)ᄒᆞ니 깃부다 모(母)는 셔감(暑感)[7]으로 수일(數日)ᄎᆡ[8] 알흐니 심(甚)이 괴옵다[9] 너 아소아[10] 그러ᄒᆞᆫ지 너 그립고 아소아 못 견ᄃᆡ리다[11] 보리도 여드래날 보(褓)[12] ᄡᅥ어러지고 공참(空-)ᄒᆞ더니[13] ᄇᆡ짐[14] 와시니 다ᄒᆡᆼᄒᆞ나 두 가지 미슈(未收)가 만타ᄒᆞ니 ᄋᆡ돏다[15] 아모 반찬(飯饌)도 못ᄒᆞ여 보내니 모ᄌᆞ(母子) 졍(情)이 ᄋᆞ닌 ᄃᆞᆺ ᄀᆞ이업더라 ᄒᆞ 섭섭ᄒᆞ여 편(片)[16] 죠곰 슈박 셋 ᄉᆡᆼ복(生鰒)[17] 굴근 놈으로 다ᄉᆞᆺ 가

---

1) 아ᄃᆞ으게 : 아들에게.
2)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3) 죵철 : 인명.
4) ᄌᆞ시 : 자세히.
5) ᄀᆡ상(客狀) : 객지에서 지내는 형편.
6) ᄃᆡ도 : 대되. 모두. 통틀어.
7) 셔감(暑感) : 여름에 드는 감기.
8) 수일(數日)ᄎᆡ : 며칠째.
9) 괴옵다 : 괴롭다.
10) 아소아 : 아쉬워. 아깝고 서운하여. (무엇이 없거나 모자라) 형편이 군색스럽게 되어.
11) 견ᄃᆡ리다 : 견디겠다. 미래·추측·의지·가능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리-'를 쓰는 용례가 더러 보인다.
12) 보(褓) : 보자(褓子). 포대기. 곡식 따위의 물건을 싸는 천이나 자루.
13) 공참(空-)ᄒᆞ더니 : (짬에 먹는 음식으로서의) 참을 거르더니.
14) ᄇᆡ짐 : 뱃짐. 여기서는 우편 소화물(小貨物)로 보내온 짐을 말하는 듯하다.
15) ᄋᆡ돏다 : 애달프다.
16) 편(片) : 육편(肉片).
17) ᄉᆡᆼ복(生鰒) : 익히지 않은 전복(全鰒).

니 ᄌᆞ시[18] 바다라 무궁(無窮)ᄒᆞ나 정신(精神) 어득[19] 근치며 내내 긱싱(客狀)이 무ᄉᆞ이 잇다가 오기 ᄇᆞ라며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아들에게

하루 남짓한 동안 소식 몰라 답답하더니 종철이가 오면서 자세히 들으니, 객지에서 지내는 형편이 무사하다니 다행스럽다. 여기도 모두 평안들 하시고, 아기도 아무 탈 없으니 기쁘다. 어미는 여름 감기가 들어 며칠째 앓으니 매우 괴롭다. 내 아쉬워 그러한지, 너 그립고 아쉬어 못 견디겠다. 보리도 여드렛날 자루가 떨어지고 참을 거르더니, 뱃짐이 [거기에] 왔다니 다행스러우나, 두 가지 받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하니 애달프다. 아무 반찬도 못하여 보내니, 어미와 자식의 정이 아닌 듯[하여], [서운하기] 가이없더라. 하도 섭섭하여 육편 조금, 수박 세 개, 생복(生鰒) 굵은 놈으로 다섯 [보내어] 가니 잘 살펴서 받아라. [할 말은] 그지없으나, 정신이 어두워 [이만] 그치며, 내내 객지에서 지내는 형편이 [그저] 무사하게 있다가 오기 바라며.

바로 그 날에, 어미.

18) ᄌᆞ시 : 자세히. 여기서는 '낱낱 찬찬히 잘 살펴서'의 뜻이다.

19) 어득 : 어둑하여.

16 1-11. 海尹_MF35-3208_629(18x23cm): 시어머니 → 며느리

1. 판독

아기게
듯밧타관쇠오며ᄃᆡ강드ᄅᆞ니ᄀᆡᆨ
지의그마니나무양ᄒᆞ여든〃다힝
ᄒᆞ더라동졉드리다편치못
ᄒᆞ신가시브니너오ᄌᆞᆨ민망허
랴원두달을그려더니오ᄂᆞ
ㄹ ᄂᆞ려오려ᄒᆞ니든〃ᄒᆞ다여도
다평안ᄒᆞ고어린것술올나시
니긔특ᄒᆞ다무궁ᄒᆞ나올거시
기근치며무ᄉᆞ이오기ᄇᆞ란다
[隔2]즉일모

2. 전사 · 주석

아기게
듯밧[1] 타관(他官)쇠[2] 오며 ᄃᆡ강 드ᄅᆞ니 ᄀᆡᆨ지(客地)의 그마니나[3] 무

1) 듯밧 : 뜻밖에.
2) 타관(他官)쇠 : 타향을 오가는 심부름꾼. '-쇠'는 일부 명사에 붙어 '하찮은 사내'를 이르는 데 쓰이는 말이다.

양(無恙)ᄒᆞ여 든든 다ᄒᆡᆼ(多幸)ᄒᆞ더라 동졉(同接)[4]드리 다 편(便)치 못ᄒᆞ신가 시브니 너 오죽 민망(憫惘)ᄒᆞ랴 왼 두달을 그려더니 오ᄂᆞᄅᆞ[5] ᄂᆞ려오려 ᄒᆞ니 든든ᄒᆞ다 여도 다 평안(平安)ᄒᆞ고 어린 것 술 올나시니 긔특(奇特)ᄒᆞ다[6] 무궁(無窮)ᄒᆞ나 올 거시기 근치며 무ᄉᆞ(無事)이 오기 ᄇᆞ란다

즉일(卽日) 모(母)

3. 현대어역

아기에게

뜻밖에 타관(他官)쇠 오며, 얼추 들으니, 객지에서 [생활하기가] 어지간하나, 아무 탈 없어 든든하고 다행하더라. 함께 공부하는 동무들이 다 편하지 못하신가 싶으니, 너 오죽 딱하랴. 온통 두 달을 그려더니, 오늘 내려오려 한다니 든든하다. 여기도 다 평안하고. 어린 것, 살이 올랐다니 기특하다. [할 말] 그지없으나, 올 것이기에 [이만] 그치며, 무사히 오기 바란다.

바로 그 날에, 어미.

---

3) 그마니나 : 어지간하나. '그만(하다)'은 곧 '어지간(하다)'과 마찬가지로 '(정도가) 어떤 표준에 거의 가까움'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정도에) 넉넉히 미치지는 못함'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4) 동졉(同接) :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 동무.

5) 오ᄂᆞᄅᆞ : 오늘. '오ᄂᆞᆯ'이라고 할 데서 적을 자리가 모자라 다음 줄에 받침을 넘겨 적은 것이다.

6) 긔특(奇特)ᄒᆞ다 : 놀랍고 신통하다.

17 1-12. 海尹_MF35-3208_639(24x45cm): 아들 → 어머니(1677)

1. 판독

동미죵후긔별몰나답〃ᄒᆞᄋᆞᆸ
더니츈봉오와놀[移1]
[擡1]하셔밧ᄌᆞ와그ᄠᅢ[移1]
[擡1]긔후일양평안ᄒᆞᄋᆞᆸ신일ᄌᆞ시
아ᄋᆞᆸ고몬내알외와ᄒᆞᄋᆞᆷ
편후이ᄠᅢ예[移1]
[擡1]긔후엇더ᄒᆞ오신디모ᄅᆞ와복모
ᄒᆞᄋᆞᆸᄌᆞᄂᆞᆫ긔운음식무ᄒᆞᆫᄃᆞᆺ
ᄉᆞᆸ고구실도됴히ᄃᆞᆫ니ᄋᆞᆸᄂᆞ이
다봄의구실듕대ᄒᆞᆫ일
업ᄉᆞ오면정월로말미ᄒᆞ야
가오랴ᄒᆞ오ᄃᆡ힝혀걸
니올가아므리ᄒᆞ올줄아직
뎡틀못ᄒᆞ여이다브ᄃᆡ
[擡1]긔운을잘ᄒᆞ오셔ᄆᆡ일평안
ᄒᆞᄋᆞᆸ시면지야이밧긔다ᄅᆞᆫ
일잇ᄉᆞ오리잇가[移1]
[擡1]하교ᄒᆞᄋᆞᆸ신말ᄉᆞᆷ은어이ᄀᆞᆨ골
ᄒᆞ여아니시힝ᄒᆞ오리잇가
풍한ᄡᅩ이디마오시고약년ᄒᆞ

얘[隔1]잡습고[移1]
[擡1]긔운을잘ᄒᆞ오쇼셔주ᄌᆞ골셔
대되평안ᄒᆞ시오이다어이다
알외리잇가아마도[移1]
[擡1]긔후미일평안ᄒᆞᄋᆞᆸ심만ᄇᆞ라ᄋᆞᆸ
뎡ᄉᆞ섯ᄃᆞᆯ열엿쇈날ᄌᆞ이셕[添2]술이

2. 전사 · 주석

동미죵후(冬未終後) 긔별(寄別) 몰나 답답ᄒᆞᄋᆞᆸ더니 츈봉[1] 오와늘 하셔(下書) 밧ᄌᆞ와 그 때 긔후(氣候)[2] 일양(一樣) 평안(平安)ᄒᆞᄋᆞᆸ신 일 ᄌᆞ시[3] 아ᄋᆞᆸ고 몬내 알외와 ᄒᆞᄋᆞᆸ[4] 편후(便後)[5] 이 때예 긔후 엇더ᄒᆞ오신디 모ᄅᆞ와 복모(伏慕)ᄒᆞᄋᆞᆸ ᄌᆞ(子)ᄂᆞᆫ 긔운(氣運) 음식(飲食) 무흔(無限) 둇습고 구실[6]도 됴히[7] ᄃᆞᆫ니ᄋᆞᆸᄂᆞ이다 봄의 구실 듕대(重大)ᄒᆞᆫ 일 업ᄉᆞ오면 정월(正月)로 말미ᄒᆞ야[8] 가오랴 ᄒᆞ오디 ᄒᆡᆼ(幸)혀 걸니올가[9] 아므

---

1) 츈봉 : 인명. 집에서 부리던 종의 이름인 듯하다.
2) 긔후(氣候) : 기체(氣體). 몸과 마음의 형편. 웃어른께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쓰는 말이다.
3) ᄌᆞ시 : 자세히.
4) 알외와 ᄒᆞᄋᆞᆸ : 아뢰려 하옵. 의도·예정을 나타내는 '-려 하다'에 상당한 형식으로 '-와 하다'가 쓰인 것이다.
5) 편후(便後) : 인편(人便)을 보낸 뒤로.
6) 구실 : 관직(官職). 여기서는 '관청'(官廳)이라는 뜻이다. '구실'은 '구위실'(←그위+실)이 줄어서 된 말이다.
7) 됴히 : 좋게. 여기서는 '잘'의 뜻이다.
8) 말미ᄒᆞ야 : 틈타. 겨를을 내어. '말미'(←말믜/말믜)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

리[10] ᄒᆞ올 줄 아직 뎡(定)틀 못ᄒᆞ여이다 브디 긔운을 잘 ᄒᆞ오셔 ᄆᆡ일(每日) 평안(平安)ᄒᆞᄋᆞᆸ시면 지야 이 밧긔 다른 일 잇ᄉᆞ오리잇가 하교(下敎) ᄒᆞᄋᆞᆸ신 말ᄉᆞᆷ은 어이 ᄀᆞᆨ골(刻骨)ᄒᆞ여 아니 시ᄒᆡᆼ(施行)ᄒᆞ오리잇가 풍한(風寒) ᄡᅬ이디 마오시고 약(藥) 년(連)ᄒᆞ야 잡ᄉᆞᆸ고 긔운을 잘 ᄒᆞ오쇼셔 주ᄌᆞ골[11]셔 대되[12] 평안ᄒᆞ시오이다 어이 다 알외리잇가 아마도[13] 긔후 ᄆᆡ일 평안 ᄒᆞᄋᆞᆸ심만 ᄇᆞ라ᄋᆞᆸ

뎡ᄉᆞ(丁巳 : 1677) 섯ᄃᆞᆯ 열엿쇈날 ᄌᆞ 이셕[14] ᄉᆞᆲ이[15]

3. 현대어역

겨울 끝자락[에 소식 들은] 뒤로 기별 몰라 답답하옵더니, 춘봉이가 오거늘, 내려 주신 글월 받잡아, 그동안 [어머님] 건강 한결같이 평안하옵신 일 자세히 아옵고, 못내 아뢰려 하옴. 인편을 보낸 뒤로 이 때에, 건강 어떠하오신지 몰라 그리옵. 아들은 기운과 먹고 마시는 일 한없이 좋사옵고, 구실에도 잘 다니옵나이다. 봄에, 구실[관청]에 큰일 없사오면, 정월로 겨를을 내어 가오려 하오되, 어쩌다가라도 자칫 허물 잡힐까 [싶

인 사람이 어떤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말한다.

9) 걸니올가 : 걸릴까. '허물 잡힐까'의 뜻이다.

10) 아므리 : 아무리. 여기서는 '어떻게 하여도'의 뜻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의 뜻으로 쓰였다.

11) 주ᄌᆞ골 : 지명.

12) 대되 : 모두.

13) 아마도 : 여기서는 '아무쪼록'의 뜻이다.

14) 이셕 : 인명. 윤이석(尹爾錫, 1626~1694).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손자이자 윤인미(尹仁美, 1607~1674)의 첫째 아들이다.

15) ᄉᆞᆲ이 : 사뢰. 이두에 보이는 '白是'(ᄉᆞᆲ이)에서 나온 말로서 「ᄉᆞᆲ(다) + 이」의 결합형이다.

어서], 어떻게 하올 것인가를 아직 정하들 못하였사오이다. 부디 기운을 잘 차리시어 날마다 평안하시오시면, 저야 이 밖에 다른 일 있사오리까? 일러 주신 말씀은 어이 마음 깊이 새겨 아니 시행하오리까? 찬바람 쏘이지 마시고, 약은 줄곧 이어 잡수시고, 기운을 잘 차리옵소서. 주자골에서도 모두 평안하시오이다. 어이 다 아뢰오리까? 아무쪼록 건강 날마다 평안 하옵심만 바라옴.

정사년 섣달 열엿새 날에, 아들 이석이가 사룀.

4. 참고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손자이자 윤인미(尹仁美, 1607～1674)의 첫째 아들인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이 1677년에 보낸 편지이다. 당시에 윤이석은 음직(蔭職)으로 출사하여 이산현감(尼山縣監)을 지냈다. 늙으신 홀어머니 슬하에 나이 어린 아우 둘이 딸려 있어 집안 걱정이 많았다.

18 1-13. 海尹_MF35-3208_644(32x24cm): 아들 → 어머니

1. 판독

[擡1]어마님긔운도그만이나ᄒᆞ옵신가시

브오니더옥다힝ᄒᆞ옴못ᄂᆡ알외
오며야동셔는[隔1]힝ᄎᆞᄒᆞ옵실날이
졈〃다ᄃᆞᆺᄌᆞ오니섭〃ᄒᆞ온하졍이
아ᄆᆞ라타업ᄉᆞ와ᄒᆞᄋᆞᆸᄂᆞ이다알외
올말솜이사ᄅᆞᆷ급히가ᄋᆞᆸ노라ᄒᆞ
옵기로혼망ᄒᆞ와이만알외오며
일긔사오납ᄉᆞ오니ᄂᆡ〃[移1]
[擡1]긔후안녕ᄒᆞ오오심ᄇᆞᄅᆞᄋᆞᆸᄂᆞ이다

2. 전사 · 주석

어마님 긔운(氣運)도 그만이나 ᄒᆞᄋᆞᆸ신가 시브오니 더욱 다힝(多幸)ᄒᆞ옴 못ᄂᆡ 알외오며 야동[1]셔는 힝ᄎᆞ(行次)ᄒᆞ옵실 날이 졈졈(漸漸) 다ᄃᆞᆺᄌᆞ오니[2] 섭섭ᄒᆞ온 하졍(下情)이 아ᄆᆞ라타 업ᄉᆞ와[3] ᄒᆞᄋᆞᆸᄂᆞ이다 알외올 말솜 이 사ᄅᆞᆷ[4] 급(急)히 가ᄋᆞᆸ노라 ᄒᆞ옵기로 혼망(昏忘)ᄒᆞ와 이만 알외오며 일긔(日氣) 사오납ᄉᆞ오니 ᄂᆡᄂᆡ 긔후(氣候)[5] 안녕(安寧)ᄒᆞ오오심[6] ᄇᆞᄅᆞᄋᆞᆸᄂᆞ이다

---

1) 야동 : 지명. 여기서는 거기에 있는 친척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2) 다ᄃᆞᆺᄌᆞ오니 : 다다랐사오니.
3) 아ᄆᆞ라타 업ᄉᆞ와 : 아무렇다고 할 것이 없어. 어찌할 바가 없어.
4) 이 사ᄅᆞᆷ :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인편을 맡은 사람.
5) 긔후(氣候) : 기체(氣體). 몸과 마음의 형편. 웃어른께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쓰는 말이다.
6) 안녕(安寧)ᄒᆞ오오심 : 안녕(安寧)하오심. 불필요하게 '-오-'를 한 번 더 쓴 것이다.

3. 현대어역

어머님 기운(氣運)도 그만이나 하오신가 싶으오니, 더욱 다행하옴[을] 못내 아뢰오며. 야동에서는 길을 떠나실 날이 조금씩 가까이 다다랐사오니, 섭섭하온 마음이 어찌할 줄 몰라 하옵나이다. 아뢰올 말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 급히 가옵노라 하옵기로 [정신이] 어두워, 이만 아뢰오며. 날씨 사납사오니, 내내 건강 안녕하오심 바라옵나이다.

19 1-14. 海尹_MF35-3208_608(48x34cm): 며느리 → 시어머니(1925)

1. 판독

[隔2]어마님젼상살이[移1]
[隔1]문[移1]
안알외웁고문후ᄋᆞ웁고져ᄒᆞ웁든ᄎᆞ
어마님하셔밧ᄌᆞ와황송ᄒᆞ웁기쥬
소동〃부리웁지ᄒᆞ올소이다연하와
즁하의[隔1]하라바님게웁셔기톄후
안영ᄒᆞ웁시니잇가어마님게웁셔
양위분긔톄연위만안ᄒᆞ웁셔침진
등절니엇더ᄒᆞ웁신잇가슬젼도련님졔
남미분평안션식ᄒᆞ오시며ᄋᆞ웁고져

알외ᄋᆞᆸ나이다각뎍졔휘느리안슌
[上]ᄒᆞ오신잇개[小4]이곳ᄌᆞ부는하렴입ᄉᆞ
[上]와무ᄉᆞᄒᆞᄋᆞᆸ고어버니층절분
뎌단별우아니ᄋᆞᆸ고동기질졀무고ᄒᆞ오
니다가녀무쳠하ᄋᆞᆸ고각곳안신종〃
벌고아니온닷알외옴기리졋ᄉᆞ와이
만알외ᄋᆞᆸ고녀녀바라ᄋᆞᆸ기는부모님
기톄후알영ᄒᆞᄋᆞᆸ시기복츅이올소
이다염여ᄒᆞ시와보녀신소포난금
월십육일밧ᄌᆞ와심이다기일에어
마님하셔와보션쎤ᄌᆞ시밧ᄌᆞ와나
이다
[隔5][小10]을츅윤ᄉᆞ월열여더런날[移1]
[隔12][小4]ᄌᆞ부살이

2. 전사 · 주석

어마님 젼(前) 샹(上)살이[1)]

문안(問安) 알외ᄋᆞᆸ고 문후(問候) ᄋᆞᄋᆞᆸ고져 ᄒᆞᄋᆞᆸ든 ᄎᆞ(次) 어마님 하셔

1) 샹(上)살이 : 한문 편지의 '上白'·'上白背'와 같은 말이다. 지극한 존처(尊處)에 보내는 편지의 피봉(皮封)에 쓰이는 투어(套語)로서 한글 간찰에 흔히 보인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이른바 '上白是'(상ᄉᆞᆲ이)는 특히 조부모나 부모에게 올리는 경우에 붙인다. "祖父母·父母前, 云上白是·白是." (寒暄箚錄 1~9, 兄主類註.) '살이'는 이두에 보이는 '白是'(ᄉᆞᆲ이)에서 나온 말로서 「ᄉᆞᆲ(다) + 이」의 결합형이다.

(下書) 밧ᄌᆞ와 황송(惶悚)ᄒᆞᄋᆞᆸ기 쥬소(晝宵) 동동[2] 부리ᄋᆞᆸ지 ᄒᆞ올소이다[3] 연(連)하와 즁하(仲夏)[4]의 하라바님게ᄋᆞᆸ셔 기톄후(氣體候)[5] 안영(安寧)ᄒᆞᄋᆞᆸ시니잇가 어마님게ᄋᆞᆸ셔 양위(兩位)분 긔톄(氣體) 연위만안(連爲萬安)[6]ᄒᆞᄋᆞᆸ셔 침진등절(寢進等節)[7]니 엇더ᄒᆞᄋᆞᆸ신잇가 슬젼(膝前) 도련님 제남ᄆᆡ(諸娚妹)분 평안션식(平安善食)ᄒᆞ오시며 ᄋᆞᄋᆞᆸ고져 알외ᄋᆞᆸ나이다 각ᄃᆡᆨ(各宅) 졔휘(諸候ㅣ)[8] 느리[9] 안슌(安順)ᄒᆞ오신잇가 이곳 ᄌᆞ부(子婦)는 하렴(下念)[10] 입ᄉᆞ와 무ᄉᆞ(無事)ᄒᆞᄋᆞᆸ고 어버니 층졀(層節)[11]분 ᄃᆡ단 별우(別憂)[12] 아니ᄋᆞᆸ고[13] 동기질졀(同氣姪節)[14] 무고(無故)ᄒᆞ오니다 가ᄂᆡ(家內) 무쳠(無添)하ᄋᆞᆸ고 각(各)곳 안신(雁信) 종종(種種) 별고(別故) 아니온 닷 알외옴 기리[15] 젓ᄉᆞ와[16] 이만 알외ᄋᆞᆸ고 ᄂᆡᄂᆡ

---

2) 동동 : (안타깝거나 추워서) 발을 가볍게 자꾸 구르는 모양. 여기서는 '황송하여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3) ᄒᆞ올소이다 : '못ᄒᆞ올소이다'라고 해야 할 데서 실수로 '못'을 빠뜨린 것이다.

4) 즁하(仲夏) : 여름이 한창인 때. 음력 5월.

5) 기톄후(氣體候) : 기력(氣力)과 신체(身體)의 상태.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지극한 존처(尊處)에 대하여 그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말이다. (新編尺牘大方 28쪽 참조.)

6) 연위만안(連爲萬安) : 연향만안(連享萬安). 줄곧 편안하게 지냄.

7) 침진등절(寢進等節) : 자고 먹는 따위의 여러 가지 일.

8) 졔휘(諸候ㅣ) : 여러 분들이. '제절'(諸節)과 같은 말로 쓰였다. '제절'(諸節)은 존처의 집안에 딸린 모든 식솔의 일상이나 정황을 가리켜 말하는 투어이다.

9) 느리 : 늘. 언제나.

10) 하렴(下念) :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염려하여 줌. 또는, 그런 염려를 아랫사람이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 편지 글에서 흔히 쓰이며, 비슷한 말로는 하려(下慮)·하휼(下恤) 따위가 있다.

11) 층졀(層節) : '일의 많은 가닥이나 마디'를 '층절'(層節)이라고 하나, 여기서는 '위아래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12) 별우(別憂) : 특별한 근심.

13) 아니ᄋᆞᆸ고 : 아니옵고. '아니하옵고'의 뜻이다. '아니다'는 형용사로 쓰이고 '아니하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두루 쓰이는데, 여기서는 '아니다'를 곧장 동사로 쓴 것이다.

14) 동기질졀(同氣姪節) : 여러 형제자매와 조카들 모두.

바라옵기는 부모님 기톄후 알영(安寧)ᄒᆞ옵시기 복츅(伏祝)이올소이다 염여(念慮)ᄒᆞ시와 보너신 소포(小包)난 금월(今月) 십육일(十六日) 밧ᄌᆞ와심이다 기일(其日)에 어마님 하셔와 보션 쏜(本)[17] ᄌᆞ시 밧ᄌᆞ와나이다

을츅(乙丑 : 1925) 윤ᄉᆞ월(閏四月) 열여더런날 ᄌᆞ부 살이

3. 현대어역

어머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문후(問候) 알고자 [궁금해] 하던 겨를에, 어머님 내려주신 글월 받자와 삼가 두려워 밤낮 동동[거리는 마음], 부려 놓지 못하올소이다. 바야흐로 한여름에, 할아버님께옵서 기력과 신체 안녕하오십니까? 어머님께서도, 두 분 다 기력과 신체 줄곧 편안하시어, 자고 드시는 일이 어떠하십니까? 슬하의 도련님 및 여러 남매 분들 평안히 지내며 밥들 잘 먹으오며…. [소식을] 알고자 [궁금해서] 아뢰나이다. 여러 집 모든 식솔들 늘 편안하오십니까? 이곳, 며느리는 [어머님께서] 아래로 걱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사와 무사하옵고, [저의] 어버이 및 위아래 어른들 특별히 대단한 근심은 아니하옵고, 여러 형제들 및 조카들 모두 무고하오이다. 집안 사람들 달리 병으로 더친 일 없고, 여러 곳 소식 가끔 [듣사오매], 별고 [겪지] 아니하는 듯[하오이다]. 아뢰는 말씀 길어질까 두려워 이만 아뢰옵고. 내내 바라옵기는, 부모님 기력과 신체 안녕하옵

---

15) 기리 : 길이. '길어짐'이라는 뜻이다.

16) 젓ᄉᆞ와 : 두려워.

17) 쏜(本) : 견본(見本).

시기를 비옵나이다. 염려하시어 보내신 소포는 이 달 16일에 받자왔습니다. 그날에 어머님께서 내려 주신 글월과 보선 견본 [모두] 잘 받자왔나이다.

을축년 윤사월 열 여드렛날, 며느리 사룀.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큰아들 윤영선(尹泳善, 1905~1997)의 부인 제주양씨(濟州梁氏, 1903~1950)가 1925년에 보낸 편지이다. 본문의 표기 형태가 모음 'ㆍ'에 있어 이전 시기에 'ᄉᆞ리'·'ᄉᆞᆯ이'이던 것이 '살이'로 적히고 'ᄃᆞᆺ'이던 것이 '닷'으로 적혀진 점에서 19세기 이후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본문의 "슬젼 도련님 졔남ᄆᆡ분 평안션식ᄒᆞ오시며"라는 말을 통하여 이 편지의 발신자가 달리 '아주버니'라고 부를 만한 상대가 없는 큰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남윤씨가에 있어서 19세기 이후로 이른바 '을축년'(乙丑年)에 위로 "하라바님"이라 부를 만한 시할아버지를 모시던 손자며느리는 1925년에 생존하고 있던 윤정현의 부인 이상래일 뿐이고, 당시에 그의 시아버지 윤재형(尹在衡, 1862~1893)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따라서 본문의 이른바 "하라바님"은 발신자의 시증조부 윤관하(尹觀夏, 1841~1926)라야 마땅하고, 발신자는 당연히 윤영선의 부인 제주양씨라야 마땅하다.

20 1-15. 海尹_MF35-3208_607(20x205cm): 사위 → 장모(1918)

1. 판독

[隔1]무용[小2]외싱리형균는두어자횡
[隔1]필노외고주젼에사리나이다
쳔시인사가일테순환하와
홍노승염이고별을작ᄒᆞ고황
국가졀리오인을활낙케
ᄒᆞ더니어언국노상위ᄒᆞ고ᄆᆡ
ᄒᆞᆷ츈의ᄒᆞ오니슬푸다세
월리여ᄐᆡ산을비별ᄒᆞ온
지임의이연이요궐후하
ᄒᆞ옵기는어언뉵칠삭이지
나오니소졀지죄을여하가
도리요연이오나편협ᄒᆞᆫ
소견에널이싱각지못ᄒᆞ온
허물리오니용셔ᄒᆞ시기
바라나이다거츈에쳐삼
촌게셔경셩왕반에즉힝하
신것은좀셥셥ᄒᆞᆫ마음이
잇스나누구을보리들이시겟슴
님가연하와금하에제의자
친게옵셔구병환으로경셩

부인병원에입원하시엿
ᄶᅡ가거월에퇴원하시와
환차하시고중츄에졔의사
촌을일ᄭᅩᄯᅩ졔가어ᄃᆡ졈
가랴고ᄒᆞ다가여의치못ᄒᆞ
야중지ᄒᆞ얏ᄊᆞ오나금ᄒᆞ이
후로분주무가ᄒᆞ와차일피
일ᄒᆞ옵다가이제것궐후
ᄒᆞ오니ᄒᆞ렴에죄송만〃이
로소이다거월ᄒᆞ시든가삼
ᄉᆡᆼ차로한양공원에갓ᄶᅡ가
그곳을바라보니만산은죽격
ᄒᆞ야아참안기둘여잇고황
ᄒᆞ은멀이잇셔하날과갓을
ᄒᆞ니님풍요기에도증울결
ᄒᆞ고사지암〃에언욕체뉴
ᄒᆞ와이정낙월과남포정운
만무심이완망타가귀가ᄒᆞ
온후이제것그곳에셔ᄒᆞ든
일리일〃리ᄭᅮᆷ에보이드니
금야에착을보다그ᄃᆡ로칙
상에의지ᄒᆞ야잠이드럿든
지훌연문밧그로영숙원이
드러오난ᄃᆡ싱시와갓치온
화훈긔식이읍고담안위의

을ᄯᅳ여말ᄒᆞ되이의리업고
무심ᄒᆞᆫ쳥년아너가ᄉᆡᆼ젼에
밀리일는말을하나도실
힝치안이ᄒᆞ나야ᄂᆡ의말은웃
지하얏든지너의알을ᄃᆡ
에우리부모의속셕여드리
든것을반이나ᄉᆡᆼ각ᄒᆞ나야ᄒᆞᆷ
며준절ᄒᆞᆫ말이뼈을극난
듯시ᄒᆞ기로그발명봇탐ᄒᆞ
랴고말을ᄒᆞ랴ᄒᆞᆫ즉ᄃᆡ답도
안이ᄒᆞ고이러서기로ᄯᅩ볼
길을말ᄒᆞ즉다만손가락여
달본만쏩고가니알수읍서
다시무르나그ᄃᆡ로표연이간
이그난여덜쌀린지열달
ᄒᆡᆫ지팔십연인지그긔약이망
연ᄒᆞ야괴탄ᄒᆞ다가ᄭᅴ이니
남포에기름은다하야불은
ᄭᅥ지고비소리은쳐〃ᄒᆞᆫᄃᆡ방
안에난찬바람만돈니하도
의아하야사방을둘너보
아도아모ᄒᆞᆫ젹도읍고
이ᄃᆡ난임의자졍이라인
젹만고요ᄒᆞᆯᄲᅮᆫ이요ᄭᅮᆷ엔
보고ᄯᅩ못보니두눈에눈물ᄲᅮᆫ이

라싱각ᄒᆞ야보오니이러한쌈
을쑤고말한더은이세상에
외구주양외분외고야흘더
옵스나길도멀고사이도압셔싱
각지못ᄒᆞ야웅싀하온사
연과거칠은글시로두어
자올이나이다차시월계소츈
ᄒᆞ고일회양동ᄒᆞ온더
긔톄후일향만강하옵시
며외구주게옵도긔톄말영
ᄒᆞ옵시고눈우시사가차
졔평균ᄒᆞ옵고더소각덕
상하졔절리안영들ᄒᆞ시
오니가복졀원문이로소이다
[小2]외싱은긱지무고ᄒᆞ옵고
시골문안종〃듯사오니
복히이로소이다알외옴남사오나등
ᄒᆞ에즉졉싱각난난더로눈
에보인대로졍신읍시두어
자상셔ᄒᆞ오니그더로보시고
곳읍식시기바라난이다사졍
모르난이가보며ᄒᆞᆫ번우슴가마
리오이대[移1]
[隔1]몸이흔들여잘되진안인하
[隔1]얏스나사진ᄒᆞᆫ장보니오니제

[隔1]의사라잇슬더와갓치사랑
[隔1]ᄒᆞ야밧다보시기바라난이다
[隔2]무오시월십칠일
[隔6]외싱리형균
[隔10]승서

2. 전사 · 주석

무용(無用) 외싱(外甥)[1] 리형균[2]는 두어 자(字) 횡필(橫筆)노[3] 외고주(外姑主)[4] 전(前)에 사리나이다[5]

천시인사(天時人事)가 일톄순환(一切循環)하와 홍노승염(興老勝炎)[6]이 고별(告別)을 작(作)ᄒᆞ고 황국가절(黃菊佳節)리 오인(吾人)을 활낙(歡樂)케 ᄒᆞ더니 어언 국노상위(菊老霜威)[7]ᄒᆞ고 미ᄒᆞᆷ츈의(梅含春意)[8]ᄒᆞ오니 슬푸다 셰월(歲月)리여 틱산(泰山)[9]을 비별(拜別)ᄒᆞ온 지 임의 이연(二年)이요 궐후하(闕候何)[10]ᄒᆞ옵기는 어언 뉵칠(六七) 삭(朔)이

---

1) 외싱(外甥) : 편지 글에서,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2) 리형균 : 인명. 수신자의 사위 연안(延安)이씨 이형균(李衡均, 1901~?).
3) 횡필(橫筆)노 : 마구 쓰는 글씨로.
4) 외고주(外姑主) : 장모님. 편지 글에서, 장모를 일컬어 '외고'(外姑)라고 한다.
5) 사리나이다 : 사뢰나이다.
6) 홍노승염(興老勝炎) : 노염(老炎). 늦더위. 이른바 '老炎'은 '庚炎'·'餘炎'·'殘炎' 따위의 말과 함께 주로 음력 7월을 나타내는 말이다. (時令類, 『寒暄箚錄 1~30』)
7) 국노상위(菊老霜威) : 국화꽃이 다 시들고 서리가 내려 추위가 심해짐.
8) 미ᄒᆞᆷ츈의(梅含春意) : 매화꽃이 봄에 피어날 꽃눈을 머금음.
9) 틱산(泰山) : 태산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한 비유. 발신자 사위가 그의 장인·장모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나오니 소졀지죄(小節之罪)[11]을 여하(如何) 가도리요[12] 연(然)이오나 편협(偏狹)훈 소견(所見)에 널이 싱각지 못훈온 허물리오니 용셔(容恕)훈시기 바라나이다 거츈(去春)에 쳐삼촌(妻三寸)[13]게셔 경셩(京城) 왕반(往返)에 즉힝(卽行)[14]하신 것은 좀 셥셥훈 마음이 잇스나 누구을 보라 들이시겟슴닝가[15] 연(連)하와[16] 금하(今夏)에 제의 자친(慈親)게옵셔 구병환(救病患)으로 경셩 부인병원(婦人病院)에 입원(入院)하시엿싸가 거월(去月)에 퇴원(退院)하시와 환차(還次)[17]하시고 중츄(仲秋)[18]에 제의 사촌(四寸)을 일㕕 쏘 제가 어디 졈 가랴고 훈다가 여의(如意)치 못훈야 중지(中止)훈얏싸오나 금훈(今夏) 이후(以後)로 분주무가(奔走無暇)훈와 차일피일(此日彼日) 훈옵다가 이제것 궐후(闕候)훈오니 훈렴(下念)에 죄송만만(罪悚萬萬)이로소이다 거월 훈시(何時)든가 삼보(散步) 차(次)로 한양공원(漢陽公園)에 갓싸가 그곳을 바라보니 만산(萬山)은 죽격(竹隔)[19]훈야 아참 안긔 둘여 잇고 황훈(黃河)은 멀이 잇셔 하

---

10) 궐후하(闕候何) : 안부가 어떠냐고 묻는 일을 빠뜨림. 인사를 드리지 못함.

11) 소졀지죄(小節之罪) : (발신자의 편에서 말하여) 저의 죄. 이른바 '소절'(小節)은 '대수롭지 아니한 예절'을 뜻하거나 또는 '대의(大義)에 뜻을 두지 아니한 작은 절조(節操)'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바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12) 가도리요 : 다그쳐 잡으리요. 이른바 '가두다'는 '(사람이) 폈던 팔다리를 오그리다'·'(날짐승이) 폈던 날개를 접어 붙이다' 따위를 뜻하며, 이것은 '거두어들이다'에 상당하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정신 상태나 마음에 적용하여 '풀렸던 것을 다잡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3) 쳐삼촌(妻三寸) : 처숙(妻叔). 아내의 친정 삼촌.

14) 즉힝(卽行) : 곧 감.

15) 들이시겟슴닝가 : 들르시겠습니까.

16) 연(連)하와 : 이어서. 여기서는 접속 부사 '그리고'에 상당하는 기능을 보인다.

17) 환차(還次) : 길 떠난 웃어른이 돌아옴.

18) 중츄(仲秋) : 음력 팔월.

날과 갓[20])을 ᄒᆞ니[21]) 님풍요기(臨風搖起)[22])에 도증울결(度症鬱結)[23]) ᄒᆞ고 사지암암(四地暗暗)에 언욕체뉴(言欲涕淚) ᄒᆞ와 이정낙월(離亭落月)과 남포정운(南浦停雲)만 무심(無心)이 완망(玩望)타가 귀가(歸家) ᄒᆞ온 후 이제것 그곳에셔 ᄒᆞ든 일리 일일(一一)리 쑴에 보이드니 금야(今夜)에 착(冊)을 보다 그ᄃᆡ로 칙상(冊床)에 의지(依支) ᄒᆞ야 잠이 드럿든지 홀연(忽然) 문(門)밧그로 영숙[24]) 원(寃)[25])이 드러오난ᄃᆡ 싱시(生時)와 갓치 온화(溫和)ᄒᆞᆫ 긔식(氣色)이 읍고 담안 위의(威儀)[26])을 쓰여 말ᄒᆞ되 이 의리(義理) 업고 무심ᄒᆞᆫ 청년(靑年)아 너가 싱전(生前)에 밀리 일는 말을 하나도 실힝(實行)치 안이ᄒᆞ나야 너의 말은 읏지하얏든지 너의 알을 ᄃᆡ에 우리 부모(父母)의 속 셕여 드리든 것을 반(半)이나 싱각ᄒᆞ나야 흠며 준절(峻截)[27])ᄒᆞᆫ 말이 쎄을 극난 듯시 ᄒᆞ기로 그 발명(發明)[28]) 봇탐 ᄒᆞ랴고 말을 ᄒᆞ랴 ᄒᆞᆫ 즉 ᄃᆡ답(對答)도 안이ᄒᆞ고 이러서기로 쏘 볼길을 말ᄒᆞ 즉(則) 다만 손가락 여달 본(番)만 쏩고 가니 알 수 읍셔 다시 무르나 그ᄃᆡ로 표연(飄然)이 간이 그난 여덜 쌀린지 열달[29]) 힌지 팔

---

19) 죽격(竹隔) : 즐비(櫛比). 산들이 마치 나란히 늘어선 대숲의 대나무처럼 벌여져 있는 모양.

20) 갓 : 가. 충청·전라 등지의 사투리에서, '가장자리'나 '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가'를 '갓'이라고 말한다.

21) 하날과 갓을 ᄒᆞ니 : 하늘로 더불어 경계를 이루니.

22) 님풍요기(臨風搖起) : 바람을 마주하고 (정신을) 흔들어 깨움.

23) 도증울결(度症鬱結) : (신체상으로 마치 하나의 태도가 되어버린 듯한) 화증(火症)으로 가슴이 답답하게 막힘.

24) 영숙 : 인명. 발신자 사위의 아내, 수신자 장모의 딸,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9세손 윤영숙(尹泳淑).

25) 원(寃) : 원혼(寃魂).

26) 위의(威儀) :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27) 준절(峻截) : 매우 위엄이 있고 정중함.

28) 발명(發明) : 변명(辨明).

심(八十) 연(年)인지 그 긔약(期約)이 망연(茫然)[30]ᄒᆞ야 괴탄(愧歎)[31]ᄒᆞ다가 ᄉᆡ이니 남포에 기름은 다하야 불은 ᄭᅳ지고 비소ᄅᆡ은 쳐쳐(凄凄)ᄒᆞᆫᄃᆡ 방안에난 찬바람만 돈니 하도 의아(疑訝)하야 사방(四方)을 둘너보아도 아모 흔적도 읍고 이 ᄃᆡ난 임의 자정(子正)이라 인적(人迹)만 고요ᄒᆞᆯ ᄲᅮᆫ이요 ᄭᅮᆷ엔 보고 ᄯᅩ 못 보니 두 눈에 눈물ᄲᅮᆫ이라 ᄉᆡᆼ각ᄒᆞ야 보오니 이러한 ᄭᅮᆷ을 ᄭᅮ고 말한 ᄃᆡ은 이 셰상(世上)에 외구주(外舅主)[32] 양외(兩位)분[33] 외고(外告)야 ᄒᆞᆯ ᄃᆡ 읍스나 길도 멀고 사이도 압셔[34] ᄉᆡᆼ각지 못ᄒᆞ야 옹식(壅塞)하온 사연(辭緣)과 거칠은 글시로 두어 자 올이나이다 차시(此時) 월계소츈(月繼小春)[35]ᄒᆞ고 일퇴양동(日退陽東)[36]ᄒᆞ온ᄃᆡ 긔테후(氣體候) 일향만강(一享萬康)하ᄋᆸ시며 외구주(外舅主)게ᄋᆸ도 긔테(氣體) 말영(萬寧)ᄒᆞᄋᆸ시고 뉸우(允友)[37] 시사(侍史)[38]가 차졔(此際) 평균(平均)ᄒᆞᄋᆸ고 ᄃᆡ소각ᄃᆡᆨ(大小各宅) 상하졔절(上下諸節)리 안영(安寧)들ᄒᆞ시오니가 복졀원문(伏切願聞)이로소이다 외ᄉᆡᆼ(外甥)은 긔지

---

29) 열달 : 여덟. 앞서와 같이 '여덜'이라고 쓸 만한 것을 실수로 일관성이 없게 '열달'이라고 적은 것이다.

30) 망연(茫然) : 아득한 모양.

31) 괴탄(愧歎) : 괴상하게 여기어 탄식함.

32) 외구주(外舅主) : 장인님. 편지 글에서, 장인을 일컬어 '외구'(外舅)라고 한다.

33) 양외(兩位)분 : 두 사람뿐.

34) 사이도 압셔 : 겨를도 없어.

35) 월계소춘(月繼小春) : (한 해의) 달이 소춘(小春)에 이어짐. '소춘'(小春)은 곧 '음력 시월'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36) 일퇴양동(日退陽東) : (동지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동남쪽으로 물러남. '양동'(陽東)은 곧 방위로 '남동'(南東)을 이르는 말이다. 한어 '陽'은 흔히 '山南'이나 또는 '水北'을 뜻한다.

37) 윤우(允友) : 영식(令息).

38) 시사(侍史) : 옆에 모시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사람. 여기서는 공경의 뜻을 더하는 단순한 미사(美辭)로서 측근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客地) 무고(無故)ᄒᆞ옵고 시골 문안(問安) 종종(種種) 듯사오니 복힝(伏幸)[39]이로소이다 알외옴 남사오나 등ᄒᆞ(燈下)에 즉졉(直接) ᄉᆡᆼ각난 난ᄃᆡ로 눈에 보인 대로 정신(精神) 읍시 두어 자 상셔(上書)ᄒᆞ오니 그ᄃᆡ로 보시고 곳 읍시시기 바라난이다 사졍(事情) 모르난 이가 보며 ᄒᆞᆫ번 우슴가마리[40]오이다

[추신]

몸이 흔들여 잘 되진 안인하얏스나 사진(寫眞) ᄒᆞᆫ 장 보너오니 제의 사라잇슬 ᄃᆡ와 갓치 사랑ᄒᆞ야 밧다 보시기 바라난이다

무오(戊午 : 1918) 시월 십칠일 외싱 리형균 상셔

3. 현대어역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위 이형균은 마구잡이 글씨로 두어 글자 장모님 앞에 사뢰나이다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모두 돌고 돌아 늦더위가 물러나고 국화꽃 아름다이 피는 철이 우리들을 즐겁게 하더니, 어언 국화꽃은 다 시들고 서리가 내려 추위가 심해지고 매화는 봄에 피어날 꽃눈을 머금으니, 슬프다, 세월이여!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장인·장모님을 절하고 떠나온 지 이미 2년이요, 안부 묻기를 빠뜨리기로는 어언 예닐곱 달이

39) 복힝(伏幸) : '복행'(伏幸)이라고 써야 할 데서 실수로 받침을 적지 않은 것이다. 편지글에서, 이른바 '伏'은 거의 접두사처럼 쓰이어 자신의 모든 언행·감정 따위를 두루 낮추는 말이다.

40) 우슴가마리 : 남을 웃겨 마땅한 사람. 남에게 조롱을 받아 마땅한 사람. 접미사 '-가마리'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그 말이 뜻하는 바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나오니, 저의 죄를 어찌 다그쳐 잡으리요? 그러나 좁은 소견에 널리 생각지 못한 허물이오니 용서하시기 바라나이다. 지난봄에 처삼촌께서 경성(京城)에 오가시면서 [저희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가신 것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나, [하기야] 누구를 보자고 들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저의 어머님께서 병환을 구원하기 위하여 경성에 있는 부인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난달에 퇴원하시어 돌아오셨고, 8월에는 저의 사촌을 잃었고 또 제가 어디를 좀 가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못해서 그만 두었사오나, 이번 여름 이후로 아무 겨를 없이 바빠서 이날저날 하고 미루다가 이제껏 문안을 여쭙지 못했사오니, 마음에 죄송하기 그지없을 따름이로소이다. 지난달 어느 때든가, 산보나 하자고 한양공원에 갔다가 [장인·장모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니 모든 산은 대숲처럼 벌여진 채로 아침 안개 둘러 있고, 누른 강물은 멀리 있어 하늘과 경계를 이루니, 바람을 마주하고 정신을 흔들어 깨우매 [평소의] 화증(火症)으로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고, 사방은 고요하매 입으로 말을 하자니 눈물부터 흘러내려, 일찍이 헤어지던 자리의 지는 달과 남쪽 물가의 머문 구름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로, 이제껏 그곳에서 하던 일이 하나 하나 꿈에 보이더니, 오늘밤에 책을 보다 그대로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던지, 갑자기 문밖으로 영숙의 원혼(冤魂)이 들어오는데, 살아있을 때와 같이 온화한 기색이 없고, 다만 위엄이 있는 태도를 띠고 말하되, '이 의리 없고 무심한 청년아! [어째서] 내가 생전에 미리 일러둔 말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느냐? [더구나] 내 말은 어찌하였든지 [그만두고라도], 네가 [병으로] 앓을 때에 우리 부모의 속 썩혀 드리던 것을 반이나마 생각하느냐?' 하며, 매우 위엄이 있고 정중한 말이 뼈를 긁는 듯이 하기에, 그 변명부터 하려고 말을 하려 하자, 그냥 곧 대답도 아니하고 일어서기에, 또 볼 방법을 [물어] 말하자, 다만 손가락 여

덟 번만 꼽고 가니, [까닭을] 알 수 없어 다시 물었으나, 그대로 나부끼듯 가니, 그것은 여덟 달인지 여덟 해인지 [아니면] 80년인지, 그 기약이 아득하여 괴이하게 여기며 탄식하다가 [잠을] 깨치니, 남포에 기름은 다하여 불은 꺼지고, 비소리는 처량한데, 방안에는 찬바람만 도니, 하도 이상하게 여겨져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 흔적도 없고, 이 때는 이미 자정이라 인적만 쓸쓸할 뿐이요, 꿈엔 보고 또 못 보니 두 눈에 눈물뿐이라, 생각하여 보오니, 이러한 꿈을 꾸고서 [이것을] 말할 데는 이 세상에 장인·장모님 두 분밖에, 바깥에야 말할 데 없으나, 길도 멀고 겨를도 없어 [달리 방도를] 생각지 못하여 그리 넉넉할 것도 없는 사연과 거친 글씨로 두어 글자 올리나이다. 이즈음, 달은 시월로 이어지고, 해는 동남쪽으로 물러나는데, 기거와 동작이 한결같이 편안하오시며, 장인님께서도 기거와 동작이 안녕하오시고, 아드님과 곁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즈음 다들 잘 지내옵고, 크고 작은 여러 집 위아래 식솔이 모두 안녕들하시오니까?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사위는 객지에서 무고하옵고, 시골 문안 가끔 듣사오니 다행이로소이다. 아뢸 말씀 남았사오나, 등불 아래에서 그냥 곧 [생각나면] 생각난 그대로 눈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정신없이 두어 글자 올리오니, 그대로 보시고 곧 없애시기 바라나이다. 사정 모르는 이가 보면 [저야 그제] 웃음꺼리[가 되고 말 것이]오이다.

[추신]

(아내의) 몸이 흔들려 잘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진(寫眞) 한 장 보내오니, 아내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 보시기 바라나이다.

무오년 시월 십칠일, 사위 이형균 올림.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큰사위였던 연안(延安) 이씨 이형균(李衡均, 1901~?)이 1918년에 서울에서 해남으로 보낸 편지이다. 윤정현에게는 딸 둘과 아들 여섯이 있었는데, 이형균은 이 가운데 가장 맏이였던 큰딸 영숙(泳淑)을 아내로 맞았던 터였다.

21 2-01. 海尹_MF35-3208_626(29x37cm): 언니 → 아우(1886)

1. 판독

ᄉᆞ졔슐펴라
급〃대강적ᄂᆞᆫ거시우리형졔낭누로
싱이시벨ᄒᆞ온지녀려날포되니싱
각홀ᄉᆞ록ᄌᆞ다ᄉᆞᆱ인가싱신가시부
다어린놈형졔다리고골물ᄒᆞ던거동
니안멘의삼〃ᄒᆞ며아ᄌᆞ바님긔셔도
어느ᄂᆞᆯ발정ᄒᆞ셔시며정셔방긔셔도
어느ᄂᆞᆯ발정ᄒᆞ셧시며어린놈ᄐᆡ독
그양갈인지잇지못ᄒᆞ리다앙금ᄂᆡ
외골물다ᄉᆞ즁녀상ᄒᆞ며량용형

제츙실져의들어엿분거동눈의삼
〃긔륜마음새롭고녀ᄌᆞ일신속절업
ᄂᆞᆫ것시며형은노즁의무ᄉᆞ이득정
ᄒᆞ엿시나ᄂᆡ색기놈감긔로셩불치못
ᄒᆞ여혜용이몹시녀우니ᄎᆞ마앗싀
〃젼싱무ᄉᆞᆫ죄로자궁션션이못타그것
ᄒᆞᆫ나두고일싱마음아슬헌고모ᄅᆞ것
다대되의도무탈ᄒᆞ시니ᄉᆞ힝이다지
우각되녀젼들ᄒᆞ시니깃부며올제
셩딩네형상봉ᄒᆞ니제거동을보니아
이본맛못ᄒᆞ더라ᄎᆞ마불상불상동긔
지정의실로잇지못ᄒᆞ리다형제통
곡으로만나고죄별ᄒᆞᆯ제낭누로[添2]ᄒᆞᆯ쳐아인
니상봉아이ᄒᆞᆫ것만못ᄒᆞ더라순창
아모개도무ᄉᆞᄒᆞ며두로생각ᄒᆞᆯᄉᆞ록
몽즁ᄀᆞᆺ다부디세후가거라어린것
들다리고원노의엇지[添3]세안의가야우리형제
셔ᄉᆞ로도어느대반기거나제동긔간ᄀᆞᆺ치
알들고술들냐ᄒᆞ셥〃ᄒᆞ기네왕포
모슈뵈네ᄌᆞ보ᄂᆡ니동긔정으로구〃답〃고
네압프로ᄒᆞᆫ[添1]산깁열얭[添9]네젹삼ᄒᆞ여입버라뉘여시니그리아
랴오리비더려이말ᄒᆞ여라적을
말쳡〃ᄒᆞ나급〃이만쥬린ᄃᆞ이옵ᄂᆡ
〃어린것들다리고신긔무ᄉᆞ이잇ᄃᆞ
간소식듯기민ᄂᆞᆫ대[移1]

병슐납월십일못인는형서

2. 전사 · 주석

ᄉᆞ제(舍弟)[1] 술펴라

급급(急急) 대강(大綱) 적는 거시 우리 형제(兄弟) 낭누(落淚)로 싱이시벨(生離生別)[2] ᄒᆞ온 지 녀러 날포[3] 되니 싱각ᄒᆞᆯᄉᆞ록 ᄌᆞ다 쉼인가 싱신(生時ㄴ)가 시부다 어린놈 형졔 다리고 골물(汨沒)ᄒᆞ던[4] 거동(擧動)니 안멘(安眠)[5]의 삼삼ᄒᆞ며[6] 아ᄌᆞ바님긔셔도 어느 놀 발정(發程)[7] ᄒᆞ셔시며 정셔방긔셔도 어느 놀 발정ᄒᆞ셧시며 어린놈 틔독(胎毒)[8] 그양 갈인지[9] 잇지 못ᄒᆞ리다[10] 앙금[11] 닉외(內外) 골물 다ᄉᆞ(多事) 즁(中) 녀

---

1) ᄉᆞ제(舍弟) : 내 아우. 흔히 남에게 제 아우를 일컬을 때에 쓰는 말이나, 여기서는 단순히 '아우'라는 뜻으로 쓰였다.

2) 싱이시벨(生離生別) : 생이별(生離別). '생이별'(生離別)을 강조하여 '생리생별'(生離生別)이라 하되, 실수로 받침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전라도 사투리에서, 일부 환경에서 모음 'ㅕ'를 흔히 'ㅔ'로 발음한다.

3)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4) 골물(汨沒)ᄒᆞ던 : 고달프던. '골몰'(汨沒)은 본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한 가지 일에 깊이 파묻힘'을 뜻하는 것이나, 일부 지역의 사투리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됨'을 뜻한다.

5) 안멘(安眠) : 얼굴. 여기서는 '눈앞'이라는 뜻이다.

6) 삼삼ᄒᆞ며 :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며.

7) 발정(發程) : 출발(出發).

8) 틔독(胎毒) : 젖먹이의 몸이나 얼굴에 진물이 흐르며 허는 병증(病症).

9) 갈인지 : 갈리었는지. (병이 다) 나았는지. '새것으로 바꾸다'·'갈마들다'라는 뜻을 지니는 '갈다'의 사동형 '갈리다'로써 병리(病理)와 생리(生理)가 갈마듦을 나타낸 말이다.

10) 못ᄒᆞ리다 : 못하겠다. 미래·추측·의지·가능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리-'를 쓰는 용례가 더러 보인다.

상(如常)ᄒᆞ며 량용[12] 형제 츙실(充實) 져의들 어엿분 거동 눈의 삼삼 긔륜[13] 마음 새롭고 녀ᄌᆞ(女子) 일신(一身) 속졀업ᄂᆞᆫ[14] 것시며 형(兄)[15]은 노즁(路中)의 무ᄉᆞ(無事)이 득졍(得程)ᄒᆞ엿시나 너 색기놈 감긔(感氣)로 셩불(-不)치못ᄒᆞ여[16] 헤용(形容)이 몹시 녀우니[17] ᄎᆞ마[18] 앗식[19] 앗식 젼싱(前生) 무ᄉᆞᆫ 죄(罪)로 자궁(子宮)[20] 션션이[21] 못 타[22] 그것 ᄒᆞ나 두고 일싱(一生) 마음 아슬헌고[23] 모ᄅᆞ것다 대덕(大宅)의도 무탈(無頉)ᄒᆞ시니 ᄉᆞ힝(似幸)이다 지우(芝宇)[24] 각덕(各宅) 녀젼(如前)들 ᄒᆞ시니 깃부며 올 제 셩덩[25] 네 형 상봉(相逢)ᄒᆞ니 제 거동을 보니 아이[26] 본 맛 못ᄒᆞ더라 ᄎᆞ마 불상 불상 동긔지졍(同氣之情)의 실(實)로

---

11) 앙금 : 인명. 발신자의 막내 동생 이름.

12) 량용 : 인칭. 앞서 "앙금"이라 부른 이의 두 아들을 아울러 일컬은 것이다. 첫째의 이름은 선용(善鎔)이고, 둘째의 이름은 태용(泰鎔)이다.

13) 긔륜 : 그리운.

14) 속졀업ᄂᆞᆫ : 단념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15) 형(兄) : 발신자 언니 자신에 대한 호칭.

16) 셩불(-不)치 못ᄒᆞ여 : 성하지 아니치 못하여. '성하다'는 '병이나 상처가 없이 온전하다'는 뜻을 지닌 말이므로, 단순히 '성하지 못하여'라고 해야 할 것인데, 실수로 부정 표현을 겹쳐 쓴 것이다.

17) 녀우니 : 여위니. '여위다'를 전라도 사투리에서는 '녀우다'라고 한다.

18) ᄎᆞ마 : 가엾고 애틋하여 어찌. '차마'는 부정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말의 앞에 쓰이는 것이나, 여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고, 따라서 '어찌'라는 뜻은 거의 없다.

19) 앗식 : 아씩. (무섭거나 찬 기운을 느낄 때에) 갑자기 몸이 움츠러드는 모양.

20) 자궁(子宮) : 자식 복. 이른바 '자궁'(子宮)은 점술에서 말하는 12궁(宮)의 하나로서 자손에 관한 운수를 점치는 별자리이다.

21) 션션이 : 시원스럽게.

22) 타 : 타고나. 받아.

23) 아슬헌고 : 아슬아슬한고. 근심스러운 고비를 맞아 조마조마한고.

24) 지우(芝宇) : 남의 몸가짐이나 차린 모습을 높여 이르는 말. 여기서는 인근의 친인척 집안을 두루 높여서 말하는 뜻으로 쓰였다.

25) 셩덩 : 지명.

잇지 못ᄒᆞ리다 형제 통곡(痛哭)으로 만나고 작별(作別)ᄒᆞᆯ 제 낭누(落淚)로 홀쳐[27] 아인니[28] 상봉 아이ᄒᆞᆫ 것 만 못ᄒᆞ더라 순창[29] 아모개도 무ᄉᆞᄒᆞ며 두로 생각ᄒᆞᆯᄉᆞ록 몽중(夢中) ᄀᆞᆺ다 부ᄃᆡ[30] 세후(歲後) 가거라 어린 것들 다리고 원노(遠路)의 엇지 세안(歲-)[31]의 가야 우리 형제 서ᄉᆞ로도[32] 어느 대[33] 반기거나 제 동긔간(同氣間) ᄀᆞᆺ치 알들고 술들나[34] ᄒᆞᆫ[35] 셥셥ᄒᆞ기 네 왕포(王布)[36] 모슈뵈[37] 네 ᄌᆞ[38] 보너니 동긔 졍으로 구구(區區)[39] 답답고 네 압프로 ᄒᆞᆫ산[40] 깁[41] 열 양(兩)[42] - 네 젹삼[43] ᄒᆞ여 입버라 - 뉘여시니[44] 그리 아랴[45] 오러비더려 이 말 ᄒᆞ여라 적을

---

26) 아이 : 아니.

27) 홀쳐 : 잡아매어. 부둥키어. '홀치다'는 '홀치다'를 강하게 표현하는 바로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동이거나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매다'라는 뜻을 지니는 말이다.

28) 홀쳐 아인니 : 부둥켜안느니.

29) 순창 : 지명.

30) 부ᄃᆡ : 부디.

31) 세안(歲-) : 세전(歲前). 새해가 되기 앞. 전라도 사투리에서, '세안'은 또한 '세한'(歲寒)에 상당하는 뜻을 지니어 '심한 추위'나 '추위가 심한 한겨울'을 뜻하기도 한다.

32) 서ᄉᆞ로도 : 스스로도.

33) 어느 대 : 어느 곳. 여기서는 '어느 곳인들'의 뜻이다.

34) 알들고 술들냐 : 알뜰하고 살뜰하랴.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랴.

35) ᄒᆞᆫ : 하도. 많이도.

36) 왕포(王布) : 굵은 베.

37) 모슈뵈 : 저포(紵布). 모시베.

38) ᄌᆞ : 길이의 단위. '자'(尺)는 '치'(寸)의 열 배로서 대략 30.3cm에 해당된다.

39) 구구(區區) : 구차하여.

40) ᄒᆞᆫ산 : 지명.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韓山面). 조선시대를 통하여 줄곧 한산군(韓山郡)이었으나, 1914년에 서천군으로 편입되어 하나의 면이 되었다.

41) ᄒᆞᆫ산 깁 : 한산에서 생산된 비단. 이른바 '깁'은 '명주실을 재료로 삼아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을 말한다.

42) 양(兩) : 냥. 무게의 단위.

43) 젹삼 : 윗도리에 입는 홑저고리. 단삼(單衫).

44) 뉘여시니 : 누였으니. 이른바 '누이다'는 '(무명 · 모시 · 명주 따위를) 잿물에 삶아 물

말 쳡쳡(疊疊)ᄒᆞ나 급급 이만 쥬린ᄃᆞ 이 욥[46] 너너 어린것들 다리고 신긔(神氣)[47] 무ᄉᆞ이 잇ᄃᆞ 간 소식(消息) 듯기 민ᄂᆞᆫ다

벵슐(丙戌) 납월(臘月) 십일(十日) 못 인ᄂᆞᆫ 형 셔(書)

3. 현대어역

아우 살펴라.

다급하게 얼추 적는 것이, 우리 형제 눈물 흘리며 생이별한 지 여러 날 되니, 생각할수록 자다 꿈인가 생신가 싶다. 어린놈 형제 데리고 고달파 보이던 몸짓이 눈에 삼삼하며…. 아주버님께서도 어느 날 출발하셨으며, 정서방께서도 어느 날 출발하셨으며, 어린놈 태독(胎毒)은 그냥 [탈없이] 나았는지 잊지 못하겠다. 앙금이 내외, 여러 가지 일로 고달피 지내는 가운데 여전하며, 두 용(鏞)이 형제 살지고 튼튼[하니], 저희들 어여쁜 몸짓 눈에 삼삼[하매], 그리운 마음 [다시] 새롭고. 여자 일신(一身), 속절없는 것이며…. 언니는 길을 떠나 무사히 [집까지] 다다랐으나, 내 새끼 놈 감기로 성하지 못하여 몸이 몹시 여위니, 차마 아쓱아쓱[하다]. 전생의 무슨 죄로 자식 복을 선선히 못 타 [가지고], 그것 하나 두고 일생(一生)을 마음 졸이고 사는지 모르겠다. 큰집에도 아무 탈 없으시니 다행스럽다. 아울러 여러 집들도 여전들 하시니 기쁘며. 올 제, 성정에서 네 언니 만나보니, 제 몸짓을 보니, 아니 본 만 못하더라. 차마 불

에 빨기를 거듭하여 희고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45) 아랴 : 알아라. '알아라'를 줄여서 '아랴'라고 하였다.

46) 이욥 : 이 앞으로.

47) 신긔(神氣) : 정신과 기운.

쌍하고 불쌍하여, 동기(同氣)로 난 정에 참으로 잊지 못하겠다. 형제가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어 만나고 헤어질 제, 눈물로 부둥켜안느니, 만나지 아니한 것 만 못하더라. 순창의 아무개도 무사하며, 두루 생각할수록 꿈만 같다. 부디 설을 지내고 가거라. 어린것들 데리고 먼 길을 어찌 추위 속에 가야? 우리 형제 스스로도 어느 곳[인들 한 군데라도] 반기거나, [하물며 형제 아닌 마당에, 가려는 거긴들] 제 동기간(同氣間) 같이 [너를 위하는 마음이] 알뜰하고 살뜰하랴? 하도 섭섭하기에, 네게 굵은 모시베 네 자 보내니, 동기간 정으로 구차스럽고 답답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 [다시] 한산 비단 열 냥 어치 - 네 적삼 해서 입어라. - 누었으니 그리 알아라. 오라비더러 [한산 비단은 네 몫이라 하더라는 나의] 이 말 하여라. 적을 말 겹겹 쌓여 있으나, 다급하여 이만 줄인다. 앞으로 내내 어린것들 데리고 정신과 기운 무사히 있다 간 소식 듣기를 믿는다.

병술년 섣달 십일, 못 잊는 언니 씀.

4. 참고

본문의 이른바 "졍셔방"이라는 말에 보이는 '서방'(書房)은 사람의 성씨에 붙여서 사위·매제(妹弟)나 또는 손아래 동서(同壻) 따위를 두루 일컫는 데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 편지는 여자가 쓴 것이며 또한 "졍셔방"을 "-긔셔도"라고 공대하고 있으니, 이른바 "졍셔방"은 반드시 발신자 언니의 매제라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선은 종가(宗家)의 딸로서 '정씨'에게 출가한 사람을 찾건대,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은 오직 윤명호(尹命浩, 1800~1862)의 외아들로 태어나 종가의 양자로 들어간 윤주흥(尹柱興, 1823~1873)의 셋째 누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편지는 윤주홍의 첫째 누이가 함께 어떤 집안 행사를 치르고 돌아와 아직 친정에 머물고 있는 셋째 누이에게 보낸 것이다. 년도는 음력으로 1886년이다. 윤주홍에게는 모두 네 사람의 누이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 편지를 보낸 이로서 경주이씨(慶州李氏)에게, 둘째는 본문의 "올 제 셩덩 네 형 상봉ᄒᆞ니"에 나오는 이로서 남평문씨(南平文氏)에게, 셋째는 이 편지를 받는 이로서 나주정씨(羅州丁氏)에게, 넷째는 본문의 "앙금 너와 골물 다ᄉᆞ 즁 녀상ᄒᆞ며"에 나오는 이로서 전주이씨(全州李氏)에게 출가했다. 본문에 "오러비더려 이 말 ᄒᆞ여라"라고 하여 남자 형제를 달리 공대한 흔적이 없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를 보낸 이는 형제의 가장 손위이다.

22 2-02. 海尹_MF35-3208_648(27x48cm): 사내 아우→누이(1664)

1. 판독

원[隔1]정ᄌᆞ[隔1]덕[移1]

누의님젼[隔1]샹장[間][隔6]근봉[移1]

히쳔군짓사름갈제편지ᄒᆞ더니보오

시니잇가요ᄉᆞ이치외ᄂᆞᆫ하심ᄒᆞ오니[移1]

[擡1]긔운이나엇더ᄒᆞ오시니잇가긔별모ᄅᆞ와분

별ᄒᆞᄂᆞ이다동싱은완면이죽디못ᄒᆞ와

담제롤ᄆᆞᄌᆞ막디내오니새로이망극한정회

놀어이다뎍ᄉᆞ오리잇가[隔1]담제후의분지놀
ᄒᆞ오ᄃᆡ동싱돌이연고이셔오디아니ᄒᆞ니못홀돗
ᄒᆞᄃᆡ난편ᄒᆞᆫ일도잇고히미손이인ᄒᆞ여ᄒᆞ여가
지고가려ᄒᆞ매즉시분지ᄒᆞ오나다못디못ᄒᆞ여시니
뎐디노비롤다집됴하여ᄂᆞᆫ화습ᄂᆞ이다노복도
이젼브리ᄂᆞ니아오라인ᄒᆞ여실노신비롤셰고실
노비밧긔가니ᄂᆞᆫ깃득으로셰고실노비못갓ᄂᆞᆫ동
싱돌의게ᄂᆞᆫ치와내고분깃의노미약병ᄒᆞ여닐
곱식ᄂᆞᆫ화거니와왼ᄃᆡᄒᆞ나식나고뎐디도밧엿
쇄가리식과논닷말딕이식ᄂᆞᆫ화거니와그논밧출사
강홰논밧과양쥐[隔1]증조묘뎐답과튱쥐밧나
잘가리과새순막묘하뎐나잘가리과검암것합
ᄒᆞ여그리가습ᄂᆞ이다그런듕의나ᄂᆞᆫ이젼의죵을
주셔로브리다가주겨ᄇᆞ리고다나가고ᄒᆞᆫ거술긔워주신
거시라분지예셰오매깃득의ᄂᆞᆫᄒᆞ나히와습고ᄀᆞ득사쇼
ᄒᆞᆫ죵의대젼법으로ᄒᆞ노라ᄒᆞ고봉ᄉᆞ죠의죵둘밧ᄒᆞ
ᄅᆞ가리과논서말직이롤내오니[隔1]ᄉᆞ당제ᄉᆞᄂᆞᆫᄌᆞ존ᄃᆡ
민망ᄒᆞ여이다분지시예블균ᄒᆞᆫ일이ᄉᆞ오나글노내내ᄃᆞ
ᄐᆞ오리잇가저히ᄒᆞ쟈ᄒᆞᄂᆞᆫ대로ᄒᆞ엿ᄂᆞ이다대강왼ᄃᆡ
거시야더옥사쇼ᄒᆞ니니ᄅᆞ리잇가검암거시도시가경뎐
이니아ᄆᆞ도그것지어제귀실도홀길히업다ᄒᆞ니
민망ᄒᆞ여ᄒᆞᄂᆞ이다예잇ᄂᆞᆫ누의동싱돌도이것돌가지
고돌님제도홀길업ᄉᆞ니종가의셔[隔1]제ᄉᆞ나ᄒᆞ라ᄒᆞᄃᆡ
종도외방거실분아냐어린거시만코뎐디ᄂᆞᆫ더욱졔귀
실도홀셰업ᄉᆞ니내집ᄒᆞ나양못ᄒᆞ고님자너도갓가

이이시니내어이ᄒᆞ리잇가[隔1]누의님거번편지예긔별ᄒᆞ신
ᄃᆡ내게오ᄂᆞᆫ뎐민을가지고돌님[隔1]졔ᄉᆞ나ᄒᆞ라ᄒᆞ여겨시니
누의님겨오셔ᄂᆞᆫ쳘니예겨오시니다ᄅᆞᆫ누의동싱
[上1]돌과다ᄅᆞ와긔별ᄒᆞ신대로ᄒᆞ오려니와한식브터[隔1]졔을돌니오니형뎨
[上2]ᄎᆞ례로ᄒᆞ오며[隔1]조부모님묘졔ᄂᆞᆫ나쥐누의님덕이오[隔1]부모님묘졔ᄂᆞᆫ누의님덕이오니날
[上3]을ᄒᆞ라ᄒᆞ시긔로한식이머디아니ᄒᆞ여시니다시ᄌᆞ시긔별ᄒᆞ쇼셔화회문긔ᄂᆞᆫ일홈
[上4]돌을밧노라ᄒᆞ면더딀거시니몬져뎍어보내ᄂᆞ이다졍회무중ᄒᆞ오나지리ᄒᆞ
[右1]와잠아마도[移1]
[右2]긔운편안ᄒᆞᄉᆞ오심쳔만바라옵[移1]
[隔2]갑진납월념뉵일[隔1][小4]동싱뎡닌

2. 전사 · 주석

윤(尹) 정ᄌᆞ(正字)[1] ᄃᆡᆨ(宅)
누의님 젼(前) 샹장(上狀)
근봉(謹封)
ᄒᆡ쳔(海川)[2] 군짓(郡地人) 사ᄅᆞᆷ 갈 제 편지(便紙) ᄒᆞ더니 보오시니잇

1) 윤(尹) 정ᄌᆞ(正字) : 인칭. 수신자 누이의 남편으로서, 곧 윤인미(尹仁美, 1607~1674)를 말한다. 아버지 윤선도로 말미암아 13년 금고(禁錮)에 처해졌던 까닭에, 윤인미의 벼슬은 그저 종9품 성균관 학유(學諭)에 그쳤지만, 발신자에게 자형(姊兄)이 되는 그를 '정자'(正字)로 일컬어 예대(禮待)한 것이다. 또한 윤인미의 댁명(宅名)을 '정자댁'(正字宅)이라 한 사례가 해남윤씨가 고문서에 흔히 보인다.

가 요ᄉᆞ이 치외[3]는 하 심(甚)ᄒᆞ오니 긔운(氣運)이나 엇더ᄒᆞ오시니잇가 긔별(寄別) 모ᄅᆞ와 분별ᄒᆞᄂᆞ이다[4] 동싱(同生)[5]은 완면(完眠)이 죽디 못ᄒᆞ와 담제(禫祭)[6]ᄅᆞᆯ ᄆᆞᄌᆞ막 디내오니 새로이 망극(罔極)한 졍회(情懷)ᄂᆞᆯ 어이 다 뎍ᄉᆞ오리잇가 담제 후(後)의 분ᄌᆡ(分財)[7]ᄂᆞᆯ ᄒᆞ오ᄃᆡ 동싱ᄃᆞᆯ이 연고(緣故)이셔 오디 아니ᄒᆞ니 못ᄒᆞᆯ ᄃᆞᆺᄒᆞᄃᆡ 난편(難便)ᄒᆞᆫ 일도 잇고 ᄒᆡ미(海美)[8] 손이 인(因)ᄒᆞ여 ᄒᆞ여 가지고 가려 ᄒᆞ매 즉시(卽時) 분ᄌᆡᄒᆞ오나 다 못디[9] 못ᄒᆞ여시니 뎐디(田地) 노비(奴婢)ᄅᆞᆯ 다 집됴(執籌)[10]하여 ᄂᆞᆫ화ᄉᆞᆸᄂᆞ이다[11] 노복(奴僕)도 이젼(以前) ᄇᆞ리ᄂᆞ니[12] 아오라[13] 인ᄒᆞ여 실노(新奴) 신비(新婢)[14]ᄅᆞᆯ 셰고[15] 실노비(新奴婢)밧긔가니ᄂᆞᆫ[16]

---

2) ᄒᆡ쳔(海川) : 지명.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해천'(海川)은 흔히 황해도 해주(海州)를 달리 이르는 바이나, 여기서는 전라남도 해남(海南)을 가리키는 바로 쓰인 듯하다.

3) 치외 : 추위.

4) 분별ᄒᆞᄂᆞ이다 : 걱정하나이다. 이른바 '분별'은 '걱정'(念慮)의 옛말이다. "너희돌히 네 아바니믈 분별ᄒᆞ야 神奇ᄒᆞᆫ 變化ᄅᆞᆯ 뵈야ᅀᅡ ᄒᆞ리라"(『釋譜詳節 21～36』)

5) 동싱(同生) : 발신자와 수신자의 죽은 동생 유정인(柳廷寅, 1614～1662)을 말한다. 인조24년(1646) 식년시(式年試)를 통하여 생원·진사에 두루 입격한 기록이 있다.

6) 담제(禫祭) :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낸다. 담사(禫祀).

7) 분ᄌᆡ(分財) :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가짐. 발신자의 동생이 죽어 상속자의 변동이 생겼던 까닭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분배한 것이다.

8) ᄒᆡ미(海美) : 지명.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읍(海美邑).

9) 못디 : (상속자 형제가) 모이지.

10) 집됴(執籌) : 집주(執籌). 징발(徵發)·공출(供出) 따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위하여 억지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말한다. 한어 '籌'의 옛 발음이 [tao2]로서 곧 [됴]인 것을 '됴'로 적은 것이다.

11) ᄂᆞᆫ화ᄉᆞᆸᄂᆞ이다 : 나누었사옵나이다. 요즘 말 '나누다'의 옛말이 'ᄂᆞᆫ호다'였다.

12) ᄇᆞ리ᄂᆞ니 : 부리는 이.

13) 아오라 : 아울러.

14) 실노(新奴) 신비(新婢) : 혼인(婚姻)으로 말미암아 새로 깃들이는 몫으로 받는 사내

깃득(衿得)[17]으로세고[18] 실노비 못 갓는 동싱둘[19]의게는 치와 내고[20] 분깃(分衿)[21]의 노미[22] 약병(略幷)[23]ᄒᆞ여 닐곱식 논화거니와 왼ᄃᆡ[24] ᄒᆞ나식 나고[25] 뎐디도 밧 엿쇄 가리식[26]과 논 닷 말딕이식[27] 논화거니와 그 논밧출 시[28] 강홰(江華)[29] 논밧과 양쥐(楊洲)[30] 증조묘(曾祖墓)

종과 계집종. 대개는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유산을 다시 나누어 가져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 새로 깃들일 몫으로 미리 매겨서 받는 사내종과 계집종을 또한 '신노'(新奴)·'신비'(新婢)라고 하였다.

15) 세고 : 세고. 헤아리고. 여기서는 '셈하고'의 뜻이다.

16) 싈노비(新奴婢) 밧긔 가니는 : 새로 깃들이는 몫으로 받은 사내종과 계집종 가운데 밖으로 도망쳐 달아난 이는.

17) 깃득(衿得) : 몫으로 나누어 받은 바의 유산이나 재산. "分財所得, 謂之衿得."(行用吏文.) 여기서는 '나누어 가질 바의 몫'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른바 '깃'(衿)이란 무엇을 여럿으로 나눌 때에 '저마다 돌아오는 한 몫'을 뜻하며, 이것을 표기하는 이두(吏讀) 문자 '衿'은 한자에서 그 훈(訓)의 음(音)을 빌려온 것이다.

18) 싈노비(新奴婢) 밧긔 가니는 깃득(衿得)으로 세고 : 신노·신비는 혼인으로 말미암아 새로 깃들이는 몫으로 받는 바이므로, 유산을 재분배할 경우의 이른바 '깃득'에는 넣지 않는 것이나, 예외로 그 가운데 도망쳐 달아난 이들은 '깃득'으로 셈한다는 말이다.

19) 싈노비 못 갓는 동싱둘 : 신노·신비를 못 갖는 동생들. 아직 혼인하지 아니한 동생들을 말한다.

20) 치와 내고 : 채워 내고. 신노·신비를 미리 채워 준다는 말이다.

21) 분깃(分衿) : 유산이나 재산을 한 몫 나누어 줌. 또는 그 몫.

22) 분깃(分衿)의 노미 : 몫으로 되는 놈이. 몫이.

23) 약병(略幷) : 얼추 아울러.

24) 왼ᄃᆡ : 다른 곳. 밖. 여기서는 '먼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25) 왼ᄃᆡ ᄒᆞ나식 나고 : 먼 곳으로 하나씩 달아나고. 도망쳐 달아난 노비가 하나씩 고루 들어 있게 조정했다는 말이다. 달아난 노비는 그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다시 실질상의 재산이 될 수 있었다.

26) 엿쇄 가리식 : 엿새 갈이씩. 이른바 '갈이'는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뜻하는 말이다.

27) 닷 말딕이식 : 다섯 마지기씩. 이른바 '-지기'(←딕이)는 되·말·섬 따위의 말에 붙어서 그만한 분량의 곡식을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뜻하는 말이다.

뎐답(田畓)과 튱쥐(忠州)[31] 밧 나잘가리[32]과 새순막묘[33] 하뎐(下田) 나잘가리과 검암[34] 것 합(合)ᄒᆞ여 그리[35] 가ᄋᆞᆸᄂᆞ이다 그런 듕(中)의 나는 이젼의 죵을 주셔(注書)[36]로 ᄇᆞ리다가 주겨ᄇᆞ리고[37] 다 나가고[38] ᄒᆞᆫ 거술 긔위(己有ㅣ)[39] 주신 거시라 분직에 세오매 깃득의는 ᄒᆞ나히 와ᄋᆞᆸ고 ᄀᆞ득[40] 사쇼(些少)ᄒᆞᆫ 죵의 대젼법(大典法)[41]으로 ᄒᆞ노라 ᄒᆞ고 봉ᄉᆞ죠

---

28) 논밧출 사 : 논밭을 사서. 논밭에 맞먹는 값으로 쳐서. 이른바 '사'는 '사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바로서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가진 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어떤 대상에 맞먹는) 값을 치르다'라는 맥락에서 '(어떠어떠한) 값으로 치다'·' (어떠어떠한) 값을 매기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29) 강홰(江華) : 지명.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30) 양쥐(楊洲) : 지명. 경기도 양주군(楊洲郡).

31) 튱쥐(忠州) : 지명. 충청북도 충주시(忠州市).

32) 나잘가리 : 나절갈이. 반나절에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뜻하는 말이다.

33) 새순막묘 : 묘명(墓名). '새순막'은 곧 '신탄막'(新炭幕)으로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新山里)에 있는 지명으로서, 또한 '새술막'이라 이른다.

34) 검암 : 지명. 검암(劍巖). 칼바우.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토계리(土界里)의 바위 이름. 여기서는 그 인근 일대를 뜻한다. 여기는 본디 연풍현(延豊縣)의 일부였으나, 1914년에 괴산군 상모면으로 변경되었고, 1963년에 다시 중원군 상모면으로 변경되었다.

35) 그리 : 거기로. '누님네 몫으로'의 뜻이다.

36) 주셔(注書) : 서기(書記). 주서(注書)는 조선시대에 승정원의 기록을 담당한 정7품의 관직을 가리키는 바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집안일에 관한 기록을 맡아보는 '서기'(書記)의 뜻으로 쓰였다.

37) 주겨 ᄇᆞ리고 : 죽여 버리고. '죽어 나가는 꼴을 보고'의 뜻이다.

38) 다 나가고 : 다 달아나고. 유정린이 그의 누이 앞으로 해남윤씨가에 보내온 화회문기 「康熙三年甲辰十二月二十二日同生和會文記」를 보건대, 그의 '깃득'에서 이른바 친득(親得)으로 받은 노비는 모두 다섯이었는데, 이 가운데 넷은 달아난 채로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 죽어 없었다.

39) 긔위(己有ㅣ) : 자기의 소유. 또는 자기가 소유한 물건.

40) ᄀᆞ득 : 가뜩. 가뜩이나.

41) 대젼법(大典法)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른 법. 여기서는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분급하는 법규 조항'을 말한 것이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부모에게

(奉祀條)[42]의 종 둘 밧 ᄒᆞᄅᆞ가리[43]과 논 서 말직이[44]ᄅᆞᆯ 내오니 ᄉᆞ당(祠堂) 졔ᄉᆞ(祭祀)는 ᄌᆞ즌ᄃᆡ[45] 민망(憫惘)ᄒᆞ여이다 분직시(分財時)예 불균(不均)ᄒᆞᆫ 일 이ᄉᆞ오나[46] 글노 내내 ᄃᆞ토오리잇가[47] 저희 ᄒᆞ쟈 ᄒᆞ는 대로 ᄒᆞ엿ᄂᆞ이다 대강(大綱) 원ᄃᆡ 거시야[48] 더옥 사쇼ᄒᆞ니 니ᄅᆞ리잇가 겸암 거시 도시(都是) 가경뎐(加耕田)[49]이니 아ᄆᆞ도 그것 지어 제 귀실[50]도 ᄒᆞᆯ 길히 업다 ᄒᆞ니 민망ᄒᆞ여 ᄒᆞᄂᆞ이다 예 잇는 누의 동싱둘도 이것 둘 가지고 돌님졔(-祭)[51]도 ᄒᆞᆯ 길 업ᄉᆞ니 '종가(宗家)의셔 졔ᄉᆞ나 ᄒᆞ라' ᄒᆞᄃᆡ 종도 외방(外方) 거실 분 아냐 어린 거시 만코 뎐디는 더욱 제 귀실도 ᄒᆞᆯ 세[52] 업ᄉᆞ니 내 집 ᄒᆞ나 모양 못ᄒᆞ고 님자[53]너도 갓가이 이시니[54] 내 어이 ᄒᆞ리잇가 누의님 거번(去番) 편지에 긔별ᄒᆞ신 ᄃᆡ '내게 오

물려받은 노비를 분급하는 데 있어서 '조상 제사를 받드는 자녀에게는 1/5을 더해 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노비를 재산으로 취급하던 시절의 법규이니 만큼, 여타의 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법규를 적용했을 것이다. "父母奴婢, 承重子, 加五分之一. - 如衆子女各給五口, 承重子給六口之類."(『經國大典』, 刑典 私賤)

42) 봉ᄉᆞ죠(奉祀條) : 조상 제사를 받드는 자녀에게 부모 유산을 다른 자녀보다 더 주는 법조항. 승중조(承重條). 주사조(主祀條).

43) ᄒᆞᄅᆞ가리 : 하루갈이. 하루 낮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넓이. 날갈이.

44) 말직이 : 마지기.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45) ᄌᆞ즌ᄃᆡ : 잦은데. 자주 제(祭)를 올려야 하는데.

46) 이ᄉᆞ오나 : 있사오나.

47) ᄃᆞ토오리잇가 : 다투오리까.

48) 원ᄃᆡ 거시야 : 먼 곳으로 도망쳐 달아난 것이야.

49) 가경뎐(加耕田) :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대장에도 오르지 않은 논밭.

50) 귀실 : 구실.

51) 돌님졔(-祭) : 여러 형제가 차례를 정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지내는 제사. 또는, 그런 제사 방식.

52) 세 : 것이. 'ᄉᆞ'의 주격형 'ᄉᆡ'(→씨)를 '세'로 적은 것이다.

53) 님자 : 임자. 전지에 딸린 노비(奴婢)의 본주인(本主人)을 말한다.

54) 님자너도 갓가이 이시니 : 노비의 본주인이 따로 가까이 있으니. 그래서 마음대로 부릴 수조차 없는 사정임을 말한 것이다.

ᄂᆞᆫ 뎐민(佃民)[55]을 가지고 돌님제ᄉᆞ나 ᄒᆞ라.' ᄒᆞ여 겨시니 누의님겨오셔ᄂᆞᆫ 쳘니(千里)예 겨오시니 다ᄅᆞᆫ 누의 동ᄉᆡᆼ돌과 다ᄅᆞ와 긔별ᄒᆞ신 대로ᄒᆞ오려니와 한식(寒食)브터 졔(祭)을 돌니오니 형뎨 ᄎᆞ례로 ᄒᆞ오며 조부모(祖父母)님 묘졔(墓祭)[56]ᄂᆞᆫ 나쥐(羅州ㅣ)[57] 누의님 ᄃᆡᆨ(宅)이오 부모(父母)님 묘졔ᄂᆞᆫ 누의님 ᄃᆡᆨ이오니 날을 ᄒᆞ라 ᄒᆞ시긔로 한식이 머디아니ᄒᆞ여시니 다시 ᄌᆞ시[58] 긔별ᄒᆞ쇼셔 화회문긔(和會文記)[59]ᄂᆞᆫ 일홈[60]돌을 밧노라 ᄒᆞ면 더될 거시니 몬져 뎍어 보내ᄂᆞ이다 정회(情懷) 무궁(無窮)ᄒᆞ오나 지리(支離)ᄒᆞ와 잠[61] 아마도 긔운 편안(便安)ᄒᆞᄉᆞ오심 쳔만(千萬) 바라ᄋᆞᆸ

갑진(甲辰 : 1664) 납월(臘月) 념뉵일(念六日)[62] 동ᄉᆡᆼ 뎡닌[63]

---

55) 뎐민(佃民) :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후에 소작료를 치르던 농민. 여기서는 단순히 '소작료'를 뜻한다.

56) 묘졔(墓祭) :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

57) 나쥐(羅州ㅣ) : 지명.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58) ᄌᆞ시 : 자세히.

59) 화회문긔(和會文記) : 화회(和會)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서. 이른바 '화회'(和會)는 특히 호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에 '온 가족이 입회하여 재산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던 일'을 말하는데, '화'(和)는 곧 '대립된 양자(兩者)가 모두 순응(順應)한다.'는 것을 뜻하고 '회'(會)는 곧 '상응(相應)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60) 일홈 : 이름.

61) 잠 : 좀. 조금. '좀'에 해당하는 사투리.

62) 념뉵일(念六日) : 26일. 스믈을 뜻하는 한어 '廿'(二十)의 중국 속음이 '念'과 더불어 [nian˥]으로 같아지면서 '念'으로써 '廿'을 대신해서 적는 속습이 생겼다.

63) 뎡닌 : 인명. 윤인미의 처남 유정린(柳廷麟)이다. 첫째 아들인 그의 밑으로 넷째 아우에 해당하는 유정인(柳廷寅)이 1614년에 태어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1600년 전후에 태어난 인물로 보인다.

3. 현대어역

누님 앞에 올리는 글월

해남(海州) 군지(郡地) 사람 갈 적에 편지 하였더니, 보셨으니까? 요사이 추위는 너무 심하오니, 기운이나 어떠하오십니까? 기별 모르와 걱정하나이다. 동생은 [편안히] 아주 자는 듯이 죽지 못하여, 담제(禫祭)를 마지막 지내오니, 새로이 [생기는] 가없는 [슬픈] 마음을 어이 다 적으오리까? 담제를 지낸 뒤에 분재(分財)를 하오되, 동생들이 [미처 오지 못할] 일이 있어 [더러] 오지 아니하니 [분재를] 못할 듯하되, [다시 또 모이게 하는 데서] 불편한 일도 있고 [또한 멀리] 해미(海美)[에서 온] 손이 [거리가 먼 것으로] 말미암아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하여 가지고 가려 하매, [담제를 지내고] 곧바로 [마지못해] 분재하오나, [형제가] 다 모이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까닭에] 전지(田地)와 노비(奴婢)를 다 억지로 거두어 들여 나누었사옵나이다. [이를테면] 노복(奴僕)도 이전에 부리던 이를 아울러 신노(新奴)와 신비(新婢)를 셈하고, 신노비(新奴婢)로서 밖으로 도망쳐 달아난 이는 [이번에 다시] 나누어 가질 바의 몫으로 셈하고, [아직 혼인을 아니하여] 신노비를 못 갖는 동생들에게는 [미리 그 몫을] 채워 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로써 이번에] 저마다 몫으로 가질 놈이 얼추 아울러 일곱씩 나뉘었거니와 [여기에] 먼 곳으로 달아난 놈들을 하나씩 보태었고, 전지도 밭 엿새 갈이씩과 논 닷 마지기씩 나누었거니와 그[와 같이 몫을 지은 크기의] 논밭을 [여기에 맞먹는 값으로] 쳐서 강화(江華)의 논밭과 양주(楊洲) 증조부 묘소[에 딸린] 전답과 충주(忠州) 밭 나절갈이와 새순막(新炭幕) 묘소[에 딸린] 하전(下田) 나절갈이와 검암(劒巖)[에 있는] 것을 합하여 [누님의 몫으로] 그리 갔사옵나이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이전의 종을 서기(書記)로 부리다가 죽여 버

리고 [남은 놈들은 또] 다 달아나고 한 것을 [어버이께서 일찍이] 내 차지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빈 머릿수를 가지고] 분재[하는 자리]에 [이미 가진 몫으로] 셈하매, 내가 가질 몫으로는 [기껏해야] 하나가 왔사옵고, 가뜩이나 적은 종[을 차지한 마당]에 [더구나] '대전(大典)에 있는 법으로 하노라.' 하고서 [내가] 조상 제사를 받드는 몫으로는 [그제] 종 둘과 밭 하루갈이와 논 세 마지기를 내오니, 사당(祠堂) 제사(祭祀)는 잦은 것인데, [사정이] 딱하오이다. 분재할 때에 고르게 되지 못한 일이 [비록] 있사오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써 내내 다투오리까? 저희 하자 하는 대로 하였나이다. 얼추 [보아도] 먼 곳으로 달아난 것이야 [앞으로 찾아낸다고 해도 찾아낸 사람에게 일정한 값을 쳐 주어야 하는 까닭에] 더욱 [몫이] 적으니, [이러한 불평을 구차히 다] 이르리이까? [다만 누님 몫으로 가는 바로서] 검암에 있는 것이 도무지 가경전(加耕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아마도 그것 지어 [보았자] 제 구실도 할 길이 없다고 하니, [누님의 사정도] 딱하게 여겨지오이다. 여기 있는 누이 동생들도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돌림제사도 할 수 없으니, '종가(宗家)에서 [가지는 대신에] 제사나 [맡아서] 하라.' 하되, 종도 외지(外地)의 것일 뿐 아니라 [아직] 어린 것이 많고, 전지는 더욱 제 구실도 할 것이 없으니, [새로 오는 종이 여럿이라고 했댔자 일찍이] 내 집[에서 부리던] 하나만도 못하고 [게다가 그들을 본디 가졌던] 임자네도 가까이 있으니, 내 어이 하리까? 누님 접때 편지에 기별하신 데 [이르시기를] '네게 [몫으로] 오는 전민(佃民)을 가지고 돌림제사나 [지내는 데 쓰도록] 하라.' 하여 계시니, 누님께서는 천리[밖]에 계시오니, 다른 누이 동생들과 달라서 기별하신 대로 하오려니와, 한식(寒食)으로부터 제(祭)를 돌리오니, [맏이에 따른] 형제 차례로 하오며, [따라서] 조부모님 묘제(墓祭)는 나주(羅州) 누님 댁이요, 부모님 묘제는 누님 댁이오니, [이와 같이 누님께서 맡을 제사를] 나더러

하라 하시기로, 한식이 멀지 아니하였으니, [누님께서 어찌 하실 것인지] 다시 자세히 기별하소서. 화회문기(和會文記)는, [형제 모두의] 이름들을 [낱낱 다] 받노라 하면 더딜 것이니, [나를 비롯해서 여러 아우들의 이름과 수결(手決)을] 먼저 적어 보내나이다. 마음에 품은 바는 그지없사오나, 지루해서 조금[만 적나이다]. 아무쪼록 기운 편안하사오심 거듭거듭 바라옵.

갑진년 섣달 이십육일, 동생 정린.

4. 참고

편지의 피봉(皮封)에 적힌 "윤정ᄌᆞ댁"의 이른바 "윤정ᄌᆞ"는 곧 윤선도(尹善道)의 첫째 아들 윤인미(尹仁美, 1607~1674)를 가리키는 말이다. 윤인미의 벼슬은 그저 종9품 성균관 학유(學諭)에 그쳤지만, 발신자 유정린(柳廷麟)에게 자형(姊兄)이 되는 그를 '정자'(正字)로 일컬어 예대(禮待)했다. 이러한 사정은 유정린이 그의 손위 둘째 누이 앞으로 해남윤씨가에 보내온 「康熙三年甲辰十二月二十二日同生和會文記」를 통하여 거듭 확인된다. 따라서 이 편지는 1664년 12월 26일에 쓰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은 음력으로 하는 셈이고, 양력으로 하면 1665년 1·2월의 어디쯤이 될 것이다.

23 2-03. 海尹_MF35-3208_642(21x53cm): 사내 아우 → 손위누이(1664)

1. 판독

죵과뎐디악간잇ᄉᆞ오니출혀
종가노보내나ᄒᆞ거라홀가심
옵동싱도큰뎍죵을겨집죵둘
ᄉᆞ나희죵ᄒᆞ나홀브니옵더니겨
집죵은다죽엇ᄉᆞ오디놈대되
도망과죽으니놀헤매두비ᄌᆞ
ᄂᆞᆫ신비노헤고실노ᄒᆞᆫ나히업ᄉᆞ
조의ᄌᆞ식이왓숩이리긔별ᄒᆞ
옵ᄂᆞᆫ일이ᄒᆞᆫ갓내일만위ᄒᆞ
옵ᄂᆞᆫ일이아니오니싱각ᄒᆞ오셔
잘쳐티ᄒᆞ옵쇼셔[隔1]누의님
편지내집으노바노아니오〃니
보오시고ᄉᆞ연마오쇼셔뎐디
ᄂᆞᆫᄒᆞᆫ뎍의밧눅일경논단말
디기식갓ᄉᆞ오니우리ᄀᆞᆺᄌᆞ오
니ᄂᆞᆫ살길히업ᄉᆞ오니ᄀᆞ이〃
업숩달내밧이톨반가리노셔
ᄒᆞᄂᆞ가리ᄂᆞᆫ[隔1]봉사됴노잡고그
밧근나잘가닐식ᄒᆞ되모
ᄌᆞ라검암거시그만못ᄒᆞ되

그과ᄌᆞᆺ티내얏ᄉᆞᆸ달내거시
게도갓ᄉᆞ오니인냥조이ᄒᆞ
야잇ᄂᆞᆫᄃᆡ도갓갑고ᄒᆞ니구
권ᄒᆞ고검암거ᄉᆞᆫ냥ᄃᆞᆨ남
이과졉동이과구간ᄒᆞ라
ᄒᆞ시면ᄠᅳᆺᄉᆞ오ᄃᆡ졉동이
ᄌᆞᆺᄐᆞᆫ이ᄂᆞᆫ나ᄒᆞᆫ만ᄉᆞ오나젼의
도지에아니ᄒᆞ고브실ᄒᆞ니
머엇ᄒᆞ링잇가알외올말ᄉᆞᆷ
무궁ᄒᆞ오나잠알외ᄋᆞᆸ아마도새
히예[移1]
[擡1]긔후만복ᄒᆞ오심다시곰ᄇᆞ
나ᄋᆞᆸ

2. 전사 · 주석

ᄌᆞᆼ과 뎐디(田地) 약간(若干) 잇ᄉᆞ오니 출혀[1] 종가(宗家)노 보내나 ᄒᆞ거라 ᄒᆞᆯ가 심ᄋᆞᆸ[2] 동ᄉᆡᆼ(同生)[3]도 큰ᄃᆡᆨ(-宅) ᄌᆞᆼ을 겨집ᄌᆞᆼ ᄃᆞᆯ ᄉᆞ나희ᄌᆞᆼ ᄒᆞ

---

1) 출혀 : 차라리.
2) ᄒᆞᆯ가 심ᄋᆞᆸ : 할까 싶으옵(니다).
3) 동ᄉᆡᆼ(同生) : 발신자 본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48에 들어 있는 유정린(柳廷麟)의 편지와 더불어 비교해 보건대, 이 편지의 발신자는 윤인미(尹仁美, 1607～1674)의 아내 전주유씨(全州柳氏, 1604～1683)의 막내 동생 유정주(柳廷舟, 1626～?)이다.

나홀 브니옵더니 겨집죵은 다 죽엇ᄉᆞ오ᄃᆡ ᄂᆞᆷ대되[4] 도망(逃亡)과[5] 죽으니ᄂᆞᆯ 혜매[6] 두 비ᄌᆞ(婢子)ᄂᆞᆫ 신비(新婢)[7]노 혜고 실노(新奴)[8] ᄒᆞᆫ나히 업ᄉᆞ 조[9]의 ᄌᆞ식(子息)이 왓ᄉᆞᆸ 이리 긔별(寄別)ᄒᆞ옵ᄂᆞᆫ 일이 ᄒᆞᆫ갓 내 일만 위(爲)ᄒᆞ옵ᄂᆞᆫ 일이 아니오니 ᄉᆡᆼ각ᄒᆞ오셔 잘 쳐티(處置)ᄒᆞ옵쇼셔 누의님 편지(便紙) 내 집으노 바노 아니 오〃니 보오시고 ᄉᆞ연(辭緣) 마오쇼셔 뎐디ᄂᆞᆫ ᄒᆞᆫ 뎍의 밧 뉵일경(六日耕) 논 단 말디기식[10] 갓ᄉᆞ오니 우리 ᄀᆞᆺᄌᆞ오니ᄂᆞᆫ[11] 살 길히 업ᄉᆞ오니 ᄀᆞ이〃업ᄉᆞᆸ 달내[12] 밧 이ᄐᆞᆯ반가리노셔 ᄒᆞᄂᆞ가리ᄂᆞᆫ 봉사됴(奉祀條)노 잡고 그 밧근 나잘가닐식 ᄒᆞ되 모ᄌᆞ라 검암[13] 거시 그만 못ᄒᆞ되 그과 ᄀᆞᆺ티[14] 내얏ᄉᆞᆸ 달내 거시 게도[15] 갓ᄉᆞ오니 인낭[16] 조이[17] ᄒᆞ야 잇ᄂᆞᆫ[18] ᄃᆡ도 갓갑고 ᄒᆞ니 구권(俱勸)ᄒᆞ고 검암

---

4) ᄂᆞᆷ대되 : 남에게.

5) 도망(逃亡)과 : 도망가. '-가'를 '-과'로 적은 것이다.

6) 혜매 : 헤아리매. 여기서는 '셈하매'의 뜻이다.

7) 신비(新婢) : 혼인(婚姻)으로 말미암아 새로 깃들이는 몫으로 받는 계집종. 대개는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유산을 다시 나누어 가져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 새로 깃들일 몫으로 미리 또는 다시 매겨서 받는 계집종을 또한 '신비'(新婢)라고 하였다.

8) 실노(新奴) : 혼인(婚姻)으로 말미암아 새로 깃들이는 몫으로 받는 사내종. 사유는 '신비'(新婢)와 같다.

9) 조 : 인명. 발신자의 집안에서 부리던 '조이'(早伊)라는 이름의 계집종이다.

10) 단 말디기식 : 닷 마지기씩.

11) 우리 ᄀᆞᆺᄌᆞ오니ᄂᆞᆫ : 우리 같은 이는.

12) 달내 : 지명. 달천(達川).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達川洞).

13) 검암 : 지명. 검암(劍巖). 칼바우.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토계리(土界里)의 바위 이름. 여기서는 그 인근 일대를 뜻한다. 여기는 본디 연풍현(延豐縣)의 일부였으나, 1914년에 괴산군 상모면으로 변경되었고, 1963년에 다시 중원군 상모면으로 변경되었다.

14) 그과 ᄀᆞᆺ티 : 그와 같은 값을 쳐서.

15) 게도 : 거기에도. 수신자 '누님에게도'의 뜻이다.

16) 인낭 : 인명. 발신자의 집안에서 부리던 '사인량'(仕仁良)이라는 이름의 사내종이다.

17) 조이 : 인명. 앞의 주석에서 이미 밝힌 이로서, 발신자의 집안에서 부리던 '조이'(早

거슨낭 득남이[19]과 졉동이[20]과 구간(俱墾)ᄒᆞ라 ᄒᆞ시면 뜻ᄉᆞ오되 졉동이 ᄀᆞᄐᆞᆫ 이는 나ᄒᆞᆫ 만ᄉᆞ오나 젼(前)의 도지(賭地)[21]에 아니ᄒᆞ고 브실(不實)ᄒᆞ니 머엇ᄒᆞ링잇가[22] 알외올 말슴 무궁(無窮)ᄒᆞ오나 잠[23] 알외ᄋᆞᆸ 아마도 새ᄒᆡ에 긔후(氣候) 만복(萬福)ᄒᆞ오심 다시곰 ᄇᆞ나ᄋᆞᆸ

3. 현대어역

종과 전지(田地) 조금 [몫으로 주어진 것이] 있사오니, [누님처럼] 차라리 종가(宗家)로 보내라고 할까 싶으옵. 저도 큰집 종을, 계집종 둘과 사내종 하나를 부리옵더니, 계집종은 다 죽었사오되 남에게 달아나 죽은 이를 [몫으로] 셈하매, 두 계집종은 신비(新婢)로 셈하고, 신노(新奴) 하나가 없어서 조이의 자식이 [내 몫으로] 왔사옵. [구차한 듯하나] 이리 기별하옵는 일이 한갓 내 일만 위하옵는 일이 아니오니, [누님께서도 사정을 자세히] 생각하오시어 잘 처리하옵소서. 누님 편지 내 집으로 바로 아니 오니, [이 편지를] 보오시고 [답장으로 하는] 사연(辭緣) [보내지] 마오소서. 전지는 한 집에 밭 엿새갈이와 논 다섯 마지기씩 갔사오니, 우리 같은 이는 살 길이 없사오니 가이없사옵. 달내[에 있는] 밭 이틀반갈이로써 [그 가운데] 하루갈이는 봉사조(奉祀條)로 잡고, 그 밖은 나절갈

伊)라는 이름의 계집종이다.

18) ᄒᆞ야 잇는 : (전답을) 맡아 농사를 짓고 있는.

19) 득남 : 인명. 발신자의 집안에서 부리던 '득남'(得男)이라는 이름의 사내종이다.

20) 졉동이 : 인명. 발신자의 집안에서 부리던 '접동'(接同)이라는 이름의 계집종이다.

21) 도지(賭地) :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터.

22) 머엇ᄒᆞ링잇가 : 무엇하리까.

23) 잠 : 좀. 조금. '좀'에 해당하는 사투리.

이씩 [형제들 저마다의 몫으로] 하되, [분량이 채] 모자라 검암[에 있는] 것이 그만 못하되 그와 같은 값을 쳐서 내었사옵. 달내[에 있는] 것이 거기에도 갔사오니, 인낭과 조이가 [농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데도 가깝고 하니 [형제들] 모두가 권하였고. 검암[에 있는] 것일랑은 득남이와 접동이가 함께 일구도록 하시면 좋사오되, 접동이 같은 이는 나이는 많사오나 앞서 도지(賭地)를 해 본 적이 없고 [또] 부실(不實)하니 무엇하리까? 아뢰올 말씀 그지없사오나, 조금[만] 아뢰옵. 아무쪼록 새해에 기후(氣候) 만복(萬福)하오시기를 다시금 바라옵.

4. 참고

윤인미(尹仁美, 1607～1674)의 아내 전주유씨(全州柳氏, 1604～1683)의 막내 동생 유정주(柳廷舟, 1626～?)가 음력으로 1664년 12월에 보내온 편지이다. 아마도 안부를 묻는 약간의 본문을 적고서 또한 그 끄트머리 한쪽은 피봉(皮封)으로 삼았을 다른 또 한 장이 달아나 없어진 이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48에 들어 있는 유정린(柳廷麟)의 편지와 더불어 비교해 보건대, 양자는 거의 같은 시점에서 서로 같은 사실을 적은 것임이 확인된다. 발신지도 다같이 서울이다. 발신자가 특히 유정주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본문의 "동싱도 큰덕죵을 겨집죵 둘 ᄉᆞ나희죵 ᄒᆞ나 홀 브니ᄋᆞᆸ더니 […] 실노 ᄒᆞᆫ나히 업ᄉᆞ 조의 ᄌᆞ식이 왓ᄉᆞᆸ"이라고 밝힌 내용과 유정린이 그의 손위 둘째 누이 앞으로 해남윤씨가에 보내온 「康熙三年甲辰十二月二十二日同生和會文記」에서 "十男進士廷舟"의 "新奴婢秩"을 밝힌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데 있다.

24 3-01. 海尹_MF35-3208_647(22x35cm): 고모 → 조카딸(1756)

1. 판독

[隔2]윤실좀간술피라[移1]
춍〃아모말못젹으니의답다ᄎᆞ시
가을다ᄉᆞ물골신샹셩〃다식ᄒᆞ며
우리윤낭기셔도의통〃듕지안ᄒᆞ시
며네의[隔1]듕당양젼분비회듕부
지ᄒᆞ시며딕산뎍넉외귀아들다리고평
안ᄒᆞ고님뎍유종엇더ᄒᆞ야고샹
암연ᄒᆞ여듯치며네싀동싱여러형
뎨무양다식들ᄒᆞ며네의외뎍
의층〃여샹ᄒᆞ시며샹사시일별노신속
네의죤고삼샹이어ᄂᆞ듯당ᄒᆞ여억
울비회어ᄂᆞ만훌지일칸이겨
넉신골물보는듯잇지못ᄒᆞ며무
ᄉᆞ안힝ᄒᆞ고셩〃다식ᄇᆞ론다무산
ᄂᆞ히라향ᄒᆞ고삼셰유ᄋᆞ갓튼네듕
님이니교듕ᄒᆞ게ᄒᆞ는거ᄉᆞ예동서
하인온듯편지ᄂᆞ븟칠거술잇고ᄉᆞ
지못못븟치니의답다고모는누
은병은업ᄉᆞᄂᆞ오라비신병쾌치못
심여〃츅슈훌듯약호업ᄉᆞ

니이리도심는ᄒᆞ다네의쟉숙도신
병기환업ᄉᆞ시고두로심여다현
ᄋᆞ여러남ᄆᆡ츙건며ᄂᆞ리시월십
육오라ᄒᆞ여더니제의죠모발제ᄃᆡ
단위듕이라지월노ᄂᆞ나오려ᄒᆞᆫ다
잠천ᄃᆡ의도무고ᄒᆞ시며츄셕의슉
딜보어더니우환으로못노은돗정
월노보ᄌᆞ아모것도보낼것업ᄉᆞ시니
서운그간노이든편포ᄒᆞᆫ뭇장ᄯᅳᆼ
이열두곳쇼〃영간ᄒᆞ다편지도ᄌᆞ
ᄌᆞ시못ᄒᆞᆫ다[移1]
[隔3]즉일고모셔

2. 전사 · 주석

윤실(尹室)[1] 줌간(暫間) 술피라

춍춍(悤悤) 아모 말 못 젹으니 이답다 ᄎᆞ시(此時) 가을 다ᄉᆞ(多事) 물골[2] 신샹(身上) 셩셩 다식(多食)ᄒᆞ며 우리 윤낭(尹郞)[3]기셔도 이통(哀

1) 윤실(尹室) : 윤씨 가문으로 시집간 여아(女兒). '-실'(室)은 시집간 여자를 친정 쪽의 손윗사람이 일컬을 때에 그 시집의 성씨 아래에 붙여 쓰는 말이다.
2) 물골 : 고달픔. '골몰'(←汨沒)이라고 할 것을 실수로 '물골'이라 적은 것이다. '골몰'(汨沒)은 본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한 가지 일에 깊이 파묻힘'을 뜻하는 것이나, 일부 지역의 사투리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됨'을 뜻한다.
3) 윤낭(尹郞) : 윤서방. 조카딸의 남편을 성씨로 일컫되, '-랑'(郞)을 또한 붙인 것이다.

痛)이통 듕(中) 지안(至安)ᄒᆞ시며 네의 듕당(中堂)[4] 양젼(兩殿)[5] 분 비회(悲懷) 듕 부지(扶持)ᄒᆞ시며 ᄃᆡ산ᄃᆡᆨ[6] ᄂᆡ외(內外) 귀아(貴兒)들 다리고[7] 평안(平安)ᄒᆞ고 님ᄃᆡᆨ(-宅)[8] 유종(乳腫)[9] 엇더ᄒᆞ야[10] 고샹(苦狀)[11] 암연(黯然)ᄒᆞ여[12] ᄃᆞᆺ치며[13] 네 싀동싱(媤同生) 여러 형뎨(兄弟) 무양(無恙) 다식(多食)들 ᄒᆞ며 네의 외ᄃᆡᆨ(外宅)의 층층(層層) 여샹(如常)ᄒᆞ시며 상사(喪事)[14] 시일(時日) 별(別)노[15] 신속(迅速) 네의 존고(尊考)[16] 삼상(三喪)이 어ᄂᆞᄃᆞᆺ 당(當)ᄒᆞ여 억울(抑鬱) 비회 어ᄂᆞ만 ᄒᆞᆯ지 일칸[17] 이겨 ᄂᆡ신 골물[18] 보ᄂᆞᆫ ᄃᆞᆺ 잇지 못ᄒᆞ며 무ᄉᆞ(無事) 안ᄒᆡᆼ(安行)[19] ᄒᆞ고 셩셩 다식(多食) ᄇᆞ론다 무산(無算)[20] ᄂᆞ히라 향(向)ᄒᆞ고[21] 샴셰

---

4) 듕당(中堂) : 안채에 계신 어버이. 여기서는 '시(媤)어버이'를 말한다.
5) 양젼(兩殿)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이른바 '양전'(兩殿)은 본디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을 아울러 이르는 바로서 임금과 왕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6) ᄃᆡ산ᄃᆡᆨ : 인칭. 'ᄃᆡ산'은 지명이다.
7) 다리고 : 데리고.
8) 님ᄃᆡᆨ(-宅) : 아무개 님댁. 대상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9) 유종(乳腫) : 유방암(乳房癌).
10) 엇더ᄒᆞ야 : 어떠하여. 문맥으로 보건대, '암만하여'의 뜻이다. 자세히 밝혀 말하기를 꺼리어 다만 '암만하여'의 뜻으로 '어떠하여'라고 한 것이다.
11) 고샹(苦狀) : 고생스러운 사정이나 형편.
12) 암연(黯然)ᄒᆞ여 : 암연(黯然)히. (슬픔으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게.
13) ᄃᆞᆺ치며 : 닥치며.
14) 상사(喪事) : 상고(喪故). 사람이 죽은 일.
15) 별(別)노 : 특별히. 매우.
16) 존고(尊考) : 남의 죽은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17) 일칸 : 기껏.
18) 골물 : 고달픔. '골몰'(汨沒)은 본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한 가지 일에 깊이 파묻힘'을 뜻하는 것이나, 일부 지역의 사투리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됨'을 뜻한다.
19) 안ᄒᆡᆼ(安行) :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행함.
20) 무산(無算) :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음.

(三歲) 유ᄋᆞ(乳兒) 갓튼 네 듕(中)님[22]이니 교듕(僑中)ᄒᆞ게[23] ᄒᆞᄂᆞᆫ 거ᄉᆞ(巨事)예 동서(東西)[24] 하인(下人) 온 ᄃᆞᆺ 편지(便紙)ᄂᆞ 붓칠 거ᄉᆞᆯ 잇고 스지 못 못 붓치니 ᄋᆡ답다 고모(姑母)ᄂᆞᆫ 누은 병(病)은 업ᄉᆞᄂᆞ 오라비 신병(身病) 쾌(快)치 못 심여(心慮)심여 ᄎᆞᆨ슈(促壽)[25]ᄒᆞᆯ ᄃᆞᆺ 약호(藥效) 업ᄉᆞ니 이리도 심ᄂᆞᆫ(心亂)ᄒᆞ다 네의 ᄌᆞᆨ슉(作叔)[26]도 신병 ᄀᆡ환(改換)[27] 업ᄉᆞ시고 두로 심여다 현ᄋᆞ[28] 여러 남ᄆᆡ(娚妹) 츙건(充健) 며ᄂᆞ리 시월(十月) 십육(十六) 오라 ᄒᆞ여더니 제의 죠모(祖母) 발제(髮際)[29] ᄃᆡ단 위듕(危重)이라 지월(至月)[30]노ᄂᆞ 나오려 ᄒᆞᆫ다 잠쳔ᄃᆡ의도[31] 무고(無故)ᄒᆞ시며 츄셕(秋夕)의 슉딜(宿疾)[32] 보이더니 우환(憂患)으로 못 노은 ᄃᆞᆺ[33] 정월(正月)노 보ᄌᆞ 아모 것도 보널 것 업ᄉᆞ시니 서운 그간 노이든[34] 편포(片脯)[35] ᄒᆞᆫ 뭇[36] 쟝ᄯᅳᆼ이[37] 열두 곳[38] 쇼쇼(小少) 영[39] 간

---

21) 향(向)ᄒᆞ고 : 줄곧 하고. 이른바 '향(向)하다'는 '어느 한 쪽으로 줄곧 나아가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단순히 '줄곧 하고'의 뜻으로 쓰였다.

22) 듕(中)님 : 중당(中堂)에 계신 님.

23) 교듕(僑中)ᄒᆞ게 : (본댁이 아닌) 바깥의 남의 집에서 사시게. '교중'(僑中)은 곧 '우거'(寓居)를 뜻하는 바로서, 타향이나 타국에서 임시로 기거함을 말한다.

24) 동서(東西) : 동쪽과 서쪽. 여기서는 '동쪽과 서쪽을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의 뜻이다.

25) ᄎᆞᆨ슈(促壽) : 죽기를 재촉함.

26) ᄌᆞᆨ슉(作叔) : 고숙(姑叔). 일부 지역 사투리에서, '고숙'(姑叔)을 또한 '작숙'(作叔)이라 이른다.

27) ᄀᆡ환(改換) : 고치고 바꾸어 놓음.

28) 현ᄋᆞ : 인칭. 발신자 고모의 아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29) 발제(髮際) : 발찌. 목 뒤의 머리털이 난 가장자리에 생기는 부스럼.

30) 지월(至月) : 동짓달.

31) 잠쳔ᄃᆡ의도 : 잠천댁에서도. '잠천'은 지명이다.

32) 슉딜(宿疾) : 오래 묵은 병. 숙병(宿病). 숙환(宿患).

33) 못 노은 ᄃᆞᆺ : (병이나 또는 그로 말미암은 근심거리를) 못 털어버린 듯.

34) 노이든 : 노느던. 여러 몫으로 갈라 두었던. 일부 지역 사투리에서, '노느다'를 '노이다'라고 말한다.

(簡)ᄒᆞ다[40] 편지(便紙)도 ᄌᆞᄌᆞ시[41] 못ᄒᆞᆫ다

즉일(卽日) 고모(姑母) 서(書)

3. 현대어역

윤씨 가문으로 시집간 조카딸 잠간 살펴라.

바빠 [그 동안에] 아무 말 못 적으니, [신세가] 애달프다. 이때 [바야흐로] 가을[이고 보니] 여러 가지 일로 고달프게 지내고 있을 몸은 성성하고 밥 잘 먹으며, 우리 윤서방께서도 [지친(至親)을 잃은 일로] 애통해하는 가운데 안녕하시며, 너희 시어버이 두 분 슬퍼하시는 가운데 [신체를] 보전하시며, 대산댁 내외도 귀한 아이들 데리고 평안하고, [아무개] 님댁[은] 유종(乳腫)[이] 암만하여, 고생스러운 사정이 답답하게 닥치며. 네 시동생 여러 형제 아무 탈 없이 밥들 잘 먹으며, 네 시외가의 여러분들도 여전하시며. 상사(喪事)를 겪은 날짜는 퍽 빨리도 돌아와서, 네 아버지 삼년상이 어느덧 다가와, [네 어머니 마음에] 답답하게 맺힌 슬픔 얼마나 할지, 기껏 이겨 내신 고달픔 [다시] 보는 듯[할 것이니], 잊지 못하며.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무사히 치르고 몸 성하고 밥 잘 먹기 바

35) 편포(片脯) : 포육(脯肉). 칼로 짓두드려 반대기를 지어 말린 고기. 또는, 마른오징어.
36) 뭇 : 묶음에 따른 분량을 세는 단위. '속'(束)에 상당하는 말이다.
37) 장뚱이 : 물명(物名).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의문이다.
38) 곳 : 거웃. 수량을 나타내는 말의 뒤에 쓰여 골을 세는 단위. 이른바 '골'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일정한 모양을 잡거나 뒤틀린 모양을 바로잡는 데 쓰는 틀을 말한다.
39) 영 : 전혀. 도무지.
40) 간(簡)ᄒᆞ다 : 간소(簡疏)하다.
41) ᄌᆞᄌᆞ시 : 자세히. 글줄이 바뀌면서 'ᄌᆞ'를 겹쳐 쓴 것이다.

란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나이라 줄곧 하고 세살 먹은 어린 아이 같은 네 시어버이들이니, [본댁을 벗어나] 바깥의 남의 집에서 사시게 하는 큰일에 여러 곳에서 하인을 보내온 듯[하던데], [그 통에] 편지나 부칠 것을 잊고 쓰지 못[하고], 못 부치[고 보]니 애달프다. 고모는 자리에 누울 만한 병은 없으나, 오라버니 몸의 병이 개운하게 낫지를 못[하니], 걱정스럽고….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재촉하는 듯이 약효[조차] 없으니, 이리도 심난하다. 네 고숙도 몸의 병 고쳐 바뀜이 없으시고, 두루 걱정이다. 현이놈 여러 남매 살지고 씩씩하며, [근친 간] 며느리는 시월 십육[일에는] 돌아오라고 하였더니, 제 할머니께서 발제로 매우 위중하여 동짓달로나 오려고 한단다. 잠천댁네도 무고하시며, [다만] 추석에 숙환(宿患)을 보이더니, [그로 말미암은] 걱정을 [아직] 못 [다] 털어버린 듯[하다]. 정월(正月)로 [즈음하여] 보재[꾸나]. 아무 것도 보낼 것 없으니 서운[하다]. 그 동안에 여러 뭇으로 갈라 두었던 편포(片脯) 한 뭇, 장뚱이 열두 거웃, [그래 보았자] 얼마 되지 않고 도무지 간소하다. 편지도 자세히 못한다.

바로 그 날에, 고모가 적는다.

4. 참고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의 손자이자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의 첫째 아들인 윤종(尹悰, 1705~1757)의 부인 연안(延安) 이씨(李氏)의 친정 고모가 1756년 10월에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본문에 보이는 "우리 윤낭기셔도 익통〃듕 지안ᄒᆞ시며 네의 듕당 양젼분 비회듕 부지ᄒᆞ시며"라는 구절과 "무산 ᄂᆞ히라 향ᄒᆞ고 샴

세 유ᄋᆞ 갓튼 네 듕님이니"라는 구절과 "지월노ᄂᆞ 나오려 ᄒᆞᆫ다"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8월 추석은 이미 지나고 11월 동지는 아직 되기에 앞서 작성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자식이 요절하는 슬픔을 직전에 겪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환갑을 훨씬 넘긴 70세 안팎의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족보에 따르면, 해남윤씨 종가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일생을 보여 주는 사람은 윤종의 부인 연안 이씨가 있을 따름이다. 윤종의 하나뿐인 아들 윤지정(尹持貞, 1731~1756)이 1756년 3월 11일에 향년 26세로 죽었는데, 당시에 윤종의 아버지 윤덕희는 72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윤종은 또한 바로 그 이듬해인 175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본문의 이른바 "우리 윤낭"이 윤종을 가리킬 수 있는 기간은 그것을 넓게 잡아도 다만 1756년 3월로부터 10월에 이르는 동안일 뿐이다.

25 3-02. 海尹_MF35-3208_657(29x42cm): 시백부 → 조카며느리(1903)

1. 판독

거번길힝슌성회환ᄒᆞᆫ후어연다
일이되엿스며기시일힝무사이환릭
ᄒᆞ여네의규범용의극선케들이여
흔히심ᄉᆞ층양업섯스며지오ᄒᆞ인릭
ᄒᆞ여쏘ᄒᆞᆫ화봉슈서바더탐〃견지ᄒᆞ

니네의화순의용을황연상딕홈
에다람업서더욱흔히지심만〃이다
ᄎᆞ시록음가절너의층당제절이
강건ᄒᆞ오시고너도즁시ᄒᆞ곳봉신상
다복츙길ᄒᆞ며너의여려남미슉
질터평들ᄒᆞ며더소제덕들터평
ᄒᆞ시ᄂᆞ냐두로원문이다ᄎᆞ곳시빅부
난ᄒᆞᆼ시분요즁신상딕양은더소각가
일의들ᄒᆞ고ᄋᆞ히들현양은업스니
다ᄒᆡᆼ이다ᄒᆞ여온버선졸마즈니깃
[右2]분심ᄉᆞ더욱층양업다변〃치못ᄒᆞᆫ의
[右3]ᄎᆞ부송ᄒᆞ니잘바더라총요ᄒᆞ여이
[右4]만근치이니김족ᄒᆞ여보아라
[右1]계묘오월이일시빅부서

2. 전사 · 주석

거번(去番) 길ᄒᆡᆼ(-行) 슌성회환(順成回還)ᄒᆞᆫ 후(後) 어연 다일(多日)이 되엿스며 기시(其時) 일ᄒᆡᆼ(一行) 무사(無事)이 환릭(還來)ᄒᆞ여 네의 규범(規範) 용의(容儀) 극선(極善)케 들이여 흔히(欣喜) 심ᄉᆞ(心思) 층양(測量) 업섯스며 지오(在吾) ᄒᆞ인(下人) 릭(來)ᄒᆞ여 ᄯᅩᄒᆞᆫ 화봉슈서(華封秀書) 바더 탐탐(眈眈) 견지(見之)ᄒᆞ니 네의 화순(和順) 의용(儀容)을 황연(晃然) 상딕(相對)홈에 다람 업서 더욱 흔히지심(欣喜之心) 만만(萬萬)이다 ᄎᆞ시(此時) 록음가절(綠陰佳節) 너의 층당(層堂) 제절(諸節)

이 강건(剛健)ᄒᆞ오시고 너도 즁시ᄒᆞ(重侍下)[1] 곳봉[2] 신샹(身上) 다복(多福) 츙길(充吉)ᄒᆞ며 너의 여러 남ᄆᆡ(娚妹) 슉질(叔姪) ᄐᆡ평(太平)들ᄒᆞ며 ᄃᆡ소(大小) 제ᄃᆡᆨ(諸宅)들 ᄐᆡ평(太平)ᄒᆞ시ᄂᆞ냐 두로 원문(願聞)이다 ᄎᆞ(此)곳 시ᄇᆡᆨ부(媤伯父)난 ᄒᆞᆼ시(恒時) 분요즁(紛擾中) 신샹(身上) ᄃᆡ양(大恙)은 ᄃᆡ소(大小) 각가(各家) 일의(一擬)[3]들 ᄒᆞ고 ᄋᆞ히들 현양(現恙)은 업스니 다ᄒᆡᆼ(多幸)이다 ᄒᆞ여 온 버선 줄 마즈니 깃분 심ᄉᆞ(心思) 더욱 층양 업다 변변치 못ᄒᆞᆫ 의ᄎᆞ(衣次)[4] 부송(付送)ᄒᆞ니 잘 바더라 총요(悤擾)[5]ᄒᆞ여 이만 근치이니 김쟉(斟酌)ᄒᆞ여 보아라

계묘(癸卯 : 1903) 오월(五月) 이일(二日) 시ᄇᆡᆨ부 서(書)

3. 현대어역

접때 길을 떠나 순조롭게 돌아간 뒤로 어언 여러 날 되었으며. 그때 함께 간 사람들 무사히 돌아와, 너의 규범(規範) [있게 하는] 용의(容儀) [에 관하여 하는 말이] 매우 훌륭하게 들리어, 기쁜 마음 헤아릴 수 없었으며. 우리 하인 와서, 또한 꽃답고 빼어난 글월 받아 즐거이 바라보니, 너의 온화(溫和)하고 양순(良順)한 의용(儀容)을 환하게 마주함에 다름이 없어 더욱 기쁜 마음 그지없음이다. 이즈음 푸르름이 짙어가는 좋은 시절에, 너의 위로 겹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강건(剛健)하오시고, 너도

---

1) 즁시ᄒᆞ(重侍下) : 부모와 조부모가 다 살아 있어서 모시는 처지.
2) 곳봉 : 꽃봉오리. 여기서는 '꽃봉오리 같은'의 뜻이다.
3) 일의(一擬) : 일양(一樣). 여전(如前)한 모양.
4) 의차(衣次) : 옷감.
5) 총요(悤擾) : 바쁘고 부산함.

[시댁의] 부모와 조부모를 아울러 모시는 처지에서 꽃봉오리 같은 몸이 다복(多福)하고 튼튼하며, 너의 여러 남매(娚妹) 및 조카들 태평들 하며, 크고 작은 여러 집들 태평하느냐? 두루 듣고 싶음이다. 이곳 시백부(媤伯父)는 늘 바삐 어수선하게 지내는 가운데 몸의 큰 탈[이 없음]은 [나뿐 아니라] 여러 집이 [또한] 하나같이들 하고, 아이들 달리 아무런 탈 없으니 다행이다. 만들어 온 버선 잘 맞으니, 기쁜 마음 그지없다. 변변치 못한 옷감 부치니, 잘 받아라. 바빠서 이만 그치니, 얼추 헤아려 보아라.

계묘년 오월 이일, 시백부가 쓴다.

4. 참고

종가(宗家)의 맏며느리에게 시백부(媤伯父)라는 지위에서 편지를 보내올 사람은 전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편지는 종가에서 여러 작은 집 가운데 그 어느 한 집으로 보내려고 썼다가 미처 부치지 못하고 남겨 둔 것임이 분명한데, 이 편지는 특히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06-1에 들어 있는 발신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필체와 완전히 동일한 필체를 보여주는 점에서 윤정현이 1903년에 쓴 편지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또한 윤정현을 중심으로 사촌 이내의 친인척 범위를 벗어나 있는 집안의 인물이다. 왜냐면 1903년 5월 당시에 윤정현의 친조카는 아직 아무도 태어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6 4-01. 海尹_MF35-3208_624(24x42cm): 사촌 오빠 → 사촌 누이(1856)

1. 판독

[隔2]동ᄆᆡ[隔2]봉장[移1]
ᄒᆡ포셔ᄶᅩ도막히니시〃향념무익이
며거년신년일망지ᄂᆡ니ᄎᆞ시쵸한의
신상평안ᄒᆞ고[隔1]허셔방긔셔도년ᄒᆞ
녀일안ᄒᆞ시고귀즁신아도무양[훙]길
ᄒᆞᆫ가치하엿지촌지로다ᄒᆞ게ᄂᆞ더옥
작인쥰수비범ᄒᆞᆫ일듯기위힝이ᄂᆡ
동남은완인시일무상ᄒᆞ녀ᄀᆡ년납월의
한마님삼년을맛ᄌᆞ오니츄감어ᄂᆞ만
ᄒᆞ온즁ᄌᆞ부신네을당ᄒᆞ니비희일
반일ᄂᆡ싱양정부모님ᄂᆡ톄도갓〃싈셥
ᄌᆞ즈시니츈추로ᄯᅳᆺᄌᆞ와절박ᄒᆞᄂᆡ져
근어마님게셔ᄂᆞᆫ근〃부지ᄒᆞ시고져근누
의ᄂᆞᆫ셩혼ᄒᆞ여보ᄂᆡ후소식드라니신병
은업시지ᄂᆡ고웅용이셰전의공쥬
어마님결제ᄒᆞ고ᄎᆞᄌᆞ와숙딜동형제
샹면ᄎᆞ마신통〃ᄒᆞᄂᆞ셩춰일리심난〃
ᄒᆞᄂᆡ덕암남ᄆᆡᄂᆞᆫ무양ᄒᆞ고신인극현〃
ᄒᆞ고이달십뉵일ᄯᅩ아달ᄒᆞᆫᄂᆞ나아삼형
졔되니신년다힝이ᄂᆡ져근아바님

졔ᄉᆞ의와다가하닌온편의수ᄶᆞ부치
며회초간ᄃᆡ곡ᄒᆡᆼ의만ᄂᆞ보게ᄂᆡ[ᄆᆡ]진
주리치ᄂᆡᄂᆡ〃평길바라며신아
상면ᄃᆡ신긔〃ᄒᆞᄂᆡ
[前]정월념삼일동남셕노셔

2. 전사 · 주석

동ᄆᆡ(從妹) 봉장(封狀)

ᄒᆡ포[1] 셔ᄶᆞ(書字)도 막히니 시시(時時) 향념(向念) 무익(無益)이며 거년(去年) 신년(新年) 일망(一望) 지ᄂᆡ니[2] ᄎᆞ시(此時) 쵸한(峭寒)[3]의 신상(身上)[4] 평안(平安)ᄒᆞ고 허셔방[5]긔셔도 년(連)ᄒᆞ녀 일안(一安)ᄒᆞ시고 귀즁(貴重) 신아(新兒)도 무양(無恙) [츙]길(充吉)[6]ᄒᆞᆫ가 치하(致賀) 엇지 촌지(寸紙)로 다ᄒᆞ게ᄂᆞ 더옥 작인(作人) 쥰수(俊秀) 비범(非凡)ᄒᆞᆫ 일 듯기 위ᄒᆡᆼ(慰幸)이ᄂᆡ 동남(從男)[7]은 완인(完人) 시일(時日) 무상(無常)ᄒᆞ녀 ᄀᆡᆨ년(客年)[8] 납월(臘月)[9]의 한마님 삼년(三年)[10]을 맛ᄌᆞ오니

1) ᄒᆡ포 : 1년 남짓한 동안.
2) 지ᄂᆡ니 : (세월을) 보내니. 지내니.
3) 쵸한(峭寒) : 살을 찌르는 듯이 강한 추위.
4) 신상(身上) : (사람의) 몸이나 처신(處身),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그 형편.
5) 허셔방 : 인칭. 수신자 사촌 누이의 남편.
6) [츙]길(充吉) : 알차게 생겨 튼튼하고 운기(運氣)가 트여 보임.
7) 동남(從男) : 사촌오라비.
8) ᄀᆡᆨ년(客年) : 지난 해.
9) 납월(臘月) : 음력 섣달.
10) 삼년(三年) : 삼년상(三年喪).

츄감(惆感) 어느[11] 만ᄒᆞ온 즁(中) ᄌᆞ부(子婦) 신녜(新禮)을 당(當)ᄒᆞ니 비희(悲喜) 일반(一般)일너 싱양졍(生養庭)[12] 부모님너 톄도(體度)[13] 갓갓(各各) 실셥(失攝)[14] ᄌᆞ즈시니 츈추(春秋)로 돕ᄌᆞ와[15] 졀박(切迫)ᄒᆞ너 져근 어마님게셔는 근근(僅僅) 부지(扶持)ᄒᆞ시고 져근 누의는 셩혼(成婚)ᄒᆞ여 보너 후(後) 소식(消息) 드라니 신병(身病)은 업시 지너고 응용[16]이 세젼(歲前)의 공쥬[17] 어마님 결졔(闋制)[18]ᄒᆞ고 ᄎᆞᄌᆞ와 숙딜(叔姪) 동형제(從兄弟) 샹면(相面) ᄎᆞ마 신통(神通)신통ᄒᆞ는 셩취(成就)일리 심난(甚難)심난ᄒᆞ너 덕암[19] 남ᄆᆡ(娚妹)는 무양(無恙)ᄒᆞ고 신인(新人) 극현(極賢)극현ᄒᆞ고 이 달 십뉵일(十六日) 또 아달 ᄒᆞᆫ는 나아 삼형졔(三兄弟) 되니 신년(新年) 다ᄒᆡᆼ(多幸)이너 져근 아바님 졔ᄉᆞ(祭祀)의 와다가 하닌(下人) 온 편(便)의 수ᄶᆞ(數字) 부치며 회초간(晦初間)[20] 더곡[21]ᄒᆡᆼ(行)의 만는 보게너 [ᄆᆡ]진(枚陳)[22] 주리[23] 치너[24] 너너 평길(平

11) 어느 : 어찌. 얼마나. 여기서는 '어찌 할 수 없이'의 뜻이다.
12) 싱양졍(生養庭) : 생정(生庭)과 양정(養庭), 곧 생가(生家)와 양가(養家).
13) 톄도(體度) : 체후(體候). 편지 글에서, 남을 높이어 그의 기거(起居), 곧 일상 생활을 가리켜 말할 때에 쓰는 투어(套語)이다.
14) 실셥(失攝) : 병환에 들거나 쇠약(衰弱)한 탓으로 식사(食事)를 거르는 일.
15) 돕ᄌᆞ와 : 돕자와. 부추겨. 문맥으로 보건대, '나이 많은 탓으로 건강의 악화를 더욱 부추겨'라는 뜻이다.
16) 응용 : 인명.
17) 공쥬 : 지명.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18) 결졔(闋制) : 해상(解喪). 삼년상(三年喪)을 마침.
19) 덕암 : 지명.
20) 회초간(晦初間) : 그믐과 초승 사이.
21) 더곡 : 지명.
22) [ᄆᆡ]진(枚陳) : 낱낱이 들어 말함.
23) 주리 : 줄여. '줄이다'의 어간 '줄이-'를 마치 부사처럼 쓴 것이다.
24) 치너 : (글을) 엮네. 여러 가닥을 하나로 꼬아 끈 따위를 엮거나 가마니·멱서리 따위를 짜서 만드는 것을 '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글을 엮어 내는 데다 적용한 것이다.

吉) 바라며 신아(新兒) 샹면(相面) 더 신긔(新奇)[25]신긔ᄒᆞ녀

정월(正月) 념삼일(念三日)[26] 둉남(從男) 셕노[27] 셔(書)

3. 현대어역

사촌누이에게 부치는 편지

한 해 남짓한 동안 편지 글월도 막히니, 때때로 그리는 마음 [그저] 쓸데없는 것이 되며.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아 보름 남짓 지내니, 이즈음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몸 평안하시고, 허 서방께서도 이즈음 줄곧 안녕하시고, 새로 낳아 귀중한 아기도 아무 탈 없이 튼튼하고 환한가? 고마움을 어찌 이 짧은 종이에 다 적겠나. 더욱 생김새가 준수하고 비범한 일, 듣기 위안이 되고 다행스럽네. 사촌오라비는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할 때가 거의 없어, 지난 해 섣달에 할머님 삼년상을 맞으니 서러운 마음 어찌 할 수 없이 많던 가운데 며느리 신례를 [또한] 맞으니, 슬프고 기쁘기 [그저] 마찬가지이네. 생가와 양가 부모님네 건강, 모두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으시니, [게다가] 연세까지 많은 탓으로 절박하네. 작은어머님께서는 겨우겨우 부지하시고, 작은누이는 혼인하여 떠나보낸 뒤로 소식 들으니 몸에 병은 없이 지내고, 웅용이는 설에 앞서 공주 어머님 삼년상을 마치고 찾아와 조카들과 사촌형제들 서로 만나매, 이루 말할 수 없이 흡족하고 또 흡족하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루는 일이 너무

---

25) 신긔(新奇) : 새롭고 기이함. 여기서는 '(새롭고 기이한 일에) 마음이 설렘'을 뜻한다.
26) 념삼일(念三日) : 23일. 스물을 뜻하는 한어 '廿'(二十)의 중국 속음이 '念'과 더불어 [nian⁴]으로 같아지면서 '念'으로써 '廿'을 대신해서 적는 속습이 생겼다.
27) 셕노 : 인명. 발신자 윤주흥(尹柱興, 1823~1873)의 자(字).

어렵고 또 어렵네. 덕암에 있는 남매는 아무 탈 없고, 새 며느리 매우 어질고, 이 달 16일에 아들 하나 낳아 [자식이] 삼형제 되니 새해의 다행이네. 작은아버님 제사에 왔다가, [누이 집에서 보낸] 하인 온 편에 몇 글자 [적어] 부치며. 그믐이나 초승 즈음에 대곡으로 가는 길에 만나 보겠네. 낱낱이 들어 다 말할 것을 줄여 엮네. 내내 평안하고 상서롭기 바라며, 새로 낳은 아기 만날 일이 더 설레고 들뜨네.

정월(正月) 23일, 사촌오라비 석로 씀.

4. 참고

본문의 이른바 "셕노"(錫老)는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5세손 윤주흥(尹柱興, 1823～1873)의 자(字)이다. 윤주흥은 윤두서(尹斗緖, 1668～1715)의 셋째 아들 윤덕훈(尹德熏, 1694～1757)의 현손(玄孫) 윤명호(尹命浩, 1800～1862)의 외아들로 태어나 종가(宗家)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니 본문의 이른바 "종미"(從妹)는 양가의 인물이 아니고 친가의 인물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반드시 본문의 이른바 "허셔방"에게 출가한 사람이라야 하므로, 윤명호의 아우 윤성호(尹性浩, 1804～1851)의 큰 딸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본문의 이른바 "긱년 납월의 한마님 삼년을 맛즈오니"는, 이것을 "즈부 신네을 당ᄒᆞ니"의 시점에 비추어 보건대, 당연히 양가의 할머니 양천허씨(陽川許氏, 1780～1853)의 삼년상을 말한 것이다. 친가의 할머니 함평이씨(咸平李氏, 1774～1836)의 삼년상을 맞은 것은 윤주흥의 큰아들 윤관하(尹觀夏1841～1926)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1856년 1월 23일에 작성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27 4-02. 海尹_MF35-3208_631(27x40cm): 사촌 아주머니 → 사촌 아주버니(1753)

1. 판독

두분아ᄌᆞ바님쳥젼[隔1]장싱[小2]연동[間]근봉

고ᄃᆡ〃듕말재아ᄌᆞ바님드러오시니과

ᄒᆞᆫ이오며듀야용여ᄒᆞᄋᆞᆸ더니락〃반갑

ᄉᆞᆸ고그ᄣᅢ[移1]

[擡1]뫼ᄋᆞᆸ셔긔운들그만이나디ᄂᆡᄋᆞᆸ시니

만힝이오나장시도지금ᄐᆡᆨ일도못

ᄒᆞᄋᆞᆸ시고가지〃통박ᄒᆞᄋᆞᆸ신[隔1]심ᄉᆞ

와근노심여오죽ᄒᆞᄋᆞᆸ시리잇가[용여]

일시도부리ᄋᆞᆸ지못ᄒᆞ오며넷재아[ᄌᆞ]

바님만〃글월밧ᄌᆞ와반갑ᄉᆞᆸ고든

〃ᄒᆞ옴친히뵈온ᄃᆞᆺᄒᆞ오며진위

참보는제작인비샹ᄒᆞ오니밋엇ᄉᆞᆸ

더니ᄎᆞ마〃그럴니어ᄃᆡ이ᄉᆞᆸ아ᄌᆞ바님

일즉곳오시더면의약이나무감이ᄒᆞ

올거술긔쳔고유ᄒᆞᆫ이되ᄋᆞᆸ실거시

오제어마님셔울셔견딜길곳이시면

병든ᄌᆞ식위ᄒᆞ여아니가실거술싀덕

형세의굿ᄐᆞ여가ᄉᆞᆸ다가더셜온일

만나되지온ᄃᆞᆺ더셜워〃ᄒᆞᆯ일ᄎᆞ

마〃불샹〃ᄒᆞᄋᆞᆸ님힝ᄉᆞ십당셔역

[上1]의지쳐겨유〃ᄒᆞ오니아ᄆᆞ려나극열
[上2]장ᄉᆞ나평안이디너ᄋᆞᆸ시고[隔1]뫼ᄋᆞᆸ셔긔운들평
안이디너오시ᄂᆞᆫ문안ᄇᆞ라ᄋᆞᆸ노이다
[隔1]계유ᄉᆞ월십칠ᄉᆞ촌뷰인니

2. 전사 · 주석

두 분 아ᄌᆞ바님 청젼(淸前) 장상(狀上)
연동(蓮洞)[1] 근봉(謹封)

고ᄃᆡ(苦待)고ᄃᆡ 듕(中) 말재(末-) 아ᄌᆞ바님 드러오시니 과ᄒᆞᆫ(過限)[2]이 오며 듀야(晝夜) 용여(用慮)ᄒᆞᄋᆞᆸ더니 락락(樂樂)[3] 반갑ᄉᆞᆸ고 그ᄯᅢ[4] 뫼ᄋᆞᆸ셔[5] 긔운(氣運)들 그만이나 디너ᄋᆞᆸ시니 만힝(萬幸)이오나 장시(葬時)도 지금 턱일(擇日)도 못ᄒᆞᄋᆞᆸ시고 가지가지 통박(痛迫)[6]ᄒᆞᄋᆞᆸ신 심ᄉᆞ(心思)와 근노(勤勞) 심여(心慮) 오죽ᄒᆞᄋᆞᆸ시리잇가 [용여] 일시(一時)도 부리ᄋᆞᆸ지 못ᄒᆞ오며 넷재 아[ᄌᆞ]바님 만만(滿滿)[7] 글월 밧ᄌᆞ와 반갑ᄉᆞᆸ고 든든

---

1) 연동(蓮洞) : 지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蓮洞里). 해남윤씨가의 세거지.
2) 과ᄒᆞᆫ(過限) : 과분(過分). '과한'(過限)·'과분'(過分)은 '분한'(分限)이라는 말에 '과도'(過度)의 뜻을 더해서 만든 바로서 서로 같은 뜻을 지니는 말이다. 그러나 다만 '과한'(過限)은 오늘날 '기한이 지남'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3) 락락(樂樂) : '낙락(樂樂)하다'의 어근으로서 '매우 즐거움'을 뜻하는 형용사이나, 여기서는 단순히 '매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다.
4) 그ᄯᅢ : 그동안.
5) 뫼ᄋᆞᆸ셔 : 모시고. 수신자가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 이른바 '시하'(侍下)의 뜻으로 한글 편지에 흔히 쓰는 투어(套語)이다.
6) 통박(痛迫) : 마음이 몹시 절박함.
7) 만만(萬萬) : 느낌의 정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나큼. 여기서는 '반갑기 그지없음'

ᄒᆞ옴 친(親)히 뵈온 둣ᄒᆞ오며 진위(眞謂) 참[8] 보는 제 작인[illegible]作人) 비상(非常)ᄒᆞ오니 밋엇솝더니 ᄎᆞ마ᄎᆞ마 그럴 니(理) 어ᄃᆡ 이솝 [illegible]즈바님 일죽[9] 곳[10] 오시더면 의약(醫藥)이나 무감(無減)이 ᄒᆞ올 거술 [illegible] 쳔고(千古) 유훈(遺恨)[11]이 되옵실 거시오 제 어마님 셔울셔 견딜 즐[illegible]곳 이시면 병든 ᄌᆞ식(子息) 위ᄒᆞ여 아니 가실 거술 싀ᄃᆡᆨ(媤宅) 형셰(形[illegible])의 굿ᄐᆞ여 가솝다가 더 셜온 일 만나되 지온 둣[12] 더 셜워셜워 홀 일[illegible]ᄎᆞ마ᄎᆞ마 불샹불샹ᄒᆞ옵 님ᄒᆡᆼ(臨行)[13] ᄉᆞ십당(四十葬)[14] 셔역(暑役)[15][illegible] 지쳐 겨유[16]겨유 ᄒᆞ오니 아므려나 극열(極熱) 장ᄉᆞ(葬事)나 평안(平[illegible]이 디ᄂᆡ옵시고 뫼옵셔 긔운들 평안(平安)이 디ᄂᆡ오시는 문안(問安) 브[illegible]옵노이다

계유(癸酉) ᄉᆞ월(四月) 십칠(十七) ᄉᆞ촌(四寸) 뷰인(夫人)니

3. 현대어역

두 분 아주버님 앞에 올리는 글월

을 나타내는 관형어로 쓰였다.

8) 참 : 처음.

9) 일죽 : 일찍.

10) 곳 : 곧. 여기서는 앞에 놓인 부사를 강조하는 바로서 '좀'의 뜻으로 쓰[illegible].

11) 유훈(遺恨) : 살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긴 한. 잔한(殘恨).

12) 지온 둣 : (목숨이) 끊어지는 듯. (대를 이을 손이) 끊기는 뜻.

13) 님ᄒᆡᆼ(臨行) : 실행에 다다름. 실행함.

14) ᄉᆞ십당(四十葬) : 40일을 두고 치르는 장사(葬事). 이른바 '-장(葬)은[illegible]부 명사 뒤에 붙어서 '장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15) 셔역(暑役) : 더위 속에 치르는 일.

16) 겨유 : 겨우.

애타게 기다리던 가운데 막내 아주버님[께서 친히 소식을 전하러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니 [오히려 제에게] 과분하오며. 밤낮으로 걱정하옵더니 매우 반갑사옵고. 그동안 [어버이] 모시고 기운들 그만이나 지내오시니 다행이오나, [아직까지] 장시(葬時)도, 지금[까지] 택일(擇日)도 못하오시고 갖가지로 절박하오신 심사와 힘겨운 근심걱정 오죽하시리까? [걱정하는 마음을] 한때도 부려 놓지 못하오며. 넷째 아주버님[께서 보내신] 그지없는 글월 받자와 반갑고 든든하기 친히 뵈온 듯하오며. 참으로 이른바 처음 볼 적부터 사람됨이 남다르오니 믿었사옵더니, [기대와 다르게] 차마 그럴 리가 어디 있사옵? [돌아가신 저희] 아주버님[께서 만약에] 일찍 좀 오셨더라면 의약(醫藥)이나 덜어냄 없이 하올 것을, 그것이 두고두고 남은 한이 되오실 것이며, 저희 어머님[께서 만약에] 서울에서 견딜 길이 좀 있었으면 병든 자식(子息) 위하여 아니 [되돌아] 가셨을 것을, 시댁 형편에 [못내] 구태여 가시다가 저 서러운 일 만나되, [손이 대] 끊길 듯 더 설워할 일 차마 불쌍하고 또 불상하옵. 사십 일을 두고 장사를 치르매, 더위에 지쳐 겨우겨우 하오니, 아무쪼록 더위에 장사나 평안히 지내오시고, [어버이] 모시고 기운들 평안히 지내오시는 문안 [듣기를] 바라옵나이다.

계유년 사월 십칠일, 사촌 부인이.

4. 참고

편지의 본문을 보건대, 발신자와 인척(姻戚)으로 사촌 관계에 있는 이른바 '넷째 아주버니'가 먼저 편지를 적어 보내고 그것을 또한 '말째 아주버니'가 친히 가지고 갔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유 ᄉᆞ월"로 적고 있는 시점을 통하여 해남 연동에 거주하고 있던 이 편지의 수신자 "두

분 아ᄌᆞ바님"의 모든 형제는 적어도 다섯은 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사촌 형제는 적어도 둘은 되어야 마땅하다. 족보에 따르면,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종가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에 꼭 들어맞는 세대는 오직 1753년에 이른 계유년의 20세손 윤덕희(尹德熙, 1685~1766)의 아홉 형제이거나 또는 21세손 윤종(尹悰, 1705~1757)의 다섯 형제일 뿐이다. 그런데 아마도 서울에 거주했을 듯한 이 편지의 발신자 "ᄉᆞ촌 뷰인"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서울에서 해남으로 내려간 시어머니의 "병든 ᄌᆞ식", 곧 시댁 아주버니를 "계유 ᄉᆞ월"로 적고 있는 시점보다 한 달 앞서 잃었다. 그러나 윤덕희나 윤종의 사촌 형제 가운데 1753년에 별세한 인물은 족보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까닭에 이 편지의 발신자를 정확히 구명하는 것은 미결의 문제로 남는다.

28 4-03. 海尹_MF35-3208_635(20x55cm): 외사촌 오빠 → 외사촌 누이(1899)

1. 판독

누의[隔1]님젼[隔1]상서
수월안후삷히지못하오니하회복울
날로간절하압나이다삼복셩념은날로훈
열하여사람을찌난듯하온차시복불심
차시[移1]
로련기력만수무강하시오며[隔1]자근죵부게

서도상봉하솔평길하시고여러손아배들충
건들하며서울광쥬양쳐안신종〃들
으시나잇가두로송축구〃원문지지로소
이다외종제난가즁이별고난업사오니사힝
이로소이다비장금련농사는리죵후로초운시까
지난풍작모양이더니지운시로리화명
충이더발하고근일에는회사가더기하여농
작물을크게손상하고한발이심하여서숙두
텨빅물이다말은니막비쳔재라한탄한
들쓸대잇나이가일쳔지하에다갓틀껏
이오나귀장농물은엇써합잇가알고져하
압나이다알외올말남사오나더강정을통
하오니[隔1]홍량고견으로짐작하감하시기를
복망하나이다[移1]
[隔1]기히구육월회일외종제상하지비상서
[追伸]
우리형수게서와질부도어린아들더불고균
안ᄒᆞ난지원문불이하나이다

2. 전사 · 주석

누의님 젼(前) 상서(上書)

수월(數月) 안후(安候)[1] 삶[2]히지 못하오니 하회(下懷) 복울(伏鬱) 날로 간절(懇切)하압나이다 삼복(三伏) 셩념(盛炎)[3]은 날로 훈열(薰熱)[4]

하여 사람을 찌난 듯하온 차시(此時) 복불심(伏不審)[5] 차시(此時) 로련(老年) 기력(氣力) 만수무강(萬壽無疆)하시오며 자근종부(宗婦)[6] 게서도 상봉하솔(上奉下率) 평길(平吉)하시고 여러 손아배(孫兒輩)들 충건(充健)들하며 서울 광쥬[7] 양쳐(兩處) 안신(雁信) 종종(種種) 들으시나잇가 두로 송축(頌祝) 구구(區區) 원문지지(願聞之至)로소이다 외종제(外從弟)난 가중(家中)이 별고(別故)난 업사오니 사힝(似幸)이로소이다 비장(鄙莊)[8] 금련(今年) 농사(農事)는 리종후(移種後)로 초운시(初耘時)까지난 풍작(豊作) 모양(模樣)이더니 지운시(再耘時)로 리화명충(二化螟蟲)[9]이 디발(大發)하고 근일(近日)에는 회사(灰沙)가 디기(大起)하여 농작물(農作物)을 크게 손상(損傷)하고 한발(旱魃)이 심하여 서숙[10] 두티(豆太) 빅물(百物)이 다 말은니 막비천재(莫非天災)라 한탄(恨歎)한

---

1) 안후(安候) : 평안한 소식. '안신'(安信)의 높임말.
2) 삷 : 원전의 표기는 받침의 순서가 'ㅂ-ㄹ'로 되어 있으나, 입력이 불가능한 까닭에 '삷'으로 표기해 둔다.
3) 셩념(盛炎) : 한더위.
4) 훈열(薰熱) : 훈증(薰蒸). 찌는 듯이 무더움.
5) 복불심(伏不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복미심(伏未審)과 같은 기능을 하는 투어(套語)로서 「伏未(不)審 …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尊處)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말이다. '伏未(不)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6) 자근종부(宗婦) : 종부(宗婦)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종부 며느리. '종부'(宗婦)는 본디 '종가댁 맏며느리'를 뜻하나, 여기에 다시 '작은'이라는 말이 붙어 '맏며느리의 맏며느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7) 광쥬 : 지명.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8) 비장(鄙莊) : 자기 소유의 논밭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9) 리화명충(二化螟蟲) : 한 해에 두 번 우화(羽化)하는 명충(螟蟲). 명충나방(螟蟲-). 벼에 큰 해를 끼친다.
10) 서숙 : '조'의 사투리.

들 쓸대 잇나이가 일천지하(一天之下)에 다 갓틀 껏이오나 귀장(貴莊) 농물(農物)은 엇써합잇가 알고져 하압나이다 알외올 말 남사오나 ᄃᆡ강(大綱) 정(情)[11]을 통(通)하오니 홍량고견(洪量高見)으로 짐작(斟酌) 하감(下鑑)하시기를 복망(伏望)하나이다

기ᄒᆡ(己亥) 구육월(舊六月)[12] 회일(晦日) 외종제(外從弟) 상하[13] ᄌᆡ비(再拜) 상서

[追伸]

우리 형수(兄嫂)게서와 질부(姪婦)도 어린 아들 더불고 균안(均安)ᄒᆞ난지 원문불이(願聞不已)하나이다

3. 현대어역

누님 앞에 올리는 글월

몇 달 동안 편안히 계신다는 소식 살피지 못하오니 마음 울적하기 날로 간절하옵나이다. 삼복(三伏)의 한더위는 날로 무더워져 사람을 찌는 듯하온 이 때, 연로하신 기력 편안하시오며, 작은 맏며느리께서도 위로

---

11) 정(情) : 여기서는 '정황'(情況)이라는 뜻이다.

12) 구육월(舊六月) : 구력(舊曆) 6월. 양력을 사용하게 된 뒤로 그 이전에 쓰던 음력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음력을 곧 구력이라 하였다. 양력을 사용하게 된 것은 1896년(고종33) 양력 1월 11일에 내린 고종의 조칙(詔勅)으로 그 해의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양력 1월 1일로 고쳤던 데서 비롯하였다. "十一日. 詔曰. [⋯] 朕이 極을 御ᄒᆞᆫ지 今三十有二載에 世界의 盟約ᄒᆞᄂᆞᆫ 局을 臨ᄒᆞ야 政治의 更張ᄒᆞᄂᆞᆫ 道ᄅᆞᆯ 行치아니치 못ᄒᆞᆯ시 乃正朔을 改ᄒᆞ고 年號ᄅᆞᆯ 建ᄒᆞ며 服色을 易ᄒᆞ고 髮을 斷ᄒᆞ노니 爾有衆은 朕이 新을 好ᄒᆞᆫ다 謂치 勿ᄒᆞᆯ지어다"(『高宗實錄 34』, 33年 1月 11日.)

13) 상하 : 인명.

모시고 아래로 거느린 가운데 아무 탈 없이 안온(安穩)하시고, 여러 손자들 살지고 튼튼하며, 서울과 광주 두 곳 소식 가끔 들으시나이까? 두루 [안녕을] 비오며,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소이다. 외사촌 동생은 집안이 별고는 없사오니 다행스럽습니다. 저희 논밭 올해 농사는, 모종을 옮겨 심고 난 뒤로 첫 번째로 김을 맬 때까지는 풍작(豊作)이 될 듯한 모양이더니, 두 번째로 김을 맬 즈음으로 이화명충이 크게 번지고, 요사이에는 모래먼지가 크게 일어나 농작물을 크게 손상시키고 가뭄이 심하여 서숙이며 콩·팥 따위의 온갖 작물이 다 마르니, 어느 것도 천재(天災) 아닌 것이 없는지라, 한탄한들 쓸데 있나이까? 한 하늘 아래에 다 같을 것이오나, 누님네 농작물은 어떠합니까? 알고자 하옵나이다. 아뢰올 말 남아있사오나, 얼추 정황(情況)을 알리오니, 넓으신 아량과 훌륭한 견해로 헤아려 살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기해년 구유월 그믐날, 외사촌 동생 상하가 두 번 절하며 올림.

[추신]

우리 형수님과 조카며느리도 어린 아들 더불어 두루 편안히 계신지 듣고 싶은 마음 그지없나이다.

29 4-04. 海尹_MF35-3208_627(18x26cm): 외사촌 아우 → 외사촌 형(20세기 전반)

1. 판독

형님젼상서

우리형제여러달잇다와달포나
잇다온것갓고훌〃이와싱각ᄒᆞ
니츈몽도갓고쑴도갓고심회살는〃〃
밤에눌ᄌᆞ리을더ᄒᆞ면형님싱
각간절하고엿페게신것갓치어
루만만지고슬푸옵그간글역엇
더ᄒᆞ시고기거동죡ᄒᆞ시기가조곰
나신지살들이도알고시부옵제일식
사잘ᄒᆞ시기바라고영선형형제
여상들ᄒᆞ고영인훌〃써나느라고저
귀한쥰쥬리콩안가지고가서이답
고분하옵우리질부들면작별
도못서울손님보고도잘가잔말
도못ᄒᆞ고어린것들못보고손부도
못보고모도서운〃식모는너무도괄〃
ᄒᆞ니인정이아니고용머리덕도
못바서잘잇스란말도못ᄒᆞ여
삽여기와보니세지네지질부오고
손부도오고나와반겨삽어어머니제
사에는잇틀이나츄부에가서기달
나다고ᄒᆞ옵능쥬덕니외나와반겨
삽맛침형제싸라그잇튼날
가려ᄒᆞ니여름쇠고가라고하는거살
쏙가야한다ᄒᆞ니용의가초잇틀
날광쥬로가ᄌᆞ가달니서아즉안가

고잇습용의싱일광쥬서쉰다
다고손부가잇든날오라ᄒᆞ니너외다
간다ᄒᆞ옵날ᄌᆞ만물너지고지실
덕은가바냐고심ᄂᆞᆫ하나형ᄌᆡ잇서
든〃ᄒᆞ고우리집가지고갓치가기로ᄒᆞ옵
든〃ᄒᆞ옵용의너외도소〃잔병드옵
질부도약먹고용의도단방약야약
머고광쥬어린놈들낫자라서기
물답고어엿부옵광쥬로가며
며영인약ᄒᆞ고모슈뵈슈무ᄌᆞ잇ᄂᆞᆫ
것열ᄌᆞ식우리형제쥬길너광
쥬가서김실덥이다주고가게약
약이랑달나할거시니광쥬
인편잇스면차자오라ᄒᆞ시옵
이미진여독이든가온전신허리압
푼더압서걱정이든니오날붓
틈허리좀나으니살게습용의
가형ᄌᆡ식겨서강골형님뫼시
로갓삽형님오서시면언마나조흘
게옵이후너〃안영〃ᄒᆞ시기더망
바라옵이만알외옵
[皮封]
[隔1]寶城郡 福內面 堂村里[移1]
[間]封
[隔5]李容儀

2. 전사 · 주석

형님 젼(前) 상서(上書)

우리 형제(兄弟) 여러 달 잇다 와 달포[1]나 잇다 온 것 갓고 홀홀이[2] 와 ᄉᆡᆼ각ᄒᆞ니 츈몽(春夢)도 갓고 ᄭᅮᆷ도 갓고 심회(心懷) 살ᄂᆞᆫ(散亂)살ᄂᆞᆫ 밤에 눌ᄌᆞ리[3]을 ᄃᆡ(對)ᄒᆞ면 형님 ᄉᆡᆼ각 간절(懇切)하고 엿페[4] 게신 것 갓치 어루만 만지고 슬푸읍 그간 글역(筋力) 엇더ᄒᆞ시고 기거(起居) 동ᄌᆞᆨ(動作)ᄒᆞ시기가 조곰 나신지 살들이도[5] 알고 시부읍 제일(第一) 식사(食事) 잘 ᄒᆞ시기 바라고 영선[6]형 형제 여상(如常)들 ᄒᆞ고 영인[7] 홀홀[8] ᄯᅥ나느라고 저 귀(貴)한 쥰쥬리콩[9] 안 가지고 가서 ᄋᆡ답고[10] 분(忿)하읍[11] 우리 질부(姪婦)들 면작별(面作別)도 못 서울 손님 보고도 잘 가잔 말도 못ᄒᆞ고 어린것들 못 보고 손부(孫婦)도 못 보고 모도 서운서운 식모(食母)ᄂᆞᆫ 너무도 팔팔ᄒᆞ니[12] 인정(人情)이 아니고[13] 용머리덕[14]도

---

1) 달포 : 한 달 남짓한 동안.
2) 홀홀이 : 갑자기. '홀홀'은 '가볍게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나, 여기서는 '갑자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이므로, 이것은 마땅히 '숙홀'(倏忽)에서 나온 '홀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눌ᄌᆞ리 : 누울 자리. 잠자리.
4) 엿페 : 옆에.
5) 살들이도 : 살뜰히도. 간절(懇切)히도.
6) 영선 : 인명.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9세손 윤영선(尹泳善, 1905～1997).
7) 영인 : 인명.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9세손 윤영린(尹泳麟, 1916～1973).
8) 홀홀 : 갑자기.
9) 쥰쥬리콩 : 준저리콩.
10) ᄋᆡ답고 : 애달프고.
11) 분(忿)하읍 : 서운하고 아깝사옵.
12) 팔팔ᄒᆞ니 : 팔팔하니. 누긋하지 못하고 괄괄하니.
13) 인정(人情)이 아니고 :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를 지닌 사람

못 바서 잘 잇스란 말도 못 ᄒᆞ여삽 여기 와 보니 세직 네직 질부 오고

3. 현대어역

형님 앞에 올리는 글월

우리 형제 여러 달 있다 와, 한 달 남짓이나 있다 온 것 같고. 갑자기 와 생각하니 춘몽(春夢)도 같고 꿈도 같고, 심회(心懷) 산란하고 또 산란하고. 밤에 잠자리를 마주하면 형님 생각 간절하고, 옆에 계신 것 같이 어루만져지고 슬프옵. 그동안 근력 어떠하시고, 기거하고 동작하시기가 조금 나으신지, 살뜰히도 알고 싶으옵. 식사 가장 잘 하시기 바라고. 영선 형 형제 여전들 하고, 영인이 갑자기 떠나느라고 저 귀한 준저리콩 안 가지고 가서 애달프고 서운하옵. 우리 조카며느리들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도 못[했고], 서울 손님에게도 '잘 가자.'는 말도 못하고, 어린것들 못 보고, 손자며느리도 못 보고, 모두 서운하고 또 서운하고. 식모는 너무도 누긋하지 못하고 괄괄하니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용머리댁도 못 봐서, 잘 있으라는 말도 못 하였삽. 여기 와 보니, 셋째와 넷째 조카며느리 오고, 손자며느리도 오고, [다들] 나와 반겼삽. 어머니 제사 때에는 이틀이나 정거장에 가서 기다렸다고 하옵. 능주댁 내외 나와 반겼삽. 마침 형제 따라 그 이튿날 가려 하니, 여름 지내고 가라고 하는 것을, 꼭 가야 한다고 하니, 용의가 초이튿날 광주로 데려가 달라고 해서 아직 안 가고 있삽. 용의 생일을 광주에서 지낸다고 손자며느리가 이튿날 오라 하니, 내외가 다 간다 하옵. 날짜만 미루어지고, 지실댁은 '가 봤냐.'고 [하면서] 곤란하게 여기나, 형제 있어 든든하고. 우리 짐 가지고 같이 가기로 하옵. 든든하옵. 용의 내외도 자잘한 병 드옵. 조카며느리도 약 먹고, 용의도 단방약이며 양약 먹고. 광주 어린놈들 낯이 [다들] 자라서 사람답고 어여쁘옵. 광주로 가게 되거든 영인이 약하고, 모시베 스무 자 있는 것을 열 자씩 우리 형제 주기에, 광주

2. 전사 · 주석

형님 젼(前) 상서(上書)

우리 형제(兄弟) 여러 달 잇다 와 달포[1]나 잇다 온 것 갓고 홀홀이[2] 와 싱각ᄒᆞ니 츈몽(春夢)도 갓고 쑴도 갓고 심회(心懷) 산난(散亂)ᄒᆞᆫ 밤에 눕ᄌᆞ리[3]을 ᄃᆡ(對)ᄒᆞ면 형님 싱각 간절(懇切)하고 엿페[4] 게신 것 갓치 어루만 만지고 슬푸옵 그간 근역(筋力) 엇더ᄒᆞ시고 기거(起居) 동ᄌᆞᆨ(動作)ᄒᆞ시기가 조곰 나신지 살들이도[5] 알고 시부옵 제일(第一) 식사(食事) 잘 ᄒᆞ시기 바라고 영선[6]형 형제 여상(如常)들 ᄒᆞ고 영인[7] 홀홀[8] 쪄나느라고 저 귀(貴)한 쥰쥬리콩[9] 안 가지고 가서 ᄋᆡ답고[10] 분(忿)하옵[11] 우리 질부(姪婦)들 면작별(面作別)도 못 서울 손님 보고도 잘 가잔 말도 못ᄒᆞ고 어린것들 못 보고 손부(孫婦)도 못 보고 모도 서운서운 식모(食母)ᄂᆞᆫ 너무도 팔팔ᄒᆞ니[12] 인정(人情)이 아니고[13] 용머리덕[14]도

---

1) 달포 : 한 달 남짓한 동안.

2) 홀홀이 : 갑자기. '홀홀'은 '가볍게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나, 여기서는 '갑자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이므로, 이것은 마땅히 '숙홀'(倏忽)에서 나온 '홀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눕ᄌᆞ리 : 누울 자리. 잠자리.

4) 엿페 : 옆에.

5) 살들이도 : 살뜰히도. 간절(懇切)히도.

6) 영선 : 인명.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9세손 윤영선(尹泳善, 1905~1997).

7) 영인 : 인명.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9세손 윤영린(尹泳麟, 1916~1973).

8) 홀홀 : 갑자기.

9) 쥰쥬리콩 : 준저리콩.

10) ᄋᆡ답고 : 애달프고.

11) 분(忿)하옵 : 서운하고 아깝사옵.

12) 팔팔ᄒᆞ니 : 팔팔하니. 누긋하지 못하고 괄괄하니.

13) 인정(人情)이 아니고 :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를 지닌 사람

못 바서 잘 잇스란 말도 못 ᄒᆞ여삽 여기 와 보니 세직 네직 질부 오고 손부도 오고 나와 반겨삽 어어머니[15] 제사에ᄂᆞᆫ 잇틀이나 ᄎᆞ부(車部)[16]에 가서 기달나다고[17] ᄒᆞ옵 능쥬덕[18] 너외(內外) 나와 반겨삽 맛침 형제 ᄯᅡ라 그 잇튼날 가려 ᄒᆞ니 여름 쇠고[19] 가라고 하ᄂᆞᆫ 거살 ᄭᅩᆨ 가야 한다 ᄒᆞ니 용의[20]가 초잇틀날 광쥬[21]로 가ᄌᆞ가[22] 달너서 아즉 안 가고 잇습 용의 싱일(生日) 광쥬서 쉰다다고[23] 손부가 잇든날[24] 오라 ᄒᆞ니 너외 다 간다 ᄒᆞ옵 날ᄌᆞ만 물너지고[25] 지실덕[26]은 가 바나고 심난(心亂)하나[27] 형지 잇서 든든ᄒᆞ고[28] 우리 집[29] 가지고 갓치 가기로 ᄒᆞ옵 든든ᄒᆞ옵 용의 너외도 소소(小少)[30] 잔병(-病) 드옵 질부도 약 먹고 용의도 단방약(單方藥)[31] 야약(洋藥)[32] 머고 광쥬 어린놈들 낫[33] 자라서 기물

이 아니고.

14) 용머리덕 : 인칭. 용머리댁(宅). '용머리'는 지명.
15) 어어머니 : '어머니'라고 할 데서 불필요하게 '어'를 겹쳐 쓴 것이다.
16) ᄎᆞ부(車部) : 자동차의 시발점이나 종착점에 마련된 주차장을 흔히 이르는 말.
17) 기달나다고 : 기다렸다고.
18) 능쥬덕 : 인칭. 능주댁. '능주'는 지명.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능주(綾州).
19) 쇠고 : 지내고.
20) 용의 : 인명. 발신자의 동생 이름인 듯하다.
21) 광쥬 : 지명.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22) 가ᄌᆞ가 : 가져가. 데려가.
23) 쉰다다고 : 지낸다고. '쉰다고'라고 할 데서 불필요하게 '다'를 겹쳐 쓴 것이다.
24) 잇든날 : 이튿날.
25) 물너지고 : 물리어지고. 미루어지고.
26) 지실덕 : 인칭. 지실댁. '지실'은 지명.
27) 심난(心亂)하나 : 심란(心亂)해 하나. 곤란하게 여기나.
28) 든든ᄒᆞ고 : 마음에 미덥고.
29) 집 : 짐. 글씨 모양은 '집'으로 되어 있으나, 뜻으로 보건대는 '짐'이다.
30) 소소(小少) : 자잘하게.
31) 단방약(單方藥) : 한 가지 약제만으로 병을 다스리는 약.
32) 야약(洋藥) : 양약. 서양 의술과 제약 방법으로 만든 약. 신약(新藥).

(器物)답고[34] 어엿부옵 광쥬로 가며며[35] 영인 약(藥)ᄒᆞ고 모슈뵈[36] 슈무 ᄌᆞ 잇ᄂᆞᆫ 것 열 ᄌᆞ식 우리 형제 쥬길니[37] 광쥬 가서 김실덥[38]이다 주고 가게[39] 약약이랑[40] 달나 할 거시니 광쥬 인편(人便) 잇스면 차자 오라 ᄒᆞ시옵 이미 진[41] 여독(旅毒)이든가 온 전신(全身) 허리 압푼 ᄃᆡ 압서[42] 걱정이든니 오날븟틈 허리 좀 나으니 살게습 용의가 형지 식겨서[43] 강골[44] 형님 뫼시로[45] 갓삽 형님 오서시면 언마나 조흘 게옵[46] 이후(以後) 너너 안영(安寧)안영ᄒᆞ시기 ᄃᆡ망(待望) 바라옵 이만 알외옵

[皮封]

寶城郡 福內面 堂村里[47]

李容儀

---

33) 낫 : 낯. 여기서는 '남을 대함에 모자람이 없을 만큼으로 사람다운 면목(面目)'을 뜻한다.

34) 기물(器物)답고 : (사람다운 사람이 될)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고.

35) 가며며 : 가며. 불필요하게 '며'를 겹쳐 쓴 것이다.

36) 모슈뵈 : 모시베.

37) 쥬길니 : 주길래. 주기에.

38) 김실덥 : 인칭. '덥'은 '댁'(宅)을 잘못 적은 것이다.

39) 가게 : 작은 규모의 상점. 가겟방. 가겟집. 전방(廛房). 점방(店房).

40) 약약이랑 : 약이랑. 불필요하게 '약'을 겹쳐 쓴 것이다.

41) 이미 진 : 이미 생겨 나타난. 이른바 '지다'는 '(어떤 상태나 현상이) 이루어지거나 나타나다'를 뜻한다.

42) 압서 : 앞서. 여기서는 '이제까지'의 뜻이다.

43) 식겨서 : 시켜서.

44) 강골 : 지명.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五峯里) 강골.

45) 뫼시로 : 모시러.

46) 게옵 : 것이옵니까].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을 때에 '게옵'을 쓰는 사례가 다른 편지에서도 흔히 보인다.

47) 堂村里 :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堂村). 본래는 독립된 동리였으나, 일제에 의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유동리(柳洞里) · 평촌리(平村里)로 더불어 봉천리(鳳川里)에 편입되었다.

3. 현대어역

형님 앞에 올리는 글월

우리 형제 여러 달 있다 와, 한 달 남짓이나 있다 온 것 같고. 갑자기 와 생각하니 춘몽(春夢)도 같고 꿈도 같고, 심회(心懷) 산란하고 또 산란하고. 밤에 잠자리를 마주하면 형님 생각 간절하고, 옆에 계신 것 같이 어루만져지고 슬프옵. 그동안 근력 어떠하시고, 기거하고 동작하시기가 조금 나으신지, 살뜰히도 알고 싶으옵. 식사 가장 잘 하시기 바라고. 영선 형 형제 여전들 하고, 영인이 갑자기 떠나느라고 저 귀한 준저리콩 안 가지고 가서 애달프고 서운하옵. 우리 조카며느리들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도 못[했고], 서울 손님에게도 '잘 가자.'는 말도 못하고, 어린것들 못 보고, 손자며느리도 못 보고, 모두 서운하고 또 서운하고. 식모는 너무도 누긋하지 못하고 괄괄하니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용머리댁도 못 봐서, 잘 있으라는 말도 못 하였삽. 여기 와 보니, 셋째와 넷째 조카며느리 오고, 손자며느리도 오고, [다들] 나와 반겼삽. 어머니 제사 때에는 이틀이나 정거장에 가서 기다렸다고 하옵. 능주댁 내외 나와 반겼삽. 마침 형제 따라 그 이튿날 가려 하니, 여름 지내고 가라고 하는 것을, 꼭 가야 한다고 하니, 용의가 초이튿날 광주로 데려가 달라고 해서 아직 안 가고 있삽. 용의 생일을 광주에서 지낸다고 손자며느리가 이튿날 오라 하니, 내외가 다 간다 하옵. 날짜만 미루어지고, 지실댁은 '가 봤냐.'고 [하면서] 곤란하게 여기나, 형제 있어 든든하고. 우리 짐 가지고 같이 가기로 하옵. 든든하옵. 용의 내외도 자잘한 병 드옵. 조카며느리도 약 먹고, 용의도 단방약이며 양약 먹고. 광주 어린놈들 낯이 [다들] 자라서 사람답고 어여쁘옵. 광주로 가게 되거든 영인이 약하고, 모시베 스무 자 있는 것을 열 자씩 우리 형제 주기에, 광주

가서 [그것을] 김실댁에다 주고, 가게 약이랑 달라고 할 것이니, 광주[에 들르는] 인편이 있으면 찾아 오라 하시옵. 이미 생긴 여독이던가, 온 몸이며 허리 아픈 데 이제까지 걱정이더니, 오늘부터는 허리 좀 나으니 살겠삽. 용의가 형제 시켜서 강골 형님 모시러 갔삽. 형님[께서도]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옵? 앞으로 내내 안녕하시기 바라옵. 이만 아뢰옵.

4. 참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9세손 윤영선(尹泳善, 1905~1997)의 외사촌 형제가 해남에 찾아와 머물러 있다가 다른 어느 곳에 들러서 돌아가는 길에 부친 편지이다. 윤영선과 아울러 이 편지의 수신자를 "형님"이라 부르는 동시에 또한 윤영린(尹泳麟, 1916~1973)을 하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발신자의 나이가 윤영수(尹泳秀, 1914~1953)와 비슷할 듯하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윤영희(尹泳禧, 1908~1951)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30 7-01. 海尹_MF35-3208_636·634(41x45cm): 사돈→사돈(1917)

1. 판독

[隔3]소샹쟝

오회통지라양가운익이이더지불길ᄒᆞ여니의부병세로시〃
녹아운우의쎠인심신얼것즙지못ᄒᆞ와슈ᄎᆞ젼보후무순희
식얼들랄가맛치녹듯ᄒᆞ온심회넉업시약취약광ᄒᆞᄋᆞᆸ
더니쳔만몽미의져의악보알보오니쳔지가망〃ᄒᆞ고넉
씨숭쳔ᄒᆞ여아득ᄒᆞᆫ정신의쑴인지싱시인지니어인일
린고원통〃일언ᄎᆞ악ᄒᆞᆫ일리어더쏘잇쏠잇가촌중이끈치ᄂᆞᆫ듯
오회라금연으로붓터일〃십이시와존등촉ᄒᆞ의경〃
홀연니져의옥용일각이슴츄갓치보고져운심회발
즉ᄒᆞ면발광〃명연니은졔가셔졔거동볼가ᄒᆞ고경〃
이술라이ᄂᆞᆫ이심중얼일리혜고져리혜여슴숭얼맛ᄌᆞ온
후명츄가절의긴〃ᄒᆞᆫ양가지미로졔의용보짓더니죠물
리식의런가이곳신슈니더지공츔ᄒᆞ여냥연익회운슈가
비쇠ᄒᆞ고이곳죄악으로덕턱이ᄒᆞ히갓튼우리[隔1]ᄉᆞ돈의써지밋쳐쳔
지의당치못ᄒᆞ실일얼츔아웃지목불인견ᄒᆞ오신고불숭〃
흉즁이억쇠ᄒᆞ여날이갈ᄉᆞ록통분〃앗갑고츔혹
〃츔혹져의옥골이일시츈몽되여구가의와셔울례도못ᄒᆞ
여보고세숭얼니별ᄒᆞᆯ줄몽의나쓧ᄒᆞ엿ᄊᆞ오릿가졈〃냥
츈의만물언회생ᄒᆞ고우리냥인의구곡간중얼웃지
잇고술게ᄋᆞᆸ혈누가압흘갈리오고흉즁이답〃ᄒᆞ여능
히독필노웃지다젹으릿가일어ᄒᆞᆫ악경언우리냥가의독
당ᄒᆞᆫ듯ᄒᆞ오나글런일이간혹잇ᄉᆞ오니과히비통마라시ᄋᆞᆸ
간절이바라ᄋᆞᆸᄂᆞᆫ바난[隔1]ᄉᆞ돈두위분귀톄을관억보즁
ᄒᆞ오셔귀즁ᄌᆞ제들노보시와아모조록식ᄉᆞᄒᆞ시고쳡히읍
ᄉᆞ오셔강잉ᄒᆞ오심쳔만츅슈ᄒᆞᄂᆞᆫ이다이번의아히얼보
너여초종중네랄갓치칠울여ᄒᆞ얏다가더병후신긔슈

쳑젼모양그져나지안코념여되와못보너쏫오니정니예더옥춤졀
져의거동허우럭비회금치못ᄒᆞᆫ냥이곳심회ᄎᆞ마싱즁니녹을
닷읏지ᄒᆞ오면이비회얼셕이고ᄉᆞ오릿가원통〃누슈압흘
가려쓸길읍ᄂᆞᆫ이다ᄎᆞ곳정신비원〃션후읍시젹ᄉᆞ오나
노ᄉᆞ즁ᅲ게옵셔노라의악경얼보시와식ᄉᆞ지졀이오즉엄
후ᄒᆞ오시릿가두로원통〃심골이녹을듯ᄒᆞ올시다
녜ᄂᆞᆫ혼실이별고읍고근〃부지들ᄒᆞ오나[隔1]밧ᄉᆞ즁ᅲ게오셔원
노의근〃보즁ᄒᆞ와환ᄎᆞᄒᆞ오셧씨나식ᄉᆞ넝〃못ᄒᆞ오시니
념여깁ᄉᆞ오며ᄎᆞ악지변얼목견ᄒᆞ오시고쵸죨ᄒᆞ옵시ᄂᆞᆫ
비회억졔못ᄒᆞ오시니읏지ᄒᆞ오면조흘ᄂᆞᆫ지이심ᄉᆞ답〃ᄒᆞ
옵아히ᄂᆞᆫ너월졔ᄉᆞ후의ᄂᆞᆫ곳보너여우리ᄉᆞ돈이위분비회
을위로코져ᄒᆞ외다정신갈망못더강슈ᄌᆞ오니너〃
안심ᄒᆞ오셔기혈원〃이옵ᄂᆞᆫ이다[移1]
[隔3]뎡ᄉᆞ뉸월초십일ᄉᆞ돈한소샹쟝

2. 전사 · 주석

소상장(疏上狀)[1]

1) 소상장(疏上狀) :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흔히 쓰는 투어(套語)이다. 군왕(君王)에 대한 예의와 같이 지극한 공경(恭敬)을 나타내는 경우나 상례(喪禮)와 같이 인륜(人倫)의 지극한 비애(悲哀)를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박(素朴)을 위주로 하여 문식(文飾)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써 예절(禮節)의 방편을 삼는다. '조금의 허위(虛僞)도 없는 언어'라는 뜻에서 군왕에게 올리는 글을 '소'(疏)라고 하듯이, 동일한 뜻에서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소'(疏)라는 말을 붙인다.

오회(嗚呼ㅣ) 통ᄌᆡ(痛哉)라 양가(兩家) 운ᄋᆡᆨ(運厄)이 이ᄃᆡ지[2] 불길(不吉)ᄒᆞ여 ᄂᆡᄋᆡ부(愛婦)[3] 병세(病勢)로 시시(時時) 녹아 운우(雲-)[4]의 ᄡᅧ인 심신(心身)얼 것잡지 못ᄒᆞ와 슈ᄎᆞ(數次) 젼보(轉報)[5] 후(後) 무ᄉᆞᆫ 희식(喜息)얼 들랄가 맛치 녹 듯ᄒᆞᆫ 심회(心懷) ᄂᆡᆨ 업시 약취약광(若醉若狂)ᄒᆞᄋᆞᆸ더니 쳔만(千萬) 몽ᄆᆡ(夢寐)의 져의 악보(惡報)알 보오니 쳔지(天地)가 망망(茫茫)ᄒᆞ고 ᄂᆡᆨ씨 ᄉᆞᆼ쳔(上天)ᄒᆞ여 아득ᄒᆞᆫ 정신(精神)의 ᄭᅮᆷ인지 ᄉᆡᆼ시(生時)인지 ᄂᆡ 어인 일린고 원통(寃痛)원통 일언 ᄎᆞ악(此惡)ᄒᆞᆫ 일리 어ᄃᆡ ᄯᅩ 잇ᄉᆞᆯ잇가 ᄎᆞᆫᄌᆞᆼ(寸腸)이 ᄭᅳᆫ치ᄂᆞᆫ 듯 오회(嗚呼ㅣ)라 금연(今年)으로붓터 일일(一日) 십이시(十二時)와 ᄌᆞᆫ등촉ᄒᆞ(殘燈燭下)의 경경(耿耿)[6] 홀연(忽然)니 져의 옥용(玉容) 일ᄀᆞᆨ(一刻)이 ᄉᆞᆷ츄(三秋) 갓치 보고 져운[7] 심회 발ᄌᆞᆨ(發作)ᄒᆞ면 발광(發狂)발광 명연(明年)니 ᄋᆞᆫ제 가셔 제 거동(擧動) 볼가 ᄒᆞ고 경경(耿耿)이 ᄉᆞᆯ라이ᄂᆞᆫ[8] 이 심ᄌᆞᆼ(心腸)얼 일리 혜고 져리 혜여 ᄉᆞᆷᄉᆞᆼ(三喪)[9]얼 맛ᄌᆞ온[10] 후(後) 명츄(明秋) 가졀(佳節)의 긴긴ᄒᆞᆫ[11] 양가(兩家) ᄌᆡ미로 제 의용(儀容) 보잣더니 죠물(造物)리 식의(猜忌)런가 이곳 신슈(身數) ᄂᆡᄃᆡ지 공ᄎᆞᆷ(孔慘)[12]ᄒᆞ여 낭

---

2) 이ᄃᆡ지 : 이다지. 뒤따르는 모음 'ㅣ'에 의하여 '다'를 'ᄃᆡ'로 적은 것이다.
3) ᄂᆡ ᄋᆡ부(愛婦) : 내 사랑스런 며느리.
4) 운우(雲-) : 구름 위.
5) 젼보(轉報) : (소식 따위를) 인편으로 알림.
6) 경경(耿耿) : 잊히지 않고 늘 걱정되는 모양.
7) 보고 져운 : 보고 싶은. 전라도 등지의 일부 지역 사투리에서 '-고 싶다'의 뜻으로 '-고 젚다/잪다'를 쓰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보이는 '-고 져운'은 '-고 젚은'의 받침 'ㅍ'이 탈락된 것이다.
8) ᄉᆞᆯ라이ᄂᆞᆫ : 설레는.
9) ᄉᆞᆷᄉᆞᆼ(三喪) : 삼년상(三年喪). 여기서는 특히 상(喪)을 다 마치게 되는 '대상'(大祥)을 가리켜 말했다.
10) 맛ᄌᆞ온 : 맞은. 여기서는 '마친'의 뜻이다.
11) 긴긴ᄒᆞᆫ : 진진한. '(재미가) 톡톡한'·'(재미가) 퍽 대단한'의 뜻이다.

연(兩年) 익회(厄會)[13] 운슈(運數)가 비식(否塞)[14]ᄒᆞ고 이곳 죄악(罪惡)으로 덕틱(德澤)이 ᄒᆞ히(河海) 갓튼 우리 ᄉᆞ돈(查頓)의쎠지 밋쳐 천지의 당(當)치 못ᄒᆞ실 일얼 춥아 웃지 목불인견(目不忍見)ᄒᆞ오신고 불ᄉᆞ불ᄉᆞ 흉즁(胸中)이 억식(抑塞)ᄒᆞ여 날이 갈ᄉᆞ록 통분(痛憤)통분 앗갑고 춤혹춤혹 져의 옥골(玉骨)이 일시(一時) 츈몽(春夢) 되여 구가(舅家)[15]의 와 셔울 례(禮)도 못ᄒᆞ여 보고 세ᄉᆞᆼ(世上)얼 니별(離別)홀 쥴 몽(夢)의나 뜻ᄒᆞ엿ᄊᆞ오릿가 점점(漸漸) ᄂᆞᆼ츈(陽春)의 만물(萬物)언 회생(回生)ᄒᆞ고 우리 ᄂᆞᆼ인(兩人)의 구곡간ᄌᆞᆼ(九曲肝腸)얼 웃지 잇고 술 게옵[16] 혈누(血淚)가 압흘 갈리오고 흉즁이 답답ᄒᆞ여 능(能)히 독필(禿筆)노 웃지 다 젹으릿가 일어훈 악경(惡境)언 우리 ᄂᆞᆼ가(兩家)의 독당(獨當)훈 듯ᄒᆞ오나 글런 일이 간혹(間或) 잇ᄉᆞ오니 과(過)히 비통(悲痛) 마라시옵 간절(懇切)이 바라옵는 바난 ᄉᆞ돈 두 위(位) 분 귀테(貴體)을 관억(寬抑)[17] 보즁(保重)ᄒᆞ오서 귀즁(貴重) ᄌᆞ제(子弟)들노 보시와 아모조록 식ᄉᆞ(食事)ᄒᆞ시고 쳠히(添害) 옵ᄉᆞ오서 강잉(康寧)ᄒᆞ오심 천만 츅슈(祝手)ᄒᆞᄂᆞᆫ 이다 이번의 아히[18]얼 보너여 초종ᄌᆞᆼ네(初終葬禮)[19]랄 갓치 칠울여[20]

---

12) 공춤(孔慘) : 매우 참혹(慘酷)함.
13) 익회(厄會) : (재앙이 닥치는) 불행한 시기.
14) 비식(否塞) : 꽉 막힘.
15) 구가(舅家) : 시집(媤-). 한어 '舅'는 본디 혼인으로 인척을 맺은 상대편 집안의 '남자'를 혼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아주버니 따위를, 사위의 입장에서는 장인을 가리킨다.
16) 게옵 : 것이옵니까.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을 때에 '게옵'을 쓰는 사례가 다른 편지에서도 흔히 보인다.
17) 관억(寬抑) : (격한 감정 따위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억제함. 너그럽게 생각함.
18) 아히 : 아이.
19) 초종ᄌᆞᆼ네(初終葬禮) : 초종(初終)과 장례(葬禮). '초종'(初終)은 임종(臨終)을 하는 데서부터 부고(訃告)를 내는 데까지에 이르는 초상(初喪)의 절차를 말하고, '장례'(葬禮)는 초종 이후로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식을 말한다.

ᄒᆞ얏다가 ᄃᆡ병후(大病後) 신긔(神氣) 슈쳑(瘦瘠) 젼모양(前模樣) 그져 나지 안코 념여(念慮)되와 못 보ᄂᆡᄉᆞᆺ오니 졍니(情理)에 더옥 ᄎᆞᆷ졀(慘絶)[21] 져의 거동(擧動) 허우럭[22] 비회(悲懷) 금(禁)치 못ᄒᆞᄂᆞᆫ 냥 이곳(冷-) 심회(心懷) ᄎᆞ마 ᄉᆡᆼᄌᆞᆼ(生腸)[23]니 녹을 ᄃᆞᆺ 웃지 ᄒᆞ오면 이 비회얼 셕이고[24] ᄉᆞ오릿가 원통(寃痛)원통 누슈(漏水) 압흘 가려 쓸 길 읍ᄂᆞᆫ이다 ᄎᆞ곳(此 -) 졍신(精神) 비원(悲寃)비원 션후(先後) 읍시 젹ᄉᆞ오나 노ᄉᆞᄌᆞᆼ쥬(老査丈主)[25]게읍셔 노ᄅᆡ(老來)[26]의 악경(惡景)얼 보시와 식ᄉᆞ지졀(食事之節)이 오즉 엄후(掩諱)[27]ᄒᆞ오시릿가 두로 원통원통 심골(心骨)[28]이 녹을 ᄃᆞᆺᄒᆞ올시다 녜ᄂᆞᆫ 혼실(渾室)이 별고(別故) 읍고 근근(僅僅) 부지(扶持)들 ᄒᆞ오나 밧ᄉᆞᆼ쥬(-喪主)[29]게오셔 원노(遠路)의 근근 보즁(保重)ᄒᆞ와 환ᄎᆞ(還次)ᄒᆞ오셧씨나 식ᄉᆞ(食事) 녕녕(永永) 못ᄒᆞ오시니 념여 깁ᄉᆞ오며 ᄎᆞ악지변(此惡之變)얼 목견(目見)ᄒᆞ오시고 쵸졸(焦猝)[30] ᄒᆞ옵시ᄂᆞᆫ 비회 억제(抑制) 못ᄒᆞ오시니 웃지ᄒᆞ오면 조흘ᄂᆞᆫ지 이 심ᄉᆞ(心思) 답답ᄒᆞ옵 아히ᄂᆞᆫ ᄂᆡ월(來月) 제ᄉᆞ후(祭祀後)의ᄂᆞᆫ 곳 보ᄂᆡ여 우리 ᄉᆞ돈 이위(二位)분 비회을 위로(慰勞)코져 ᄒᆞ외다 졍신 갈망[31] 못 ᄃᆡ강(大

---

20) 칠울여 : 치르려.
21) ᄎᆞᆷ졀(慘絶) : 끔찍하기가 이를 데 없음.
22) 허우럭 : 허우룩하게. 서운하게. 이른바 '허우룩'은 '허우룩ᄒᆞ다'(喪心)의 부사형으로서 '서운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더옥 허우룩 섭〃기 금이 업서 ᄒᆞ노라"(仁宣王后諺簡 13. / 金一根 編註, 『李朝御筆諺簡集』, 新興出版社, 1959. 69쪽.)
23) ᄉᆡᆼᄌᆞᆼ(生腸) : 생짜 그대로의 간장(肝腸).
24) 셕이고 : 삭이고.
25) 노ᄉᆞᄌᆞᆼ쥬(老査丈主) : 사돈집의 높으신 어르신님. 사돈집 웃어른을 높여 이른 말이다.
26) 노ᄅᆡ(老來) : 늘그막. 늙바탕.
27) 엄후(掩諱) : 엄휘(掩諱). 가리어 숨김. 여기서는 '감추듯 없어짐'을 뜻한다.
28) 심골(心骨) : 마음속.
29) 밧ᄉᆞᆼ쥬(-喪主) : 바깥 상주(喪主), 곧 남자쪽 상주(喪主).
30) 쵸졸(焦猝) : 갑작스레 당한 일로 애를 태움.

綱) 슈ᄌᆞ(數字)오니 너너 안심(安心)ᄒᆞ오셔기 혈원(血願)[32]혈원이옵ᄂᆞ이다

뎡ᄉᆞ(丁巳) 눈월(閏月) 초십일(初十日) ᄉᆞ돈(査頓) 한[33] 소상장

3. 현대어역

상중(喪中)에 계신 자리에 올림.

아아, 아프도록 슬퍼라. 두 집안 운수(運數)의 재액(災厄)에 빠짐이 이다지 불길(不吉)하여, 내 사랑스런 며느리의 병세(病勢)로 늘 구름 위에 떠 있는 몸과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몇 번이고 소식을 보낸 뒤에 무슨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마치 녹는 듯한 마음으로 넋 없이 취한 듯하고 미친 듯하옵더니, 천만 꿈결에 저의 나쁜 소식을 보오니, 천지가 아득하고 넋이 하늘로 올라 아득한 정신에 꿈인지 생시인지, 이 어인 일인고! 원통하고 또 원통하고. 이런 나쁜 일이 어디 또 있으리까? 간장이 끊이는 듯만…. 아아, 올해로부터 하루 열두 때와 희미한 등불 아래 근심스레 그리는 가운데 갑자기 저의 옥같은 얼굴을 한 순간이나마 삼년같이 보고 싶은 마음 일어나면 미칠 듯만 싶고 또 미칠 듯하고. 내년이 언제 되어 제 거동(擧動)을 볼까 하고 잊지 못해 설레는 이 심장(心腸)을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어, 삼년상(三年喪)을 맞은 뒤에, 내년 가을 좋은 때에 두 집안의 대단한 재미로 제 모습 보자 했더니, 조물(造物)의 시기(猜忌)런가, 이곳 신수(身數) 이다지 참혹하여, 재앙(災殃)이

---

31) 갈망 : 일을 감당하여 해냄. 여기서는 '수습'(收拾)의 뜻으로 쓰였다.

32) 혈원(血願) : 사무치게 바람.

33) 한 : 성씨(姓氏)로써 발신자 자신을 약칭한 것이다.

두 해에 걸쳐 운수(運數)가 꽉 막히고, 이곳 죄악(罪惡)으로 덕택이 바다와 같은 우리 사돈에까지 미쳐, 하늘과 땅 사이에 당하지 못하실 일을 차마 어찌 눈으로 보실까, 불쌍하고 또 불쌍하고. 가슴속이 꽉 막히어 날이 갈수록 원통하고 또 원통하고. 아깝고 참혹할 따름. 저의 옥골(玉骨)이 한 때의 춘몽(春夢) 되어, 시집에 와서 서울 예법(禮法)도 [한번] 못하여 보고 세상을 이별할 줄 꿈에나 생각했사오리까? 바야흐로 따스한 봄날에 만물(萬物)은 되살아나고, 우리 두 사람의 아홉 굽이 간장(肝腸)을 어찌 잊고 살 것이옵? 피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가슴속이 답답하여 능히 이 몽당붓으로 어찌 다 적으리까? 이와 같이 나쁜 지경은 우리 두 집안만 홀로 겪는 듯하오나, 그런 일이 때로 있사오니, 너무 슬퍼 마시옵. 간절히 바라옵는 바는, 사돈 두 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귀체(貴體)를 보전하시어, 귀중한 자제들을 생각하시어, 아무쪼록 식사하시고 병환이 더치는 일이나 없으시어 강녕하오심 천만 비나이다. 이번에 아이를 보내어 초종(初終)과 장례(葬禮)를 같이 치르려 하였다가, [아이가] 큰 병을 앓은 뒤에 정신과 기운이 수척해지고 예전처럼 그저 낫지 않고, [그래서 혹시나 더욱 악화(惡化)될 것이] 염려되어 못 보냈사오니, 정리(情理)에 더욱 끔찍하기만…. 저의 거동[을 보건대] 서운하게 슬픔을 막지 못하는 양[하매], 이곳 마음, 차마 생짜 그대로의 애간장이 녹을 듯[하니], 어찌 하오면 이 슬픔을 삭이고 사오리까? 원통하고 또 원통하매, [이 글조차] 눈물 앞을 가려 적을 수 없나이다. 이곳 정신 비통하고 원통하여 앞뒤 없이 적사오나, 사돈집 웃어른께서 늘그막에 몹쓸 꼴을 보시어 식사하시는 일이 오죽 없으시오리까? 두루 원통하고 또 원통하며, 마음속이 녹을 듯하오이다. 여기는 모든 집안이 별고 없고 겨우겨우 부지하오나, 바깥 상주(喪主)께서 먼 길에 겨우겨우 몸을 아껴 돌아오셨으나, 식사를 아주 못하시니 염려 깊사오며, 이렇게 몹쓸 변고(變故)를 눈

으로 보시고 마음을 졸이시는 슬픔 억누르지 못하오시니 어찌하오면 좋을는지, 이 심사 답답하옵. 아이는 다음달 제사를 지낸 뒤에는 곧 보내어 우리 사돈 두 분 슬픔을 위로하고자 하외다. 정신 차리지 못[하여], 얼추 몇 글자[에 그치]오니, 내내 마음을 편안히 하오시기를 거듭거듭 사무치게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정사년 윤달 초십일에, 사돈 한 아무개가 상중(喪中)에 계신 자리에 올림.

4. 참고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34와 MF35-3208_636은 한 건의 편지가 두 건으로 잘못 처리된 것이다. MF35-3208_636이 편지의 앞장이다. 이것들은 해남윤씨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 28세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부인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이들의 큰 사위였던 연안(延安)이씨 이형균(李衡均, 1901~?)의 모친이 1917년에 보낸 편지이다. 이형균은 윤정현의 맏딸 윤영숙(尹泳淑)을 이미 아내로 맞은 터였다. 그러나 이 편지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형균의 집안에 상고(喪故)가 있어 미처 친영(親迎)을 못하고 있던 동안에 윤영숙이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해남윤씨가 고문서 간찰류 MF35-3208_607로 더불어 선후의 맥락이 이어지는 편지이다.

31 7-02. 海尹_MF35-3208_638(23x43cm): 이웃 아우→이웃 형(1890)

1. 판독

간〃안후ᄂᆞᆫ듯ᄌᆞ오나달포뵈ᄋᆞᆸ
지못ᄒᆞ오니그립ᄉᆞ온정회일반
이오며니싱원오신ᄂᆞᆫ편의셔찰
밧ᄌᆞ와탐〃ᄌᆞ시뵈ᄋᆞᆸᄉᆞ오니미〃
정회일셕상ᄃᆡᄒᆞ온닷위힝이
오며그후날포되오니경염이여
화ᄒᆞ온ᄃᆡ[移1]
뎡톄후일향ᄒᆞ시오며공무심히
번뇌치나아니ᄒᆞ신잇가아즁ᄐᆡ평
ᄒᆞ시ᄋᆞᆸ셔울을슈이가시기로ᄒᆞ신
단이원노염정의엇지회정ᄒᆞ실거
ᄋᆞᆸ복여만〃이ᄋᆞᆸ[小1]뎨은근〃지ᄂᆡ오나
다솔식구의우고ᄶᅧ날젹업ᄉᆞ니
민〃이ᄋᆞᆸ[隔1]영감본ᄃᆡᆨ의도ᄃᆡ되일안
ᄒᆞ시오며춘셩형뎨공부측실이
ᄒᆞ오니다힝이ᄋᆞᆸ농ᄉᆞᄂᆞᆫ일촌당
원이라ᄒᆞ오니조아들이ᄋᆞᆸ영감ᄃᆡᆨ
노비ᄂᆞᆫ일슌의게분부ᄒᆞ여날마다
신측ᄒᆞ여일식이고조속ᄒᆞ라ᄒᆞ오나연들
근본일의ᄂᆞᆫ초ᄃᆡ라여일ᄒᆞᆯ슈잇거ᄉᆞᆸ마ᄂᆞᆫ

ᄎᆞ〃구름이ᄡᅵ이ᄂᆞᆫ닷ᄒᆞᄋᆸ염여과이말라
시ᄋᆸ두가지젓보ᄂᆡ시와심광〃〃밧다먹ᄉᆞ오
니도로혀불안〃〃ᄒᆞᄋᆸᄂᆞ이다총〃이만쥬리
오니짐족술피시ᄋᆸ소셔[移6]
[隔4]경인유월십구일弟[移1]
[隔10]尹觀夏拜上

2. 전사 · 주석

간간(間間) 안후(安候)[1]는 듯ᄌᆞ오나 달포[2] 뵈ᄋᆸ지 못ᄒᆞ오니 그립ᄉᆞ온 졍회(情懷) 일반(一般)이오며 니ᄉᆡᆼ원(李生員)[3] 오신ᄂᆞᆫ 편의 셔찰(書札) 밧ᄌᆞ와 탐탐(耽耽)[4] ᄌᆞ시[5] 뵈ᄋᆸᄉᆞ오니 미미[6] 졍회(情懷) 일셕상ᄃᆡ(日夕相對)ᄒᆞ온 닷 위힝(慰幸)이오며 그 후 날포[7] 되오니 경염(庚炎)[8]이 여화(如火)ᄒᆞ온ᄃᆡ 뎡톄후(靜體候)[9] 일향(一向)ᄒᆞ시오며 공무(公務) 심히 번뇌(煩惱)치나 아니ᄒᆞ신잇가 아즁(衙中)[10] 태평(太平)ᄒᆞ시ᄋᆸ 셔

1) 안후(安候) : 편안한 소식. '안신'(安信)의 높임말.
2) 달포 : 한 달 남짓한 동안.
3) 니ᄉᆡᆼ원(李生員) : 인칭.
4) 탐탐(耽耽) : 매우 즐기어 하는 모양.
5) ᄌᆞ시 : 자세히.
6) 미미 : 보기에 좋은 모양. '미미하다'의 어근.
7)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8) 경염(庚炎) : 경열(庚熱). 삼복더위. 초복(初伏)이 경일(庚日)에 시작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9) 뎡톄후(靜體候) : '체후'(體候)를 더욱 정중하게 이른 말. '체후'는 남의 기거(起居)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울을 슈이[11] 가시기로 ᄒᆞ신단이 원노(遠路) 염졍(炎程)[12]의 엇지 회졍(回程)[13]ᄒᆞ실 거ᄋᆞᆸ[14] 복여만만(伏慮萬萬)이ᄋᆞᆸ 뎨(弟)은 근근(僅僅) 지ᄂᆡ오나 다솔(多率) 식구(食口)의 우고(憂苦) 써날 젹 업ᄉᆞ니 민민(憫憫)이ᄋᆞᆸ 영감(令監)[15] 본ᄃᆡᆨ(本宅)의도 ᄃᆡ되[16] 일안(一安)ᄒᆞ시오며 츈셩[17] 형뎨(兄弟) 공부(工夫) 착실(着實)이 ᄒᆞ오니 다ᄒᆡᆼ(多幸)이ᄋᆞᆸ 농ᄉᆞ(農事)는 일촌(一村) 댱원(壯元)이라 ᄒᆞ오니 조아들이ᄋᆞᆸ 영감ᄃᆡᆨ(令監宅) 노비(奴婢)는 일슌[18]의게 분부(分付)ᄒᆞ여 날마다 신측(申飭)[19]ᄒᆞ여 일 식이고[20] 조속(操束)[21]ᄒᆞ라 ᄒᆞ오나 연(然)들 근본(根本) 일의는 초ᄃᆡ(初對)[22]라 여일(如一)ᄒᆞᆯ 슈 잇거ᄉᆞᆸ마는 ᄎᆞᄎᆞ(次次) 구률(規律)이 ᄡᅥ이는 닷ᄒᆞᄋᆞᆸ 염여(念慮) 과(過)이 말라시ᄋᆞᆸ 두 가지 젓 보ᄂᆡ시와 ᄉᆡᆼ광(生光)[23]ᄉᆡᆼ광 밧다 먹ᄉᆞ오니 도로혀[24] 불안(不安)불안ᄒᆞᄋᆞᆸᄂᆞ이다 춍춍(悤悤) 이만 쥬리오니 짐족(斟酌) 술피시ᄋᆞᆸ소셔

경인(庚寅 : 1890) 유월(六月) 십구일(十九日) 弟 尹觀夏[25] 拜上

---

10) 아즁(衙中) : 지방 군아(郡衙)의 안.
11) 슈이 : 쉽게. 여기서는 '(시기상으로) 빨리'의 뜻이다.
12) 염졍(炎程) : 몹시 더운 여름날에 걸어가는 길.
13) 회졍(回程) : 돌아오는 길에 오름. 또는, 그런 길이나 과정.
14) 거ᄋᆞᆸ : 것이옵니까.
15) 영감(令監) : 인칭. 종2품과 정3품의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16) ᄃᆡ되 : 대되. 모두. 통틀어.
17) 츈셩 : 인명.
18) 일슌 : 인명.
19) 신측(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20) 식이고 : 시키고.
21) 조속(操束) : 단단히 잡아서 단속함.
22) 초ᄃᆡ(初對) : 어떤 일을 처음으로 당하여 서투름.
23) ᄉᆡᆼ광(生光) : 빛이 남. 영광스러워 체면이 섬.
24) 도로혀 : 도리어.

3. 현대어역

이따금 소식은 듣사오나, 한달 남짓 뵈옵지 못하오니, 그리운 마음 [소식 듣기 앞서와 더불어] 한가지이오며, 이생원 오시는 편에 편지 받잡아 즐거운 마음으로 자세히 뵈옵사오니, 보기에 좋은 마음결로 늘 계신 듯[하매], 마음이 놓이고 다행스러우며, 그 뒤로 하루 남짓 되오니, 삼복더위가 불길 같사온데, 건강은 한결 같으시며, 공무(公務)로 너무 괴롭지나 아니하십니까? 관아(官衙)도 태평하시압? 서울을 바삐 가시기로 하신다니, 먼 길 더운 길에 어찌 다녀오실 것이옵? 걱정될 따름이옵. 아우는 겨우겨우 지내오나, 여럿 딸린 식구로 말미암아 근심걱정 떠날 적 없으니 몹시 딱한 일이옵. 영감(令監) [나리의] 본가(本家)도 모두 하나같이 안녕하시오며, 춘성이 형제 공부 착실히 하오니 다행이옵. 농사는 한 마을의 으뜸이라 하오니, 좋아들 하는 터이옵. 영감 댁의 노비는, 일순이에게 분부하여 날마다 단단히 타일러 일을 시키고 단속하라 [일러두기는] 하오나, 그러한들 워낙에 일에는 서투른지라 한결 같을 수 있을까마는, 조금씩 규율이 짜여 가는 듯하옵. 염려 너무 말라 하시옵. 두 가지 젓갈 보내 주시어 영광스럽게 받아먹사오니, 도리어 불안하옵나이다. 바빠 이만 줄이오니, 얼추 헤아려 살피시옵소서.

경인년 유월 십구일, 아우 윤관하(尹觀夏)가 절하며 올림.

---

25) 尹觀夏 : 인명. 해남윤씨 26세손 윤관하(尹觀夏, 1841~1926).

4. 참고

윤관하(尹觀夏, 1841~1926)가 1890년에 쓴 편지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미처 부치지 않았던 듯하다. 윤관하의 친형제나 사촌간의 인물로서 관직에 나간 사람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신자는 윤관하의 형뻘이 되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서로 친근히 지내던 이웃으로 보인다. 편지를 한문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쓴 것도 주목할 만하다.

32 7-03. 海尹_MF35-3208_633(41x54cm): 조객 → 상제(1926)

1. 판독

[隔2]쇼샹쟝
쳔만〃몽미밧[移1]
존싀죠부샹ᄉᆞ말ᄉᆞᆷ은무ᄉᆞᆷ말ᄉᆞᆷ을ᄒᆞ오릿가
츈츄ᄂᆞᆫ비록놉프시나평일에긔력이강건
ᄒᆞ시고남의업스신효셩으로봉양ᄒᆞ시와무
량ᄒᆞ신하슈ᄅᆞᆯᄒᆞ오실쥴아러ᄉᆞᆸ더니불의에
샹ᄉᆞᄅᆞᆯ당ᄒᆞ셧ᄉᆞ오니오죽망극ᄋᆡ통ᄒᆞ시오며
쵸종과양녜ᄅᆞᆯ엇지례ᄃᆡ로치루셧ᄉᆞᆸᄂᆞ잇가
듯ᄌᆞᆸᄂᆞᆫ즉시맛나뵈ᄋᆞᆸ고위문인ᄉᆞᄒᆞᄋᆞᆸ고십푼
마ᄋᆞᆷ간졀ᄒᆞ오나쳔리밧기라쓸데잇ᄉᆞᆸᄂᆞ잇가

외오셔일컷고만지너옵ᄂᆞ이다셔쯘나즉시부치랴
ᄒᆞ오나ᄌᆞ연잇쎄못ᄒᆞ엿ᄉᆞ오니불민ᄒᆞ오이다아무
려나이시납한에[移1]
기운엇지부지ᄒᆞ시며층〃ᄌᆞ제님여러남미평안
ᄒᆞ시고더쇼각뎍일안덜ᄒᆞ오시고큰ᄌᆞ부텨긔나잇ᄉᆞ오며
그간둘지ᄌᆞ부보셧다ᄒᆞ오니쇼망더로보셧습ᄂᆞ잇가면〃
그리옵기간절ᄒᆞ오이다오륙년을일실과갓치지내다가
쳔리에각〃나뉘오니츄월츈풍어느쎄잇습고지너오
리잇가죠흔바람이부러셔울이나오시게되여다시맛나
뵈옵기축슈옵ᄂᆞ이다이곳즌집안이다무고ᄒᆞ옵고큰
손ᄌᆞ공부줄ᄒᆞ옵고금년구월에셩취ᄒᆞ여손부를쇼
망과갓치보앗ᄉᆞ오니이런경ᄉᆞ와ᄌᆞ미ᄂᆞᆫ남의업ᄂᆞᆫ듯ᄒᆞ오
이다여러히만에고향에와셔잇ᄉᆞ오니더쇼가덜과일왕일너
ᄒᆞ오니그역만힝이오이다ᄉᆞ연션후업ᄉᆞ오나즉년에셋
직ᄌᆞ제참경을보셧다ᄒᆞ오니오죽이절ᄒᆞ시오리잇가그말
듯습고이곳심회도못너이연ᄒᆞ더이다쳡〃사연여산약
[右]히이오나더강젹ᄉᆞ오니너〃안녕ᄒᆞ신쇼식듯줍기
[右]축슈옵ᄂᆞ이다
[隔2]병인납월십오일[小3]이곳심쇼샹장

2. 전사 · 주석

쇼샹장(疏上狀)[1]

천만(千萬) 천만 몽미(夢寐) 밧 존싀죠부(尊媤祖父) 상ᄉᆞ(喪事) 말숨

은 무슴 말솜을 ᄒᆞ오릿가 츈츄(春秋)는 비록 놉프시나 평일(平日)에 긔력(氣力)이 강건(剛健)ᄒᆞ시고 남의 업스신 효셩(孝誠)으로 봉양(奉養)ᄒᆞ시와 무량(無量)ᄒᆞ신 하슈(遐壽)를 ᄒᆞ오실 쥴 아러습더니 불의(不意)에 상ᄉᆞ(喪事)를 당(當)ᄒᆞ셧ᄉᆞ오니 오죽 망극ᄋᆡ통(罔極哀慟)ᄒᆞ시오며 쵸종(初終)[2]과 양녜(襄禮)[3]를 엇지 녜(禮)ᄃᆡ로 치루셧삽ᄂᆞᆫ잇가 듯줍는 즉시(卽時) 맛나 뵈옵고 위문(慰問) 인ᄉᆞ(人事)ᄒᆞ옵고 십푼 마음 간졀(懇切)ᄒᆞ오나 쳔리(千里) 밧기라 쓸 데 잇삽ᄂᆞᆫ잇가 외오셔[4] 일컷고만 지닉옵ᄂᆞ이다 셔ᄶᆞ(書字)나 즉시 부치랴 ᄒᆞ오나 ᄌᆞ연(自然) 잇ᄯᅢ[5] 못ᄒᆞ엿ᄉᆞ오니 불민(不敏)ᄒᆞ오이다 아무려나[6] 이시(爾時)[7] 납한(臘寒)[8]에 기운(氣運) 엇지 부지(扶持)ᄒᆞ시며 층층(層層) ᄌᆞ제(子弟)님 여러 남ᄆᆡ(娚妹) 평안(平安)ᄒᆞ시고 ᄃᆡ쇼(大小) 각ᄃᆡᆨ(各宅) 일안(一安)덜 ᄒᆞ오시고 큰 ᄌᆞ부(子婦) ᄐᆡ긔(胎氣)나 잇ᄉᆞ오며 그간 둘지 ᄌᆞ부(子婦) 보셧다 ᄒᆞ오니

---

1) 쇼샹장(疏上狀) :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흔히 쓰는 투어(套語)이다. 군왕(群王)에 대한 예의와 같이 지극한 공경(恭敬)을 나타내는 경우나 상례(喪禮)와 같이 인륜(人倫)의 지극한 비애(悲哀)를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박(素朴)을 위주로 하여 문식(文飾)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써 예절(禮節)의 방편을 삼는다. '조금의 허위(虛僞)도 없는 언어'라는 뜻에서 군왕에게 올리는 글을 '소'(疏)라고 하듯이, 동일한 뜻에서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소'(疏)라는 말을 붙인다.

2) 쵸종(初終) : 초종(初終). 임종(臨終)·초혼(招魂)·수시(收屍)를 비롯해서, 상례 기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장례 도구를 준비하고, 아울러 부고(訃告)를 내기까지에 이르는 초상(初喪)의 절차를 말한다.

3) 양녜(襄禮) : 양사(襄事). 장례식(葬禮式).

4) 외오셔 : 멀리서.

5) 잇ᄯᅢ : 이때까지.

6) 아무려나 : 아무리 하려나. 여기서는 '아무렇든'에 상당하는 '어쨌거나'의 뜻이다.

7) 이시(爾時) : 그 때. 그 당시.

8) 납한(臘寒) : 섣달의 추위.

쇼망(所望)디로 보셧습ᄂᆞᆫ잇가 면면(面面)[9] 그리ᄋᆞᆸ기 간졀ᄒᆞ오이다 오륙년(五六年)을 일실(一室)과 갓치 지너다가 천리(千里)에 각각(各各) 나뉘오니 츄월츈풍(秋月春風) 어느 쎄 잇습고 지너오리잇가 죠흔 바람이 부러 셔울이나 오시게 되여 다시 맛나 뵈ᄋᆞᆸ기 축슈(祝手)ᄋᆞᆸᄂᆞᆫ이다 이곳즌 집안이 다 무고(無故)ᄒᆞᄋᆞᆸ고 큰손ᄌᆞ(-孫子) 공부(工夫) 줄 ᄒᆞᄋᆞᆸ고 금년(今年) 구월(九月)에 셩취(成娶)[10]ᄒᆞ여 손부(孫婦)롤 쇼망과 갓치 보앗ᄉᆞ오니 이런 경ᄉᆞ(慶事)와 ᄌᆞ미(滋味)는 남의 업는 듯ᄒᆞ오이다 여러히 만에 고향(故鄕)에 와셔 잇ᄉᆞ오니 디쇼가(大小家)덜과 일왕일너(一往一來)ᄒᆞ오니 그 역만힝(亦萬幸)이오이다 ᄉᆞ연(辭緣) 션후(先後) 업ᄉᆞ오나 즉년(昨年)에 셋지 ᄌᆞ제(子弟) 참경(慘景)[11]을 보셧다 ᄒᆞ오니 오족 익졀(哀切)ᄒᆞ시오리잇가 그 말 듯습고 이곳 심회(心懷)도 못너 익연(哀然)ᄒᆞ더이다 쳡쳡(疊疊) 사연(辭緣) 여산약히(如山若海)이오나 디강(大綱) 젹ᄉᆞ오니 너너 안녕(安寧)ᄒᆞ신 쇼식(消息) 듯ᄌᆞᆸ기 축슈(祝手)ᄋᆞᆸᄂᆞᆫ이다

병인(丙寅 : 1926) 납월(臘月) 십오일 이곳 심[12] 쇼상장(疏上狀)

3. 현대어역

상중(喪中)에 계신 자리에 올림.

---

9) 면면(面面) : 저마다.

10) 성취(成娶) : 성가(成家). 어루어 아내를 맞이함.

11) 참경(慘景) : 끔찍한 광경(光景)이나 정상(情狀). 여기서는 자식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12) 심 : 성씨(姓氏)로써 발신자 자신을 약칭한 것이다.

천만 천만 꿈결 밖에 [들려온] 시할아버님 상사(喪事)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춘추(春秋)는 비록 높으시나 평일(平日)에 기력(氣力)이 강건(剛健)하시고, [자식들이 또한] 남에게 없는 효성(孝誠)으로 봉양(奉養)하시어, 무량(無量)하신 하수(遐壽)를 누리실 줄 알았더니, 불의(不意)에 상사(喪事)를 당하셨으니, 오죽 애통(哀慟)하기 그지없으시며 초상(初喪)에서 졸곡(卒哭)에 이르는 모든 장례(葬禮)와 양례(襄禮)를 어찌 예절대로 치르셨습니까? [상사에 관한 소식을] 듣잡는 그 때 바로 만나 뵈옵고 위문 인사하옵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사오나, 천리 밖이라 쓸 데 있삽나이까? 멀리서 [그저] 일컫고만 지내옵나이다. 서자(書字)나 바로 부치려 하였사오나, 절로 이제까지 못하였사오니 [저의 행실이 다만] 어리석고 둔하오이다. 어쨌거나 이즈음의 섣달 추위에 기운(氣運) 어찌 부지하시며, 위아래로 여러 자제님 및 여러 남매 평안하시고, 크고 작은 여러 집 한결로 편안들 하오시고, 큰 며느리 태기(胎氣)나 있사오며, 그 사이에 둘째 며느리 보셨다 하오니 바라던 대로 보셨삽나이까? 저마다 그립기 간절하오이다. 오륙년을 한집안과 같이 지내다가, 천리에 서로 나뉘오니 봄바람 불고 가을 달이 밝은 어느 때[인들] 잊고 지내오리까? 좋은 바람이 불어 서울이나 오시게 되어 다시 만나 뵈옵기 바라고 비나이다. 이곳은 집안이 다 무고하옵고, 큰 손자 공부 잘 하옵고, 금년 구월에 성가(成家)하여 손자며느리를 바라던 바와 같이 보았사오니, 이런 경사와 재미는 남에게 없는 듯하오이다. 여러 해 만에 고향에 와서 있사오니, 크고 작은 집들과 한번씩 서로 오가고는 하오니 그 또한 큰 다행이오이다. 사연 [적는 바가] 앞뒤 없사오나, 작년에 셋째 자제의 참경(慘景)을 보셨다 하오니, 오죽 애절하시오리까? 그 말 듣삽고 이곳 심정(心情)도 못내 애연(哀然)하더이다. 사연은 겹겹 산 같고 바다 같으오나, 얼추 적사오니, 내내 안녕하신 소식 듣잡기 바라고 비나이다.

병인년 섣달 십오일, 이곳 심 아무개가 상중에 계신 자리에 올림.

4. 참고

윤관하(尹觀夏, 1841~1926)의 초상을 위문하기 위하여, 일찍이 해남에서 이웃하여 살다가 서울로 이주한 어떤 여인이 윤관하의 손부이자 윤정현(尹定鉉, 1882~1950)의 부인이 되는 이상래(李祥來, 1882~1971)에게 1926년에 보낸 편지이다. 본문의 또한 이른바 "셋지 ᄌᆞ졔 참경"이란 윤정현이 영선(泳善)과 영희(泳熺)의 아래로 얻은 영일(泳日)이 죽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하다. 영일이라는 이름은 여타의 족보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에만 들어 있다.

33 7-04. 海尹_MF35-3208_641(25x14cm): 의원 → 환자

1. 판독

돌앙새오롤산재로만히잡아
밥솟틔찌되밥이ᄌᆞ즌후의새
오롤ᄒᆞᆫ줌만솟두에의노하밥우
희노코그릇스로새오롤덥허발가
케찌이거든퇴산불의쳐미야채

식기ᄀᆞ지ᄒᆞ되ᄒᆞᄅᆞ두번식ᄒᆞ여낫
기ᄀᆞ지ᄒᆞᆫ하라

2. 전사 · 주석

돌앙[1] 새오롤 산 재로[2] 만히 잡아 밥솟틔 찌되 밥이 ᄌᆞᄌᆞᆫ 후(後)의[3] 새오롤 ᄒᆞᆫ 줌만 솟두에[4]의 노하 밥 우희 노코 그릇ᄉᆞ로 새오롤 덥허 발가케 찌이거든 퇴산불(退散-)[5]의 쳐믹야 채 식기ᄀᆞ지 ᄒᆞ되 ᄒᆞᄅᆞ 두 번식 ᄒᆞ여 낫기ᄀᆞ지 ᄒᆞᆫ(限)하라

3. 현대어역

도랑 새우를 산 채로 많이 잡아 밥솥에 찌되, 밥이 잦은 뒤에 새우를 한 줌만 솥뚜껑에 놓아 [들고] 밥 위에 [내려] 놓고 그릇으로 새우를 덮어, 발갛게 찌이거든, [그것을] 사그라지는 불에 [대고] 처매어 채 식기까지 하되, 하루 두 때씩 하여 낫기까지 그 동안만 하라.

---

1) 돌앙 : 도랑. 매우 좁고 작은 개울.
2) 산 재로 : 산 채로.
3) ᄌᆞᄌᆞᆫ 후(後)의 : 졸아든 뒤에. 가라앉은 뒤에. 밥을 지을 때에, 밥물이 넘치고 뜸들이기 앞서 그 물이 졸아드는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4) 솟두에 : 솥뚜껑. '두에'는 '뚜껑'의 옛말.
5) 퇴산불(退散-) : 사그라지는 불.

34 8-01. 海尹_MF35-3207_2(33x37cm): 전호 → 전주

1. 판독

[隔2]도민등고목[移1]

[隔1]근복문시〃의[移1]

[擡1]셔방임긔쳬후어더ᄒᆞ옵신지복모구〃무임하셩

지〃로소이다[小2]도민등은복몽하홀지턱ᄒᆞ와

근〃지보ᄒᆞ오되금연싱도지ᄉᆞᆫ도육

간달을빅업ᄉᆞ온니엇지다앙달ᄒᆞ올니가

취빅금연감곽싸ᄂᆞᆫ의슈샹납ᄒᆞ옵고거연미

납쏘二졉ᄒᆞ옵고소각五束니옵고어유一ᄯᅡ

二升五合과거연미납一升와젼복一졉五곳과

거연미납쏘一곳실샹납ᄒᆞ온니밧ᄌᆞᄒᆞ옵시

물쳔만복망니옵ᄂᆡ다여ᄂᆞᆫ슈로총〃ᄒᆞ야

불비복유ᄒᆞ로니다[移1]

[隔1]癸丑七月초十日[小9]니ᄉᆞ원[竝3]최쳔손[竝3]박몽치등拜上

[物目]

[上段1]未納追捧記沙魚

[上段2]油一升又八升秋等頉條

[上段3]藿三貼五束鰒一串

[上段4][隔1]在四貼四束

[下段1]聞喜逋二片藿十二束

2. 전사 · 주석

도민(島民)[1] 등(等) 고목(告目)[2]

근복문(謹伏問) 시시(是時)의 셔방임 긔쳬후(氣體候)[3] 어더ᄒᆞ옵신지 복모구구(伏慕區區)[4] 무임하셩지지(無任下誠之至)[5]로소이다 도민 등은 복몽하휼지턱(伏蒙下恤之澤)ᄒᆞ와[6] 근근(僅僅) 지보(持保)ᄒᆞ오듸 금연(今年) ᄉᆡᆼ도지ᄉᆞ(生道之事)ᄂᆞᆫ 도육간(島陸間) 달을 비 업ᄉᆞ온니 엇지다 앙달(仰達)ᄒᆞ올니가 취빅(就白)[7] 금연 감곽(甘藿)짜ᄂᆞᆫ[8] 의슈샹납(依數上納)ᄒᆞ옵고 거연(去年) 미납조(未納條) 二졉[9] ᄒᆞ옵고 소각 五束[10] 니옵고 어유(魚油) 一ᄯᅮ 二升 五合과 거연 미납(未納) 一升와 젼복(全

---

1) 도민(島民) : 해남윤씨가에서 전지(田地)의 소유주로서 관할하던 '맹골도'(孟骨島) 따위의 도서(島嶼)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저희를 가리켜 '도민'이라 한 것이다.

2)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3) 긔톄후(氣體候) : 기력(氣力)과 신체(身體)의 상태.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지극한 존처에 대하여 그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말. (『新編尺牘大方』, 28쪽 참조.)

4) 복모구구(伏慕區區) : 엎드려 그리는 하찮은 몸. '구구'(區區)는 '잘다'의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

5) 무임하셩지지(無任下誠之至) : 그리는 마음이 지극하여 견딜 수 없음. '무임'(無任)은 '불임'(不任)과 같은 말로서 '견딜 수 없다'(不勝·不堪)를 뜻하며, '하셩'(下誠)은 '하회'(下懷)·'하정'(下情)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尊處)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바로서 '저의 정성스런 마음'을 뜻한다.

6) 복몽하휼지턱(伏蒙下恤之澤)ᄒᆞ와 :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恩澤)을 입사와.

7) 취빅(就白) : 아뢰옵건대.

8) 감곽(甘藿)짜ᄂᆞᆫ : 미역은. 여기에 보이는 '-짜ᄂᆞᆫ'은 이두(吏讀)에 흔히 쓰이는 바로서 특수보조사 '-은/-는'에 상당하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디 '-은/-는'의 뜻을 지녔던 바인지는 의문이다.

9) 졉 : 과일이나 채소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낱으로 백 개에 해당한다.

10) 束 : 뭇. 짚이나 채소 따위의 작은 묶음을 세는 단위.

鰒) 一접 五곳[11]과 거연 미납쏘 一곳실 상납ᄒᆞ온니 밧ᄌᆞᄒᆞ옵시물 천만(千萬) 복망(伏望)니옵너다 여(餘)는 슈로(水路) 총총(悤悤)ᄒᆞ야 불비(不備) 복유(伏惟)ᄒᆞ로니다

癸丑 七月 초十日 니ᄉᆞ원 최천손 박몽치 등 拜上

[物目]

未納追捧記 沙魚[12]油 一升 又八升 秋等[13]頉條[14] 藿 三貼五束 鰒[15] 一串[16]在[17] 四貼[18]四束 聞喜逋[19] 二片 藿 十二束

3. 현대어역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룀

삼가 묻사오니, 이때에 서방님 건강은 어떠하신지 그리는 마음 그지없사오이다. 섬에 사는 저희들은 [서방님께서]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누리고 있사오되, 올해의 살아나갈 방도는 물

---

11) 곳 : 곶(串). 관(貫). 무게의 단위. 한 관은 한 근의 열 배에 해당한다.

12) 沙魚 : 상어(-魚). 교어(鮫魚)

13) 秋等 : 봄과 가을로 나누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에서 가을에 내는 세금.

14) 秋等頉條 : 가을에 낸 세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15) 鰒 : 전복(全鰒).

16) 串 : 곶. 관(貫). 편지의 본문에서 '곶'의 뜻으로 '곳'이라 적었던 것을 물목에서 다시 '串'이라 적었다.

17) 在 : -인. -인 것. 이두(吏讀)에 흔히 쓰이는 바로서 '견'이라 읽고 '-인'·'-인 것'으로 풀이하는 형태소이다. 「겨(다)+ㄴ」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 (장지영, 『이두사전』, 정음사, 1976. 294쪽 참조.)

18) 貼 : 접. 본문에서 '접'이라 적었던 단위이다.

19) 聞喜逋 : '문어포'(文魚脯)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듯하다.

이거나 섬이거나 [어렵기는] 다를 바가 없사오니, [구구한 사정을] 어찌 다 아뢰오리까? 아뢰옵건대, 올해 [바쳐 올려야 할 바의] 미역은 수대로 올리옵고,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것으로 두 접 [더] 하옵고, 소각 다섯 뭇이옵고, 물고기에서 짜낸 기름 한 말 두 되 다섯 홉과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한 말과 전복 한 접 다섯 관과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한 관을 바쳐 올리오니 받아 주시기를 거듭거듭 바라옵나이다. [이 밖에] 나머지 아뢸 말씀은 물길이 바빠 다 갖추어 아뢰지 못하오이다.

계축년 칠월 십일, 이사원·최천손·박몽치 올림.

[物目]

미처 바치지 못했던 것들로 이제 거슬러 바치는 것들을 적음 : 상어 기름 한 되, [뒤에] 또 [바쳐야 할 몫으로 잡혔던] 여덟 되. 가을에 올린 세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서, 미역 세 접 다섯 뭇, 전복 한 관[에 해당하는 배인 네 접 네 뭇, 문어포 두 날, 미역 열두 뭇.

35 8-02. 海尹_MF35-3207_8(40x25cm): 전호 → 전주

1. 판독

고목젓ᄉᆞ와ᄒᆞ옵다가[移1]
알의옵ᄂᆡ다산소ᄂᆞᆫ뫼옵고무ᄉᆞ히지내옵ᄂᆡ다
죵ᄌᆞ말ᄉᆞᆷ을알의옵ᄂᆡ다희여기셰슌갓ᄉᆞᆸᄡᅡ가죵
ᄌᆞ업다ᄒᆞ옵고아이쥬온이논두셤채닷되지기고돌다

묵게되여ᄉᆞ온이홀일업ᄉᆞ와알외ᄋᆞᆸᄂᆡ다

새아대논을아홉마지기고돌임부쟝덕기셔임마ᄒᆞ여사

고쟈ᄒᆞᄋᆞᆸᄂᆡ다[移1]

[隔16]고담노인봉

2. 전사 · 주석

고목(告目)[1]

젓ᄉᆞ와[2] ᄒᆞᄋᆞᆸ다가 알외ᄋᆞᆸᄂᆡ다 산소(山所)는 뫼ᄋᆞᆸ고 무ᄉᆞ(無事)히 지내ᄋᆞᆸᄂᆡ다 죵ᄌᆞ(種子)[3] 말ᄉᆞᆷ을 알외ᄋᆞᆸᄂᆡ다 희여기[4] 셰슌[5] 갓ᄉᆞᆸ써가 죵ᄌᆞ 업다 ᄒᆞᄋᆞᆸ고 아이 쥬온이[6] 논 두 셤 채[7] 닷 되지기 고돌[8] 다 묵게 되여ᄉᆞ온이 홀 일 업ᄉᆞ와[9] 알외ᄋᆞᆸᄂᆡ다 새아대[10] 논을 아홉 마지기 고

1)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2) 젓ᄉᆞ와 : 두려워. 「젛(다)+ᄉᆞᆸ+오+아」의 결합형. '젛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 (劉昌惇, 『李朝語辭典』, 653쪽 참조.)

3) 죵ᄌᆞ(種子) : 농사에 필요한 씨앗.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전호(佃戶)는 오직 생산력을 동원할 뿐이고 이외의 모든 생산 도구는 전주(田主)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던 까닭에, 농사에 필요한 씨앗조차도 전주에게 의존해야 하였다.

4) 희여기 : 희역이가. '희역'은 인명인 듯하다.

5) 셰슌 : 지명.

6) 아이 쥬온이 : 아니 주오니.

7) 채 : 가득하게. 차게.

8) 고돌 : 곳을.

9) 홀 일 업ᄉᆞ와 : 어찌할 수 없사와.

10) 새아대 : 지명.

돌 임부쟝덕(-部將宅)[11]기셔 임마(賃馬)ᄒᆞ여 사고쟈[12] ᄒᆞᄋᆞᆸ너다
고담[13] 노인(老人) 봉(封)

3. 현대어역

아룀

[차마 아뢰옵기를] 두려워 하다가 아뢰옵나이다. 산소(山所)는 뫼시고 무사히 지내옵니다. [새해 농사를 짓기 위한] 종자[에 관해서] 말씀을 아뢰옵니다. 희역이가 세순에 갔사옵다가, [거기서] 종자 없다 하옵고 아니 주오니, 논 두 섬 가득 다섯 되지기 [되는] 곳을 다 묵히게 되었사오니, 어찌할 수 없어서 아뢰옵나이다. [그리고] 새아대[에 있는] 논을, 아홉 마지기 [되는] 곳을 임부장댁에서 말을 잡히는 댓가로 사고자 하옵나이다.

고담에 사는 늙은이 올림.

---

11) 임부쟝덕(-部將宅) : 인칭. 여기에서 '부쟝'(部將)은 종6품 이하의 무관(武官)을 지낸 사람에 대한 호칭이다.

12) 임마(賃馬)ᄒᆞ여 사고쟈 : 말을 빌려 주는 대가로 사고자.

13) 고담 : 지명. 고담(古談, 古潭).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挹湖里) 동북쪽에 있는 마을.

36 8-03. 海尹_MF35-3207_13(25x51cm): 전호 → 전주

1. 판독

[擡1]고목
별노달은연유안이오아[小2]소인등의밀열ᄒᆞᆫ쇼치로연〃
힉작은못되옵고우슈영과본관소남이혀다ᄒᆞ와
경관경영ᄒᆞ야다만십분지일이라도혹감삭
을어들가ᄒᆞ와일언거장을ᄒᆞ야삽든이관
세감삭은일분도엇들못ᄒᆞ옵기로[移1]
ᄃᆡᆨ소납물죵이나엇지덜가ᄒᆞ야겨어완문
셩출갓지ᄒᆞ야삽던이아몰이싱각ᄒᆞ야보
아도돌어혀도민이힉로올듯ᄒᆞ옵기로의
전ᄒᆞ야볼이十八石과감곽二百四十四속과어복
유초등물을전대로밧치기로만반애걸
ᄒᆞ야연유알왼이발아옵건ᄃᆡ[隔1]ᄃᆡᆨ미슈
가곽四十六졉四뭇슬탕감ᄒᆞ옵씨난[隔1]
분부물오와쥬옵시픈되민이살짜발아옵ᄂᆡᄃᆡ
[隔3]임인칠월이십일도민[隔1]李開喜(手決)[移1]
[隔3]박명철(手決)[移1]
[隔3]니제빅(手決)[移1]
[隔3]김동집(手決)[移1]
[隔3]김못건남(手決)[移1]
[隔3]임광츈(手決)[移1]

[隔3]최전감(手決)[移1]

[隔3]임원셕(手決)[移1]

[隔3]고삼용(手決)[移1]

[隔3]니졔동(手決)[移1]

[隔3]박졈남(手決)[間]등

2. 전사 · 주석

고목(告目)[1)]

별(別)노 달은 연유(緣由) 안이오아 소인(小人) 등(等)의 밀열훈[2)] 쇼치(所致)로 연연(年年) 희작(諧作)[3)]은 못 되옵고 우슈영(右水營)[4)]과 본관(本官)[5)] 소남(所納)이 혀다(許多)ᄒᆞ와 정관(呈官)[6)] 정영(呈營)[7)]ᄒᆞ야 다만 십분지일(十分之一)이라도 혹(或) 감삭(減削)을 어들가 ᄒᆞ와 일언

---

1)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2) 밀열훈 : 미련한.

3) 희작(諧作) : 풍작(豊作).

4) 우슈영(右水營) : 조선시대에 전라도에 설치한 수군의 주진(主鎭). 조선시대에 왜구와 접촉이 극심한 전라도와 경상도에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상주하는 주진을 설치해 두었는데, 한성에서 보아 오른쪽에 해당하는 전라도 방면을 전담하는 주진을 '우수영'(右水營)이라 하였다. 전라도 우수영은 처음에 무안(務安)에 두었으나, 세조11년(1465)에 해남(海南)으로 옮겼다.

5) 본관(本官) : '해남현'(海南縣)을 말한다.

6) 정관(呈官) : 관청에 소장(訴狀)이나 청원서(請願書)를 내어 하소연 함.

7) 정영(呈營) :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있는 감영(監營)에 직접 소장(訴狀)을 내던 일.

거장(擧狀)[8]을 ᄒᆞ야삽든이 관세(官稅) 감삭(減削)은 일분(一分)도 엇들 못ᄒᆞ옵기로 덕(宅) 소납(所納) 물죵(物種)이나 엇지 덜가 ᄒᆞ야 겨어 완문(完文)[9] 셩출(成出)갓지 ᄒᆞ야삽던이 아몰이 싱각ᄒᆞ야 보아도 돌어혀 도민(島民)[10]이 힉(害)로올 듯ᄒᆞ옵기로 의젼(依前)ᄒᆞ야 볼이 十八 石[11]과 감곽(甘藿)[12] 二百四十四 속(束)[13]과 어복(魚腹) 유초(油草)[14] 등물(等物)을 젼(前)대로 밧치기로 만반(萬般)[15] 애걸(哀乞)ᄒᆞ야 연유(緣由) 알왼이 발아옵건ᄃᆡ 덕 미슈(未收) 감곽 四十六 졉[16] 四 뭇슬 탕감(蕩減) ᄒᆞ옵씨난 분부(分付) 물오와 쥬옵시면 되민(島民)이 살까 발아옵ᄂᆡᄃᆡ

임인(壬寅) 칠월(七月) 이십일(二十日) 도민 이한희(手決) 박명쳘(手決) 니제빅(手決) 김동집(手決) 김뭇건남(手決) 임광츈(手決) 최젼감(手決) 임원셕(手決) 고삼용(手決) 니제동(手決) 박졈남(手決) 등

3. 현대어역

아룀

8) 거장(擧狀) :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나 소장(訴狀)을 작성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
9) 완문(完文) : 관아에서 부동산이나 세금 따위의 처분에 관하여 발급하던 증명, 또는 승인 문서.
10) 도민(島民) : 전주유씨가에서 전지(田地)의 소유주로서 관할하던 '맹골도'(孟骨島) 따위의 도서(島嶼)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저희를 가리켜 '도민'이라 한 것이다.
11) 石 : 섬.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재는 단위.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이다.
12) 감곽(甘藿) : 미역.
13) 속(束) : 뭇. 짚이나 채소 따위의 작은 묶음을 세는 단위.
14) 유초(油草) : 유채(油菜).
15) 만반(萬般) : 모든 일. 모든 것. 여기서는 '모든 것을 제쳐 놓고'의 뜻으로 쓰였다.
16) 졉 : 과일이나 채소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낱으로 백 개에 해당한다.

특별히 다른 까닭에서가 아니오라 소인들의 미련함 때문에 빚어진 바로서, 해마다 풍작(豊作)은 못 되옵고 우수영(右水營)과 본관(本官)에 바쳐야 할 조세(租稅)가 매우 많아 관청에도 소장(訴狀)을 내고 관찰사(觀察使)가 있는 감영(監營)에도 소장(訴狀)을 내어 다만 열에 하나라도 [조세의] 삭감(削減)을 얻을까 하여 이러한 거장(擧狀)을 만들었더니, [마침내] 관세(官稅)의 삭감은 하나도 얻지를 못하옵기로, 댁에 바치던 바의 물종(物種)이나 어찌 [조금이나마] 덜[어 볼]까 하여, 겨우 관아(官衙)의 승인 문서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사옵더니,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도리어 [저희] 도민(島民)이 해로울 듯하옵기로, 예와 마찬가지로 보리 18섬과 미역 244뭇과 어복(魚腹)·유초(油草) 따위의 물종(物種)을 앞서처럼 바치기로 [하고]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애걸하고자 하여, [그] 까닭을 아뢰니, 바라옵건대, 댁에서 [미처] 거두지 못한 [바로서 저희들이 이미 바쳤어야 할] 미역 46접 4뭇을 모두 삭친다는 분부를 물리어 주옵시면 [저희] 도민이 살까 [싶어 이렇게] 바라옵나이다.

임인년 칠월 이십일, 도민 이한희·박명철·이제백·김동집·김못건남·임광춘·최전감·임원석·고삼룡·이제동·박점남 따위.

37 8-04. 海尹_MF35-3207_5(27x26cm): 하인 → 상전

1. 판독

[隔1]고목[移1]

젓ᄉᆞ와ᄒᆞᄋᆞᆸ다가알외ᄋᆞᆸᄂᆞ이다[移1]

뵈ᄌᆞ뫼와보ᄋᆞᆸ고[移1]

[擡1]긔운편안ᄒᆞᄋᆞᆸ시오니복지천만츅슈ᄒᆞᄋᆞᆸᄂᆞ이다

하동셔묵안을주ᄋᆞᆸ기로샹송ᄒᆞᄋᆞᆸ고

오날싱믈을아모리신칙ᄒᆞ오듸잡들

못ᄒᆞᄋᆞᆸ기로이러ᄒᆞ오와복지복려만〃

ᄒᆞ오이다[移1]

[物目]

[隔8]洪魚一尾[移1]

[隔8][落1]魚一椀[移1]

[隔5]庚申十二月十七日[隔2]奴携得告目

2. 전사 · 주석

고목(告目)[1]

젓ᄉᆞ와[2] ᄒᆞᄋᆞᆸ다가 알외ᄋᆞᆸᄂᆞ이다 뵈ᄌᆞ[3] 뫼와 보ᄋᆞᆸ고 긔운(氣運) 편안(便安)ᄒᆞᄋᆞᆸ시오니 복지(伏地) 천만(千萬) 츅슈(祝手)ᄒᆞᄋᆞᆸᄂᆞ이다 하동(河東)셔 묵안(墨雁)[4]을 주ᄋᆞᆸ기로 샹송(上送)ᄒᆞᄋᆞᆸ고 오날 싱믈[5]을 아모리

1)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2) 젓ᄉᆞ와 : 두려워. 「젛(다)+ᅀᆞᆸ+오+아」의 결합형. '젛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 (劉昌惇, 『李朝語辭典』, 653쪽 참조.)

3) 뵈ᄌᆞ : 패자(牌子). 패지(牌旨).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문서를 '패자'(牌子)라고 했는데, 이것의 소리가 바뀌어 '뵈자'·'배자' 따위가 생겼다.

신칙(申飭)[6] ᄒᆞ오되 잡들 못 ᄒᆞᄋᆞᆸ기로 이러ᄒᆞ오와 복지(伏地) 복려(伏慮) 만만(萬萬)ᄒᆞ오이다

[物目]

洪魚一尾

□魚一椀

庚申 十二月 十七日 奴 携得 告目

3. 현대어역

아룀

[차마 아뢰옵기를] 두려워 하다가 아뢰옵나이다. 내려 주신 글월 뫼시어 보옵고, 기운 편안하오시니, [앞으로도 또한 편안 하시기를] 거듭거듭 비옵나이다. 하동(河東)에서 서찰을 주옵기에 올리옵고, 오늘 생물을 아무리 [잡으라고] 타일러 시켜도 잡지를 못 하옵기로, 이러하여 [못 보내드리게 되니] 거듭거듭 걱정이 되오이다.

[物目]

홍어(洪魚) 한 마리, □어(□魚) 한 사발.

경신년 십이월 십칠일, 사내종 휴득(携得)이가 아룀

4) 묵안(墨雁) : 편지. 서찰.

5) 싱물 : 생물. 조개에서 날것으로 발라낸 속살을 전라도 사투리로 '생물'이라 이른다.

6)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여기서는 '타일러 시키다'의 뜻으로 쓰였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 고목류

01 0-01. 全柳_MF35-006421_620(29x55cm): 남편 → 아내(1935)

1. 판독

일젼편지왓스나편지가아니라독쳑장이고악담이오
우르고빅르고참무셧습이다그르나사졍을모르고하난
일이라넌들엇지할슈잇소편지난사오차부처스나일즉
본것갓지안이하오니이거시무산일인고그사이날포되
오니긱쥬모즉무탈하신가병원은그사이돈업셔아마즁
지한듯하나니너올적졍구츙의게돈이업드라도외상으로
보아쥴나하얏스니혐의업시단여도관게업난거슬그다
지걱졍하니참북그럽사이다돈의동집은아즉비와쥬
지아니한다하니무산가닥인지언제나비운다합듸가속히
독쳑하야그리로가시오흥슉은일간나려온듯하니거게
셔이슬슈업스니부듸복덕방에독쳑을하시오일실은
그리로올나하난가만약오거던거긔다밥을붓처노코쌀만
바다쥬고반찬은인역히짜로장만하야그릭견듸시오나난나려
온후각쇡곤난다말할슈업시지너니제일치거리쥬조
조합일노세무서에다날을어느놈이천하에도적놈이
오협잡군으로먹어듸엿난듸조합문셔을일〃이검사
하야즁간곤경은무소부지로치무칠빅여환을긴급히
츄듸하야듸이자니그광경이엇드킈습잇가인지난조금
안정되얏습이다농사난보리츄슈아즉타작못하고
슙기난보둘은하얏스나봉답은비가와야슘을터인듸

날노비난오나물은안이싱기니낭픠올시다동작이며
나리난필경일전죽어어제장사지ᄂᆡ엿스나원구서난손
이오지아니하고아마감정이ᄃᆡ단한듯하오이다돈은일
전동윤이가동영이와상의하야변돈을ᄂᆡ여ᄇᆡᆨ원갓스
니ᄎᆞᆫ〃존절하야쓰시오나난아즉긋처업사니이달월
급이나타면다시부처쥴가요사이난조합저도가그전
과달나셔한푼긋처할슈업스니ᄆᆡᆨ낭이옵집에난
ᄯᅩ쌀이업다고큰아희날노상을씅그리고단이고ᄀᆡ쥰
어미난슌ᄆᆡᆨ을먹으니ᄀᆡ쥰은집에와셔이밥을조금
식먹고단인니도로혀우숩고보기실타이만긋치
나이다

2. 전사 · 주석

일젼(日前) 편지(便紙) 왓스나 편지가 아니라 독쵹장(督促狀)이고 악담(惡談)이오 우르고 ᄇᆡ르고[1] 참 무섯슴이다 그르나 사정(事情)을 모르고 하난 일이라 ᄂᆡᆫ들 엇지할 슈 잇소 편지난 사오 차(次) 부처스나 일ᄌᆞ(一字) 본 것 갓지 안이하오니 이거시 무산 일인고 그 사이 날포 되오니 ᄀᆡᆨ쥬[2] 모ᄌᆞ(母子) 무탈(無頉)하신가 병원(病院)은 그 사이 돈 업서 아마 즁지(中止)한 듯하나 ᄂᆡ 올 적 정구츙[3]의게 돈이 업드라도 외상으로 보아 쥴나 하얏스니 혐의(嫌疑)[4] 업시 단여도 관게(關係) 업난 거슬 그

---

1) 우르고 ᄇᆡ르고 : 으르고 벼르고.
2) ᄀᆡᆨ쥬 : '객중'(客中)으로 추정된다.
3) 정구츙 : 인명.

다지 걱정하니 참 북그럽사이다 돈의동[5] 집은 아즉 비와 쥬지 아니한다 하니 무산 가닥인지 언제나 비운다 합듸가 속(速)히 독쵹(督促)하야 그리로 가시오 홍숙[6]은 일간(日間) 나려온 듯하니 거게셔 이슬 슈 업스니 부듸 복덕방(福德房)에 독쵹을 하시오 일실[7]은 그리로 올나 하난가 만약 오거던 거긔다 밥을 붓처 노코 쌀만 바다 쥬고 반찬(飯饌)은 인역히[8] 짜로 장만하야 그리 견듸시오 나난 나려온 후(後) 각쇠(各色) 곤난(困難) 다 말할 슈 업시 지너니 제일치거리[9] 쥬조(酒造) 조합(組合) 일노 세무서(稅務署)에다 날을 어느 놈이 천하(天下)에 도적놈(盜賊-)이오 협잡군(挾雜-)으로 먹어듸엿난듸[10] 조합 문서(文書)을 일일(一一)이 검사(檢査)하야 즁간(中間)[11] 곤경(困境)은 무소부지(無所不至)[12]로 최무(債務) 칠빅여(七百餘) 환(圜)을 긴급(緊急)히 츄듸(推貸)[13]하야 듸이자니 그 광경(光景)이 엇드키슴잇가 인지난[14] 조금 안정(安定)되앗슴이다 농사(農事)난 보리 츄슈(秋收) 아즉 타작(打作) 못하고 슝기난[15] 보(洑)[16] 돌은 하앗스나 봉답(奉畓)[17]은 비가 와야 슝을[18] 터인듸 날노 비

---

4) 혐의(嫌疑) : (값을 치르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는) 의심.
5) 돈의동 : 지명.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敦義洞).
6) 홍숙 : 인명.
7) 일실 : 지명. 여기서는 거기에 사는 식구들을 가리키고 있다.
8) 인역히 : 이녘이. ('하오'할 자리에 대하여) 상대방을 흩대하여 가리키는 말이니, 문맥으로 보건대, '(편지를 받는) 당신 쪽에서 손수'의 뜻이다.
9) 제일치거리 : 지명.
10) 먹어듸엿난듸 : 헐뜯어 말했는데.
11) 즁간(中間) : 그리하는 가운데에.
12) 무소부지(無所不至) :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음. 여기서는 '겪지 않은 것이 없음'의 뜻이다.
13) 츄듸(推貸) : 취대(取貸). 돈을 돌려서 꾸어 주거나 꾸어 씀.
14) 인지난 : 이제는.
15) 슝기난 : 심기는. 심(을 수 있)게 하는. '슝기는'이 동화된 형태이다.

난 오나 물은 안이 싱기니 낭픽(狼狽)올시다 동작[19]이 며나리난 필경(畢竟) 일전(日前) 쥭어 어제 장사(葬事) 지닉엿스나 원구[20]서난 손이 오지 아니하고 아마 감정(感情)이 딕단한 듯하오이다 돈은 일전 동윤[21]이가 동영[22]이와 상의(相議)하야 변돈(邊-)[23]을 닉여 빅(百) 원(圓) 갓스니[24] ᄎᄎ(次次) 존절(撙節)하야 쓰시오 나난 아즉 굿처(區處)[25] 업사니 이달 월급(月給)이나 타면 다시 부처 쥴가 요사이난 조합 저도(貯度)[26]가 그 전(前)과 달나셔 한 푼 굿처(區處)할 슈 업스니 믹낭(孟浪)[27]이올 집에난 또 쌀이 업다고 큰 아희 날노 상(相)을 씽그리고 단이고 긔쥰[28] 어미난 슌믹(純麥)[29]을 먹으니 긔쥰은 집에 와서 이밥[30]을 조금식 먹고 단인니 도로혀 우숩고 보기 실타 이만 굿치나이다

---

16) 보(洑) :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아 냇물을 가두어 두는 곳.

17) 봉답(奉畓) : 봉천답(奉天畓). 곧, 천수답(天水畓). 비가 와야만 모내기를 하고 모를 기를 수 있는 논을 말한다.

18) 슴을 : 심을.

19) 동작 : 인명.

20) 원구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문단리 원구(院邱).

21) 동윤 : 인명.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둘째 아들 유동저(柳東著, 1892~1948)를 달리 부르는 이름인 듯하다.

22) 동영 : 인명.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셋째 아들이자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막내아우, 유동영(柳東英, 1901~).

23) 변돈(邊-) : 변전(邊錢). 변리(邊利)를 받거나 내기로 하고 빚으로 주거나 받는 돈.

24) 갓스니 : 갔으니. '보냈으니'의 뜻이다.

25) 굿처(區處) : 변통하여 처리함. 여기서는 '변통할 방법이나 장소'를 뜻한다.

26) 저도(貯度) : (조합원이) 예금을 저축하여 (조합에) 자금이 축적된 정도.

27) 믹낭(孟浪) : 맹랑. (생각과는 다르게) 허망함. 처리하기가 어려움.

28) 긔쥰 : 인명. 유필번(柳必蕃, 1911~1954)의 첫째 아들 유기준(柳璣俊, 1933~?).

29) 슌믹(純麥) : 맨 보리(밥).

30) 이밥 : 입살로 지은 밥. 쌀밥.

3. 현대어역

일전(日前)에 편지(便紙)가 왔으나, 편지가 아니라 [빨리 돈을 내라는] 독촉장(督促狀)이고, 악담(惡談)이오, 으르고 벼르고 [하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일이니 낸들 어찌할 수 있겠소. 편지는 너다섯 번 부쳤으나, 한 글자 본 것 같지가 아니하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그 동안 하루 남짓 되오니, 객지(客地)에 있는 모자(母子) 아무 탈 없으신지. 병원(病院)[에 다니는 일]은 그 사이에 돈이 없어서 아마도 중지한 듯하나, 내가 올 적에 정구충에게 '돈이 없더라도 외상으로 보아 달라.'고 하였으니, 의심 없이 다녀도 괜찮을 것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니 참 부끄럽소이다. 동의동 집은 아직 비워 주지 아니한다 하니 무슨 까닭인지, 언제나 비운다 합디까? 속히 독촉하여 그리로 가시오. 홍숙은 요 며칠 사이에 내려온 듯한데, 거기에서 있을 수 없으니, 부디 복덕방에 독촉을 하시오. 일실 식구는 그리로 오려고 하는지, 만약에 오거든 거기에다 밥[을 해서 대어 주는 일]을 부쳐 놓고 살만 받아다 주고, 반찬은 당신 쪽에서 따로 장만하여 그렇게 견디시오. 나는 내려온 뒤로 갖은 곤란을 다 말할 수 없이 지내고 있으니, 제일채거리 주조 조합 일로 어떤 놈이 세무서(稅務署)에다 나를 '천하에 도적놈이오 협잡꾼'으로 헐뜯어 말했는데, 조합 문서를 낱낱 검사하여, 그리하는 가운데 [겪은] 곤경은 이르지 않은 데가 없으니, 빚진 칠백여 환을 긴급히 꾸어서 대자니,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농사는, 보리 추수는 아직 타작을 못했고, [모를] 심기는 보(洑)는 두 곳을 만들어 놓았으나, 천수답(天水畓)은 비가 와야 심을 터인데, 날로 비는 오지만 물은 아니 생기니 낭패올시다. 동작이 며느리는 마침내 요 며칠 앞서 죽어 가지고 어제 장사를 지내었으나, 원구에서는 [문상(問

喪)하는] 손님이 오지 아니하고, [이로서 보건대] 아마도 [나쁜] 감정이 대단한 듯하오이다. 돈은 얼마 전에 동윤이가 동영이와 상의(相議)하여 변돈(邊-)을 내어서 백 원을 [부쳐] 갔으니, 조금씩 아껴 쓰시오. 나는 아직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이달 월급이나 타면 다시 부쳐 줄까, 요사이는 조합 저도(貯度)가 이전과 달라서 한 푼도 변통할 수 없으니 맹랑[한 일]이압.

집에서는 또 쌀이 [떨어져] 없다고, 큰 아이 날로 상을 찡그리고 다니고, 기준이 어미는 맨 보리밥을 먹으니, 기준이는 [내] 집에 와서 쌀밥을 조금씩 먹고 다니니, 도리어 우습고 보기 싫다고…. 이만 그치나이다.

4. 참고

유동시(柳東蓍, 1886～1961)가 그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의 부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들 유필번(柳必蕃, 1911～1954)과 함께 한동안 서울에 머물렀던 사실이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5_2260의 편지에서 드러난다. 여기에 적힌 "을히 유월"이라는 연도에 따르면, 이 편지는 193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02 0-02. 全柳_MF35-006421_681-1(22x19cm): 남편 → 아내(20세기 전반)

1. 판독

[隔5]耆月宅[隔2]座下[移1]

最後로이것을올이나이다.[隔1]諸事에가장複雜하엿던것이圓滿이解決되엇슴이

다.[隔1]이片紙을보시면엇지宿願成就가안이겟슴잇가.[隔1]이것을퍽苦待하엿지요.

그에게對抗을하엿슨이勿論相當하곳이잇겟지요.[隔1]只今은離婚을請함이다.

이게쏘對抗하겟슴잇가. 耆月宅쏘當〃한勢力家에一分子가안임잇가憤함이比할

곳이업겟지요만이것은이者에自由임이다.[隔1]아즉이社會에서은自由을깨트리

지은못함이다.[隔1]이者에家庭도名望도希望도다이事件에犧牲되엇고싸

라서父母에게不孝莫甚한者가되엇슴이다.[隔1]이者가絶對로無理가안이엇슴이

다.[隔1]幸福을찻즈려은것을죽인것은則耆月宅이엿슴이다.[隔1]亦是이歲月이조슴이다.[隔1]只

今에은將來가揚〃한女子가안임잇가.[隔1]얼마라도再嫁할수가잇슴이다.[隔1]쏘

離婚을못하겟슴잇가.[隔1]그려면그女子은耆月宅에집에이歲月이無窮토록두시요.

이러한片紙도最後이엿고空想으로一箇月을興心업게虛送하엿던이저
亦是幸福이엿슴이다.[隔1]이後外內位分萬壽康寧하소서.[移2]
[隔8]京城[隔3]柳必蕃[隔1]上書

2. 전사 · 주석

耆月宅 座下

最後로 이것을 올이나이다. 諸事에 가장 複雜하엿던 것이 圓滿이 解決되엇슴이다. 이 片紙을 보시면 엇지 宿願成就가 안이겟슴잇가. 이것을 퍽 苦待하엿지요. 그에게[1] 對抗을 하엿슨이 勿論 相當하[2] 곳이 잇겟지요. 只今은 離婚을 請함이다. 이게[3] 또 對抗하겟슴잇가. 耆月宅또 當〃한 勢力家에 一分子가 안임잇가 憤함이 比할 곳이 업겟지요만 이것은 이 者에 自由임이다. 아즉 이 社會에서은 自由을 깨트리지은 못함이다. 이 者에 家庭도 名望도 希望도 다 이 事件에 犧牲되엇고 짜라서 父母에게 不孝莫甚한 者가 되엇슴이다. 이 者가 絶對로 無理가 안이엇슴이다. 幸福을 찻즈려은 것을 죽인 것은 則耆月宅이엿슴이다. 亦是[4] 이 歲月이[5] 조슴이다. 只今에은[6] 將來가 揚〃한 女子가 안임잇가. 얼마라도 再嫁할 수가 잇슴이다. 또 離婚을 못하겟슴잇가. 그러면 그 女

1) 그에게 : 발신자 자신을 '그'라고 하였다.
2) 相當하 : (못내 결심한 바가) 대단한. '-한'이라고 서야 할 데서 '-ㄴ'을 빠뜨리고 썼다.
3) 이게 : 여기에.
4) 亦是 : 여기서는 '아니나 다를까'의 뜻이다.
5) 이 歲月이 : 이 시대(時代)가.
6) 只今에은 : 지금 시대에는.

子은[7] 耆月宅에 집에 이 歲月이 無窮토록 두시오. 이러한 片紙도 最後이엿고 空想으로 一箇月을 興心업게 虛送하엿던 이 저 亦是 幸福이엿슴이다. 이 後 外內位分 萬壽康寧하소서.

京城 柳必蕃 上書

3. 현대어역

기월댁(耆月宅) 좌하(座下)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올리나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였던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곧] 어찌 숙원(宿怨)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퍽 고대(苦待)하였지요? 그에게 대항을 하였으니, 말할 것도 없이 [못내 결심한 바의] 대단한 곳이 있겠지요? [그러시다면 저야말로] 이제는 이혼(離婚)을 청합니다. 여기에 또 대항하겠습니까? 기월댁도 당당한 세력가(勢力家) 집안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분함이 비할 곳이 없겠지요마는, 이것은 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아직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깨트리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의 가정(家庭)도, 명망(名望)도, 희망(希望)도 다 이 사건에 희생되었고, 따라서 부모에게 불효막심(不孝莫甚)한 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무리[한 짓을 저지른 이]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것을 죽인 것은 곧 기월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대가 좋습니다. 아직은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기(意氣)]가 양양(揚揚)한 여자가 아닙니까? 얼마라도 재혼(再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혼을 못하겠습니

7) 그 女子은 : (이혼을 못하겠다는 경우의) '기월댁'을 '그 여자'라고 하였다.

까? 그러면 그 여자는 기월댁의 집에 이 세월이 다하도록 두시오. 이러한 편지도 마지막이었고, 헛된 생각으로 한 달을 [아무런] 기쁜 마음도 없이 허송하였던 이 저 또한 [결과로 말하면] 행복이었습니다. 이 뒤로 안팎의 분들, 만수무강(萬壽無疆)하소서.

경성(京城)에서, 유필번(柳必蕃) 올림.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安東水谷派)의 명유(名儒)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현손(玄孫) 유필번(柳必蕃, 1911~1954)이 그의 부인 성산이씨(星山李氏, 1911~)에게 보낸 편지이다.

03 1-01. 全柳_MF35-006422_979(17x38cm): 딸→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그즉문안은삼
츄삼동을아득요원말니산
싀나다름업ᄉᆞ오니불초무상홀
거시오나시〃운쳔을항운사향
회포지향못송구영신의더옥

존안니의희〃그립ᄉᆞ와비승〃
진졍못ᄒᆞ올듯신원길계의연
ᄒᆞ와[隔1]연심체되강녕ᄒᆞ오셔침
진등절이여젼만위ᄒᆞ오신가
년셰졈〃고신ᄒᆞ오시니우러와
초황용녀츈빙을임ᄒᆞ온듯
아무러나남산하슈롤누리시기듀
야쳔신긔축쳔〃ᄒᆞ나이다슬
하셋집다솔긴우업ᄉᆞᆸ고딜ᄋᆞ
여러둉반무양션식츔댱셰황
이ᄉᆞᆫ듯딜부도텨평안길미ᄉᆞ
츄린어엿분듯공싱다흡습고
져근집과각졀무고각쳐평신
나암심여업ᄉᆞ신가곳추굼〃
식은근〃뎌탈업ᄉᆞ오나두로
슈란무홍귀촌〃밧계셔허다
심여듕환탈졀박습고어
린것들무탈토못심화갈ᄉᆞ
록진졍못뎌소제졀그만힝
니오며하촌도각집무고든〃
ᄒᆞ오이다알외옴만쳡ᄒᆞ오
나세긱들과어득〃이만알외
오며너〃길이시고만슈강녕
ᄒᆞ심복축〃ᄒᆞᆸᄂᆞ이다봉견
니가ᄂᆞᆫ쥴몰아다가입시듯

고슈즈알외옵나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그 족[1] 문안(問安)은 삼츄삼동(三秋三冬)을 아득 요원(遙遠) 말니(萬里) 산싀(山勢)나 다름 업ᄉᆞ오니 불초무상(不肖無狀)[2]ᄒᆞᆫ 거시오나 시시(時時) 운쳔(雲天)을 향운사향(向雲思鄕) 회포(懷抱) 지향(指向) 못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더욱 존안(尊顔)니 의희(依稀)[3] 의희 그립ᄉᆞ와 비승(倍勝)[4] 비승 진졍(鎭靜) 못 ᄒᆞ올 ᄃᆞᆺ 신원길계(新元吉季)[5]의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체되(體度ㅣ)[6] 강녕(康寧)ᄒᆞ오셔 침진(寢進)[7] 등졀(等節)이 여젼(如前) 만위(萬慰)ᄒᆞ오신가 년세(年歲) 졈졈(漸漸) 고신(高身)ᄒᆞ오시니 우러와 초황(焦惶)[8] 용녀(用慮) 츈빙(春氷)을 임(臨)ᄒᆞ온 듯 아무려나[9] 남산(南山) 하슈(遐壽)ᄅᆞᆯ 누리시기 듀야(晝夜) 쳔신(天神)긔 츅쳔(祝天)츅쳔ᄒᆞ나이다 슬하(膝下) 셋 집 다솔(多率) 긴우(緊憂) 업

---

1) 그 족 : 그 쪽.
2) 불초무상(不肖無狀) : 못났을 뿐더러 착한 데도 없음. '무상'(無狀)은 예절이 없거나 착한 행실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3) 의희(依稀) : 어렴풋이.
4) 비승(倍勝) : 곱절로.
5) 신원길계(新元吉季) : 새해 설날, 또는 그 즈음의 때.
6) 체되(體度ㅣ) : 체도(體度)가. '체도'는 체후(體候)·체절(體節)과 마찬가지로 존처(尊處)의 안부를 물을 때에 그의 일상이나 정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7)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8) 초황(焦惶) : 애타게 마음을 졸임.
9) 아무려나 :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ᄉᆞᆸ고 딜ᄋᆞ(姪兒) 여러 둉반(從班) 무양(無恙) 션식(善食) 츙댱(充壯)[10] 세황(歲況)[11]이ᄉᆞᆫ ᄃᆞᆺ 딜부(姪婦)도 틔평안길(太平安吉) ᄆᆡᄉᆞ(每事) 츄린(出人) 어엿분 ᄃᆞᆺ 공싱다흡ᄉᆞᆸ고[12] 져근집과 각졀(各節)[13] 무고(無故) 각쳐(各處) 평신(平信) 나암[14] 심여(心慮) 업ᄉᆞ신가 곳추[15] 굼굼식(息)은 근근(僅僅) 디탈(大頉) 업ᄉᆞ오나 두로 슈란(愁亂) 무흥(無興) 귀츤귀츤 밧계셔[16] 허다(許多) 심여 듕(中) 환탈(患頉) 졀박(切迫)ᄉᆞᆸ고 어린것들 무탈(無頉)토 못 심화(心火) 갈ᄉᆞ록 진졍(鎭靜) 못 디소제절(大小諸節) 그만 ᄒᆡᆼ(幸)니오며 하촌[17]도 각(各)집 무고(無故) 든든ᄒᆞ오이다 알외옴 만쳡(萬疊)ᄒᆞ오나 셰긱(歲客)[18] 들다[19] 어득어득[20] 이만 알외오며 내내 길(吉)이시고 만슈강녕(萬壽康寧)ᄒᆞ심 복츅(伏祝)복츅ᄒᆞᆸᄂᆞ이다 봉견[21]니 가는 쥴 몰아다가 임시(臨時) 듯고 슈ᄌᆞ(數字) 알욉나이다

---

10) 츙댱(充壯) : 충실건장(充實健壯). (건강에 있어서) 튼튼하고 씩씩함.

11) 세황(歲況) : 설을 쇠는 즈음의 정황.

12) 공싱다흡ᄉᆞᆸ고 : 마음이 놓일 만하고.

13) 각졀(各節) : 제절(諸節). '각절'(各節)·'제절'(諸節)은 존처의 집안에 딸린 모든 식솔의 일상이나 정황을 가리켜 말하는 투어이다.

14) 나암 : 나아감. 한어 '進'에 해당하는 우리 옛말 '나삼'으로 추정. "더 나삼 드러(示增進)"(楞-21. /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133쪽.)

15) 곳추 : 줄곧. '곳추(곧추)'는 본디 '곧장'·'곧이'를 뜻하나, 여기서는 '줄곧'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16) 밧계셔 : 바깥사람이. (발신자의) 남편이.

17) 하촌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18) 셰긱(歲客) : 세배하러 나드는 손님.

19) 들다 : 들었다고.

20) 어득어득 : 어둑어둑하여. (주위가 몹시 부산한 사정으로 정신이) 어두워.

21) 봉견 : 인명.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그 쪽 문안(問安)은 삼추(三秋)와 삼동(三冬)을 [지나는 듯] 아득하고 멀어서 만리(萬里)[나 되게 겹친] 산세(山勢)[에 가로막힌 거리]와 다름이 없사오니, 못났을 뿐더러 또한 착한 데라고는 하나 없는 저이오나 하염없이 하늘을 우러러 구름을 바라보고 고향과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 가누지 못[하옵나이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더욱 아버님 존안(尊顔)이 어렴풋 그립사와 거듭거듭 사무쳐 마지 못 하올 듯[하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연로하신 체도(體度) 강녕(康寧)하오시어 주무시고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여전히 안녕하오신지…. 연세(年歲)가 점점 높아지시니, 우러러 애타는 마음 봄철에 얼음을 밟는 듯[하옵니다]. 아무쪼록 남산과 같이 한이 없는 수명(壽命)을 누리시기를 밤낮으로 천신(天神)께 빌고 또 비나이다. 슬하 세 집의 많은 식솔들 마음 졸이는 걱정거리 없사옵고, 조카아이들 및 여러 일가붙이들 아무 병 없이 밥 잘 먹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듯[하옵고], 조카며느리도 퍽 평안(平安)하고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고 어여쁜 듯[하매] 적이 마음이 놓일 만하고, 작은집과 여러 식솔들 무고[하옵고], 여러 곳 소식 들으시매 다른 심려 없으신지, 줄곧 궁금[하옵니다]. 저는 겨우겨우 큰 탈은 없이 지내오나, 두루 여러 가지 시름에 아무 즐거움도 없어 귀찮고 또 귀찮고. 남편이 하고많은 심려[를 겪는] 가운데 병환(病患)[까지 겹치니, 마음이 하냥 절박하고, 어린것들이 아무 탈 없지도 못[하니], [치미는] 울화를 갈수록 억누르지 못[하옵니다]. 위아래 여러 식솔들 그만[하니] 다행이오며, 하촌의 여러 집들도 무고[하니] 든든하오이다. 아뢰올 말씀 겹겹으로 많사오나, 세배하려는 손님이 들

었다[고 하매 정신이] 어두워 이만 아뢰오며, 내내 경사(慶事)로우시고 만수(萬壽)를 누리시는 가운데 강녕(康寧)하시기를 빌고 또 비나이다. 봉견이가 가는 줄을 모르다가 [길 떠나는] 때에 이르러서야 [간다는 말을] 듣고 몇 글자 [적어] 아뢰옵나이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이미 출가한 그의 딸이 새해를 맞으면서 보낸 편지이다. 그는 모두 세 사람의 딸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누가 보냈는지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04 1-02. 全柳_MF35-006422_1000(18x43cm): 딸→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얼마을아득
요원이맛것도알외옵지못
ᄒᆞ오니불초심졍니오나시〃
기우려존안니의희〃슬푸
온심회지향못ᄒᆞ올소이다

홀〃광음은걸임업ᄉᆞ와어
나뎟초ᄒᆞ포일니괴롭ᄉᆞ온ᄃᆡ
년ᄒᆞ와[隔1]년심슈체후여젼
강영ᄒᆞ오셔침진만위ᄒᆞ시며
슬하면〃다ᄉᆞ듕평안무회
관듕어린놈의슈츙당긔
화갓ᄒᆞ와심여업ᄉᆞ온가
공싱든〃자근사ᄅᆞᆷ터듕
이라더니무알나은지굼〃
무실은삭〃혼솔무고ᄒᆞ온가
그져싱각홀ᄉᆞ록앙분〃
동영은ᄯᅩ소가두온듯외문
듯기슬코길드지못답〃각곳
연고업ᄉᆞ온가[小1]식은대탈업ᄉᆞ오나
일싱싀어득안밧심여
갈ᄉᆞ록터산기막히고어린것
들면〃부셩치못심증귀촌〃
각결무고싀육촌무망써ᄂᆞ
신ᄃᆡ급〃두어ᄌᆞ알외오니다
회편기ᄃᆞ리ᄉᆞᆸ고만위ᄒᆞ심지원
〃이올소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얼마을 아득 요원(遙遠) 이맛 것[1]도 알외옵지 못ᄒᆞ오니 불초(不肖) 심정(心情)니오나 시시(時時) 기우려 존안(尊顔)니 의희(依稀)[2] 의희 슬푸온 심회(心懷) 지향(指向) 못ᄒᆞ올소이다 홀홀(忽忽) 광음(光陰)[3]은 걸임 업ᄉᆞ와 어나덧 초ᄒᆞ(初夏) 포일(暴日)[4]니 괴롭ᄉᆞ온디 년(連)ᄒᆞ와 년심(年深) 슈체후(壽體候)[5] 여젼(如前) 강영(康寧)ᄒᆞ오셔 침진(寢進)[6] 만위(萬慰)ᄒᆞ시며 슬하(膝下) 면면(面面)[7] 다ᄉᆞ(多事) 듕(中) 평안(平安) 무회(無懷) 관듕(款重)[8] 어린놈 의슈(依數)[9] 츙댱(充壯)[10] 긔화(琦華)[11] 갓ᄒᆞ와 심여(心慮) 업ᄉᆞ온가 공싱[12] 든든 자근사름[13] 터듕(胎中)이라더니 무알 나은지 굼굼 무실[14]은 삭삭[15] 혼솔(渾率)[16] 무고(無故)

---

1) 이맛 것 : 이까짓 것. 겨우 안부를 묻는 정도의 편지. 용건 없이 안부만 묻는 정도의 편지.

2) 의희(依稀) : 어렴풋함.

3) 광음(光陰) : 세월.

4) 포일(暴日) : 뙤약볕.

5) 슈체후(壽體候) : 늙으신 몸의 건강 상태. '체후'(體候)는 존처(尊處)의 안부를 물을 때에 그의 일상이나 정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신자가 연로한 아버지인 까닭에 '체후'를 더욱 높여서 '수체후'(壽體候)라고 하였다.

6)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7) 면면(面面) : 저마다.

8) 관듕(款重) : 소중(所重). '관중하다'의 어근으로서, '소중하다'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9) 의슈(依數) : 나이에 따름. 또는 나잇살에 걸맞은 품행(品行).

10) 츙댱(充壯) : 튼튼하고 씩씩함.

11) 긔화(琦華) : 옥돌의 아름다운 빛.

12) 공싱 : 마음이 놓이는 모양.

13) 자근사롬 : (발신자의) 작은올케.

ᄒᆞ온가 그저 ᄉᆡᆼ각ᄒᆞᆯᄉᆞ록 앙분(怏忿) 앙분 동영[17]은 ᄯᅩ 소가(小家)[18] 두온 ᄃᆞᆺ 외문(外聞) 듯기 슬코[19] 길 드지 못 답답 각(各)곳 연고(緣故) 업ᄉᆞ온가 식(息)은 대탈(大頉) 업ᄉᆞ오나 일ᄉᆡᆼ(一生) ᄉᆡ어득[20] 안밧 심여 갈ᄉᆞ록 틱산(泰山) 기막히고 어린것들 면면 부셩(富盛)치 못 심증(心症) 귀촌귀촌 각졀(各節) 무고 싀육촌(媤六寸) 무망(無妄)[21] ᄡᅧᄂᆞ신 ᄃᆡ 급급(急急) 두어 ᄌᆞ(字) 알외오니다 회편(回便)[22] 기ᄃᆞ리ᇫ고 만위(萬慰) ᄒᆞ심 지원(至願)지원이올소이다

3. 현대어역

아바님 젼(前)

얼마를 아득히 멀리 [소식도 없이 지내는 동안에] 그저 문안을 여쭙는 편지도 아뢰옵지 못하오니 불초한 마음이오나, 마음은 하냥 [고향으로] 기울여 아버님 존안(尊顔)이 어렴풋 어렴풋…. 슬픈 마음 가누지 못하

---

14) 무실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여기에 살던 가족이 당시에 무슨 불평한 일을 겪었던 듯하다.

15) 삭삭 : 애타게 궁금한 모양.

16) 혼솔(渾率) : 다들. 온 집안 식솔들.

17) 동영 : 인명. 수신자 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셋째 아들 유동영(柳東英, 1901～).

18) 소가(小家) : 소실(小室).

19) 슬코 : 싫고.

20) ᄉᆡ어득 : (정신이) 시틋하도록 어둑어둑한 모양. (심기가) 언짢을 정도로 암울한 모양. 「ᄉᆡ(다) + 어득(하다)」의 결합형.

21) 무망(無妄) : 무망중(無妄中). 뜻하지 않게. 엉겁결에.

22)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옵니다. 문득문득 광음(光陰)은 걸림이 없사와 어느덧 첫여름 사나운 뙤약볕이 괴롭사온데, 이즈음 연로하신 수체후(壽體候) 여전히 강녕(康寧)하오시어 주무시고 드시는 일이 편안하시며, 슬하 분들도 저마다 갖은 일 가운데 평안들 하시고 근심거리 없으신지…. 귀중한 어린놈 나이에 따라 튼튼하고 씩씩하기 옥돌 같은 듯하고 다른 심려 없으신지, 적이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작은 사람은 태중(胎中)이라더니 무얼 낳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은 [어떠한지] 애타게 궁금하고, 다들 무고하온지, 그저 생각할수록 노엽고 또 노엽고…. 동영이는 또 소실(小室)을 두는 듯[한데], 바깥소문 듣기 싫고, [그가 바른] 길로 들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여러 곳들 다른 연고 없으신지. 저는 큰 탈은 없사오나, 일생이 시틋하도록 어두어둑[하오니], 안팎의 심려 갈수록 태산처럼 [늘어만 가니] 기막히고, 어린것들 저마다 [건강이] 넉넉하지 못[하여], 짜증스럽고 귀찮고 또 귀찮고…. 다른 여러 식솔들 무고[합니다]. 시가 육촌께서 뜻하지 않게 [길을 나서] 떠나시는 데 바삐 두어 글자 [적어] 아뢰오이다. 답장 기다리옵고, 안녕하시기를 바라고 바라옵니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이미 출가한 그의 딸이 보낸 편지이다.

05 1-03. 全柳_MF35-006422_1175(21x24cm): 딸 → 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전[隔1]후련히ᄡᅧᄂᆞ신후허우럭
굿븐심ᄉᆞ운산말이를헛비ᄇᆞ라지향업
산회포식로이갈발업술ᄎᆞ무심간이것닷
치며지극하셔밧ᄌᆞ와황송누슈로뵈오니
상탄니부적ᄒᆞ온ᄃᆡ년ᄒᆞ와체후환첨은아
니게오심만〃즐겁습고날포ᄀᆡ곳비치시와여히
아니게옵심더옥경ᄉᆞ측양못슬하면〃다ᄉᆞ듕
무탈아히들여럿슉딜무양긔특복아혼인
박근어엿부고슈이볼일든〃시급져근ᄃᆡᆨ과
각절무고다힝십고망천집도삼어리ᄃᆡ탈업
ᄉᆞ온가절세변역의촉쳐박혀〃작젼잇
지못ᄒᆞ나무익〃ᄒᆞ오이다식도일솔한모양
지나오나식은산탈인지지절통괴상귀촌그
져슈란ᄒᆞ여견ᄃᆡ지못하촌도무고ᄒᆞ오이다
참봉ᄃᆡᆨ의일양든〃혼인졸졍담ᄉᆞ와자치여
두세업술ᄃᆞᆺ부란ᄒᆞ오이다알외옴심온
어득이만알외오며내〃거ᄂᆞ리시고만슈무
강ᄒᆞ오심복축〃슈이인편드롤일든〃
ᄒᆞ오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후련(忽然)히 써ᄂᆞ신 후(後) 허우럭[1] ᄀᆞᆺ븐[2] 심ᄉᆞ(心思) 운산말이(雲山萬里)를 헛비[3] ᄇᆞ라 지향(指向) 업산 회포(懷抱) ᄉᆡ로이 갈 발[4] 업술 ᄎᆞ 무심간(無心間) 이것[5] 닷치며[6] 지극(至極) 하셔(下書) 밧ᄌᆞ와 황송(惶悚) 누슈(漏水)로 뵈오니 상탄(賞嘆)니 부젹(不敵)ᄒᆞ온ᄃᆡ 년(連)ᄒᆞ와 체후(體候) 환쳠(患添)은 아니 게오심 만만(萬萬) 즐겁ᄉᆞᆸ고 날포[7] 긱고(客苦) 쎄치시와[8] 여ᄒᆡ(旅害) 아니 게옵심 더옥 경ᄉᆞ(慶事) 측앙(測量) 못 슬하(膝下) 면면(面面) 다ᄉᆞ듕(多事中) 무탈(無頉) 아히들 여럿 슉딜(叔姪) 무양(無恙) 긔특(奇特) 복아[9] 혼인(婚姻) 박근(迫近) 어엿부고 슈이[10] 볼 일 든든[11] 시급(時急)[12] 져근ᄃᆡᆨ과 각절(各節)[13] 무고(無故)

---

1) 허우럭 : 허우룩하게. 서운하게. 이른바 '허우룩'은 '허우룩ᄒᆞ다'(喪心)의 부사형으로서 '서운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더옥 허우룩 섭〃기 금이 업서 ᄒᆞ노라"(仁宣王后諺簡 13. / 金一根 編註, 『李朝御筆諺簡集』, 新興出版社, 1959. 69쪽.)

2) ᄀᆞᆺ븐 : 애끊는 듯한. 'ᄀᆞᆺ브다'는 'ᄀᆞᆺ브다'가 원순 모음화를 거쳐서 나온 형태이다. 'ᄀᆞᆺ브다'는 '애가 그치는(끊어지는) 듯하다'라는 곧 '애ᄀᆞᆺ브다'의 준말이다. 다른 편지에 'ᄀᆞᆺ부온'이라는 형태가 또한 보인다. 여기에 보이는 접미사 '-브다'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깃브다'(기쁘다)·'슳브다'(슬프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내는 데서 일찍이 중요한 생성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3) 헛비 : 헛되이.

4) 갈 발 : 가는 바를.

5) 이것 : 이 편지를 가지고 온 하인을 가리키는 듯하다.

6) 닷치며 : 닥치며. (가까이) 다다르며.

7)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8) 쎄치시와 : 삐치시어. 시달리어 나른하게(피곤하게) 되시어.

9) 복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아'(兒)는 어린이의 이름에 '작고 어여쁘다'라는 어기(語氣)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허사이다.

10) 슈이 : (시간상으로) 이제 곧.

다힝(多幸) 십고 망쳔[14] 집도 삼(三)어리[15] 디탈(大頉) 업ᄉᆞ온가 졀셰(絶世) 변역(邊域)의 측쳐(觸處)[16] 박혀박혀 작젼(作田) 잇지 못ᄒᆞ나 무익(無益)무익ᄒᆞ오이다 식(息)도 일솔(一率)[17] 한 모양 지나오나 식은 산탈(産頉)[18]인지 지졀통(肢節痛)[19] 괴상(愧常) 귀츤 그져 슈란(愁亂)[20]ᄒᆞ여 견디지 못 하촌[21]도 무고ᄒᆞ오이다 참봉덕의 일양(一樣) 든든 혼인 졸졍(猝定)[22] 담ᄉᆞ와[23] 자치여[24] 두세(頭序ㅣ) 업술 둣 부란(不安)ᄒᆞ오이다 알외옴 심온(深穩)[25] 어득 이만 알외오며 내내 거ᄂᆞ리시고[26] 만슈무강(萬壽無疆)ᄒᆞ오심 복츅(伏祝)복츅 슈이 인편(人便) 드롤 일 든든ᄒᆞ오이다

---

11) 든든 : '든든하다'를 줄인 말로서, 여기서는 '흐뭇하다'와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
12) 시급(時急) : (심리상으로) 조바심이 남.
13) 각절(各節) : '제절'(諸節)과 같은 말이다.
14) 망천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輞川里).
15) 삼(三)어리 : 삼문(三門). 삼솔(三率). 위아래로 삼대(三代)에 이르는 모든 식솔. '어리'는 본디 문짝을 매다는 문틀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측처(觸處) : (어디든) 가서 닿는 곳.
17) 일솔(一率) : 한 집안 식솔.
18) 산탈(産頉) : 산후 후유증.
19) 지절통(肢節痛) : (감기·몸살 따위로) 팔다리의 마디가 쑤시는 병증.
20) 슈란(愁亂) : 시름이 많아 마음이 어지러움. 갖가지 시름으로 마음이 어수선함.
21) 하촌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22) 졸정(猝定) : 갑작스레 결정함.
23) 담ᄉᆞ와 : 닮아서. '-와 같아서'·'-인 듯하여'의 뜻이다.
24) 자치여 : 잦히어. (일을) 그치어. 한어 '止'에 상당하는 말이다.
25) 심온(深穩) : 깊이 쌓여 있음.
26) 거ᄂᆞ리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ᄂᆞ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갑자기 떠나신 뒤로, 서운하게 애끊는 듯한 마음, 만리에 뻗친 멧구름만 헛되이 바라보며 나아갈 곳을 모르는 근심, 새로이 갈 바를 모르던 겨를에, 뜻밖에 이것이 다다르며 [아버님의] 지극한 하서(下書)를 받자와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겹게 뵈오니 [말씀을 낱낱] 이루다 감탄할 수가 없사온데, 이즈음 체후(體候)에 병환은 아니 계오심 거듭거듭 즐겁사옵고, 하루 남짓 나그네 길에 지치시되 여독(旅毒)이 아니 계오심 더욱 경사롭기 이루다 헤아리지 못[하옵니다]. 슬하의 모두들 저마다 많은 일 가운데 아무 탈 없고, 여러 아이들 및 조카들 아무 병 없으니 기특하고, 복아는 혼인[할 때가] 다가오니 [그럴수록] 어여쁠 터이고, 이제 곧 보게 될 일 흐뭇하고 조바심이 나고, 작은댁과 그밖에 여러분들 무고하니 다행스럽고, 망천 집도 위아래 식솔들 모두 큰 탈은 없으신지. 세상과 끊어진 변경(邊境)으로 떠나가서 닥치는 대로 박히고 박혀 밭이나 일구리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못해[는 듯해]나 쓸데없고 또 쓸데없어 보이오이다. 저희도 한 집안 식구들 모두 한결 같사오나, 저는 산후(產後)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인지 지절통(肢節痛)이 [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고 귀찮고, 그저 어수선한 마음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하촌 식구들도 모두 무고하오이다. 참봉 댁도 한가지로 든든[하오나], 혼인을 너무 갑자기 정한 듯하매 [중도에] 그치어 갈피 없게 될 듯[하매] 불안하오이다. 아뢰옴 깊이 쌓여 있사오나, [정신이] 어둑어둑하여 이만 아뢰오며, 내내 거느리시고 만수무강(萬壽無疆)하오시기를 빌고 또 비오이다. 이제 곧 인편(人便)[에 소식] 들을 일 흐뭇하옵니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이미 출가한 그의 딸이 보낸 편지이다.

06 1-04. 全柳_MF35-006424_1715(23x24cm): 딸→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1]그즉문안은뉵월이후쳔ᄋᆡ갓ᄉᆞ오니
불초무샹ᄒᆞ온거시오나일심오ᄆᆡ의그즉운월을
챵망ᄒᆞ와ᄇᆡᆨ슈존안니의희그립ᄉᆞ와측양못어
나덧츄샹이술난ᄒᆞ온ᄃᆡ년ᄒᆞ와호쳡탐고긔력이
옵신듕체되안녕ᄒᆞ시와침진등호방ᄉᆞᄒᆞ오신가우
러와헛부온이회그음업ᄉᆞ오이다슬하각ᄂᆡ외평
화션반심여업ᄉᆞ시고동시ᄂᆞᆫ셔울간ᄃᆞᆺ외오오즉도
이시니ᄀᆡᆨ고못잇치고번아삼슉딜무양츙실긔화어엿
부고만복어미일홀쥴불샹알히고졔엇지그런자
식을두고ᄯᅥ둥게도아니갈ᄃᆡ소위괘심〃집일도슌
편아바님한근심은소멸ᄒᆞ신일다ᄒᆡᆼ즐겁ᄉᆞ오이다
져근집혼솔분무첨ᄒᆞ오시고각집무고심여업ᄉᆞ신가

한아바님면예ᄂᆞᆫ칠팔년ᄐᆡ산심여셩역을쳔신이
감오ᄒᆞ와명산ᄃᆡ지ᄅᆞᆯ만나만셰유ᄐᆡᆨ으로안장ᄒᆞ신
즐든〃싀쾌〃ᄒᆞ오이다외니아ᄌᆞ미면예ᄃᆡ가셔즐노
시다가가신ᄃᆞᆺ아ᄌᆞ미ᄂᆞᆫ엇디ᄇᆡᆨᄉᆞᄅᆞᆯ마음ᄃᆡ로ᄒᆞ신ᄂᆞᆫ
고이샹〃망쳔은엇디들사ᄂᆞᆫ고시일이갈ᄉᆞ록불샹〃
심담이졀여〃진정못번게ᄂᆞᆫ엇던고굼겁ᄉᆞᆸ외
내ᄂᆞᆫ거슌원구오라바ᄉᆞ슉딜만나니희한반갑ᄉᆞᆸ더이
다식도안밧근〃무탈업ᄉᆞ나갈ᄉᆞ록슈란〃지향졉
올곳업셔아마광인의힝ᄉᆞᆸ이만흐니졔마음도
인역으로못인셰샹무시〃귀촌〃ᄒᆞ오이다이밧
슉후각졀무고든〃ᄒᆞ옵고은봉싀오촌슌〃겁셰
봉욕견들슈업ᄉᆞ와불시환가가역홀동안한ᄃᆡ
단취ᄒᆞ시여든〃ᄒᆞ오나슈션골물더옥슈두살난
〃하촌도녀러집무고박실집며ᄂᆞ리신힝ᄒᆞ여
범졀조흐나셕일역〃헛부더이다참봉ᄃᆡᆨ의무고
복아혼인이역업고신부다커노슉ᄒᆞ여보이고만면
유화슉힝이흐ᄅᆞ니공싱〃과흠ᄉᆞᆸ고그어미ᄌᆞ
식범연ᄒᆞ니든〃ᄒᆞ오이다알외옴쳡〃ᄒᆞ오나
심신건쳔의드이와셩ᄌᆞ극난이만알외옵나이다
회편거ᄂᆞ리시고만슈뮤강ᄒᆞ오심복망〃언졔뵈오
며ᄯᅩ언졔인편이실고낙〃외오안ᄌᆞ두로헛부고ᄒᆞ
아득부모동기ᄌᆞ식지명이불과ᄇᆡᆨ여리지허의쳔
의갓ᄒᆞ니빈ᄒᆞ인이나부려보고져ᄒᆞ오나도로죄
송〃ᄒᆞ오이다고리한토슈알외옵나이다
[右]지필조금쥬시옵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그 족[1] 문안(問安)은 뉵월(六月) 이후(以後) 쳔이(天涯)[2] 갓ᄉᆞ오니 불초(不肖) 무샹(無想)[3] ᄒᆞ온 거시오나 일심(一心) 오미(寤寐)의 그 족 운월(雲月)을 챵망(悵望)[4] ᄒᆞ와 ᄇᆡᆨ슈(白首) 존안(尊顔)이 의희(依稀) 그립ᄉᆞ와 측양(測量) 못 어나던 츄샹(秋霜)이 솔난(散亂) ᄒᆞ온ᄃᆡ 년(連) ᄒᆞ와 호쳡[5] 탐고(探苦)[6] 긔력(氣力)이옵신 듕(中) 체되(體度ㅣ) 안녕(安寧) ᄒᆞ시와 침진(寢進)[7] 등호(等許)[8] 방ᄉᆞ(倣似) ᄒᆞ오신가 우러와 헛부온[9] 이회(哀懷)[10] 그음[11] 업ᄉᆞ오이다 슬하(膝下) 각(各) 너외(內外) 평화(平和) 션반(善飯) 심여(心慮) 업ᄉᆞ시고 동시[12]는 셔울 간 ᄃᆞᆺ 외오[13] 오족도[14] 이시니[15] ᄀᆡᆨ고(客苦) 못 잇치고 번아[16] 삼(三) 슉딜(叔姪) 무

---

1) 그 족 : 그 쪽.
2) 쳔이(天涯) : 하늘가. 아득히 멀리 떨어진 낯선 곳.
3) 무샹(無想) : 무심(無心).
4) 챵망(悵望) : 서럽게 바라봄.
5) 호쳡 : '호젓하다'의 어간에 상당하는 말로서, 여기서는 '쓸쓸히'의 뜻으로 쓰였다.
6) 탐고(探苦) : 고초를 겪음. 여기서는 관형어로 쓰였다.
7)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8) 등호(等許) : '등절'(等節)과 같은 말로서, 어떠어떠한 따위의 일이 처해 있는 상태나 형편을 뜻하는 말로 추정된다.
9) 헛부온 : 헛된. 또는, 허전한.
10) 이회(哀懷) : '인회'라고 적어야 할 것을 실수로 '이회'라고 적은 듯하다.
11) 그음 : 한정(限定). '그음없다'는 곧 '가없다'로 더불어 비슷한 말이다.
12) 동시 : 인명. 수신자 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첫째 아들 유동시(柳東蓍, 1886~1961).
13) 외오 : 멀리에.
14) 오족도 : 작히나. 여간.
15) 이시니 : 있으니.

양(無恙) 츙실긔화(充室琦華)[17] 어엿부고 만복[18] 어미 일흘 쥴[19] 불샹 알히고[20] 졔 엇지 그런 자식을 두고 써둥게도[21] 아니 갈 딕 소위 괘심 괘심 집일도 슌편(順便) 아바님 한 근심은 소멸(掃滅)[22] ᄒᆞ신 일 다힝(多幸) 즐겁ᄉᆞ오이다 져근집 혼솔(渾率) 분 무쳠(無添) ᄒᆞ오시고 각(各)집 무고(無故) 심여 업ᄉᆞ신가 한아바님 면예(緬禮)[23] ᄂᆞᆫ 칠팔(七八) 년 틱산(泰山) 심여 셩역(誠力)을 쳔신(天神)이 감오(感悟) ᄒᆞ와 명산(名山) 딕지(大地)롤 만나 만세(萬世) 유틱(幽宅)으로 안장(安葬) ᄒᆞ신 쥴 든든 싀쾌(-快)[24] 싀쾌ᄒᆞ오이다 외닉[25] 아ᄌᆞ미 면예 딕[26] 가셔 졀 노시다가 가신 듯 아ᄌᆞ미ᄂᆞᆫ 엇디 빅ᄉᆞ(百事)롤 마음딕로 ᄒᆞ신ᄂᆞᆫ고 이샹(異常)이샹 망쳔[27] 은 엇디들 사ᄂᆞᆫ고 시일(時日)이 갈ᄉᆞ록 불샹불샹 심담(心膽)이 졀여(絶如)졀여 진졍(鎭靜) 못 번게[28] ᄂᆞᆫ 엇던고 굼겁습[29] 외내[30] ᄂᆞᆫ 거슌(去旬)[31] 원구[32] 오라바 ᄉᆞ슉딜(四叔姪) 만나니 희한(稀罕) 반갑습

16) 번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발신자의 조카들 이름에 '번'(蕃) 자를 돌려썼다.
17) 츙실긔화(充室琦華) : 옥돌처럼 아름다운 빛을 집안에 가득히 채움.
18) 만복 : 인명.
19) 쥴 : 것. 요즘 말로 하면 의존 명사 '것'이 쓰일 자리에 '줄'을 쓰는 사례가 흔히 보인다.
20) 알히고 : (마음에) 아리고.
21) 써둥게도 : 떠밀어도.
22) 소멸(掃滅) : 쓸어 없앰.
23) 면예(緬禮) : 이장(移葬).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지냄.
24) 싀쾌(-快) : (마음이 시도록) 매우 쾌적함. '싀-'는 '싀다'(酸)의 어간에서 유래한 듯하다.
25) 외닉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26) 딕 : 때.
27) 망쳔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輞川里).
28) 번게 : 지명.
29) 굼겁습 : 궁금하옵.
30) 외내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변 원천리 외내.
31) 거슌(去旬) : 십일 이전의 어떤 날.
32) 원구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문단리 원구(院邱).

더이다 식(息)도 안밧 근근(僅僅) 무탈(無頉) 업ᄉᆞ나 갈ᄉᆞ록 슈란(愁亂) 슈란 지향(指向) 졉올 곳 업셔 아마 광인(狂人)의 ᄒᆡᆼ습(行習)[33]이 만흐니 졔 마음도 인역(人力)으로 못인[34] 셰상(世上) 무시무시[35] 귀촌귀촌ᄒᆞ오이다 이밧 슉후[36] 각졀(各節) 무고 든든ᄒᆞ옵고 은봉[37] 싀오촌(媤五寸) 순순(順順) 겁셰(劫世)[38] 봉욕(逢辱) 견들 슈 업ᄉᆞ와 불시(不時) 환가(還家) 가역(家役)ᄒᆞᆯ 동안 한ᄃᆡ 단취(團聚)ᄒᆞ시여 든든ᄒᆞ오나 슈션 골물(汨沒) 더옥 슈두(首頭) 살난(散亂)살난 하촌[39]도 녀러 집 무고 박실[40] 집 며ᄂᆞ리 신ᄒᆡᆼ(新行)ᄒᆞ여 범졀(凡節) 조흐나 셕일(昔日) 역역(歷歷) 헛부더이다 참봉댁의 무고 복아[41] 혼인(婚姻) 이역(移易)[42] 업고 신부(新婦) 다 커 노슉(老熟)ᄒᆞ여 보이고 만면(滿面) 유화(柔和) 슉ᄒᆡᆼ(淑行)이 흐ᄅᆞ니 공싱[43]공싱 과홈ᄉᆞᆸ고[44] 그 어미 ᄌᆞ식(子息) 범연(汎然)ᄒᆞ니 든든ᄒᆞ오이다 알외음 쳡쳡(疊疊)ᄒᆞ오나 심신(心身) 건쳔(乾川)[45]의 드이와[46] 셩ᄌᆞ(成字) 극난(極難) 이만 알외옵나이다 회편(回

---

33) ᄒᆡᆼ습(行習) : 버릇. 버릇된 행동.

34) 못인 : 못하는. 부사 '못'에 서술격조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

35) 무시무시 : 매우 무섭도록.

36) 슉후 : 미상.

37) 은봉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은봉(銀峯).

38) 겁셰(劫世) : 천추(千秋).

39) 하촌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40) 박실 : 지명. 박곡(朴谷).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41) 복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아'(兒)는 어린이의 이름에 '작고 어여쁘다'라는 어기(語氣)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허사이다.

42) 이역(移易) : (날짜를) 옮기어 바꿈.

43) 공싱 : 마음이 놓이는 모양.

44) 과홈ᄉᆞᆸ고 : 사랑스럽고.

45) 건쳔(乾川) : 마른 내.

便)[47] 거ᄂᆞ리시고[48] 만슈무강(萬壽無疆)ᄒᆞ오심 복망(伏望)복망 언제 뵈오며 ᄯᅩ 언제 인편(人便) 이실고 낙낙(落落)[49] 외오 안ᄌᆞ 두로 헛부고 ᄒᆞ 아득 부모(父母) 동기(同氣) ᄌᆞ식지명(子息之命)이 불과(不過) 빅여리지허(百餘里之許)의 쳔이(天涯) 갓ᄒᆞ니 빈 ᄒᆞ인(下人)이나 부려 보고져 ᄒᆞ오나 도로 죄송(罪悚)죄송ᄒᆞ오이다 고리[50] 한 토슈(套手)[51] 알외옵나이다[52]

[추신]

지필(紙筆) 조금 쥬시오

3. 현대어역

아바님 앞에

그 쪽 문안(問安)은 유월(六月) 이후로 아득하오니, [제 비록] 못나고 무심한 것이오나 자나 깨나 한마음으로 그 쪽 구름과 달을 서글피 우러

---

46) 드이와 : 들리와. 들어서. '들이다'(使入)에서 유래한 형태로 보인다.

47)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48) 거ᄂᆞ리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ᄂᆞ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49) 낙낙(落落) : 외따로.

50) 고리 : 고리짝.

51) 토슈(套手) : 토시. 팔뚝에 끼어 추위를 막는 방한구.

52) 토슈(套手) 알외옵나이다 : 토시를 (예물로 드리고자) 아뢰옵나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아뢴다'라고 함은 편지에 딸려 가는 물품에 관하여 그 '물목(物目)으로서 밝혀 아뢴다'는 것으로서 한문 편지에 흔히 보이는 '下納'·'命納' 따위의 말과 더불어 그 기능이 같다.

르며 아버님 얼굴이 어렴풋 그리워[하는 마음], 헤아리지 못[하옵니다]. 어느덧 가을 서리가 어지러이 흩뿌려지고 있는 이즈음, 쓸쓸히 괴로움을 겪으시는 기력이신 가운데 체도(體度) 안녕(安寧)하시어 주무시고 진지 드시는 일이 예와 같으신지, 우러러 헛되이 슬픈 마음 가없사옵니다. 슬하의 여러 내외분 화평(和平)하시며 밥 잘 드시며 다른 심려(心慮) 없으시고, 동신이는 서울에 간 듯, 멀리에 작히나 있으니 객지 고생 못 잊히고, 번아 세 조카들 아무 병 없이 집안 가득히 옥돌같이 아름다운 빛을 드리우는 모양 어여쁘고, 만복이는 어미를 잃은 것 불쌍해서 [마음이] 아리고, 제 어찌 그런 자식을 두고서 떠밀어도 아니 갈 데를 [가던 것인지], 이른바 괘씸하고 또 괘씸하고. 집안일도 순조롭게 되어 아버님 근심 하나는 쓸어 없앤 일 다행스럽고 즐겁사옵니다. 작은집 모든 식솔 분들 아무 탈 없으시고 여러 집들 무고하며 다른 심려 없으신지. 할아버님 면례(緬禮)는, 칠팔 년을 태산[같이 쏟아 부은] 심려와 정성을 천지신명이 [마침내] 감오(感悟)하여, 명산(名山) 대지(大地)를 만나 만세(萬世) 유택(幽宅)으로 안장(安葬)하신 것 흐뭇하고 퍽 시원하오이다. 외내 아주머니는 면례 때에 가서 잘 노시다가 가신 듯. 어주머니는 어찌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지, 이상하기만 합니다. 망천은 어찌들 사는지, 날이 갈수록 불쌍하고 또 불쌍하여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 가누지 못[하겠고], 번게는 어떤지 궁금하옵. 외내는, 지난 십 며칠 앞서 원구 오라버니의 넷째 조카를 [뜻밖에] 만나니 퍽 반갑더이다. 저희도 안팎으로 겨우겨우 탈은 없이 지내오나, 갈수록 갖가지 시름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가누고 접을 곳 없어서, 거의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거리가 많으니, 제 마음도 제 뜻대로 못하는 세상 무시무시하게 귀찮기만 하오이다. 이밖에, 숙후의 여러 식솔들 무고하니 든든하옵고, 은봉 시오촌께서는 천추(千秋)[에 씻지 못할] 욕(辱)된 일을 순순히 당하기가 견딜

수 없어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와 가역(家役)하는 동안을 한데 모여 계시니 든든하오나, 수선스럽고 골몰하여 더욱 머릿속만 어지럽고. 하촌도 여러 집들 무고[하옵고], 박실 집은 며느리가 신행(新行)하여 범절(凡節)이 좋으나, 옛날 [함께 지내던 일이] 눈에 삼삼하여 허전하더이다. 참봉댁도 무고[하옵고], 복아 혼인(婚姻)은 다른 변동이 없고, 신부(新婦)가 [이제] 다 커서 노숙(老熟)해 보이고 얼굴빛이며 몸가짐이 부드럽고 따스하며 맑고 고운 빛이 흐르니 마음이 놓일 뿐더러 사랑스럽고, 그 어미 자식이 대범(大泛)하니 든든하오이다. 아뢰옴 쌓여 있사오나, 몸과 마음 마른 내에 들인 듯하여 글씨를 이루기 매우 어려워 이만 아뢰옵나이다. 회편(回便) [소식으로는], 거느리시고 만수무강(萬壽無疆)하오시기를 빌고 또 비오이다. 언제 [다시] 뵈오며 또 언제 인편(人便)이 있을지. 외따로 멀리에 앉아 두루 허전하고 너무 아득[합니다]. 부모(父母)와 동기(同氣) 및 자식(子息)의 사이가 그저 백여 리쯤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천애(天涯)만 같으니, 빈 하인(下人)이나마 부려 보고자 하오나, [그리하지 못해서] 또다시 죄송하기만 하오이다. 고리짝 하나에 토시(套手) 아뢰옵니다.

[추신]

종이와 붓, 조금 주시옵.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이미 출가한 그의 딸이 보낸 편지이다.

07 1-05. 全柳_MF35-006424_1718(24x32cm): 딸 → 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3]아바님젼[隔1]그즉문안은삼동이진
ᄒᆞ오나아득요원ᄒᆞ오니불초무상ᄒᆞ온거
시오나시〃우러와굼겁ᄉᆞ온하회측양못ᄒᆞ
올소이다심ᄒᆞᆫ이극심ᄒᆞ온ᄃᆡ연ᄒᆞ와[移1]
긔체후안영ᄒᆞ오셔소진이방ᄉᆞᄒᆞ오신가
거슌듯ᄌᆞ오니외ᄂᆡ와계신ᄃᆞᆺ환가ᄒᆞ시와
여히업ᄉᆞ오시고슬하내외호쳡탐우듕현
탈업ᄉᆞ와심여업ᄉᆞ시며ᄉᆡ덕무ᄉᆞ동신방학
ᄒᆞ고나려온가ᄀᆡᆨ고ᄎᆞ마못잇치고번ᄋᆞ삼형
졔무양츙실긔화갓ᄒᆞ며복ᄋᆞ도내〃ᄃᆡ탈
업고치위이덧삼행못삼〃ᄒᆞ여져장모못견
ᄃᆡᄒᆞᄂᆞᆫᄃᆞᆺ상답명ᄉᆡᆨ은다소간세젼보나실가기
ᄃᆞ려도이ᄂᆡ기쳑업ᄉᆞ니답〃고무ᄉᆡᆨᄒᆞ오이
다져근집과각집무고ᄒᆞ시고각곳긔별드ᄅᆞ시
며망천집모자여무탈차시더옥박히고내ᄂᆡᄂᆞᆫ
내외분회갑셩판으로ᄒᆞ신ᄃᆞᆺ경ᄉᆞ오며ᄉᆡᆨ
도삼촌지의망연홀슈업셔빈ᄒᆞ인부려
시나도로무ᄉᆡᆨᄒᆞ더이다ᄉᆡᆨ은혼젼근〃
ᄃᆡ탈업ᄉᆞ오나치위ᄒᆞᆫ디언속이덧날세의
밧어루신면례존졍이염오일지나시며

식릅고두로슈란각싀사렴좌불안셕
이오며식은우련광식으로가려ᄒᆞ다가
젹셜이녀산ᄒᆞ와쳔만싱의못파와낙심
정월노가려ᄒᆞ오나졍이도못깁셔방평
원가잇고회간드러올듯텰ᄒᆞᆫ무양외이풍
ᄒᆞᆫ셔습은무론그져조심듕난ᄒᆞ여간장이
녹을듯ᄃᆡ소가무고참봉댁의무쳠신
인ᄃᆡ탈업습하촌고각졀긴우업ᄉᆞ오이다
알외옴어득졔ᄉᆞᄎᆞ려보너고슈〃이만
알외오며회편만슈무강신세불원슈하
면〃슈복다길만ᄉᆞ무ᄒᆞᆫ질기시는희보셔〃
고축ᄒᆞ옵나이다졍월염간ᄉᆞ이날집허
보너시며그날갈듯너기나이다[移1]
[추신]
토슈한거리알외옵나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그 즉 문안(問安)은 삼동이진(三冬已盡)ᄒᆞ오나 아득 요원(遙遠)ᄒᆞ오니 불초(不肖) 무상(無想)ᄒᆞ온 거시오나 시시(時時) 우러와 굼겁ᄉᆞ온[1] 하회(下懷) 측양(測量) 못ᄒᆞ올소이다 심ᄒᆞᆫ(甚寒)이 극심(極甚)ᄒᆞ온ᄃᆡ 연

1) 굼겁ᄉᆞ온 : 궁금한.

(連)ᄒᆞ와 긔체후(氣體候) 안영(安寧)ᄒᆞ오셔 소진(蔬進)[2]이 방ᄉᆞ(倣似)ᄒᆞ오신가 거슌(去旬)[3] 듯ᄌᆞ오니 외ᄂᆡ[4] 와 계신 ᄃᆞᆺ 환가(還家)ᄒᆞ시와 여ᄒᆡ(旅害) 업ᄉᆞ오시고 ᄉᆞᆯ하(膝下) 내외(內外) 호쳡[5] 탐우(探憂)[6] 듕(中) 현탈(現頉) 업ᄉᆞ와 심여(心慮) 업ᄉᆞ시며 ᄉᆡᄃᆡᆨ 무ᄉᆞ(無事) 동신[7] 방학(放學)ᄒᆞ고 나려온가 ᄀᆡᆨ고(客苦) ᄎᆞ마 못 잇치고 번ᄋᆞ[8] 삼형제(三兄弟) 무양(無恙) 츙실긔화(充室琦華)[9] 갓ᄒᆞ며 복ᄋᆞ도 내내 ᄃᆡ탈(大頉) 업고 치위[10] 이 덧 삼행(三行)[11] 못 삼삼ᄒᆞ여[12] 져 장모(丈母) 못 견ᄃᆡᄒᆞᄂᆞᆫ ᄃᆞᆺ 상답(上答)[13] 명ᄉᆡᆨ(名色)은 다소간(多少間) 셰젼(歲前) 보나실가 기ᄃᆞ려도 이ᄂᆡ 기쳑 업ᄉᆞ니 답답고 무ᄉᆡᆨ(無色)[14]ᄒᆞ오이다 져근집과 각(各)집 무고(無故)ᄒᆞ시고 각곳 긔별(寄別) 드ᄅᆞ시며 망쳔[15] 집 모자여(母子女) 무탈(無頉) 차시(此時) 더옥 박히고[16] 내ᄂᆡ[17]ᄂᆞᆫ 내외(內外)분

---

2) 소진(蔬進) : (고기반찬이 없는) 푸성귀 나물로만 반찬을 삼은 진지. 거친 밥. 맛난 것이 거의 없는 진지.
3) 거슌(去旬) : 십일 이전의 어떤 날.
4) 외ᄂ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5) 호쳡 : 미상.
6) 탐우(探憂) : 근심 걱정을 겪음.
7) 동신 : 동시는. '동시'는 인명. 수신자 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첫째 아들 유동시(柳東蓍, 1886~1961).
8) 번ᄋᆞ : 인명. 약칭한 것이다.
9) 츙실긔화(充室琦華) : 옥돌처럼 아름다운 빛을 집안에 가득히 채움.
10) 치위 : 추위.
11) 삼행(三行) : 신랑이 세 번째로 처가에 가는 인사.
12) 삼삼ᄒᆞ여 : 눈에 선하여.
13) 상답(上答)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대답이나 회답. 또는 그 때 겸하여 주는 예물.
14) 무ᄉᆡᆨ(無色) : 면목(面目)이 없음.
15) 망쳔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輞川里).
16) 박히고 : (마음에 아프게) 들어와 사무치고.

회갑(回甲) 셩판(盛-)으로 ᄒᆞ신 ᄃᆞᆺ 경ᄉᆞ(慶事)오며 식(息)도 삼촌지의(三寸之義)[18] 망연(妄然)[19]ᄒᆞᆯ 슈 업서 빈 ᄒᆞ인(下人) 부려시나 도로 무식ᄒᆞ더이다 식은 혼전(渾全) 근근(僅僅) ᄃᆡ탈(大頉) 업ᄉᆞ오나 치위 ᄒᆞᆫ디(寒地) 언 속 이 덧[20] 날셰의 밧어루신[21] 면예(緬禮)[22] 존졍(尊呈)이 염오일(念五日)[23] 지나시며 싀룝고 두로 슈란(愁亂) 각식(各色) 사렴(思念) 좌불안셕(坐不安席)[24]이오며 식은 우련[25] 광식(光色)[26]으로 가려 ᄒᆞ다가 젹셜(積雪)이 녀산(如山)ᄒᆞ와 쳔만싱(千萬生)의 못 파와(破瓦) 낙심(落心) 졍월(正月)노 가려 ᄒᆞ오나 졍 이도 못 김서방 평원[27] 가 잇고 회간(晦間)[28] 드러올 ᄃᆞᆺ 텰훈[29] 무양(無恙) 외이(外耳)[30] 풍훈셔습(風寒暑濕)[31]은 무론(毋論) 그져 조심(操心) 듕난(重難)[32]ᄒᆞ여 간장

---

17) 내니 : 지명.
18) 삼촌지의(三寸之義) : 촌수로 삼촌지간(三寸之間)이 되는 의리(義理).
19) 망연(妄然) : 잊은 듯함. 없는 듯함.
20) 이 덧 : 이 동안.
21) 밧어루신 : 시아버지.
22) 면례(緬禮) : 이장(移葬).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지냄.
23) 염오일(念五日) : 25일. 스물을 뜻하는 한어 '廿'(二十)의 중국 속음이 '念'과 더불어 [nian⁴]으로 같아지면서 '念'으로써 '廿'을 대신해서 적는 속습이 생겼다.
24) 좌불안석(坐不安席) : (근심 걱정으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함.
25) 우련 : '우련하다'의 어간으로서, 사물의 빛깔이 조금 나타나 보일 만큼 엷고 희미한 상태를 가리키는 부사.
26) 광식(光色) : '광색'을 '광식'으로 적은 듯하다.
27) 평원 : 지명.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平原洞).
28) 회간(晦間) : 그믐께.
29) 텰훈 : 인명.
30) 외이(外耳) : 겉귀.
31) 풍훈셔습(風寒暑濕) :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습기. 건강에 해로운 겨울과 여름의 나쁜 기상 조건.
32) 듕난(重難) : 어려움을 겹치게 겪음. 몹시 어려움.

(肝腸)이 녹을 듯 ᄃᆡ소가(大小家) 무고 참봉ᄃᆡᆨ의 무쳠(無添) 신인(新人)[33] ᄃᆡ탈 업습 하촌고[34] 각절(各節) 긴우(緊憂) 업ᄉᆞ오이다 알외옴 어득 졔ᄉᆞ(祭祀) ᄎᆞ려 보ᄂᆡ고 슈슈[35] 이만 알외오며 회편(回便)[36] 만슈무강(萬壽無疆) 신셰(新歲)[37] 불원(不遠) 슈하(手下)[38] 면면(面面) 슈복다길(壽福多吉) 만ᄉᆞ무ᄒᆞᆫ(萬事無恨)[39] 질기시ᄂᆞᆫ[40] ᄒᆡ 보셔보셔 고츅(告祝)ᄒᆞ옵나이다 졍월(正月) 염간(念間)[41] ᄉᆞ이 날 집허[42] 보ᄂᆡ시며 그 날 갈 듯 너기나이다

[추신]

토슈(套手)[43] 한 거리[44] 알외옵나이다[45]

---

33) 신인(新人) : 새색씨.

34) 하촌고 : 하촌도. '-도'라고 적어야 할 것을 실수로 '-고'라고 적었다. '하촌'은 지명이다.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35) 슈슈 : 수선스러워. '들레다'·'떠들다', 또는 '수선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수수하다'의 어근 '수수'로 추정된다.

36)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37) 신셰(新歲) : 새해.

38) 슈하(手下) : 손아래.

39) 만ᄉᆞ무ᄒᆞᆫ(萬事無恨) : '만사여의'(萬事如意)와 같은 말.

40) 질기시ᄂᆞᆫ : 끈덕지신.

41) 염간(念間) : 스무날 즈음.

42) 집허 : 짚어서. 지목(指目)해서.

43) 토슈(套手) : 토시. 팔뚝에 끼어 추위를 막는 방한구.

44) 거리 : 물건의 수효를 셀 때 50개를 하나의 단위로 이르는 말. 한 접의 반.

45) 알외옵나이다 : (예물로 드리고자) 아뢰옵나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아뢴다'라고 함은 편지에 딸려 가는 물품에 관하여 그 '물목(物目)으로서 밝혀 아뢴다'는 것으로서 한문 편지에 흔히 보이는 '下納'·'命納' 따위의 말과 더불어 그 기능이 같다.

3. 현대어역

아바님 앞에

그 쪽 문안(問安)은 온 겨울이 다하도록 아득하고 머오니, [제 비록] 못나고 무심한 것이오나 하염없이 우러러 궁금한 마음 헤아리지 못하옵니다. 추위가 매서운 이즈음, 기체후(氣體候) 안녕하시며 맛난 것도 없이 드시는 진지는 예와 같으신지, 지난 십 며칠 앞서 듣자오니, 외내에 와 계신 듯[하옵더니],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어 여독(旅毒) 없으시고, 슬하 내외 분 호첩하고 근심 겪으시는 가운데 아무 탈 없어 심려 없으시며, 새댁 무사하고, 동시는 방학해서 내려왔는지, 객지 고생 차마 못 잊히고, 번아 삼형제 아무 병 없이 집안 가득히 옥돌같이 아름다운 빛을 드리우는 듯하며, 복아도 내내 큰 탈 없고. 추위 이러하여 [복아네 신랑이] 삼행(三行)을 못[하니], 삼삼하여 저희 장모(丈母)가 못 견디어 하는 듯[하오이다]. [저에게도] 상답(上答)하는 명색[의 예물]은 많건 적건 간에 올해가 다 가기 앞서 보내실가 [싶더니], 기다려도 이내 기척도 없으니 답답하고 무색하오이다. 작은댁과 여러 집 무고(無故)하시고, 여러 곳 기별(寄別) 들으시며, 망천 집 모자녀(母子女) 무탈(無頉)[한지], 이즈음 더욱 [마음에] 사무치고, 내내는 내외분 회갑(回甲)을 성판(盛-)으로 치르신 듯[하매], 경사스러우며, 저도 삼촌(三寸) 사이에 속하는 의리로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축의를 전하려고] 빈 하인을 부렸으나 또다시 무색하더이다. 저희는 모두들 겨우겨우 큰 탈은 없사오나, 추위에 차가운 땅 얼어붙은 속, 이 동안 날씨에 시아버지 면례(緬禮)를 받잡아 치른 것이 스무 닷새 지나며 [그리운 마음이 더욱] 새롭고, 두루 근심스럽고 갖가지 걱정에 좌불안석(坐不安席)이오며, 저는 [오늘 새벽] 빛이 우련할 때에 [길을 나서] 가려 하다가 눈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하는

수 없이 못 [떠나고], 깨진 기왓장처럼 낙심(落心)…. 정월(正月)에나 가려 하오나 정 이도 못[할까 싶사옵니다]. 김 서방은 평원에 가 있고, 그믐께에 들어올 듯[하며], 철한이는 다른 병 없으나, 걸귀[앓이]로 풍한서습(風寒暑濕)은 말할 것도 없이 그저 조심해야 하고 [다스리기가] 몹시 어려워 애간장이 녹을 듯[하오이다]. 대소가(大小家) 무고하오며, 참봉댁도 아무 병 없으시고, 새색씨 큰 탈 없사옵고, 하촌도 모든 식구들 마음 졸이는 걱정거리 없사옵니다. 아뢰옴 [많사오나, 정신이] 어둑어둑[합니다]. 제사(祭祀) [지낼 제수(祭需)] 차려 보내고 수선스러워, 이만 아뢰오며, 회편(回便) [소식으로는], 만수무강(萬壽無疆)[하시고], 새해가 머지않은데 [아버님을 비롯해서] 손아래 여러분들 저마다 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뜻과 같기를 끈덕지게 누리는 한 해를 보시기를 비옵나이다. 정월 스무날께로 날을 짚어 보내시고, [저는] 그 날 갈 듯 [싶다고] 여기나이다.

[추신]

토시(套手) 한 거리 아뢰옵나이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이미 출가한 그의 딸이 보낸 편지이다.

08 1-06. 全柳_MF35-006424_1763(30x30cm): 딸→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1]급〃두어ᄌ알외옵ᄂ

이다회편후반월이되오니시로이향ᄒ와

굼겁ᄉ올분어린것들그덧더단ᄒ소문듯

고놀랍고조여〃알고져ᄒ오나알슈업ᄉ오니

답〃그동안ᄎ〃나아싱도들어ᄋ진심여업

ᄉ온지살들굼겁삽고근간일세혹넝ᄒ온

더연ᄒ와연만긔력더모긴쳠이옵셔침진

여젼ᄒ오시고슬하면〃무고어린놈들무ᄉ

츌장심여업ᄉ온지져부모간장보ᄂ둧

엇지키울고듕ᄂ조심〃슈곡은총〃ᄒ여

일젼긴고업고각곳두로무고ᄒ온지굼〃

식도근〃더우업ᄉ오나밧게셔간다ᄒ

여도햐락업기로못가ᄂ쥴아라삽더니불

시간다ᄒ고무슨등일쥬야귀통ᄒ고긔환치

아닌더가셔엇덜지조이오며어린것들번

거러셩〃치못심증나오며당너와촌젼그

만외가의도더우업삽고외아ᄌ마님셰젼

더젼탕을지나시고그만ᄒ시니엄〃가이

업삽고알외옴어득쟝황치못이만알외

오며너〃만위ᄒ시고만ᄉ여의심여업

ᄉᆞ오심지원이올소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급급(急急) 두어 ᄌᆞ(字) 알외옵ᄂᆞ이다 회편(回便)[1] 후(後) 반월(半月)[2]이 되오니 시로이 향(向)ᄒᆞ와[3] 굼겁ᄉᆞ올 분[4] 어린 것들 그 덧[5] ᄃᆡ단ᄒᆞᆫ[6] 소문(所聞) 듯고 놀랍고 조여 조여 알고져 ᄒᆞ오나 알 슈 업ᄉᆞ오니 답답 그 동안 ᄎᆞᄎᆞ(次次) 나아 ᄉᆡᆼ도(生道)[7] 들어 ᄋᆡ진[8] 심여(心慮) 업ᄉᆞ온지 살들[9] 굼겁ᄉᆞᆸ고 근간(近間) 일세(日勢)[10] 혹닝(酷冷)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연만(年晩) 긔력(氣力) ᄃᆡ모긴쳠(大無緊添)[11]이옵셔 침진

---

1)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2) 반월(半月) : 반삭(半朔). 반달.
3) 향(向)ᄒᆞ와 : 마음을 기울여.
4) 굼겁ᄉᆞ올 분 : 궁금할 뿐.
5) 그 덧 : 그 동안.
6) ᄃᆡ단ᄒᆞᆫ : (건강이나 목숨의 위태로움이) 매우 심한.
7) ᄉᆡᆼ도(生道) : 살아날 길. 생도(生道)는 흔히 생계(生計)·생로(生路)를 뜻하나, 여기서는 '살아날 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8) ᄋᆡ진 : 애타는. 괴로운. 근심에 쌓인 마음속이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뜻하는 '애'에 '한숨지다'·'그늘지다' 따위의 말을 만들어내는 접미사 '-지다'가 곧장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
9) 살들 : 살뜰. 간절(懇切)히. 지극(至極)히. '알들(-뜰)'과 '살들(-뜰)'은 본디 동일한 형태에서 출발했던 듯한데, 단독으로 쓰이거나 결합해서 쓰이는 가운데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0) 일세(日勢) : 날씨.
11) ᄃᆡ모긴쳠(大無緊添) : 긴급한 병환이 없이 대체로 건강함.

(寢進)[12] 여전(如前)ᄒᆞ오시고 슬하(膝下) 면면(面面) 무고(無故) 어린 놈들 무ᄉᆞ(無事) 츌장(出長)[13] 심여 업ᄉᆞ온지 져 부모(父母) 간장(肝腸) 보ᄂᆞᆫ 듯[14] 엇지 키울고 듕난(重難)[15] 조심(操心) 조심 슈곡[16]은 총총(悤悤)ᄒᆞ여 일전(日前) 긴고(緊苦) 업고 각(各)곳 두로 무고(無故)ᄒᆞ온지 굼굼 식(息)도 근근(僅僅) 대우(大憂) 업ᄉᆞ오나 밧게셔[17] 간다 ᄒᆞ여도 하락(許諾)[18] 업기로 못 가ᄂᆞᆫ 쥴 아라ᄉᆞᆸ더니[19] 불시(不時) 간다 ᄒᆞ고 무ᄉᆞᆫ 등(等) 일[20] 쥬야(晝夜) 귀퉁ᄒᆞ고[21] 기환치[22] 아닌 ᄃᆡ 가셔 엇덜지 조이오며 어린 것들 번거러[23] 셩셩(盛盛)치 못 심증(心症)[24] 나오며 당내(堂內)[25]와 촌젼(村前)[26] 그만 외가(外家)의도 대우(大憂) 업ᄉᆞᆸ고 외(外)아ᄌᆞ마님 세젼(歲前) 대젼탕(大全蕩)[27]을 지나시고[28] 그만ᄒᆞ

12)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13) 츌장(出長) : 나고 자람. 여기서는 다만 '자람'(長成)을 가리키고 있다.
14) 간장(肝腸) 보ᄂᆞᆫ 듯 : (몸을 쪼개어) 속을 들여다보는 듯. 몹시 애를 태우는 듯.
15) 듕난(重難) : 매우 어려움.
16) 슈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무실.
17) 밧게셔 : 바깥에서. (발신자의) 남편(男便)이.
18) 하락(許諾) : '허락'을 '하락'으로 적은 듯하다.
19) 아라ᄉᆞᆸ더니 : 알았더니.
20) 무ᄉᆞᆫ 등(等) 일 : 어떤 따위의 일.
21) 귀퉁ᄒᆞ고 : (집안의) 한 귀퉁이에 처 박혀 (무슨 일인가에) 골몰하고. '귀퉁(이)'에 '-하다'를 곧장 결합시킨 형태로 보인다.
22) 기환치 : 개운하지. '꺼림칙한 것이 없이 산뜻하다'라는 뜻의 '개운하다'를 남도 사투리에서 흔히 '개완하다'라고 하는데, '개완하다'의 발음을 '개환하다'로 인식한 데서 나온 표기인 듯하다.
23) 번거러 : 번갈아.
24) 심증(心症) : 짜증.
25) 당내(堂內) : 팔촌 이내의 친척.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유복친(有服親)으로서 대개는 팔촌 이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26) 촌젼(村前) : 지명.
27) 대젼탕(大全蕩) : 약명(藥名).

시니 엄엄(奄奄)[29] 가이업습고 알외옴 어득[30] 장황(張皇)치 못 이만 알외오며 니니 만위(萬慰)ᄒᆞ시고 만ᄉᆞ(萬事) 여의(如意) 심여 업ᄉᆞ오심 지원(至願)이올소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바삐 두어 자(字) 알외옵나이다. 답장[을 보내 드린] 뒤로 반달(半-)이 되오니, 새로이 [아버님께] 마음을 기울여 궁금하올 뿐. 어린 것들 그 동안 [목숨의 위태로움이] 대단했다는 소문 듣고서 놀랍고 마음이 죄고 죄어, [자세한 사정을] 알고자 하오나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동안에 차츰차츰 나아 [이제는] 살아날 길로 [접어] 들어 애타는 걱정만큼은 없으신지, 궁금한 마음 간절하옵고, 요사이 날씨가 매우 찬데, 연로하신 기력(氣力)에 긴급한 병환은 없으시며 침식(寢食)은 여전하시고, 슬하(膝下)의 저마다 무고하며, 어린놈들 무사히 자라 다른 걱정 없으신지. 저희 부모 간장을 [꺼내] 보려는 듯 [갖은 속을 다 태우니], 어찌 키울까 [하는 마음에] 거듭 어렵게 여겨지며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고, 수곡[에 사는 식구들]은 바삐 지내어 요사이 [듣자니] 마음 졸이는 괴로움은 없[다고 해]고, 여러 곳 두루 무고하온지 궁금[하옵니다]. 저희도 겨우겨우 큰 근심은 없사오나, 남편이 간다고 해도 허락(許諾)이 없어서 못 가는 줄로 알았더니, 느닷없이 간다고 하고[서는] 무슨 일인지 밤낮

28) 지나시고 : 탕제(湯劑)를 드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29) 엄엄(奄奄) : 숨이 곧 끊어질 듯함.

30) 어득 : 어둑어둑하여.

으로 한구석에 파묻혀 골똘하고, 개운치 않은 데 가서 어떨지 마음 죄오며, 어린 것들이 번갈아 성성치 못[하매] 짜증이 나오며, 당내(堂內)와 촌전 [식구들] 그만그만하고, 외갓집도 큰 근심 없으시고, 외갓집 아주버님께서는 설을 맞을 즈음에 [건강이 크게 나빠져] 대전탕(大全蕩)을 드시고 그만하시니 위태롭기 가없사옵고. 아뢰올 말씀 [많사오나], [정신이] 어둑어둑하여 길게 쓰지 못[하고], 이만 아뢰오며, 내내 평안하시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고 근심걱정 없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이미 출가한 그의 딸이 보낸 편지이다.

09 1-07. 全柳_MF35-006425_2270(26x40cm): 아들→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2]샹술이[移1]
[隔1]문안알외ᄋᆞᆸ고환세ᄒᆞ와날포되오니우
러와복모부리온시업ᄉᆞ오이다세젼외너

힝ᄎᆞ여러날만악풍의회환ᄒᆞ시와읫
나아니계오서신의년ᄒᆞ와[隔1]긔력만슈강녕
ᄒᆞ옵시기복츅진반근력이허무치ᄂᆞ아니신니
잇가슬하번부녀외티평무고ᄋᆞ옵고번아여
러슉딜면〃이슈복창원ᄒᆞ온일깃부옵
고성봉편ᄒᆞᆫ기별ᄌᆞ로드라신가낙〃못잇치
오며싀덕근친간듯잇더망극제ᄉᆞ년첩치
위힝ᄉᆞ엇지감당ᄒᆞ실고읫탁저근집과
할미녀무고ᄒᆞ온가두로굼〃외녀아ᄌᆞ미
갑일흔치아니신복력구비케지녀시니
경ᄉᆞ즐겁습더이다히지집초싱의온다니
반갑고막천집도가려ᄒᆞ는닷존샹박히
오이다식은싀후한가지시니희힝니옵고
일권니무고다힝이올소이다[隔1]아바요만복
논니녀기가즉히잇단니그계ᄂᆞ붓치거러쥬
시소다른죽ᄌᆞ의서못ᄒᆞ존케ᄒᆞ올터니오니
츄호도넘녀마시고쥬시소아직안밧기
그맛것데먹을심ᄉᆞ는ᄒᆞᄂᆞ도업ᄉᆞ오니
독히먹어불가넉니시지마시고쥬시면
칙넘ᄒᆞ여갈ᄂᆞ먹을거시오니부
더쥬시소밋고밋ᄂᆞ이다안히부로가
ᄂᆞ이다회편의거ᄂᆞ리시고강녕ᄒᆞ신
문안복츅ᄒᆞ옵ᄂᆞ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ᄋᆞᆸ고 환세(換歲)[1]ᄒᆞ와 날포 되오니 우러와 복모(伏慕) 부리온 시(時) 업ᄉᆞ오이다 세전(歲前)[2] 외ᄂᆡ[3] ᄒᆡᆼᄎᆞ(行次)[4] 여러 날만 악풍(惡風)의 회환(回還)ᄒᆞ시와 ᄋᆡ[5]나 아니 계오서신의[6] 년(連)ᄒᆞ와 긔력(氣力) 만슈강녕(萬壽康寧)ᄒᆞᄋᆞᆸ시기 복츅(伏祝) 진반(進飯) 근력(筋力)이 허무(虛無)치ᄂᆞᆫ 아니신니잇가 슬하(膝下) 번부(父)[7] ᄂᆡ외(內外) ᄐᆡ평(太平) 무고(無故) ᄋᆞᄋᆞᆸ고[8] 번아[9] 여러 슉딜(叔姪) 면면(面面)이 슈복챵원(壽福蒼遠)ᄒᆞ온 일 깃부ᄋᆞᆸ고 셩봉[10] 편(便)ᄒᆞᆫ 기별(寄別) ᄌᆞ로[11] 드라신가 낙낙(落落)[12] 못 잇치오며 시덕 근친(覲親)[13] 간 듯 잇디[14] 망극(罔極) 졔ᄉᆞ(祭祀) 년첩(連疊) 치위 ᄒᆡᆼᄉᆞ(行祀) 엇지 감당

---

1) 환셰(換歲) : 해가 바뀜.
2) 세전(歲前) : 새해가 되기 앞.
3) 외ᄂ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4) ᄒᆡᆼᄎᆞ(行次) : 웃어른이 길을 가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
5) ᄋᆡ : 수고로움.
6) 계오서신의 : 계오셨으니. 계시었으니.
7) 번부(-父) : '번이'(蕃-)의 아버지. 수신자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첫째 아들 유동시(柳東蓍, 1886~1961)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택번(澤蕃)·중번(重蕃)·필번(必蕃)을 아들로 두었다.
8) ᄋᆞᄋᆞᆸ고 : 아옵고.
9) 번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10) 셩봉 : 지명.
11) ᄌᆞ로 : 자주.
12) 낙낙(落落) :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양.
13)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와서 친정 어버이를 뵈는 일.
14) 잇디 : 이때.

(堪當)ᄒᆞ실고 ᄋᆡ탁(哀惗) 저근집과 할미ᄂᆡ 무고ᄒᆞ온가 두로 굼굼 외ᄂᆡ 아ᄌᆞ미 갑일(甲日) 흔치 아니신 복력(福力)[15] 구비(具備)케 지ᄂᆡ시니 경ᄉᆞ(慶事) 즐겁ᄉᆞᆸ더이다 ᄒᆡ지[16] 집 초ᄉᆡᆼ(初生)의 온다니 반갑고 막천[17] 집도 가려 ᄒᆞ는 닷 ᄌᆞᆫ상(殘像) 박히오이다[18] 식(息)은 ᄉᆡ후(時候)[19] 한가지시니 희ᄒᆡᆼ(喜幸)니ᄋᆞᆸ고 일권(一眷)니 무고 다ᄒᆡᆼ(多幸)이올소이다 아바요 만복[20] 논니 녀기 가즉히[21] 잇단니 그계ᄂᆞ[22] 붓치거러[23] 쥬시소 다른 ᄌᆞᆨᄌᆞ(作者)의서[24] 못ᄒᆞᄌᆞᆫ케[25] ᄒᆞ올 터니오니 츄호(秋毫)도 념녀(念慮) 마시고 쥬시소 아직 안밧기 그맛것[26] 데먹을[27] 심ᄉᆞ(心思)는 ᄒᆞᄂᆞ도 업ᄉᆞ오니 독(獨)히 먹어불가 넉니시지[28] 마시고 쥬시면 칙념(勅念)[29] ᄒᆞ여 갈ᄂᆞ[30] 먹을 거시오니 부ᄃᆡ 쥬시소 밋고 밋ᄂᆞ이다

---

15) 복력(福力) : 복된 운수.

16) ᄒᆡ지 : 지명. 해저(海底).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해저리(海底里).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셋째 아들, 유동영(柳東英, 1904~)의 가솔(家率)이 거주하던 곳이다.

17) 막천 : 지명. '망천'을 '막천'으로 적은 듯하다.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輞川里).

18) ᄌᆞᆫ상(殘像) 박히오이다 : 눈에 선하오이다.

19) ᄉᆡ후(時候) : 사시(四時)의 절후(節侯).

20) 만복 : 인명.

21) 가즉히 : 가지런히. 고스란히.

22) 그계ᄂᆞ : 그것이나.

23) 붓치거러 : 부치게. 경작(耕作)하게.

24) 다른 ᄌᆞᆨᄌᆞ(作者)의서 : 다른 사람보다. 여기에 보이는 '-의서'(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25) 못ᄒᆞᄌᆞᆫ케 : 못하지 않게.

26) 그맛것 : 그깟 것.

27) 데먹을 : 떼먹을.

28) 넉니시지 : 여기시지 '넉이시지'라고 적어야 할 것을 "넉니시지"라고 적었다. 한글 흘림에서, 다른 음절에 이어지는 '이'·'니'·'리'를 흔히 하나의 형태로 통용해서 쓰는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9) 칙념(勅念) : 삼감. 마음 씀씀이를 함부로 하지 아니함.

30) 갈ᄂᆞ : 나누어.

안히[31] 부로[32] 가ᄂᆞ이다 회편(回便)[33]의 거ᄂᆞ리시고[34] 강녕(康寧)ᄒᆞ신 문안 복축ᄒᆞ옵ᄂᆞ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해가 바뀐 지 하루 남짓 되오니, 우러러 그리운 마음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오이다. 새해가 되기 앞서 외내에 행차하신 여러 만에 몹쓸 바람 속에 돌아가시었으되 애나 아니 계시었으니, 이즈음 기력(氣力) 만수강녕(萬壽康寧)하오시기 비오며, 진지 드시는 일이며 근력이 없어지기나 아니하십니까? 슬하의 번이 아버지 내외 태평하고 무고한 줄 아옵고, 번아 여러 조카들 저마다 수복창원(壽福蒼遠)한 일 기쁘옵고, 성봉에서는 편하다는 기별 자주 들으시는지, 멀리에 떨어져 있어 못 잊히오며, 새댁은 근친(覲親)을 간 듯[하매], 망극(罔極)한 제사(祭祀)가 연첩(連疊)해 있으니, 추위 속에서 행사(行祀)를 어찌 감당(堪當)하실 것인지, 애처롭고…. 작은집과 할머니네 무고하온지 두루 궁금[하옵고], 외내 아주머니는 갑일(甲日)을 맞아 흔하지 않은 복력(福力)을 갖추어 지내시니 경사롭고 즐겁사옵더이다. 해지 집에서는 초승에 온다니

---

31) 안히 : 아내.

32) 부로 : 일부러.

33)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34) 거ᄂᆞ리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ᄂᆞ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學校난旅館(寄宿舍無하와)食
費二十一圓月謝金二圓二十錢
每月書冊五圓鉛筆鐵筆鐵水
洋襪除頭雜費가合하야
三十五圓可量이압고
演義專門學校난寄宿
舍食費十五圓可量이니雜
費合하야三十圓可量이옵
나이다여긔比하야도五圓은
남ᄉᆞ오니經濟的으로도이學
校가낫깃ᄉᆞᆸ고世上에셔아
라쥬기도이學校가第一
이압고卒業한后月給生活
이라도普成專門學校난
銀行金社業務員으로月
給未過五十圓이압고演義
專門學校난銀行金社書
記支配로月給百餘圓이옵
고卒業年限도各〃三個年
이오니不得不彼校로轉學
하깃ᄉᆞ이다轉學ᄒᆞ오면學
科中英語가어렵ᄉᆞ오나
그것은渠之誠不誠之所觀
이로쇼이다其學校로轉學
ᄒᆞ오면初月用費則如左ᄒᆞ

離膝遠遊陟屺瞻望
靡日不切郵便[隔1]下書伏
承伏喜伏拜審辰下[移1]
氣體候無換康寧眷
節亦泰平伏慰不任下
誠[小1]子客中眠食姑無現
歧主家及同館亦泰平
伏幸萬萬今番靴価錢遑
之初何以處送不肖之子以無
奉養之心反爲貽憂之罪
死罪〃〃每月空費旅費數
十圓夜學四時間爲主誠實不可而
昨日與同校生數人往見演
義專門學校〃長具述
此事情ᄒᆞ오니長曰校服之
費若何故로渠答自足이압
나이다ᄒᆞᆺ나이다當今演
義專門學校난京城에第一
일ᄲᅮᆫ外朝鮮에第一이압나
이다校長은西洋人이오學
科則文學科神學科商科
應用化學科如此이옵나이
다入學이되오면卽時此校로
轉學하깃삽나이다轉學얼
하오면學資金은普成專門

學校난旅館(寄宿舍無하와)食
費二十一圓月謝金二圓二十錢
每月書冊五圓鉛筆鐵筆鐵水
洋襪除頭雜費가合하야
三十五圓可量이압고
演義專門學校난寄宿
舍食費十五圓可量이니雜
費合하야三十圓可量이옵
나이다여긔比하야도五圓은
남ᄉᆞ오니經濟的으로도이學
校가낫깃ᄉᆞᆸ고世上에셔아
라쥬기도이學校가第一
이압고卒業한后月給生活
이라도普成專門學校난
銀行金社業務員으로月
給未過五十圓이압고演義
專門學校난銀行金社書
記支配로月給百餘圓이옵
고卒業年限도各〃三個年
이오니不得不彼校로轉學
하깃ᄉᆞ이다轉學ᄒᆞ오면學
科中英語가어렵ᄉᆞ오나
그것은渠之誠不誠之所觀
이로쇼이다其學校로轉學
ᄒᆞ오면初月用費則如左ᄒᆞ

오이다[移1]
校服六十五圓可量[小3]內衣弁
入學平償金六圓可量
書冊十五圓可量
當月食費先金雜費弁
二十圓[移1]
前月上來時旅費豫定不
不足十五圓(合一百二十一圓)
大若如此ᄒᆞ오니初入額如此
已而將來卽每月二十五圓可
量이로소이다渠之資產
을全托仲兄主前ᄒᆞ얏ᄉᆞ
오니最速〃付送케ᄒᆞ심
을伏望花仲兄主不在膝
前이어던他金錢을代用付
送ᄒᆞ시압고日後勘定을
伏望이압나이다此時期난
求之不得이오니速〃處
送케ᄒᆞ시와勿失此時期
케하시압쇼서渠之將來
成不成專在此期日後
旅館生活比較而每月
十圓은德하옵나이다餘
不備上白伏惟[移1]
下監[移1]

庚申九月初四日[小6]子東英[移1]
上白是

2. 전사 · 주석

父主 前 上答書

離膝遠遊 陟屺[1]瞻望 靡日不切 郵便 下書 伏承 伏喜 伏拜 審辰下氣體候無換康寧 眷節亦泰平 伏慰 不任下誠 子客中眠食姑無現歧 主家及同館亦泰平 伏幸萬萬 今番靴価錢遑[2]之初 何以處送 不肖[3]之子以無奉養之心 反爲貽憂之罪 死罪死罪 每月空費旅費數十圓 夜學四時間爲主 誠實不可 而昨日 與同校生數人 往見演義專門學校[4]校長 具述此事情ᄒᆞ오니 長曰 校服之費若何 故로 渠[5]答自足이압나이다 ᄒᆞᆺ나이다 當今 演義專門學校난 京城에 第一일 ᄲᅮᆫ外 朝鮮에 第一이압나이다 校長은 西洋人이오 學科則文學科·神學科·商科·應用化學科 如此이옵나이다 入學이 되오면 卽時 此校로 轉學하깃슙나이다 轉學얼 하오면 學資金은 普成專門學校[6]난 旅館(寄宿舍無하와) 食費 二十一圓 月

---

1) 陟屺 : 『시경』(詩經), 「척호」(陟岵)편 '陟彼岵兮, 瞻望父兮, 陟彼屺兮, 瞻望母兮.'에서 나온 말로서 '척호'(陟岵)와 같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함.
2) 錢遑 : '전황'(錢荒)과 같은 말로 추정된다. '전황'(錢荒)은 통화(通貨)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3) 不肖 : '불초'(不肖)와 같은 말이다.
4) 演義專門學校 : '연희전문학교'(延喜專門學校). 연세대학교의 전신.
5) 渠 : 우리말 '저'에 상당하는, 곧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한국 한자어. '渠'의 '저이· 저사람'(他·伊)이라는 뜻을 전용(轉用)한 것. '渠'는 본디 한어(漢語)에서도 특히 오(吳)나라 지역의 속어로서 '我儂'(나)에 대한 '渠儂'(저이)·'渠們'(저들)의 형태로 쓰인 말. (中國文化大學, 『中文大辭典』, 5책, 1376항 참조.)

謝金 二圓二十錢 每月 書冊 五圓 鉛筆·鐵筆·鐵水·洋襪·除頭[7]·雜費가 合하야 三十五圓 可量이압고 演義專門學校난 寄宿舍 食費 十五圓 可量이니 雜費 合하야 三十圓 可量이옵나이다 여긔 比하야도 五圓은 남ᄉᆞ오니 經濟的으로도 이 學校가 낫깃솝고 世上에서 아라쥬기도 이 學校가 第一이압고 卒業한 后 月給生活이라도 普成專門學校난 銀行金社 業務員으로 月給 未過五十圓이압고 演義專門學校난 銀行金社 書記支配로 月給 百餘圓이옵고 卒業年限도 各各 三個年이오니 不得不 彼校로 轉學하깃ᄉᆞ이다 轉學ᄒᆞ오면 學科中 英語가 어렵ᄉᆞ오나 그것은 渠之誠不誠之所觀이로쇼이다 其學校로 轉學ᄒᆞ오면 初月用費則 如左ᄒᆞ오이다 校服 六十五圓 可量 內衣幷 入學平債金 六圓 可量 書冊 十五圓 可量 當月 食費 先金 雜費 幷二十圓 前月 上來時 旅費豫定 不不足 十五圓(合一百二十一圓) 大若如此ᄒᆞ오니 初入額如此已而 將來卽每月 二十五圓 可量이로쇼이다 渠之資產을 全托仲兄主前ᄒᆞ얏ᄉᆞ오니 最速速付送케ᄒᆞ심을 伏望 花仲兄主不在膝前이어던 他金錢을 代用付送ᄒᆞ시압고 日後斟定을 伏望이압나이다 此時期난 求之不得이오니 速速處送케 ᄒᆞ시와 勿失此時期케 하시압쇼셔 渠之將來成不成 專在此期 日後 旅館生活 比較而每月 十圓은 德하옵나이다 餘不備 上白 伏惟 下監

庚申 九月 初四日 子 東英 上白是

---

6) 普成專門學校 : 고려대학교의 전신.

7) 除頭 : 이발(理髮).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답서(答書)

슬하(膝下)를 멀리 떠나와 객지(客地)에 유학(遊學)하매, 그리는 마음 간절치 아니한 날이 없사옵니다. 우편(郵便)으로 보내오신 글월 받자오니 기쁘옵니다. 엎드려 절하옵니다. 이즈음 아버님 기체후(氣體候) 변함없이 강녕(康寧)하시고, 집안 식솔(食率)이 또한 모두 태평(泰平)하시다니 적이 위로가 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는 객중(客中)에 먹고 자는 일은 잠시 어그러짐이 없으며 주인집 및 한집에 함께 사는 이들이 모두 태평하니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금번(今番)에, 화가(靴価)가 전황(錢遑)하던 처음에 [그만한 돈을] 어떻게 처분(處分)하여 보내 주셨는지요? 못난 이 놈은 어버이를 봉양할 마음도 없는 주제에 도리어 근심을 끼쳐 드렸으니, 거듭거듭 죽일 죄이옵니다. 매월 여비(旅費)는 수십 원을 허비하면서 야학(夜學)은 4시간을 위주로 하는 것은 진실로 할 수 없는 노릇인지라, 어제는 같은 학교 학생 몇 사람으로 더불어 연의전문학교(演義專門學校) 교장(校長)을 찾아가서 뵙고 이러한 사정을 갖추 말씀드리니 교장(校長)께서 "교복(校服) 값이 어떠한고?"라고 묻기에 제가 답하기를 "스스로 만족해 하나이다."라고 했사옵니다. 지금 연의전문학교(演義專門學校)는 경성(京城)에서 첫째가는 학교일뿐만 아니라 조선(朝鮮)에서도 첫째가는 학교입니다. 교장(校長)은 서양인(西洋人)이고, 학과(學科)는 문학과(文學科)·신학과(神學科)·상과(商科)·응용화학과(應用化學科) 따위가 있습니다. 입학이 되오면 곧바로 이 학교로 전학하겠습니다. 전학을 하오면, 학자금(學資金)은,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여관(旅館) (寄宿舍가 없어서) 식비(食費) 20원(圓), 월사금(月謝金) 2원 20전(錢), 매월 서책(書冊) 5원, 연필(鉛筆)·철필(鐵筆)·철

수필(鐵水筆)·양말(洋襪)·제두(除頭)·잡비(雜費)가 합해서 35원 가량이고, 연의전문학교(演義專門學校)는 기숙사 식비 15원 가량이니 잡비 합해서 30원 가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5원은 남사오니, 경제적으로도 이 학교가 낫겠고, 세상에서 알아주기도 이 학교가 첫째이고, 졸업한 뒤에 월급 생활이라도, 보성전문학교는 은행금사(銀行金社) 업무원(業務員)으로 월급이 50원을 넘지 못하고, 연의전문학교는 은행금사 서기지배(書記支配)로 월급 100여원이고, 졸업 연한(年限)도 저마다 3개년이니, 아니할 수 없이 저 학교로 전학하겠습니다. 전학하오면 학과 가운데 영어(英語)가 어렵사오나, 그것은 제가 성실히 하고 말고의 소관(所觀)이로소이다. 그 학교로 전학할 경우에 첫 달에 소용되는 학비는 다음과 같사옵니다. 교복 65원 가량, 내의(內衣)와 입학평채금(入學平債金) 6원 가량, 서책 15원 가량, 당월(當月) 식비 선금·잡비 아울러 20원, 전월(前月)에 올라올 때 예정했던 여비 부족 15원(합해서 1백 21원). 대체로 이와 같사오나, 처음 들어가는 액수가 이와 같을 뿐이지, 장래에는 매월 25원 가량이로소이다. 저의 자산(資産)을 전적으로 둘째형님께 맡겨 두었사오니,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 부쳐 보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화중(花仲) 형님이 슬전에 아니 계시거든 다른 금전을 대용(代用)으로 부쳐 주시고, 다른 날에 감정(勘定)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기는 얻으려도 얻을 수 없는 시기이오니, 빨리빨리 조처하여 보내도록 하시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의 장래의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여부가 오직 이 시기에 달려 있사옵니다. 앞으로 여관 생활과 비교해 보아도 10원은 이득이옵나이다. 이밖에 갖추어 쓰지 못하옵고 아뢰옵니다. 엎드려 삼각 헤아리옵니다. 굽어 살피소서.

경신(庚申 : 1920)년 9월 초4일, 아들 동영(東英)이 우러러 사뢰옴.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그의 셋째 아들 유동영(柳東英, 1901～)이 1920년에 보낸 편지이다.

11 1-09. 全柳_MF35-006421_634(23x31cm): 아들 → 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父主前[隔1]上白書[移1]
向在上白後已過數十日伏未審玆際[移1]
氣體候無換下節伯仲兄主體候萬安大
小眷節亦安均吉否伏慕區〃無任下誠之至[小3]不肖子
客中眠食姑保伏幸萬萬向在下書中空費時月
浪費金錢之責은渠亦知其非而無可奈何호
와非是로쇼이다其時上京而速〃周旋渡海러나
旅行券을許可치아니ᄒᆞ와官吏交際로因ᄒᆞ와
料理屋等家을四五次往來ᄒᆞ얏삽더니由此로人〃
皆祿花柳界從事云云故로卽時其踪을自禁
ᄒᆞ얍고速〃返面伏計러니自作之罪大過ᄒᆞ와
此處에셔一個年間商業이나ᄒᆞ와間〃語學이나

工夫ᄒᆞ압고其利益으로生活ᄒᆞ압고補充其
罪額코ᄌᆞᄒᆞ와如此ᄒᆞᆫ罪을自作ᄒᆞ얏숩더
니事不成而返加憂慮ᄒᆞ압고殆罪於他人까지
ᄒᆞ얏ᄉᆞ오니實渠之一身亡言其罪則難容於
此天地오語其事實則無面渡江이와留身之
策全無ᄒᆞ와不得已今日急行으로日本京康으로
가셔苦學伏計ᄒᆞ오니以此下諒千萬伏望餘伏祝
壽萬歲壽萬歲不備伏惟[移1]
下監[移1]
[隔2]五月晦日[小3]不肖子東英上白書

2. 전사 · 주석

父主 前 上白書[1)]
向在[2)] 上白後 已過數十日 伏未審[3)] 玆際[4)] 氣體候[5)]無換 下節[6)]伯仲

---

1) 上白書 : 존처(尊處)에 보내는 편지의 피봉에 흔히 '上書'·'上平書'·'上候書'와 같은 따위의 말을 쓰거나 또는 '上白書'를 쓴다. '上白書'의 '白書'는 이두(吏讀)에 보이는 '白是'(숣이)에 가깝다. (『儒胥必知』 單-43, 吏讀彙編.)
2) 向在 : '向日'·'向者'와 같은 말. '접때'·'지난날'을 뜻함.
3) 伏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伏未審 …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에 해당하는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투어. '伏未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비슷한 말로서, 존처의 안부를 물을 때에는 '伏未審'과 함께 '伏不審'·'伏問' 따위의 말을 쓰고, 존처에 대답할 때에는 '伏承審'과 함께 '伏拜審'·'憑伏審' 따위의 말을 쓴다. (『新編尺牘大方』, 28쪽 참조.) 편지에 흔히 쓰이는 '伏'이라는 말은 발신자의 모든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

兄主 體候[7]萬安 大小眷節[8]亦安均吉否 伏慕區區[9] 無任下誠之至[10] 不肖子 客中眠食姑[11]保 伏幸萬萬[12] 向在 下書中 空費時月 浪費金錢之責은 渠[13]亦知其非而無可奈何ᄒᆞ와 非是로쇼이다 其時 上京而速速周旋渡海러나 旅行券을 許可치 아니ᄒᆞ와 官吏交際로 因ᄒᆞ와 料理屋等家을 四五次 往來ᄒᆞ얏삽더니 由此로 人人皆祿花柳界從事云云 故로

어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투어이다. 존처에 두루 쓰인다.

4) 玆際 : 이즈음. '邇來'·'辰下'·'此時'·'比辰' 따위의 말과 함께 상대의 근황(近況)을 묻고자 하는 맥락에서 흔히 쓰이는 말. (『新編尺牘大方』, 28쪽 참조.)

5) 氣體候 : 기력(氣力)과 신체(身體)의 상태.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지극한 존처에 대하여 그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말. (『新編尺牘大方』, 28쪽 참조.)

6) 下節 : 편지에 흔히 쓰이는 '節'이라는 말은 '때에 따른 상태·정황'을 뜻한다. 따라서 '下節'이라고 하면 곧 슬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부를 비롯해서 사는 형편이나 건강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7) 體候 : '起居'와 같은 말로서, 존처에 대하여 그의 일상(日常)을 물을 때에 쓰인다.

8) 大小眷節 : 큰집과 여러 작은집에 딸린 모든 식솔(食率), 곧 권속(眷屬)·권솔(眷率)의 안부. 여기에서 말하는 '大小'는 곧 '大小家'를 뜻함.

9) 伏慕區區 : 엎드려 그리는 하찮은 몸. '區區'는 '잘다'의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

10) 無任下誠之至 : 그리는 마음이 지극하여 견딜 수 없음. '無任'은 '不任'과 같은 말로서 '견딜 수 없다'(不勝·不堪)라는 뜻을 지닌다. '下誠'은 '저의 정성스런 마음'을 뜻하는 바로서 '下懷'·'下情'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11) 姑 : 잠시(暫時)·고차(姑且)·잠차(暫且). 한문에 있어서 '姑'는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는 허사(虛詞)의 하나로서 동작·행위의 잠시성(暫時性)을 나타내거나 시간의 짧음을 나타낸다.(黃建霖·趙振鈞, 『文言虛詞彙解』, 中國集郵出版社, 1986. 57項.) '姑'의 뜻은 우리 옛말의 '아니한덛'·'아니한ᄉᆞᅀᅵ'에 비길 수 있다.

12) 伏幸萬萬 : '萬萬'은 횟수가 아주 많거나 여러 곱이 됨을 이르는 말. '伏幸萬萬'은 '매우 다행스럽다'·'다행스럽기 이를 데 없다'는 뜻.

13) 渠 : 우리말 '저'에 상당하는, 곧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한국 한자어. '渠'의 '저이·저사람'(他·伊)이라는 뜻을 전용(轉用)한 것. '渠'는 본디 한어(漢語)에서도 특히 오(吳)나라 지역의 속어로서 '我儂'(나)에 대한 '渠儂'(저이)·'渠們'(저들)의 형태로 쓰인 말. (中國文化大學, 『中文大辭典』, 5책, 1376항 참조.)

卽時 其踪을 自禁ᄒᆞ압고 速速 返面伏計러니 自作之罪大過ᄒᆞ와 此處에서 一個年間 商業이나 ᄒᆞ와 間間 語學이나 工夫ᄒᆞ압고 其利益으로 生活ᄒᆞ압고 補充其罪額코ᄌᆞ ᄒᆞ와 如此ᄒᆞᆫ 罪을 自作ᄒᆞ얏습더니 事不成而返加憂慮ᄒᆞ압고 殆罪於他人ᄭᅡ지 ᄒᆞ얏ᄉᆞ오니 實渠之一身亡言 其罪則難容於此天地오 語其事實則無面渡江이와 留身之策全無ᄒᆞ와 不得已 今日 急行으로 日本 京康으로 가셔 苦學伏計ᄒᆞ오니 以此下諒 千萬伏望 餘伏祝[14]壽萬歲壽萬歲 不備 伏惟 下監[15]

五月 晦日 不肖子 東英 上白書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글월

접때 글월 올린 뒤로 이미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이즈음 아버님 기체후(氣體候)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며, 슬하의 큰형님과 작은형님 체후(體候)도 만안(萬安)하시고, 위아래 모든 식솔(食率)이 또한 평안하고 두루 길경(吉慶)하옵니까? 그리는 마음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극하옵니다. 불초(不肖)한 자식은 타관살이에 먹고 자는 일이야 잠시 보전하고

---

14) 餘伏祝 : '餘'는 '이밖에'·'끝으로'의 뜻으로 편지의 끝맺음을 시작할 때에 흔히 쓰는 말. '伏祝'은 '(무엇을, 어찌어찌하기를) 빈다.'라고 할 때에 흔히 쓰는 말.

15) 不備 伏惟 下監 : '不備白'·'不備上書'·'不備上候書' 따위의 말과 함께 지극한 존처에 대하여 편지의 끝맺음에 쓰는 말. 不備 : 글을 '제대로 갖추어 쓰지 못했다'는 뜻으로 편지의 끝맺음에 쓰는 말. 伏惟 : '엎드려 삼가 헤아린다.'는 뜻으로, '伏未審'과 짝을 이루어 안부를 묻는 편지의 끝맺음에 쓰는 말. 답장을 할 때에는 같은 자리에 '恭惟'·'謹審' 따위를 씀. 下監 : 편지의 끝에 자신의 글을 '굽어 살펴 달라'고 공손히 간청하는 뜻으로 붙이는 말.

있으니 다행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접때 내려 주신 글월 가운데 '세월을 허비하고 금전을 낭비했다.'는 꾸중의 죄책(罪責)으로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 잘못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달리 어찌할 수 없었거니와, 옳은 일이 아니었사옵니다. 당시에, 상경(上京)하여 빨리빨리 도해(渡海)를 주선(周旋)하고자 했으나 여행권(旅行券)을 허가(許可)해 주지 아니하여, 관리(官吏) 교제(交際)로 말미암아 요릿집 등을 네다섯 차례 들락거렸더니, 이런 일을 들어 사람들이 '화류계(花柳界)를 먹여 살리는 일에 종사한다.'고들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발걸음을 스스로 끊고 몸가짐을 돌이키고자 했더니, 스스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곳에서 1년 동안 상업(商業)이나 해서 틈틈이 어학(語學)이나 공부하고 그 이익(利益)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죄액(罪額)을 보충하고자 하여 스스로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던 것인데, 일은 이루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려(憂慮)할 바를 더해 드렸고 거의 남에게까지 죄를 지었사오니, 실로 저의 일신(一身)은 할 말이 없사오며, 그 죄는 이 천지(天地)에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사실로 말하면 도강(渡江)할 면목이 없을 뿐더러 여기에 몸을 두고 머무를 대책이 전혀 없어, 아니할 수 없이 오늘 급행(急行)으로 일본(日本) 경강(京康)으로 가서 고학(苦學)하고자 하오니, 이렇게만 하량(下諒)해 주시기를 천만(千萬) 바라옵나이다. 그밖에 오래오래 사시기를, 오래오래 사시기를 비나이다. 갖추어 쓰지 못하옵니다. 엎드려 삼가 헤아리옵니다. 굽어 살피소서.

5월 그믐날, 못난 아들 동영(東英)이 우러러 사뢰는 글월.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그의 셋째 아들 유동영(柳東英, 1901~)이 보낸 편지이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51의 내용에 따르면, 유동영은 1920년을 전후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런데 유연박은 또한 1925년에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이 편지는 1923년이나 1924년에 유동영이 대학을 마친 뒤에 도일(渡日)을 계획하던 즈음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2 1-10. 全柳_MF35-006421_615(23x45cm): 아들→아버지(1935)

1. 판독

[隔2]父主前[隔2]上白是[移1]
幾十日之間信息이寂阻하와下懷伏悵이압든
차伏承[隔1]下書하오니伏喜萬〃이로소이다伏不
審春意漸新하온대[移1]
外在二位分氣體候一享萬康하오며月村及村
在上下老少諸節이幷在均吉否잇가伏慕區〃
不任下誠之至로소이다[小1]子도眠食이無頉이옵고
事業은아직까지解氷이못된關係로困難이오

나前年에比하오면最廣場幾處에新穴이發
現이되여서現今은글이優秀치못하오나將來
넌有望할것갓하옵고또石鑛줄이幾處發現될
것갓하옵니다叔父主께서넌正月初三日에原
州서片紙가오고其後에넌尙今까지消息이업습
니다京城永興으로幾十次此處事業及平北慈城
新登錄關係로上書올렷사오나下書가업삽
기不得二十二日頃에叔父主消息듯기위하야京
城얼幾日間단녀올라하압니다上京하여서
叔父主럴相逢하오면父主下書대로上達하서
서叔父主意向대로다시上白올이겟습니다
龍潭叔主地土條넌臨河叔主許에넌百円얼바
든것갓함니다其時龍潭叔主도갓치參觀이되
엿스니龍潭叔主에게探問하시면아실것임니다
百円中最初에八十円얼收捧한것것갓하옵고其後
二十円얼바든가십흡니다黃秉肅이最初에준
것얼探問하시압소서글이고父主게넌金錢얼
밧지안엇삽고峨谷叔主에게二十円얼차진것갓함
니다最初말이其土地還退代金은百二十円이
오나現共時時價가百五十円이되오니其餘三十円
얼龍潭叔主럴주신다하시고谷收럴주시지
안으섯습닛까一年이갓가왓삽기각중에生
覺이나지안하오니龍潭叔主에게下問하시
압소서餘不備[移1]
上白[移1]

[隔5]乙亥二月十八日[小1]子重蕃上白是

2. 전사 · 주석

父主 前 上白是[1)]

幾十日之間 信息이 寂阻하와 下懷伏悵[2)]이압든 차 伏承下書하오니 伏喜萬〃이로소이다 伏不審 春意漸新하온대 外在 二位分 氣體候 一享萬康하오며 月村及村在上下老少 諸節[3)]이 幷在均吉否잇가 伏慕區區[4)] 不任下誠之至[5)]로소이다 子도 眠食이 無頉이옵고 事業은 아직까지 解氷이 못된 關係로 困難이오나 前年에 比하오면 最廣場 幾處에 新穴이 發現이 되여서 現今은 글이 優秀치 못하오나 將來넌 有望할 것 갓하옵고 또 石鑛줄이 幾處 發現될 것 갓하옵니다 叔父主께서넌 正月 初三日에 原州서 片紙가 오고 其後에넌 尙今까지 消息이 업습니다 京城 永興으로 幾十次 此處事業及平北慈城 新登錄 關係로 上書 올렷사오나 下書가 업삽기 不得 二十二日頃에 叔父主 消息 듯기 위하야 京

---

1) 上白是 : 존처(尊處)에 보내는 편지의 피봉에 흔히 쓰이는 투어. '上'은 '올린다.'는 뜻의 한자어이고, '白是'는 곧 이두(吏讀)에 보이는 '白是'(숣이)로서 '살이(사뢰)'의 차자 표기이다. (『儒胥必知』 單-43, 吏讀彙編)

2) 下懷伏悵 : '下懷'는 '下情'·'下誠'과 같은 바로서 '나의 마음'을 낮추어 나타내는 투어. '伏悵'의 '伏'은 존처에 대하여 나의 모든 행위·감정을 공손히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투어.

3) 諸節 : 존처(尊處)에 해당하는 수신자 집안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그 형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4) 伏慕區區 : 엎드려 그리는 하찮은 몸. '區區'는 '잘다'의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

5) 不任下誠之至 : 그리는 마음이 지극하여 견딜 수 없음. '不任'은 '無任'과 같은 말로서 '견딜 수 없다'(不勝·不堪)라는 뜻을 지닌다.

城얼 幾日間 단녀올라 하압니다 上京하여서 叔父主럴 相逢하오면 父主 下書대로 上達하서서 叔父主 意向대로 다시 上白 올이겟습니다 龍潭[6] 叔主 地土條넌 臨河[7] 叔主許에넌 百円얼 바든 것 갓합니다 其時 龍潭 叔主도 갓치 參觀이 되엿스니 龍潭 叔主에게 探問하시면 아실 것 임니다 百円中 最初에 八十円얼 收捧한 것 갓하옵고 其後 二十円얼 바든가 십흡니다 黃秉肅이 最初에 준 것얼 探問하시압소서 글이고 父主게넌 金錢얼 밧지 안엇삽고 峨谷 叔主에게 二十円얼 차진 것 갓합니다 最初 말이 其土地 還退代金은 百二十円이오나 現共時時價가 百五十円이 되오니 其餘 三十円얼 龍潭 叔主럴 주신다 하시고 谷收럴 주시지 안으섯습닛까 一年이 갓가왓삽기 각중에 生覺이 나지 안하오니 龍潭 叔主에게 下問하시압소서 餘不備 上白

乙亥 二月 十八日 子 重蕃 上白是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몇 십일 동안이나 소식이 막혀 마음에 슬프던 때, 내려 주신 글월을 받자오니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봄빛이 점차로 새로운 이즈음, 밖에 나신 두 분 기체후(氣體候) 한결로 만강(萬康)하오며 월촌(月村) 및 마을에 계신 상하노소(上下老少) 여러 분들 모두 두루 평길(平吉)하오니까? 그리는 마음 지극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저도 먹고 자는 일에 아무

6) 龍潭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 용담(龍潭).

7) 臨河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臨河面).

탈 없고, 사업은 아직까지 해빙(解氷)이 못 된 관계로 곤란하오나, 전년에 비하면 가장 넓은 지대 몇 군데에 새로운 광맥(鑛脈)이 발견되어 지금은 그다지 좋지는 못하나 장래에는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또 석광(石鑛) 줄 몇 군데가 발견될 것 같습니다. 숙부님께서는 정월(正月) 초사흘에 원주(原州)에서 편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경성(京城)과 영흥(永興)으로 몇 십 차례 이곳 사업 및 평북(平北) 자성(慈城)에서 벌일 사업을 새로 등록(登錄)하는 문제로 상서(上書) 드렸사오나 하서(下書)가 없기에, 부득이 22일 경에 숙부님 소식 듣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며칠 동안 다녀오려 하옵니다. 상경하여 숙부님을 상봉하게 되면 아버님 편지대로 상달(上達)하고 숙부님 의향대로 다시 상서 올리겠습니다. 용담(龍潭) 숙부님 토지(土地) 건은, 임하(臨河) 숙부님에게서는 100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용담 숙부님도 같이 참관(參觀)이 되었으니, 용담 숙부님에게 탐문(探問)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100원 가운데 최초에 80원을 받은 것 같삽고, 그 뒤에 20원을 받았던가 싶습니다. 황병숙(黃秉肅)이 최초에 준 것을 탐문하십시오. 그리고 아버님께는 금전을 받지 않았었고, 아곡(峨谷) 숙부님에게 20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최초의 말이 그 토지 환퇴(還退) 대금(代金)은 120원이오나, 현재 공시시가(共時時價)가 150원이 되오니, 그 나머지 30원을 용담 숙부님에게 주신다 하시고, 곡수(谷收)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1년이 다 된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 용담 숙부님에게 하문(下問)하시옵소서. 이만 줄이옵니다.

을해(乙亥 : 1935) 2월 18일, 아들 중번(重蕃) 살이.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종손이 되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첫째 아들 유동시(柳東蓍, 1886～1961)에게 그의 둘째 아들 유중번(柳重蕃, 1907～1944)이 1935년에 보낸 편지이다.

13 1-11. 全柳_MF35-006422_932(23x48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2]샹술이[移1]
문안알외옵고그곳문안은슉〃ᄒᆞ오나
이맛술이도ᄌᆞ로알외옵지못죄탄
무지올소이다아러션네할미오는
편듯ᄌᆞ오니근간딕쳠은아니게옵신
듯만〃즐겁ᄉᆞ오며망극ᄒᆞ신제ᄉᆞ격
이나환가ᄒᆞ실가바라옵다가낙심
불초ᄒᆞ온죄탄이오며화챵일긔에
연ᄒᆞ와연만ᄒᆞ옵신긔톄후날ᄉᆞ
이손샹지환이나아니게옵셔글역동
죽이방ᄉᆞᄒᆞ옵셔일양강영ᄒᆞ옵시니잇가

외오용녀무궁ᄒᆞ오이다슬젼둘집
쟝유로안영무고ᄒᆞ오며ᄉᆡ뎍바라
던소망을일우어어린것쥰슈비범
한쥴든〃잉안도자로왕ᄂᆡᄒᆞ여무고
ᄒᆞ오며각쳐혹듯ᄌᆞ와ᄀᆡᆨ심여업
ᄉᆞ시니잇가예도편타못밧ᄀᆡ셔젼증
발족날포되오니절박ᄉᆞᆸ고식도
ᄃᆡ병업ᄉᆞ오나눈도낫지아니옵고각
ᄉᆡᆨ슈란못견ᄃᆡ올듯아희들무탈이오나
파려들심증나옵고제ᄉᆞ도어언간지
나시니원악늑겁ᄉᆞᆸ고외ᄂᆡ셔ᄒᆞ
인왓고아ᄌᆞ바님날포위와ᄒᆞ신듯
놀납ᄉᆞᆸ더이다졈쥬제사에식케
ᄒᆞ려조곰ᄒᆞ엿다가소〃ᄒᆞ나한번ᄌᆞ
셔보실가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그곳 문안은 ᄉᆞᆨᄉᆞᆨᄒᆞ오나[1] 이맛 술이[2]도 ᄌᆞ로[3]

---

1) ᄉᆞᆨᄉᆞᆨᄒᆞ오나 : (궁금하여) 속이 바싹 마르는 듯하오나. '(모래처럼) 사박사박하다', 또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삭바삭하다'라는 뜻의 '삭삭ᄒᆞ다'에서 나온 말이다. "삭삭기 세몰애 별헤"(『鄭石歌』, 제1장.)에 보이는 '삭삭기'와 "삭삭ᄒᆞᆫ ᄲᅧ ᄉᆞᆺ(脆骨)"(『老乞大諺解』 下-34.)에 보이는 '삭삭ᄒᆞᆫ'을 참고할 만하다.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알외옵지 못[4] 죄탄(罪歎) 무지(無地)올소이다 아릐[5] 션네[6] 할미 오는 편 듯ᄌᆞ오니 근간 ᄃᆡ쳠(大添)[7]은 아니 게옵신 듯 만만(萬萬)[8] 즐겁ᄉᆞ오며 망극(罔極)ᄒᆞ신 제ᄉᆞ(祭祀) 격이나 환가(還家)ᄒᆞ실가 바라옵다가 낙심(落心) 불초(不肖)ᄒᆞ온 죄탄이오며 화창(和暢) 일긔(日氣)예 연(連)ᄒᆞ와 연만(年晩)ᄒᆞ옵신 긔톄후(氣體候) 날ᄉᆞ이[9] 손상지환(損傷之患)이나 아니 게옵셔 긔역(筋力) 동작(動作)이 방ᄉᆞ(倣似)ᄒᆞ옵셔 일양(一樣) 강영(康寧)ᄒᆞ옵시니잇가 외오[10] 용녀(用慮) 무궁(無窮)ᄒᆞ오이다 슬젼(膝前) 둘[11] 집 쟝유(長幼)로 안영(安寧) 무고(無故)ᄒᆞ오며 싀ᄃᆡᆨ 바라던 소망(素望)을 일우어 어린 것 쥰슈(俊秀) 비범(非凡)한 줄 든든 밍안[12]도 자로 왕ᄂᆡ(往來)ᄒᆞ여 무고ᄒᆞ오며 각쳐(各處) 혹(或) 듯ᄌᆞ와 ᄀᆡᆨ심여(客心慮)[13] 업ᄉᆞ시니잇가 예도 편(便)타 못 밧긔셔[14] 젼증(癲症)[15] 발작(發

出版部, 2000. 435쪽 참조.)

2) 이맛 술이 : 이까짓 살이. 특별한 사연이 없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의 편지. 이른바 '그맛'이 '그깟(그까짓)'을 뜻하는 것처럼 '이맛'은 '이깟(이까짓)'을 뜻한다.

3) ᄌᆞ로 : 자주.

4) 알외옵지 못 : 알외옵지 못하여. '못하여'라고 할 자리에 단순히 '못'이라고만 한 용례가 다른 여러 편지에 흔히 보이며, 더욱이 '못'에서 문장을 끝맺는 경우도 흔히 보인다.

5) 아릐 : 그저께.

6) 션네 : 인명.

7) ᄃᆡ쳠(大添) : '대환첨손'(大患添損)의 준말. 큰 병으로 신체 건강에 손상을 입음. '대탈'(大頉)과 같은 뜻.

8) 만만(萬萬) : 거듭거듭.

9) 날ᄉᆞ이 : 지난 며칠 동안. 여기서는 '그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10) 외오 : 멀리서.

11) 둘 : 두.

12) 밍안 : 인명.

13) ᄀᆡᆨ심여(客心慮) : 느닷없는 걱정거리. 또는 엉뚱한 걱정. 한어의 '客'은 흔히 '느닷없다'(橫)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 '손'(客)도 '마마' 따위의 말과 상통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드는 질병'을 뜻하는 점에서는 한어의 '客'과 더불어 맥락이 같다.

作) 날포[16] 되오니 졀박(切迫)습고 식(息)도 딕병(大病) 업ᄉᆞ오나 눈도 낫지 아니옵고 각식(各色) 슈란(愁亂) 못 견딕올 둣 아히들 무탈(無頉)이오나 파려들[17] 심증(心症)나옵고[18] 졔ᄉᆞ도 어언간 지나시니 원악 늑겁습고[19] 외닉[20]셔 ᄒᆞ인(下人) 왓고 아ᄌᆞ바님 날포 위와(危臥)[21]ᄒᆞ신 둣 놀납습더이다 졈쥬(店主) 졔사에 식케(食醢) ᄒᆞ려 조곰 ᄒᆞ엿다가 소소(小少)ᄒᆞ나 한번 ᄌᆞ셔 보실가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그곳 문안은 애타도록 궁금하오나, 이깟 살이도 자주 아뢰옵지 못[하오니], 죄스러운 탄식에 몸 둘 바 없소이다. 그저께에 선례 할머니 오는 편에 들으니, 요즘에 큰 병환은 아니 계신 듯[하여], 거듭거듭 기쁘오며, 망극(罔極)한 제사(祭祀) 적에나 집에 돌아오실가 바라옵다가 낙심[하게 되오니], [남은 것은 다만] 불초한 저의 죄스러운 탄식이오며, 화창(和暢)한 날씨에 즈음하여, 연로하신 기체후(氣體

---

14) 밧긔셔 : '밨'이란 곧 '바깥'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며느리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의셔'는 '-에서'에 해당하는 조사로서 여기에서는 주격을 표시.

15) 젼증(癲症) : 지랄병.

16)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17) 파려들 : '파려한 일들'이라고 할 것을 "파려들"로 곧장 줄인 말. '파려하다'는 '고달프다'(憊)의 옛말. (劉昌惇, 『李朝語辭典』, 722쪽 참조.)

18) 심증(心症)나옵고 : 짜증스럽고.

19) 늑겁습고 : 느껍사옵고.

20) 외닉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21) 위와(危臥) : 위급한 병으로 아파 자리에 누움.

候) 그동안 다칠 만한 병환이나 아니 계시어, 근력(筋力)과 동작(動作)이 예와 같이 한결로 강녕(康寧)하오십니까? 멀리서 걱정하는 마음 그지없사오이다. 슬전(膝前)의 두 집 위아래로 안녕하고 무고하며, 새댁은 바라던 소망을 이루어, 어린 것이 준수하고 비범한 줄 [여겨지니] 든든. 맹안도 자주 오고가매 무고하오며, 여러 곳 소식 혹은 들으시매 느닷없는 걱정거리는 없으십니까? 여기도 편안하다고는 못[하오니], 바깥양반이 전증(癲症)이 발작(發作)하여 하루 남짓 되오니 절박하옵고, 저도 큰 병은 없사오나, 눈도 낫지 아니하옵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근심으로 못 견딜 듯[하오이다]. 아이들은 아무 탈 없사오나, 고달픈 일들 짜증스럽고, 제사도 어언 지났으매 워낙 느껍사옵고, 외내(外內)에서 하인(下人)이 왔었고, [하인이 전하는 소식을 듣자니] 아주버님께서 하루 남짓 위태로운 병증으로 드러누우셨던 듯[하매] 놀랍더이다. 점주(店主) 제사에 식혜(食醯)를 한답시고 조금 하였다가, 얼마 아니 되오나, 한번 드셔 보실까.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5_940을 비롯해서 2257·2282·662와 더불어 동일한 필체를 보여 주는 편지로서,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이다.

1-12. 全柳_MF35-006422_940(24x62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상술이[移1]
문안알외오며이동안문안이아득
막히오니혹무슨연고나아니게옵
신지불초호졍이오나복모부리
온시업ᄉ오이다국츄일긔닝〃ᄎ
온ᄃ연호와[隔1]부모님게오셔억만
ᄋ회덤〃탐ᄉ오신중ᄃ환쳠손
이나아니게옵시와슉진등호일양
방ᄉ호오셔지강호옵시니잇가육
심니지허이오나쳘니애다람업ᄉ오
니굼겁ᄉ온호졍부리온시업ᄉ오
이다어마님게셔혹히산이나아니하옵
신지용여되옵고슬젼아ᄌ바님너
외분슈다소임이신중쳠졀업ᄉ오
셔더확실호오셔심여업ᄉ시고도
련님게셔만복토일츌우옵신듯
경식롭습고회편듯ᄌ와신인범절
이층의호옵실일긧겁ᄉ오이다
용담아ᄌ마님삼솔분평안무탈하
오며용게슉도무고호옵고가역은

엇지되옵신지굼겁습고텩산갓하신
심여지력도감당못ᄒᆞ옵실듯
우러와ᄋᆡ탁두립ᄉᆞ오이다져근뎍
애도삼더소텩층〃분쳠환들아
니게옵시니잇가한들박곡각뎍
느리안샹이시고각쳐안신열낙
긔심우업ᄉᆞ시니잇가두로향회
그지업ᄉᆞ오이다예도어버이미류중
환왕복이무샹ᄒᆞ옵시니구미근
역여지업ᄉᆞ오시니ᄉᆞ졍의ᄋᆡ민ᄉᆞ
오이다여외권솔쟝소로일양이
시고슉젼양더분무쳠이시고각
가두로무연고시니든〃ᄒᆞ옵고곡
[上]묵뎍애는신힝ᄒᆞ여신인범졀이극호조하들ᄒᆞ오시니긧겁습고[小1]식
도현시더병
은업ᄉᆞ오나속증지졀은낫지아니
오니지리귀촌ᄒᆞ오이다이말숨죄
롭ᄉᆞ오나식로편지답은부모님게
셔요량ᄒᆞ여쥬시면황송ᄒᆞ올
듯맛동셔명식이오니너모소〃할
슈도업ᄉᆞ올더엇지ᄒᆞ오리잇가
가역과혼인도지나시고각식이로
ᄌᆞ이시긔젹지아니실쥴모라옵지
아니오나구쳐업습고금즉져고리
한가음에육칠원간다ᄒᆞ오니

겁박업ᄉᆞ오이다부모님게셔모라
시면[小1]식이엇지ᄒᆞ깃습닛가가질
심여만듭ᄉᆞ오니불초ᄒᆞ정이오
나식식죄롭ᄉᆞ오이다문안이하도
막히오니비온ᄒᆞ인이라도진즉
부려듯즙고져ᄒᆞ온거시ᄌᆞ연이
리천연ᄒᆞ오이다회망은거ᄂᆞ리옵
시고여젼ᄒᆞ오신문안축이올소이
다바히비온술이죄롭ᄉᆞ오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오며 이 동안 문안이 아득 막히오니 혹(或) 무ᄉᆞᆫ 연고(緣故)나 아니 게옵신지 불초ᄒᆞ정(不肖下情)이오나 복모(伏慕) 부리온 시(時) 업ᄉᆞ오이다 국츄(菊秋) 일긔(日氣) 닝닝(冷冷) ᄎᆞ온ᄃᆡ 연(連)ᄒᆞ와 부모님게오셔 억만(億萬) ᄋᆡ회(哀懷) 덤덤 탐ᄉᆞ(探査)오신 즁(中) ᄃᆡ환쳠손(大患添損)[1]이나 아니 게옵시와 슉진(宿進) 등호(等許)[2] 일양(一樣) 방ᄉᆞ(倣似)[3]ᄒᆞ오셔 지강(至康)ᄒᆞ옵시니잇가 육십니지허(六十里之許)이오나 쳔니(千里)애 다람 업ᄉᆞ오니 굼겁ᄉᆞ온 ᄒᆞ정(下情)[4] 부리온

---

1) ᄃᆡ환쳠손(大患添損) : 큰 병으로 신체 건강에 손상을 입음.
2) 등호(等許) : '등졀'(等節)과 같은 말로서, 어떠어떠한 따위의 일이 처해 있는 상태나 형편을 뜻하는 말로 추정된다.
3) 방ᄉᆞ(倣似) : '여전'(如前)과 같은 말이다.

시(時) 업ᄉᆞ오이다 어마님게셔 혹 ᄒᆡ산(解産)이나 아니하옵신지 용여(用慮) 되옵고 슬젼(膝前) 아ᄌᆞ바님 ᄂᆡ외(內外)분 슈다(數多) 소임(所任)이신 중 쳠졀(添節)[5] 업ᄉᆞ오셔 더 확실(確實)ᄒᆞ오셔 심여(心慮) 업ᄉᆞ시고 도련님게셔 만복(萬福) 토일(吐日) 츌우(出雨)옵신 듯 경ᄉᆡ(慶事ㅣ)롭습고 회편(回便)[6] 듯ᄌᆞ와 신인(新人)[7] 범졀(凡節)이 층의(稱義)[8]ᄒᆞ옵실 일 긧겁ᄉᆞ오이다[9] 용담[10] 아ᄌᆞ마님 삼솔(三率)[11] 분 평안(平安) 무탈(無頉)하오며 용게[12] 슉(叔)도 무고(無故)ᄒᆞ옵고 가역(家役)은 엇지 되옵신지 굼겁습고 ᄐᆡ산(泰山) 갓하신 심여 ᄌᆡ력(財力)도 감당(勘當) 못ᄒᆞ옵실 듯 우러와[13] ᄋᆡ탁(哀怛) 두립ᄉᆞ오이다 져근ᄃᆡᆨ애도 삼ᄃᆡ(三代) 소ᄐᆡᆨ(小宅) 층〃(層層)분 쳠환(添患)들 아니 게옵시니잇가 한들[14] 박곡[15] 각ᄃᆡᆨ 느리[16] 안샹(安常)이시고 각쳐(各處) 안신(雁信) 열낙(連絡) ᄀᆡᆨ심우(客心憂)[17] 업ᄉᆞ시니잇가 두로 향회(向懷) 그지업ᄉᆞ오이다 예도

---

4) ᄒᆞ졍(下情) : 저의 마음. '하회'(下懷)·'하성'(下誠)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5) 쳠졀(添節) : 병환(病患). 또는 병환중의 건강 상태.

6)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7) 신인(新人) : 새댁.

8) 층의(稱義) : 의로움을 추기어 줌. '칭의'(稱義)의 발음을 '층의'라고 적은 것으로 추정.

9) 긧겁ᄉᆞ오이다 : 마음으로 매우 기쁘오이다.

10) 용담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 용담(龍潭).

11) 삼솔(三率) : 삼대(三代).

12) 용게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용계리(龍溪里).

13) 우러와 : 우러러.

14) 한들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한들. 무실 서쪽에 있는 마을.

15) 박곡 : 지명. 박실.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16) 느리 : 늘. 언제나.

17) ᄀᆡᆨ심우(客心憂慮) : 느닷없는 걱정거리. 또는 엉뚱한 걱정. 한어의 '客'은 흔히 '느닷없다'(橫)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 '손'(客)도 '마마' 따위의 말과 상통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드는 질병'을 뜻하는 점에서는 한어의 '客'과 더불어 맥락이 같다.

어버이 미류(彌留)[18] 중환(重患) 왕복(往復)이 무상(無常)ᄒᆞ옵시니 구미(口味) 근역(筋力) 여지(餘地) 업ᄉᆞ오시니 ᄉᆞ졍(私情)의 ᄋᆡ민(哀悶)[19] ᄉᆞ오이다 여외(餘外) 권솔(眷率) 쟝소(長少)로 일양(一樣)이시고 슉젼(叔殿)[20] 량ᄃᆡ(兩臺)분 무쳠(無添)[21]이시고 각가(各家) 두로 무연고(無緣故)시니 든든ᄒᆞ옵고 곡묵덕애는 신ᄒᆡᆼ(新行)[22]ᄒᆞ여 신인 범졀이 극호(極好) 조하들 ᄒᆞ오시니 긧겁습고 싀(息)도 현시(現時) ᄃᆡ병(大病)은 업ᄉᆞ오나 속증지졀(-症之節)은 낫지 아니오니 지리(支離)[23] 귀촌ᄒᆞ오이다 이 말ᄉᆞᆷ 죄(罪)롭ᄉᆞ오나 싀로 편지 답(答)은 부모님게셔 요량(料量)ᄒᆞ여 쥬시면 황송(惶悚)ᄒᆞ올 듯 맛동셔 명식(名色)이오니 너모 소소(小少)할 슈도 업ᄉᆞ올 ᄃᆡ 엇지ᄒᆞ오리잇가 가역과 혼인(婚姻)도 지나시고 각ᄉᆡᆨ(各色)이로[24] ᄌᆞ이시긔[25] 젹지 아니실 쥴 모라옵지 아니오나 구쳐(救處) 업습고 금즉(今卽)[26] 져고리 한 가음[27]에 육칠(六七) 원(圓) 간다 ᄒᆞ오니 겁밧 업ᄉᆞ오이다 부모님게셔 모라시면 싀이 엇지 ᄒᆞ깃습닛가 가질심여만 돕ᄉᆞ오니 불초ᄒᆞᆫ졍이오나 ᄉᆡᆨᄉᆡᆨ(色色) 죄롭ᄉᆞ오이다 문안이 하도 막히오니 비온[28] ᄒᆞ인(下人)이라도 진즉 부려 듯즙고져 ᄒᆞ온 거시 ᄌᆞ연

---

18) 미류(彌留) :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깊어짐.
19) ᄋᆡ민(哀悶) : 딱하게 여겨짐.
20) 슉젼(叔殿) : 아주버님네 집.
21) 무쳠(無添) : '쳠'(添)은 곧 '쳠손'(添損). 큰 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신체 건강의 손상이 없음.
22) 신ᄒᆡᆼ(新行) : 혼행(婚行). 혼인하여 신랑이 처가로 가거나 신부가 시가로 가는 일.
23)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24) 각ᄉᆡᆨ(各色)이로 : 여러 가지로. 「-이로」는 곧 「-으로」.
25) ᄌᆞ이시긔 : 쪼들리시기.
26) 금즉(今卽) : 즉금(卽今). 지금(只今).
27) 가음 : 감.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특히 옷감을 세는 단위. 한 감은 치마 한 벌을 뜰 만한 크기.

(自然) 이리 쳔연(遷延)ᄒᆞ오이다 회망(懷望)은 거ᄂᆞ리옵시고[29] 여젼(如前)ᄒᆞ오신 문안 츅(祝)이올소이다 바히[30] 비온[31] 술이 죄롭ᄉᆞ오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오며. 이 동안 문안이 아득 막히오니, 또는 무슨 연고(緣故)나 아니 계신지. 불초한 마음이오나 그리움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옵니다. 국추(菊秋) 일기(日氣)가 냉냉 차가운 이즈음, 부모님께서 억만 가지 설운 마음 덤덤히 살피시는 가운데 크나큰 병환이나 아니 계시어 잠자리에 들고 나는 일이 한가지로 예와 같으시어 매우 편안하시오니까? 육십 리 쯤밖에 아니 되는 거리이오나 천리에 다름 없사오니, 궁금한 마음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옵니다. 어머님께서 또는 해산(解産)이나 아니하시는지 염려되옵고, 슬전 아주버님 내외분 소임(所任)이 매우 많으신 가운데에도 다른 병환 없으시어 [건강이] 더 확실하시어 다른 심려 없으시고, 도련님께서도 만복(萬福)이 해를 뱉어내는 듯 비를 내리는 듯 경사로우

---

28) 비온 : 빌린. 뒤에 나오는 "비온"과는 뜻이 다르다.

29) 거ᄂᆞ리옵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느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30) 바히 : '바이'로서 '아주'·'전혀'를 뜻함.

31) 비온 : 선물 따위를 곁들임이 없이 말로만 하는, 곧 빈. 「비(다) + 오 + ㄴ」의 결합형인데, 여기서 '오'는 곧 '옵'으로서 겸양·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옵'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겸양·공손의 뜻을 화자의 행위에 결부되어 있는 사물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다.

시며, 보내오신 편지에 듣자오니, 새로 맞이하신 며느리의 범절(凡節)을 [나날이] 칭찬하실 일 기쁘옵니다. 용담 아주머님 및 모든 거느리신 분들 평안(平安)하고 아무 탈 없으시오며, 용계 아주버님도 무고하옵고, 집을 고쳐 짓는 일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옵고, 태산 같은 심려에 재력(財力)으로도 감당(勘當)하지 못하오실 듯[하매] 우러러 애처롭고 두렵사옵니다. 작은댁도, 삼대(三代) 소택(小宅) 위아래 분들 아무 병환 없으시오니까? 한들과 박곡의 여러 집 늘 평안하시고, 여러 곳 소식 연락하시어 느닷없는 걱정거리나 없으십니까? 두루 걱정되는 마음 그지없사옵니다. 여기도 어버이께서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는 중환(重患)이 오고가기 덧없으시어 입맛과 근력이 모두 여지없으시니 마음에 그저 딱하기만 하옵니다. 그 밖의 집안 식솔들 위아래로 모두 여전하시고, 아주버님네 어르신들 다른 병환 없으시고, 여러 집들 두루 연고 없으시니 든든하옵고, 곡묵댁은 새로 며느리를 맞이하여 며느리의 범절이 매우 좋다고 좋아들 하시오니 기쁘옵고, 저도 지금 큰 병은 없사오나 속증은 낫지 아니하오니 지루하고 귀찮사옵니다. 이 말씀 죄송하오나, 새로 [보내오실] 편지의 답으로는, 부모님께서 [얼마쯤의 금전을] 요량하여 주시면 황송하올 듯[하오이다]. 명색이 맏동서이오니 [동기간에] 너무 적게 작게 베풀 수도 없을 데 어찌하오리까? 집을 고쳐 짓고 혼사(婚事)도 치루어 여러 가지로 쪼들리시기 적지 아니하실 줄 모르지 아니하오나, 달리 도움을 바랄 데도 없사옵고…. 지금 저고리 한 감에 육칠 원쯤 간다고 하오니, 겹박에는 [나는 것이] 없사옵니다. 부모님께서 모른 체하시면 제거 어찌 하겠습니까? 심려만 더해 드리니 불초한 마음이오나, 가지가지로 죄송하옵니다. 문안이 하도 막히오니 진작에 빈 하인이라도 부려 [소식을] 듣고자 하던 것이 저절로 이렇게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소식에는, 거느리시옵고 여전하시다는 문안 [듣기를] 바옵니다. [아무 선

물도 없이] 전혀 빈 살이[만 올리어] 죄송하옵니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62에 등장하는 "용담 아즈바님"과 이 편지에 등장하는 "용담 아즈마님"은 부부 관계일 것이다. 아울러 발신자 자신을 "맛동서"로 일컫는 가운데 시삼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혼인한 시동생으로서의 "슬젼 아즈바님 닉외"와 이제 막 혼인한 시동생으로서의 "도련님"을 언급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따라서 이 편지는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이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932·1156의 편지뿐만 아니라 MF35-006425_662·2257·2282의 편지와 더불어 완전히 동일한 필체를 보여 준다.

15 1-13. 全柳_MF35-006422_1156(23x48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문[隔1]안알외옵고그덧긔롭ㅅ오신문

안듯즙고비온술이도훈슌알외
읍지못죄룝ᄉᆞ오이다상풍이넝〃
ᄒᆞ온더연ᄒᆞ와연만ᄒᆞ읍신[移1]
[藏1]긔톄후감환조곰감셰게읍셔더
치읍신첨환이나아니게읍셔소진
등절이방ᄉᆞ글역이여젼ᄒᆞ읍
시니잇가불초ᄒᆞ심이외오조이
읍ᄂᆞᆫᄉᆞ렴침식에부리읍지못
ᄒᆞ올소이다슬젼둘집쟝소분
안영ᄒᆞ시고어린것들무탈ᄒᆞ온
온지굼겁ᄉᆞ오이다곳식도안밧
더병은업ᄉᆞ오나소〃존병빌젹업
ᄉᆞ오니지리귀촌ᄒᆞ오며아희들
무탈토못일싱몹시파려ᄒᆞ오니
심증이이읍고일후학교로져형
뎨다가니올나가뵈올듯밍안도
이져ᄂᆞᆫ나은듯시훤당힝습고각
쳐열낙긔심여업ᄉᆞ시니잇가
회편은복샹되읍신문안축원
이오며번〃비온술이죄룝ᄉᆞ
오이다

[피봉]

[隔2]이동[1][移1]아바님젼[隔1]샹술이

슈곡[2][小1]식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읍고 그 덧[3] 긔롭亽오신 문안 듯즙고 비온[4] 술이도 흔슌(-順) 알외읍지 못 죄롭亽오이다 상풍(商風)[5]이 닝닝(冷冷)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연만(年晩)ᄒᆞ옵신 긔톄후(氣體候) 감환(感患)[6] 조곰 감셰(減勢) 게읍셔 더치읍신 쳠환(添患)이나 아니 게읍셔 소진(蔬進)[7] 등졀(等節)이 방ᄉᆞ(倣似) 글역(筋力)이 여젼(如前)ᄒᆞ읍시니잇가 불초(不肖)ᄒᆞ심(下心)이 외오[8] 조이읍ᄂᆞᆫ[9] ᄉᆞ렴(思念) 침식(寢息)에 부리읍지 못ᄒᆞ올소이다 슬젼(膝前) 둘[10] 집 쟝소(長小)분 안영(安寧)ᄒᆞ시고 어린 것들 무탈(無頉)ᄒᆞ온온지[11] 굼겁亽오이다 곳[12] 식도 안밧 ᄃᆡ병(大病)은

---

1) 이동 : 지명.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이동(梨洞).

2) 슈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무실.

3) 그 덧 : 그 동안.

4) 비온 : 선물 따위를 곁들임이 없이 말로만 하는, 곧 빈. 「비(다)+오+ㄴ」의 결합형인데, 여기서 '오'는 곧 '옵'으로서 겸양·공손을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옵'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겸양·공손의 뜻을 화자의 행위에 결부되어 있는 사물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다.

5) 상풍(商風) : 가을바람. 악률(樂律)의 상(商)은, 방위로는 서(西)에 해당하고, 오행(五行)으로는 금(金)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한다.

6) 감환(感患) : 감기(感氣)를 높여 이르는 말.

7) 소진(蔬進) : (고기반찬이 없는) 푸성귀 나물로만 반찬을 삼은 진지. 거친 밥. 맛난 것이 거의 없는 진지.

8) 외오 : 멀리서.

9) 조이읍ᄂᆞᆫ : (마음을) 죄는.

10) 둘 : 두. 받침 'ㄹ'이 탈락되지 않고 남아 있다.

11) 무탈(無頉)ᄒᆞ온온지 : 글줄이 '온'에서 바뀌자 그것을 한번 더 쓴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흔히 보인다.

12) 곳 : '이곳'이라고 적어야 할 데서 '이'를 빠뜨리고 쓴 것이다.

업ᄉᆞ오나 소소(小小)[13] 존병 빌 적 업ᄉᆞ오니 지리(支離)[14] 귀촌ᄒᆞ오며 아희들 무탈토[15] 못 일싱(一生) 몹시 파려ᄒᆞ오니[16] 심증(心症)이 이옵고 일후(日後) 학교로 져 형뎨(兄弟) 다 가니 올나가 뵈올 듯 밍안[17]도 이져ᄂᆞᆫ[18] 나은 듯 시훤[19] 당힝(多幸)[20]ᄉᆞᆸ고 각쳐(各處) 열낙(連絡) ᄀᆡᆨ심여(客心慮)[21] 업ᄉᆞ시니잇가 회편(回便)[22]은 복상(復常)되옵신 문안 축원(祝願)이오며 번번(番番) 비온 ᄉᆞᆯ이 죄롭ᄉᆞ오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그 동안 [병환으로] 괴로이 지내신다는 문안 듣잡고서 빈 살이도 한번 아뢰옵지 못[하와], 죄송스럽사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운 이즈음, 연로하신 기체후(氣體候)께서 감환(感患) 드신 것은

---

13) 소소(小小) : 자질구레한.

14)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15) 무탈토 : 무탈(無頉)하지도. '-하지도'를 곧장 '-토'로 줄였다.

16) 파려ᄒᆞ오니 : 고달프오니. '파려하다'는 '고달프다'(憊)의 옛말.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722쪽.)

17) 밍안 : 인명.

18) 이져ᄂᆞᆫ : 이제는.

19) 시훤 : 시원하고. 후련하고.

20) 당힝(多幸) : 뒤에 있는 음절의 받침에 이끌려, '다행'(多幸)을 '당행'으로 적었다.

21) ᄀᆡᆨ심여(客心慮) : 느닷없는 걱정거리. 또는 엉뚱한 걱정. 한어의 '客'은 흔히 '느닷없다'(橫)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 '손'도 '마마' 따위의 말과 상통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드는 질병'을 뜻하는 점에서는 한어의 '客'과 더불어 맥락이 같다.

22)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조금 덜함이 있어서 [게다가] 더친 병환이나 아니 계시어 거친 진지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예와 같으시고 근력(筋力)이 [또한] 여전하오니까? 못난 마음이 멀리서 죄는 생각을 잠결에도 부려 놓지 못하오이다. 슬전의 두 집 위아래 분들 모두 안녕하시고, 어린 것들 아무 탈 없는지 궁금하오이다. 이곳 저희도 안팎으로 큰 병은 없사오나, 자질구레한 잔병은 빈 때가 없사오니 지루하고 귀찮사오며, 아이들[이 또한] 아무 탈 없지도 못[하니], 사는 것이 몹시 고달프고 짜증이 생기옵고…. 뒷날에 학교로 저희 형제들 다 가게 되니 [그때나] 올라가 뵈올 듯[하오이다]. 맹안이도 이제는 [깨끗이] 나은 듯[하니], [속이 다] 시원하고 다행스럽고…. 여러 곳 연락하시매 느닷없는 걱정거리 없으십니까? 돌아오는 인편에는 회복(回復)되셨다는 소식 [듣기를] 비오며, 번번이 빈 살이[만 보내어] 죄송하오이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5_940을 비롯해서 2257·2282·662와 더불어 동일한 필체를 보여 주는 편지로서,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이다.

16 1-14. 全柳_MF35-006421_613(25x41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문안알외읍고명쉬간후일망이
넘ᄉᆞ오니무상ᄒᆞ온거시오나남운쳠망
ᄒᆞ와빅슈존안니뵈읍고져잇ᄃᆡ졈〃
심동박세의슈란굿부온심ᄉᆞ지향
업ᄉᆞ오이다셜흔이혹독ᄒᆞ온ᄃᆡ연
ᄒᆞ와억쳡심우탐ᄉᆞ신듕연심슈체
만위강건ᄒᆞ오신가졈〃연세놉ᄉᆞ오시
니울〃두립습고슬하각〃무탈심
여나업ᄉᆞ오시고셔모니자근집할미다
연고업ᄉᆞ며자근식ᄃᆡᆨ근친흔듯션봉
학교의가다니집의셔갓치공부ᄒᆞ며
엇질고조이고각쳐소식드ᄅᆞ시와긔우
업ᄉᆞ시니잇가식은흔젼ᄃᆡ탈업ᄉᆞ오나
잇ᄃᆡ슈〃심녀갈ᄉᆞ록ᄐᆡ산두루귀촌
슉당과당니각ᄃᆡᆨ무쳠힝이옵고
시졀무양졈〃이덧ᄒᆞ고우리갓흔것
더옥엇질고알외옴쳡〃ᄒᆞ오나어득ᄒᆞ
올분못아라보실가이만내〃거ᄂᆞ리시고
만슈강녕ᄒᆞ오심복축〃아바님요

엇지이작은ᄒᆞᆫ슌아니오시ᄂᆞᆫ고ᄇᆡᆨ슈
여지업ᄉᆞ신존안니의회여취ᄒᆞ올
ᄃᆞᆺ츈화픠거든ᄒᆞᆫ슌오시긔츅슈〃
ᄒᆞ옵나이다김랑이ᄒᆞᆫ졍의가나그져
조여〃왕환엇지ᄒᆞ올고박셰ᄒᆞ오니오ᄅᆡ
유치못ᄒᆞ올ᄃᆞᆺ부ᄃᆡ이번은작난ᄶᅩ슨
어다시말이업계ᄒᆞ시옵ᄉᆡᆨ도일ᄉᆡᆼ
너무슈다ᄒᆞ고아바님도허다심여듕더
쳠심여되오니부ᄃᆡ〃그ᄐᆡᆨ은ᄲᅧ러지계
마시옵쇠올히ᄯᅩᄉᆡᆨ기나흔가굼〃나하시
면쇠갑시아무리무갑시라ᄒᆞ여도셰바리
이와정연양슈와모자리도얼ᄆᆡ아니모
자리듯만니모자린다히도봇틔그ᄐᆡᆨ
ᄎᆡ와쥬시려ᄒᆞ여시니쳔만〃밋ᄉᆞᆸ나
이다부ᄃᆡᄒᆞᆫᄑᆞᆫᄯᅳᆺ기시지마시옵소셔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ᄉᆞᆯ이[1]

---

1) 샹(上)ᄉᆞᆯ이 : 한문 편지의 '上白'·'上白書'와 같은 말. 지극한 존처에 보내는 편지의 피봉에 쓰이는 투어로서 한글 간찰에 흔히 보인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이른바 '上白是'(상ᄉᆞᆯ이)는 특히 조부모나 부모에게 올리는 경우에 붙인다. "祖父母·父母前, 云上白是·白是." (『寒暄箚錄』 1~9, 兄主類-註.) 'ᄉᆞᆯ이'는 이두에 보이는 '白是'(ᄉᆞᆲ이)에서 나온 말로서 「ᄉᆞᆲ(다) + 이」의 결합형이다. 'ᄉᆞᆯ이'는 '아ᄅᆞᆷ다ᄫᅵ'가 '아름다

문안(問安) 알외옵고 명쉬[2] 간 후 일망(一望)이 넘ᄉᆞ오니 무샹(無想)[3] ᄒᆞ온 거시오나 남운쳠망(南雲瞻望)ᄒᆞ와 ᄇᆡᆨ슈(白首) 존안(尊顔)[4]니 뵈옵고져 잇ᄃᆡ[5] 졈졈(漸漸) 심동박세(深冬迫歲)의 슈란(愁亂)[6] 긋부온[7] 심ᄉᆞ(心事) 지향(指向)업ᄉᆞ오이다 셜ᄒᆞᆫ(雪寒)이 혹독(酷毒)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억쳡(億疊) 심우(心憂) 탐ᄉᆞ(探査)[8]신 듕 연심(年深) 슈체(壽體)[9] 만위강건(萬慰康健)ᄒᆞ오신가 졈졈 연세(年歲) 놉ᄉᆞ오시니 울울(鬱鬱) 두립습고[10] 슬하(膝下) 각각(各各) 무탈(無頉) 심여(心慮)나 업ᄉᆞ오시고 셔모(庶母)니 자근집 할미 다 연고(緣故) 업ᄉᆞ며 자근식ᄃᆡᆨ 근친(覲親)ᄒᆞᆫ 듯 션봉[11] 학교(學校)의 가다니 집의셔 갓치 공부ᄒᆞ며 엇질고[12] 조이고 각쳐(各處) 소식 드ᄅᆞ시와 ᄀᆡᆨ우(客憂)[13] 업ᄉᆞ시니잇가 식

이'로 바뀐 경우와 같이 어간 말음 'ㅂ'이 전설모음 앞에서 아주 없어진 형태이다.

2) 명쉬 : 명수가. '명수'는 인명이고, 'ㅣ'는 주격조사이다.

3) 무샹(無想) : 무심(無心).

4) ᄇᆡᆨ슈(白首) 존안(尊顔) : '백수'(白首)는 상대가 늙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존안'(尊顔)은 상대를 높여서 가리키는 말이다.

5) 잇ᄃᆡ : 이즈음.

6) 슈란(愁亂) : 시름이 많아 마음이 어지러움. 갖가지 시름으로 마음이 어수선함.

7) 긋부온 : 애끊는 듯한. '긋부다'는 '긋브다'가 원순 모음화를 거쳐서 나온 형태이다. '긋브다'는 '애가 그치는(끊어지는) 듯하다'라는 곧 '애긋브다'의 준말이다. 다른 편지에 '긋븐'이라는 형태가 또한 보인다. 여기에 보이는 접미사 '-브다'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깃브다'(기쁘다)·'슳브다'(슬프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 내는 데서 일찍이 중요한 생성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8) 탐ᄉᆞ(探査) : 두루 더듬어 살핌. 두루 겪음.

9) 슈체(壽體) : 편지에 있어서 웃어른의 일상 생활이나 건강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자 할 때에 흔히 '기체'(氣體)·'기체후'(氣體候)라는 말을 쓰는데, 수신자가 특히 연로한 노체(老體)인 까닭에 그의 장수(長壽)를 비는 뜻에서 '수체'(壽體)라고 한 듯하다.

10) 두립습고 : 두렵사옵고. '두렵다'에 해당하는 옛말이 '두립다'이다.

11) 션봉 : 인명.

12) 엇질고 : 어찌할꼬.

13) ᄀᆡᆨ우(客憂) : 느닷없는 걱정거리. 또는 엉뚱한 걱정. 한어의 '客'은 흔히 '느닷없다'

(息)[14]은 혼전(渾全) 딕탈(大頉) 업ᄉᆞ오나 잇ᄃᆡ 슈슈[15] 심녀(心慮) 갈ᄉᆞ록 ᄐᆡ산(泰山) 두루 귀촌 슉당(叔堂)[16]과 당닉(堂內)[17] 각ᄃᆡᆨ(各宅) 무쳠(無添) ᄒᆡᆼ(幸)이옵고 시졀(時節) 모양(模樣) 졈졈 이덧ᄒᆞ고[18] 우리 갓ᄒᆞᆫ 것 더옥 엇질고 알외옴 쳡쳡(疊疊)ᄒᆞ오나 어득ᄒᆞ올[19] 분 못 아라보실가 이만 내내 거ᄂᆞ리시고[20] 만슈강녕(萬壽康寧)ᄒᆞ오심 복츅복츅(伏祝伏祝)

아바님요 엇지 이작은[21] ᄒᆞᆫ슌(順)[22] 아니 오시ᄂᆞᆫ고 ᄇᆡᆨ슈(白首) 여지(餘地) 업ᄉᆞ신 존안(尊顔)니 의희(依稀) 여취(如醉)ᄒᆞ올 ᄃᆞᆺ 츈화(春花) 픠거든 ᄒᆞᆫ슌 오시긔 츅슈츅슈(祝手祝手)ᄒᆞ옵나이다 김랑[23]이 ᄒᆞᆫ졍[24]의 가나 그져 조여조여 왕환(往還) 엇지 ᄒᆞ올고 박세(迫歲)ᄒᆞ오니 오릭 유(留)치 못ᄒᆞ올 ᄃᆞᆺ 부ᄃᆡ 이번은 작난쪼(作亂調) ᄉᆞᆯ어 다시 말이 업게 ᄒᆞ

(橫)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 '손'(客)도 '마마' 따위의 말과 상통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드는 질병'을 뜻하는 점에서는 한어의 '客'과 더불어 맥락이 같다.

14) 식(息) : 자식. 편지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에 흔히 '식'(息)이라 하였다.

15) 슈슈 : 수선스러운. '들레다'·'떠들다', 또는 '수선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수수하다'의 어근 '수수'로 추정된다.

16) 슉당(叔堂) : 종형제(從兄弟). 동조친(同祖親)에 따른 사촌 이내의 친척.

17) 당닉(堂內) : 팔촌 이내의 친척.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유복친(有服親)으로서 대개는 팔촌 이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18) 이덧ᄒᆞ고 : 이 동안과 같고. '때의 됨됨이가 이러하고'를 뜻함.

19) 어득ᄒᆞ올 분 : 어둑할 뿐. (눈으로 보기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울 뿐. "錦城은 ᄒᆡ 어득ᄒᆞ야 누르렛ᄂᆞ니라(錦城曛日黃)." (『杜詩諺解』 初刊本 7~10.)

20) 거ᄂᆞ리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느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21) 이작은 : 이쪽은. 이쪽으로는.

22) 한슌(順) : 일회(一回), 곧 한 차례.

23) 김랑 : 인명으로 추정.

24) ᄒᆞᆫ졍 : 지명.

시옵 식도 일싱(一生) 너무 슈다(愁多)ᄒᆞ고 아바님도 허다(許多) 심여듕 더 쳠심여(添心慮) 되오니 부듸부듸 그 퇵은[25] 써러지게 마시옵 쇠올히 또 식기 나흔가 굼굼 나하시면 쇠 갑시 아무리 무갑시라 ᄒᆞ여도 세 마리 이와 장연(昨年) 양슈(兩首)와[26] 모자릭도 얼믜 아니 모자릭듯 만니 모자린다 히도 볏티 그 틱[27] 칙와[28] 쥬시려 ᄒᆞ여시니 쳔만쳔만 밋솝나이다 부듸 ᄒᆞᆫ푼 쓰기시지 마시옵소셔[29]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명수가 간 뒤로 보름이 넘사오니, [제 비록] 무심(無心)한 것이오나, 남녘 하늘로 구름을 우러러 백수존안(白首尊顔)이 뵈옵고자…. 이즈음, 점점 겨울은 깊어가고 섣달그믐은 다가오는지라 갖가지 시름으로 타는 듯한 마음 끝 가는 데 없사옵니다. 설한(雪寒)이 혹독(酷毒)한 이즈음, 억만 가지로 겹친 심우(心憂) 겪으시는 가운데 연로(年老)하신 수체(壽體)께서는 만위(萬慰)하오며 강건(康健)하오신지. 점

---

25) 그 퇵은 : 그 턱으로는. 그런 (몹쓸) 쪽으로는.

26) 세 마리 이와 장연(昨年) 양슈(兩首)와 : 이 구문은 「~이와 ~양슈(兩首)와」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등한 비교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동격의 체언에 접속 조사가 거듭 붙어 있다. 이러한 구절 구조는 15~16세기만 해도 흔한 것이었던 듯하다. 예컨대 "吳와 楚왜 東南 녀키 떠뎟고 하ᄂᆞᆯ과 싸콰ᄂᆞᆫ 日夜애 ᄠᅥᆺ도다"(『重刻杜詩諺解』 14~13.)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27) 틱 : 턱. 여기서는 '차이'·'간격'을 뜻함.

28) 칙와 : 채워.

29) 아바님요~ 마시옵소셔 : 이 부분은 일찍이 써 놓았던 편지에 새로 덧보태어 쓴 것이다.

점 연세(年歲) 높아지시니 마음 깊이 거듭거듭 두렵사옵고. 슬하(膝下)의 여러 분들 저마다 무탈(無頉)하시며 다른 심려나 없으시며, 서모(庶母)네 작은집 할미를 비롯해서 다들 아무 연고(緣故) 없으며, 작은 새댁 근친(覲親)한 듯. 선봉이가 학교(學校)에 간다니, 집에서와 같이 공부하면 어찌할꼬 싶어 마음에 죄고. 여러 곳 소식 들으시매 다른 심려는 없으십니까? 식(息)은 내내 큰 탈은 없사오나, 이따금 서글프고 어지러운 심려 갈수록 태산 같아 두루 귀찮고…. 숙당(叔堂)과 당내(堂內)의 여러 집안 다른 병환 없으시다니 다행이옵고…. 시절(時節)의 됨됨이가 점점 이러하니, 우리 같은 것은 더욱 어찌할꼬. 아뢰올 말씀 첩첩하오나, 어둑할 뿐으로 못 알아보실까봐 이만 [줄이옵니다]. 내내 거느리시고 만수강녕(萬壽康寧)하오심 빌고 또 비나이다.

아버님, 어찌 이쪽으로는 한번도 아니 오시는지. 백수(白首)에 여지(餘地) 없으신 존안(尊顔)이 취한 듯 어렴풋하오니, 봄꽃 피거든 한번 오시기 빌고 또 비옵나이다. 김랑이 한정에 가나, 죄고 죄여…. 돌아오기는 또 어찌 돌아올꼬? 섣달그믐이 다가오니 오래 머물지는 못하올 듯. 부디 이번에는 장난조로 하는 짓을 끊어 버리시고, 다시 말이 없게 하시옵. 식도 일생에 근심이 너무 많으며, 아버님도 허다한 심려 가운데 더욱 심려만 더하게 되오니, 부디부디 그런 [몹쓸] 쪽으로 떨어지게 [지내시지는] 마시옵. 소가 올해에 또 새끼 낳는지, 낳았으면, 소 값이 아무리 아니 나간다 하여도 올해의 세 마리가 작년의 두 마리에 비겨 값이 모자라도 얼마 아니 모자라듯, 많이 모자란다 해도 보태어 그 턱을 채워주시려 하였으니, 천만 믿사옵니다. 부디 한 푼도 뜯기시지 마시옵소서.

4. 참고

유동저(柳東著, 1892～1948)의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본문에 자신의 자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직 자녀를 낳아 기르기 이전의 편지인 듯하다.

17 1-15. 全柳_MF35-006421_629-1(31x30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隔1]문안알외옵고문후늑속ᄒᆞ오나샹셔ᄌᆞ로알
외옵지못죄롭사오이ᄃᆞ장염의연ᄒᆞ와연심
슈테후셔첨업ᄉᆞ오시와진반등호여젼이신
잇가불초무상ᄒᆞ오나일시도부리온시업ᄉᆞ오이ᄃᆞ
슬하각〃분허ᄃᆞ심우듕평안ᄒᆞ오시며
알외올말슴만ᄉᆞ오나급〃ᄒᆞ와이만알외오며
밧어버이우환그덧망조〃ᄒᆞ시드ᄅᆞ니답〃
식이진족이라도나려갈터니나한창빙금하인
업셔구쳐업셔이셔도침불안셕이옵드니
함아오며우환과이념녀업ᄉᆞ니걱졍마ᄅᆞᄒᆞ

(安東)으로 가올 듯 ᄌᆞ증[16] 용녀(用慮) 무궁(無窮) 마ᄎᆞ 길이 엇던지 아지 못ᄒᆞ오이ᄃᆞ 알외올 말ᄉᆞᆷ 이만이오며 식은 친(親)·싀(媤)로 불초(不肖)불초 죄ᄉᆞ무셕(罪死無惜)이오며 거게 와셔 그 덧 차황(差況)ᄒᆞ엿다 ᄒᆞ시니 노소(老小)분 심여(心慮) 죄룝ᄉᆞ오이ᄃᆞ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안녕하오신지, 궁금한 마음 끊임이 없사오나, 상서(上書) 자주 여쭙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오랜 더위에 즈음하여, 연로하신 수체후(壽體候), 더위로 말미암은 병환 없으시어, 진지 드시는 일이 여전하십니까? 무심한 불초 자식이오나, 한때도 걱정하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사옵니다. 슬하의 여러분들 저마다 허다한 심우(心憂)를 겪는 가운데 평안하오시며. 아뢰올 말씀 많사오나, 급급(急急)하여 이만 아뢰오며. 저희 친정 어버이께서 우환(憂患)으로 그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니, 답답. 제가 진작이라도 내려 갈 터이나, 바로 그 때에 마침 하인(下人)이 없고 구할 곳도 없어, 집에 있어도 갖은 걱정으로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더니, 함아가 와서 '우환, 너무 염려할 것이 없으니, 걱정 마라.'고 이르니, 16일에, 숙질이 다녀가려 하던 차, 일전에 들으니 그만 그만하다니, 주야(晝夜)로 애가 쓰여 견디지 못[하옵니다]. [친부모이신 까닭에] 정(情)이 더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여 여한(餘恨)이 되올 듯하와, 제가 가서 보면 좋을 듯하와, [친부모께서] 거기에 가실 적에는 형편이

16) ᄌᆞ증 : 성. 역정(逆情). 무슨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성이 남.

4. 참고

유동저(柳東著, 1892~1948)의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본문에 자신의 자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직 자녀를 낳아 기르기 이전의 편지인 듯하다.

17 1-15. 全柳_MF35-006421_629-1(31x30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隔1]문안알외옵고문후늑속ᄒᆞ오나샹셔ᄌᆞ로알
외옵지못죄롭사오이ᄃᆞ장염의연ᄒᆞ와연심
슈톄후셔쳠업ᄉᆞ오시와진반등호여젼이신
잇가불초무상ᄒᆞ오나일시도부리온시업ᄉᆞ오이ᄃᆞ
슬하각〃분허ᄃᆞ심우듕평안ᄒᆞ오시며
알외올말ᄉᆞᆷ만ᄉᆞ오나급〃ᄒᆞ와이만알외오며
밧어버이우환그덧망조〃ᄒᆞ시드ᄅᆞ니답〃
식이진ᄌᆞᆨ이라도나려갈터니나한창방금하인
업셔구쳐업셔이셔도침불안셕이옵드니
함아오며우환과이념녀업ᄉᆞ니걱졍마ᄅᆞᄒᆞ

니십뉵일슉딜다녀가려ᄒᆞ든ᄎᆞ일젼드ᄅᆞ니
그덧ᄒᆞᄃᆞ니듀야로ᄋᆡ쓰여견대지못졍더희셔
외태ᄒᆞ여여ᄒᆞᆫ이올듯ᄒᆞ와식이가셔보면조
흘듯ᄒᆞ와거계ᄀᆞ실젹은ᄉᆞ세구쳐업ᄉᆞ와못간거
슨불초ᄒᆞᆫ타시오나거계가셔마ᄎᆞ타고아바님
명녕을밧ᄌᆞ와가면조흘듯ᄒᆞ오이다마ᄂᆞᆫ염여
업ᄃᆞᄒᆞ시면갈슈업시안동으로가올듯ᄌᆞ증
용여무궁마ᄎᆞ길이엇던지아지못
ᄒᆞ오이ᄃᆞ알외올말ᄉᆞᆷ이만이오며식
은친ᄉᆡ로불초〃죄ᄉᆞ무셕이오며
거계와셔그덧차황ᄒᆞ엿다ᄒᆞ시니노소분
〃심여죄롭ᄉᆞ오이ᄃᆞ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문후(問候) 뉵속(陸續)[1]ᄒᆞ오나 샹셔(上書) ᄌᆞ로[2] 알외옵지 못[3] 죄롭사오이ᄃᆞ 쟝념(長炎)[4]의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슈톄후(壽體候) 셔쳠(暑添)[5] 업ᄉᆞ오시와 진반(進飯) 등호(等許)[6] 여젼

1) 뉵속(陸續) : 줄곧 이어져 끊이지 않음.
2) ᄌᆞ로 : 자주.
3) 알외옵지 못 : 알외옵지 못하여. '못하여'라고 할 자리에 단순히 '못'이라고만 한 용례가 다른 여러 편지에 흔히 보이며, 더욱이 '못'에서 문장을 끝맺는 경우도 흔히 보인다.
4) 쟝념(長炎) : 지루하게 오래가는 더위.

(如前)이신잇가 불초(不肖) 무상(無想)ᄒᆞ오나 일시(一時)도 부리온 시(時) 업ᄉᆞ오이ᄃᆞ 슬하 각각(各各)분 허ᄃᆞ(許多) 심우(心憂) 듕 평안ᄒᆞ오시며 알외올 말슴 만ᄉᆞ오나 급급(急急)ᄒᆞ와 이만 알외오며 밧어버이[7] 우환(憂患) 그 덧[8] 망조(罔措)[9]망조ᄒᆞ시드ᄅᆞ니 답답 식(息)이 진ᄌᆞ이라도 나려 갈 터니나 한창 방금(方今)[10] 하인(下人) 업셔 구처(求處) 업셔이셔도 침불안셕(寢不安席)이옵드니 함아[11] 오며 우환 과(過)이 념녀(念慮) 업ᄉᆞ니 걱정 마ᄅᆞ ᄒᆞ니 십뉵일(十六日) 슉딜(叔姪) 다녀가려 ᄒᆞ든 ᄎᆞ 일젼(日前) 드ᄅᆞ니 그덧ᄒᆞᄃᆞ니[12] 듀야(晝夜)로 ᄋᆡ 쓰여 견대지 못 졍(情) 더희셔 외태(危殆)ᄒᆞ여[13] 여ᄒᆞᆫ(餘恨)이올 듯ᄒᆞ와 식(息)이 가셔 보면 조흘 듯ᄒᆞ와 거계[14] 가실 적은 ᄉᆞ세(事勢)[15] 구처 업ᄉᆞ와 못간거슨 불초ᄒᆞᆫ 타시오나 거계 가셔 마ᄎᆞ(馬車) 타고 아바님 명녕(命令)을 밧ᄌᆞ와 가면 조흘 듯 ᄒᆞ오이다마는 념녀 업ᄃᆞ ᄒᆞ시면 갈 슈 업시 안동

---

5) 서쳠(暑添) : 더위로 말미암아 생긴 병환(病患).

6) 등호(等許) : '등절'(等節)과 같은 말로서, 어떠어떠한 따위의 일이 처해 있는 상태나 형편을 뜻하는 말로 추정된다.

7) 밧어버이 : 바깥어버이. 친족 관계상으로 외가에 속하는 집안의 어버이. 여기서 말하는 '밧어버이'는 이 편지의 발신자로서 수신자의 며느리인 자신의 친정 어버이를 가리킨다. 당시에 친정 어버이가 위급한 병환을 앓고 있었음이 문면에 드러나 있다.

8) 그 덧 : 그 동안.

9) 망조(罔措) : 망지소조(罔知所措).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름.

10) 한창 방금(方今) : 바로 그 때. '한창'은 '(무르익거나 차오르거나 하는 일이) 가장 세거나 높은 때'를 뜻하나, 여기서는 '방금'을 강조하는 말로 쓰였음.

11) 함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12) 그덧ᄒᆞᄃᆞ니 : 그 동안과 같다 하니. 그만그만하다니.

13) 외태(危殆)ᄒᆞ여 : 마음을 놓지 못하여. '危'를 '외'로 적은 것으로 추정.

14) 거계 : 거기에. 문맥상으로 보건대, 시댁이 있는 곳이고, 또한 친정 어버이가 병구완을 위하여 지나쳐 갔던 곳이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친정 어버이가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15) ᄉᆞ세(事勢) : 형편(形便).

(安東)으로 가올 듯 ᄌᆞ증[16] 용녀(用慮) 무궁(無窮) 마ᄎᆞ 길이 엇던지 아지 못ᄒᆞ오이ᄃᆞ 알외올 말ᄉᆞᆷ 이만이오며 식은 친(親)·싀(媤)로 불초(不肖)불초 죄ᄉᆞ무셕(罪死無惜)이오며 거게 와셔 그 덧 차황(差況)ᄒᆞ엿다 ᄒᆞ시니 노소(老小)분 심여(心慮) 죄롭ᄉᆞ오이ᄃᆞ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안녕하오신지, 궁금한 마음 끊임이 없사오나, 상서(上書) 자주 여쭙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오랜 더위에 즈음하여, 연로하신 수체후(壽體候), 더위로 말미암은 병환 없으시어, 진지 드시는 일이 여전하십니까? 무심한 불초 자식이오나, 한때도 걱정하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사옵니다. 슬하의 여러분들 저마다 허다한 심우(心憂)를 겪는 가운데 평안하오시며. 아뢰올 말씀 많사오나, 급급(急急)하여 이만 아뢰오며. 저희 친정 어버이께서 우환(憂患)으로 그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니, 답답. 제가 진작이라도 내려 갈 터이나, 바로 그 때에 마침 하인(下人)이 없고 구할 곳도 없어, 집에 있어도 갖은 걱정으로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더니, 함아가 와서 '우환, 너무 염려할 것이 없으니, 걱정 마라.'고 이르니, 16일에, 숙질이 다녀가려 하던 차, 일전에 들으니 그만 그만하다니, 주야(晝夜)로 애가 쓰여 견디지 못[하옵니다]. [친부모이신 까닭에] 정(情)이 더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여 여한(餘恨)이 되올 듯하와, 제가 가셔 보면 좋을 듯하와, [친부모께서] 거기에 가실 적에는 형편이

16) ᄌᆞ증 : 성. 역정(逆情). 무슨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성이 남.

닿지 않아 [거기로 달려갈 방편을] 구할 곳이 없으매, [마침내] 못 간 것은 불초한 탓이오나,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마차(馬車)를 타고 아버님 명령(命令)을 받잡고 가면 좋을 듯하오이다마는, 염려 없다 하시면 갈 수 없이 안동(安東)으로 가올 듯[합니다]. 짜증과 용려(用慮)만 무궁(無窮)[합니다]. 마차 길이 어떤지 알지 못하오이다. 아뢰올 말씀 이만 그치오며, 저는 친정과 시댁으로 모두 불초, 또 불초. 죄스러움이야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사오며, 거기에 오셔서 그 동안 병이 좀 나아지셨다 하시니, 위아래 분들 심려에 그저 죄송스럽습니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13을 비롯해서 MF35-006422_1105·1110과 더불어 동일한 필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유동저(柳東著, 1892~1948)의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본문에 다만 "슬하 각각분"의 안부를 물었을 뿐으로 조카나 자신의 자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집을 와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쓴 편지인 듯하다. 본문의 필체가 「613·1105·1110」의 그것과 사뭇 달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운필(運筆)의 방법이 서로 일치함을 엿볼 수 있다.

1-16. 全柳_MF35-006422_1105(24x35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바님[隔1]젼[隔2]샹술이
[擡1]문안알외옵고하셔뵈온후여러날
막히오니복모간절구〃부리옵지못
ᄒᆞ옵든ᄎᆞ분어미오며구젼듯ᄌᆞ오니
그시ᄃᆡ환은업ᄉᆞ오신듯ᄒᆞᆫ〃즐겁ᄉᆞ오나
날ᄉᆞ이츄긔싱환의연ᄒᆞ와
연만ᄒᆞ옵신긔테후만안ᄒᆞ시와허무
ᄒᆞ옵신소진이한가지시니잇가우러와
복모간절잇즙지못학발존안뵈옵긔
시급ᄒᆞ오며슬젼각〃여러슉딜평
안무탈심여업ᄉᆞ시고아ᄌᆞ바님아즉현텸
못조이옵고졈번숨인무탈셕번형데
날노픗실과중복음식젼페ᄒᆞ고
그결노조셕갓치먹고무ᄒᆞᆫ속을다ᄒᆞ
오니괘심조이고아쳐로와견ᄃᆡ지못
아바님게오셔ᄌᆞ로ᄎᆞᄌᆞ단속쑤지져막
으시면덜ᄒᆞ올듯ᄒᆞ오니그리ᄒᆞ시면
조흘듯이셔절의몹실음식져마음
ᄃᆡ로먹고엇지려ᄒᆞᄂᆞᆫ고괘심코조심시일
이ᄎᆞ〃근〃어셔ᄂᆞ려가면조흘듯[小1]식은

안밧큰탈은업ᄉᆞ오나면ᄉᆞᆼ미일그러코어
린놈알튼증은ᄂᆞ으나셜ᄉᆞ조금도감세
업ᄉᆞ니원일인지알슈업고하답〃니싱
원다려다약십여첩써스나푼효가
업ᄉᆞ니엇지면ᄂᆞ을잇가약도더먹이려
ᄒᆞ니인숨업셔못먹여아바님게숨잇
신동부로ᄒᆞ인보ᄂᆞ오리다잇거든보나
시긔바라옵ᄂᆞ이다발아너도숨솔무탈ᄒᆞ나
셔막고숙알히고못잇치옵고갈날은머지
아니코날세고약풍우의밀도반도페ᄒᆞ고
닐녁못ᄒᆞ고만치안인농일도ᄉᆞᆺ치아니
ᄂᆞ모셤도아즉못보ᄂᆞ답〃죄롭ᄉᆞ오이
다알외옴여ᄉᆞᆫ이오나이만이져ᄉᆞ슈이뵈올ᄃᆞᆺ
[右]즐겁ᄉᆞ오며반촌도아모것도보ᄂᆞ지못죄
송〃하오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하셔(下書) 뵈온 후 여러 날 막히오니 복모(伏慕) 간졀(懇切) 구구(區區) 부리옵지 못ᄒᆞ옵든 ᄎᆞ(次) 분[1] 어미 오며 구젼(口傳) 듯ᄌᆞ오니 그시[2] ᄃᆡ환(大患)은 업ᄉᆞ오신 ᄃᆞᆺ 흔흔(欣欣) 즐겁ᄉᆞ

1) 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오나 날ᄉᆞ이[3] 츄긔(秋氣) ᄉᆡᆼ환(生還)의 연(連)ᄒᆞ와 연만(年晩)ᄒᆞ옵신 긔톄후(氣體候) 만안(萬安)ᄒᆞ시와 허무(虛無)ᄒᆞ옵신 소진(蔬進)[4]이 한가지시니잇가 우러와 복모(伏慕) 간절(懇切) 잇줍지 못 학발(鶴髮) 존안(尊顔) 뵈옵긔 시급(時急)ᄒᆞ오며 슬젼(膝前) 각각(各各) 여러 슉딜(叔姪) 평안(平安) 무탈(無頉) 심여(心慮) 업ᄉᆞ시고 아ᄌᆞ바님 아ᄌᆞ 현텸(現添)[5] 못 조이옵고 졈번[6] 숨인(三人) 무탈 셕번[7] 형데(兄弟) 날노 풋 실과(實果) ᄌᆞᆼ복(長服) 음식(飮食) 젼폐(全廢)ᄒᆞ고 그걸노 조셕(朝夕) 갓치 먹고 무ᄒᆞᆫ(無限) 속을 다ᄒᆞ오니 괘심 조이고 아쳐로와 견ᄃᆡ지 못 아바님게오셔 ᄌᆞ로 ᄎᆞᄌᆞ 단속(團束) ᄭᅮ지져 막으시면 덜ᄒᆞ올 ᄃᆞᆺᄒᆞ오니 그리ᄒᆞ시면 조흘 ᄃᆞᆺ 이 셔절(暑節)의 몹실 음식 져 마음ᄃᆡ로 먹고 엇지려 ᄒᆞᄂᆞᆫ고 괘심코 조심(操心) 시일(時日)이 ᄎᆞᄎᆞ(次次) 근근(僅僅) 어셔 ᄂᆞ려가면 조흘 ᄃᆞᆺ 식(息)은 안밧 큰 탈은 업ᄉᆞ오나 면ᄉᆞᆼ(面相)[8] ᄆᆡ일(每日) 그러코 어린 놈 알튼 증(症)은 ᄂᆞ으나 셜ᄉᆞ(泄瀉) 조금도 감셰(減勢) 업ᄉᆞ니 왼 일인지 알 슈 업고 하 답답 니ᄉᆡᆼ원(李生員) 다려다 약(藥) 십여(十餘) 쳡(貼) 써스나 푼효(分效)가 업ᄉᆞ니 엇지면 ᄂᆞ을잇가 약도 더 먹이려 ᄒᆞ니 인숨(人蔘) 업셔 못 먹여 아바님게 숨(蔘) 잇신동 부로[9] ᄒᆞ인(下人) 보ᄂᆞ오리다 잇거든 보나시긔 바라옵ᄂᆞ이다 발아[10]너

---

2) 그시 : 그사이. 그동안.

3) 날ᄉᆞ이 : 지난 며칠 동안.

4) 소진(蔬進) : (고기반찬이 없는) 푸성귀 나물로만 반찬을 삼은 진지. 거친 밥. 맛난 것이 거의 없는 진지.

5) 현텸(現添) : 현증(現症). 드러나 보이는 병증(病症).

6) 졈번 : 인명.

7) 셕번 : 인명.

8) 면ᄉᆞᆼ(面相) : 용모(容貌).

9) 부로 : 일부러.

10) 발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아'(兒)는 어린이의 이름에 '작고 어여쁘다'라는 어기

도 숨솔(三率)[11] 무탈ᄒᆞ나 셔막[12] 고숙(姑叔)[13] 알히고[14] 못 잇치옵고 갈 날은 머지 아니코 날셰 고약 풍우(風雨)의 밀도 반(半)도 폐(弊)ᄒᆞ고 닐녁(人力) 못ᄒᆞ고 만치[15] 안인[16] 농(農)일도 슷치 아니ᄂᆞ 모셤[17]도 아즉 못 보ᄂᆞ 답답 죄롭ᄉᆞ오이다 알외옴 여순(如山)이오나 이만 이져ᄉᆞ슈이 뵈올 듯 즐겁ᄉᆞ오며 반촌(飯饌)도 아모 것도 보ᄂᆞ지 못 죄송(罪悚) 죄송하오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하서(下書) 뵈온 뒤로 여러 날이나 [소식 왕래가] 막히오니 간절한 그리움 부려 놓지 못하던 겨를에 분이 어미가 오면서 들려주는 바를 듣자오니, 그동안 크나큰 병환은 없으신 듯[하매], 흔흔 즐겁사오나, 지난 며칠 사이 가을 기운이 처음 돌아오는 때에 즈음하여, 연로하신 기체후(氣體候)께서 만안(萬安)하시어 그리 맛난 것도 없이 드시는 진지는 한가지이십니까? 우러러 그리움 간절[하여] 잊지 못[하

(語氣)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허사이다.

11) 숨솔(三率) : 삼대(三代).

12) 셔막 : 지명.

13) 고숙(姑叔) : 고모부(姑母夫).

14) 알히고 : 아리고. 찌르듯 아프고. 「앓(다)+이(히)+고」의 결합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이-'는 동작을 받는 바의 피동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15) 만치 : 많지.

16) 안인 : 않은.

17) 모셤 : 모섬. 모종으로 쓰인 벼, 또는 그 분량. 한 섬은 열 말이다.

오며], 아버님 뵈옵기 [다만] 시급(時急)하오며, 슬전의 여러 조카들 평안(平安)하고 무탈(無頉)하여 다른 심려(心慮) 없으시고, 아주버님 병환은 아직 못 [다스리시매], [마음을] 죄옵고, 점번 형제 세 사람 무탈[한지]. 석번 형제는 날것으로 풋과일을 오래도록 늘 먹되, [다른] 음식은 아예 먹지 않고 [아예] 그걸로 아침저녁을 때우듯이 먹어 한없이 속을 [태우기를] 다하니, 괘씸할 뿐더러 조이고 애처로워 견디지 못[하겠사오니], 아버님께오서 자주 찾아 단속하고 꾸짖어 막으시면 덜할 듯하오니, 그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여름날에 몹쓸 음식을 제 마음대로 먹고 어찌하려 하는지, 괘씸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시일(時日)이 조금씩이나마 겨우겨우 어서 지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는 안팎으로 큰 탈은 없사오나 [병으로 손상을 입은] 얼굴 생김은 날마다 그렇고, 어린 놈 앓던 병증(病症)은 낳았으나 설사(泄瀉)가 조금도 그치는 기색이 없으니 웬 일인지 알 수 없고, 너무 답답. 이(李) 생원을 데려다가 약(藥) 십여 첩을 썼지만 손톱만큼도 효험이 없으니, 어찌하면 나으리까? 약도 더 먹이려 하지만, 인삼(人蔘)이 없어서 못 먹이니, 아버님께 삼이 있을 양이면 하인을 일부러 보내오리다. 있거든 보내시기 바라옵나이다. 발아네도 위아래 분들 무탈하나, 서막 고숙(姑叔)[께서 당하신 일은 마음에] 아리고 잊히지 못하옵고. 갈 날은 멀지 아니하고, 날씨는 고약해서 비바람에 밀농사는 반이나 망치고, 인력(人力)으로는 [다스리지] 못할 지경이고. 많지 않은 농사일도 끝이 아니 나고. [아버님께] 모종 섬도 아직 못 보내[드리니], 죄송스럽사옵니다. 아뢸 말씀 산처럼 많으오나, 이만…. 이제야 쉽게 뵈올 [수 있을] 듯[하여], 즐겁사오며. 반찬도 아무 것도 보내 드리지 못[하오니], 죄송하기만 합니다.

4. 참고

본문의 이른바 "졈번 숨인"은 전주유씨 족보에 택번(澤蕃, 1904～1921)·중번(重蕃, 1907～1944)·필번(必蕃, 1911～1954)으로 나오는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첫째 아들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세 아들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고, 이른바 "셕번 형뎨"는 시아버지한테 한동안 맡겨 놓은 발신자 자신의 두 아들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왜냐면 족보에 흥번(柳興蕃, 1918～)·길번(柳吉蕃, 1944～)으로 나오는 유연박의 셋째 아들 유동영(柳東英, 1901～)의 두 아들은 이 편지의 본문에서와 같이 '몹쓸 버릇'으로 나란히 일컬어질 만큼 엇비슷한 나이가 아닌 까닭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연박의 둘째 아들 유동저(柳東著, 1892～1948)의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런데 족보에 만영(萬榮, 1923～)으로 나오는 둘째 유동저의 첫째 아들이 셋째 유동영의 첫째 아들보다 더 늦게 태어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셕번"은 일찍이 요절했던 듯하다. 여기에 관한 정황으로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4 _1803에 "석번아 성치 안니ᄒᆞ오든이 즉금 들ᄒᆞ온지"라는 말이 보인다. 이 편지는 또한 MF35-006422_1110과 더불어 서로 맥락이 일치한다.

19 1-17. 全柳_MF35-006422_1110(26x20cm): 며느리 → 시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바님젼[隔2]샹ᄉᆞᆯ이[移1]

문[移1]

안알외옵고오신후문안슉〃ᄒᆞ오나

다시알외지못죄롭ᄉᆞᆸ고거일하셔뵈옵ᄉᆞ

오니원지의오시와큰여ᄒᆡ업ᄉᆞ시나소〃ᄒᆞ옵

신손상쳠ᄒᆡ마지아니실듯우러와ᄋᆡ탁

용여곰업ᄉᆞ오이다식은어린것가단오늑일

정신슈습못ᄒᆞ게지ᄂᆞ옵고이ᄌᆞ야ᄎᆞ〃조

금ᄂᆞ은가시부오나셜ᄉᆞᄂᆞᆫ아즉도일호도

ᄂᆞ은가시부ᄌᆞᄂᆞ걱졍그지업ᄉᆞᆸ고아바님게오셔

문복가지ᄒᆞ여보ᄂᆞ게시니황감불안〃

죄롭ᄉᆞ온향모간졀부리옵지못아ᄒᆡ들

면〃심여도으실듯각식조심읍의ᄂᆞᆫ못가게

알들간슈ᄒᆞ시소식은바든날노갈가ᄒᆞ오나

ᄇᆡᆨᄉᆞ마음과여의치못농일도덜되고밀도바셔

누룩구쳐를ᄒᆡ녹코가야될듯ᄒᆞ오니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상(上)ᄉᆞᆯ이[1)]

문안(問安) 알외옵고[2)] 오신 후(後) 문안 속속ᄒᆞ오나[3)] 다시 알외지 못 죄롭ᄉᆞᆸ고 거일(去日)[4)] 하셔(下書) 뵈옵ᄉᆞ오니 원지(遠地)의 오시와 큰 여히(旅害) 업ᄉᆞ시나 소소(小少)ᄒᆞ옵신 손상(損傷) 쳠히(添害)[5)] 마지 아니실 ᄃᆞᆺ 우러와 ᄋᆡ탁(哀怛) 용여(用慮)곰[6)] 업ᄉᆞ오이다 식(息)은 어린 것 가단 오뉵일(五六日) 정신(精神) 슈습(收拾) 못ᄒᆞ게 지ᄂᆞ옵고 이ᄌᆞ야[7)] ᄎᆞᄎᆞ(次次) 조금 ᄂᆞ은가 시부오나[8)] 셜ᄉᆞ(泄瀉)ᄂᆞᆫ 아즉도 일호(一

---

1) 상(上)ᄉᆞᆯ이 : 한문 편지의 '上白'·'上白書'와 같은 말이다. 지극한 존처(尊處)에 보내는 편지의 피봉(皮封)에 쓰이는 투어(套語)로서 한글 간찰에 흔히 보인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이른바 '上白是'(상ᄉᆞᆯ이)는 특히 조부모나 부모에게 올리는 경우에 붙인다. "祖父母·父母前, 云上白是·白是." (『寒暄箚錄』 1~9, 兄主類-註.) 'ᄉᆞᆯ이'는 이두에 보이는 '白是'(ᄉᆞᆲ이)에서 나온 말로서 「ᄉᆞᆲ(다) + 이」의 결합형이다. 'ᄉᆞᆯ이'는 '아ᄅᆞᆷ다ᄫᅵ'가 '아ᄅᆞᆷ다이'로 바뀐 경우와 같이 어간 말음 'ㅂ'이 전설모음 앞에서 아주 없어진 형태이다.

2) 문안(問安) 알외옵고 : 한글 간찰의 기두(起頭) 부분에 흔히 쓰이는 투어(套語)이다.

3) 속속ᄒᆞ오나 : (궁금하여) 속이 바싹 마르는 듯하오나. '(모래처럼) 사박사박하다', 또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삭바삭하다'라는 뜻의 '삭삭ᄒᆞ다'에서 나온 말이다. "삭삭기 셰몰애 별헤"(「鄭石歌」, 제1장.)에 보이는 '삭삭기'와 "삭삭ᄒᆞᆫ ᄲᅧ ᄉᆞᆺ(脆骨)"(『老乞大諺解』 下-34.)에 보이는 '삭삭ᄒᆞᆫ'을 참고할 만하다.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435쪽 참조.)

4) 거일(去日) : 지난날.

5) 쳠히(添害) : 몸을 다치거나 건강상의 해로움이 더치는 일.

6) 용여(用慮)곰 : 염려뿐. 옛말에 있어서 '-곰'은 본디 강세를 매기는 보조사로 쓰이나, 여기서는 '-ᄲᅮᆫ'에 상당하는 뜻으로 쓰였다.

7) 이ᄌᆞ야 : 이제야.

8) 시부오나 : 싶으오나. 요즘의 '싶다'에 해당하는 옛 말로서 '시브다'·'식브다'라는 형태가 있었다. "ᄀᆞ장 우르고져 시브니" (『重刻杜詩諺解』 10~29.) "비ᄎᆞᆯ 자볼가 식브도소니" (『重刻杜詩諺解』 16~47.) 여기에 보이는 접미사 '-브다'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毫)도 ᄂᆞ은가 시부ᄌᆞᄂᆞ9) 걱정 그지업습고 아바님게오셔 문복(問卜)10) 가지 ᄒᆞ여 보ᄂᆞ 게시니11) 황감(惶感) 불안(不安)불안 죄롭ᄉᆞ온 향모(向慕) 간절(懇切) 부리옵지 못 아히들 면면(面面) 심여(心慮) 도으실12) ᄃᆞᆺ 각ᄉᆡᆨ(各色) 조심(操心) 읍(邑)의는 못 가게 알들13) 간슈(看守)ᄒᆞ시소 식은 바든 날노14) 갈가 ᄒᆞ오나 ᄇᆡᆨᄉᆞ(百事) 마음과 여의(如意)치 못 농(農)일도 덜 되고 밀도 바셔15) 누룩 구쳐(區處)16)를 히 녹코17) 가야 될 ᄃᆞᆺ ᄒᆞ오니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댁으로 돌아]오신 뒤, 문안 애타게 궁금하오나 다시 [안부를 여쭙기를] 아뢰지 못[하여], 죄송스럽고. 접때에 보내오신 하서

않는 것이나, '깃브다'(기쁘다)·'슳브다'(슬프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 내는 데서 일찍이 중요한 생성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9) 시부ᄌᆞᄂᆞ : 싫지 않아.

10) 문복(問卜) : 점쟁이에게 점을 쳐서 길흉을 물음, 또는 그 일.

11) 보ᄂᆞ 게시니 : 보내어 계시니. '보내다'라는 행위에 '(상대의 덕성이) 계시다'의 의미를 결합한 어구.

12) 도으실 : 도우실. (심려를) 더할.

13) 알들 : 알뜰. 간절(懇切)히. 지극(至極)히. '알들(-뜰)'과 '살들(-뜰)'은 본디 동일한 형태에서 출발했던 듯한데, 단독으로 쓰이거나 결합해서 쓰이는 가운데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4) 바든 날노 : (미리) 받아놓은 날로.

15) 바셔 : 바수어. 가루를 내어.

16) 구쳐(區處) : 변통하여 처리함.

17) 녹코 : 놓고.

(下書)를 뵈옵사오니, 먼 데서 오시와 큰 여독(餘毒)은 없으시나, 자잘하게나마 아프시고 더치시기를 마지 아니하실 듯[하매], 우러러 애처롭고 염려스러울 밖에 없사옵니다. 저는 어린 것 [아버님 댁으로 보내어] 가던 [즈음으로] 대여섯 날을 [병으로] 정신 못 차리게 지내옵고, 이제야 차츰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으오나, 설사는 아직도 전혀 나아지는가 싶지 않아서 걱정스럽기 그지없사옵고, 아버님께오서 문복(問卜)까지 하여 보내시니,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오히려] 불안하고 또 불안하매, 죄스러운 마음의 그리움 부려 놓지 못[하옵니다]. 아희들 저마다 [아버님께] 심려를 더할 듯[하여], 갖가지로 마음이 놓이지 않고…. 읍(邑)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알뜰히 지켜 주시소. 저는 [앞서 이미] 받아 놓은 날로 [길을 나서] 갈까 하오나, 모든 일이 마음과 같지 못[하옵니다]. 농사일도 덜 되었고, 밀도 바수어서 누룩으로 처리를 해 놓고 가야 될 듯하오니.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1105과 더불어 서로 맥락이 일치하는 편지로서, 유동저(柳東著, 1892~1948)의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이다.

20 1-18. 全柳_MF35-006421_676(17x61cm): 며느리 → 시아버지(1914)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문안알외옵고물너온
지월진일월이넘ᄉᆞ오
니불초ᄒᆞᆫ졍이오나우
러와부리온시업ᄉᆞ올
소이다솜츈일긔누습
ᄒᆞᆫ온디연ᄒᆞ와[隔1]엄위
긔체후만강ᄒᆞ오셔침진
등졀이여젼만위ᄒᆞ옵
시니잇가아압고져알외
오니다[隔1]아ᄌᆞ마님오시와
만강ᄒᆞ압시며슬젼아
ᄌᆞ바님닉외분허다탐
ᄉᆞ골물듀긔운평안ᄒᆞ
옵시고변계형님오신
잇가굼겁습고쳔듀도련
님솜형데평길츄중
만실긔화되시며면〃이
솜암그립습고져근덕
의층디분무쳡들ᄒᆞ옵

시고경신과ᄒᆞ계안신듯ᄌᆞ오셔
심우업ᄉᆞ시며압시골도
지안ᄒᆞ시고[小1]식도어버이지
안ᄒᆞ오나달실동싱우
환미류심여여지업ᄉᆞ
니ᄉᆞ경의민망두립ᄉᆞ고
지ᄎᆞ동긔면〃무탈든〃
지종조부ᄃᆡ쳠은업습
고[小1]식도ᄂᆡ〃무ᄉᆞᄒᆞ오니다히
제형님도귀아다려ᄂᆡ외
분안샹들ᄒᆞ옵시고외틱
무쳠든〃알외옴젓ᄉᆞ와
이만알외옵나이다회편
소망은ᄂᆡ〃만강ᄒᆞ옵
시기복츅ᄒᆞ올소이다
붓치려고셧던편지그ᄃᆡ
로보ᄂᆡ오이다무심듕ᄒᆞ셔
황공뵈오니ᄃᆡ쳠은업ᄉᆞ
시나엄위긔력종〃괴롭ᄉᆞ
오심이탁두립ᄉᆞ오이다
입셕뎨ᄉᆞ머지아니신듯범빅
을거의추신잇가제ᄉᆞ씌오촌
가실듯ᄒᆞ오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물너온 지 월진(月盡) 일월(一月)이 넘ᄉᆞ오니 불초(不肖) ᄒᆞ졍(下情)[1]이오나 우러와 부리온 시(時) 업ᄉᆞ올소이다 ᄉᆞᆷ츈(三春) 일긔(日氣) 누습(漏濕)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엄위(嚴威) 긔체후(氣體候) 만강(萬康)ᄒᆞ오셔 침진(寢進)[2] ᄃᆞᆼ졀(等節)이 여젼(如前) 만위(萬慰)ᄒᆞ옵시니잇가 아압고져 알외오니다 아ᄌᆞ마님 오시와 만강ᄒᆞ압시며 슬젼(膝前) 아ᄌᆞ바님 ᄂᆡ외(內外)분 허다(許多) 탐ᄉᆞ(探査) 골물(汨沒) 듕(中) 긔운(氣運) 평안(平安)ᄒᆞ옵시고 번계[3] 형님 오신잇가 굼겁ᄉᆞᆸ고[4] 쳔듕[5] 도련님 ᄉᆞᆷ형데(三兄弟) 평길츙ᄌᆞᆼ(平吉充壯)[6] 만실긔화(滿室琦華)[7]되시며 면면(面面)이[8] ᄉᆞᆷ암[9] 그립ᄉᆞᆸ고 져근덕의 층ᄃᆡ(層代)분[10] 무쳠(無添)들 ᄒᆞ옵시고 경신[11]과 ᄒᆞ계[12] 안신(雁信) 듯ᄌᆞ오셔 심

---

1) ᄒᆞ졍(下情) : 저의 마음. '하회'(下懷)·'하성'(下誠)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2)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3) 번계 : 지명. 다른 편지에서는 '변계'로 나온다.

4) 굼겁ᄉᆞᆸ고 : 궁금하옵고.

5) 쳔듕 : '소중'(所重)의 뜻으로 '관중'(款重)이 쓰이는 문맥에 놓인 것으로 보건대, 이것도 '소중'(所重)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 듯하다.

6) 평길츙ᄌᆞᆼ(平吉充壯) : '평길'(平吉)은 '별다른 화복(禍福)이 없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지냄'을 뜻하고, '츙ᄌᆞᆼ'(充壯)은 '사람의 풍채(風采)가 든든하고 씩씩함'을 뜻한다.

7) 만실긔화(滿室琦華) : (인품의) 아름다운 빛을 집안에 가득 드리움, 또는 그와 같이 자라남.

8) 면면(面面)이 : 저마다.

9) ᄉᆞᆷ암 : 삼삼. 암암. 'ᄉᆞᆷᄉᆞᆷ(하다)'가 '삼삼(하다)'와 '암암(하다)'의 두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나, 모두 '(언제나 잊히지 않고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또렷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우(心憂) 업ᄉᆞ시며 압시골[13]도 지안(至安)ᄒᆞ시고 식(息)도 어버이 지안(至安)ᄒᆞ오나 달실[14] 동싱(同生) 우환(憂患) 미류(彌留)[15] 심여(心慮) 여지(餘地) 업ᄉᆞ니 ᄉᆞ정(私情)의 민망(憫惘) 두립ᄉᆞ고 지ᄎᆞ동긔(之次同氣)[16] 면면(面面)[17] 무탈(無頉) 든든 직종조부(再從祖父)[18] ᄃᆡ쳠(大添)은 업ᄉᆞᆸ고 식도 ᄂᆡᄂᆡ 무ᄉᆞ(無事)ᄒᆞ오니다 ᄒᆡ제[19] 형님도 귀아(貴兒) 다려[20] ᄂᆡ외(內外)분 안상(安常)[21]들 ᄒᆞᄋᆞᆸ시고 외ᄃᆡᆨ(外宅) 무쳠(無添) 든든 알외옴 젓ᄉᆞ와[22] 이만 알외옵나이다 회편(回便)[23] 소망(所望)은 ᄂᆡᄂᆡ 만강(萬康)ᄒᆞᄋᆞᆸ시기 복츅(伏祝)ᄒᆞ올소이다 붓치려고 셧던 편지(便紙) 그ᄃᆡ로 보ᄂᆡ오이다 무심듕(無心中) ᄒᆞ셔(下書) 황공(惶恐) 뵈오니

---

10) 층ᄃᆡ(層代)분 : 위아래 세대(世代), 집안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11) 경신 : 지명.

12) 하계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 하계(下溪). 아래토계.

13) 압시골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계곡리(溪谷里) 앞시골.

14) 달실 : 지명. 닭실. 유곡(酉谷).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유곡리(酉谷里). 본래는 안동군 내성면의 지역으로서 금계포란(金鷄抱卵)의 지형이 있어 '닭실'이라 하거나 또는 '유곡'(酉谷)이라 하다가, 고종32년(1895)에는 순흥군에 편입되고 1914년에는 다시 봉화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5) 미류(彌留) :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깊어짐.

16) 지ᄎᆞ동긔(之次同氣) : 아우뻘 되는 형제자매. '지ᄎᆞ'(之次)는 '버금'·'다음'을 뜻하는 바로서 한어(漢語)의 '제'(弟)와 같은 말이다.

17) 면면(面面) : 저마다.

18) 직종조부(再從祖父) :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

19) ᄒᆡ제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해저리(海底里).

20) 귀아(貴兒) 다려 : 귀중한 아이 데리고. 일부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는 요즘 말 '데리다'가 '다르다'·'다리다'의 형태를 띠고서 다른 편지에서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편지글에서, 대개는 이와 같은 경우에 '거느리다'가 쓰인다.

21) 안상(安常) : 안녕(安寧).

22) 젓ᄉᆞ와 : 두려워. 「젛(다)+ᄉᆞᆸ+오+아」의 결합형. '젛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 (劉昌惇, 『李朝語辭典』, 653쪽 참조.)

23)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디쳠(大添)은 업ᄉ시나 엄위 긔력(氣力) 종죵(種種) 괴롭ᄉ오심 익탁(哀惚) 두렵ᄉ오이다 입셕(立石) 뎨ᄉ(祭祀) 머지 아니신 듯 범빅(凡百)[24]을 거의 추신잇가[25] 졔ᄉ(祭祀) 씨 오촌(五寸)[26] 가실 듯ᄒ오이다

3. 현대어역

아바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물러나온 지 달이 다하고 한 달이 넘사오니, 불초한 마음이오나 우러러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옵니다. 봄 날씨가 눅눅하온 이즈음, 의젓하신 기체후(氣體候) 만강(萬康)하시어 주무시고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예와 같이 만위(萬慰)하오십니까? 알고자 아뢰오니다. 아주머님 오시어 만강하오시며, 슬전 아주버님 내외분 [집안팎 일로써] 하고 많이 두루 살피고 다른 겨를 없이 파묻혀 지내는 가운데에도 기운 평안하오시고, 번계 형님 오셨는지 궁금하옵고, 천중 도련님 삼형제 다른 화복(禍福)이 따로 없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든든하고 씩씩하며, 아름다운 빛을 집안에 가득 드리우시며…. 저마다 암암히 그립고, 작은댁 어르신들 다른 병환 없으시고, 경신과 하계에서는 소식 들으시어 다른 걱정거리 없으시며, 앞시골 여러분도 더없이 평안하시고…. 저희도 어버이께서 더없이 안녕하시오나, 달실 동생의 병환이 오래도록 낳지 않아 다른 겨를 없으니, 마음에 딱하고 두렵고, 아래로 여

---

24) 범빅(凡百) : 모든 사물. 여기서는 특히 '온갖 제수(祭需)'를 가리키는 듯하다.
25) 추신잇가 : 추슬렀습니까. '추다'는 '들추다'를 낳은 말로서 '가리다'·'추리다'·'추스르다'로 더불어 가까운 뜻을 지닌다. 여기서는 '추스르다'의 뜻으로 쓰였다.
26) 오촌(五寸) : 종숙(從叔), 또는 종질(從姪).

러 형제자매들 저마다 아무 탈 없으니 든든[합니다]. 재종조부(再從祖父)께서는 큰 병환은 없으시고, 저도 내내 무사하오이다. 해제 형님도 금슬이 남달라 내외분 안녕들 하오시고, 외가(外家)도 아무 탈 없어 든든[합니다]. 아뢰옴 [굽어 살피시는 일] 두려워, 이만 아뢰옵나이다. 돌아오는 소식에 바라는 바로는, 내내 만강(萬康)하오시기 비옵니다.

부치려고 썼던 편지 그대로 보내오이다. 뜻밖에 [다시 또 보내오신] 하서(下書)를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뵈오니, 큰 병환은 없으시나, 의젓하신 기력 가끔 괴로우심 애처롭고 두렵사오이다. 입석(立石)하는 제사(祭祀)가 멀지 아니한 듯한데, [제수(祭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거의 추슬렀습니까? 제사 때 오촌(五寸)께서 가실 듯하오이다.

4. 참고

본문의 "달실 동싱 우환 미류"라는 말과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933의 "유곡 동싱은 병쇠 미류"라는 말의 정황 맥락이 서로 일치한다. 여기서 이른바 '달실'은 곧 '닭실'이고, 이것을 한자로 적은 지명은 곧 '유곡'(酉谷)이다. '유곡'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유곡리를 말한다.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오늘날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에 편입되어 있는 옛날의 내성면 해저리(海底里)에 거주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동영의 부인 의성김씨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21 1-19. 全柳_MF35-006422_933(18x37cm): 며느리 → 시아버지(1914)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뭄[移1]
안알외옵고회편후어나
듯일월이넘ᄉᆞ온이깁
ᄉᆞ온복모간절부리옵들
못ᄒᆞ올소니다즁ᄒᆞ의연
ᄒᆞ와[隔2]연심근역강
왕ᄒᆞ시와침슈등졀이
여젼만강ᄒᆞ시며[隔1]아ᄌᆞ
마님계오셔여젼만강
ᄒᆞ시며슬젼변계형님
형뎨분여젼ᄒᆞ시고형님
ᄂᆡ외분혀다골물이신
듕평안ᄒᆞ시며저근아ᄌᆞ바
님평안ᄒᆞ시며저근덕기
도층ᄃᆡ분여젼ᄒᆞ시고ᄉᆞ
졔형님형뎨분오시와
안영ᄒᆞ시고관즁도련님
슴형뎨병무츔중ᄒᆞ옵
고어엿분아기션반ᄒᆞ옵

고하계형님슈니오난지굼
〃ᄒᆞ오니다각곳안신종〃
듯ᄌᆞ와용여업ᄉᆞ신이잇
가ᄎᆞ곳[小2]식도어버이들근〃
부지ᄒᆞ옵고제종조부계셔
ᄃᆡ첨업ᄉᆞ신나노치못당
ᄒᆞᆯ소조당ᄒᆞ신니졀박
ᄒᆞ오니다유곡동싱은병
쇠미류ᄒᆞ오나약효쳔
덕으로술기라바라다가쳔
신이무심ᄒᆞ와ᄉᆞ월십
팔일노ᄉᆞᆼ고을당ᄒᆞ오니ᄒᆞᆫ
심통〃어버이일일못
견ᄃᆡᄒᆞ난샹ᄉᆞ졍의ᄋᆡ탁
ᄉᆞᆸ고[小2]식도여려남미무ᄉᆞ
ᄒᆞ오내[小2]식은졍종으로ᄃᆡ단
슈고아직리치못ᄒᆞ오니다
고모가도층〃분무쳠이
시고오촌과김히되ᄀᆡ도
괴아다르시고평안ᄒᆞ오시고외
퇴과일촌무고ᄒᆞ옵고ᄒᆞ졍
의셥〃ᄒᆞ와보셔알외옵난니다[移1]
갑인오월초이일[識][小1]식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1]

문안(問安) 알외옵고 회편(回便)[2] 후(後) 어나둣 일월(一月)이 넘ᄉᆞ온이 깁ᄉᆞ온 복모(伏慕) 간졀(懇切) 부리옵들[3] 못ᄒᆞ올소니다 즁ᄒᆞ(仲夏)의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근역(筋力) 강왕(康旺)ᄒᆞ시와 침슈등졀(寢睡等節)이 여젼(如前) 만강(萬康)ᄒᆞ시며 아ᄌᆞ마님계오셔 여젼(如前) 만강(萬康)ᄒᆞ시며 슬젼(膝前) 변계[4] 형(兄)님 형뎨(兄弟)분 여젼(如前)ᄒᆞ시고 형(兄)님 닉외(內外)분 혀다골몰(許多汨沒)[5]이신 듕(中) 평안(平安)ᄒᆞ시며 저근아ᄌᆞ바님 평안ᄒᆞ시며 저근덕기도 층ᄃᆡ(層代)분[6] 여젼ᄒᆞ시고 ᄉᆞ제[7] 형님 형뎨분 오시와 안영(安寧)ᄒᆞ시고 관즁(款重)[8] 도련님 숨형뎨 병무(病無) 츙즁(充壯)ᄒᆞ옵고 어엿분 아기 션반(善飯)ᄒᆞ옵고 하계[9] 형님 슈니 오난지 굼굼ᄒᆞ오니다 각(各)곳 안신(雁信) 죵죵(種種) 듯ᄌᆞ와 용여(用慮) 업ᄉᆞ신이잇가 ᄎᆞ(此)곳 식(息)도 어버이들 근〃(僅

---

1) 이 편지는 본문을 다 쓰고 난 뒤에 종이를 둘둘 말아 모은 끝을 조금 반대로 잡아 접은 데다 다시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라는 제목을 적어 넣어 제목으로 하여금 겉봉을 겸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 펴고 볼 때는 제목이 본문의 끝에 놓이게 된다.

2)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3) 부리옵들 : '내려 놓다'라고 하는 때의 '부리다'에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옵-」과 주체의 행위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들」을 붙인 형태.

4) 변계 : 지명.

5) 혀다골몰(許多汨沒) : 생계를 꾸리느라 하고많은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함.

6) 층ᄃᆡ(層代)분 : 위아래 세대(世代), 집안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7) ᄉᆞ제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도촌리 사제(沙堤).

8) 관즁(款重) : 소중(所重). '관중하다'의 어근으로서, '소중하다'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9) 하계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 하계(下溪). 아래토계.

僮) 부지(扶持)ᄒᆞ옵고 제종조부(再從祖父)계셔 ᄃᆡ첨[10] 업ᄉᆞ신나 노ᄎᆡ(老體) 못 당(當)ᄒᆞᆯ 소조(所遭) 당ᄒᆞ신니 절박(切迫)ᄒᆞ오니다 유곡(酉谷)[11] 동싱은 병쇠(病衰)[12] 미류(彌留)[13]ᄒᆞ오나 약효(藥效) 천덕(天德)으로 술기라 바라다가 천신(天神)이 무심(無心)ᄒᆞ와 ᄉᆞ월(四月) 십팔일노 승고(喪故)을 당ᄒᆞ오니 ᄒᆞᆫ심(恨深) 통통(慟慟) 어버이 일일(日日) 못 견ᄃᆡ ᄒᆞ난[14] 상ᄉᆞ정(相思情)의 ᄋᆡ탁(哀怛)숩고 식도 여러 남ᄆᆡ(娚妹) 무ᄉᆞ(無事)ᄒᆞ오나 식은 정종(疔腫)[15]으로 ᄃᆡ단 슈고 아직 리(理)치 못ᄒᆞ오니다 고모가(姑母家)도 층층(層層)분 무첨(無添)[16]이시고 오촌(五寸)과 김히되긔도 괴아(貴兒) 다르시고[17] 평안ᄒᆞ오시고 외턱(外宅)과 일촌(一村) 무고(無故)ᄒᆞ옵고 ᄒᆞ정(下情)[18]의 셥〃ᄒᆞ와 보서[19] 알외옵난니다[20]

---

10) ᄃᆡ첨 : '대환첨손'(大患添損)의 준말. 큰 병으로 신체 건강에 손상을 입음. '대탈'(大頉)과 같은 뜻.

11) 유곡(酉谷) : 지명. 닭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유곡리(酉谷里). 본래는 안동군 내성면의 지역으로서 금계포란(金鷄抱卵)의 지형이 있어 '닭실'이라 하거나 또는 '유곡'(酉谷)이라 하다가, 고종32년(1895)에는 순흥군에 편입되고 1914년에는 다시 봉화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2) 병쇠(病衰) : 병약(病弱).

13) 미류(彌留) :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깊어짐.

14) 견ᄃᆡ ᄒᆞ난 : 견디어 하는.

15) 정종(疔腫) : 정(疔), 정저(疔疽). 화농균(化膿菌)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뼈마디에 생기는 부스럼.

16) 무첨 : 건강에 '첨손'(添損)이 없음.

17) 괴아(貴兒) 다르시고 : 귀중한 아이 데리시고. 일부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는 요즘 말 '데리다'가 '다르다'·'다리다'의 형태를 띠고서 다른 편지에서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편지 글에서, 대개는 이와 같은 경우에 '거느리다'가 쓰인다.

18) ᄒᆞ정(下情) : 저의 마음. '하회'(下懷)·'하성'(下誠)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19) 보서 : 버선. '보션'이라 적을 데서 받침 'ㄴ'을 실수로 빠뜨리고 썼음.

갑인(甲寅) 오월 초이일 식 술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접때에 답장을 올린 뒤로 어느덧 한 달이 넘으니, 깊도록 간절한 그리움 부려 놓지 못하옵니다. 한여름에 즈음하여 연로하신 근력(筋力)은 튼튼하시와 잠자리에 들고 나는 일들이 여전히 아주 편안하시며, 아주머님께서는 여전히 편안하시며, 슬전의 변계 형님 내외분 여전하시고, 형님 내외분 [집안팎 일로써] 다른 겨를 없이 파묻혀 지내는 가운데에도 평안하시며, 작은 아주버님 평안하시며, 작은댁 어르신들 여전하시고, 사제 형님 형제분 오시어 안녕하시고, 귀중한 도련님 삼형제 병 없이 씩씩하옵고, 어여쁜 아기씨 밥 잘 드시고, 하계 형님은 수이 오는지 궁금하오이다. 여러 곳 소식 가끔 들으시매 다른 심려 없으시니이까? 이곳 저희도 어버이들 근근히 부지하옵고, 제종조부께서도 큰 병환은 없으시나 늙으신 몸으로 못 당할 일을 당하시니 절박하오이다. 유곡(酉谷) 동생은 병에 시달려 몸이 쇠약해진 채로 오래도록 낫지 못하고 있다가, 천덕(天德)으로 약효(藥效)를 입어 살기나 바랐으나, 천지신명(天地神明)이 무심하여 4월 18일로 상고를 당하오니, 한이 되기 깊도록 아프고 또 아프고…, 어버이께서 나날이 못 견디어 하는 상사정(相思情)[이 보기]에 애처롭고…. 저도 여러 남매 무사ᄒᆞ오나, 저는

---

20) 알외옵난니다 : (예물로 드리고자) 아뢰옵나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아뢴다'라고 함은 편지에 딸려 가는 물품에 관하여 그 '물목(物目)으로서 밝혀 아뢴다'는 것으로서 한문 편지에 흔히 보이는 '下納'·'命納' 따위의 말과 더불어 그 기능이 같다.

부스럼이 도져서 매우 고생하는 가운데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고모님 댁도 위아래 어르신들 다른 병환은 없으시고, 오촌(五寸)과 김해댁도 금슬이 남다른 가운데 평안하시고, 외가와 마을 모두가 무고하옵고. 마음에 섭섭하여 버선 올리옵니다.

갑인(甲寅 : 1914) 오월 초이일, 며느리 살이.

4. 참고

본문의 "유곡 동싱은 병쇠 미류"라는 말과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676의 "달실 동싱 우환 미류"라는 말의 정황 맥락이 서로 일치한다. 여기서 이른바 '달실'은 곧 '닭실'이고, 이것을 한자로 적은 지명은 곧 '유곡'(酉谷)이다. '유곡'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유곡리를 말한다.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오늘날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에 편입되어 있는 옛날의 내성면 해저리(海底里)에 거주했다. 더욱이 이 편지는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서의 "제종조부"와 "김히뎍"의 안부를 전하는 발신자의 입장이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961·1068의 편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동영의 부인 의성김씨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22 1-20. 全柳_MF35-006422_1068(18x47cm): 며느리 → 시아버지(1916)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상ᄉᆞᆯ이[移1]
문[移1]
안알외옵고긋즉문안
은슈ᄌᆞ알외온후아득굼
굼겁ᄉᆞ올ᄎᆞ웃치로ᄒᆞ
셔ᄒᆞ옵신것밧ᄌᆞ와황
공뵈옵ᄉᆞ오니그시연고업
ᄉᆞ오심즐겁ᄉᆞ오나그후
날ᄉᆞ이되오니싀로이복
모간절ᄒᆞ오니다ᄒᆞ일
이누습ᄒᆞ온ᄃᆡ연ᄒᆞ와
연심긔테후만강ᄒᆞ옵
셔침슈등져리여젼ᄒᆞ
옵신이잇가불초ᄒᆞ졍
이오나외오복모구〃불
이오며슬ᄒᆞ형님니외분
허다긱빈골물듕긔운
안영하옵시고도련님
여러슉덜분안길뉸
턱ᄒᆞ옵고져근형님니

도숨솔분긴고업ᄉᆞ시며
소텩과각곳안신듯ᄌᆞ
와두로심우업ᄉᆞ시며
[小2]식도어버이긴고업ᄉᆞ나허
다심여만숫오니ᄉᆞ졍
의민망습고직종
조부계셔더쳠업ᄉᆞ시고
[小2]식도즁셰요ᄉᆞ이조곰ᄎᆞ감
잇난듯ᄒᆞ오나치알슈업
습고리치못졀박ᄒᆞ오니다
뉵모초말숨ᄒᆞ신거
션그더로ᄒᆞ여보올이다
동싱들무탈공싱〃김희
덕형님대솔듕년고업
ᄉᆞ시나즙농골물의쓰신
듈모습고알외옵더만알
외오니다젹숨속옷두
불보션두거리알외
옵나니다
병진오월이십팔일[小2]ᄌᆞ부술이

[피봉]

安東郡臨東面水爲里[小4]至急〃〃[移1]

柳進士宅小舍廊柳東英殿[移1]

奉化郡乃城面海底里金炳根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상(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긋족[1] 문안은 슈ᄌᆞ(數字) 알외온 후(後) 아득 굼굼겁ᄉᆞ올[2] ᄎᆞ(次) 웃ᄎᆡ(郵遞)로 ᄒᆞ셔(下書)ᄒᆞ옵신 것 밧ᄌᆞ와 황공(惶恐) 뵈옵ᄉᆞ오니 그ᄉᆡ[3] 연고(緣故) 업ᄉᆞ오심 즐겁ᄉᆞ오나 그 후 날ᄉᆞ이 되오니 ᄉᆡ로이 복모(伏慕) 간졀(懇切)ᄒᆞ오니다 ᄒᆞ일(夏日)이 누습(漏濕)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긔톄후(氣體候) 만강(萬康)ᄒᆞ옵셔 침슈등져리(寢睡等節이) 여젼(如前)ᄒᆞ옵신이잇가 불초(不肖) ᄒᆞ졍(下情)이오나 외오[4] 복모구구(伏慕區區) 불이(不已)오며 슬ᄒᆞ(膝下) 형님 ᄂᆡ외(內外) 분 허다(許多) ᄀᆡᆨ빈(客賓) 골물(汨沒) 듕(中) 긔운 안영(安寧)하옵시고 도련님 여러 슉딜(叔姪) 분 안길(安吉) 뉸ᄐᆡᆨ(潤澤)ᄒᆞ옵고 져근 형님ᄂᆡ도 ᄉᆞᆷ솔(三率)[5] 분 긴고(緊苦) 업ᄉᆞ시며 소ᄐᆡᆨ(小宅)과 ᄀᆡᆨ(各)곳 안신(雁信) 듯ᄌᆞ와 두로 심우(心憂) 업ᄉᆞ시며 식(息)도 어버이 긴고 업ᄉᆞ나 허다 심여(心慮) 만ᄉᆞᆺ오니[6] ᄉᆞ졍(私情)의 민망(憫惘)ᄉᆞᆸ고 ᄌᆡ종조부(再從祖父)계셔 ᄃᆡ쳠(大添) 업ᄉᆞ시고 식도 증셰(症勢) 요ᄉᆞ이 조곰 ᄎᆞ감(差減) 잇난 듯ᄒᆞ오나 ᄎᆡ 알 슈 업ᄉᆞᆸ고 리(理)치 못 졀박(切迫)ᄒᆞ오니 다 뉵모초 말ᄉᆞᆷᄒᆞ신 거션 그ᄃᆡ로 ᄒᆞ여 보올이다 동ᄉᆡᆼ들 무탈(無頉) 공ᄉᆡᆼ[7] 공ᄉᆡᆼ 김ᄒᆡ덕 형님 대솔(帶率) 듕 년고(緣故) 업ᄉᆞ시나 ᄌᆞᆸ농(雜農)

---

1) 긋족 : 그 쪽.
2) 굼굼겁ᄉᆞ올 : 궁금하던. '굼'을 겹쳐 쓴 경우.
3) 그ᄉᆡ : 그사이.
4) 외오 : 멀리서.
5) ᄉᆞᆷ솔(三率) : 삼대(三代).
6) 만ᄉᆞᆺ오니 : 많사오니. '만싸오니'라고 적어야 할 데서 된소리 표기를 위한 'ㅅ'을 받침 자리에 적은 경우.

골물 이쓰신 듈 모습고[8] 알외옴 더(大)만[9] 알외오니다 젹솜 속옷 두 불 보션 두 거리 알외옵나니다[10]

병진(丙辰) 오월 이십팔일 조부(子婦) 술이

[피봉]

安東郡 臨東面 水爲里 柳進士宅 小舍廊 柳東英 殿 至急至急

奉化郡 乃城面 海底里 金炳根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그 동안 문안은 몇 글자 아뢰온 뒤로 아득 궁금하던 겨를에 우체(郵遞)로 하서(下書)하신 것을 받잡아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뵈옵사오니 그 사이에 다른 연고(緣故) 없으심 즐겁사오나, 그 뒤로 [또한] 며칠이 되오니 새로이 그리운 마음 간절하오이다. 여름 날씨가 눅눅한 이즈음, 연로하신 기체후(氣體候) 만강(萬康)하시어 잠자리에 들고 나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여전하오십니까? 못난 마음이오나 그리어 마지 못하오며…. 슬하의 형님 내외분 하고많이 손님 맞이하

7) 공싱 : 마음이 놓이는 모양.

8) 모습고 : 모습을 하고.

9) 더만 : 대강만. '대강'의 '강'을 빠뜨리고 쓴 경우.

10) 알외옵나니다 : (예물로 드리고자) 아뢰옵나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아뢴다'라고 함은 편지에 딸려 가는 물품에 관하여 그 '물목(物目)으로서 밝혀 아뢴다'는 것으로서 한문 편지에 흔히 보이는 '下納'·'命納' 따위의 말과 더불어 그 기능이 같다.

는 일에 애쓰시는 가운데 기운 안녕하오시고, 도련님 및 여러 조카 분들 편안하고 윤택하옵고, 작은 형님네도 위아래로 뫼시고 거느리신 분들 마음 졸이는 괴로움 없으시며, 소택(小宅)과 여러 곳 소식 들으시어 두루 염려 없으시며…. 저희도 어버이께서 마음 졸이는 괴로움은 없으시나 하고많은 심려 많사오니, 마음에 딱하옵고, 재종조부(再從祖父)께서 큰 병환 없으시고, 저도 증세(症勢) 요사이 조금 차도가 있는 듯하오나, 미처 알 수 없사옵고, [병을 아직 다 다스리지 못[하여], 절박하오이다. 육모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여 보오리다. 동생들 아무 탈 없으니 적이 마음이 놓이고, 김해댁 형님 식솔 거느리신 가운데 다른 연고 없으시나, 갖가지 농사로 애쓰는 모습을 하고…. 아뢰옴 대강만 아뢰오이다. 적삼 속옷 두 벌, 버선 두 거리 올리옵니다.

병진(丙辰 : 1916) 오월 이십팔일, 며느리 살이.

4. 참고

피봉(皮封)의 주소에 "柳東英"이 보이는데, 이것은 수신자를 표시하는 바가 아니고,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적을 없어서 남편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발신자 의성김씨는 거의 모든 편지에 간지(干支)를 적어 작성 일자를 밝히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23 1-21. 全柳_MF35-006422_961(18x62cm): 며느리 → 시아버지(1916)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샹술이[移1]
문[移1]
안알외옵고인마돌
인후아득ᄒᆞ오니식로이
복모간졀불리오며연
ᄒᆞ와[隔1]연심근역만강
ᄒᆞ오시고진반등졀이
일향만듕ᄒᆞ옵시고
슬ᄒᆞ형님늬외분허
다골물이신듕안영
ᄒᆞ옵시고관듕도련님슴
형데션반눈티ᄒᆞ옵고
아기씨무고ᄒᆞ옵고식집의
도괴아다리시고딕우업ᄉᆞ
시며져근덕기셔도긴우업ᄉᆞ
시고박곡과각쳐안신종〃
열낙ᄒᆞ시와용업ᄉᆞ시
며[小1]식도어버이늬딕탈은
업ᄉᆞ오니만힝습고직종조
계셔도여젼ᄒᆞ시니흔〃즐

겁습고[小2]식도완인은못되
오나이ᄉᆞ이그만ᄒᆞ옵고뉵
모쵸은구히ᄉᆞᆺ오나환을
지을동고을흘동두ᄀᆞ지
요량ᄒᆞ옵나이다김히
덕기도형님긴고업ᄉᆞ
시고ᄒᆞ촌도시외덕시외
슉모샹고한심가이업
습고회편소망은층디
분여젼ᄒᆞ옵신소문복
츅ᄒᆞ옵나니다알외
옴슈다ᄒᆞ오나다못알외
오니죄룸습고아모것도
못죄송그지업ᄉᆞ오이다
ᄒᆞ경의셥〃ᄒᆞ와아
반님보션알외옵나
이다[移2]
병진칠월스무여드의[移1]날[小2]ᄌᆞ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인마(人馬) 돌인 후 아득ᄒᆞ오니 시로이 복모(伏慕) 간절(懇切) 불리(不離)오며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근역(筋力) 만강

(萬康)ᄒᆞ오시고 진반등절(進飯等節)이 일향만듕(一向萬重)ᄒᆞ옵시고 슬ᄒᆞ(膝下) 형(兄)님 닉외(內外)분 허다골물(許多汨沒)[1]이신 듕(中) 안영(安寧)ᄒᆞ옵시고 관듕(款重)[2] 도련님 ᄉᆞᆷ형뎨(三兄弟) 션반(善飯) 눈틱(潤態)[3]ᄒᆞ옵고 아기씨 무고(無故)ᄒᆞ옵고 싀집의도 긔아(貴兒) 다리시고[4] 딕우(大憂) 업ᄉᆞ시며 져근딕기셔도 긴우(緊憂) 업ᄉᆞ시고 박곡[5]과 각쳐(各處) 안신(雁信) 종종(種種) 열낙(連絡)ᄒᆞ시와 용(用)[6] 업ᄉᆞ시며 식(息)도 어버이니 딕탈(大頉)은 업ᄉᆞ오니 만힝(萬幸)ᄉᆞᆸ고 직종조(再從祖)계셔도 여젼(如前)ᄒᆞ시니 흔흔(欣欣) 즐겁ᄉᆞᆸ고 식(息)도 완인(完人)은 못 되오나 이 ᄉᆞ이 그만ᄒᆞ옵고 뉵모초[7]은 구ᄒᆡᆺ오나[8] 환(丸)을 지을동[9] 고(膏)을 흘동 두 ᄀᆞ지 요량(料量)ᄒᆞ옵나이다 김힉(金海)딕기도 형님 긴고(緊苦) 업ᄉᆞ시고 ᄒᆞ촌(下村)[10]도 시외(媤外)딕 시외슉모(媤外

1) 허다골물(許多汨沒) : 생활상의 필요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마치 한 가지 일처럼 삼아 거기에 골똘히 파묻혀 애씀.

2) 관듕(款重) : 소중(所重). '관중하다'의 어근으로서, '소중하다'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3) 눈틱(潤態) : 같은 필자의 다른 편지에서는 '눈턱'(潤澤)으로 적은 사례가 보임.

4) 긔아(貴兒) 다리시고 : 귀중한 아이 데리시고. 일부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는 요즘 말 '데리다'가 '다르다'·'다리다'의 형태를 띠고서 다른 편지에서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편지 글에서, 대개는 이와 같은 경우에 '거느리다'가 쓰인다.

5) 박곡 : 지명. 박실.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6) 용(用) : '용여(用慮)'라고 해야 할 데서 '여(慮)'를 빠뜨리고 썼음.

7) 뉵모초 : '육모초'로서, '익모초'(益母草)의 다른 말.

8) 구ᄒᆡᆺ오나 : 구했사오나. '구ᄒᆡᆺ오나'(구했사오나)라고 적을 만한 자리에서 '-ᄒᆡᆺ-'과 '-사-'의 사이에 겹치는 'ㅅ'을 '-사-'의 받침으로 적은 필기 형태. 음절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 그것을 도리어 앞음 위치에 반영하는 사례가 한글 간찰에 흔히 보인다. 여기에 보이는 '-ᆺ-'의 실제 발음은 [ᄊᆡ]이다.

9) 동 : '-둥'의 옛 형태. '-동'·'-쏭'의 형태로 나타나며, '것인지'의 '-지'에 가까운 뜻으로 쓰인다. "진짓 ᄡᅥ신동 거짓 ᄡᅥ신동(眞的假的)" (『老乞大諺解』 下-58. /劉昌惇, 『李朝語辭典』, 231쪽 참조.)

叔母) 상고(喪故) 한심(恨深) 가이업습고 회편(回便)[11] 소망(所望)은 층듸(層代)분[12] 여젼(如前)ᄒᆞ옵신 소문(所聞) 복츅(伏祝)ᄒᆞ옵나니다 알외올 슈다(數多)ᄒᆞ오나 다 못 알외오니 죄(罪)롭습고[13] 아모 것도 못 죄송(罪悚) 그지업ᄉᆞ오이다 ᄒᆞ졍(下情)[14]의 셥셥ᄒᆞ와 아반님 보션 알외옵나이다[15]

병진(丙辰) 칠월 스무 여드의[16] 날 ᄌᆞ부(子婦) 술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인마(人馬)를 돌려보낸 뒤로 [다시 소식이] 아득하오니 새로이 간절한 그리움 떠나지 아니하오며…. 이즈음, 연로하신 근력 만강하오시고, 진지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한결로 편안하오시고, 슬하 형님 내외분 여러 가지 집안일로 애쓰시는 가운데 안녕(安寧)하오시고, 귀중한 도련님 삼형제 분들도 밥 잘 드시고 태도(態度)

---

10) ᄒᆞ촌(下村)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11)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12) 층듸(層代)분 : 위아래 세대(世代), 집안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13) 죄(罪)롭습고 :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스럽다」의 자리에 「-롭다」가 들 수 있는지는 의문.

14) ᄒᆞ졍(下情) : 저의 마음. '하회'(下懷)·'하성'(下誠)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15) 알외옵나이다 : (예물로 드리고자) 아뢰옵나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아뢴다'라고 함은 편지에 딸려 가는 물품에 관하여 그 '물목(物目)으로서 밝혀 아뢴다'는 것으로서 한문 편지에 흔히 보이는 '下納'·'命納' 따위의 말과 더불어 그 기능이 같다.

16) 여드의 : 여드레.

고우시며, 아기씨 무고하옵고, 새집[의 신혼 부부]도 남달리 서로 사랑하시고 큰 걱정거리 없으시며, 작은집도 마음 졸이는 걱정거리 없으시고, 박곡과 여러 곳 소식 가끔 연락하시매 다른 염려 없으시며…. 저희도 어버이네 큰 탈은 없사오니 매우 다행스럽고, 재종조께서도 여전하시니 흔흔 즐겁사옵고, 저는 [병으로 앓은 뒤에 아직] 온전한 사람은 못 되오나, 요즈음 그만하옵고. 육모초는 구했사오나, 환(丸)을 지을 것인지 고(膏)를 만들 것인지, 두 가지로 요량(料量)을 하옵나이다. 김해댁께서도, 형님 마음 졸이는 괴로움 없으시고. 하촌(下村)도, 시외가 시외숙모(媤外叔母)께서는 상고(喪故)를 겪으시고 깊이깊이 지니시는 마음의 응어리 가없사옵고. 돌아오는 회답(回答)에 바라는 바는, 어르신들 여전하옵시다는 소식 듣기를 비옵나이다. 아뢸 말씀 매우 많사오나 다 못 아뢰오니 죄스럽고, 아무 것도 못[해 드려서], 죄송하기 그지없사옵니다. 마음에 섭섭하여, 아버님 [신으실] 버선 올리옵나이다.

병진(丙辰 : 1916) 칠월 스무 여드레 날,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본문의 "뉵모초은 구ᄒᆡᆺ오나 환을 지을동 고을 ᄒᆞᆯ동 두 ᄀᆞ지 요량ᄒᆞ옵나이다"라는 말과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1068의 "뉵모초 말ᄉᆞᆷᄒᆞ신 거션 그ᄃᆡ로 ᄒᆞ여 보올이다"라는 말의 맥락이 일치하며, 아울러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서의 "ᄌᆡ종조"와 "김ᄒᆡᄃᆡᆨ"의 안부를 전하는 발신자의 입장이 또한 일치한다.

24 1-22. 全柳_MF35-006422_942(18x32cm): 며느리 → 시아버지(1916)

1. 판독

[隔1]아바님전[隔1]샹술이
문[移1]
안알외옵고긋즉문안아
득ᄒᆞ옵든ᄎᆞ인마도라오
며아반님ᄒᆞ셔밧ᄌᆞ와
황공뵈옵사오니딕첨
은업ᄉᆞ신듯경ᄉᆞ그지업
ᄉᆞᆸ고그후날ᄉᆞ이연ᄒᆞ와
연심근역만강ᄒᆞ옵시고
슬ᄒᆞ형님늬외분허다
고님듕긔운평안ᄒᆞ옵시
고형님두듕ᄌᆞ연괴로우
실무익잇줍시갓도련님
려러슉딜분션반눈텩
ᄒᆞ옵고시집의도늬외분긔
아다리시고여전ᄒᆞ시며망쳔
은회답보오니평안ᄒᆞ신
듯힝이옵고져근덕과각
덕여젼들ᄒᆞ옵시고각쳐
안신종〃듯ᄌᆞ오시와다란

심여업ᄉᆞ시며[小2]식도어버이닉
무첨ᄒᆞ옵고제종조계셔도
더첨업ᄉᆞ고[小1]식도더탈으
업ᄉᆞ오나현긔아즉리치
못ᄒᆞ옵고김히덕여젼
들ᄒᆞ시고아ᄌᆞ바님긋즉길
ᄒᆞ시난듯어버이계그말
ᄉᆞᆷᄒᆞ오니의안읍으로나
면그리갈나ᄒᆞ오니닉
연ᄉᆞᆷᄉᆞ월ᄉᆞ이로나면조
흘듯ᄒᆞ오니다알외옴
허다ᄒᆞ오나인발자시못
죄송ᄒᆞ오니다회편소
망은층〃분여젼ᄒᆞ옵
심소문혈축ᄒᆞ옵
나니다임행굼〃형님긔샹셔못
죄송ᄒᆞ오이다
병진팔월초여드의날[移1]
[隔7][小4]ᄌᆞ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긋즉[1] 문안 아득ᄒᆞ옵든 ᄎᆞ 인마(人馬) 도라오며

아반님 ᄒᆞ셔(下書) 밧ᄌᆞ와 황공(惶恐) 뵈옵사오니 ᄃᆡ첨(大添)[2]은 업ᄉᆞ신 듯 경ᄉᆞ(慶事) 그지업습고 그 후 날ᄉᆞ이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근역(筋力) 만강(萬康)ᄒᆞ옵시고 슬ᄒᆞ 형님 ᄂᆡ외분 허다(許多) 고님(苦任) 듕 긔운 평안(平安)ᄒᆞ옵시고 형님 두듕(頭重) ᄌᆞ연(自然) 괴로우실 무익(無益) 잇ᄌᆞᆸ 시갖[3] 도련님 려러 숙딜(叔姪)분 션반(善飯) 눈ᄐᆡᆨ(潤澤)ᄒᆞ옵고 식집의도 ᄂᆡ외분 괴아(貴兒) 다리시고[4] 여젼(如前)ᄒᆞ시며 망쳔[5]은 회답 보오니 평안ᄒᆞ신 듯 ᄒᆡᆼ(幸)이옵고 져근ᄃᆡᆨ과 각ᄃᆡᆨ 여젼들 ᄒᆞ옵시고 각쳐(各處) 안신(雁信) 종종 듯ᄌᆞ오시와 다란 심여(心慮) 업ᄉᆞ시며 식(息)도 어버이ᄂᆡ 무쳠(無添)[6]ᄒᆞ옵고 졔종조(再從祖)계셔도 ᄃᆡ쳠(大添) 업ᄉᆞ고 식도 ᄃᆡ탈(大頉)으[7] 업ᄉᆞ오나 현긔 .아즉 리(理)치 못ᄒᆞ옵고 김히ᄃᆡᆨ 여젼들 ᄒᆞ시고 아ᄌᆞ바님 ᄀᆞᆺ족 길ᄒᆞ시난[8] 듯 어버이계 그 말ᄉᆞᆷᄒᆞ오니 의안읍(義安邑)[9]으로 나면 그리 갈나 ᄒᆞ오니 ᄂᆡ연(來年) ᄉᆞᆷᄉᆞ월(三四月) ᄉᆞ이로 나면 조흘 듯ᄒᆞ오니다 알외옴 허다ᄒᆞ오나 인발(人發) 자시 못 죄송ᄒᆞ오니다 회편(回

---

1) ᄀᆞᆺ족 : 그 쪽.

2) ᄃᆡ첨 : '대환첨손'(大患添損)의 준말. 큰 병으로 신체 건강에 손상을 입음. '대탈'(大頉)과 같은 뜻.

3) 시갖 : '시갓', 곧 「시가(媤家)+ㅅ」의 사이시옷을 'ㅈ'으로 표기한 잘못.

4) 괴아(貴兒) 다리시고 : 귀중한 아이 데리시고. 일부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는 요즘 말 '데리다'가 '다르다'·'다리다'의 형태를 띠고서 다른 편지에서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편지 글에서, 대개는 이와 같은 경우에 '거느리다'가 쓰인다.

5) 망쳔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輞川里).

6) 무쳠(無添) : '쳠'(添)은 곧 '쳠손'(添損). 큰 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신체 건강의 손상이 없음.

7) ᄃᆡ탈(大頉)으 : 대탈(大頉)은. '-으'는 '-은'의 받침을 빠뜨리고 쓴 경우.

8) ᄀᆞᆺ족 길ᄒᆞ시난 : 그 쪽으로 길을 나시는. 행차(行次)에 상당하는 뜻으로 '길ᄒᆞ다'라는 형태가 더러 쓰인다. '길잡다'에 견주어 볼 만하다.

9) 의안읍(義安邑) : 지명. 1914년에 안동군으로 편입된 예안현(禮安縣)의 옛 이름이 본래는 '의인현'(義仁縣)이었다. '예안읍'(禮安邑)이라고 할 만한 것을 '의안읍'이라고 한 듯하다.

便)[10] 소망(所望)은 층층(層層)분 여젼ᄒᆞ옵심 소문 혈츅[11]ᄒᆞ옵나니다 임행(臨行) 굼굼 형님긔 샹셔(上書) 못 죄송ᄒᆞ오이다

병진(丙辰) 팔월 초여드의 날 ᄌᆞ부(子婦) 술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그 쪽 문안 아득하던 차에, 인마(人馬)가 돌아오면서 아버님 하서(下書)를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뵈오니, 큰 병환은 없으신 듯[하매], 경사롭기 그지없사옵고, 그 뒤로 지난 며칠 동안 연로하신 근력 만강하오시고, 슬하 형님 내외분 하고많은 괴로운 소임(所任)을 다하는 가운데 평안(平安)하오시고, 형님은 [바야흐로 마음을 쓰는 일이야] 머리 어지러워 절로 괴로우실 [터에 무슨] 이로움이 있삽[겠습니까]? 시가의 도련님, 여러 조카 분들 밥 잘 드시고 윤택(潤澤)하옵고, 새집도 내외분 금슬 남다르시고 여전하시며, 망천은 [보내온 편지] 답장에 보오니 평안하신 듯[하매] 다행이옵고, 작은집과 또 그밖에 여러 집 여전들 하오시고, 여러 곳 소식 가끔 들으시어 다른 심려 없으시며…. 저희도, 어버이네 다른 병환은 없사옵고, 제종조께서도 큰 병환은 없으시고, 저도 큰 탈은 없사오나 현기증(眩氣症)은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있사오며, 김해댁네도 여전들 하시고, 아주버님께서는 [아버님 계시는] 그 쪽으로 길을 나신 듯[하옵니다]. 어버이께 [아버님께서 하명(下命)하신] 그 말씀

10)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11) 혈축(血祝) : 심축(心祝). 마음 깊이 사무치게 빎.

을 여쭈오니, 의안읍(義安邑)으로 나갈 양이면 그리 가라고 하오니, 내년 삼사월 사이로 나가면 좋을 듯하오이다. 아뢰올 말씀 많사오나 사람이 막 떠나려는 겨를이라 자세히 [적지] 못[하오니], 죄송하오이다. 돌아오는 답장에 바라는 바는, 위아래 어르신들 여전하옵시다는 소문 [듣기를] 비옵나이다. [언제쯤] 길을 나실 것인지 궁금[하오며], 형님께는 [미처] 상서(上書)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오이다.

병진(丙辰 : 1916) 팔월 초여드레 날,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서의 "제종조"와 "김히덕"의 안부를 전하는 발신자의 입장이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961·1068의 편지와 일치한다.

25 1-23. 全柳_MF35-006422_1125(16x35cm): 며느리 → 시아버지(1919)

1. 판독

아바님젼[隔1]상ᄉᆞ리

문[移1]
안알외옵고회편오기
바라압든ᄎᆞ셕슌오며
급〃탁봉의[隔1]ᄒᆞ셔밧ᄌᆞ
와황공뵈옵ᄉᆞ오니셔쳠
환은업ᄉᆞ오심듯ᄌᆞ와
깃겁ᄉᆞᆸ고야간ᄉᆞᆺ이[移1]
괴롭ᄉᆞ오신ᄃᆡ나업ᄉᆞ오
신이잇가ᄒᆞᆫ슐진반이
여젼방ᄉᆞᄒᆞ옵신가복
모구〃부리옵지못ᄒᆞ올
소이다슬젼[隔1]아ᄌᆞ바님게
옵셔형데분허다심여신
듕여젼ᄒᆞ오시고도련님
ᄉᆞᆷ형데오와인난듈
다힝ᄉᆞ오며무탈션식
ᄒᆞ옵고[小2]ᄌᆞ부도어버이녀녀
〃여젼ᄒᆞ온이만힝ᄉᆞᆸ
고제종조부계셔도층ᄃᆡ분
별쳠업ᄉᆞ시고[小2]ᄌᆞ부도여러
남미무ᄉᆞ다힝ᄉᆞᆸ고알
외옴허다만ᄉᆞᆺ오나어득
슈션이만알외오며이후
여젼ᄒᆞ압심문안듯ᄌᆞᆸ
기고망ᄒᆞ압고이후통기잇

ᄉᆞᆺ면속히나가올듯ᄒᆞ
오나일샹셩〃치못ᄒᆞ와
싱양되오면약쳡이나먹
으려ᄒᆞ오나기간먹을
지아즉기필못ᄒᆞ압나
이다웃편으로신붓
치나이다[移1]
긔미칠월이십뉵일[移1]
[小2]ᄌᆞ부ᄉᆞ리

[피봉]
安東郡北門外梨洞[移1]柳[隔1]東英殿[小12]陰己未七月[移1]二十六日[移1]至急〃
奉化乃城面海底里[移1]金[隔1]炳根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ᄉᆞ리
문안(問安) 알외옵고 회편(回便)[1] 오기 바라압든 ᄎᆞ(次) 셕슌[2] 오며 급급(急急) 탁봉(坼封)의 ᄒᆞ셔(下書) 밧ᄌᆞ와 황공(惶恐) 뵈옵ᄉᆞ오니 셔쳠환(暑添患)[3]은 업ᄉᆞ오심 듯ᄌᆞ와 깃겁습고[4] 야간(夜間) ᄉᆞᆺ이[5] 괴롭ᄉᆞ

1)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2) 셕슌 : 인명.
3) 셔쳠환(暑添患) : 더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

오신 ᄃᆡ나 업ᄉᆞ오신이잇가 ᄒᆞᆫ 술 진반(進飯)이 여젼 방ᄉᆞ(倣似)ᄒᆞ옵신가 복모(伏慕) 구구(區區)[6] 부리옵지 못ᄒᆞ올소이다 슬젼(膝前) 아ᄌᆞ바님계옵셔 형뎨(兄弟)분 허다(許多) 심여(心慮)신 듕(中) 여젼(如前)ᄒᆞ오시고 도련님 삼형뎨(三兄弟) 오와[7] 인난 듈 다ᄒᆡᆼ(多幸)ᄉᆞ오며 무탈(無頉) 션식(善食)ᄒᆞ옵고 ᄌᆞ부(子婦)도 어버이ᄂᆡ ᄂᆡᄂᆡ 여젼ᄒᆞ온이 만ᄒᆡᆼ(萬幸)습고 졔종조부(再從祖父)[8]계셔도 층ᄃᆡ(層代)분[9] 별쳠(別添) 업ᄉᆞ시고 ᄌᆞ부(子婦)도 여러 남ᄆᆡ(娚妹) 무ᄉᆞ(無事) 다ᄒᆡᆼ(多幸)습고 알외옵 허다(許多) 만ᄉᆞᆺ오나[10] 어득[11] 슈션[12] 이만 알외오며 이후(以後) 여젼ᄒᆞ압심 문안 듯잡기 고망(告望)ᄒᆞ압고 이후(以後) 통기(通寄)[13] 잇ᄉᆞᆺ면 속히 나가올 듯ᄒᆞ오나 일샹(日常) 셩셩(盛盛)치 못ᄒᆞ와 ᄉᆡᆼ양(生養)되오면[14] 약쳡(藥貼)이나 먹으려 ᄒᆞ오나 기간(幾間)[15] 먹을지 아즉 기필(期必) 못ᄒᆞ압나이다 우편(郵便)으로 신(信) 붓치나이다

---

4) 깃겁습고 : 기쁘고.

5) ᄉᆞᆺ이 : 사이. 앞에 있는 '약간'이라는 말에 'ᄉᆞ이'가 바로 이어지면서 된소리가 생기는 것을 받침에 반영한 표기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된소리 표기가 흔히 보인다.

6) 구구(區區) : 존처(尊處)에 대하여 자신 및 자신의 행위·감정 따위를 낮추어 가리키는 바로서 '자잘하여 보잘것없는 저'라는 뜻을 지니는 말이다. 특히 서간에서 흔히 쓰인다.

7) 오와 : 와서.

8) 제종조부(再從祖父) :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

9) 층ᄃᆡ(層代)분 : 위아래 세대(世代), 집안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10) 만ᄉᆞᆺ오나 : 많사오나. '만-(많)'과 '-ᄉᆞ-(숩)'가 만나면서 생기는 된소리를 받침에 반영한 표기이다.

11) 어득 : (정신 상태가) 어둑어둑하고.

12) 슈션 : 수선스러워.

13) 통기(通寄) : 통지(通知).

14) ᄉᆡᆼ양(生養)되오면 : (약을 먹고 그 기운을 이겨낼 만큼 체력이) 길러지면.

15) 기간(幾間) : 얼마 동안이나.

긔미(己未) 칠월 이십뉵일 ᄌᆞ부 ᄉᆞ리

[피봉]

安東郡 北門外 梨洞 柳東英 殿 陰己未 七月 二十六日 至急至急

奉化 乃城面 海底里 金炳根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답장이 오기를 바라옵던 겨를에, 석순이가 오면서 [건네주는 바를] 바삐 열어 하서(下書)를 받자와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뵈옵사오니 더위에 병환(添患)은 없으심 듣자와 기쁘옵고, 밤사이 괴로우신 데나 없사오니까? 한 술 진지 드시는 일이 여전하오신지, 그리운 마음 부려 놓지 못하오이다. 슬전(膝前)의 아주버님 및 형제분들 하고 많이 심려하시는 가운데 여전하오시고, 도련님 삼형제 와 있는 것 다행스러우며 아무 탈 없이 밥들 잘 먹으옵고…. 저희도 어버이네 내내 여전하오니 다행스럽고, 재종조부 댁도 위아랫분 모두 다른 병환 없으시고, 저도 여러 남매가 다 무사하여 다행이고…. 아뢰올 말씀 매우 많사오나 어둑어둑하고 수선스러워 이만 아뢰오며, 앞으로도 여전하오신 문안 듣기를 바라오며, 나중에 기별이 있으면 곧 나가올 듯하오나, 언제나 몸이 성하지 못해서 [체력이 좀] 길러지면 약첩(藥貼)이나 먹으려 하오나 얼마 동안이나 먹어야 할지 아직 딱히 기약(期約)하지는 못하겠나이다. 우편(郵便)으로 서신(書信) 부치나이다.

기미(己未) 칠월 이십육일,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피봉에 적힌 "乃城面 海底里 金炳根"이라는 발신자의 주소가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1068의 편지와 일치한다.

26 1-24. 全柳_MF35-006422_1109(18x31cm): 며느리 → 시아버지(1919)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상사리[移1]
문[移1]
안알외옵고홍번아돌젼
날무의듬아바님게옵셔
불의지환을당ᄒᆞ옵신
젼문듯줍고만길넝의
써러진닷일시촉슈하고
육촌숙녀즉시젼보ᄒᆞ
니아바님무사닙턱ᄒᆞ신답
젼보바든후일젼우포
로살이알외더니그간보

신가굼〃ᄒᆞ옵던ᄎᆞ이집
인편잇ᄉᆞᆸ기로두어ᄌᆞ급
촉알외나니다초츄일
기션〃ᄒᆞ온디연ᄒᆞ와[移1]
연심근역의숀ᄉᆞᆼ체업
ᄉᆞ시고침슈등졀이여젼
ᄒᆞ시며슬젼아자바님
여러형제분평안ᄒᆞ시며
이의난다오신지뭄나굼〃
ᄒᆞ오이다[小1]식도장쇼로긴
고업ᄉᆞᆸ고어린놈온갓
즛시우습고[小1]식은온여람
셩일업ᄉᆞ니졀박〃인
편임발의ᄉᆞ듯ᄌᆞᆸ고급
〃두어ᄌᆞ알외나니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상(上)사리

문안 알외옵고 홍번아[1] 돌 젼(前)날 무의듕(無意中) 아바님게옵셔 불의지환(不意之患)을 당(當)ᄒᆞ옵신 젼문(傳聞) 듯ᄌᆞᆸ고 만(萬) 길 넝의[2]

1) 홍번아 : 인명. 유동영(柳東英, 1901~)의 첫째 아들, 유홍번(柳興蕃, 1918~). '-아'(兒)는 아이의 이름에 붙여 '작고 예쁘다'는 뜻을 더하는 허사이다.
2) 넝의 : 구렁에. 낭떠러지에. '구렁'은 땅이 움푹하게 팬 곳을 말한다.

쎠러진 닷 일시(一時) 촉슈(促壽)[3]하고 육촌(六寸) 숙녀(淑女) 즉시(卽時) 젼보(轉報)ᄒᆞ니 아바님 무사(無事) 닙턱(入宅)ᄒᆞ신 답젼보(答轉報) 바든 후(後) 일젼(日前) 우포(郵票)로[4] 살이 알외더니 그간 보신가 굼굼ᄒᆞ옵던 ᄎᆞ(次) 이 집[5] 인편(人便) 잇삽기로 두어 ᄌᆞ(字) 급촉(急促) 알외나니다 초츄(初秋) 일기(日氣) 션션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근역(筋力)의 숀송체(損傷體) 업ᄉᆞ시고 침슈등절(寢睡等節)이 여젼(如前)ᄒᆞ시며 슬젼(膝前) 아자바님 여러 형제(兄弟)분 평안(平安)ᄒᆞ시며 이의난[6] 다오신지[7] 물나[8] 굼굼ᄒᆞ오이다 식(息)도 장쇼(長小)로 긴고(緊苦) 업삽고 어린 놈 온갓 즛시[9] 우삽고 식은 온 여람[10] 셩일(盛日) 업ᄉᆞ니 졀박(切迫)졀박 인편(人便) 임발(臨發)의ᄉᆞ[11] 듯즙고 급급(急急) 두어 ᄌᆞ 알외나니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홍번이 돌 전날 갑자기 아버님께옵서 뜻하지 않게 환

3) 촉슈(促壽) : (거의 죽음에 이를 듯이, 죽살이) 목숨을 다그침.
4) 우포(郵票)로 : 우편(郵便)으로. '우표'(郵票)를 '우포'로 적은 듯하다.
5) 이 집 : (발신자 며느리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
6) 이의난 : 이에는. 여기에는.
7) 다오신지 : 닿으시는지. 이르시는지.
8) 물나 : 몰라.
9) 즛시 : 짓에.
10) 온 여람 : 여름 내내.
11) 임발(臨發)의ᄉᆞ : 길을 떠날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란(患亂)을 겪으셨다는 소식을 듣잡고 만 길 구렁에 떨어진 듯, 한때 죽살이 놀라고, 육촌(六寸) 아가씨 [시켜서] 곧바로 전보(電報)하니, 아버님께옵서 무사히 집으로 드셨다는 답전보(答電報)를 받은 뒤에 [또한] 며칠 앞서 우편으로 살이를 아뢰었는데, 그 사이 [받아] 보셨는지 궁금하옵던 겨를에 이 집[에서 떠나는] 인편(人便)이 있기에 두어 글자 바삐 서둘러 아뢰나이다. 초가을 날씨 선선한 이즈음, 연로하신 근력에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 잠자리에 들고 나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여전하시며…. 슬전의 아주버님 및 여러 형제분들 평안하시며, 여기에는 이르시는지 몰라 궁금하오이다. 저희도 위아래로 마음 졸이는 괴로움은 없사옵고, 어린 놈 온갖 짓에 우습고, 저는 온 여름을 성한 날이 없이 보내니 절박하고 또 절박[합니다]. 인편이 막 떠나려는 때에야 [간다는 말을] 듣고 바삐 두어 글자 [적어] 아뢰나이다.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유동영의 첫째 아들 유홍번(柳興蕃, 1918～)이 태어난 해에 비추어 보건대, "홍번아 돌 전날"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 편지의 작성 시점은 당연히 1919년이다.

27 1-25. 全柳_MF35-006424_1803(16x51cm): 며느리 → 시아버지(1920)

1. 판독

[아바]님젼[隔1]상ᄉᆞ리
문[移1]
안알[외]옵고식이오온지
ᄉᆞ오일되옵ᄉᆞ온니우려와
봉모일시도부리옵지못
ᄒᆞ오이다일세안온ᄒᆞ온디
연[ᄒᆞ]와[隔1]여지업ᄉᆞ오신
긔력손상쳠이ᄂᆞ업ᄉᆞ오신
잇가불초ᄒᆞ졍이오나쥬ᄉᆞ
야탁ᄒᆞ와ᄋᆡ탁두립오이
이다슬젼아ᄌᆞ바님디구길
ᄒᆞ시잇가굼겁ᄉᆞ오며집
은다벼여습올듯ᄉᆡᆼ각죄
송〃ᄒᆞ오이다시덕슉딜
무ᄉᆞᄒᆞ오며졈번형제뭇탈
ᄒᆞ오잇가좀시도잇지못ᄒᆞ
오이다석번아성치안니ᄒᆞ
오든이즉금들ᄒᆞ온지것
밧업ᄉᆞ오이다밤졀골도무
고ᄒᆞ오잇가식도밧어버이형

졔분쳡졀ᄌᆞᆺᄉᆞ온니ᄉᆞ졍의
ᄋᆡ탁ᄒᆞ오이다식도온후무ᄉᆞ
ᄒᆞ오이다번아도못탈ᄒᆞ오이
다식의심신좁지못ᄒᆞ와
ᄇᆡᆨᄉᆞ을ᄉᆡᆼ각지안니ᄒᆞ옵고
와ᄉᆡᆼ각ᄒᆞ온니후회무
궁ᄒᆞ오이다머든지ᄒᆡ가잇
ᄉᆞ올듯ᄒᆞ오이다슈이가려
려ᄒᆞ온니어버이못가ᄀᆡᄒᆞ
온니답답ᄒᆞ오며회편의
아바님어버이계핀지ᄒᆞ시고슈이
보너라ᄒᆞ옵시소아바님말ᄉᆞᆷ
ᄒᆞ시면되올듯ᄒᆞ오이다석
번ᄌᆞ로ᄎᆞᄌᆞ드리시소회답
은근역슈심이강영ᄒᆞ옵
시기복츅이올소이다
빈ᄉᆞ리죄송〃ᄒᆞ오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전(前) 상(上)ᄉᆞ리

문안(問安) 알[외]옵고 식(息)이 오온 지 ᄉᆞ오(四五) 일(日) 되옵ᄉᆞ온니 우려와 봉모(伏慕)[1] 일시(一時)도 부리옵지 못ᄒᆞ오이다 일세(日勢) 안온(安穩)ᄒᆞ온ᄃᆡ 연(連)[ᄒᆡ]와 여지(餘地) 업ᄉᆞ오신 긔력(氣力) 손상쳡

(損傷添)[2]이ᄂᆞᆫ 업ᄉᆞ오신잇가 불초(不肖) ᄒᆞ졍(下情)이오나 쥬ᄉᆞ야탁(晝思夜度)ᄒᆞ와 ᄋᆡ탁(哀怛) 두립오이이다[3] 슬젼(膝前) 아ᄌᆞ바님 ᄃᆡ구[4] 길ᄒᆞ시잇가[5] 굼겁ᄉᆞ오며 집은 다 벼여숩올 듯[6] ᄉᆡᆼ각 죄송(罪悚)죄송ᄒᆞ오이다 ᄉᆡ덕 슉딜(叔姪) 무ᄉᆞ(無事)ᄒᆞ오며 졈번[7] 형졔(兄弟) 뭇탈(無頉)ᄒᆞ오잇가 ᄌᆞᆷ시(暫時)도 잇지 못ᄒᆞ오이다 셕번아[8] 셩(盛)치 안니ᄒᆞ오든이 즉금(卽今) 들ᄒᆞ온지[9] 것밧[10] 업ᄉᆞ오이다 밤졀골[11]도 무고(無故)ᄒᆞ오잇가 ᄉᆡᆨ도 밧어버이[12] 형제분 쳠졀(添節)[13] ᄌᆞᆺᄉᆞ온니[14] ᄉᆞ졍(私情)의 ᄋᆡ탁ᄒᆞ오이다 ᄉᆡᆨ도 온 후(後) 무ᄉᆞᄒᆞ오이다 번아[15]도 뭇탈ᄒᆞ오이다 ᄉᆡᆨ의 심신(心神) ᄌᆞᆸ지 못ᄒᆞ와 ᄇᆡᆨᄉᆞ(百事)을 ᄉᆡᆼ각지 안니ᄒᆞ옵고 와 ᄉᆡᆼ각ᄒᆞ온니 후회(後悔) 무궁(無窮)ᄒᆞ오이다 머든지[16] ᄒᆡ(害)가 잇ᄉᆞ올 듯ᄒᆞ오이다 슈이 가려려[17] ᄒᆞ온니 어버이 못 가ᄀᆡ ᄒᆞ온니 답답ᄒᆞ오며 회편(回

---

1) 봉모(伏慕) : '복모'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다.
2) 손상첨(損傷添) : 건강에 손상을 입을 만한 병환, 또는 병환의 더침. 여기에 보이는 '첨'(添)은 곧 '아픈 데가 더치다'의 뜻으로서 병환을 가리키는 말로 서간에 흔히 쓰인다.
3) 두립오이이다 : 두렵사오이다. '-이-'에서 글줄이 바뀌자 한번 더 쓴 경우이다.
4) ᄃᆡ구 : 지명. 경상북도 대구시.
5) 길ᄒᆞ시잇가 : 길을 나십니까. 행차(行次)에 상당하는 뜻으로 '길ᄒᆞ다'라는 형태가 더러 쓰인다.
6) 다 벼여숩올 듯 : 텅 비었을 듯.
7) 졈번 : 인명.
8) 셕번아 : 인명.
9) 들ᄒᆞ온지 : 덜한지.
10) 것밧 : 겁밖에.
11) 밤졀골 : 지명. 밤절골.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栗世洞).
12) 밧어버이 : (발신자 며느리의) 친정 어버이.
13) 쳠졀(添節) : 병환(病患). 또는 병환중의 건강 상태.
14) ᄌᆞᆺᄉᆞ온니 : 잦으니.
15) 번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16) 머든지 : 무엇이든지.

便)의 아바님 어버이계 편지(便紙)ᄒᆞ시고 슈이 보너라 ᄒᆞ옵시소 아바님 말숨ᄒᆞ시면 되올 듯ᄒᆞ오이다 석번 ᄌᆞ로[18] ᄎᆞᄌᆞ 드리시소 회답(回答)은 근역(筋力) 슈심(守心)[19]이 강영(康寧)ᄒᆞ옵시기 복축(伏祝)이올소이다 빈 ᄉᆞ리[20] 죄송죄송ᄒᆞ오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제가 돌아온 지 사오 일이나 되오니, 우러러 그리운 마음 한때도 부려 놓지 못하오이다. 날씨 따스해진 이즈음, 여지없으신 기력(氣力)에 건강을 해칠 만한 병환이나 없으신지, 못난 마음이오나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매 애처롭고 두렵사옵니다. 슬전(膝前)의 아주버님 대구로 길 [떠나] 가셨사오니까? 궁금하오며, 집은 텅 비었을 듯[하매],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또 죄송하오이다. 새댁과 조카들 무사하오며, 점번이 형제들 아무 탈 없사오니까? 잠시도 잊지 못하오이다. 석번이는 성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조금] 덜하온지, 겁밖에 나지 않사옵니다. 밤절골도 무고하오이까? 저희도 어버이 및 형제분들 병환 잦으시니 마음에 애처롭사옵니다. 저도 돌아온 뒤로 무사하오이다. 번이도 아무 탈 없사오이다. 저의 마음 잡지 못하여 모든 일을 생각지 아니하옵고, 와서 생각하오니,

---

17) 가려려 : 글줄이 '-려'에서 바뀌면서 한 번 더 쓴 경우이다.

18) ᄌᆞ로 : 자주.

19) 슈심(守心) : 정신(精神).

20) 빈 ᄉᆞ리 : 글월만 보내고 이바지가 없이 빈 편지.

후회(後悔)스럽기 그지없사오이다. 무엇을 하든지 해(害)가 있을 듯하오이다. [돌아온 뒤에] 곧바로 가려 하였더니, 저희 어버이께서 못 가게 하오니 답답하오며…. 회편(回便)에 아버님께서 [저희] 어버이께 편지(便紙)하시고, '곧 보내라.'고 하옵시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올 듯하오이다. 석번이한테 자주 찾아 드리시소. 회답(回答)은, 근력(筋力)과 정신(精神)이 모두 강녕(康寧)하오시기를 바라옵니다. 빈 살이 죄송하오이다.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본문의 "슬젼 아ᄌᆞ바님 ᄃᆡ구 길ᄒᆞ시잇가"라는 말과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4_1890의 "슬젼 아ᄌᆞ바님계옵셔 ᄃᆡ구 힝ᄎᆞᄒᆞ셧다던이"라는 말의 정황 맥락이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편지는 1920년에 보낸 MF35-006424_1890의 편지와 같은 해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유동영이 1920년을 전후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사실이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51의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거니와, 남편이 그처럼 유학을 떠나 있는 동안에 시댁으로 가서 거주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저간의 사정이 이 편지에서 또한 드러난다.

28 1-26. 全柳_MF35-006424_1890(18x66cm): 며느리 → 시아버지(1920)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상술이[移1]
문[移1]
안알외옵고문안듯ᄌᆞ온지
월포되온이불초ᄒᆞ졍
이오나우러〃복모구〃부리
올시업숩고지ᄒᆞᆫ의닝혹
ᄒᆞ온ᄃᆡ연ᄒᆞ와[隔1]쇠속ᄒᆞ
오신긔력엄위ᄒᆞ오실
닷우러와빅슈조안이뵈
옵고졉ᄉᆞ오니다날싀이
덧ᄒᆞ온이문밧츄립ᄒᆞ시
기어려우실듯요ᄉᆞ이아득
젹조ᄒᆞ오니두로구〃아옵고
졉ᄉᆞ오이다슬젼아ᄌᆞ바님
계옵셔ᄃᆡ구힝ᄎᆞᄒᆞ셧다
던이그ᄉᆞ이환턱ᄒᆞ오션난
잇가조이옵고슬젼형님
각〃분안영ᄒᆞ오시며져
근아ᄌᆞ바님계옵셔닉〃안영
ᄒᆞ오시고싀ᄃᆡᆨ닉외분허다

소님듐평길눈텨ᄒᆞ오
셔심여업ᄉᆞ시고아ᄋᆞ님시젼
의신힝가난이잇가잇지
못ᄒᆞ오이다아가형데무양
다식공부축실ᄒᆞ온잇가
반져골도거나려무쳠이시고
슈곡안신종〃드라시와평
안들ᄒᆞ오시며외너와검졔
안신숙〃ᄒᆞ옵시고경셩
은언제드라오신이잇가
예셔난옷슬붓쳐도바다
다난말이업고편지을붓
첫던이반하가되여셔
도로오니엇제일인지답
〃고조이오이다[小1]식도어버이너
근〃더병은업ᄉᆞ온이만힝
숩고졔종조계셔도큰쳠은
업ᄉᆞ시고[小2]ᄌᆞ부도모ᄌᆞ일양
이오니다동싱들무ᄉᆞ형님
은종긔로무흔속으시고
다힝이셩종은안이되여
요ᄉᆞ이리이나아신이경
ᄉᆞ옵고외턱의도층〃분만
안이시고알외옴허다ᄒᆞ오
나웃편ᄌᆞ시못알외나이

다이후회편은층〃분여
젼ᄒᆞ오심문안듯ᄌᆞᆸ기
복축ᄒᆞᄋᆞᆸ나이다
경신지월열나흔날[小2]ᄌᆞ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ᄋᆞᆸ고 문안 듯ᄌᆞ온지 월포(月-)[1] 되온이 불초(不肖) ᄒᆞ졍(下情)이오나 우러〃 복모구구(伏慕區區) 부리올 시(時) 업ᄉᆞᆸ고 지ᄒᆞᆫ(至寒)의 닝혹(冷酷)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쇠ᄉᆞᆨ(衰削)[2]ᄒᆞ오신 긔력(氣力) 엄위(嚴威)[3]ᄒᆞ오실 닷 우러와 ᄇᆡᆨ슈(白首) 조안(尊顔)[4]이 뵈ᄋᆞᆸ고 졉ᄉᆞ오니다[5] 날싀 이덧ᄒᆞ온이[6] 문밧[7] 츄립(出入)ᄒᆞ시기 어려우실 듯 요ᄉᆞ이 아득 젹조(積阻)[8]ᄒᆞ오니 두로 구구(區區) 아ᄋᆞᆸ고 졉ᄉᆞ오이다 슬젼(膝前) 아ᄌᆞ바님계ᄋᆞᆸ셔 ᄃᆡ구[9] ᄒᆡᆼᄎᆞ(行次)ᄒᆞ셧다던이 그 ᄉᆞ이 환ᄐᆡᆨ(還宅)ᄒᆞ오션난잇가 조이ᄋᆞᆸ고 슬젼 형님[10] 각각(各各)분 안영(安寧)ᄒᆞ오시며 져근아

---

1) 월포(月-) : 달포. 한 달 남짓한 동안.
2) 쇠ᄉᆞᆨ(衰削) : 쇠약(衰弱).
3) 엄위(嚴威) : 엄숙하고 위엄이 있음. 여기서는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말을 써야 문맥에 어울리는데, 문맥에 맞지 않게 썼다.
4) 조안(尊顔) : 어른의 얼굴. '존안'(尊顔)이라고 써야 할 데서 받침을 빠뜨리고 썼다.
5) 뵈ᄋᆞᆸ고 졉ᄉᆞ오니다 : 뵙고 싶사옵니다.
6) 날싀 이덧ᄒᆞ온이 : 날씨가 이러하오니.
7) 문밧 : 문밖.
8) 젹조(積阻) : 서로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소식이 막힘.
9) ᄃᆡ구 : 지명. 경상북도 대구시.

ᄌᆞ바님계옵셔 ᄂᆡᄂᆡ 안영ᄒᆞ오시고 ᄉᆡᆨ덕 ᄂᆡ외(內外)분 허다(許多) 소님(所任) 듕(中) 평길(平吉) 눈틔(潤態)[11] ᄒᆞ오셔 심여(心慮) 업ᄉᆞ시고 아ᄋᆞ님[12] 시젼(媤殿)[13]의 신ᄒᆡᆼ(新行)[14] 가난이잇가 잇지 못ᄒᆞ오이다 아가 형뎨(兄弟) 무양(無恙) 다식(多食) 공부(工夫) ᄎᆞᆨ실(着實)ᄒᆞ온잇가 반져골[15]도 거나려[16] 무쳠(無添)이시고 슈곡[17] 안신(雁信) 종종(種種) 드라시와 평안(平安)들 ᄒᆞ오시며 외ᄂᆡ[18]와 검졔[19] 안신 ᄉᆞᆨᄉᆞᆨᄒᆞ옵시고[20] 경셩(京城)은 언제 드라오신이잇가[21] 예셔난 옷슬 붓쳐도 바다다난[22] 말이 업고 편지을 붓쳣던이 반하(返下)[23]가 되여셔 도로 오니 엇졔[24] 일인지 답답고 조이오이다 ᄉᆡᆨ도 어버이ᄂᆡ 근근(僅僅) ᄃᆡ병(大病)은 업ᄉᆞ온

---

10) 형님 : 여기서는 발신자 며느리의 여러 동서(同壻).
11) 눈틔(潤態) : (살림살이가) 넉넉함.
12) 아ᄋᆞ님 : 아우님. 여기서는 발신자 며느리의 시누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13) 시젼(媤殿) : 시가(媤家). 시집.
14) 신ᄒᆡᆼ(新行) : 혼행(婚行). 혼인하여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
15) 반져골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16) 거나려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려.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느려'·'거느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17) 슈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무실.
18) 외ᄂ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19) 검졔 : 지명. 검제.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西後面) 금계리(金溪里). 금지, 또는 금음지·금지촌이라고도 이른다.
20) ᄉᆞᆨᄉᆞᆨᄒᆞ옵시고 : (궁금하여) 속이 바짝 마르는 듯하고. 수신자 시아버지의 심리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발신자 며느리인 자신의 심리 상태를 말한 것인데, 여기에 선어말 어미 '-옵시-'를 적용한 것은 공대(恭待)가 지나쳐서 생긴 하나의 실수로 보인다.
21) 드라오신이잇가 :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22) 바다다난 : 받았다는.
23) 반하(返下) : 되돌려 물리거나 내치는 일, 또는 그 물건.
24) 엇졔 : 어찌 된.

은 언제 드라오신이잇가"라는 말은 1920년을 전후로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던 남편 유동영의 소식을 물은 것이다.

29 1-27. 全柳_MF35-006424_1889(24x54cm): 며느리 → 시아버지(1920)

1. 판독

[隔1]아부님젼[隔1]상술이
문[移1]
안알외옵고문안듯ᄌᆞ온지
슌일이넘ᄉᆞ온이우러와
복모구〃부리옵지못ᄒᆞ올
소이다혹독일셰의연
ᄒᆞ와[隔1]연심ᄒᆞ옵신긔테
후만강ᄒᆞ오시와진반등
졀허무치안이오시며슬
젼아ᄌᆞ바님각〃분평안들
ᄒᆞ오시고형님각〃분안영
ᄒᆞ오신이잇가두로구〃아압
고졉ᄉᆞ오니다ᄌᆞ부도어버이
늬무쳠이옵고ᄌᆞ부모ᄌᆞ무
ᄉᆞᄒᆞ오이다형님늬와졔

ᄌᆞ바님계옵셔 ᄂᆡᄂᆡ 안영ᄒᆞ오시고 싀ᄃᆡᆨ ᄂᆡ외(內外)분 허다(許多) 소님(所任) 듕(中) 평길(平吉) 눈티(潤態)[11]ᄒᆞ오셔 심여(心慮) 업ᄉᆞ시고 아ᄋᆞ님[12] 시젼(媤殿)[13]의 신ᄒᆡᆼ(新行)[14] 가난이잇가 잇지 못ᄒᆞ오이다 아가 형데(兄弟) 무양(無恙) 다식(多食) 공부(工夫) 챡실(着實)ᄒᆞ온잇가 반져골[15]도 거나려[16] 무쳠(無添)이시고 슈곡[17] 안신(雁信) 죵죵(種種) 드라시와 평안(平安)들 ᄒᆞ오시며 외ᄂᆡ[18]와 검제[19] 안신 숙숙ᄒᆞ옵시고[20] 경셩(京城)은 언제 드라오신이잇가[21] 예셔난 옷슬 붓쳐도 바다다난[22] 말이 업고 편지을 붓첫던이 반하(返下)[23]가 되여셔 도로 오니 엇제[24] 일인지 답답고 조이오이다 싀도 어버이ᄂᆡ 근근(僅僅) ᄃᆡ병(大病)은 업ᄉᆞ온

---

10) 형님 : 여기서는 발신자 며느리의 여러 동서(同壻).
11) 눈티(潤態) : (살림살이가) 넉넉함.
12) 아ᄋᆞ님 : 아우님. 여기서는 발신자 며느리의 시누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13) 시젼(媤殿) : 시가(媤家). 시집.
14) 신ᄒᆡᆼ(新行) : 혼행(婚行). 혼인하여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
15) 반져골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16) 거나려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려.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느려'·'거느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17) 슈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무실.
18) 외ᄂ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19) 검제 : 지명. 검제.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西後面) 금계리(金溪里). 금지, 또는 금음지·금지촌이라고도 이른다.
20) 숙숙ᄒᆞ옵시고 : (궁금하여) 속이 바짝 마르는 듯하고. 수신자 시아버지의 심리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발신자 며느리인 자신의 심리 상태를 말한 것인데, 여기에 선어말 어미 '-옵시-'를 적용한 것은 공대(恭待)가 지나쳐서 생긴 하나의 실수로 보인다.
21) 드라오신이잇가 :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22) 바다다난 : 받았다는.
23) 반하(返下) : 되돌려 물리거나 내치는 일, 또는 그 물건.
24) 엇제 : 어찌 된.

이 만힝(萬幸)습고 졔종조(再從祖)계셔도 큰 쳠(添)은 업스시고 ᄌᆞ부(子婦)도 모ᄌᆞ(母子) 일양(一樣)이오니다 동싱(同生)들 무ᄉᆞ(無事) 형님은 종긔(腫氣)로 무ᄒᆞᆫ(無限) 속으시고[25] 다힝(多幸)이 셩종(成腫)[26]은 안이 되여 요ᄉᆞ이 리(理)이 나아신이 경ᄉᆞ(慶事)옵고 외턱(外宅)의도 층층(層層)분 만안(萬安)이시고 알외옴 허다(許多)ᄒᆞ오나 웃편(郵便) ᄌᆞ시[27] 못 알외나이다 이후(以後) 회편(回便)은 층층분 여젼(如前)ᄒᆞ오심 문안 듯ᄌᆞᆸ기 복츅(伏祝)ᄒᆞᆸ나이다

경신(庚申) 지월(至月)[28] 열나흔날 ᄌᆞ부 술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문안 듣자온 지 한달 남짓 되오니, 못난 마음이오나 우러러 그리는 마음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옵고…. 추위가 매우 매서운 이즈음, 쇠약(衰弱)해지신 기력(氣力)이 [위태로운 가운데에도] 엄위(嚴威)하실 듯[하매], 우러러 아버님 얼굴이 뵈옵고 싶사옵니다. 날씨가 이러하오니 문밖 출입(出入)은 어려우실 듯[하고], 요사이 아득히 소식이 끊기오니, 두루 [안부를] 아옵고 싶사옵니다. 슬전(膝前)의 아주버

25) 속으시고 : 걸리시고. 남의 꾀나 거짓부렁이에 걸려 넘어가는 것을 '속다'라고 하거니와, 이것과 어떤 사기나 계략에 말려들거나 병에 들리는 것을 '걸리다'라고 하는 것이 상통한다. 요즘 같으면 '걸리다'라고 할 것을 여기서는 '속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26) 셩종(成腫) : 종기가 남.
27) ᄌᆞ시 : 자세히.
28) 지월(至月) : 동짓달.

님께서 대구로 행차하셨다더니, 그 사이 돌아오셨나이까? [마음이] 조이옵고…. 슬전 형님 여러분 안녕하시오며, 작은 아주버님께서도 내내 안녕하오시고, 새댁 내외분 맡은 바의 하고많은 일 가운데 아무 탈 없고 넉넉하시어 다른 심려 없으시고, 아우님은 시댁으로 신행(新行)을 갔나이까? 잊지 못하오이다. 아가 형제들 아무 병 없이 밥 잘 먹고 공부 착실히 하오니까? 반저골도 몸과 마음을 잘 거느려 아무 병 없으시고, 수곡 소식 가끔 들으시어 평안(平安)들 하오시며, 외내와 검제 소식 몹시 궁금하옵고, 경성[에 있는 제 남편 소식]은 언제[나마] 들으셨사오니까? 여기서는 옷을 부쳐도 [거기서는] 받았다는 말이 없고, 편지를 부쳤더니 반하(返下)가 되어 다시 [되돌아] 오니 어찌 된 일인지 답답하고 조이오이다. 저희도 어버이네 겨우겨우 큰 병환은 없사오니 거듭 다행스럽고, 재종조께서도 큰 병환은 없으시고, 저도 모자(母子)가 [예나 지금이나] 한가지이오이다. 동생들 무사하고, 형님은 종기(腫氣)에 수도 없이 걸리시더니 다행히 [깊이] 곪지는 아니하여 요사이에는 [모두] 다스리어 나았으니 기쁜 일이옵고, 외가집도 위아래 분들 만안(萬安)이시고…. 아뢰올 말씀 많사오나, 우편(郵便)에 [보내는 터라] 자세히 못 아뢰나이다. 앞으로 돌아올 소식으로는, 위아래 분들 여전하오시다는 문안 듣잡기를 비옵나이다.

경신(庚申 : 1920)년 동짓달 열 나흗날,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본문의 "경성

은 언제 드라오신이잇가"라는 말은 1920년을 전후로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던 남편 유동영의 소식을 물은 것이다.

29 1-27. 全柳_MF35-006424_1889(24x54cm): 며느리 → 시아버지(1920)

1. 판독

[隔1]아부님젼[隔1]상술이
문[移1]
안알외옵고문안듯주온지
슌일이넘ᄉᆞ온이우러와
복모구〃부리옵지못ᄒᆞ올
소이다혹독일셰의연
ᄒᆞ와[隔1]연심ᄒᆞ옵신긔톄
후만강ᄒᆞ오시와진반등
졀허무치안이오시며슬
젼아주바님각〃분평안들
ᄒᆞ오시고형님각〃분안영
ᄒᆞ오신이잇가두로구〃아압
고졉ᄉᆞ오니다주부도어버이
늬무쳠이옵고주부모주무
ᄉᆞᄒᆞ오이다형님늬와졔

종조부계셔큰쳠은업
ᄉᆞ신이경ᄒᆡᆼᄉᆞ오이다알
외옴허다ᄒᆞ오나급〃ᄌᆞ시못
알외나이다너〃ᄐᆡ평안과
ᄒᆞ오신문안듯ᄌᆞᆸ기복츅
ᄒᆞ압나이다[移1]
경신납월초이튼날[小2]ᄌᆞ부ᄉᆞ리

2. 전사 · 주석

아부님 젼(前) 상(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문안 듯ᄌᆞ온 지 슌일(旬日)이 넘ᄉᆞ온이 우러와 복모구구(伏慕區區) 부리옵지 못ᄒᆞ올소이다 혹독(酷毒) 일셰(日勢)의 연(連)ᄒᆞ와 연심(年深)ᄒᆞ옵신 긔톄후(氣體候) 만강(萬康)ᄒᆞ오시와 진반(進飯) 등졀(等節) 허무(虛無)치 안이오시며 슬젼(膝前) 아ᄌᆞ바님 각각(各各) 분 평안(平安)들 ᄒᆞ오시고 형님 각각 분 안영(安寧)ᄒᆞ오신이잇가 두로 구구(區區) 아압고 졉ᄉᆞ오니다[1] ᄌᆞ부(子婦)도 어버이너 무쳠(無添)이옵고 ᄌᆞ부(子婦) 모ᄌᆞ(母子) 무ᄉᆞ(無事)ᄒᆞ오이다 형님너와 졔종조부(再從祖父)계셔 큰 쳠(添)은 업ᄉᆞ신이 경ᄒᆡᆼ(慶幸)ᄉᆞ오이다 알외옴 허다(許多)ᄒᆞ오나 급급(急急) ᄌᆞ시 못 알외나이다 너너 ᄐᆡ평(太平) 안과(安過)[2]ᄒᆞ오신 문안 듯ᄌᆞᆸ기 복츅(伏祝)ᄒᆞ압나이다

---

1) 아압고 졉ᄉᆞ오니다 : 알고 싶사옵니다.
2) 안과(安過) : 편안하게 지냄.

경신(庚申) 납월(臘月)[3] 초이튼 날 ᄌᆞ부(子婦) ᄉᆞ리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문안 듣자온 지 열흘이 넘사오니, 우러러 그리는 마음 부려 놓지 못하옵니다. 몹시 추운 날씨에 즈음하여, 기체후(氣體候) 만강(萬康)하시어 진지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없는 듯하지 아니하시며, 슬전(膝前)의 아주버님 여러분 평안(平安)들 하오시고, 형님 여러분들 안녕하오십니까? 두루 알고 싶사옵니다. 저희도 어버이네 다른 병환 없으시고, 저희 모자(母子)도 무사하오이다. 형님네와 재종조부께서도 큰 병환은 없으시니 경사롭고 다행스럽습니다. 아뢰올 많사오나 바빠 자세히 못 아뢰나이다. 내내 태평하게 지내시는 문안 듣잡기를 비옵나이다.

경신(庚申 : 1920)년 섣달 초이튿날,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

3) 납월(臘月) : (음력으로) 섣달.

30 1-28. 全柳_MF35-006422_1004(18x54cm): 며느리 → 시아버지(1921)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상술이[移1]
문안알외옵고환세ᄒᆞ와
일월이넘도록이젹술
이도ᄒᆞᆫ순알외압지못ᄒᆞ온이
불초ᄒᆞ졍이올소이다영
신가절의연ᄒᆞ와[移1]
긔톄후만강ᄒᆞ오시고신연
길운의만슈무강ᄒᆞ오시기
복축기옵고슬젼아ᄌᆞ바
님계옵셔각〃이외분평
안ᄒᆞ오시고아ᄋᆞ님여러슉딜
분긔운츙건들ᄒᆞ오니잇가
두로굼〃부리올시업습
고고중안신종〃듯ᄌᆞ오시와
다리신심여덜ᄒᆞ오신잇가
아ᄌᆞ바님갑일갓지지나시고딕
ᄉᆞ치시와범절남의셔출
인ᄒᆞᆫ듈경ᄉᆞ비길곳업습
고ᄌᆞ부도어버이닉두로큰탈
업습고[小2]ᄌᆞ부도ᄉᆞ병후근〃

그모양이옵고형님네도거나
리시고무첨ᄒᆞ옵신이만힝
ᄒᆞ오나두로슈란들하옵고
알외옴허다만ᄉᆞ오나셔지
듕다못알외나이다녀〃
ᄐᆡ평ᄒᆞ오신문안듯ᄌᆞᆸ
기복츅ᄒᆞ옵나이다
신유이월초사일[小2]ᄌᆞ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환셰(換歲)[1] ᄒᆞ와 일월(一月)이 넘도록 이젹[2] 술이도 ᄒᆞᆫ슌(順) 알외압지 못ᄒᆞ온이 불초ᄒᆞ졍(不肖下情)이올소이다 영신가졀(迎新佳節)의 연(連)ᄒᆞ와 긔톄후(氣體候) 만강(萬康)ᄒᆞ오시고 신연길운(新年吉運)의 만슈무강(萬壽無疆)ᄒᆞ오시기 복츅(伏祝)기옵고[3] 슬젼(膝前) 아ᄌᆞ바님계옵셔 각각(各各) 이외(以外)분 평안(平安)ᄒᆞ오시고 아ᄋᆞ님[4] 여러 슉딜(叔姪) 분 긔운 츙건(充健)들 ᄒᆞ오니잇가 두로 굼굼부리올 시(時) 업습고 고즁[5] 안신(雁信) 종종(種種) 듯ᄌᆞ오시와 다리

---

1) 환셰(換歲) : 해가 바뀜. 설을 쇰.
2) 이젹 : 이 때. 이즈음.
3) 복츅(伏祝)기옵고 : '복츅이옵고'라고 할 데서 '츅'의 받침 'ㄱ'을 '-이(다)'에 연철시켜 이중 표기한 경우.
4) 아ᄋᆞ님 : 아우님. 여기서는 '시누이'(媤-)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신[6] 심여(心慮) 덜ᄒᆞ오신잇가 아ᄌᆞ바님 갑일(甲日)갓지[7] 지나시고 ᄃᆡᄉᆞ(大事)[8] 치시와 범절(凡節) 남의셔[9] 출인(出人)ᄒᆞᆫ 듯 경ᄉᆞ(慶事) 비길 곳 업ᄉᆞᆸ고 ᄌᆞ부(子婦)도 어바이ᄂᆡ 두로 큰탈 업ᄉᆞᆸ고 ᄌᆞ부도 ᄉᆞ병(死病) 후(後) 근근(僅僅) 그 모양이ᄋᆞᆸ고 형님ᄂᆡ도 거나리시고[10] 무쳠(無添)ᄒᆞᄋᆞᆸ신이 만ᄒᆡᆼ(萬幸)ᄒᆞ오나 두로 슈란(愁亂)들 하ᄋᆞᆸ고 알외옴 허다(許多) 만ᄉᆞ오나 셔지(書紙) 듕(中) 다 못 알외나이다 ᄂᆡᄂᆡ ᄐᆡ평(太平)ᄒᆞ오신 문안 듯ᄌᆞᆸ기 복축ᄒᆞᄋᆞᆸ나이다

신유(辛酉) 이월 초사일 ᄌᆞ부 술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설을 쇠고도 한 달이 넘도록 이적까지 살이도 한번 아뢰옵지 못하오니, 불초한 마음이오이다. 새해를 맞이한 좋은 이때에, 기체후(氣體候) 만강(萬康)하오시고, 새해에도 좋은 운수(運數)에 만수무강(萬壽無疆)하오시기를 비옵고…. 슬전의 여러 아주버님과 그

---

5) 고중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於旨里) 고장골. 노루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6) 다리신 : 다른. 특별한.

7) 갑일(甲日)갓지 : 갑일까지. '-까지'라고 적어야 할 데서 된소리 표기를 위한 'ㅅ'을 받침 자리에 적은 듯하다.

8) ᄃᆡᄉᆞ(大事) : 큰일. 여기서는 아들의 '혼사'(婚事)를 가리키는 듯하다.

9) 남의셔 : 남보다. '-의셔'는 옛말에 있어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10) 거나리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느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밖의 여러 분 평안하오시고, 아우님 및 여러 조카들 기운 튼튼하고 씩씩하오니까? 두루 궁금[한 마음],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옵고…. 고장의 소식 가끔 들으시어 다른 심려 덜하시오니까? 아주버님 갑일(甲日)까지 지나시고, [또] 대사(大事)를 치르시어 [새 며느리] 예의범절(禮儀凡節)이 남보다 뛰어난 것 경사롭기 비길 데 없사옵고…. 저희도 어버이네 두루 큰 탈 없사옵고, 저도 죽을병을 앓은 뒤에 겨우겨우 그 모양이옵고, 형님네도 몸 성히 지나시고 다른 병환 없사오니 다행이오나, 두루 여러 가지 시름들 겪으시고…. 아뢰올 말씀 매우 많사오나 글월 속에 다 못 아뢰나이다. 내내 태평하오신 문안 듣잡기를 비옵나이다.

신유(辛酉 : 1921) 이월 초사일,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31 1-29. 全柳_MF35-006422_1077(18x81cm): 며느리 → 시아버지(1921)

1. 판독

[隔1]아바님젼[隔1]상술이[移1]

문안알외옵고문안듯ᄌᆞ온
지거의일슌이넘ᄉᆞ온이
시로이깁ᄉᆞ온복모간졀
부리옵지못구〃아옵고졉
ᄉᆞ오니다모츈일셰온화
ᄒᆞ온디연ᄒᆞ와[移1]
연심ᄒᆞ옵신근역슈습
이만강ᄒᆞ옵시와진반등졀
이방ᄉᆞᄒᆞ오신이가불초
ᄒᆞ졍의도우러〃쥬모일염
잇죱지못ᄒᆞ올소이다
슬젼아ᄌᆞ바님각〃분여
젼ᄒᆞ오시며ᄋᆞ아님여러
숙딜분평안들ᄒᆞ온잇
갓두로굼〃간졀ᄒᆞ오이
다외너안후종〃드라시
난잇가아ᄌᆞ마님신양괴로우
신듈듯죱기ᄋᆡ탁습고
[小2]ᄌᆞ부도어버이너근〃더병
은업ᄉᆞ오나소〃ᄒᆞᆫ허다
심여ᄋᆡ무습고[小2]ᄌᆞ부도모ᄌᆞ
더병은업ᄉᆞ온이만힝
ᄉᆞᆺ오니다형님너도거나리
시고여젼ᄒᆞ오신이흔〃즐
겁습고외턱의도만안이

시고싀외슉모원손가신이
결연ᄒᆞ오이다아부님
이말숨적긴가답〃ᄒᆞ오니
다ᄒᆞ촌아ᄌᆞ바님말숨이
싱딜은부지거쳐로가고업
능겔너라ᄒᆞ신이춈그르
ᄒᆞ온잇가답〃ᄒᆞ옵긔졈
〃셜손간손이오이다알
외올말숨허다ᄒᆞ오나슈
〃ᄌᆞ시못ᄃᆡ강알외온이
그ᄉᆞ이환가ᄒᆞ온소문과아부
님ᄒᆞ셔밧ᄌᆞᆸ긔랄나
날복츅ᄒᆞ옵나이다
신유숨월열아호런날[小2]ᄌᆞ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문안 듯ᄌᆞ온지 거의 일슌(一旬)이 넘ᄉᆞ온이 식로이 깁ᄉᆞ온 복모(伏慕) 간졀(懇切) 부리옵지 못 구구(區區) 아옵고 졉ᄉᆞ오니다[1] 모츈(暮春) 일세(日勢) 온화(溫和)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연심(年

1) 아옵고 졉ᄉᆞ오니다 : 알고 싶사옵니다. '-고 싶다'에 상당하는 형태로서 '-고 졉다'가 흔히 보인다.

深)ᄒᆞ옵신 근역(筋力) 슈습(收拾)[2]이 만강(萬康)ᄒᆞ옵시와 진반등절(進飯等節)이 방ᄉᆞ(倣似)ᄒᆞ오신이가 불초(不肖) ᄒᆞ졍(下情)의도 우러러 쥬모(晝暮) 일염(一念) 잇줍지 못ᄒᆞ올소이다 슬젼(膝前) 아ᄌᆞ바님 각각(各各) 분 여젼(如前)ᄒᆞ오시며 ᄋᆞ아님[3] 여러 슉딜(叔姪) 분 평안(平安)들 ᄒᆞ온잇갓[4] 두로 굼굼 간절ᄒᆞ오이다 외닉[5] 안후(安候)[6] 종종(種種) 드라시난잇가 아ᄌᆞ마님 신양(身恙)[7] 괴로우신 듈 듯줍기 익탁(哀悋)숩고 ᄌᆞ부(子婦)도 어버이닉 근근(僅僅) ᄃᆡ병(大病)은 업ᄉᆞ오나 소소(小少)ᄒᆞᆫ 허다(許多) 심여(心慮) ᄋᆡ무습고[8] ᄌᆞ부도 모ᄌᆞ(母子) ᄃᆡ병(大病)은 업ᄉᆞ온이 만힝(萬幸)ᄉᆞᆺ오니다[9] 형님닉도 거나리시고[10] 여젼ᄒᆞ오신이 흔흔(欣欣) 즐겁습고 외틱(外宅)의도 만안(萬安)이시고 싀외슉모(媤外叔母) 원순[11] 가신이 결연(缺然)ᄒᆞ오이다 아부님 이 말숨 적긴가[12] 답답

---

2) 슈습(收拾) : 거두어 바로잡음.

3) ᄋᆞ아님 : 아우님. 여기서는 '시누이'(媤-)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4) ᄒᆞ온잇갓 : 하오니까. '-니잇가'의 마지막 음절에 생기는, 된소리 표기를 위한 'ㅅ'을 받침 자리에 표기한 경우.

5) 외닉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6) 안후(安候) : '안신'(安信)의 높임말.

7) 신양(身恙) : 신병(身病).

8) ᄋᆡ무습고 : 애매스럽고. 앰하고. 'ᄋᆡ무'를 'ᄋᆡ미'(寃·抑鬱)의 변이형으로 추정하고, 아울러 「ᄋᆡ무+스럽다」의 결합형을 가정한다.

9) 만힝(萬幸)ᄉᆞᆺ오니다 : 만행(萬幸)스럽사오이다. '-스럽-'의 아래에서 '-사-'에 생기는 된소리를 받침 자리에 표기한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럽-'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된소리 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의 습관이 무심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 거나리시고 : (식솔들을 다들 무사하게) 거느리시고. 상대가 아래로 식솔을 여럿 거느리는 처지에 대하여는 흔히 이와 같이 '거느리시고'라는 말이 쓰이고, 반대로 부모나 그 이상의 어른을 모시는 처지에 대하여는 '뫼시고'라는 말이 쓰인다.

11) 원순 : 지명. 강원도 원산시.

12) 적긴가 : 적기가.

ᄒᆞ오니다 ᄒᆞ촌[13] 아ᄌᆞ바님 말ᄉᆞᆷ이 싱딜(甥姪)[14]은 부지거쳐(不知去處)로 가고 업능겔너라[15] ᄒᆞ신이 ᄎᆞᆷ 그르ᄒᆞ온잇가 답답ᄒᆞ옵긔 졈졈(漸漸) 셜ᄉᆞᆫ간ᄉᆞᆫ(雪山看山)[16]이오이다 알외올 말ᄉᆞᆷ 허다ᄒᆞ오나 슈슈[17] ᄌᆞ시[18] 못 ᄃᆡ강(大綱) 알외온이 그 ᄉᆞ이 환가(還家)ᄒᆞ온 소문(所聞)과 아부님 ᄒᆞ셔(下書) 밧ᄌᆞᆸ긔랄 나날 복츅(伏祝)ᄒᆞ옵나이다

신유(辛酉) ᄉᆞᆷ월 열아ᄒᆞ런 날 ᄌᆞ부 ᄉᆞᆯ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듣자온 지 거의 열흘이 넘사오니 새로이 깊어지는 간절한 그리움 부려 놓지 못[하오며, 또한 안녕하신지] 저는 알고 싶사옵니다. 늦은 봄 날씨가 따스한 이즈음, 연로하신 근력을 잘 추스르심이 만강(萬康)하오시어 진지 드시는 일이며 다른 모든 것이 예와 같으십니까? 불초한 마음에도 우러러 밤낮 한 생각으로 [아버님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하옵니다. 슬전(膝前)의 아주버님 여러분 여전(如前)하오시며, 아우님 및 여러 조카 분들 평안(平安)들 하오니까? 두루 궁금한

13) ᄒᆞ촌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14) 싱딜(甥姪) : 누이의 아들.

15) 업능겔너라 : 없는 것일러라.

16) 셜ᄉᆞᆫ간ᄉᆞᆫ(雪山看山) : '설상가상'(雪上加霜)을 잘못 적은 것으로 추정.

17) 슈슈 : 수선스러워. '들레다'·'떠들다', 또는 '수선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수수하다'의 어근 '수수'로 추정된다. 본문의 표기는 '슈슈하여'에 들어가는 연결형 '-하여'를 생략한 형태이다.

18) ᄌᆞ시 : 자세히.

마음 간절하오이다. 외내[에 사시는 친척들] 소식은 가끔 들으십니까? 아주머님 몸의 병으로 괴로우신 것, 애처럽고…. 저희도 어버이네 겨우 겨우 큰 병환은 없사오나 자잘하나마 하고많은 걱정거리 엠하고, 저도 큰 병은 없사오니 다행스럽사옵니다. 형님네도 [건강을] 잘 지니시고 여전하오시니 즐겁사옵고, 외가집도 만안(萬安)하시고, 시외숙모께서 원산으로 가시니 섭섭하오이다. 아버님, 이 말씀 적기가 답답하오이다. 하촌 아주버님 말씀이 '생질(甥姪)은 알지 못할 곳으로 가고 없는 것일러라.' 고 하시니, 참으로 그러하오니까? 답답하기 갈수록 설상가상(雪上加霜) 이오이다. 아뢰올 말씀 하고많사오나, [마음이] 수선스러워 자세히 못[하고] 대강 아뢰오니, 그 동안에 환가(還家)하셨다는 소식과 아버님 하서(下書) 받잡기를 나날이 비옵나이다.

신유(辛酉 : 1921) 삼월 열아흐레 날,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 있던 유동영의 종적이 한동안 아득했던 듯하다.

1-30. 全柳_MF35-006421_633-1·2(17x51cm): 며느리 → 시아버지(1921)

1. 판독

[隔1]아부님젼[隔1]샹ᄉᆞᆯ이[移1]
[隔1]문안알외옵고문안듯
ᄌᆞ온지여러날되오니우러
와깁ᄉᆞ온복모간졀부리
압지못ᄒᆞ올ᄎᆞ[隔1]아ᄌᆞ바님
과ᄂᆡ힝오신이신기반갑
ᄉᆞᆸ고구젼ᄃᆡ강듯ᄌᆞᆸ고아부
님ᄒᆞ셔밧ᄌᆞ와뵈온이다란
연고난업ᄉᆞ오심깃겁ᄉᆞ오
나일ᄉᆞᆼ아부님억만심녀
ᄒᆞ오심ᄋᆡ탁고일〃죄송
코불효랄기치난일죄당
마ᄉᆞ무셕이로소이다지리
장님이누ᄉᆞᆸ괴롭ᄉᆞ온ᄃᆡ
연ᄒᆞ와[移1]
억만심녀신듕ᄃᆡ모손쳠
환이나업ᄉᆞ시와허무ᄒᆞ
옵신진반이시나강복
ᄒᆞ옵신잇가너모심여마
시옵기복츅ᄒᆞ옵나이

다슬젼아ᄌᆞ바님이외분
허다고님우번심여신듕
긔운평안ᄒᆞ옵시고저근
형님고즁가싀다던이그
ᄉᆞ이환가ᄒᆞ신잇가싀
됵녀외분평눈다반
ᄒᆞ여심여업ᄉᆞ시고셕번
아무양ᄒᆞ와교실녀왕ᄒᆞ
오며경셩은혹시드라
시난잇가이곳은아득지
역갓ᄉᆞ오니대[小3]ᄌᆞ부도어버
이녀심여듕큰쳠은업
ᄉᆞ오니다힝습고[小2]ᄌᆞ부도
모ᄌᆞ뎌탈업ᄉᆞ내[小1]식은면
종으로셩〃치못졔종조부
계셔여젼ᄒᆞ옵시고형
님녀와ᄒᆞ촌각집무연
고시고[隔]아ᄌᆞ바님오신후여
젼ᄒᆞ옵시나여러번뵈옵지
지도못ᄒᆞ고써나신이섭〃
ᄒᆞ오니다식은이번가려
고ᄒᆞ와던이이녀다란말솜
업습고이녀가야싯집이흔
텨잇실듯아희다리고가야
오히려분슈되올듯ᄒᆞ온

이[隔1]아부님싱각ᄒᆞ시와오라
ᄒᆞ시먼오날이라도가올가
ᄒᆞ나이다짜로나게ᄒᆞ시면
여계조용ᄒᆞ고ᄉᆞ람이온슌
ᄒᆞᆫ이가잇ᄉᆞ온이다리고
가면조흘듯ᄒᆞ오이다
알외옴허다만ᄉᆞ오나샹셔
의다못알외옵나이다아
ᄌᆞ바님무ᄉᆞ환텩ᄒᆞ오심
과ᄒᆞ셔슈이밧ᄌᆞᆸ기
고망ᄒᆞ옵나이다

[피봉]
이동[移1]
[擡1]ᄃᆡ텩[隔1]닙납[移1]
히제[小2]ᄌᆞ부ᄉᆞ리

2. 전사 · 주석

아부님 젼 샹술이
문안 알외옵고 문안 듯ᄌᆞ온 지 여러 날 되오니 우러와 깁ᄉᆞ온 복모(伏慕) 간졀(懇切) 부리압지 못ᄒᆞ올 ᄎᆞ 아ᄌᆞ바님과 ᄂᆡ힝(來行) 오신이 신기(新奇)[1] 반갑습고 구젼(口傳) ᄃᆡ강(大綱) 듯ᄌᆞᆸ고 아부님 ᄒᆞ셔(下書) 밧ᄌᆞ와 뵈온이 다란[2] 연고(緣故)난 업ᄉᆞ오심 깃겁ᄉᆞ오나 일ᄉᆞᆼ(日常) 아

부님 억만(億萬) 심녀(心慮)ᄒᆞ오심 이탁(哀悼)고 일일(一一) 죄송(罪悚)코 불효(不孝)랄 기치난 일 죄당(罪當)마 ᄉᆞ무셕(死無惜)[3]이로소이다 지리(支離)[4] 장님(長霖)이 누습(漏濕) 괴롭ᄉ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억만 심녀(心慮)신 듕 ᄃᆡ모(大無) 손쳠환(損添患)이나 업ᄉᆞ시와 허무(虛無)ᄒᆞ옵신 진반(進飯)이시나 강복(强服)[5]ᄒᆞ옵신잇가 너모 심여 마시옵기 복츅(伏祝)ᄒᆞ옵나이다 슬젼(膝前) 아ᄌᆞ바님 이외(以外)분 허다(許多) 고님(苦任) 우번(憂煩) 심여(心慮)신 듕 긔운 평안ᄒᆞ옵시고 저근 형님 고즁[6] 가시다던이 그ᄉᆞ이 환가(還家)ᄒᆞ신잇가 싀ᄃᆡᆨ(宅) ᄂᆡ외(內外)분 평는(平潤) 다반(多飯)ᄒᆞ여 심여 업ᄉᆞ시고 석번아[7] 무양(無恙)ᄒᆞ와 교실(敎室)[8] ᄂᆡ왕(來往)ᄒᆞ오며 경셩(京城)은 혹시 드라시난잇가 이곳은 아득지역(-之域) 갓ᄉᆞ오니다 ᄌᆞ부(子婦)도 어버이ᄂᆡ 심여 듕 큰 쳠(添)은 업ᄉᆞ오니 다힝(多幸)습고 ᄌᆞ부도 모ᄌᆞ(母子) ᄃᆡ탈(大頉) 업ᄉᆞ나 싀은 면종(面腫)으로 셩〃치 못 제종조부(再從祖父)[9]계셔 여전ᄒᆞ옵시고 형님ᄂᆡ와 ᄒᆞ촌(下村)[10] 각(各)집 무연고(無緣故)시고 아ᄌᆞ바님 오신 후 여전

1) 신기(新奇) : 여기서는 '새롭다'는 뜻이기보다는 '뜻밖이다'라는 뜻이다.
2) 다란 : 다른.
3) 죄당(罪當)마 ᄉᆞ무셕(死無惜) : '罪當死無惜'이라 할 데서, '罪當'을 하나의 어절로 삼아 여기에 강세를 나타내는 보조사 '-마'(경상도 사투리)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5) 강복(强服) : 겨우, 억지로 먹음.
6) 고즁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於旨里) 고장골. 노루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35에, '고즁'의 안부를 묻는 경우가 보인다.
7) 석번아 : 인명. '석번'은 이름이고, '-아'(兒)는 어린이의 이름에 '작고 어여쁘다'라는 어기(語氣)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허사이다.
8) 교실(敎室) : 학교를 말하는 듯함.
9) 제종조부(再從祖父) :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

ᄒᆞ옵시나 여러 번 뵈옵지지[11]도 못ᄒᆞ고 ᄯᅥ나신이 섭섭ᄒᆞ오니다 식은 이 번 가려고 ᄒᆞ와던이 이너 다란 말솜 업습고 이너 가야 싓(媤ㅅ)집이 ᄒᆞᆫ ᄐᆡ 잇실 듯 아ᄒᆡ 다리고 가야 오히려 분슈(分數)되올 듯ᄒᆞ온이 아부님 ᄉᆡᆼ각ᄒᆞ시와 오라 ᄒᆞ시면 오날이라도 가올가 ᄒᆞ나이다 ᄯᅡ로 나게 ᄒᆞ시면 여계[12] 조용ᄒᆞ고 ᄉᆞ람이 온슌(溫順)ᄒᆞᆫ 이가 잇ᄉᆞ온이 다리고 가면 조흘 듯ᄒᆞ오이다 알외옴 허다 만ᄉᆞ오나 샹셔(上書)의 다 못 알외옵나이다 아ᄌᆞ바님 무ᄉᆞ(無事) 환ᄐᆡᆨ(還宅)ᄒᆞ오심과 ᄒᆞ셔(下書) 슈이 밧ᄌᆞᆸ기 고망(告望)ᄒᆞ옵나이다

[피봉]
이동[13] ᄃᆡᄐᆡᆨ(大宅) 닙납(入納)
ᄒᆡ제[14] ᄌᆞ부 ᄉᆞ리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문안 듣자온 지 여러 날 되오니, 우러러 깊고 간절한 그리움 부리지 못하던 차에, 아주버님과 함께 오시니, 뜻밖에 반갑고, [그때에] 말씀을 얼추 들었고, [이제 또한] 아버님 하서(下書) 받아 뵈오

10) ᄒᆞ촌(下村)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11) 뵈옵지지 : 글줄이 바뀌어 '지'를 한번 더 쓴 경우.
12) 여계 : 여기에.
13) 이동 : 지명.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이동(梨洞).
14) ᄒᆡ제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해저리(海底里).

니, 다른 연고(緣故)는 없으심 기쁘오나, 언제나 아버님 억만 가지로 심려하오심 애처롭고, 하나하나 죄송하고, 불효(不孝)를 끼치는 일, 죄가 됨이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사오이다. 지리한 장마에 누습(漏濕)하여 괴로운 이즈음, 억만 가지로 심려하시는 가운데 크나큰 병환(病患)이나 없으시와, 그리 맛난 것도 하나도 없는 진지일지나 억지로나마 드시오니까? 너무 심려 마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슬전의 아주버님 및 그 밖의 여러분들 하고많은 괴로운 소임(所任)과 번뇌(煩惱)로 시름하시는 가운데 기운 평안하옵시고, 작은형님은 고장에 가셨다더니, 그새 돌아오셨습니까? 새댁 내외분 [생활이] 한결로 고루 매끄럽고 진지 잘 드시어 심려 없으시고, 석번이는 아무 탈 없이 학교에 잘 오가며, 경성(京城) 소식은 혹시 들으십니까? 이곳은 아득한 땅 같사오니다. 며느리도 어버이네 심려하시는 가운데 큰 병환은 없으시니 다행이옵고, 며느리도 모자(母子) 간에 큰 탈은 없으나, 저는 얼굴에 난 부스럼으로 성치 못. 재종조부(再從祖父)께서도 여전하오시고, 형님네와 하촌(下村) 여러 집 다들 연고(緣故) 없으시고, 아주버님께서는 오신 뒤에 여전하오시나, 여러 번 뵈옵지도 못하고 떠나시니 섭섭하오니다. 식은 이번에 가려고 하였더니, 이내 다른 말씀 없으시고…. 이내 가야 시집 식구가 한데 있을 듯[하오며], 아이 데리고 가야 오히려 처지에 마땅하게 되올 듯하오니, 아버님께서 생각하시와 오라 하시면 오늘이라도 가올까 하나이다. [만약에] 따로 나게 하시면, 여기에 조용하고 사람이 온순(溫順)한 이가 있사오니, 데리고 가면 좋을 듯하오이다. 아뢰옴 허다하게 많사오나, 상서(上書)에 다 못 아뢰옵나이다. 아주버님 무사히 환택(還宅)하오심과 하서 빨리 받잡기 바라옵나이다.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본문의 "석번아 무양ᄒᆞ와 교실 닉왕ᄒᆞ오며"라는 말과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4_1803의 "석번아 성치 안니ᄒᆞ오든이 즉금 들ᄒᆞ온지"라는 말의 정황 맥락이 서로 일치하며, 아울러 본문의 "아부님 싱각ᄒᆞ시와 오라 ᄒᆞ시면 오날이라도 가올가 ᄒᆞ나이다"라는 말과 MF35-006421_635의 "길 통셥되지 못ᄒᆞ여 아즉 못 가온이 답답ᄒᆞ오이다"라는 말의 정황 맥락이 서로 일치한다.

33 1-31. 全柳_MF35-006421_635(19x71cm): 며느리 → 시아버지(1921)

1. 판독

[隔1]아부님전[隔1]상술이[移1]
문안알외옵고[隔1]아ᄌᆞ바님회환
ᄒᆞ옵신후회편듯줍기고망ᄒᆞ
옵든ᄎᆞᄒᆞ서밧ᄌᆞ와황공뵈
옵ᄉᆞ온이층〃분면첨이오
심경ᄉᆞ롭ᄉᆞ오내[隔1]아부님일ᄉᆞᆼ
틱손심여ᄒᆞ심우러와익탁고

죄송ᄒᆞ오니다날ᄉᆞ니연ᄒᆞ와
억만심회신듕엄〃ᄒᆞ옵신
긔부동죡엇더ᄒᆞ시오며진반
등절강복ᄒᆞ옵신가각〃ᄒᆞ오신
긔력의너모심여마시옵기복축
ᄒᆞ압나이다슬전형님각〃이
외분허다탐ᄉᆞ신듕안영ᄒᆞ오
시며식덕녀외분평뉸다반
ᄒᆞ옵고석번아무양ᄒᆞ여심여
돕지안이오잇가고죵과각곳
평신열낙ᄒᆞ시와조이난심여
업ᄉᆞ오신잇가[小2]ᄌᆞ부도어버이
이너억만심여듕큰쳠은
업습고[小2]ᄌᆞ부여러남믹무양이
옵고홍아난마양그러헌이
너성공이의약을갓다먹여던이
이죄난나은듯다힝ᄒᆞ오이다
덕소각절과형님너무쳠
이시고ᄒᆞ촌각집무연고시고귈
군은아릭법전가아즉안와
ᄉᆞ오이다길춍셥되지못ᄒᆞ
여아즉못가온이답〃ᄒᆞ오
이다알외옴미진ᄒᆞ오나슈
〃ᄌᆞ시못알외나이다너〃만
강ᄒᆞ오신문안듯줍기복축ᄒᆞ옵나이다[移1]

신유뉴월열여드릭날[小2]ᄌᆞ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부님 전(前) 상(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아ᄌᆞ바님 회환(回還)ᄒᆞ옵신 후(後) 회편(回便)[1] 듯줍기 고망(告望)ᄒᆞ옵든 ᄎᆞ(次) ᄒᆞ서(下書) 밧ᄌᆞ와 황공(惶恐) 뵈옵ᄉᆞ온이 층층(層層)분 면첨(免添)이오심 경ᄉᆞ(慶事)롭ᄉᆞ오나 아부님 일ᄉᆞᆼ(日常) 틱손(泰山) 심여(心慮)ᄒᆞ심 우러와 ᄋᆡ탁(哀怆)고 죄송(罪悚)ᄒᆞ오니다 날ᄉᆞ니[2] 연(連)ᄒᆞ와 억만(億萬) 심회(心懷)신 듕(中) 엄엄(奄奄)[3] ᄒᆞ옵신 긔부(肌膚)[4] 동ᄌᆞᆨ(動作) 엇더ᄒᆞ시오며 진반등절(進飯等節) 강복(强服)ᄒᆞ옵신가 각각(刻刻)ᄒᆞ오신 긔력(氣力)의 너모 심여 마시옵기 복츅(伏祝)ᄒᆞ압나이다 슬전(膝前) 형님 각각(各各) 이외(以外)분 허다(許多) 탐ᄉᆞ(探査)신 듕 안영(安寧)ᄒᆞ오시며 식덕 닉외(內外)분 평눈다반(平潤多飯)ᄒᆞ옵고 석번아[5] 무양(無恙)ᄒᆞ여 심여 돕지 안이오잇가 고중[6]과 각(各)곳 평신(平信) 열낙(連絡)ᄒᆞ시와 조이난 심여 업ᄉᆞ오신잇

---

1)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2) 날ᄉᆞ니 : 날사이. 지난 며칠 동안.

3) 엄엄(奄奄) : 숨이 곧 끊어질 듯이 매우 여림.

4) 긔부(肌膚) : 살갗. 여기서는 더욱 넓게 '몸'(身體)을 뜻한다. 함께 쓰이는 말로는 '신관기부'(--肌膚)가 있다.

5) 석번아 : 인명. '석번'은 이름, '-아'(兒)는 어린이의 이름에 '작고 어여쁘다'라는 어기(語氣)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허사.

6) 고중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於旨里) 고장골. 노루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가 즈부(子婦)도 어버이이녀[7] 억만 심여 듕 큰 쳠(添)[8]은 업습고 즈부 여러 남미(娚妹) 무양이옵고 홍아[9]난 마양[10] 그러헌이 너성[11] 공이(公醫)[12]의 약(藥)을 갓다 먹여던이 이죄난[13] 나은 듯 다힝(多幸)ᄒᆞ오이다 ᄃᆡ소각절(大小各節)[14]과 형님너 무쳠(無添)이시고 ᄒᆞ촌(下村)[15] 각집 무연고(無緣故)시고 긜군[16]은 아릐[17] 법전[18] 가 아즉 안 와ᄉᆞ오이다 길 통셥(通涉)[19]되지 못ᄒᆞ여 아즉 못 가온이 답답ᄒᆞ오이다 알외옴 미진(未盡)ᄒᆞ오나 슈슈[20] ᄌᆞ시[21] 못 알외나이다 너너 만강(萬康)ᄒᆞ오신 문안

---

7) 어버이이녀 : 글줄이 바뀌면서 '이'를 한번 더 쓴 경우.

8) 쳠(添) : 한글 간찰에 나오는 '쳠'(添)이라는 단어는 대개가 '병환'(病患)을 뜻하거나 병환이 도져서 생기는 '건강의 손실'을 뜻한다.

9) 홍아 : 인명. 유동영(柳東英, 1901~)의 첫째 아들, 유홍번(柳興蕃, 1918~). '-아'(兒)는 "석번아"의 경우와 그 용법이 같다.

10) 마양 : 마냥.

11) 너성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면(乃城面). 현재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봉화군 봉화면·상운면·물야면의 일부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여기서는 내성면의 '읍내'를 말한 것이다.

12) 공이(公醫) : '공의'(公醫)로 추정. '공의'는 관청의 위탁으로 일정한 지역의 진료와 전염병 예방에 종사하던 의사를 말한다.

13) 이죄난 : 이제는.

14) ᄃᆡ소각절(大小各節) : 크고 작은 여러 집안 식구들의 생활 형편이나 건강 상태. 여기서는 '크고 작은 여러 집안 식구들'을 곧장 가리키고 있다.

15) ᄒᆞ촌(下村)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 하촌(下村).

16) 긜군 : 인명. '긜'은 곧 '길'(吉)로서 성씨를 가리키는 듯하다.

17) 아릐 : '그저께'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18) 법전 : 지명.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法田里).

19) 통셥(通涉) : (사물 사이의 관계가) 널리 트임. 여기서는 '오고갈 만한 길이 트이거나 그 방법이 열리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0) 슈슈 : 수선스러워. '들레다'·'떠들다', 또는 '수선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수수하다'의 어근 '수수'로 추정된다. 본문의 표기는 '슈슈하여'에 들어가는 연결형 '-하여'를 생략한 형태이다.

21) ᄌᆞ시 : 자세히.

듯ᄌᆞᆸ기 복츅ᄒᆞᄋᆞᆸᄂᆞ이다
신유(辛酉) 뉴월(六月) 열 여드릐날 ᄌᆞ부 술이

3. 현대어역

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아주버님 댁으로 돌아가신 뒤에 돌아오는 소식 듣고자 바라옵던 때에, 하서(下書) 받잡아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뵈옵사오니, 위아래 어르신들 모두 아무 병환도 없으심 경사롭사오나, 아버님께서 언제나 태산처럼 크게 심려하심 우러러 애처롭고 죄송하오니다. 지난 며칠 동안이나마 억만 가지 근심을 마음에 품으시는 가운데 여리신 신체(身體)와 동작(動作)이 어떠하오시며, 진지 드시는 일이며 또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억지로나마 드시옵신가…. 때때로 다르신 기력(氣力)에 너무 심려 마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슬전(膝前) 형님 여러 분과 그 밖의 분들 하고많은 일로 두루 살피시는 가운데 안녕하오시며, 새댁 내외분 [생활이] 한결로 고루 매끄럽고 진지 잘 드시옵고, 석번이는 아무 탈 없이 자라 심려 돕지 아니하오이까? 고장과 여러 곳으로 더불어 편지 연락하시매, 마음을 죄는 걱정거리 따로 없으십니까? 며느리도, 어버이께서 억만 가지로 심려하시는 가운데에도 큰 병환은 없고, 며느리의 여러 남매 아무 탈 없고, 홍아는 마냥 그러하니, 성내(城內)의 공의(公醫)에게서 약을 갖다 먹였더니 이제는 다 나은 듯, 다행(多幸)이오이다. 크고 작은 여러 집안 식구들과 형님네 다른 병환 없으시고, 하촌(下村)의 여러 집들 다른 연고(緣故) 없으시고, 길(吉) 군은 그저께 법전에 가서 아직 아니 왔사오이다. 길이 두루 트이지 못하여 아직 못 가오니 답

답하오이다. 아뢰옵 다하지 못했사오나, [정황이] 수선스러워 자세히 아뢰지 못하오이다. 내내 만강(萬康)하오신 문안 듣기를 비옵나이다.

신유(辛酉 : 1921) 유월 열여드레 날, 며느리 살이.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34 1-32. 全柳_MF35-006421_635-1(19x41cm): 며느리 → 시아버지(1921)

1. 판독

[隔1]아부님요경셩은숨월이후로
아득소식을몰나일변답〃고조이
든추이달보름날어버이훈텨
편지완난뎌편치못ᄒᆞ온듯우
편목을스지못ᄒᆞ고발직뎌단
만신종긔와또무슨병인지증식
난말ᄒᆞ지아ᄒᆞ여ᄉᆞ오나쥬인이
슈승ᄒᆞᆫ병으로의심ᄒᆞ여ᄒᆞᆫ다

ᄒᆞ고무ᄉᆞᆫ일인지날노슌ᄉᆞ가ᄎᆞ
ᄌᆞ와슈ᄉᆡᆨᄒᆞ려기로쥬인은어나
곳심벽ᄒᆞᆫ곳ᄃᆡ잇다ᄒᆞ엿ᄉᆞᆸ고
실님동이듕ᄉᆞ가안국동으로이
ᄉᆞ완난ᄃᆡ밤이면그집으로종〃
간이편지와옷과이듕ᄉᆞ방으로
븟치라ᄒᆞ엿스나ᄌᆞ시아지못
답〃조여ᄒᆞ와던이일간달실
ᄉᆡ바람ᄃᆡᆨᄉᆞ람이경셩학교
의단이다가방학ᄒᆞ여나려오든
날본이발ᄌᆡ도ᄃᆡ단ᄒᆞ고모양숫
쳑거람도ᄌᆞ시못것드라ᄒᆞ온
이듯기놀납고ᄒᆞ난일은미편
ᄒᆞ오나객지의위ᄐᆡᄒᆞᆫ병으로
잇술ᄲᅮᆫ이저난후회ᄒᆞ난모양
이온이돈더드고괴심ᄒᆞ시드라도
가서ᄃᆡ리고오시면올듯ᄒᆞ오
이다슌ᄉᆞ가슈ᄉᆡᆨᄒᆞᆫ다ᄒᆞ온
이혹시안동서싯기신가오
히려그ᄅᆡ면오기어려울듯
ᄒᆞ오이다엇디면조ᄒᆞ올지답〃
ᄒᆞ오이다엇디심양ᄒᆞ시난지
회편ᄒᆞ서밧ᄌᆞᆸ기나날복
츅ᄒᆞᄋᆞᆸ고길만통셥되면
쇽히갈가ᄒᆞ나이다

2. 전사 · 주석

아부님요 경성(京城)은 숨월(三月) 이후(以後)로 아득 소식(消息)을 몰나 일변(一邊) 답답고 조이든 ᄎᆞ(次) 이 달 보름날 어버이ᄒᆞᆫ터 편지 완난디 편(便)치 못ᄒᆞ온 듯 우편(右便) 목을 스지 못ᄒᆞ고 발지(髮際)[1] 디단 만신(滿身) 종긔(腫氣) ᄯᅩ 무슨 병(病)인지 증식(症勢)난 말ᄒᆞ지 아ᄒᆞ여ᄉᆞ오나[2] 쥬인(主人)이 슈숭(殊常)ᄒᆞᆫ 병으로 의심(疑心)ᄒᆞ여 ᄒᆞᆫ다 ᄒᆞ고 무슨 일인지 날노 슌ᄉᆞ(巡査)[3]가 ᄎᆞᄌᆞ와 슈식(搜索)ᄒᆞ려기로 쥬인은 어나 곳 심벽(深僻)ᄒᆞᆫ 곳디 잇다 ᄒᆞ엿삽고 실님동(新林洞)[4] 이듕ᄉᆞ(李中士)[5]가 안국동(安國洞)[6]으로 이ᄉᆞ(移徙) 완난디 밤이면 그 집으로 종종(種種) 간이 편지와 옷과 이듕ᄉᆞ 방(房)으로 븟치라 ᄒᆞ엿스나 ᄌᆞ시 아지 못 답답 조여ᄒᆞ와던이 일간(日間) 달실[7] 식바람[8]덕 ᄉᆞ람이 경성 학교(學校)의 단이다가 방혹(放學)ᄒᆞ여 나려오든 날 본이 발지도 디

---

1) 발지(髮際) : 발찌. 목 뒤의 머리털이 난 가장자리에 생기는 부스럼.

2) 아ᄒᆞ여ᄉᆞ오나 : 아니하였사오나. '아니ᄒᆞ여ᄉᆞ오나'라고 써야 할 데서 '-니'를 빠뜨리고 쓴 경우.

3) 순사(巡査) : 일제 강점기에, 경찰관의 가장 낮은 계급. 또는 그 계급의 사람.

4) 실림동(新林洞) : 지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 이듕ᄉᆞ(李中士) : 인명. 여기서 이른바 '듕사'(中士)는 오늘날과 같이 군인의 계급이나 직함(職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비'(士)를 상·중·하의 세 계급으로 나누었을 때에 그 둘째를 가리키는 바의 계급 명칭이 봉건 사회가 해체되는 시기에 이르러 일반인 남자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전용된 하나의 사례로 추정된다.

6) 안국동(安國洞) : 지명.

7) 달실 : 지명. 닭실. 유곡(酉谷).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면 유곡리(酉谷里). 본래는 안동군 내성면의 지역으로서 금계포란(金鷄抱卵)의 지형이 있어 '닭실'이라 하거나 또는 '유곡'(酉谷)이라 하다가, 고종32년(1895)에는 순흥군에 편입되고 1914년에는 다시 봉화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8) 식바람 : 지명.

단ᄒᆞ고 모양 슈쳑(瘦瘠) 거람도 ᄌᆞ시 못 것드라 ᄒᆞ온이 듯기 놀납고 ᄒᆞ난 일은 미편(未便)ᄒᆞ오나 객지(客地)의 위틱(危殆)ᄒᆞᆫ 병으로 잇술 ᄲᅮᆫ 이저난[9] 후회(後悔)ᄒᆞ난 모양이온이 돈 더 드고 괴심[10]ᄒᆞ시드라도 가서 ᄃᆡ리고 오시면 올 듯ᄒᆞ오이다 슌ᄉᆞ가 슈쉭ᄒᆞᆫ다 ᄒᆞ온이 혹시 안동(安東)서 싯기신가[11] 오히려 그러면 오기 어러울 듯ᄒᆞ오이다 엇디면 조ᄒᆞ올지 답답ᄒᆞ오이다 엇디 심양(心量)ᄒᆞ시난지 회편(回便)[12] ᄒᆞ서(下書) 밧ᄌᆞᆸ기 나날 복츅(伏祝)ᄒᆞ옵고 길만 통셥(通涉)[13]되면 속(速)히 갈가 ᄒᆞ나이다

3. 현대어역

아버님요, 경성(京城)은 삼월 이후로 아득 소식(消息)을 몰라 한편 답답하고 마음 죄던 때에, 이번 달 보름날에 어버이한테서 편지 왔는데, 편치 못하온 듯[합니다]. 오른쪽 목을 쓰지 못하고, 발찌가 대단,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하며], 또 무슨 병(病)인지 증세(症勢)는 말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인이 수상(殊常)한 병으로 의심하려 한다 하고, 무슨 일인지 날마다 순사(巡査)가 찾아와 수색(搜索)하려 하기로 주인은 어느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하였고, 신림동 이중사(李中士)가 안국동으로 이사

9) 이저난 : 이제는.
10) 괴심 : 괘씸.
11) 싯기신가 : 시키신가. 시키신 일인지.
12) 회편(回便) : 답신(答信)을 가지고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인편(人便), 또는 그 답장.
13) 통셥(通涉) : (사물 사이의 관계가) 널리 트임. 여기서는 '오고갈 만한 길이 트이거나 그 방법이 열리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왔는데, 밤이면 그 집으로 가끔 가니, 편지며 옷가지를 이중사 집으로 부치라 하였으나, 자세히 알지 못하여 답답하게 마음을 죄어 왔더니, 며칠 앞서 달실 마을의 새바람댁 사람이 경성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하여 내려오던 날에 보건대는 발진도 대단하고 생김새가 매우 여위었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하더라 하오니, 듣기 놀랍고, [그이가 이제껏] 하는 일은 [아버님께서 여기시기에는 비록] 언짢사오나, 객지에 위태로운 병으로 있을 뿐이지, 이제는 후회하는 모양이오니, 돈만 더 들고 괘씸하시더라도, [아버님께서] 가서 데리고 오시면 [그이도 따라] 올 듯하오이다. 순사가 수색한다 하오니, [이것이] 혹시 안동(安東)에서 시키신 일인지…. 그러면 오히려 오기 어려울 듯하오이다.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하오이다. 어찌 생각하시는지, 돌아오는 하서(下書) 받잡기를 나날이 바라옵고, 길만 트이면 곧바로 갈까 하나이다.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본문의 "길만 통셥되면 속히 갈가 ᄒᆞ나이다"라는 말과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35의 "길 통셥되지 못ᄒᆞ여 아즉 못 가온이 답답ᄒᆞ오이다"라는 말의 정황 맥락이 서로 일치한다.

35 1-33. 全柳_MF35-006424_1188(20x31cm): 며느리 → 시아버지(1921)

1. 판독

[隔1]아바님젼[隔2]샹ᄉᆞ리[移1]
문[隔1]안알외옵고슬젼을물러온후
포일되옵ᄉᆞ온니우러와깁ᄉᆞ온복모
간절구〃부리옵지못ᄒᆞ올ᄎᆞ슉골어
러오며구젼ᄌᆞ시듯자온니[移1]
아바님엄위ᄒᆞ오신긔력만강ᄒᆞ옵시고
뒤의도거나려니시고여젼이시나동기
형듀날포괴로이지난듈못잇치고
어버이도조손분여젼이시고식도오와
뵈온이디소졀일안이시고번게형님
지릐가시고싀뎍오날가온이셥〃고집어
히〃형님슈ᄒᆞ무인아소울듯ᄒᆞ오
이다아반님슈이환턱ᄒᆞ옵시기날
노복츅ᄒᆞ옵나이다허다알외옴무
진ᄒᆞ오나급〃ᄌᆞ시못알외옵고이회인
의홍번아보나시옵기고망ᄒᆞ옵나
이다

2. 전사 · 주석

아바님 젼(前) 샹(上)ᄉᆞ리

문안(問安) 알외옵고 슬젼(膝前)을 물러온 후(後) 포일(-日)[1] 되옵ᄉᆞ온니 우러와 깁ᄉᆞ온 복모(伏慕) 간절(懇切) 구구(區區)[2] 부리옵지 못ᄒᆞ올 ᄎᆞ(次) 슉골[3] 어러[4] 오며 구젼(口傳) ᄌᆞ시 듯자온니 아바님 엄위(嚴威)[5]ᄒᆞ오신 긔력(氣力) 만강(萬康)ᄒᆞ옵시고 뒤의도 거나러 니시고[6] 여젼(如前)이시나 동기(同氣) 형듀(兄主) 날포[7] 괴로이 지난 둘 못 잇치고 어버이도 조손(祖孫)분 여젼이시고 식(息)도 오와[8] 뵈온이 ᄃᆡ소졀(大小節)[9] 일안(一安)이시고 번게[10] 형님 지릐[11] 가시고 식ᄃᆡᆨ 오날 가온이 셥셥고 집 어히 어히 형님 슈ᄒᆞ(手下)[12] 무인(無人) 아소울[13] 듯

---

1) 포일(-日) : 날포. 하루 남짓한 동안. '-포'는 흔히 접미사로서 '해'·'달'·'날'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나, 여기서는 도리어 다른 낱말의 앞에 놓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어근으로 기능하고 있다.

2) 구구(區區) : 존처(尊處)에 대하여 자신 및 자신의 행위·감정 따위를 낮추어 가리키는 바로서 '자잘하여 보잘것없는 저'라는 뜻을 지니는 말이다. 특히 서간에서 흔히 쓰인다.

3) 슉골 : 지명.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면 도림리(道林里) 숙골. 곧은골 북쪽에 있는 마을.

4) 어러 : 어루어. 혼인(婚姻)하여.

5) 엄위(嚴威) : 엄숙하고 위엄이 있음.

6) 니시고 : 지내시고. 옛말 '니다'는 ①'가다'라는 뜻과 ②'지나다'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의 "니시고"는 후자를 '지내다'의 뜻으로 활용한 경우로 추정된다.

7)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8) 오와 : 와서.

9) ᄃᆡ소졀(大小節) : 대소제절(大小諸節)의 준말. 위아래 여러 식솔들, 또는 그들의 일상과 건강 상태.

10) 번게 : 지명.

11) 지릐 : 지레. 무슨 일이 미처 되기에 앞서 미리.

12) 슈ᄒᆞ(手下) : 손아래.

ᄒᆞ오이다 아반님 슈이 환턱(還宅)ᄒᆞ옵시기 날노 복츅(伏祝)ᄒᆞ옵나이다 허다(許多) 알외옴 무진(無盡)ᄒᆞ오나 급급(急急) ᄌᆞ시[14] 못 알외옵고 이 회인(回人)[15]의 홍번아[16] 보나시옵기 고망(告望)ᄒᆞ옵나이다

3. 현대어역

아바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슬전(膝前)을 물러나온 뒤로 하루 남짓 되오니, 우러러 깊고 간절한 그리움 부려 놓지 못하던 겨를에, 숙골에서 혼인(婚姻)하여 오는 인편(人便)에 자세히 듣자오니, 아버님 엄위(嚴威)하신 기력 만강하오시고, 뒤로도 몸과 마음을 잘 거느려 지내시고 연전하시나, 동기(同氣)로 나신 [아버님의] 형님께오서 하루 남짓 [병으로] 괴로이 지내신 일 [걱정스러워] 못 잊히고…. [저희] 어버이네도 위아래로 모두 여전하시고, 저도 돌아와서 뵈오니, 식구들 모두 한결로 평안하시고, 번게 형님은 [만나 뵙지도 못하게] 지레 가시고, 새댁도 오늘 가오니 섭섭하고, 집안 [쓸쓸해짐을] 어이할지…. 형님은 손아래로 아무도 없게 되니 아쉬울 듯하오이다. 아버님께서 곧 댁으로 돌아오시기를 날로 비옵나이다. 허다한 아뢰옴 끝이 없사오나, 바빠 자세히 못 아뢰옵고…. 돌아오는 이 인편(人便)에 홍번이를 [딸려] 보내시기를 바라옵나이다.

---

13) 아소울 : 아쉬울.
14) ᄌᆞ시 : 자세히.
15) 회인(回人) : (갔다가) 되돌아오는 인편(人便).
16) 홍번아 : 인명. 유동영(柳東英, 1901~)의 첫째 아들, 유홍번(柳興蕃, 1918~). 여기에 보이는 '-아'(兒)는 인명에 붙어서 '작고 예쁘다'는 뜻을 덧보태는 허사이다.

4. 참고

유동영(柳東英, 1901～)의 부인 의성김씨(義城金氏, 1899～)가 그의 시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이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33-1·635·63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거주지를 시댁 근처로 옮기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만 얼마 동안만 가서 머물다가 홀로 돌아온 듯한데, 당시에 시댁에 남겨 두고 온 아들 '홍번'(興蕃)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36 1-34. 全柳_MF35-006421_662(26x46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1900년 전후)

1. 판독

[隔2]하라바님젼[隔3]샹술이[移1]
문[移1]
[隔1]안알외옵고문안듯ᄌᆞ온지날포
되옵ᄉᆞ오니시로이굼겁ᄉᆞ온복모부리
옵지못ᄒᆞ올소이다초츈일긔누습
닝혹ᄒᆞ온ᄃᆡ연ᄒᆞ와[隔2]연심ᄒᆞ옵
신긔톄후ᄃᆡ무지환이나아니게옵시와
허무ᄒᆞ오신진반등졀이일양하오셔
근역등족이여젼ᄒᆞ옵시니잇가불

초ᄒᆞ졍이오나부리온시업ᄉᆞ오이다
슬하분부모님게오셔원힝ᄎᆞᄒᆞ신
지달이가작ᄒᆞ옵ᄉᆞ오니원노의조이
옵ᄂᆞᆫᄉᆞ념일시도부리온시업ᄉᆞ오며어
마님게오셔허다탐ᄉᆞ신듕ᄃᆡ쳠환아
니게시니잇가아가가단억만ᄋᆡ쟝을
눅이시다가필경구치못ᄒᆞ시고못견ᄃᆡ
ᄒᆞ옵시ᄂᆞᆫ일ᄋᆡ탁〃ᄒᆞ오며망쳔아ᄌᆞ
마님ᄃᆡ쳠아니게시고도연님여러동안
분평안심여업ᄉᆞ시니잇가용담아ᄌᆞ
바님님문안ᄌᆞ로드라시와긔우업ᄉᆞ시
고아ᄌᆞ마님동동셔분무쳡ᄒᆞ오시고
각쳐안신열락심여업ᄉᆞ시고슈곡도
드라시와연고업ᄉᆞ시며[小3]손부도조모게
오셔연심근역이ᄃᆡ환은아니게시나
안질과슈증환종〃발죽ᄒᆞ졍의
ᄋᆡ탁숩고어버이각〃분별고업ᄉᆞ심
히힝시오며[小3]손부도여러남ᄆᆡ무탈이
옵고각가도졀이일균안상이시니흔힝
ᄉᆞ오이다알외옴슈다ᄒᆞ오나이만알외
오며회문소망은층〃분별고업ᄉᆞ오
심복츅ᄒᆞ옵ᄂᆞ이다

2. 전사 · 주석

하라바님 젼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문안 듯ᄌᆞ온 지 날포[1] 되옵ᄉᆞ오니 ᄉᆡ로이 굼겁ᄉᆞ온[2] 복모(伏慕) 부리옵지 못ᄒᆞ올소이다 초츈(初春) 일긔(日氣) 누습(漏濕) ᄂᆡᆼ혹(冷酷)ᄒᆞ온ᄃᆡ 연(連)ᄒᆞ와 연심(年深)ᄒᆞ옵신 긔톄후(氣體候)[3] ᄃᆡ무지환(大無之患)[4]이나 아니 게옵시와 허무(虛無)ᄒᆞ오신 진반등졀(進飯等節)[5]이 일양(一樣)하오셔 근역(筋力) 동쟉(動作)이 여젼(如前)ᄒᆞ옵시니잇가 불초(不肖) ᄒᆞ졍(下情)[6]이오나 부리온 시(時) 업ᄉᆞ오이다 슬하(膝下)분 부모님게오셔 원ᄒᆡᆼᄎᆞ(遠行次)ᄒᆞ신 지 달이 가작ᄒᆞ옵ᄉᆞ오니[7] 원노(遠路)의 조이옵는 ᄉᆞ념(思念) 일시(一時)도 부리온 시 업ᄉᆞ오며 어마님게오셔 허다(許多) 탐ᄉᆞ(探査)[8]신 듕(中) ᄃᆡ쳠환(大添患) 아니 게시니잇가 아가 가단[9] 억만(億萬) ᄋᆡ장(-腸)을 녹이시다가 필경(畢竟) 구(救)치 못ᄒᆞ시고 못 견ᄃᆡᄒᆞ옵시는 일 ᄋᆡ탁(哀恪) ᄋᆡ탁ᄒᆞ오며 망쳔[10] 아ᄌᆞ마님 ᄃᆡ쳠(大添) 아니 게시고 도연님 여러 둉(從)안분[11] 평안

1)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2) 굼겁ᄉᆞ온 : 궁금한.
3) 긔톄후(氣體候) : 기력(氣力)과 신체(身體)의 상태.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지극한 존처에 대하여 그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말. (『新編尺牘大方』, 28쪽 참조.)
4) ᄃᆡ무지환(大無之患) :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병환.
5) 진반등졀(進飯等節) : '진반'(進飯)은 '먹고 마시는 일'(食飮)을 높여 이른 말.
6) ᄒᆞ졍(下情) : 저의 마음. '하회'(下懷) · '하성'(下誠)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7) 가작ᄒᆞ옵ᄉᆞ오니 : 가까이 되오니. '가작ᄒᆞ다'는 '가깝다'의 사투리.
8) 탐ᄉᆞ(探査) : (가정의 일상사를) 두루 더듬어 살핌.
9) 가단 : 가던.
10) 망쳔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망천리(輞川里).
11) 둉(從)안분 : 사촌이나 오촌 이내에 있는 일가붙이를 두루 가리키는 말인 듯함.

(平安) 심여(心慮) 업ᄉᆞ시니잇가 용담[12] 아ᄌᆞ바님님[13] 문안 ᄌᆞ로[14] 드라시와 긱우(客憂)[15] 업ᄉᆞ시고 아ᄌᆞ마님 동동셔(從同壻)[16]분 무쳠(無添)ᄒᆞ오시고 각쳐(各處) 안신(雁信) 열락(連絡) 심여 업ᄉᆞ시고 슈곡[17] 도 드라시와 연고(緣故) 업ᄉᆞ시며 손부(孫婦)도 조모(祖母)게오셔 연심근역이 ᄃᆡ환(大患)은 아니 게시나 안질(眼疾)과 슉증환(宿症患)[18] 종종(種種) 발ᄌᆞᆨ(發作) ᄒᆞ졍의 ᄋᆡ탁솝고 어버이 각각(各各)분 별고(別故) 업ᄉᆞ심 히ᄒᆡᆼ(喜幸)시오며 손부도 여러 남ᄆᆡ 무탈(無頉)이옵고 각가(各家) 도졀(都節)[19]이 일균(一均) 안샹(安常)이시니 흔ᄒᆡᆼ(欣幸)ᄉᆞ오이다 알외옴 슈다(數多)ᄒᆞ오나 이만 알외오며 회문(回聞) 소망(所望)은 층층(層層)분 별고 업ᄉᆞ오심 복츅(伏祝)ᄒᆞ옵ᄂᆞ이다

3. 현대어역

할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알외옵고. 문안 듣자온 지 날포 되오니 새로이 궁금한 그리움 부리지 못하옵니다. 이른 봄 날씨 눅눅하고 매우 차온데, 이러한 즈음에

---

12) 용담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 용담(龍潭).
13) 아ᄌᆞ바님님 : 글줄이 바뀌자 '님'을 한번 더 겹쳐 쓴 경우.
14) ᄌᆞ로 : 자주.
15) 긱우(客憂) : 느닷없는 근심거리.
16) 동동셔(從同壻) : (필자의 입장에서 가리킬 때) 아주머니의 며느리들, 곧 남편의 종형수(從兄嫂)나 종제수(從弟嫂).
17) 슈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무실.
18) 슉증환(宿症患) : 오래 된 병환, 곧 숙환(宿患).
19) 도졀(都節) : 모든 체후(體候). '제절'(諸節)과 비슷한 말이다.

연로하신 기체후 크나큰 병환이나 생기지 않으시어, 별로 맛난 것도 없이 드시는 진지이나마 한결같이 하시어, 근력(筋力)과 동작(動作)이 여전하십니까? 모자란 마음이오나 부려 놓은 적이 없사옵니다. 슬하(膝下)분 부모님께오서 멀리 길을 나신 지 한 달이나 가까이 되오니, 먼 길에 조이는 마음 한때도 놓인 적이 없사오며, 어머님께오서 갖가지로 두루 살피는 가운데 크나큰 병환이나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기 가던 바람에 가없이 애간장을 녹이시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해 하시던 일 애처롭고 또 애처롭게 여겨지오며, 망천 아주머님은 크게 아픈 데는 없으시고, 도련님 및 여러 일가들 평안(平安)하고 다른 심려(心慮) 없으십니까? 용담 아주버님 문안도 자주 들으시매 다른 근심 없으시고, 아주머님 종동서(從同壻)분 아픈 데 없으시고, 각처(各處)의 소식 닿으시매 다른 심려 없으시고, 수곡 소식도 들으시매 다른 연고(緣故) 없으시며…. 손부(孫婦)도 조모(祖母)께오서 연로하신 근력에 큰 병환은 없으시나 안질(眼疾)과 숙환(宿患)이 가끔 발작하여 마음에 애처롭고, 어버이도 다들 별고(別故) 없으심 희행(喜幸)이오며, 손부도 여러 남매 아무 탈 없이 지내옵고, 집안 모두가 저마다 한결같이 평안하니 흔행(欣幸)입니다. 아뢰옴 수다(數多)하오나 이만 아뢰오며, 돌아오는 소식에 듣고픈 바람은 층층(層層)분 별고 없으심 비옵나이다.

4. 참고

유동시(柳東蓍, 1886～1961)에게 그의 둘째 아들 유중번(柳重蕃, 1907～1944)이 1935년에 보낸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615의 편지에 "龍潭叔主"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편지에서는 "용

담 아ᄌᆞ바님"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편지는 또한 자신을 "맛동서"로 일컫고 있는 MF35-006422_940의 편지와 더불어 완전히 동일한 필체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동시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가 그의 시할아버지 유지호(柳止鎬, 1825～1904)에게 보낸 편지이다. 시기는 유지호의 만년에 해당하는 1900년 전후로 보인다.

37 1-35. 全柳_MF35-006425_2257(24x53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1900년 전후)

1. 판독

[隔2]하라바님젼[隔1]샹술이[移1]
문안알외옵고거번두ᄌᆞ알외온
후이동안막히오니굼겁ᄉᆞ온복
모일시도부리올시업ᄉᆞ올ᄎᆞ만〃
무심듕아ᄌᆞ바님힝ᄎᆞᄒᆞ옵시니
반갑습고ᄉᆡ롭ᄉᆞ온심ᄉᆡ온젼치
못ᄒᆞ옵고듯ᄌᆞ오니나려오신지날
포되옵시나노독여히마지아니시와
담환과각ᄉᆡᆨ쳠환게옵신쥴듯
ᄌᆞᆸ긔ᄋᆡ탁두립습고밤ᄉᆞ이오나
더치옵신쳠손이나아니게옵셔침
진등졀이방ᄉᆞᄒᆞ옵시니잇가불

초ᄒᆞ졍이오나우리와부리ᄋᆞᆸ지못
ᄒᆞ올소이다[隔1]슬젼슉부모님녀두
뒥쳠졀업ᄉᆞ시고슈곡도연고업ᄉᆞ
시니잇가반게할바님듕샹격
아바님오시려ᄒᆞᄋᆞᆸ시더니오실지
뵈ᄋᆞᆸ고졉ᄉᆞ오며이셔방게셔평안
ᄒᆞ옵시고검제도둉〃ᄒᆞ시며슉골
아ᄌᆞ바님ᄌᆞ로녀왕ᄒᆞᄋᆞᆸ시ᄂᆞᆫ잇가손
부도어버이녀소〃쳠졀ᄌᆞ즈시니ᄉᆞ
졍의익탁ᄉᆞᆸ고손부도여러남믹뒥
탈업ᄉᆞᆸ고뒥소제졀일안이시니만힝
ᄉᆞ오이다알외옴다못알외오나보시긔
지리귀촌ᄒᆞᄋᆞᆸ실가이만알외오며녀
녀연만ᄒᆞᄋᆞᆸ신긔력쳠환업ᄉᆞ시
긔축원이옵고아ᄌᆞ바님히한이오시
[上]와유토아니시고회환ᄒᆞᄋᆞᆸ시니결연셥〃ᄒᆞ오이다

2. 전사 · 주석

하라바님 전 샹술이

문안 알외ᄋᆞᆸ고 거번(去番)[1] 두어 ᄌᆞ 알외온 후 이 동안 막히오니 굼겁ᄉᆞ온 복모(伏慕) 일시(一時)도 부리올 시(時) 업ᄉᆞ올 ᄎᆞ 만만(萬萬)

1) 거번(去番) : 접때, 지난날.

무심(無心) 듕(中) 아ᄌᆞ바님 ᄒᆡᆼᄎᆞ(行次)ᄒᆞ옵시니 반갑ᄉᆞᆸ고 ᄉᆡ롭ᄉᆞ온 심ᄉᆡ(心事ㅣ) 온젼(穩全)치 못ᄒᆞᄋᆞᆸ고 듯ᄌᆞ오니 나려오신 지 날포 되ᄋᆞᆸ시나 노독(路毒) 여ᄒᆡ(餘害) 마지 아니시와 담환(痰患)[2]과 각ᄉᆡᆨ(各色) 쳠환(添患) 게옵신 줄 듯ᄌᆞᆸ긔 ᄋᆡ탁(哀怛) 두립ᄉᆞᆸ고 밤ᄉᆞ이오나 더치옵신[3] 쳠손(添損)이나 아니 게옵셔 침진(寢進)[4] 등절(等節)이 방ᄉᆞ(倣似)ᄒᆞᄋᆞᆸ시니잇가 불초(不肖) ᄒᆞ졍(下情)이오나 우러와 부리ᄋᆞᆸ지 못ᄒᆞ올소이다 ᄉᆞᆯ젼(膝前) ᄉᆞᆨ부모(叔父母)님ᄂᆡ 두 ᄃᆡᆨ 쳠졀(添節)[5] 업ᄉᆞ시고 슈곡[6]도 연고(緣故) 업ᄉᆞ시니잇가 반게[7] 할바님 듕상(中祥)[8] 젹 아바님 오시려 ᄒᆞᄋᆞᆸ시더니 오실지 뵈ᄋᆞᆸ고 졉ᄉᆞ오며 이셔방게셔 평안ᄒᆞ옵시고 검제[9]도 둉둉(種種) ᄒᆞ시며 ᄉᆞᆨ골[10] 아ᄌᆞ바님 ᄌᆞ로 ᄂᆡ왕(來往)ᄒᆞ옵시ᄂᆞᆫ잇가 손부(孫婦)도 어버이ᄂᆡ 소소(小少) 쳠졀 ᄌᆞ즈시니 ᄉᆞ졍(私情)의 ᄋᆡ탁ᄉᆞᆸ고 손부도 여러 남ᄆᆡ(娚妹) ᄃᆡ탈(大頉) 업ᄉᆞᆸ고 ᄃᆡ소 제졀(諸節) 일안(一安)이시니 만ᄒᆡᆼ(萬幸)ᄉᆞ오이다 알외옴 다 못 알외오나 보시긔 지리(支離)[11] 귀ᄎᆞᆫᄒᆞᄋᆞᆸ실가 이만 알외오며 ᄂᆡᄂᆡ 연만(年晩)ᄒᆞ옵신 긔력(氣力) 쳠환(添患) 업ᄉᆞ시긔 츅원(祝願)이옵고 아ᄌᆞ바님 ᄒᆡ한(稀罕)이 오시와 유

---

2) 담환(膽患) : 마음의 근심.
3) 더치ᄋᆞᆸ신 : 덧나신.
4)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5) 쳠졀(添節) : 병환(病患). 또는 병환중의 건강 상태.
6) 슈곡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무실.
7) 반게 : 지명.
8) 듕상(中祥) : 소상(小祥)을 말하는 듯함.
9) 검제 : 지명. 검제.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西後面) 금계리(金溪里). 금지, 또는 금음지·금지촌이라고도 이른다.
10) ᄉᆞᆨ골 : 지명.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면 도림리(道林里) 숙골. 곧은골 북쪽에 있는 마을.
11)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留)토 아니시고 회환(回還)ᄒᆞ읍시니 결연(缺然) 셥셥ᄒᆞ오이다

3. 현대어역

할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접때 두어 자 아뢰온 뒤로 이 동안 소식이 막히오니 궁금한 그리움 한 때도 부려 놓을 겨를이 없던 차에, 천만 뜻밖에 아주버님께서 행차하시니 반갑고 새로운 심사 가누지 못하옵고, 듣자오니 내려오신 지 날포 되었으나 노독(路毒)의 여해(餘害)를 마지 아니하시어 담환(痰患)과 여러 가지 덧나신 병환(病患) 있으신 줄 듣잡기 애처롭고 두려우며, 밤새나마 더한 첨손(添損)이나 아니 계시어 주무시고 진지 드시는 일이 예와 같으십니까? 못난 마음이오나, 우러러 부리지 못하옵니다. 슬전 숙부모님네 두 댁 다른 병환 없으시고 수곡도 연고(緣故) 없으십니까? 반계 할아버님 소상(小祥) 적에 아바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오실지, 뵈옵고 싶사오며, 이서방께서는 평안하시고, 김제도 가끔 소식 보내오기는 하시며, 숙골 아주버님 자주 내왕하오십니까? 손부(孫婦)도 어버이네 자잘한 병환 잦으시니 마음에 애처롭고, 손부도 여러 남매 큰 탈은 없고 큰집 작은집 모든 식속들이 하나같이 평안하시니 천만 다행이오이다. 아뢰옴 다 못 아뢰오나, 보시기 지루하고 귀찮으실까봐 이만 아뢰오며, 내내 연만(年晩)하오신 기력(氣力)에 다른 병환 없으시기 비옵고, 아주버님 모처럼 오셨다가 머물지도 아니하시고 되돌아가시니 저버림 받은 듯 섭섭하오이다.

4. 참고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가 그의 시할아버지 유지호(柳止鎬, 1825~1904)에게 보낸 편지이다. 시기는 유지호의 만년에 해당하는 1900년 전후로 보인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932·940·1156의 편지와 더불어 완전히 동일한 필체를 보여 준다.

38 1-36. 全柳_MF35-006425_2282(23x42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하라바님젼[隔2]샹술이[移1]
문안알외옵고그즉문안은숙〃ᄒᆞ오
내[小2]손부의알들무릉츄옵지못ᄒᆞ와
비온술이도ᄌᆞ로알외옵지못죄롭삽
고할바님남다라신ᄌᆞ품이시로오즉괘심
히아옵실이잇가죄탄무지로소이다
일긔훈열ᄒᆞ온디연ᄒᆞ와[隔1]연만
ᄒᆞ옵신긔톄후손상쳠환이나아니
게옵셔침진등졀이일양방ᄉᆞᄒᆞ
옵시니잇가불초ᄒᆞ졍이오나외오조

이ᄋᆞᆸᄂᆞᆫ용여그지업ᄉᆞ오이다슬젼슉
부모님두텩장소분면쳠이시와
심여업ᄉᆞ시니잇가슉골아ᄌᆞ바님ᄌᆞ
로왕녀ᄒᆞ시며각곳안신동〃ᄒᆞ옵
셔심여업ᄉᆞ시니잇가곳손부도[隔1]부모
님게옵셔여지업ᄉᆞ신긔력ᄃᆡ환아니
게옵시나소〃쳠환영일이히소ᄒᆞ
옵시니ᄋᆡ탁두립ᄉᆞᆸ고아ᄌᆞ바님톄긔
무고타못몹시파려듕ᄂᆞᆫᄉᆞᆸ고손부도
동셔길무탄ᄒᆞ오이다알외옴다못알
외오며녀〃연심ᄒᆞᄋᆞᆸ신긔력만강
ᄒᆞᄋᆞᆸ신문안츅원이올소이다

2. 전사 · 주석

하라바님 젼(前) 샹(上)술이

문안(問安) 알외ᄋᆞᆸ고 그즉 문안은 ᄉᆞᆨᄉᆞᆨᄒᆞ오나[1] 손부(孫婦)의 알들 무릉(無能)[2] 츄ᄋᆞᆸ지 못ᄒᆞ와[3] 비온 술이도 ᄌᆞ로 알외ᄋᆞᆸ지 못 죄롭ᄉᆞᆸ고 할

1) ᄉᆞᆨᄉᆞᆨᄒᆞ오나 : (궁금하여) 속이 바싹 마르는 듯하오나. '(모래처럼) 사박사박하다', 또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삭바삭하다'라는 뜻의 '삭삭ᄒᆞ다'에서 나온 말이다. "삭삭기 셰몰애 별헤"(「鄭石歌」, 제1장.)에 보이는 '삭삭기'와 "삭삭ᄒᆞᆫ 뼈 ᄉᆞᆺ(脆骨)"(『老乞大諺解』 下-34.)에 보이는 '삭삭ᄒᆞᆫ'을 참고할 만하다.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435쪽 참조.)

2) 무릉(無能) : 무능하여.

3) 츄ᄋᆞᆸ지 못ᄒᆞ와 : 나타내지 못하여. '츄ᄋᆞᆸ지'의 '추다'를 '나타내다'의 뜻으로 추정.

바님 남다라신 ᄌᆞ품(資稟)이시로[4] 오죽 괴심히 아ᄋᆞᆸ실이잇가 죄탄(罪歎) 무지(無地)로소이다 일긔(日氣) 훈열(薰熱)ᄒᆞ온ᄃᆡ 연ᄒᆞ와 연만(年晩)ᄒᆞᄋᆞᆸ신 긔톄후(氣體候) 손상(損傷) 쳠환(添患)이나 아니 게옵셔 침진(寢進)[5] 등절(等節)이 일양(一樣) 방ᄉᆞ(倣似)ᄒᆞᄋᆞᆸ시니잇가 불초(不肖)ᄒᆞ졍(下情)이오나 외오[6] 조이ᄋᆞᆸᄂᆞᆫ 용여(用慮) 그지업ᄉᆞ오이다 슬젼(膝前) 슉부모(叔父母)님 두 ᄐᆡᆨ(宅) 쟝소(長少)분 면쳠(免添)이시와 심여(心慮) 업ᄉᆞ시니잇가 슉골[7] 아ᄌᆞ바님 ᄌᆞ로 왕ᄂᆡ(往來)ᄒᆞ시며 각(各)곳 안신(雁信) 동동 ᄒᆞᄋᆞᆸ셔 심여 업ᄉᆞ시니잇가 곳[8] 손부도 부모님게옵셔 여지(餘地) 업ᄉᆞ신 긔력(氣力) ᄃᆡ환(大患) 아니 게옵시나 소소(小少) 쳠환(添患) 영일(寧日)이 히소(稀少)ᄒᆞᄋᆞᆸ시니 ᄋᆡ탁(哀忙) 두립ᄉᆞᆸ고 아ᄌᆞ바님 톄긔(體氣) 무고(無故)타 못 ᄭᆞᆸ시 파려[9] 듕(中)ᄂᆞᆫᄉᆞᆸ고[10] 손부도 동셔(東西)길[11] 무탈(無頉)ᄒᆞ오이다 알외음 다 못 알외오며 ᄂᆡᄂᆡ 연심(年深)ᄒᆞᄋᆞᆸ신 긔력(氣力) 만강(萬康)ᄒᆞᄋᆞᆸ신 문안 축원(祝願)이올소이다

---

4) ᄌᆞ품(資稟)이시로 : 자품(資稟)이신 바로서.
5)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6) 외오 : 멀리서. 홀로.
7) 슉골 : 지명.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면 도림리(道林里) 숙골. 곧은골 북쪽에 있는 마을.
8) 곳 : '이곳'이라고 적어야 할 데서 '이'를 빠뜨리고 쓴 것이다.
9) 파려 : 파려함, 곧 고달픔. '파려하다'는 '고달프다'(憊)의 옛말. (劉昌惇, 『李朝語辭典』, 722쪽 참조.)
10) 듕(中)ᄂᆞᆫᄉᆞᆸ고 : '(-에 있는, -을 겪는) 중인 듯하고'의 뜻으로 추정.
11) 동셔(東西)길 : 이리든 저리든 가는 길, 곧 이럭저럭 살아가는 길.

3. 현대어역

할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그쪽 문안은 몹시 궁금하오나, 손부(孫婦)가 무능하여 알뜰히 여쭙지 못하와, 빈 살이도 자주 아뢰옵지 못, 죄스럽고. 할아버님 남다르신 자품에 오죽 괘씸히 여기시겠습니까? 죄스러운 탄식에 몸 둘 바 없소이다. 날씨가 찌는 듯이 더운 이즈음, 연만(年晩)하오신 기체후(氣體候) 나쁜 병환이나 아니 계시어 주무시고 진지 드시는 일이 한결로 예와 같으십니까? 불초한 마음이오나 멀리서 가슴 조이는 마음 쓰임 그지없습니다. 슬전 숙부모님 두 댁 위아래 분 병환은 면하시어 심려 없으십니까? 숙골 아주버님 자주 왕래하시며, 여러 곳 소식 가끔 들으시매 다른 심려 없으십니까? 이곳 손부도 부모님께오서 여지(餘地) 없으신 기력에 큰 병은 아니 계시나, 자잘히 겪는 병환으로 편안한 날이 드무니 애처롭고 두려우며, 아주버님 체기(體氣) 무고(無故)하다 못, 몹시 파려한 듯싶고. 손부도 그럭저럭 다른 탈은 없습니다. 아뢰옴 다 못 아뢰오며, 내내 연로하신 기력 만강하신 문안 비오이다.

4. 참고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가 그의 시할아버지 유지호(柳止鎬, 1825~1904)에게 보낸 편지이다. 시기는 유지호의 만년에 해당하는 1900년 전후로 보인다. 전주유씨 안동 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2_932 · 940 · 1156의 편지와 더불어 완전히 동일한 필체를 보여 준다.

39 1-37. 全柳_MF35-006422_1082(18x74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1904)

1. 판독

[隔2]할바님[隔1]젼[隔1]샹술이[移1]
[隔1]문[移1]
안알외옵고어석누슈로슬
ᄒᆞ를물어오온디어언간망
일이거의올분숙숙인편의이
맛술이도한슌알외옵지못
ᄒᆞ오니쇼쇼불초죄별이온
듯죄롭ᄉᆞ올분할바님히
소와각식첨졀그덧ᄒᆞ심
을뵈옵고오와이맛살이도딘
즉알외옵지못일염죄송
무지로소이다이져난히소
ᄎᆞᄎᆞ감세계시와약간사이온화일세
의연ᄒᆞ와[隔1]연심[隔1]톄휘만
슈무강ᄒᆞ옵시와소진근역
이여젼방ᄉᆞᄒᆞ오시며슬젼
져근[隔1]아바님양위[隔1]분대환
업ᄉᆞ시고금셔아ᄌᆞ바님가시
와노히업ᄉᆞ며각곳아ᄌᆞ마님문
후종〃하시닛가알들복

모간절하오나이맛술이도ᄌᆞ
로알외ᄋᆞᆸ지못ᄒᆞ올소이다
이ᄀᆞᆺ[小1]손부되[隔1]부모님억첩
시경즁근〃ᄃᆡ모환첨은업
ᄉᆞ시나억울화ᄀᆡ감당못신
관ᄀᆡ부엄〃여지업ᄉᆞ시니ᄋᆡ
탁ᄉᆞᆸ고형님모라시고
더욱못견ᄃᆡᄒᆞ시니시일
이만ᄒᆞᆯᄉᆞ록ᄋᆡ탁원통가
이업ᄉᆞᆸ고아ᄌᆞ마님도모ᄌᆞ
분무첨이시니든대소턱
무첨들ᄒᆞ시고아ᄌᆞ바님
오시려ᄒᆞ시난듯신ᄀᆡᄒᆞ오
이다아모려나강반여젼
ᄒᆞ시와만슈무강ᄒᆞ심지츅
이로소이다이져난그져관
심하시와셕회랄이즈시고
ᄐᆡ평계시다가일셰온화하
시거든속히오시기혈츅이올소
소이다알외옴허다ᄒᆞ오나
이만ᄀᆞᆺ치나이다

체후(體候) 만수무강(萬壽無疆)하오시와 그리 맛난 것도 없이 드시는 진지와 근력이 여전히 예와 같으시며, 슬전 작은아버님 두 분 대환(大患)은 없으시고, 금서 아주버님 가시어 노해(路害)는 없으며 여러 곳 아주버님께서 문후(問候) 가끔 하시옵니까? 알뜰히 그리는 마음 간절하오나, 이깟 살이도 자주 아뢰옵지 못하옵니다. 이곳 손부(孫婦)도 부모님 수만 가지 시경(時景) 속을 겪으시되 겨우겨우 크나큰 병환은 없으시나, 억울(抑鬱)한 화기(火氣)를 감당하지 못하여 얼굴이며 살갗이 몹시 여위어 남음이 없어 보이시니 애처롭고, 형님은 모르시고 더욱 견디지 못해 하시니, 시일(時日)이 많을수록 애처롭고 원통(冤痛)하기 가없고, 아주머님도 모자(母子)분 아픈 데는 없으시니 든든. 대소택(大小宅)도 아픈 데들 없으시고, 아주버님 오시려 하시는 듯 새삼스럽습니다. 아무려나 강반(强飯)이나마 여전하시어 만수무강하심 빕니다. 이제는 그저 마음을 너그러이 하시어 지난 일일랑은 잊으시고 태평(太平)하게 계시다가, 날씨 온화해지거든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아뢰옴 허다하오나, 이만 그치나이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786에 등장하는 "ᄒᆞᆫ금셔 나리"가 "금셔 아ᄌᆞ바님"으로 적혀 있음을 먼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그의 하인이 1883년에 보냈던 바이다. 나아가 이 편지의 발신자는 위로 "부모님"과 함께 "져근아바님 양위"가 있으니 종가의 손부이고, 동서로서의 "형님"을 따로 일컫고 있으니 또한 맏이는 아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연박의 둘째 아들 유동저

모간절하오나이맛술이도ᄌᆞ
로알외ᄋᆞᆸ지못ᄒᆞ올소이다
이ᄀᆞᆺ[小1]손부도[隔1]부모님억쳡
시경즁근〃뎌모환쳠은업
ᄉᆞ시나억울화긔감당못신
관긔부엄〃여지업ᄉᆞ시니ᄋᆡ
탁ᄉᆞᆸ고형님모라시고
더욱못견뎌ᄒᆞ시니시일
이만ᄒᆞᆯᄉᆞ록ᄋᆡ탁원통가
이업ᄉᆞᆸ고아ᄌᆞ마님도모ᄌᆞ
분무쳠이시니든대소ᄐᆡᆨ
무쳠들ᄒᆞ시고아ᄌᆞ바님
오시려ᄒᆞ시난듯신긔ᄒᆞ오
이다아모려나강반여젼
ᄒᆞ시와만슈무강ᄒᆞ심지축
이로소이다이져난그져관
심하시와셕회랄이즈시고
ᄐᆡ평계시다가일세온화하
시거든속히오시기혈축이올소
소이다알외옴허다ᄒᆞ오나
이만ᄀᆞᆺ치나이다

2. 전사 · 주석

할바님 젼 샹술이

문안(問安) 알외옵고 어셕(於昔)[1] 누슈(淚水)로 슬하(膝下)를 물어 오온 디 어언간 망일(望日)이 거의 올 분 숙숙(數數) 인편(人便)의 이맛 술이[2]도 한 슌(順)[3] 알외옵지 못하오니 쇼〃(小少) 불초(不肖) 죄별(罪別)이온 듯 죄롭스올 분 할바님 히소(咳嗽)와 각식(各色) 쳠졀(添節)[4] 그덧하심을 뵈옵고 오와 이맛 살이도 딘즉 알외옵지 못 일염(一念) 죄송무지(罪悚無地)로소이다 이져난 히소 추추 감세(減勢) 계시와 약간(若干) 사이 온화(溫和) 일세(日勢)의 연하와 연심(年深) 톄휘(體候ㅣ)[5] 만슈무강(萬壽無疆)하옵시와 소진(蔬進)[6] 근역(筋力)이 여젼(如前) 방사(倣似)하오시며 슬젼(膝前) 져근아바님 양위(兩位) 분 대환(大患) 업스시고 금셔[7] 아즈바님 가시와 노히(路害) 업스며 각곳 아즈마님 문후(問候) 종〃 하시닛가 알들[8] 복모(伏慕) 간절(懇切)하오나 이맛 술이도 즈로 알외옵지 못하올소이다 이곳 손부(孫婦)도 부모님 억쳡(億疊) 시

---

1) 어셕(於昔) : '재석'(在昔)과 같은 말로 보아 '접때'·'지난날'의 뜻으로 추정.

2) 이맛 술이 : 이까짓 살이. 특별한 사연이 없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의 편지. 이른바 '그맛'이 '그깟(그까짓)'을 뜻하는 것처럼 '이맛'은 '이깟(이까짓)'을 뜻한다.

3) 한슌(順) : 일회(一回), 곧 한 차례.

4) 쳠졀(添節) : 병환(病患). 또는 병환중의 건강 상태.

5) 톄휘(體候ㅣ) : '기거'(起居)와 같은 말로서,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지극히 존대해야 하는 경우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일상'(日常)을 물을 때에 쓰인다.

6) 소진(蔬進) : (고기반찬이 없는) 푸성귀 나물로만 반찬을 삼은 진지. 거친 밥. 맛난 것이 거의 없는 진지.

7) 금셔 : 인명.

8) 알들 : 알뜰. 간절(懇切)히. 지극(至極)히. '알들(-뜰)'과 '살들(-뜰)'은 본디 동일한 형태에서 출발했던 듯한데, 단독으로 쓰이거나 결합해서 쓰이는 가운데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경즁(時景中) 근근 디모환쳠(大無患添)은 업ᄉᆞ시나 억울(抑鬱) 화긔(火氣) 감당 못 신관긔부(肌膚)[9] 엄엄(奄奄)[10] 여지(餘地) 업ᄉᆞ시니 이탁(哀怾)ᄉᆞᆸ고 형님 모라시고 더욱 못 견듸 ᄒᆞ시니 시일(時日)이 만흘ᄉᆞ록 이탁 원통(冤痛) 가이 업ᄉᆞᆸ고 아ᄌᆞ마님도 모ᄌᆞ(母子) 분 무쳠(無添)이시니 든[11] 대소턱(大小宅) 무쳠들 ᄒᆞ시고 아ᄌᆞ바님 오시려 ᄒᆞ시난 듯 신긔ᄒᆞ오이다 아모려나 강반(强飯)[12] 여젼ᄒᆞ시와 만슈무강ᄒᆞ심 지축(至祝)이로소이다 이져난 그져 관심(寬心)하시와 셕회(昔懷)랄 이즈시고 틱평(太平) 계시다가 일셰 온화하시거든 속히 오시기 혈축(血祝)이올소소이다 알외옴 허다ᄒᆞ오나 이만 긋치나이다

3. 현대어역

할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 아뢰옵고. 접때 흐르는 눈물로 슬하를 물러나온 지 어언 보름이 거의 다가올 뿐. 잦은 인편(人便)에 이깟 살이도 한 차례 아뢰옵지 못하오니, 작고 어리며 못난 저의 죄가 유별한 듯하여 죄스러울 뿐. 할아버님 해소(咳嗽)와 갖가지 병환 그덧하심을 뵈옵고 와서 이깟 살이도 진작 아뢰옵지 못. 마음에 오로지 몸 둘 바 없이 죄송하옵니다. 이제는 해소가 차차 감세하여 얼마 동안 온화(溫和)한 날씨에 즈음하여 연로하신

9) 신관긔부(肌膚) : '신관'은 얼굴의 존칭. '긔부'(肌膚)는 살갗.

10) 엄엄(奄奄) : 숨이 곧 끊어질 듯이 매우 여림.

11) 든 : '든든'이라고 해야 할 데서 같은 글씨의 중복을 표시하는 기호를 실수로 빠뜨린 것이다.

12) 강반(强飯) : 환자가 몸을 조리하기 위하여 억지로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체후(體候) 만수무강(萬壽無疆)하오시와 그리 맛난 것도 없이 드시는 진지와 근력이 여전히 예와 같으시며, 슬전 작은아버님 두 분 대환(大患)은 없으시고, 금서 아주버님 가시어 노해(路害)는 없으며 여러 곳 아주버님께서 문후(問候) 가끔 하시옵니까? 알뜰히 그리는 마음 간절하오나, 이깟 살이도 자주 아뢰옵지 못하옵니다. 이곳 손부(孫婦)도 부모님 수만 가지 시경(時景) 속을 겪으시되 겨우겨우 크나큰 병환은 없으시나, 억울(抑鬱)한 화기(火氣)를 감당하지 못하여 얼굴이며 살갗이 몹시 여위어 남음이 없어 보이시니 애처롭고, 형님은 모르시고 더욱 견디지 못해 하시니, 시일(時日)이 많을수록 애처롭고 원통(冤痛)하기 가없고, 아주머님도 모자(母子)분 아픈 데는 없으시니 든든. 대소택(大小宅)도 아픈 데들 없으시고, 아주버님 오시려 하시는 듯 새삼스럽습니다. 아무려나 강반(強飯)이나마 여전하시어 만수무강하심 빕니다. 이제는 그저 마음을 너그러이 하시어 지난 일일랑은 잊으시고 태평(太平)하게 계시다가, 날씨 온화해지거든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아뢰옴 허다하오나, 이만 그치나이다.

4. 참고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1_786에 등장하는 "ᄒᆞᆫ금셔 나리"가 "금셔 아ᄌᆞ바님"으로 적혀 있음을 먼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그의 하인이 1883년에 보냈던 바이다. 나아가 이 편지의 발신자는 위로 "부모님"과 함께 "져근아바님 양위"가 있으니 종가의 손부이고, 동서로서의 "형님"을 따로 일컫고 있으니 또한 맏이는 아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연박의 둘째 아들 유동저

(柳東著, 1892～1948)의 부인이 되는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시할아버지 유지호(柳止鎬, 1825～1904)에게 보낸 것이다. 시기는 발신자가 시집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자 유지호의 노환이 크게 악화된 때로서 1904년 초봄으로 보인다.

40 1-38. 全柳_MF35-006421_633(17x33cm): 손자며느리 → 시할아버지(20세기 전반)

1. 판독

[隔2]할바님젼[隔1]상술이[移1]
[隔1]문[移1]
안알외ᄋᆸ고슬하을물너
온디날포되오니우러
와깁ᄉᆞ온복모구〃부리ᄋᆸ
디못ᄒᆞ올소이다극셔의연
ᄒᆞ와[隔1]연심톄휘만강하
ᄋᆸ셔소딘등져리여일방
ᄉᆞᄒᆞ압시니잇가슬젼[隔1]
부모님계셔식〃쳠상날
ᄉᆞ이쾌복되시와만안하
ᄋᆸ신잇가알들복간졀
부리압디못올소이다

형님내외분대쳠업사시
며도련님내〃평안하오시며
각곳소식녈낙짜린심우쳐
업ᄉᆞ시니잇가싀굼〃ᄒᆞ오이
이다이곳[小3]손부도어버이두
분근〃면쳔이니든〃사정
의즐겁ᄉᆞ오이다종조슉당
당슉느리무쳠이시니든〃
ᄒᆞᄋᆞᆸ고[小3]손부도남미무탈하
오이다정신괴숩죄롭ᄉᆞ오
이다져근[隔1]아바님오시와대
쳠은업ᄉᆞ시나노독여히
마디아니실듯일〃죄롭
ᄉᆞ오이다알외올말삼하
감하ᄋᆞᆸ심졋ᄉᆞ와이만이
만알외ᄋᆞᆸ나이다이후망
은층〃분무쳠하심과져
근[隔1]아바님험노의무픠환
텩ᄒᆞᄋᆞᆸ심디츅이올소이다

2. 전사 · 주석

할바님 젼 상(上)술이[1]
문안(問安) 알외ᄋᆞᆸ고[2] 슬하(膝下)을 물너온 디 날포[3] 되오니 우러

와[4] 깁ᄉᆞ온 복모구구(伏慕區區)[5] 부리ᄋᆸ디 못ᄒᆞ올소이다 극셔(極暑)의 연(連)ᄒᆞ와 연심(年深) 톄휘(體候ㅣ)[6] 만강(萬康)하ᄋᆸ셔 소딘(疏進)[7] 등저리(宵辰等節이)[8] 여일방ᄉᆞ(如一倣似)ᄒᆞ압시니잇가 슬젼(膝前) 부모님계셔 식식(色色) 쳠상(添傷)[9] 날ᄉᆞ이 쾌복(快復)되시와 만안(萬安)하ᄋᆸ신잇가 알들[10] 복간절(伏懇切) 부리압디 못ᄒᆞ올소이다 형님 내외분 대쳠(大添)[11] 업사시며 도련님 내내 평안(平安)하오시며 각(各)곳 소식(消息) 녈낙(連絡) 짜린 심우쳐(心憂處) 업ᄉᆞ시니잇가 싀(色)[12] 굼굼ᄒᆞ

---

1) 상(上)술이 : 한문 편지의 '上白'·'上白是'와 같은 말이다. 지극한 존처(尊處)에 보내는 편지의 피봉(皮封)에 쓰이는 투어(套語)로서 한글 간찰에 흔히 보인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이른바 '上白是'(상술이)는 특히 조부모나 부모에게 올리는 경우에 붙인다. "祖父母·父母前, 云上白是·白是." (『寒暄箚錄』 1~9, 兄主類-註.) '술이'는 이두에 보이는 '白是'(숣이)에서 나온 말로서 「숣(다) + 이」의 결합형이다. '술이'는 '아름다비'가 '아름다이'로 바뀐 경우와 같이 어간 말음 'ㅂ'이 전설모음 앞에서 아주 없어진 형태이다.

2) 문안(問安) 알외ᄋᆸ고 : 한글 간찰의 기두(起頭) 부분에 흔히 쓰이는 투어(套語)이다.

3) 날포 : 하루 남짓한 동안.

4) 우러와 : 우러러.

5) 복모구구(伏慕區區) : 엎드려 그리는 하찮은 몸. '구구'(區區)는 '잘다'의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

6) 톄휘(體候ㅣ) : 건강 상태가. '체후'(體候)는 '기거'(起居)와 같은 말로서, 존처(尊處)에 대하여 그의 일상(日常)을 물을 때에 쓰인다.

7) 소딘(疏進) : (고기반찬이 없는) 푸성귀 나물로만 반찬을 삼은 진지. 거친 밥. 맛난 것이 거의 없는 진지.

8) 등저리(等節이) : 따위가. '등절'(等節)은 어떠어떠한 따위의 일이 처해 있는 상태나 형편을 뜻하는 말로 추정된다.

9) 쳠상(添傷) : 병이 도져서 건강에 손상을 입음. '첨손'(添損)과 같은 말.

10) 알들 : 알뜰. 간절(懇切)히. 지극(至極)히. '알들(-뜰)'과 '살들(-뜰)'은 본디 동일한 형태에서 출발했던 듯한데, 단독으로 쓰이거나 결합해서 쓰이는 가운데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1) 대쳠(大添) : 병으로 건강에 큰 손상을 입는 일. '대환첨손'(大患添損)의 준말.

12) 싀(色) : 갖가지. '색색'(色色)이라 할 데서 글씨 하나를 빠뜨렸음.

오이이다 이곳 손부(孫婦)도 어버이 두 분 근근(僅僅) 면천(免添)[13]이니 든든 사정(私情)의 즐겁ᄉᆞ오이다 종조숙(從祖叔)[14] 당당숙(堂叔)[15] 느리[16] 무쳠(無添)[17]이시니 든든ᄒᆞᄋᆞᆸ고 손부도 남미(娚妹) 무탈(無頉)하오이다 정신(精神) 괴숌[18] 죄(罪)롭ᄉᆞ오이다 져근아바님 오시와 대쳠은 업ᄉᆞ시나 노독여헤(路毒餘害) 마디 아니실 듯 일일(日日) 죄롭ᄉᆞ오이다 알외올 말삼 하감(下鑑)하ᄋᆞᆸ십 젓ᄉᆞ와[19] 이만 이만 알외ᄋᆞᆸ나이다 이후(以後) 망(望)은 층층(層層)[20]분 무쳠하심과 져근아바님 험노(險路)의 무픠환턱(無悖還宅)ᄒᆞᄋᆞᆸ심 디축(至祝)이올소이다

3. 현대어역

할아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슬하(膝下)에서 물러나온 지 하루 남짓 되오니, 우러러 깊고 깊은 그리움 부리지 못하옵니다. 가없이 더운 요즈음, 연로

---

13) 면천(免添) : 병이 도져서 건강에 손상을 입는 일을 면함. 표기는 '-천'으로 되어 있으나 '-쳠'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임.

14) 종조숙(從祖叔) : 할아버지의 형제들, 곧 종조부(從祖父)들을 가리킴.

15) 당당숙(堂叔) :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 곧 종숙(從叔)들을 가리킴. 글줄이 바뀌자 '당'을 한번 더 쓴 경우.

16) 느리 : 늘. 언제나.

17) 무쳠(無添) : 건강에 '쳠손'(添損)이 없음.

18) 괴숌 : 사랑하심. 마음을 쓰심.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나, 물이 괴듯 정(情)이 괴는 데서 '사랑하다'라는 뜻이 생겨난 듯하다.

19) 젓사와 : 두려워. 「젛(다)+ᄉᆞᆸ+오+아」의 결합형. '젛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다. (劉昌惇, 『李朝語辭典』, 653쪽 참조.)

20) 층층(層層)분 : 위로 2대, 곧 할아버지 내외와 아버지 내외를 한데 아울러 가리키는 말.

(年老)하신 체후(體候) 만강(萬康)하오시어 그리 맛난 것도 없이 진지와 그 밖의 일이 한 결로 예와 같으옵니까? 슬전(膝前) 부모님께서도 갖가지로 아프고 도지신 것이 날사이 깨끗이 다 나으시어 만안(萬安)하시옵니까? 알뜰히 걱정하는 마음 부리지 못하옵니다. 형님 내외분 크게 아픈 데는 없으시며, 도련님도 내내 평안(平安)하시며, 여러 곳 소식(消息)도 닿으시매 다른 근심 없으십니까? 갖가지로 궁금하옵니다. 이곳 손부(孫婦)도 어버이 두 분 근근이 아프고 도지는 일은 면하고 계시니 든든할 뿐더러 마음에 즐겁사옵니다. 종조(從祖)와 당숙(堂叔)께서도 늘 아픈 데 없이 계시니 든든하옵고, 손부 남매(娚妹)도 아무 탈 없사옵니다. 마음 쓰이심 죄송스럽사옵니다. 작은아버님 오시어 크게 아픈 데는 없으시나, 먼 길에 시달려 아픈 나머지 다 낫지는 못한 듯하여 나날이 죄송스럽사옵니다. 아뢰는 말씀 굽어보심 두려워 이만 이만 아뢰옵니다. 앞으로 바라는 일은 층층(層層)분 아픈 데 없이 계심과 작은아버님 궂은 길에 아무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심 마음을 다해 비올 따름입니다.

4. 참고

"슬전 부모님"과 "형님 내외분"의 안부를 묻고 다시 "도련님"의 안부를 묻는 가족 관계로 보건대, 이 편지의 발신자는 종가의 며느리이되 맏이가 아니며 또한 막내도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둘째 아들 유중번(柳重蕃, 1907～1944)의 부인이 되는 의성김씨(義城金氏, 1907～1945)가 그의 시할아버지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41 2-01. 全柳_MF35-006421_632(17x51cm): 누이 → 오빠(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오라바님육속인편일ᄌᆞ알외
지못인간의걸녀잇는발명무어
시리졈〃일긔훈곤의긔력한
ᄀᆞ지시고구미근녁나흐신가슴하
각〃딕탈업ᄉᆞ오며신힝도ᄒᆞ여
범졀극진ᄒᆞ온줄공싱긔특ᄒᆞ
오나시절을못만나이덧젼황의
아희들손직그덧무한심녀와격
정상〃익들졀통우리걱졍은
당코안ᄌᆞ병중쳠상무손신슌지
운긔고이ᄒᆞ옵데는근〃걸녀시나
이럭고무슨셰황인고만병슈두병
직먹으니조곰효음인지다리알픈
증변동잇는가시브나셔고거를가
망업고외인다리부엇다가나잣
다가하못견딕아희들이업어다가
동작의노하슈일잇다가와습밧노
인딕쳠업ᄉᆞ나주야걱졍셩화
중종구내힝다리고가던거시서울
간지이적아니오니적연모라고소동

심화둣기슬습긔주는노상안동가
잇고가솔은화평토아닌것술제의
신수소란지리귀촌소회쳡〃ᄒᆞ오
나슈〃이만그치오며더위젼한번
오실말솜황송기ᄃᆞ리오니머지아니
〃와노르실가바라옵장편두어ᄌᆞ
알외옵긔주보시거든속히들가
라ᄒᆞ시옵밥갑도요량아니ᄒᆞᄂᆞᆫ
일졍신업ᄉᆞᆫ일인둣답〃ᄋᆡ장
이옵

2. 전사 · 주석

오라바님

육속(陸續) 인편(人便) 일ᄌᆞ(一字) 알외지 못 인간(人間)[1]의 걸녀 잇ᄂᆞᆫ[2] 발명(發明)[3] 무어시리 점점(漸漸) 일긔(日氣) 훈곤(燻坤)[4]의 긔력(氣力) 한ᄀᆞ지시고 구미(口味) 근녁(筋力) 나흐신가[5] 슬하(膝下) 각각(各各) ᄃᆡ탈(大頉) 업ᄉᆞ오며 신ᄒᆡᆼ(新行)[6]도 ᄒᆞ여 범졀(凡節) 극진(極盡)

1) 인간(人間) : 인간세상(人間世上). '세상'의 뜻으로 쓰였다.
2) 걸녀 잇ᄂᆞᆫ :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3) 발명(發明) : 변명(辨明). 여기서는 '까닭'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4) 훈곤(燻坤) : 땅을 푹 찌는 듯이 더움.
5) 나흐신가 : 나아지셨는지.
6) 신ᄒᆡᆼ(新行) : 혼행(婚行). 혼인을 하여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일. 여기서는 신부를 맞이한 일을 가리키고 있다.

ᄒᆞ온 줄 공심[7] 긔특(奇特)ᄒᆞ오나 시절(時節)을 못 만나 이 덧[8] 젼황(錢荒)[9]의 아희들 손지(損財) 그 덧 무한(無限) 심녀(心慮)와 걱정 상상(上上)[10] 익들[11] 절통(切痛) 우리 걱정은 당(當)코 안ᄌᆞ[12] 병중(病中) 쳠상(添傷) 무순 신순(身數ㄴ)지 운긔(運氣) 고이(怪異)ᄒᆞᆸ 뎨(弟)[13]는 근근(僅僅) 결녀시나[14] 이럭고[15] 무순 세황(勢況)[16]인고 만병슈(萬病水)[17] 두 병(甁)지 먹으니 조곰 효음(效驗)인지 다리 알픈[18] 증(症) 변동(變動)[19] 잇는가 시브나[20] 셔고 거를 가망(可望) 업고 외인다리[21] 부엇다가 나잣다가[22] 하 못 견디 아희들이 업어다가 동작[23]의 노하 슈일

---

7) 공심 : 마음이 놓이는 모양.

8) 이 덧 : 이 동안. 여기서는 '이러한' 정도의 뜻으로 쓰였다.

9) 젼황(錢荒) : 돈이 잘 돌지 않아 매우 귀해지는 일. 요즘의 이른바 '불황'(不況)·불경기(不景氣)에 상당하는 말이다.

10) 상상(上上) : 가장. 위로 더 없이 가장 높은 모양.

11) 익들 : 애달고. 속이 달아오르고. '속이 달아오르는 듯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애달다'의 어간을 '익들-'로 적은 형태이다.

12) 당(當)코 안ᄌᆞ : 겪고 앉아. '만나 마주치기를(겪기를) 꼭 어찌어찌한 무엇이다'라는 뜻을 가져오는 구문의 맨 앞에 오는 말이다.

13) 뎨(弟) : 발신자 누이가 오라버니에 대하여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써 '제'(弟)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곧장 '아우'로 현대어역하는 데는 주저할 만한 점이 있다. 우리말 '아우'가 남자끼리나 여자끼리에 적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남녀간을 통틀어 적용되던 것인지에 관해서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14) 결녀시나 : 걸렸으나. '걸음 걸림을 받았다'라는 수동 행위의 표현이다.

15) 이럭고 : 이러하고.

16) 세황(勢況) : 상황(狀況). 형편(形便). 여기서는 '신세'(身世). 라는 뜻으로 쓰였다.

17) 만병슈(萬病水) : 약명(藥名).

18) 알픈 : 아픈. '아프다'의 기본형이 옛말에 있어서는 '알ᄑᆞ다'·'앓프다' 따위로 나타난다.

19) 변동(變動) : 차도(差度).

20) 시브나 : 싶으나.

21) 외인다리 : 왼쪽다리.

22) 나잣다가 :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아) 낮아졌다가. 내렸다가. '높다'·'낮다'는 본디 형용사이지만, 이들이 선어말 어미 '-앗-'과 결합하는 문맥에서는 보조 동사 '지다'를 수반

(數日) 잇다가 와습 밧노인(老人)[24] 되첨(大添) 업스나 주야(晝夜) 걱정 셩화(星火)[25] 중(中) 종구[26] 내힝(內行)[27] 다리고 가던 거시 서울 간지 이젹[28] 아니 오니 젹연(寂然)[29] 모라고 소동(騷動) 심화(心火) 듯기 슬습[30] 긔주[31]는 노상[32] 안동[33] 가 잇고 가솔(家率)은 화평(和平)토 아닌 것술 제의 신수(身數) 소란(騷亂) 지리(支離)[34] 귀촌 소회(所懷) 쳡쳡(疊疊)ᄒᆞ오나 슈슈[35] 이만 그치오며 더위 젼(前) 한번 오실 말숨 황송(惶悚) 기ᄃᆞ리오니 머지 아니니[36] 와 노르실가 바라옵 장(場)[37] 편(便) 두어 ᄌᆞ(字) 알외옵 긔주 보시거든 속(速)히 들가라[38] ᄒᆞ시옵 밥갑도 요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자동사로 기능하게 되는데, 본문의 "나잣다가"는 바로 앞의 "부엇다가"와 호응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동사로 쓰인 것이다.

23) 동작 : 인명. 여기서는 '동작이네 집'을 말한 것이다.

24) 밧노인(老人) : 바깥어른. 바깥양반. (발신자의) 남편을 가리키는 듯하다.

25) 셩화(星火) : 안달함. (무엇을) 몹시 급하게 서두름. 여기서는 '조급하게 굴면서 속을 태우는 모양'을 뜻하는 바로서 '안달함'을 가리킨다.

26) 종구 : 인명.

27) 내힝(內行) : 부녀자의 여행. 여기서는 "다리고"라는 말과 어울려, 여행을 떠나 있는 '종구(라는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다.

28) 이젹 : 이적. 이 때. 현재(現在).

29) 젹연(寂然) : 아무 소식이 없이 조용함.

30) 슬습 : 싫사옵(-니다).

31) 긔주 : 인명.

32) 노상 : 한 가지 모양으로 줄곧. 언제나 늘.

33) 안동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34)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35) 슈슈 : 수선스러워. '들레다'·'떠들다', 또는 '수선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수수하다'의 어근 '수수'로 추정된다. 본문의 표기는 '슈슈하여'에 들어가는 연결형 '-하여'를 생략한 형태이다.

36) 아니니 : 아니하니.

37) 장(場) : 닷새마다 서는 시장(市場). 여기서는 '장(場)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량(料量) 아니ᄒᆞ는 일 정신(精神) 업ᄉᆞᆫ 일인 ᄃᆞᆺ 답답 ᄋᆡ장[39]이옵

3. 현대어역

오라버님

줄곧 이어진 인편(人便)에 한 글자 아뢰지 못[했사오니], [이러한 제가] 세상(世上)에 들어 있는 까닭이 무엇이리. 날씨가 차츰 찌는 듯이 더워지는 이즈음, 기력(氣力)이 [예와] 한가지이시고, 입맛과 근력(筋力)이 [조금] 나아지셨는지…. 슬하(膝下)의 여러분들 저마다 큰 탈은 없사오며, 신행(新行)도 하여 [신부의] 범절(凡節)이 지극한 것은 마음이 놓이고 기특하오나, 시절을 [잘] 못 만나 이러한 전황(錢荒)에 아이들이 손재(損財)[를 당하매], 그 동안의 더없는 근심과 걱정[이야말로] 가장 애달고 마음 아프고… 우리집 걱정은 겪기를 마냥 병중(病中)이거나 [나은 듯하던 병도] 다시 더치는 것이니, [이] 무슨 신수(身數)인지, 운기(運氣)가 괴이하옵. 저는 겨우겨우 [걸음을] 걸리기는 했으나, 이러하고서야 무슨 꼴인지…. 만병수(萬病水) 두 병째 먹으니 조금 효험(效驗)이 있는지, 다리 아프던 병증(病症)은 차도(差度)가 있는 듯싶으나, [혼자서는] 서고 걸을 수 없고, 왼쪽다리가 부었다가 내렸다가 [하매] 하도 못 견디어 아이들이 업어다가 동작에 놓아 [주어서] 며칠 있다가 왔삽. 바깥양반은 큰 병이야 없지만 [저의 병으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걱정하며 안달하고 있고, 종구는 제 아내를 데리고 가던 것이 서울로 갔는지 입때껏 아니

38) 들가라 : (본가로) 들어가라.

39) ᄋᆡ장 : 애간장. 여기서는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나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애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오니, 아무 소식도 없어 [오가는 줄을 아예] 모르겠고, [그가 부리고 다니는] 소동(騷動)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사람의] 심화(心火)[에 관한 이야기되] 듣기 싫삽. 기주는 노상 안동에 가 있고, 가솔(家率)들이라야 화목(和睦)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하는 것을, 제 신수(身數) 야단스러운 것 넌덜머리가 나고 귀찮[하옵]. 품은 생각 겹겹이오나 수선스러워 이만 그치오며, 더위 [심해지기] 앞서 한번 오신다는 말씀 [듣고]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길이 그다지] 멀지 아니하니, 와서 노실 것을 바라옵. 장을 보러 나가는 사람 편에 두어 자 아뢰옵. 기주 보시거든 빨리 [본가로] 들어가라고 하시옵. 밥값도 헤아리지 아니하는 일, 정신 나간 일인 듯[하매], 답답하고 [그저] 애물이옵.

4. 참고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세 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42 2-02. 全柳_MF35-006421_694(17x28cm): 누이 → 오빠(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오라바님회환ᄒᆞ신후아득〃

병심주야이럭고안ᄌᆞ이세샹의결녀
잇ᄂᆞᆫ발명무어신고그져지리인세할
니ᄇᆡᆨ세ᄀᆞᆺ숩이ᄉᆞ이첨졀이나업ᄉᆞ
신가그ᄉᆞ이ᄌᆡᆨ고초박신관긔뷔못
ᄒᆞ시든일오ᄆᆡ경〃그립고긋브옵슬
하각〃무고아희들탈업ᄉᆞ며하계집
갓ᄂᆞᆫ가무흉모양걸리옵데ᄂᆞᆫ근〃견
ᄃᆡ오나복통동〃왕복지리히씻칠
증세ᄉᆡᆨ〃고극근간칠계오뉵슈먹고
흉복증은감셴가시브나잠시지통
이나아닌지아희들무탈아희ᄯᅩᄡᅥᄂᆞ니
뉘힘의븟들가망잇숩듯보기괴롭
ᄉᆞ오이다두어ᄌᆞ알외오니인편잇거든
안부부치시옵

2. 전사 · 주석

오라바님

회환(回還)ᄒᆞ신 후(後) 아득아득 병심(病心)[1] 주야(晝夜) 이럭고[2] 안ᄌᆞ 이 세샹(世上)의 걸녀 잇ᄂᆞᆫ[3] 발명(發明)[4] 무어신고 그져 지리(支

---

1) 병심(病心) : 병(病)을 앓는 처지의 마음. 여기서는 단순히 그러한 처지를 가리킴.
2) 이럭고 : 이러하고.
3) 걸녀 잇ᄂᆞᆫ :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4) 발명(發明) : 변명(辨明). 여기서는 '까닭'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離)[5] 인셰(人世) 할니[6] ᄇᆡᆨ셰(百歲) ᄀᆞᆺ삽 이 ᄉᆞ이 쳠졀(添節)[7]이나 업ᄉᆞ신가 그ᄉᆞ이 ᄀᆡᆨ고(客苦) 초박(焦迫)[8] 신관긔뷔(肌膚ㅣ)[9] 못ᄒᆞ시든 일 오ᄆᆡ(寤寐) 경경(耿耿)[10] 그립고 굿브옵[11] 슬하(膝下) 각각(各各) 무고(無故) 아히들 탈(頉) 업ᄉᆞ며 하계[12] 집 갓는가 무흥(無興)[13] 모양(模樣) 결리옵 데(弟)는 근근(僅僅) 견ᄃᆡ오나 복통(腹痛) 둉둉(種種) 왕복(往復) 지리히[14] 씻칠[15] 증셰(症勢) ᄉᆡᆨᄉᆡᆨ(色色) 고극(苦極) 근간(近間) 칠계(漆鷄)[16] 오뉵(五六) 슈(首) 먹고 흉복증(胸腹症)[17]은 감셰(減勢)가 시브나[18] 잠시(暫時) 지통(止痛)이나 아닌지 아히들 무탈(無頉) 아히 쏘 써ᄂᆞ니 뉘 힘의 붓들 가망(可望) 잇삽 듯보기[19] 괴롭ᄉᆞ오이다 두어 ᄌᆞ(字) 알외오니 인편(人便) 잇거든 안부(安否) 부치시옵

---

5)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6) 할니 : 하루.
7) 쳠졀(添節) : 병환(病患). 또는 병환중의 건강 상태.
8) 초박(焦迫) : 마음을 졸이며 급히 서두름.
9) 신관긔뷔(肌膚ㅣ) : '신관'은 얼굴의 존칭. '긔부'(肌膚)는 살갗.
10) 경경(耿耿) : 잊히지 않고 늘 걱정이 되는 모양.
11) 굿브옵 : 애끊는 듯하옵. '굿브다'의 첫째 음절이 원순 모음화를 거쳐서 나온 형태이다. '굿브다'는 '애가 그치는(끊어지는) 듯하다'라는 곧 '애긋브다'의 준말이다. 여기에 보이는 접미사 '-브다'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깃브다'(기쁘다)·'슯브다'(슬프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내는 데서 일찍이 중요한 생성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12) 하계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 하계(下溪). 아래토계.
13) 무흥(無興) : (사는 일에) 아무 흥이 없음.
14) 지리히 : 지루하게.
15) 씻칠 : 빼치는. (어떤 것에) 시달리어 괴로운.
16) 칠계(漆鷄) : 옻닭.
17) 흉복증(胸腹症) : 가슴과 배에 생긴 질병
18) 시브나 : 싶으나.
19) 듯보기 : 듣고 또 보기.

3. 현대어역

오라버님

회환(回還)하신 뒤로 [소식이] 아득하고 아득하고…. 병든 몸으로 밤낮없이 이러하고 앉아 [있으니] 이 세상에 들어 있는 까닭이 무엇인고. 그저 넌덜머리가 나는 인생, 하루가 백년 같삽. 이 사이 다른 병환(病患)이나 없으신지. 그 사이 객지 고생으로 마음 졸이고 얼굴과 살갗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던 일 자나깨나 잊히지 않으며 그립고 애끊는 듯하옵. 슬하(膝下)의 여러분들 저마다 무고(無故)하시며, 아이들 아무 탈(頉) 없으며…. 하계 [올케는] 친정집에 갔는지, [사는 일에] 아무 홍도 없는 듯한 모습 [마음에] 걸리옵. 저는 겨우겨우 견디오나, 복통(腹痛)이 가끔 오가매 지루하게 시달려 괴로운 증세(症勢)에 갖가지로 괴로움이 가없삽. 요사이 옻닭 대여섯 마리 먹고 흉복증(胸腹症)은 기세(氣勢)가 덜한가 싶으나, 잠시 [그저] 통증(痛症)을 그치는 것이나 아닌지…. 이이들 아무 탈 없고, 아이가 또 떠나니 누구의 힘에 붙들어 놓을 수 있삽. 듣고 또 보기 괴롭사오이다. 두어 글자 아뢰오니, 인편(人便)이 있거든 안부(安否) 부치시옵.

4. 참고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세 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43 2-03. 全柳_MF35-006421_791-1(27x10cm): 누이 → 오빠(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오라바님붓듸드지못작연은긱병업ᄉᆞ니다만
언마동안이라도싱황이잇더니셰말셰초십여일
지빅병이다이러니긔력구미혼모감〃누어도셰샹
은머잔코친긔도언마못일ᄏᆞ를일슬퍼〃빈ᄒᆞ인
이나마보너라ᄒᆞ여시나편지도못신정을당히년심근
녁엇더신고뵈온지삼년년셰싱각슬퍼〃지향못
슬하각〃무탈심여업ᄉᆞ신가마음만사라두루
싱각헛브옵이러다가혹지싱ᄒᆞ거든뵈올
가이동츈화후오신다ᄒᆞ면상면ᄒᆞ올지녀
족셩뉴두긔ᄌᆞ셔보실가병뎨거시옵

2. 전사 · 주석

오라바님

붓듸[1] 드지 못 작연(昨年)은 긱병(客病)[2] 업ᄉᆞ니 다만 언마 동안이라도 싱황(生況)[3]이 잇더니 셰말(歲末) 셰초(歲初) 십여일(十餘日)지 빅

1) 붓듸 : 붓의 자루. 필관(筆管).
2) 긱병(客病) : 난데없이 드는 병(病).
3) 싱황(生況) : (건강에 있어서) 살아갈 만한 형편.

병(百病)이 다 이러니 긔력(氣力) 구미(口味) 혼모(昏耗)[4] 감감[5] 누어도 셰샹(世上)은 머잔코[6] 친긔(親氣)[7]도 언마 못 일ㅋ를 일 슬퍼 슬퍼 빈 ᄒᆞ인(下人)[8]이나마 보ᄂᆡ라 ᄒᆞ여시나[9] 편지(便紙)도 못 신졍(新正)[10]을 당(當)ᄒᆡ 년심(年深) 근녁(筋力) 엇더신고 뵈온 지 삼년(三年) 년셰(年歲) ᄉᆡᆼ각 슬퍼 슬퍼 지향(指向) 못 슬하(膝下) 각각(各各) 무탈(無頉) 심여(心慮) 업ᄉᆞ신가 마음만 사라 두루 ᄉᆡᆼ각 헛브옵[11] 이러다가 혹(或) ᄌᆡᄉᆡᆼ(再生)ᄒᆞ거든 뵈올가 이동[12] 츈화(春花) 후(後) 오신다 ᄒᆞ면 상면(相面)ᄒᆞ올지 녓 속 셕뉴(石榴) 두 ᄀᆡ ᄌᆞ셔 보실가 병뎨(病弟) 거시옵

3. 현대어역

오라버님

붓대 들지 못[할 지경이오이다]. 작년에는 난데없는 병(病)이 없어서,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살 만하더니,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즈음해서] 십여 일째 갖은 병이 다 이러니, 기력(氣力)과 입맛이 여리고 아득[하

---

4) 혼모(昏耗) : 정신이 흐리고 기력이 쇠약함.
5) 감감 : (멀어서) 아득한 모양.
6) 머잔코 : 멀지 않고. 또렷하게 떠오르고.
7) 친긔(親氣) : 동포(同胞) 형제(兄弟).
8) 빈 ᄒᆞ인(下人) : 빌려 부리는 하인.
9) 보ᄂᆡ라 ᄒᆞ여시나 : 보내라고 하였으나. 문맥으로 보건대 '보내려고 하였으나'의 뜻이다.
10) 신졍(新正) : 다시 새로 맞이하는 설. 신년(新年). 오늘날 흔히 '구정'(舊正)에 상대되는 바로써 '신정'(新正)을 말하나, 여기서는 '신년'(新年)·'신춘'(新春)에 상당하는 단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11) 헛브옵 : 헛되옵[니다].
12) 이동 : 지명.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이동(梨洞).

며], [잠자리에] 누워도 [지나간] 세상은 멀지 않고, 동포 형제도 [이제] 얼마 못 [불러] 일컬을 일 슬프고 또 슬프고…. 빈 하인(下人)이나마 보내려고 하였으나, 편지(便紙)도 못[했나이다]. 다시 새로운 설을 맞아 연로하신 근력이 어떠신지…. 뵈온 지도 삼년[이나 흘렀고], [오라버니의] 연세(年歲)[를] 생각[하자니], [오라버니가 또한 세상을 저버릴 날도 멀지 않은 듯하여] 슬프고 또 슬퍼서 [마음을] 가누지 못[하나이다]. 슬하(膝下)의 여러분들 저마다 아무 탈 없고 다른 걱정 없으신지…. 마음만 살아 두루 [떠오는] 생각이 [그제] 헛되옵. 이러다가 다시 살아나거든 [그제야 겨우] 뵈올까…. 이동(梨洞) [식구들] 봄꽃이 핀 뒤에 오신다 [하더니 그렇게나] 하면 서로 만날지…. 엿 속[에 담근] 석류(石榴) 두 개 드셔 보실까. 병든 아우[의 몫으로 만들었던] 것이옵.

4. 참고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세 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44 2-04. 全柳_MF35-006422_1215(24x16cm): 누이 → 오빠(20세기 전반)

1. 판독

오라바님젼일망을이럭고지ᄂᆡ만무셰럭
젹을슈업삽설한의긔력쳠졀업ᄉᆞ시며
슬하각〃무탈만복옹증ᄒᆞᆫ모양암〃치혼상
슈조턴가데ᄂᆞᆫ홍복이기니간〃욕ᄉᆞ졸연히
나ᄒᆞ볼가시브지아니온아ᄒᆡ들ᄃᆡ탈업ᄉᆞ나치위
깁허지고큰일셩양ᄒᆞ려ᄋᆡ쓰니졀박나ᄂᆞᆫ문
밧나지못모도귀촌ᄒᆞ나뉵십이넘으니지졍들도
더그립고박실큰집오라븨삼형제와한들
경묵다와노다가가라다리고오시옵치위엇지
힝역홀고두로불안ᄒᆞ옵망극데ᄉᆞ히〃슬프고
제슈아모것도못죄롭삽빅승오날가ᄂᆞᆫ편
부치옵슈이뵈올거시니이만그치오며보언
다려ᄂᆞᆫᄂᆡ젼갈ᄒᆞ시옵소리나ᄂᆞᆫ구시니먹ᄂᆞᆫ거술
취치말고피차동포남ᄆᆡ의다를것업ᄉᆞ니만나
ᄌᆞᄒᆞ옵경회부자못온다ᄒᆞ더라니인정의섭
그지업삽

2. 전사 · 주석

오라버님 앞에

일망(一望)[1]을 이럭고[2] 지닉 만무(萬無) 셰력(勢力)[3] 젹을 슈 업삽 설한(雪寒)[4]의 긔력(氣力) 쳠졀(添節)[5] 업ᄉ시며 슬하(膝下) 각각(各各) 무탈(無頉) 만복[6] 옹즁ᄒᆞᆫ[7] 모양(模樣) 암암[8] 치혼(侈婚)[9] 상슈(相數)[10] 조턴가 뎨(弟)는 흉복(胸腹)[11]이 기니 간간(間間) 욕ᄉ(欲死) 졸연(猝然)히[12] 나ᄒᆞᆸ볼가 시브지 아니온[13] 아희들 ᄃᆡ탈(大頉) 업ᄉ나 치위[14] 깁허지고 큰일[15] 셩양(成樣)[16]ᄒᆞ려 잇쓰니 졀박(切迫)[17] 나는 문밧 나지 못 모도 귀츤ᄒᆞ나[18] 뉵십(六十)이 넘으니 지졍(至情)[19]들도 더

---

1) 일망(一望) : 한 보름 동안.
2) 이럭고 : 이러하고.
3) 셰력(勢力) : 힘. 기력.
4) 설한(雪寒) : 눈이 오거나 온 뒤의 추위. 여기서는 엄동설한(嚴冬雪寒)이라는 숙어의 축약형으로서 '한겨울의 극심한 추위'을 뜻한다.
5) 쳠졀(添節) : 병환(病患). 또는 병환중의 건강 상태.
6) 만복 : 인명.
7) 옹즁ᄒᆞᆫ : 옹종한. (얼굴이) 작고 옹졸스러운. '옹종한'을 '옹즁한'으로 표기한 듯하다.
8) 암암 : 잊히지 않고 가물가물 보이는 듯한 모양.
9) 치혼(侈婚) : 호사스런 혼사(婚事).
10) 상슈(相數) : 신수(身數).
11) 흉복(胸腹) : 가슴과 배. 여기서는 가슴과 배에 생긴 발신자 누이의 질병을 가리킴.
12) 졸연(猝然)히 : 쉽게. 부정어와 호응하는 가운데 '쉽게 ~한 수 없다'의 뜻을 가져온다.
13) 아니온 : 아니옵. '-옵'이라 해야 할 것을 '-온'으로 표기한 듯하다.
14) 치위 : 추위. 추운 날씨.
15) 큰일 : 발신자 누이의 병환을 구실로 그의 자식들이 크게 마련하는 무당굿을 말하는 듯하다. 이 일을 두고 일가친척을 두루 불러 모아 만나 보려는 것이 발신자 누이의 소망이었음이 이 편지의 끝에서 드러난다.
16) 셩양(成樣) : 모양이나 형식을 갖춤. 여기서는 '모양새 있게 성사함'의 뜻이다.
17) 졀박(切迫) : (일이나 사정이) 다급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음.

그립고 박실[20] 큰집 오라븨 삼형졔와 한들[21] 경묵[22] 다 와 노다가 가라 다리고 오시옵 치위 엇지 ᄒᆡᆼ역(行役)[23] ᄒᆞᆯ고 두로 불안(不安)ᄒᆞ옵 망극(罔極) 뎨ᄉᆞ(祭祀) ᄒᆡᄒᆡ 슬프고 졔슈(祭需) 아모 것도 못 죄롭ᄉᆞᆸ ᄇᆡᆨ승[24] 오날 가ᄂᆞᆫ 편(便) 부치옵 슈이[25] 뵈올 거시니 이만 그치오며 보언다려ᄂᆞᆫ[26] ᄂᆡ 젼갈(傳喝)[27] ᄒᆞ시옵 소리 나ᄂᆞᆫ[28] 구시니 먹ᄂᆞᆫ 거ᄉᆞᆯ 취(取)치 말고[29] 피차(彼此) 동포(同胞) 남ᄆᆡ(娚妹)의 다를 것 업ᄉᆞ니 만나ᄌᆞ ᄒᆞ옵 경회[30] 부자(父子) 못 온다 ᄒᆞ더라니 인졍(人情)의 섭[31] 그지업ᄉᆞᆸ

3. 현대어역

오라바님 전(前)

보름 동안을 [죽을 듯한 병으로] 이러하고 지내매, 힘이 조금도 없어

18) 귀찬ᄒᆞ나 : 귀찮으나.
19) 지졍(至情) : 동포(同胞) 형제(兄弟)를 비롯한, 썩 가까운 겨레붙이.
20) 박실 : 지명. 박곡(朴谷).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21) 한들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水谷里) 한들. 무실 서쪽에 있는 마을.
22) 경묵 : 인명.
23) ᄒᆡᆼ역(行役) : 여행. 또는, 여행길의 괴로움.
24) ᄇᆡᆨ승 : 인명.
25) 슈이 : 쉽게. 여기서는 (시간상으로) '가깝게'의 뜻이다.
26) 보언다려ᄂᆞᆫ : 보언에게는. '보언'은 인명.
27) 젼갈(傳喝) :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거나 말을 전함. 또는, 그 안부나 말.
28) 소리 나ᄂᆞᆫ : 떠들썩하게 치르는.
29) 먹ᄂᆞᆫ 거ᄉᆞᆯ 취(取)치 말고 : 앞뒤의 문맥으로 보건대, '굳이 먹잘 것이 있어서만이 아니고'의 뜻이다.
30) 경회 : 인명.
31) 섭 : 섭섭(하기가).

[글씨를 마음대로] 적을 수 없삽. 한겨울 추위 속의 기력(氣力)에 다른 병환 없으시며, 슬하(膝下)의 여러분 아무 탈 없으며, 만복이의 옹종한 모습이 암암 [그립거늘], 호사스런 혼사(婚事)에 신수(身數)가 좋던지…. 저는 흉복증(胸腹症)이 길게 가니, 때때로 죽고만 싶으옵. 쉽게 나을까 싶지 아니하옵. 아이들은 큰 탈 없으나, 추위는 깊어지고 큰일을 치르려 애쓰니 절박[하옵]. 나는 문밖[에도] 나서지 못[할 지경이고], [스스로도 또한] 모든 것이 귀찮으나, 육십이 넘으니 지정(至情)들도 더 그립고…. [그래서 말인데] 박실의 큰집 오라비 삼형제와 한들의 경묵이 다 와서 놀다가 가라고 [오라버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옵. [그러나] 추위에 어찌 길을 떠나올지, 두루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옵. 망극한 제사(祭祀)는 해마다 슬프고, 제수(祭需)를 아무 것도 [보내지] 못[하여] 죄송스럽삽. 백승이가 오늘 가는 편에 [이 편지를] 부치옵. 가까운 날에 뵈올 것이니 이만 그치오며, 보언에게는 내 말을 전하시옵. 소리 나는 굿이니, [굿이] 먹을 것[이 있음]을 바라지 말고, 저와 내가 동포(同胞) 남매(男妹)나 다름이 없으니, 만나자고 하옵. 경회 부자(父子)는 못 온다고 하더라니, 인정(人情)에 섭섭하기 그지없삽.

4. 참고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세 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45 2-05. 全柳_MF35-006425_2260(18x59cm): 사내 아우 → 누이(1935)

1. 판독

[隔1]누의님젼상서[移1]
차중의홀〃이작별ᄒᆞ고도라온
심기더구나철이긱지의치료즁
기압신일싱각사로이질수읍사온
나이변싱각ᄒᆞ니미구의올나가비
압실터이니일로써외로홈이다일
간사이건역이여젼ᄒᆞ압시며필번
도무탈ᄒᆞ며요사이ᄒᆞᆫ틱와인난지
굼〃ᄒᆞ오며신용모자와여러식구들
무연고들ᄒᆞᆫ지굼겁사오이다이곳남
재은그날집가지득도ᄒᆞ여종일차의
다리여괴롭기마지아니ᄒᆞ오나오릭동
안적치ᄒᆞᆫ볼일분주ᄒᆞ여일시도누
울시읍사니싯틋〃다힝이일권이
무탈ᄒᆞ고신황은아직도집의나아니
와시니자식도밋지못막비운수소
관이라웃지홀수읍고그밧딕소가별
고난읍삼이다돈의동집언기ᄒᆞᆫ니
딕그번비워달나ᄒᆞ시고필번은거
기가잇더릭도누의님계서난인난딕

그양기시면조을듯ᄒᆞ오니부ᄃᆡ그리
ᄒᆞ시압청의사난녀올ᄃᆡ부탁ᄒᆞ여
시니돈이읍더러도외상으로뎡기시
압녀올나가면아기삽홀말만ᄒᆞ나
이만그치나이다[移1]
[隔4]을히유월이일남재문창은[移1]
[隔12]상서

2. 전사 · 주석

누의님 전(前) 상서(上書)

차즁(車中)의 훌훌이[1] 작별(作別)ᄒᆞ고 도라온 심기(心氣) 더구나 철이(千里) ᄀᆡᆨ지(客地)의 치료즁(治療中) 기압신[2] 일 싱각사로[3] 이질 수 읍사온나[4] 이변(-便)[5] 싱각ᄒᆞ니 미구(未久)의 올나가 비압실[6] 터이니 일로써[7] 외로(慰勞)홈이다 일간(日間)[8] 사이 건역(筋力)이 여전(如前)

---

1) 훌훌이 : 갑자기. 바삐. '훌훌'은 '가볍게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나, 여기서는 '갑자기'·'바삐'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이므로, 이것은 마땅히 '숙홀'(倏忽)에서 나온 '훌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압신 : 계옵신. '계시다'를 '기시다'로 발음하는 남도 사투리가 반영된 것이다.
3) 싱각사로 : 생각할수록.
4) 이질 수 읍사온나 : 잊을 수 없사오나.
5) 이변 : 이편(-便). 또는, 일변(一邊). '이편'(-便)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이제 와서'의 뜻이고, '일변'(一邊)으로 보면 (경우상으로) '한편'의 뜻이다.
6) 비압실 : 뵈올.
7) 일로써 : 이로써.
8) 일간(日間) : 요 며칠 사이.

ᄒᆞ압시며 필번[9]도 무탈(無頉)ᄒᆞ며 요사이 ᄒᆞᆫ틔[10] 와 인난지 굼굼ᄒᆞ오며 신용[11] 모자(母子)와 여러 식구(食口)들 무연고(無緣故)들 ᄒᆞᆫ지 굼겁사오이다[12] 이 곳 남재(娚弟)은 그 날 집가지 득도(得到)ᄒᆞ여 종일(終日) 차(車)의 다리여[13] 괴롭기 마지 아니ᄒᆞ오나 오러동안 적치(積滯)ᄒᆞᆫ 볼 일 분주(奔走)ᄒᆞ여 일시(一時)도 누울 시(時) 읍사니 싯틋[14]싯틋 다힝(多幸)이 일권(一眷)[15]이 무탈ᄒᆞ고 신황[16]은 아직도 집의나 아니 와시니 자식(子息)도 밋지 못 막비운수소관(莫非運數所關)이라 읏지ᄒᆞᆯ 수 읍고[17] 그 밧 ᄃᆡ소가(大小家) 별고(別故)난 읍삼이다 돈의동[18] 집언 기ᄒᆞᆫ(期限)니 ᄃᆡ 그 번(番) 비워 달나 ᄒᆞ시고 필번은 거ᄀᆡ 가 잇더러도 누의님게서난 인난 ᄃᆡ 그양 기시면 조을 듯ᄒᆞ오니 부ᄃᆡ 그리ᄒᆞ시압 청(淸)[19] 의사(醫師)난 ᄂᆡ 올 ᄃᆡ 부탁(付託)ᄒᆞ여시니 돈이 읍더러도 외상으로 ᄃᆡᆼ기시압[20] ᄂᆡ 올나가면 아ᄀᆡ삽[21] ᄒᆞᆯ 말 만ᄒᆞ나 이만 그치나이다

---

9) 필번 : 인명.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셋째 아들, 유필번(柳必蕃, 1911~1954).
10) ᄒᆞᆫ틔 : 한곳. '-한테'는 흔히 처소·방향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는 것이나, 남도 사투리에서는 '한곳'(同所)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11) 신용 : 인명.
12) 굼겁사오이다 : 궁금하오이다.
13) 다리여 : 달리어. 시달리어.
14) 싯틋 : 시틋(하다). (오래 끄는 어떤 일에 질려서) 싫증이 난 듯(하다).
15) 일권(一眷) : 한집안 식구들.
16) 신황 : 인명.
17) 읏지ᄒᆞᆯ 수 읍고 : 어찌할 수 없고.
18) 돈의동 : 지명.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敦義洞).
19) 청(淸) : 국명(國名). 여기서는 다만 '중국'을 뜻할 뿐이다.
20) ᄃᆡᆼ기시압 : 다니시옵. '다니다'에 해당하는 남도 사투리가 '댕기다'이다. 이것은 또한 '당기다'가 전설모음화를 거쳐서 이루어진 형태이다.
21) 아ᄀᆡ삽 : 알겠삽. 문맥으로 보건대, '(그 값을 손수) 치르겠삽'의 뜻이다. '알다'에 '관여하다'라는 뜻이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은 활용이 가능했던 듯하다.

을히(乙亥) 유월(六月) 이일(二日) 남재(娚弟) 문창은 상서

3. 현대어역

누님 앞에 올리는 글월

차 속에서 바삐 작별하고 돌아온 마음, 더구나 천리 객지에서 치료중(治療中)에 계오신 일, 생각할수록 잊을 수 없사오나, 한편 생각하니, 머잖아 올라가 뵈올 터이니 이로써 위로합니다. 며칠 사이 근력(筋力)이 여전하시며, 필번이도 아무 탈 없고 요사이 한곳에 와 있는지 궁금하오며, 신용이 모자와 여러 식구들 별고는 없는지 궁금하오이다. 이 곳 남동생은 그 날 집에까지 이르러, 하루 내내 차에 시달리어 괴롭기 그지없사오나, 오랫동안 쌓인 볼 일에 바빠서 한때도 [편안히] 누운 적이 없으니 시틋시틋[합니다]. 다행히 한집안 식구들이 모두 아무 탈 없고, 신황이는 아직도 집에 아니 왔으니, 자식도 믿지 못[하겠고], 운수(運數)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고, 그 밖에 위아래로 여러 집들 별고는 없습니다. 돈의동 집은 기한이 되[거든], 그 차례에 비워 달라고 하시고, 필번이는 거기에 가 있더라도 누님께서는 [지금] 있는 곳에 그냥 계시면 좋을 듯하오니, 부디 그리하시압. 청국(淸國)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일에]는, 내가 올 때에 [이미] 부탁하였으니, 돈이 없더라도 외상으로 다니시압. 내가 올라가면 [그 값을 손수] 치르겠삽. 할 말 많으나, 이만 그치나이다.

을해(乙亥 : 1935) 유월 이일, 남동생 문창은 글월을 올림.

4. 참고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에게 그의 친정 동생이 보낸 편지이다. 유필번(柳必蕃, 1911～1954)을 '필번'으로 하대하고 있다.

46 2-06. 全柳_MF35-006422_952(26x43cm): 아우 아내 → 아주버니(20세기 전반)

1. 판독

[隔1]아ᄌᆞ바님젼[隔1]뵈온지도오ᄅᆡ되옵고인편도

육속ᄒᆞ오나비온샹서도ᄒᆞᆫ슌알외옵지못

삼하를마음의경〃이오나ᄉᆞ고다쳡ᄒᆞ니여

의치못ᄒᆞ엿ᄂᆞ이다지리괴로운더위를

물이옵고츄긔의연ᄒᆞ온ᄃᆡ연ᄒᆞ와

긔후ᄃᆡ쳠환업ᄉᆞ시와침진등졀이여

젼ᄒᆞ옵시니잇가빅슈존안이그립ᄉᆞᆸ고

슬하각〃내외분평안들ᄒᆞ옵고싀ᄃᆡᆨ범

ᄉᆞ츌인ᄒᆞᆫ모양익히듯던ᄉᆞ람이라ᄒᆞᆫ번

보며시분마음심샹의간졀ᄒᆞ오나마음ᄃᆡ

로나셜슈업ᄉᆞ니ᄋᆡ들싀집어린것츙실

ᄒᆞ오며번아면〃무양ᄒᆞ고만복문손ᄌᆞ미

고잉부라ᄒᆞ더니무얼탄싱ᄒᆞᆫ고굼〃져근
집도무고ᄒᆞ시고박실은하계아직소문한
심춤혹가이업ᄉᆞᆸ딜부ᄒᆞᆫ번와노다간
가ᄯᅩ싱ᄌᆞ긔특공싱싱딜녀ᄂᆞᆫ안어루신
발제로일월을너머딕단망조이지나옵고
근간은우연ᄒᆞ옵시나합챵긔한업ᄉᆞ시니
혼졀은되옵고일〃심여가업ᄉᆞᆸ싱정과
슉당동긔무고다힝싱딜도내외와증
은업ᄉᆞ오나일월우환의노신축슈로
여히마지아니옵고아히들셩셩치못절
박싀오촌아직녜이셔근일은손ᄌᆞ의
소문ᄉᆞ라나오기어렵다ᄒᆞ오니조샹ᄌᆞ이
의ᄌᆞ연ᄒᆞᆫ마음이못견딕침식이허무하
시더니쳡졀마지아니옵신듯두루괴롭
ᄉᆞᆸ고외내도긔쥬일젼단녀가옵고년고난
업ᄉᆞ오나진죡일노어믜심두의병이되
난듯싱각히무익한길몸의만알들
히로우니절박〃알외옴쳡〃ᄒᆞ나싀
어득다못아모깃도ᄌᆞ셔보실것업ᄉᆞ오니
죄송〃쳔어소〃ᄒᆞ오나ᄒᆞᆫ번ᄌᆞ셔보실동

2. 전사 · 주석

아ᄌᆞ바님 젼(前)

뵈온 지도 오릭 되옵고 인편(人便)도 육속(陸續)ᄒᆞ오나[1] 비온 상서(上書)[2]도 ᄒᆞᆫ슌[3] 알외옵지 못 삼하(三夏)를 마음의 경경(耿耿)[4]이오나 ᄉᆞ고(事故) 다쳡(多疊)ᄒᆞ니 여의(如意)치 못ᄒᆞ엿ᄂᆞ이다 지리(支離)[5] 괴로운 더위를 물이옵고[6] 츄긔(秋氣)의 연(連)ᄒᆞ온ᄃᆡ 연ᄒᆞ와 긔후(氣候) ᄃᆡ쳠환 (大添患) 업ᄉᆞ시와 침진(寢進)[7] 등졀(等節)이 여젼(如前)ᄒᆞ옵시니잇가 ᄇᆡᆨ슈존안(白首尊顔)이 그립ᄉᆞᆸ고 슬하(膝下) 각각(各各) 내외(內外)분 평안(平安)들 ᄒᆞ옵고 식ᄃᆡᆨ 범ᄉᆞ(凡事) 츌인(出人)ᄒᆞᆫ 모양(模樣) 익히 듯던 ᄉᆞ람이라 ᄒᆞᆫ번 보며 시분[8] 마음 심상(心上)의 간졀(懇切)ᄒᆞ오나 마음ᄃᆡ로 나셜 슈 업ᄉᆞ니 ᄋᆡ들[9] 식집 어린 것 츙실(充實)ᄒᆞ오며 번아[10] 면면(面面) 무양(無恙)ᄒᆞ고 만복[11] 문손(問孫)[12] ᄌᆡ미고[13] 잉부(孕婦)라 ᄒᆞ더니 무얼 탄싱(誕生)ᄒᆞᆫ고 궁굼 져근집도 무고(無故)ᄒᆞ시고

---

1) 육속(陸續)ᄒᆞ오나 : 계속하여 끊이지 않사오나.
2) 비온 상서(上書) : (겸하는 예물이 없이) 빈 편지.
3) ᄒᆞᆫ슌 : 한번.
4) 경경(耿耿) : 잊히지 않는 모양.
5) 지리(支離) : 지루함. (어떤 일이) 하도 줄곧, 또는 하도 거듭 이어져 넌더리가 나고 따분함.
6) 물이옵고 : 물리옵고.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어떤 물건을 면전에서 다른 쪽으로 물리치거나 일정한 기한을 멀리 지나치는 것을 '물리다'라고 한다.
7) 침진(寢進) : 침식(寢食). 자고 먹는 일.
8) 보며 시분 : 보고 싶은.
9) ᄋᆡ들 : 애달고. 속이 달아오르고. '속이 달아오르는 듯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애달다'의 어간을 'ᄋᆡ들-'로 적은 형태이다. 본문과 같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서 말을 마치거나 또는 서술절의 부사에서 말을 마치는 사례가 편지에 흔히 보인다.
10) 번아 : 인명. 약칭한 것이다.
11) 만복 : 인명.
12) 문손(問孫) : 새로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고 묻는 물음. 여기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 아주버니의 입장에서 그의 딸 만복이의 일을 적었기 때문에 '문손'(問孫)이라 하였다.
13) ᄌᆡ미고 : 재미이고. 재미로 지내고.

박실[14]은 하계[15] 아지[16] 소문(所聞) 한심(寒心) 춤혹(慘酷) 가이업습 딜부(姪婦) ᄒᆞᆫ번 와 노다 간가 ᄯᅩ ᄉᆡᆼᄌᆞ(生子) 긔특(奇特) 공ᄉᆡᆼ[17] ᄉᆡᆼ딜녀(甥姪女)[18]ᄂᆞᆫ 안어루신[19] 발졔(髮際)[20]로 일월(一月)을 너머 ᄃᆡ단 망조(罔措)이[21] 지나옵고 근간(近間)은 우연ᄒᆞ옵시나[22] 합창(合瘡)[23] 긔한(期限) 업ᄉᆞ시니 혼졀(昏絶)[24]은 되옵고 일일(日日) 심여(心慮) 가업습 ᄉᆡᆼ졍(生庭)[25]과 ᄉᆞᆨ당(叔堂)[26] 동긔(同氣) 무고(無故) 다ᄒᆡᆼ(多幸) ᄉᆡᆼ딜(甥姪)도 내외 와증(臥症)[27]은 업ᄉᆞ오나 일월(一月) 우환(憂患)[28]의 노신(老身) 축슈(祝壽)로 여ᄒᆡ(旅害) 마지 아니옵고 아ᄒᆡ들 셩셩(盛盛)치 못 졀박(切迫) ᄉᆡ오촌(媤五寸)[29] 아직 녜 이셔 근일(近日)은 손ᄌᆞ(孫子)의 소문 ᄉᆞ라 나오기 어렵다 ᄒᆞ오니 조샹(祖上) ᄌᆞᄋᆡ(慈愛)의 ᄌᆞ연(自然)ᄒᆞᆫ 마음이 못 견ᄃᆡ[30] 침식(寢食)이 허무(虛無)하시더니 쳠졀(添節)

---

14) 박실 : 지명. 박곡(朴谷).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朴谷里).
15) 하계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 하계(下溪). 아래토계.
16) 아지 : 아주버니.
17) 공ᄉᆡᆼ : 마음이 놓이는 모양.
18) ᄉᆡᆼ딜녀(甥姪女) : 누이의 딸. 여기서는 발신자의 남편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다.
19) 안어루신 : 안어버이. 여기서는 시집 어버이를 가리키고 있다.
20) 발졔(髮際) : 발찌. 목 뒤의 머리털이 난 가장자리에 생기는 부스럼.
21) 망조(罔措)이 :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망조(罔措)는 망지소조(罔知所措)의 준말.
22) 우연ᄒᆞ옵시나 : 병(病)이 나았사오나.
23) 합창(合瘡) : 종기가 아묾.
24) 혼졀(昏絶) : (정신이) 아찔하여 까무러침. 여기서는 병증(病症)이 심각한 정도가 까무러칠 만큼에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25) ᄉᆡᆼ졍(生庭) : 생가(生家).
26) ᄉᆞᆨ당(叔堂) : 종형제(從兄弟). 동조친(同祖親)에 따른 사촌 이내의 친척.
27) 와증(臥症) : 자리에 누울 만한 병환(病患).
28) 우환(憂患) : 집안에 병자(病者)가 있어 겪는 근심.
29) ᄉᆡ오촌(媤五寸) : 시가의 종숙(從叔), 또는 종질(從姪).

마지 아니옵신 듯 두루 괴롭습고 외내[31]도 긔쥬[32] 일젼(日前) 단녀가옵고 년고(緣故)[33]난 업ᄉᆞ오나 진작 일노 어미 심두(心頭)[34]의 병(病)이 되난 듯 싱각히 무익(無益)한 길 몸의만 알들[35] 히(害)로우니 절박절박 알외옴 쳡쳡(疊疊)ᄒᆞ나 싀어득[36] 다 못 아모 것도 ᄌᆞ셔[37] 보실 것 업ᄉᆞ오니 죄송(罪悚) 죄송 쳔어(川漁)[38] 소소(小少)ᄒᆞ오나 ᄒᆞᆫ번 ᄌᆞ셔 보실 동[39]

3. 현대어역

아주버님 앞에

뵈온 지도 오래 되옵고, 인편(人便)도 끊이지 않았사오나, 빈 글월도

---

30) 견듸 : 견디어.

31) 외내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원천리 외내.

32) 긔쥬 : 인명.

33) 년고(緣故) : 별고(別故).

34) 심두(心頭) : 염두(念頭). 마음.

35) 알들 : 알뜰. 간절(懇切)히. 지극(至極)히. '알들(-뜰)'과 '살들(-뜰)'은 본디 동일한 형태에서 출발했던 듯한데, 단독으로 쓰이거나 결합해서 쓰이는 가운데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36) 싀어득 : (정신이) 시틋하도록 어둑어둑한 모양. (심기가) 언짢을 정도로 암울한 모양. 「싀(다) + 어득(하다)」의 결합형. 옛말에 '싀서늘하다'가 있는 것으로 보건대, '싀어득하다'를 또한 옛말의 하나로 용인할 만하다. "싀서늘호니(酸寒)"(南明 下-33. /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490쪽 참조.)

37) ᄌᆞ셔 : 자세히.

38) 쳔어(川漁) : 민물고기.

39) ᄌᆞ셔 보실 동 : 드셔 보실 것인지. '올 동 말 동'과 같은 구문으로 옛말에 흔히 등장하는 '동'은 곧 요즘의 '둥'으로서 관형사형 어미의 아래에 쓰이어 '~한 것(과 같은 상태)'·'~인 듯한 것(의 상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번 아뢰옵지 못[하오매], 여름 내내 마음에 잊히지 못하오나, 여러 일이 겹쳐서 뜻과 같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지루하게 괴로운 더위를 물리옵고, 가을 기운에 이어지는 이즈음, 기후(氣候)에 큰 병환(病患)은 없으시어 침식(寢食)이며 다른 모든 일이 여전하시오니까? 연로하신 모습이 그립사옵고…. 슬하(膝下)의 여러 내외분 평안(平安)들 하옵고, 새댁은 범사(凡事)에 남보다 뛰어난 모양을 익히 듣던 사람이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나, 마음대로 나설 수 없으니 애달고…. 새집의 어린 것은 충실(充實)하오며, 번아 [형제들] 저마다 아무 병 없고, 만복이는 새 아기 묻는 물음 듣는 재미로 지내고, 태중(胎中)이라 하더니 무얼 낳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집도 무고하시고, 박실[의 사정]은 하계 아저씨[께서 겪으신 일에 관한] 소문[을 듣자니] 안타깝고 끔찍하기 가엽삽. 질부(姪婦)는 한번 와서 놀다 갔는지, 또 아들을 낳다니 기특하고 마음이 놓이고…. 생질녀(甥姪女)는 안어버이께서 한달 넘도록 발찌(髮際)가 매우 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지내옵고, 요즈음에는 병(病)이 낫기는 하였으나 언제 다 아물지 기한(期限)이 없으시니 까무러칠 만하고, 나날이 근심하기 가없삽. 생가(生家)와 여러 종형제(從兄弟) 및 동기(同氣) 분들 무고하니 다행스럽고, 생질(甥姪)도 안팎으로 모두 자리에 누울 만한 병환은 없사오나, 한달 넘는 우환(憂患)에 늙은 어르신 축수(祝壽)[하러 다니는 일]로 [말미암아] 여독(旅毒)을 [겪어] 마지 못하옵고, 아이들도 성성하지 못[하매] 절박[하오이다]. 시오촌(媤五寸)은 아직 여기에 있는데, 요사이 소문에 손자(孫子)가 살아나기 어렵다 하오니, 조상(祖上)으로서 자연히 [후손(後孫)을] 자애(慈愛)하는 마음이 못 견디어 침식(寢食)이 전혀 없으시더니 병환(病患)을 아니 겪지 못하시는 듯[하매], 두루 괴롭사옵고…. 외내도, 기주가 며칠 앞서 다녀가옵고, 별고(別故)는 없사오나, 진작의 일로 어미가 마음에 병이 되는 듯하오이

다]. 생각했댔자 무익(無益)한 길을, 몸에만 지극히 해로울 것이니 절박하고 또 절박하고…. 아뢰올 말씀 겹겹이오나, 어둑어둑하여 다 못[하매], 아무 것도 자세히 보실 것이 없사오니 죄송하기만…. 민물고기 얼마 되지 아니하오나 한번 드셔 보실 것인지….

4. 참고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둘째 아들 유동저(柳東著, 1892~1948)의 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1892~1944)가 그의 아주버니 유동시(柳東蓍, 1886~1961)에게 보낸 편지인 듯하다.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6422_1105·1110의 편지와 더불어 필체가 매우 유사하다.

47 3-01. 全柳_MF35-006424_1759(70x50cm): 조카며느리 → 아주버니(1908)

1. 판독

[隔1]아ᄌᆞ바님젼[隔1]상술이[隔1]근봉[移1]
문[移1]
안알외ᄋᆞᆸ고노념의년ᄒᆞ
와[隔1]긔톄후만안ᄒᆞᄋᆞᆸ시

니잇가아ᄋᆞᆸ고저알외
오며알외올말ᄉᆞᆷ하감
ᄒᆞᄋᆞᆸ심젼ᄉᆞ와이만알
외오며너너[移1]
[臺1]긔톄후만안ᄒᆞᄋᆞᆸ신[移1]
문안복츅ᄒᆞᄋᆞᆸᄂᆞ이다
하졍의셥셥ᄒᆞ와보션알외ᄋᆞᆸᄂᆞ이다
[隔1]무신뉵월념ᄉᆞ흔날[小2]딜부술이

2. 전사 · 주석

아ᄌᆞ바님[1] 젼(前) 상(上)술이 근봉(謹封)[2]

문안(問安) 알외ᄋᆞᆸ고 노념(老炎)[3]의 년(連)ᄒᆞ와 긔톄후(氣體候) 만안(萬安)[4]ᄒᆞᄋᆞᆸ시니잇가 아ᄋᆞᆸ고저 알외오며[5] 알외올 말ᄉᆞᆷ 하감(下鑑)[6]ᄒᆞ

---

1) 아ᄌᆞ바님 : 아주버님. 발신자가 자신을 가리켜 '딜부'(姪婦)라고 한 만큼, 여기에서 말하는 '아ᄌᆞ바님'은 당연히 시삼촌을 뜻한다. 이것은 한어의 '舅'가 '內舅'로서 외삼촌을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外舅'로서 장인을 가리키고 또 '姑舅'라고 할 때에는 시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에 비교할 만하다. '아ᄌᆞ마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ᄌᆞ바님 젼(前) 상(上)술이 근봉(謹封) : '근봉'(謹封)이라는 말이 끝에 붙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피봉을 약식(略式)으로 하는 경우의 기본 투식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3) 노념(老炎) : 늦더위. '老炎'은 '庚炎'·'餘炎'·'殘炎' 따위의 말과 함께 주로 음력 7월을 나타내는 말이다. (『寒暄箚錄』 1~30, 時令類) 여기에서는 6월에 대하여 썼으니, 단순히 '늦더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4) 만안(萬安) : 신상이 아주 평안함.

5) 아ᄋᆞᆸ고저 알외오며 : 아옵고자 알외오며. '아압고 졉ᄉᆞ오니다'와 마찬가지로 한문 편

ᄋᆞᆸ심 졋ᄉᆞ와[7] 이만 알외오며 ᄂᆡᄂᆡ 긔톄후 만안ᄒᆞᄋᆞᆸ신 문안 복츅(伏祝)ᄒᆞᄋᆞᆸᄂᆞ이다 하졍(下情)의 셥섭ᄒᆞ와 보션 알외ᄋᆞᆸᄂᆞ이다[8]

무신(戊申) 뉵월 널ᄉᆞ흔날 딜부(姪婦) 술이

3. 현대어역

아주버님 앞에 올리는 살이

문안(問安) 아뢰옵고. 늦더위에 즈음하여 기체후(氣體候) 만안(萬安)하오십니까? 알고 싶어 [여쭈어] 아뢰오며, 아뢰올 말씀 굽어보심 두려워 이만 아뢰오며, 내내 기체후 만안하오신 문안 [듣기를] 비옵나이다. 마음에 섭섭하여 버선 아뢰옵나이다.

무신(戊申 : 1908)년 유월 열사흗날, 조카며느리 살이.

4. 참고

본문의 "무신"이라는 간지를 1968에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 편지는 1908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그 발신

지에 흔히 보이는 '伏未審'·'伏不審'·'伏問' 따위의 말에 상당하는 우리말 표현.

6) 하감(下鑑) : 아랫사람이 올린 글을 윗사람이 봄.

7) 졋ᄉᆞ와 : 두려워. 「젛(다)+ᄉᆞᆸ+오+아」의 결합형. '젛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다. (劉昌惇, 『李朝語辭典』, 653쪽 참조.)

8) 보션 알외ᄋᆞᆸᄂᆞ이다 : 버선을 (예물로 드리고자) 아뢰옵나이다. 여기에서 "알외ᄋᆞᆸᄂᆞ이다"는 편지에 딸려 가는 물품에 관하여 그 '물목(物目)으로서 밝혀 아뢴다'는 것으로서 한문 편지에 흔히 보이는 '下納'·'命納' 따위의 말과 더불어 그 기능이 같다.

자는 또한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딜부"가 되는 유동신(柳東莘, 1895~1917)의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 1893~?)가 가장 마땅하다. 아마도 신행(新行) 초기의 인사로 시댁 큰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듯한데, '아주버니'라는 호칭을 아버지 항렬에도 적용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유동신은 독립운동가 유연성(柳淵成, 1857~1919)의 첫째 아들이다.

48 7-01. 全柳_MF35-006422_960(25x44cm): 사돈 → 사돈(1901)

1. 판독

[隔1]상셔[移1]
일젼용이단여온ᄒᆡ[移1]
ᄃᆡ쇼사ᄅᆞᆷ문안은듯자와ᄉᆞᆫ나복미심
일간의ᄀᆞᆫ쳐문안ᄐᆡ평ᄒᆞ오시며ᄐᆡᆨᄒᆞ
ᄒᆞᆫ져리규젹ᄒᆞ오신지복모ᄒᆞ졍의구〃
무님지〃오며[小6]이곳갑용모난분슈업난자식
다리고경과ᄒᆞ잔니가위싱부려ᄉᆡ라용이
편드른직가ᄋᆡ가다리가붓고얼고리숀상되엿
노라ᄒᆞᆫ니부모되난마암의답〃ᄒᆞ기그지업
고ᄯᅩᄒᆞᆫ몸안이라ᄐᆡ즁의그렷타ᄒᆞᆫ니더옥마암
노흘슈업셔쥬야관심되기이를체업삼나이
다앗못쇼록나히어리고미거ᄒᆞᆫ이리만은나

마사ᄅᆞᆷ의셔잘눌여ᄃᆡᆨ니가화락ᄒᆞ게지
닉기쳔만바ᄅᆡ며이곳즌흉연증죠가ᄐᆡ심
ᄒᆞ와돈을쥬워도곡식을바다먹기극난한
니이을장ᄎᆞᄒᆞ내거월봉정회환하실
ᄯᅢ예단여가신다ᄒᆞ기로감〃기다렷던니
바로가신니셥〃ᄒᆞ기그지업삽고한번뵈
오면할말삼도만하되ᄇᆡᆨ사가여일치
못한니오히려셥〃할만허오이다[移1]
[隔1]신축칠월칠일예안[小4]갑용모난상셔

2. 전사 · 주석

상셔(上書)

일젼(日前) 용이[1)] 단여온 후(後) ᄃᆡ쇼(大小) 사ᄅᆞᆷ 문안(問安)은 듯자와ᄉᆞᆫ나 복미심(伏未審)[2)] 일간(日間)의 곤쳐(閫處)[3)] 문안 ᄐᆡ평(太平)ᄒᆞ오시며 ᄐᆡᆨᄒᆞ(宅下) 혼져리(渾節이)[4)] 규젹(規適)[5)]ᄒᆞ오신지 복모(伏慕)

---

1) 용이 : 인명.

2) 복미심(伏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伏未審 …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尊處)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투어(套語). '伏未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3) 곤처(閫處) : 집 안팎. '곤'(閫)이란 호내(戶內)와 호외(戶外)의 경계를 말하므로, '곤처'(閫處)는 곧 '집안팎'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4) 혼져리(渾節이) : 혼절(渾節)이. '혼절'(渾節)은 '제절'(諸節)과 같이 존처(尊處)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모든 집안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형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5) 규적(規適) : 아무 탈 없이 편안히 지냄. '안과'(安過)에 상당하는 뜻을 지니는 숙어로

ᄒᆞ정(下情)의 구구(區區)[6] 무님지지(無任之至)[7]오며 이 곳 갑용 모(母)[8]난 분슈(分數) 업난[9] 자식(子息) 다리고 경과(經過)ᄒᆞ잔니 가위(可謂) ᄉᆡᆼ부려ᄉᆡ(生不如死ㅣ)라 용이 편(便) 드른 직(則) 가ᄋᆡ(家兒ㅣ)[10]가 다리가 붓고 얼고리[11] 숀상(損傷)되엿노라 한니 부모(父母) 되난 마암의 답답ᄒᆞ기 그지업고 ᄯᅩ 홋몸[12] 안이라 ᄐᆡ즁(胎中)의 그렷타[13] 한니 더옥 마암 노흘 슈 업서 쥬야(晝夜) 관심(關心)되기 이를 쳬(處ㅣ) 업삼나이다 앗뭇ᄯᅩ록[14] 나히 어리고 미거(未擧)한[15] 이리 만은나마[16] 사ᄅᆞᆷ의셔[17] 잘 눌여[18] ᄐᆡᆨ닉(宅內)가 화락(和樂)ᄒᆞ게 지닉기 쳔만(千萬) 바리며 이 곳즌[19] 흉연(凶年) 증죠(徵兆)가 ᄐᆡ심(太甚)ᄒᆞ와 돈을 쥬워

추정된다. '규'(規)는 '가지다'·'누리다'에 상당하는 영유(領有)를 뜻하고, '적'(適)은 곧 '적귀'(適歸)로서 안정(安定)을 뜻한다. 그러나 '규적'(規適)이 흔히 쓰이던 바였는지는 의문이다.

6) 구구(區區) : 존처(尊處)에 대하여 자신 및 자신의 행위·감정 따위를 낮추어 가리키는 바로서 '자잘하여 보잘것없는 것'라는 뜻을 지니는 말이다. 특히 서간에서 흔히 쓰인다.

7) 무님지지(無任之至) :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극함.

8) 갑용 모(母) : 인명. 발신자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

9) 분슈(分數) 업난 :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가 없는, 곧 바보스럽거나 못난.

10) 가ᄋᆡ(家兒ㅣ) : 집 아이가. 수신자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있는 발신자의 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11) 얼고리 : 얼굴이.

12) 홋몸 : 홑몸. 홀몸.

13) 그렷타 : 그리하였다(라고).

14) 앗뭇ᄯᅩ록 : 아무쪼록. 될 수 있는 대로.

15) 미거(未擧)한 : 사리에 어둡고 철이 없는.

16) 만은나마 : 많으나마. 많더라도.

17) 사ᄅᆞᆷ의셔 : 사람에서. 여기서는 특히 '사람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뜻을 지니는 바이므로, 이것을 곧 '사람답게'로 풀이할 만하다.

18) 잘 눌여 : (삶을) 잘 누리어.

19) 이 곳즌 : 이 곳은.

도[20] 곡식(穀食)을 바다 먹기 극난(極難)한니 이을 장ᄎᆞ(將次) ᄒᆞ내(何奈)[21] 거월(去月) 봉정[22] 회환(回還)[23]하실 ᄯᅦ 예 단여가신다 ᄒᆞ기로 감감[24] 기다렷던니 바로 가신니 셥셥ᄒᆞ기 그지업삽고 한번 뵈오면 할 말삼도 만하되[25] ᄇᆡᆨ사(百事)가 여일(如一)치 못한니 오히려 셥셥할 만 허오이다

신축(辛丑) 칠월 칠일 예안(禮安) 갑용 모(母)난 상셔

3. 현대어역

상서(上書)

일전(日前)에 용이가 다녀오고 나서 위아래 사람들 문안(問安)은 들었사오나, 요즈음 안팎으로 문안 두루 태평하시며, 집안의 여러분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는지, 그리는 마음 그지없사오며…. 이 곳 갑용 어미는 바보스런 자식 데리고 지내자니 사는 것이 죽는 만 못하다고 할 만한지라. 용이에게 들으니, 우리집 아이가 다리가 붓고 얼굴이 다쳐 있다고 하니, 부모 되는 마음에 답답하기 그지없고, 또 홑몸이 아니라 태중(胎中)인 채로 그히하였다고 하니, 더욱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밤낮으

20) 쥬워도 : 주어도.
21) ᄒᆞ내(何奈) : 어찌할꼬.
22) 봉정 : 지명.
23) 회환(回還) : 다녀감.
24) 감감 : 멀어서 아득한 모양. 가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양.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은근히'의 뜻으로 쓰였다.
25) 만하되 : 많되. '많다'의 기본형으로 '만하다'를 쓰는 용례가 이 시기의 다른 여러 편지에서도 흔히 보인다.

로 걱정되는 마음 이를 데 없나이다. 아무쪼록 나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철이 없이 구는 일이 많으나마 사람답게 잘 누려, 집안이 화락(和樂)하게 지내기를 거듭거듭 바라며…. 이 곳은 흉년 징조가 너무 심하여, 돈을 주어도 곡식을 받아먹기가 매우 어려우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지…. 지난달에, 봉정에 다녀가실 때에, 여기에 [또한 들러서] 다녀가신다고 하기로 감감 기다렸더니, [들르지 않으시고] 바로 가시니 섭섭하기 그지없사옵고, 한번 뵈오면 할 말씀도 많되, 모든 일이 [뜻과] 하나같지 못하니, 섭섭할 만하오이다.

신축(辛丑 : 1901)년 칠월 칠일, 예안(禮安)에서 갑용이 어미는 글월을 올림.

4. 참고

유동시(柳東蓍, 1886～1961)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884～1947)의 친정어머니가 1901년에 사돈댁으로 보낸 편지이다. 그런데 당시에 유연박(柳淵博, 1844～1925)의 모든 정실부인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따라서 이 편지는 유연박에게 보낸 편지인 셈이다. 유동시의 부인 진산강씨의 남동생이 진산강씨에게 보낸 편지로서,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고문서 간찰류 MF35-006425_2260에 "신용 모자와 여러 식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이는 "신용"과 이 편지에 나오는 "갑용"은 모두 유동시의 부인 진산강씨의 자매일 것이다.

49 7-02. 全柳_MF35-006425_2053(25x24cm): 의원 → 환자(1905)

1. 판독

[隔2]진ᄉᆞ임쥬젼상셔[移1]
ᄇᆡ옵신지슈월의[移1]
[擡1]ᄋᆡ좌기체후일향만안ᄒᆞ옵신지앙소구〃무
림ᄒᆞ셩지〃오며[小2]시싱은아직무고이지ᄂᆡ오
니복힝이외다졔ᄉᆞ시의[小2]시싱이츌타ᄒᆞ옵
다가올나가무지못ᄒᆞ온이죄송ᄒᆞ옵기측양
업ᄉᆞ오며약十첩을졔송ᄒᆞ여상송ᄒᆞ온니
고납ᄒᆞ시고약가은四兩이오니금시편의ᄒᆞ송
ᄒᆞ옵기을천만복츅이외다여은불비복
유[移1]
[隔2]乙巳十二月十五日[小2]시싱ᄇᆡ만쥰상셔

2. 전사 · 주석

진ᄉᆞ(進士)임쥬(主)[1] 젼(前) 상셔(上書)
ᄇᆡ옵신 지 슈월(數月)의 ᄋᆡ좌(哀座)[2] 기체후(氣體候)[3] 일향만안(一

1) 진ᄉᆞ(進士)임쥬(主) : '진사주'(進士主)와 같은 말. 예컨대 '바람벽'(-壁)과 같은 형태로서, '主' 앞에 '님'이 중복된 것이다.
2) ᄋᆡ좌(哀座) : 슬퍼하는 자리. 상인(喪人)이 장사(葬事)를 치른 뒤로부터 대상(大祥)

享萬安)ᄒᆞ옵신지 앙소구구(仰泝區區)[4] 무림ᄒᆞ셩지지(無任下誠之至)[5]오며 시싱(侍生)[6]은 아직 무고(無故)이 지닉오니 복힝(伏幸)이외다 졔ᄉᆞ시(祭祀時)의 시싱(侍生)이 츌타(出他)ᄒᆞ옵다가 올나가 무지[7] 못ᄒᆞ온이 죄송(罪悚)ᄒᆞ옵기 측양(測量) 업ᄉᆞ오며 약(藥) 十 쳡(貼)을 졔송(劑送)[8]ᄒᆞ여 상송(上送)ᄒᆞ온니 고납(考納)ᄒᆞ시고 약가(藥價)은 四兩이오니 금시[9] 편(便)의 ᄒᆞ송(下送)ᄒᆞ옵기을 쳔만(千萬) 복츅(伏祝)이외다 여(餘)은 불비(不備) 복유(伏惟)

乙巳 十二月 十五日 시싱(侍生) 비만쥰 상셔(上書)

에 이르는 기간에, 편지의 봉피(封皮)에 적어 상대방의 처소를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다. (『新編尺牘大方』, 第3章, 喪中往復門, 34쪽 참조.) 여기서는 이것을 본문에 적어 보였는데, 상중(喪中)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 까닭이다.

3) ᄋᆡ좌(哀座) 기체후(氣體候) : 슬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건강 상태. 상인(喪人)의 안부를 물을 때에 흔히 '애체후'(哀體候)·'애체도'(哀體度)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곧 본문에 보이는 "ᄋᆡ좌(哀座) 기체후(氣體候)"를 줄인 것이다.

4) 앙소구구(仰泝區區) : 우러러 바라보는 하찮은 저. 존처(尊處)에 대하여 발신자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에 흔히 쓰는 투어이다. 이른바 '앙소'(仰泝)에 보이는 한어 '泝'는 곧 '向'·'面'을 뜻한다.

5) 무림ᄒᆞ셩지지(無任下誠之至) : (그리는) 마음의 간절함을 견딜 수 없음.

6) 시싱(侍生) : (나리를) 모시고 있는 소생(小生). 존처(尊處)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이다. 상인(喪人)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도 또한 쓰인다.

7) 무지 : 모시지. '모시다'(陪)에 상당하는 옛말 '무다'에 부정서술어를 연결시키는 부사격조사 '-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무다'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지만, 「역어유해」(譯語類解)에 그 흔적이 보인다. 예컨대 '陪者 : 무다'·'追陪 : 뭇리다'·'追他(陪他) : 뭇리다'와 같은 풀이가 바로 그것이다. (『譯語類解』 上-14 참조.)

8) 졔송(製送) : 무엇을 짓거나 만들어 보냄. 본문의 바로 뒤에 '상송'(上送)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단어를 적절히 골라 쓴 것은 아니다.

9) 금시 : 인명.

3. 현대어역

진사님 앞에 올리는 글월

뵈온 지 몇 달 사이에, 상중(喪中)에 계신 가운데 건강은 한결로 안녕하오신지, 우러러 그리는 마음 가없사오며. 저는 아직 아무 탈 없이 지내오니 다행이오이다. [진사님 댁의] 제사 때에는 제가 밖에 나가 있다가 [겨를을 내지 못하여] 올라가 모시지 못했사오니, 죄송하기 이를 데 없사오며. 약(藥) 열 첩(貼)을 조제하여 올려 보내오니 받아 주시옵고, 약값은 넉 냥이오니, 금시 [오는] 편에 내려 보내 주시기를 거듭 비옵나이다.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하옵나이다. 엎드려 헤아리옵나이다.

을사(乙巳 : 1905)년 12월 15일, 시생(侍生) 배만준이 올림.

4. 참고

배만준이라는 사람이 유연박(柳淵博, 1844~1925)에게 보낸 편지이다. 본문에 언급된 바의 "졔ᄉᆞ"는 유지호(柳止鎬, 1825~1904)의 소상(小祥)을 말하는 듯하다.

50 7-03. 全柳_MF35-006421_667(22x32cm): 여관 주인 → 사가 호주(1921)

1. 판독

[隔2]伏未審暮秋[移1]
靜體候隨序萬安ᄒᆞ시고
貴宅諸節이亦得均慶否잇
가遠外伏澤區〃願仰伏祝[小1]生
狀昨吾今吾ᄒᆞ오니以此伏幸
爲日이외다[隔1]就白令允東
英이來生家以後로나는親子
侄과갓치역기고쏘는[隔1]貴下게셔
편지한것만보옵고비록食費는
아니넉엿스나念慮업셔서다이고갈
나고하엿든니近者에넉집에잇는
아희에게굿쓰을돈도아니넉고何
處로간는지頓無消息ᄒᆞ오니
古或有是事이오며今或有是
事哉잇가아즉절은ᄉᆞ람이이와
갓치마음을먹고갓스니이것이無
錢取食한것이압고쏘는無錢
取物하엿스니이것이도져히할
일이오잇가넉집에잇는아희은告
訴한다하는것을넉가말유하고

셔[隔1]貴下게말숨이나듯고如何히
하던지할나고편지하오니深慮ᄒᆞ
시와食費百餘圓과굿쓰갑이십원
을付至하시압若一付至치아니
ᄒᆞ오면時方곳츠로말하오면곳
봉오리와갓흔靑年을父兄이잇
스면셔懲役을하면조컷소以此
下諒後에食費與굿쓰價貳拾圓
을付至하시압할말숨만ᄉᆞ오나
이만不備書禮
[隔3]辛酉九月三十日[小1]生趙福永再拜
[추신]
쏘는[小1]生이久至東英이도업는데食費
百餘圓과굿쓰價二十圓을付
至하여달ᄂᆞ고하인가或念慮도
하실테이오니오시여셔자세한事
實을아시고處理하시압소셔
녀집에굿쓰준ᄉᆞ람은時方도告訴
한다고하오나녀가東英家로편지
ᄒᆞ엿스니이편지회답을보고셔일
을하든지하라고말유하엿스오니
아모쪼록오시와자세한일을아시압
고하든지그러치아니하오면食費
百餘圓과굿쓰價二十圓을下授하
시던지하시압

[피봉]

慶北安東郡安東面安幕里(梨洞)[移1]

柳淵博[隔4]殿[移1]

至急上

2. 전사 · 주석

伏未審[1] 暮秋 靜體候[2] 隨序萬安ᄒᆞ시고 貴宅 諸節[3]이 亦得均慶否잇가 遠外伏澤區區 願仰伏祝 生狀昨吾今吾ᄒᆞ오니 以此伏幸爲日이외다 就白 令允[4] 東英이 來生家以後로 나는 親子侄과 갓치 역기고 쏘는 貴下게셔 편지한 것만 보옵고 비록 食費는 아니 너엿스나 念慮 업셔서 다이고갈나고[5] 하엿든니 近者에 너 집에 잇는 아히에게 굿쓰[6]을 돈도

1) 伏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伏未審 …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에 해당하는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투어이다. '伏未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편지에 흔히 쓰이는 '伏'이라는 말은 발신자의 모든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투어이다.

2) 靜體候 : 고즈넉한 체후(體候). '체후'(體候)는 곧 '체도'(體度)·'체절'(體節)와 같은 뜻을 지니는 바로서 수신자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에 그의 모든 '기거'(起居)·'동작'(動作) - 일상 생활이나 그 형편 - 을 높이어 이르는 말인데, 이것을 더욱 공손하게 꾸며서 '정체후'(靜體候)라고 하였다.

3) 諸節 : 존처(尊處)에 해당하는 수신자 집안사람들의 일상 생활이나 그 형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4) 令允 : 영윤(令胤). 남의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한자 '允'을 '胤'과 통용하는 사례가 편지에서 흔히 보인다.

5) 다이고 갈나고 : 데리고 갈려고. 여기서는 '데리고 지내려고'의 뜻이다.

아니 너고 何處로 간는지 頓無消息ᄒᆞ오니 古或有是事이오며 今或有是事哉잇가 아즉 절은[7] ᄉᆞ람이 이와 갓치 마음을 먹고 갓스니 이것이 無錢取食한 것이압고 ᄯᅩ는 無錢取物하엿스니 이것이 도져히 할 일이오잇가 너 집에 잇는 아히은 告訴한다 하는 것을 너가 말유(挽留)하고셔 貴下게 말숨이나 듯고 如何히 하던지 할나고 편지 하오니 深慮ᄒᆞ시와 食費 百餘圓과 굿쓰갑 이십월[8]을 付至하시압 若一 付至치 아니ᄒᆞ오면 時方 곳츠로[9] 말하오면 곳봉오리와 갓흔 青年을 父兄이 잇스면셔 懲役을 하면 조컷소 以此下諒後에 食費與굿쓰價貳拾圓을 付至하시압 할 말숨 만ᄉᆞ오나 이만 不備書禮

辛酉[10] 九月 三十日 生 趙福永 再拜

[追伸]

ᄯᅩ는 生이 久至[11] 東英이도 업는데 食費 百餘圓과 굿쓰價 二十圓을 付至하여 달나고 하인가 或 念慮도 하실 테이오니 오시여셔 자세한 事實을 아시고 處理하시압소셔 너 집에 굿쓰 쥰 ᄉᆞ람은 時方도 告訴한다고 하오나 너가 東英家로 편지 ᄒᆞ엿스니 이 편지 회답을 보고셔 일을 하든지 하라고 말유하엿스오니 아모ᄶᅩ록 오시와 자세한 일을 아시압고 하든지 그러치 아니하오면 食費 百餘圓과 굿쓰價 二十圓을 下授하시던지 하시압

---

6) 굿쓰 : 구두.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다. 1920년대만 해도 '구두'와 '구쓰'가 함께 쓰였다.
7) 절은 : 젊은.
8) 굿쓰갑 이십월 : 구두값 20원(圓). '-월'은 '-원'을 잘못 쓴 것이다.
9) 곳츠로 : 곧으로.
10) 辛酉 : 1921년으로 추정된다.
11) 久至 : 굳이. 불필요하게 한자로써 음차(音借)한 것이다.

[피봉]

慶北 安東郡 安東面 安幕里 (梨洞) 柳淵博 殿

至急上

3. 현대어역

늦가을에 고즈넉한 체후(體候) 철따라 만안(萬安)하시고, 귀댁(貴宅)의 모든 분들이 또한 고루 경사롭게 지내십니까? 멀리에서조차 덕택을 입는 저는 언제나 [건강과 안녕을] 비오이다. 소생(小生)은 형상(形狀)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는 하오니 이로써 다행스럽게 나날을 삼아 가오이다. 아뢰올 바로 말하면, [귀댁의] 영윤 동영(東英)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나는 친아들·친조카와 같이 여기고 또 귀하께서 편지한 것만 보옵고 비록 식비(食費)는 아니 내었으나 염려할 것이 없어서 [그냥] 데리고 지내려고 하였더니, 근래(近來)에 내 집에 있는 아이에게 구두를 [받고서] 값도 아니 내고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가서는 아무 소식이 없사오니, 옛적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며 오늘날에 또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직 젊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마음을 먹고 갔으니, 이것이 돈도 없이 밥을 먹은 것이고 또는 돈도 없이 물건만 챙긴 것이니, 이것이 도저히 할 일이오이까? 내 집에 있는 아이는 고소(告訴)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만류(挽留)하고서, 귀하께 말씀이나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편지를 하오니, 깊이 생각하시어 식비 100여원과 구두값 20원을 부쳐 오시압. 만약에 부쳐 오지 아니하오면, 바야흐로 꽃봉오리와 같은 청년을 [그로 하여금] 부형(父兄)이 있으면서 징역(懲役)을 [하게] 하면 좋겠소? 이로써 헤아린 뒤에 식비와 구두값 20원을 부쳐 오시압. 할 말씀 많사

오나, 이만 서례(書禮)를 갖추지 못하옴.

신유(辛酉 : 1921) 9월 30일, 소생 조복영(趙福永) 거듭 절함.

[追伸]

또는, 소생이 굳이 동영(東英)이도 없는데 식비 100여원과 구두값 20원을 부쳐 달라고 하니까, 또는 염려도 하실 터이오니, 오시어서 자세한 사실을 아시고 처리하시옵소서. 내 집에 구두를 준 사람은 이제도 고소한다고 하오나, 내가 동영(東英)이네 집으로 편지를 하였으니, 이 편지의 회답을 보고서 일을 하든지 하라고 만류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오시어 자세한 일을 아시옵고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오면 식비 100여원과 구두값 20원을 내려 주시든지 하시압.

51 8-01. 全柳_MF35-006420_105(25x33cm): 전호→전주(1906)

1. 판독

[隔2]고과[移1]
황공복지문안이살오며근미심
ᄎᆞ시국화지절의[移1]
진ᄉᆞ쥬긔체일향만중허옵신지
알고저오며흏ᄒᆞ싱은무고이지
닉오니복힝니오며복빅타ᄉᆞ연
니와금연목화잘못고로二十二근

과지임一승상송ᄒᆞ오니ᄒᆞ량하
옵시고너〃일향ᄒᆞ옵심을천만
복망〃[移1]
[隔2]병오구월이십일휼ᄒᆞ싱[移1]
[隔9]권인슐고목

2. 전사 · 주석

고과(告課)[1)]

황공(惶恐) 복지(伏地) 문안(問安)이살오며[2)] 근미심(謹未審)[3)] ᄎᆞ시(此時) 국화지절(菊花之節)의 진ᄉᆞ쥬(進士主) 긔체(氣體) 일향만중(一享萬重)허옵신지 알고저오며[4)] 휼ᄒᆞ싱(恤下生)[5)]은 무고(無故)이 지너오니 복힝(伏幸)니오며 복비타ᄉᆞ(伏白他事)연니와[6)] 금연(今年) 목화(木花) 잘못 고(故)로 二十二 근(斤)[7)]과 지임(眞荏)[8)] 一 승(升)[9)] 상송(上

1) 고과(告課)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보고하는 일. '고목'(告目)과 같은 말이다.

2) 문안(問安)이살오며 : 문안(問安)이시오며. '문안하는 바이오며'의 뜻이다. 여기에 보이는 '-이살오며'는 이두(吏頭)의 '-이삶오며'(是白乎旀)에서 나온 것이다.

3) 근미심(謹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복미심'(伏未審)과 같은 말이다.

4) 알고저오며 : 알고자 하오며. 궁금하오며.

5) 휼ᄒᆞ싱(恤下生) : (나리께서) 사랑을 베풀어 보살펴 주시는 저. 존처(尊處)에 대하여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에 쓰는 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또한 '권하생'(眷下生)을 쓰기도 한다.

6) 복비타ᄉᆞ(伏白他事)연니와 : 복백타사(伏白他事)이어니와. 엎드려 사뢸 일은 다름이 아니오라. '복백'(伏白)이라고 적어야 할 데서 받침을 하나 빠뜨리고 '복비'라 적은 것이다.

送)ᄒᆞ오니 ᄒᆞ량(下諒)하옵시고 너너 일향(一享)ᄒᆞ옵심을 천만(千萬) 복망(伏望) 복망

병오(丙午) 구월 이십일 휼ᄒᆞᄉᆡᆼ(恤下生) 권인슐 고목(告目)[10)]

3. 현대어역

고과(告課)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엎드려 안부(安否)를 묻사오며. 이즈음 국화(菊花)의 계절에 진사님 기체후(氣體候) 줄곧 만중(萬重)하오신지 알고자 하오며. [나리께서 보살펴 주시는] 저는 무고(無故)하게 지내오니 다행이오며.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에는 목화(木花)가 잘 자라지 못한 까닭에 [그저] 22근[밖에 아니 되는 분량과 참깨 한 되를 올려 보내오니, [사정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고. 내내 [건강을] 한결같이 누리시기를 아무쪼록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병오(丙午 : 1906) 구월 이십일, 휼하생 권인술이 고목하옵.

---

7) 근(斤) : 저울로 달아 무게를 헤아리는 단위.

8) 지임(眞荏) : 참깨. '진임'이라 적어야 할 것을 '지임'이라 적었다.

9) 승(升) : 되.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헤아리는 단위.

10)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卷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참조.)

52 8-02. 全柳_MF35-006422_957(25x46cm): 전호 → 전주(1907)

1. 판독

[隔1]복순국츄의[移1]
[擡1]긔체후만안청승하옵시며[隔1]틱
ᄒᆞ첨졀이고류편안ᄒᆞ신잇갓
복위구〃지침위다홀ᄒᆞ싱은
뭇탈허오며농무의밧바만
ᄉᆞ골몰허오니ᄌᆞ련닉하오금연
목화은환지로심하와四十근납
상ᄒᆞ오니ᄒᆞ량시고진임一승병위
ᄒᆞ옵소서금츄의돈철가독
잇ᄉᆞ와혼일정ᄒᆞ와범빅니갈
급ᄒᆞ옵고어는고듸기구할수업
ᄉᆞ오니[隔1]틱ᄒᆞ의덕틱으로닉〃
싱활되계ᄒᆞ심을비리오니상
착한가음을ᄒᆞ송ᄒᆞ시면산은히
덕니만〃싱식위이다여불비
복유[移1]
[隔2]丁未九月初旬훌ᄒᆞ싱[移1]
[隔8]권인술[隔1]지빅상서

2. 전사 · 주석

복순(復順)[1] 국츄(菊秋)의 긔체후(氣體候) 만안(萬安) 청승(淸勝)하옵시며 턱ᄒᆞ(宅下) 첨절(僉節)[2]이 고류[3] 편안(便安)ᄒᆞ신잇갓[4] 복위구구지침(伏慰區區之忱)[5]위다 홀ᄒᆞ싱(恤下生)[6]은 믓탈(無人頉)허오며 농무(農務)의 밧바 만ᄉᆞ(萬事) 골몰(汨沒)허오니 ᄌᆞ련(慈憐)[7] ᄂᆡ하(奈何)오 금연(今年) 목화(木花)은 환지(患災)[8]로 심(甚)하와 四十 근(斤) 납상(納上)ᄒᆞ오니 ᄒᆞ량(下諒)시고 진임(眞荏) 一 승(升) 병위(倂有)[9]ᄒᆞ옵소서 금츄(今秋)의 됸 철[10] 가독(家督)[11] 잇ᄉᆞ와 혼일(婚日) 정(定)ᄒᆞ와 범ᄇᆡᆨ(凡百)니 갈급(渴急)[12]ᄒᆞ옵고 어는 고ᄃᆡ ᄀᆡ구(開口)할 수 업

---

1) 복순(復順) : 돌아옴.
2) 첨절(僉節) : 제절(諸節)과 같은 말이다.
3) 고류 : 고루.
4) 편안(便安)ᄒᆞ신잇갓 : 편안하십니까. 된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ㅅ'을 받침 자리에 적은 것이다.
5) 복위구구지침(伏慰區區之忱) : 삼가 위안이 됨을 마지 못하는 저의 참된 마음. 답장에 흔히 쓰는 표현으로서 '복위구구무임지침'(伏慰區區無任之忱)을 줄여서 말한 것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복위구구무임하성'(伏慰區區無任下誠)이 가장 흔히 쓰인다.(『寒暄箚錄』 2~15.)
6) 홀ᄒᆞ싱(恤下生) : (나리께서) 사랑을 베풀어 보살펴 주시는 저. '휼'을 '홀'이라고 잘못 적었다. 존처(尊處)에 대하여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에 쓰는 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또한 '권하생'(眷下生)을 쓰기도 한다.
7) ᄌᆞ련(慈憐) : 사랑하여 가엾게 여김.
8) 환지(患災) : 재해(災害).
9) 병위(倂有) : 아울러 가짐.
10) 됸 철 : 좋은 철. 가신(佳辰)·가절(佳節)의 뜻이다.
11) 가독(家督) : 집안의 대(代)를 이을 사람. 그러나 문맥으로 보건대, 여기서는 다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행사', 곧 '혼사'(婚事)를 가리키고 있다.
12) 갈급(渴急) : (목이 타는 듯이) 몹시 조급함.

ᄉᆞ오니 퇵ᄒᆞ(宅下)의 덕턱(德澤)으로 너너 싱활(生活) 되계 ᄒᆞ심을 비릭(拜來)오니[13] 상착(常着)[14] 한 가음[15]을 ᄒᆞ송(下送)ᄒᆞ시면 산은히덕(山恩海德)니 만만(萬萬)[16] 싱식(生色)[17]위이다 여불비(餘不備)[18] 복유(伏惟)

丁未 九月 初旬 휼ᄒᆞ싱 권인슐 ᄌᆡ비(再拜) 상서(上書)

3. 현대어역

국화꽃 피는 가을에, 기체후(氣體候) 편안하고 맑으시며, 댁내의 여러 분들이 [또한] 두루 편안하십니까? [그리하셔야] 걱정이 덜리는 저의 마음 알뜰하오이다. 저는 아무 탈 없사오며, 농사(農事)로 바빠 많은 일에 골몰하오니 [스스로] 가엾게 여긴들 어찌하리오? 올해에 목화(木花)는 재해(災害)가 심하여 [겨우] 40근[만을] 올리오니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참깨 한 되 아울러 받으옵소서. 올 가을 좋은 철에 집안의 대(代)를 이을 일이 있사와, 혼인(婚姻) 날짜[까지 이미] 정하여 모든 일이 몹시 다급하옵고, [그런데도] 어느 곳에 [도와 달라고] 입을 열 수 없사오니…. 귀댁(貴宅)의 덕택(德澤)으로 내내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맙게 여겨 오

---

13) 비릭(拜來)오니 : (고마움에) 절하여 오던 터이오니. 늘 고맙게 여겨 오던 터이니.
14) 상착(常着) : 상복(常服).
15) 가음 : 감.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특히 옷감을 세는 단위. 한 감은 치마 한 벌을 뜰 만한 크기.
16) 만만(萬萬) : 헤아릴 수 없이 많음. 여기서는 '아주'·'더욱'의 뜻이다.
17) 싱식(生色) : (남에게 도움을 준 일로 말미암아 체면이) 떳떳해지거나 자랑스러워짐.
18) 여불비(餘不備) : '여불비례'(餘不備禮)와 마찬가지로 '용건만 적었을 뿐으로 예절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편지의 끝에다 붙이는 투어이다.

고 있사오니, [이제도 또한 덕택을 베풀어] 평소에 입는 옷[을 지을 만한 것]으로 한 감을 내려 주시면 산같고 바다같은 은덕(恩德)이 더욱 생색(生色)이 나겠나이다. 예절을 갖추지 못했나이다. 삼가 생각하오이다.

정미(丁未 : 1907) 구월 초순에, 보살펴 주시는 몸, 권인술이 거듭 절하며 올림.

53 8-03. 全柳_MF35-006421_600(18x75cm): 전호→전주(20세기 전반)

1. 판독

郡便付書를昨日下
覽ᄒᆞ오니欣喜萬千耳
謹未審新凉[移1]
氣體候萬安大少
宅第이一如均慶否伏
仰傃區〃且祝耳[小1]生은
省狀이如前樣ᄒᆞ오니
萬幸이오며就仰達
今年旱氣은到處
一般이오니大嘆이오나
梨田農形은田畓
間比昨年則收獲

이一割可量減少될
듯ᄒᆞ오나아즉曲增減은
在於後日天氣이오니以此下
諒ᄒᆞ옵시고下書中農
布農牛을牽送云
ᄒᆞ신고로書到卽時傳
人ᄒᆞ와今日午前牽來
中適時命守來着
故幸〃이오나方今七月
草未了의允植之形
便은可謂大嘆이오니
恃念情勢ᄒᆞ와置牽
ᄒᆞ시기伏望이오며去年
爲作條七圓九十錢
은卽時未備ᄒᆞ온故命
守便伏未及上送
則以此海諒ᄒᆞ옵
소셔[小子]生은偸暇ᄒᆞ와
暇初間恭拜伏計
則餘더강不備上
舊七月二十四日[小子]生徐徑達拜上

2. 전사 · 주석

郡便[1)]付書를 昨日 下覽[2)]ᄒᆞ오니 欣喜萬千耳 謹未審[3)] 新凉 氣體候萬安 大少宅第이 一如均慶否 伏仰傃[4)]區〃且祝耳 生은[5)] 省狀[6)]이 如前樣ᄒᆞ오니 萬幸이오며 就仰達[7)] 今年 旱氣은 到處一般이오니 大嘆이오나 梨田[8)] 農形은 田畓間 比昨年 則收獲이 一割 可量 減少될 듯ᄒᆞ오나 아즉 曲增減은 在於後日天氣이오니 以此下諒ᄒᆞ옵시고 下書中 農布農牛을 牽送云ᄒᆞ신 고로 書到卽時傳人ᄒᆞ와 今日 午前 牽來中 適時 命守[9)]來着 故幸〃이오나 方今 七月 草[10)]未了의 允植之形便[11)]은 可謂大嘆이오니 恃念情勢[12)]ᄒᆞ와 置牽ᄒᆞ시기 伏望이오며 去年爲作條 七圓九

---

1) 郡便 : 군(郡)에서 군으로 오가는 인편. 이와 함께 '읍편'(邑便)이라는 용어도 편지에 더러 쓰인다.
2) 下覽 : 굽어다 봄. 편지를 보낸 쪽이 존처(尊處)에 해당하므로 용어의 선택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3) 謹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마음이 놓이지 않음. 안부를 묻는 편지에 흔히 쓰이는 투어이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답장에 해당하므로 용어의 선택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4) 仰傃 : (상대를) 향하여 우러름. 여기에 보이는 한자 '傃'는 편지에 있어서 흔히 '遡'·'溯'·'泝'·'愫'로 더불어 두루 통용되는 바이고, 또한 모두 '向之'라는 뜻을 지니는 말이다.
5) 生은 : 저는. '小生'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 단순히 '生'이라고 하여 겸양(謙讓)하는 예절을 생략하였다.
6) 省狀 : (되돌아 살피는 자신의) 형상(形狀). 꼬락서니.
7) 就仰達 : 우러러 아뢰올 말씀은. '就白'·'伏白'과 같은 쓰임을 가지는 말이다.
8) 梨田 : 지명.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서삼리(西三里) 이전(梨田). 돌미들. 발신자가 경작하는 소작지(小作地)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인다.
9) 命守 : 인명.
10) 草 : 풀베기. 농가에서 소먹일 꼴이나 논밭에 뿌릴 비료로 쓰기 위하여 풀을 베는 일.
11) 允植之形便 : 종식(種植)·경작(耕作)의 형편. 농사 형편. 한자 '允'은 '固'와 같은 뜻을 지니는 바로서 흔히 부사로 쓰이는 것이나, 여기서는 단순히 '可能'·'許可'의 뜻을 더하는 허사로 쓰인 것이다.

十錢은 卽時 未備ᄒᆞ온 故命守便 伏未及上送 則以此海諒ᄒᆞ옵소서 生은 偸暇ᄒᆞ와 暇初間 恭拜伏計 則餘 ᄃᆡ강 不備上

舊七月[13] 二十四日 生 徐徑達 拜上

3. 현대어역

군편(郡便)에 부치신 편지를 어제 굽어다 보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날씨에 기체후(氣體候) 만안(萬安)하시고, 위아래로 여러 집안이 모두 하나같이 고루 경사롭게 지내십니까? 저는 모양(模樣)이 [그저] 예와 같으니 다행이오며. 아뢰올 말씀은, 올해의 가뭄은 가는 곳마다 한가지이오니 크게 탄식할 일이오나, 이전(梨田)의 농사 형편은 논이든 밭이든 작년에 비하면 그 수확이 1할 가량 감소될 듯하오나, 아직 그 자세한 증감(增減)은 뒷날의 날씨에 달려 있으니 이로써 헤아려 주시고. 편지에 농포(農布)·농우(農牛)를 끌어다 달라고 하셔서, 편지를 받자마자 곧 사람을 보내어, 오늘 오전(午前) 중에 끌어가 적시(適時)에 명수가 [거기에] 다다를 것이니 다행이오나, 바야흐로 7월의 풀

12) 恃念情勢 : 정세(情勢)·정황(情況)을 생각하시어. 한자 '恃'는 '念'이라는 동작의 주체를 향하여 '(당신이 그렇게 해 줄 것을) 믿는다'의 뜻을 더하는 허사로 쓰인 것이다.

13) 舊七月 : 구력(舊曆) 7월. 양력을 사용하게 된 뒤로 그 이전에 쓰던 음력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음력을 곧 구력이라 하였다. 양력을 사용하게 된 것은 1896년(고종 33) 양력 1월 11일에 내린 고종의 조칙(詔勅)으로 1895년의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양력 1월 1일로 고쳤던 데서 비롯하였다. "十一日. 詔曰. [···] 朕이 極을 御ᄒᆞᆫ지 今三十有三歲에 世界의 盟約ᄒᆞᄂᆞᆫ 局을 臨ᄒᆞ야 政治의 更張ᄒᆞᄂᆞᆫ 道ᄅᆞᆯ 行치아니치못ᄒᆞᆯ시 乃正朔을 改ᄒᆞ고 年號ᄅᆞᆯ 建ᄒᆞ며 服色을 易ᄒᆞ고 髮을 斷ᄒᆞ노니 爾有衆은 朕이 新을 好ᄒᆞᆫ다 謂치 勿ᄒᆞᆯ지어다" (『高宗實錄』 34, 33年 1月 11日.)

베기가 끝나지 아니한 마당이라 농사 형편은 크게 탄식할 만하오니, 정세를 생각하시어 [다시 곧] 끌어다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난해에 경작(耕作)한 명목의 대가 7월 90전은 [편지를 받은] 즉시로 갖추어 내지 못한 까닭에 명수[가 돌아가는] 편에 올려 보내지 못하였사오니 이로써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는 겨를을 보아서 틈이 생기면 곧 뵈러 가고자 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추 [서례(書例)를]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올리옵니다.

구력(舊曆) 7월 24일, 생(生) 서경달(徐徑達)이 절하여 올림.

54 8-04. 全柳_MF35-006429_100(26x44cm): 하인 → 상전(1882)

1. 판독

[隔1]고목[移1]

[隔2]황공복지문[移1]

[隔1]안ᄒᆞᄉᆞ오며복미심ᄎᆞ시의[移1]

[擡1]나리쥬긔쳬후일향만강ᄒᆞ오신

지복모구〃무임ᄒᆞ셩지〃오며[小2]소인

은ᄒᆞ휼지택으로무ᄉᆞ복역이오며

ᄎᆞ편비지밧ᄌᆞ와뵈오니미령즁지

닉시오니[小2]ᄒᆞ졍의염여황송ᄒᆞ외다

표졍딕감덕의셔각쳐셔간여복물

바드시고조졍ᄉᆞ을간셥ᄒᆞ시오니그

런즄ᄋᆞ옵소셔비지의분부ᄒᆞ신

일은착실이거힝ᄒᆞ오랴ᄒᆞ오니

병환즁심여과히마옵시고차〃관

기동졍ᄒᆞ와고과ᄒᆞ오리다ᄒᆞ사물

죵은복슈이외다[移1]

[擡1]진ᄉᆞ쥬문안도역위안녕ᄒᆞ오신지모모구

〃이오며[移1]

[擡1]미령ᄒᆞ옵신즁안녕ᄒᆞ옵시기을복

망〃〃연유을젼ᄎᆞ고과ᄒᆞ누온ᄉᆞ라[移1]

임오구월회일[小2]소인김범용고목[移1]

[追伸]셔울소동은별노더ᄒᆞ든아니ᄒᆞ오나한

모냥이외다

2. 전사 · 주석

고목(告目)[1]

황공(惶恐) 복지(伏地) 문안(問安)ᄒᆞᄉᆞ오며[2] 복미심(伏未審)[3] ᄎᆞ시

1)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卷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참조.)

2) 황공(惶恐) 복지(伏地) 문안(問安)ᄒᆞᄉᆞ오며 : 하리(下吏)가 상관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의 기두(起頭)에 흔히 놓이는 투어구(套語句)이다. 여기에 보이는 '-ᄒᆞᄉᆞ오며'는 이두(吏頭)의 'ᄒᆞᄉᆞᆲ오며'(爲白乎旀)에서 나온 것이다.

3) 복미심(伏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伏未審 …

(此時)[4]의 나리쥬(主) 긔체후(氣體候) 일향만강(一享萬康)ᄒᆞ오신지 복모구구(伏慕區區) 무임ᄒᆞ셩지지(無任下誠之至)[5]오며 소인(小人)은 ᄒᆞ휼지택(下恤之澤)[6]으로 무ᄉᆞ복역(無事服役)이오며 ᄎᆞ편(此便) 비지(牌旨)[7] 밧ᄌᆞ와 뵈오니 미령즁(靡寧中) 지닉시오니 ᄒᆞ졍(下情)의 염여(念慮) 황송(惶悚)ᄒᆞ외다 표졍 딕감[8] 딕의셔 각쳐(各處) 셔간여복물(書簡與卜物)[9] 바드시고 조졍ᄉᆞ(朝廷事)을 간셥(干涉)ᄒᆞ시오니 그런 쥴 ᄋᆞ옵소셔 비지(牌旨)의 분부(分付)ᄒᆞ신 일은 착실(着實)이 거ᄒᆡᆼ(擧行)ᄒᆞ오랴 ᄒᆞ오니 병환즁(病患中) 심여 과히 마옵시고 차차(次次) 관기동졍(觀其動靜)ᄒᆞ와 고과(告課)[10]ᄒᆞ오리다 ᄒᆞ사물죵(下賜物種)은 복슈(伏受)이외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에 해당하는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투어이다. '伏未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편지에 흔히 쓰이는 '伏'이라는 말은 발신자의 모든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투어이다.

4) ᄎᆞ시(此時) : 이즈음. 근황(近況)을 묻고자 할 때에 흔히 쓰이는 말. 자제(玆際), 이래(邇來), 신하(辰下), 비신(比辰) 따위의 말이 같은 자리에 쓰인다.

5) 무임ᄒᆞ셩지지(無任下誠之至) : 그리는 마음이 지극하여 견딜 수 없음. '무임'(無任)은 '불임'(不任)과 같은 말로서 '견딜 수 없다'(不勝·不堪)라는 뜻이다. '하셩'(下誠)은 '저의 정성스런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는 바로서 '하회'(下懷)·'하졍'(下情)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6) ᄒᆞ휼지택(下恤之澤) :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 상관의 배려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7) 비지(牌旨) : 패지(牌旨) → 배지. 패자(牌子). 패자(牌字).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 "牌旨 : 本朝, 俗稱上告下之書曰牌旨." (『古今釋林』 27, 東韓譯語, 釋文.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卷3,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341쪽 참조.)

8) 표졍 딕감 :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을 말하는 듯함. 임오군란(壬午軍亂)을 계기로 대원군이 얼마 동안 다시 정권을 잡았다.

9) 셔간여복물(書簡與卜物) : 서간과 복물. '복물'(卜物)은 곧 '짐짝'·'짐바리'를 말한다.

10) 고과(告課)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보고하는 일. '고목'(告目)과 같은 말이다.

다 진亽쥬(進士主) 문안도 역위안녕(亦爲安寧)ᄒᆞ오신지 모모구구(慕慕區區)이오며 미령ᄒᆞᄋᆞᆸ신 중 안녕ᄒᆞᄋᆞᆸ시기을 복망(伏望) 복망 연유(緣由)을 젼ᄎᆞ(詮次)[11] 고과(告課)ᄒᆞ누온 ᄉᆞ(事)라[12]

임오(壬午) 구월 회일(晦日) 소인 김범용(金範龍) 고목

[추신]

셔울 소동(騷動)[13]은 별(別)노 더ᄒᆞ든 아니ᄒᆞ오나 한 모냥(模樣)이외다

3. 현대어역

고목(告目)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엎드려 안부를 묻사오며. 이즈음 나리님 기체후(氣體候)께서 줄곧 만강(萬康)하시온지, 저의 못내 그리운 마음 가눌 수 없사오며. 소인은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恩澤)으로 무사히 복역(服役)하고 있사오며. 이쪽으로 보내오신 배지(牌旨)를 받자와 뵈오니, 병환으로 몸이 편안하지 못하신 가운데 지내시오니, 하정(下情)에 걱정되옵고 두렵사오이다. 표정 대감 댁에서 여러 곳의 서간과 복물(卜物)을 받으시고 조정사(朝廷事)를 간섭하시오니 그런 줄 아옵소서. 배지에 분부하신 일은 착실히 거행[하여 처리]하오려 하오니, 병환에 계신

11) 젼ᄎᆞ(詮次) : 조리 있게 차례로. 이두에 보이는 '詮次以'(젼ᄎᆞ로)의 준말.

12) 연유(緣由)을 젼ᄎᆞ고과(詮次告課)ᄒᆞ누온 ᄉᆞ(事)라 : 까닭을 조리 있게 차례로 보고하는 일이라. 고목(告目)을 끝마치는 말로 쓰이는 투어. 여기에서 특히 "ᄒᆞ누온ᄉᆞ"는 이두(吏讀)의 '爲臥乎事'(ᄒᆞ누운일)에서 나온 것이다.

13) 셔울 쇼동(騷動) : 고종(高宗) 19년(1882) 6월 5일에 처음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을 말한다.

가운데 너무 걱정하지 마옵시고…. 차차로 [정계(政界)의] 동정을 살펴 고과(告課)하오리다. 내려 주신 물품(物品)은 [잘] 받았나이다. 진사님 문안도 또한 안녕(安寧)하오신지 못내 궁금하오며, 편안하지 못하신 가운데[이나마] 안녕하오시기를 빌고 또 비나이다. 연유(緣由)를 전차(詮次)로 고과하는 일이라.

임오(壬午 : 1882) 구월 회일(晦日), 소인 김범용(金範龍) 사룀.

[추신]

서울[에서 일어난] 소동(騷動)은 [이제는] 특별히 더하지는 아니하는 모양이오이다.

55 8-05. 全柳_MF35-006421_786(26x96cm): 하인 → 상전(1882)

1. 판독

[隔3]복미심ᄎᆞ시의[移1]

나리님쥬긔체후일향만안복모

구〃무임ᄒᆞ셩지〃오며[小1]소인도아직

ᄒᆞ랩지텩입ᄉᆞ와무탈ᄒᆞ오며

상납상이편의ᄌᆞ셔이듯ᄌᆞ온니

나리님게셔본탁의향차ᄒᆞ

옵신후편ᄎᆞ나진닉옵신다ᄒᆞ

옵신이ᄒᆞ경의놀나온말ᄉᆞᆷ알

외옴ᄂᆞ이다지금은좀나옵셔
골노향ᄎᆞᄒᆞ옵신다ᄒᆞ옵기의
ᄒᆞ졍의감축ᄒᆞ야진너옵ᄂᆞ이다
진사님과마님과아기네의문안
일향ᄒᆞ옵시오며오션달은슈문
장베슬ᄒᆞ옵신이감축ᄒᆞ야진너
오며ᄒᆞᆫ금셔나리게셔도아직
문안일향ᄒᆞ옵시오며[移1]
박동딕감딕의셔도문안일향ᄒᆞ옵시오
며지동상졔님게셔은왜국가셔
다가지월이십뉵일편안이단게
오셔〃위셔그무부당상ᄎᆞᄒᆞᄒᆞ시옵고
딕감게옵셔은못되실말솜이라ᄒᆞ
시옵고상소을ᄒᆞ옵신이아직은으
지ᄒᆞ실는지모르게솝ᄂᆞ이다
훌연도감이양쳥의로너머가와
셔이변상납올나왓기의양쳥
으로잘밧쳐주어쏩고양〃제주
은김병시김판딕감이옵고양〃낭
쳥은낙동셔운보셔낭쳥나리옵기
의알외옵ᄂᆞ이다이조집이는오상인
온이자셔아옵시게ᄒᆞ옵ᄂᆞ다집이
은박동딕감게셔시히신집이올소
이다[移1]
홍장일별즁액사별나래가온이

차지옵소셔[移1]

壬午十二月初五日[小2]小人金範龍[小2]伏呈

2. 전사 · 주석

복미심(伏未審)[1] ᄎᆞ시(此時)의 나리님쥬(主) 긔체후(氣體候) 일향만안(一享萬安) 복모구구(伏慕區區) 무임ᄒᆞ셩지지(無任下誠之至)[2]오며 소인(小人)도 아직 ᄒᆞ렴지틱(下念之澤)[3] 입ᄉᆞ와 무탈(無頉)ᄒᆞ오며 상납상이(上納商-)[4] 편(便)의 ᄌᆞ셔이[5] 듯ᄌᆞ온니 나리님게셔 본틱(本宅)의 향차(行次)ᄒᆞ옵신 후(後) 편(便)ᄎᆞ나[6] 진녀옵신다 ᄒᆞ옵신이 ᄒᆞ졍(下情)의 놀나온 말솜 알외옴ᄂᆞ이다 지금은 좀 나옵셔 골[7]노 향ᄎᆞᄒᆞ옵신다 ᄒᆞ

---

1) 복미심(伏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伏未審 …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에 해당하는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투어이다. '伏未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편지에 흔히 쓰이는 '伏'이라는 말은 발신자의 모든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투어이다.

2) 무임ᄒᆞ셩지지(無任下誠之至) : 그리는 마음이 지극하여 견딜 수 없음. '무임'(無任)은 '불임'(不任)과 같은 말로서 '견딜 수 없다'(不勝·不堪)라는 뜻이다. '하셩'(下誠)은 '저의 정성스런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는 바로서 '하회'(下懷)·'하정'(下情) 따위의 말과 함께 존처에 대하여 '나의 마음'·'나의 뜻'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3) ᄒᆞ렴지틱(下念之澤) :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 '하휼지택'(下恤之澤)과 마찬가지로, 상관의 배려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4) 상납상이(上納商-) : 상납에 필요한 물품을 대어 주는 상인. '-상'(商)·'-상이'(商-)는 '상인'·'상점'의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

5) ᄌᆞ셔이 : 자세히.

6) 편(便)ᄎᆞ나 : 편하지 않아. 편찮게.

7) 골 : 고을.

옵기의 ᄒᆞ정의 감축(感祝)ᄒᆞ야 진너옵ᄂᆞ이다 진사(進士)님과 마님과 아기네의 문안(問安) 일향(一享)ᄒᆞ옵시오며 오션달(吳先達)[8]은 슈문장(守門將) 베슬 ᄒᆞ옵신이 감축ᄒᆞ야 진너오며 홍금셔[9] 나리게셔도 아직 문안 일향ᄒᆞ옵시오며 박동[10] 뎌감뎍(大監宅)의셔도 문안 일향ᄒᆞ옵시오며 직동[11] 상졔(喪制)[12]님게셔은 왜국(倭國) 가셔다가 지월(至月)[13] 이십뉵일 편안(便安)이 단게 오셔셔 위셔(位序)[14] 그 무부(武夫)[15] 당상(堂上)[16] ᄎᆞᄒᆞ(差下)[17]ᄒᆞ시옵고 뎌감게옵셔은 못 되실 말솜이라 ᄒᆞ시옵고 상소(上疏)을 ᄒᆞ옵신이 아직은 으지ᄒᆞ실는지[18] 모르게습ᄂᆞ이다 훌연도감(訓練都監)[19]이 양쳥(糧廳)[20]의로 너머가와셔[21] 이변(-番) 상납 올나

8) 오션달(吳先達) : 인명. '선달'(先達)은 과거에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9) 홍금셔 : 인명.
10) 박동 : 지명.
11) 직동 : 지명.
12) 상제(喪制) :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居喪) 중에 있는 사람. 극인(棘人)·상인(喪人).
13) 지월(至月) : 동짓달.
14) 위셔(位序) : 위계(位階). 품계(品階).
15) 무부(武夫) : 무반(武班). 고려시대·조선시대에 무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 계층을 말한다.
16) 당상(堂上) :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로 말하여, 조의(朝議)를 행할 때에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官階)나 그 관원을 말한다. 동반(東班-文班)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西班-武班)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宗親)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17) ᄎᆞᄒᆞ(差下) : (임금이) 벼슬을 시킴.
18) 으지ᄒᆞ실는지 : 어찌하실는지.
19) 훌연도감(訓練都監) :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오군영(五軍營)의 하나로서 수도 경비와 삼수군(三手軍) 양성을 맡아 보던 군영이다. 1593년(선조26) 8월에 임시 기구로 설치되어 점차 상설 기구로 변모했다. 1881년(고종18)에 군제 개혁으로 별기군(別技軍)

히 듣자오니, 나리님께서 본댁(本宅)에 행차하옵신 뒤로 편찮게 지내신다고 하오시니, 마음에 놀라운 말씀 아뢰옵나이다. [그러나 또한] 지금은 좀 나으시어 고을로 행차하신다고 하오기에 경사롭게 여기고 지내옵나이다. 진사(進士)님과 마님과 아기씨네의 문안(問安) 한결같으시며 오선달(吳先達)은 수문장(守門將) 벼슬을 하오시니 경사롭게 여기고 지내오며. 한금서 나리께서도 아직 문안 한결같으시며, 박동 대감댁도 문안 한결같으시며. [박동 대감댁의 자제] 재동 상제(喪制)님께서는 왜국(倭國)에 가셨다가 동짓달 이십육 일에 편안히 다녀오시어, [임금께서] 위계(位階)[로 말해서] 그 무부(武夫) 당상(堂上)에 이르는 벼슬을 내리셨고, 대감께서는 아니 될 말씀이라 하시고 상소(上疏)를 하오시니, 아직은 어찌하실는지 모르겠나이다.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관할권]이 양향청(糧餉廳)으로 넘어가서, 이번 상납(上納)이 올라왔기에 양향청으로 잘 받쳐 주었삽고. 양향청 제조(提調)는 김병시(金炳始, 1832~1898) 김판서 대감(大監)이옵고, 양향청 낭청(郎廳)은 낙동 서운보(徐雲輔) 서낭청 나리이옵기에 아뢰옵나이다. 이조(吏曹) 집리(執吏)는 오상인이오니 자세히 아시게 하옵나이다. 집리(執吏)는 박동 대감께서 시키신 집리올소이다.

[추신]

홍장(紅帳) 한 벌, 중액(中額) 네 벌 내려가오니 찾으옵소서.

임오(壬午 : 1882) 십이월 초오일, 소인 김범룡(金範龍) 올림.

옵기의 ᄒᆞ정의 감축(感祝)ᄒᆞ야 진너옵ᄂᆞ이다 진사(進士)님과 마님과 아기네의 문안(問安) 일향(一享)ᄒᆞ옵시오며 오션달(吳先達)[8]은 슈문장(守門將) 베슬 ᄒᆞ옵신이 감축ᄒᆞ야 진너오며 ᄒᆞᆫ금셔[9] 나리게셔도 아직 문안 일향ᄒᆞ옵시오며 박동[10] ᄃᆡ감ᄃᆡᆨ(大監宅)의셔도 문안 일향ᄒᆞ옵시오며 지동[11] 상졔(喪制)[12]님게셔은 왜국(倭國) 가셔다가 지월(至月)[13] 이십뉵일 편안(便安)이 단게 오셔셔 위셔(位序)[14] 그 무부(武夫)[15] 당상(堂上)[16] ᄎᆞᄒᆞ(差下)[17]ᄒᆞ시옵고 ᄃᆡ감게옵셔은 못 되실 말숨이라 ᄒᆞ시옵고 상소(上疏)을 ᄒᆞ옵신이 아직은 으지ᄒᆞ실는지[18] 모르게숩ᄂᆞ이다 훌연도감(訓練都監)[19]이 양청(糧廳)[20]의로 너머가와셔[21] 이변(-番) 상납 올나

---

8) 오션달(吳先達) : 인명. '선달'(先達)은 과거에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9) ᄒᆞᆫ금셔 : 인명.

10) 박동 : 지명.

11) 지동 : 지명.

12) 상제(喪制) :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居喪) 중에 있는 사람. 극인(棘人)·상인(喪人).

13) 지월(至月) : 동짓달.

14) 위셔(位序) : 위계(位階). 품계(品階).

15) 무부(武夫) : 무반(武班). 고려시대·조선시대에 무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 계층을 말한다.

16) 당상(堂上) :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로 말하여, 조의(朝議)를 행할 때에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계(官階)나 그 관원을 말한다. 동반(東班-文班)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西班-武班)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宗親)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17) ᄎᆞᄒᆞ(差下) : (임금이) 벼슬을 시킴.

18) 으지ᄒᆞ실는지 : 어찌하실는지.

19) 훌연도감(訓練都監) :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오군영(五軍營)의 하나로서 수도 경비와 삼수군(三手軍) 양성을 맡아 보던 군영이다. 1593년(선조26) 8월에 임시 기구로 설치되어 점차 상설 기구로 변모했다. 1881년(고종18)에 군제 개혁으로 별기군(別技軍)

왓기의 양쳥(糧廳)으로 잘 밧쳐 주어삽고 양양(糧餉)[22] 제주(提調)[23]은 김병시[24] 김판딕감(金判大監)[25]이옵고 양양(糧餉) 낭쳥(郎廳)[26]은 낙동[27] 셔운보[28] 셔낭쳥(徐郎廳)나리옵기의 알외옵ᄂᆞ이다 이조(吏曹)[29]

이 설치되어 신식 군대 조직이 생기자, 그 이듬해인 1882년(고종19)에 폐지되었다.

20) 양청(糧廳) : 양향청(糧餉廳).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소속되어 재정(財政)을 담당하던 관서(官署). 1593년(선조26)에 훈련도감의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에서 소용되는 의복·무기·비품 등의 물품을 조달하고 급료 등의 재정을 관리했다. 여기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提調) 3인, 낭청(郎廳) 1인을 두었는데, 도제조는 훈련도감 도제조를 겸하는 의정 1인이 겸임하였고, 제조 3인은 호조판서·병조판서 및 훈련대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였으며, 낭청은 호조 별영색(別營色)의 낭청이 겸직하였다.

21) 너머가와셔 : 넘어가서. 관서(官署)의 관할권이 옮겨짐을 말한다.

22) 양양(糧餉) : 양향(糧餉). 양향청(糧餉廳)을 줄여 '양향'(糧餉)이라 부르는 것을 '양양'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23) 제주(提調) : 제조(提調) : 조선 시대에, 중앙 관아의 여러 사(司) 또는 청(廳)의 우두머리가 아니면서 여러 관아의 일을 다스리던 직책. 잡무 및 기술 계통에 관여하는 바가 많았다. 조달(調達)·영선(營繕)·제작(製作)·천문(天文)·지리(地理)·음악(音樂)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서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다.

24) 김병시 : 김병시(金炳始, 1832~1898). 조선말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초(聖初), 호는 용암(蓉庵), 시호는 충문(忠文). 아버지는 판서 응근(應根)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에, 1882년(고종19) 10월 8일에 '의정부(議政府)의 주청으로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김병시를 양향청(糧餉廳) 당상(堂上)에 임명하는 것을 윤허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議政府啓. 知三軍府事金炳始. 糧餉堂上差下何如. 允之."(『高宗實錄』, 19年 10月 8日 辛酉.)

25) 김판딕감(金判大監) : 김(병시) 판서(判書) 대감(大監). 판서는 조선시대에 육조(六曹)를 관장하던 정2품의 장관직을 말한다. 상서(尙書)·전서(典書)·정경(正卿)이라고도 하였다. 대감은 조선시대에 정2품 이상의 관계(官階)를 가진 전·현직 관인을 공경해 부르던 칭호이다.

26) 양양(糧餉) 낭청(郎廳) : 양향청(糧餉廳)의 낭청(郎廳). 조선 후기에, 실록청(實錄廳)·도감(都監) 등의 임시 기구에 여러 중앙 관서로부터 관리를 차출하여 겸임시켰던 당하관(堂下官) 실무 관직을 낭청(郎廳)이라고 하였고, 여기에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 임명될 수 있었다.

집이(執吏)[30]는 오상인[31]온이 자서 아옵시게 ᄒᆞ옵ᄂᆞ다 집이(執吏)은 박동 ᄃᆡ감게셔 시히신[32] 집이올소이다

[추신]

홍장(紅帳)[33] 일(一) 별[34] 중액(中額)[35] 사(四) 별 나려가온이 차지옵소셔

壬午 十二月 初五日 小人 金範龍 伏呈

3. 현대어역

이즈음 나리님께서는 줄곧 기체후(氣體候) 만안(萬安)하신지, 그리워 견딜 수 없는 마음 간절하오며. 소인도 아직 [나리님께서]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恩澤)을 입사와 아무 탈 없사오며. 상납상이 편에 자세

---

27) 낙동 : 지명.

28) 서운보 : 서운보(徐雲輔). 조선말기의 무신(武臣)으로 고종(高宗) 연간에 오위(五衛)의 정6품 사과(司果)의 관직을 지낸 자취가 『고종실록』(『高宗實錄』, 19年 10月 20日 癸酉)에 보인다.

29) 이조(吏曹) : 고려시대·조선시대에,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30) 집이(執吏) : 집리(執吏). 집리서리(執吏書吏)를 줄여서 '집리'(執吏)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중앙 관아에서 사무를 나누어 맡아 보던 주임급의 실무직, 또는 그 관원을 말한다.

31) 오상인 : 인명.

32) 시히신 : (맡도록, 하도록) 시키신. 추천하신.

33) 홍장(紅帳) : 붉은 빛깔의 휘장(揮帳).

34) 별 : 벌. 옷이나 그릇 따위의 물건이 여럿 모여서 된 덩어리를 세는 단위.

35) 중액(中額) : 중간 크기의 액자(額子). 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물건을 '액자'(額子)라고 한다.

히 듣자오니, 나리님께서 본댁(本宅)에 행차하옵신 뒤로 편찮게 지내신다고 하오시니, 마음에 놀라운 말씀 아뢰옵나이다. [그러나 또한] 지금은 좀 나으시어 고을로 행차하신다고 하오기에 경사롭게 여기고 지내옵나이다. 진사(進士)님과 마님과 아기씨네의 문안(問安) 한결같으시며 오선달(吳先達)은 수문장(守門將) 벼슬을 하오시니 경사롭게 여기고 지내오며. 한금서 나리께서도 아직 문안 한결같으시며, 박동 대감댁도 문안 한결같으시며. [박동 대감댁의 자제] 재동 상제(喪制)님께서는 왜국(倭國)에 가셨다가 동짓달 이십육 일에 편안히 다녀오시어, [임금께서] 위계(位階)[로 말해서] 그 무부(武夫) 당상(堂上)에 이르는 벼슬을 내리셨고, 대감께서는 아니 될 말씀이라 하시고 상소(上疏)를 하오시니, 아직은 어찌하실는지 모르겠나이다.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관할권]이 양향청(糧餉廳)으로 넘어가서, 이번 상납(上納)이 올라왔기에 양향청으로 잘 받쳐 주었삽고. 양향청 제조(提調)는 김병시(金炳始, 1832～1898) 김판서 대감(大監)이옵고, 양향청 낭청(郎廳)은 낙동 서운보(徐雲輔) 서낭청 나리이옵기에 아뢰옵나이다. 이조(吏曹) 집리(執吏)는 오상인이오니 자세히 아시게 하옵나이다. 집리(執吏)는 박동 대감께서 시키신 집리올소이다.

[추신]

홍장(紅帳) 한 벌, 중액(中額) 네 벌 내려가오니 찾으옵소서.

임오(壬午 : 1882) 십이월 초오일, 소인 김범룡(金範龍) 올림.

56 8-06. 全柳_MF35-006420_322(26x76cm): 하인 → 상전(1883)

1. 판독

[隔3]황[移1]

공복지문안허살오며[移1]

[隔2]복미심ᄎᆞ시의[移1]

진사쥬긔체후일향만안복모

구〃불이압지못ᄒᆞ오며[小2]소인

도아직ᄒᆞ램지ᄐᆡᆨ을입ᄉᆞ와무

탈ᄒᆞ옵고본ᄃᆡᆨ상제님게오셔

도그동문안일향ᄒᆞ옵신지ᄒᆞ정

의굼금이옵고아기네도잘잇ᄉᆞ옵

나이가박동ᄃᆡ감ᄃᆡᆨ의셔도일

향ᄒᆞ시옵고ᄒᆞᆫ금셔나리게셔

는친환은좀나옵시옵고올나오시

지는안니올나오셔쌉ᄂᆞ기예

답장는못맛하나래갓쌉ᄂᆞ다

희유는ᄂᆡ올터이옵건만은신창겡

쥬인더래돈을ᄂᆡ라ᄒᆞ온즉

원님게바다날돈도잇는데못

ᄂᆡ게다ᄒᆞ온니五十五兩錢下을올

래본ᄂᆡ셔야희유을ᄂᆡ게쌉

ᄂᆞ이다상앤션해청상납니인

졔슷차낫삽ᄂᆞ이다ᄒᆡ유을너
실터이면돈을속히올래본
너옵소셔[移1]
[上段]ᄒᆡ삼일빅기
홍합일빅기
문어일미
광어이미
ᄃᆡ졈복이십기
[下段]갑ᄉᆞᆫ음마가되옵든
지자셔쳐셔젹어
본너옵소셔이담
인편속히본너옵
소셔[移1]
癸未十月二十五日[小2]小人金範龍[小2]告目

2. 전사 · 주석

황공(惶恐) 복지(伏地) 문안(問安)허살오며[1)] 복미심(伏未審)[2)] ᄎᆞ시

---

1) 문안(問安)허살오며 : 문안(問安)하사오며. 이두(吏讀)의 'ᄒᆞᄉᆞᆲ오며'(爲白乎旀)를 적되, '-하다'를 사투리로 적은 것이다.

2) 복미심(伏未審) : (상대의 안부를)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음. 「伏未審 … 否?」의 구조를 통하여 존처에 해당하는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는 투어이다. '伏未審'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에 쓰이며, 반대로 편지를 이미 받아 보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할 경우에는 '伏承審'이라 한다. 편지에 흔히 쓰이는 '伏'이라는 말은 발신자의 모든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공손의 뜻을 나

(此時)의 진사쥬(進士主) 긔체후(氣體候) 일향만안(一享萬安) 복모구구(伏慕區區) 불이압지 못ᄒᆞ오며 소인(小人)도 아직 ᄒᆞ렴지턱(下念之澤)[3]을 입ᄉᆞ와 무탈(無頉)ᄒᆞ옵고 본턱(本宅) 상제(喪制)[4]님게오셔도 그 동문안 일향(一享)ᄒᆞ옵신지 ᄒᆞ정(下情)의 굼금이옵고 아기네도 잘 잇ᄉᆞ옵나이가 박동[5] 더감(大監)덕의셔도 일향ᄒᆞ시옵고 흔금셔[6] 나리게셔는 친환(親患)은 좀 나옵시옵고 올나오시지는 안니 올나 오셔쌉ᄂᆞ기에 답장(答狀)는 못 맛하 나래갓쌉ᄂᆞ다 ᄒᆡ유(解由)[7]는 너올 터이옵건만은 신챵겡[8] 쥬인(主人)더래 돈을 너라 ᄒᆞ온 즉 원님게 바다 널 돈도 잇는데 못 너게다 ᄒᆞ온니 五十五 兩錢下[9]을 올래 본너셔야 ᄒᆡ유을 너게쌉ᄂᆞ이다 상(上)앤 션해청(宣惠廳)[10] 상납(上納)니 인제 ᄉᆞᆺ차(次) 낫쌉ᄂᆞ이

타내는 투어이다.

3) ᄒᆞ렴지턱(下念之澤) :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 하휼지택(下恤之澤). 상관의 배려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4) 상제(喪制) :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居喪) 중에 있는 사람. 극인(棘人)·상인(喪人).

5) 박동 : 지명.

6) 흔금셔 : 인명.

7) 해유(解由) : 벼슬아치가 서로 갈릴 때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내용을 적어 상관에게 보고하고 책임의 면제를 청원하는 일, 또는 그 상관이 갈려 가는 벼슬아치에게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증서. "凡除職者, 考解由."(『經國大典』 1, 吏典, 解由.) "官吏遞代時, 所掌之物無虧欠者, 給解由."(『經國大典』 2, 戶典, 解由.)

8) 신챵겡 : 점포명으로 추정된다. 이 점포의 주인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가 재직 당시에 관가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던 듯하고, 이것을 다 회수하지 못해서 해유(解由)를 받아 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9) 五十五 兩錢下 : 55 냥 되는 돈을 (꼭 좀). 여기에서 '下'는 어기(語氣)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어에서 흔히 붙이는 조사를 차용한 것이다.

10) 션해청(宣惠廳) : 조선시대, 대동미(大同米)·대동포(大同布)·대동전(大同錢)의 출납을 맡아 보던 관아. 선조(宣祖) 41년(1608)에 좌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청에 의해 처음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이를 설치하고, 고종(高宗) 31년(1894)에 폐지했다. 혜청(惠廳), 혜국(惠局), 대동청(大同廳)이라고도 하였다.

다[11] ᄒᆡ유을 ᄂᆡ실 터이면 돈을 속(速)히 올래 본ᄂᆡ옵소셔

ᄒᆡ삼(海蔘) 일ᄇᆡᆨᄀᆡ(一百個) 홍합(紅蛤) 일ᄇᆡᆨᄀᆡ 문어(文魚) 일미(一尾) 광어(廣魚) 이미(二尾) ᄃᆡ점복(大鮎卜) 이십ᄀᆡ 갑ᄉᆞᆫ 음마가 되옵든지 자셔 쳐셔 적어 본ᄂᆡ옵소셔 이담 인편(人便) 속히 본ᄂᆡ옵소셔

癸未 十月 二十五日 小人 金範龍 告目[12]

3. 현대어역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엎드려 안부를 묻사오며. 이즈음 진사님 기체후(氣體候) 줄곧 만안(萬安)[하시온지], 저의 못내 그리운 마음 부려 놓지 못하오며. 소인도 아직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恩澤)을 입사와 아무 탈 없사옵고, 본댁(本宅)의 상제(喪制)님께옵서도 그 동안 문안 한결같으신지, 마음에 궁금하옵고, 아기네도 잘 있사옵나이까? 박동 대감댁에서도 줄곧 한결같으시고, 한금서 나리께서는 친환(親患)은 좀 나았사옵고, 올라오시지는 아니 올라 오셨삽기에 답장은 못 맡아 나려갔삽나이다. 해유(解由)는 내올 터이건만, 신창갱 주인더러 돈을 내라고 하오니, [그의 하는 말이] '원님께 받아 낼 돈도 있는데…' [하면서] '못 내겠다.'고 하오니, 오십오 냥 되는 돈을 [꼭 좀] 올려 보내셔야 해유를 내겠삽나이다. 위[에다 해야 할 일]에는, 선혜청(宣惠廳) 상납(上納)이 이제 [마감에 가까운] 맨 끝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유를 내실 터이면 돈을

11) ᄉᆞᆺ차(次) 낫삽ᄂᆞ이다 : (마감에 가까운) 맨 끝 차례가 되었습니다.

12) 告目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卷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참조.)

빨리 올려 보내옵소서.

해삼(海蔘) 일백 개(個), 홍합(紅蛤) 일백 개, 문어(文魚) 일 미(尾), 광어(廣魚) 이 미, 대점복(大鮎) 이십 개 : 값은 얼마가 되든지 자세히 쳐서 적어 보내옵소서. 이 다음 인편(人便)에 빨리 보내옵소서.

계미(癸未 : 1883) 시월 이십오일, 소인 김범용 사룀.

57 8-07. 全柳_MF35-006429_101(26x26cm): 하인 → 상전(1883)

1. 판독

황공복지문[隔1]안알외오며복미심ᄎᆞ시
진사쥬긔톄후일향만강ᄒᆞ옵심뫼옵고져복
모구〃불림ᄒᆞ셩이오며[小2]소인은칠월십삼
일집이들러와셔몸셩이잇ᄉᆞ오나ᄌᆞ식이토ᄉᆞ
를ᄒᆞ와이너구치못ᄒᆞ엿ᄉᆞᆸ니다경은빈혜는
닷냥밧고파라셔경쥬인의계젼문십오냥
ᄎᆞᄌᆞ합젼이십냥쥬고더모은푼더맛치여
너려가오니츄랍ᄒᆞ옵소셔은갑슨미돈의구
젼식ᄒᆞ옵기의은빈혀는아직못민들러ᄉᆞᆸ
니다여불비복빅[移1]
[隔3]계미팔월이십뉵일[小2]소인의내지업고목

2. 전사 · 주석

고목(告目)[1)]

황공(惶恐) 복지(伏地) 문안(問安) 알외오며 복미심(伏未審) ᄎᆞ시(此時) 진ᄉᆞ쥬(進士主) 긔톄후(氣體候) 일향만강(一享萬康)ᄒᆞ옵심 뫼ᄋᆞᆸ고져 복모구〃(伏慕區區) 불림ᄒᆞ셩(不任下誠)이오며 소인(小人)은 칠월 십삼일 집이 들러와서 몸 셩이 잇ᄉᆞ오나 ᄌᆞ식(子息)이 토ᄉᆞ(吐瀉)[2)]를 ᄒᆞ와 이ᄂᆡ 구(救)치 못ᄒᆞ엿습ᄂᆡ다 졍은(正銀)[3)] 빈혜[4)]는 닷냥 밧고 파라 셔경[5)] 쥬인(主人)의게 젼문(錢文)[6)] 십오냥(十五兩) ᄎᆞᄌᆞ 합젼(合錢) 이십냥(二十兩) 쥬고 ᄃᆡ모은푼ᄃᆡ(玳瑁銀粉臺)[7)] 맛치여[8)] ᄂᆡ려 가오니 츄랍(推納)[9)]ᄒᆞ옵소셔 은(銀)갑슨 ᄆᆡ(每) 돈[10)]의 구젼(九錢)식 ᄒᆞ옵기의 은(銀)빈혀는 아직 못 ᄆᆡᆫ들러습ᄂᆡ다 여불비(餘不備) 복ᄇᆡᆨ(伏白)

---

1) 고목(告目) :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韓國漢字語辭典』 卷1,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825쪽 참조.)
2) 토ᄉᆞ(吐瀉) : 상토하사(上吐下瀉). 식중독(食中毒) 따위의 병증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구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함.
3) 졍은(正銀) : 순은(純銀).
4) 빈혜 : 비녀.
5) 셔경 : 점포명(店鋪名)으로 추정된다.
6) 젼문(錢文) : 돈.
7) ᄃᆡ모은푼ᄃᆡ(玳瑁銀粉臺) : 대모갑(玳瑁甲)으로 장식한 은분대(銀粉臺). 오늘날의 '화장대'(化粧臺)에 상당하는 공예품의 한가지로 추정된다. 대모(玳瑁)는 바다거북의 한 가지인데, 그 등딱지가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은푼"은 곧 '은분'(銀粉)을 그렇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8) 맛치여 : 맞추어. 주문 제작하여.
9) 츄랍(推納) : 찾아서 바침.
10) 돈 : 돈쭝(-重). 여기서는 무게의 단위로서 '푼'(←分)의 열 배.

계미(癸未) 팔월 이십뉵일 소인(小人) 의내(矣徒)[11] 지업[12] 고목(告目)

3. 현대어역

고목(告目)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엎드려 안부를 묻사오며. 이즈음 진사님 기체후 한결같이 편안하오심 뫼시고 싶어 그리운 마음 간절하오며. 소인(小人)은 7월 13일에 집에 들어와서 몸 성히 있사오나, 자식이 토사(吐瀉)를 하여 [매우 위급하게 되었으나] 이내 [굳기어 마침내]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은(純銀) 비녀는 닷 냥을 받고 팔았으며, 서경 주인에게 [또한] 15냥을 찾아서, 더한 돈 20냥을 주고 대모은분대(玳瑁銀粉臺)를 맞추어 내어 내려 보내오니 찾아서 [바치고자 하는 곳에] 바치옵소서. 은값은 한 돈에 9전씩 하기에, 은비녀는 [비싸서]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용건만 적고서] 예절을 갖추지 못하옵니다. 엎드려 사뢰옵니다.

계미(癸未 : 1883) 팔월 이십육일, 소인 저 재업 사룀.

---

11) 의내(矣徒) : 의몸(矣身). 아랫사람이 자신을 일컫는 대명사.
12) 지업 : 인명.

58 8-08. 全柳_MF35-006421_563(25x35cm): 하인 → 상전(1904)

1. 판독

[隔2]상셔[移1]
졔례ᄒᆞ옵고비퇴후일간의[移1]
ᄃᆡ감쥬긔체일향만즁ᄒᆞ옵시면[移1]
진ᄉᆞ쥬시체도연향만즁ᄒᆞ옵시면ᄃᆡᆨ닉졔졀도
평안ᄒᆞ옵신지원복모구〃지〃오면ᄒᆞᆼ생은무사환
쇼의아즉다른탈업ᄉᆞ온니힝ᄒᆞ번달니오면복빅
ᄉᆞ난젼니ᄒᆞ교지ᄉᆞ은숨죵은작일의돗와보닉쌉고윤
죤위은슈츠긔별ᄒᆞ되엇쓴ᄉᆞ졍으로엿티쇼식도업
고ᄃᆡ면ᄒᆞ지못ᄒᆞ와아즉죠약못ᄒᆞ여닉보닉치못ᄒᆞ엿
ᄉᆞ오나슈일간ᄃᆡ면죠약연후의가부간긔별을ᄒᆞ옵던
지졔를보닉던지할터온니그리ᄒᆞ랑ᄒᆞ옵고신긔김싱
원환젼ᄉᆞ난죵무쇼식ᄒᆞᆫ니알슈업ᄊᆞ오나ᄎᆞ〃듯ᄉᆞ온
니김싱원니불앙ᄒᆞᆫ동싱ᄉᆞ졍으로미우뒤가어지렵
다ᄒᆞ온니세상ᄉᆞ을아지못ᄒᆞ온니ᄃᆡᆨᄒᆞ의봉치ᄒᆞᆫ돈업
습거던짐작환ᄒᆞ지마옵쇼셔ᄉᆞ릴말숨ᄃᆡ강상달ᄒᆞ
옵[移1]
[隔3]갑진니월쵸육일ᄒᆞ싱[隔1]김히만은[隔1]상셔[移1]
[追伸]
환젼쓰五百兩은봉치ᄒᆞ여두어ᄊᆞ온니그리아옵

2. 전사 · 주석

상셔(上書)

졔례(除禮)ᄒᆞ옵고[1] ᄇᆡ퇴후(拜退後) 일간(日間)[2]의 ᄃᆡ감쥬(大監主)[3] 긔쳬(氣體) 일향만즁(一向萬重)[4]ᄒᆞ옵시면 진ᄉᆞ쥬(進士主) 시쳬(侍體)[5]도 연향만즁(連享萬重)[6]ᄒᆞ옵시면 ᄃᆡᆨᄂᆡ(宅內) 졔졀(諸節)[7]도 평안(平安)ᄒᆞ옵신지 원(願)[8] 복모구구지지(伏慕區區之至)[9]오면 ᄒᆞᄉᆡᆼ(下生)은 무사(無事) 환쇼(還巢)[10]의 아즉 다른 탈 업ᄉᆞ온니 ᄒᆡᆼᄒᆞ번달(幸何煩達)[11]니오면 복ᄇᆡᆨᄉᆞ(伏白事)난 젼(前)니 ᄒᆞ교지ᄉᆞ(下敎之事) 은(銀) 숨즁(三重)[12]은 작일(昨日)의 돗와[13] 보ᄂᆡᆸ고 윤존위(尹尊位)[14]은 슈ᄎᆞ(數次)

---

1) 졔례(除禮)ᄒᆞ옵고 : 예의를 (갖추는 절차를) 줄이옵고. 편지의 기두(起頭)에 쓰이는 투어(套語)의 하나이다. 평교(平交)일 경우에 쓰이는 말로는 '졔번'(除煩)이 있다. 한문 편지에 있어서 '除禮'는 흔히 '省禮謹封'·'除式封' 따위의 말과 함께 피봉을 마무리하는 투어로 쓰이기도 한다.

2) 일간(日間) : 요 며칠 사이.

3) 대감쥬(大監主) : 대감마님. 인칭이나 직명의 뒤에 붙는 '主'는 곧 우리말 '님'을 뜻한다.

4) 일향만즁(一向萬重) : 줄곧 튼튼히 있음. '일향'(一向)은 '줄곧'·'언제나'를 뜻한다. '일향'(一向)의 한자를 '一享'으로 적은 사례도 흔히 보인다. '한결같이 누린다.'는 뜻이다. '만중'(萬重)은 곧 '왕성'(旺盛)으로서 '튼튼함'을 뜻한다.

5) 시체(侍體) : 어른을 모시고 있는 몸.

6) 연향만즁(連享萬重) : 튼튼히 지내는 나날을 한결같이 누림. 일향만즁(一向萬重).

7) 제졀(諸節) : 여러 체후(體候). 남을 높여 그 집안사람들의 지내는 형편을 이르는 말.

8) 원(願) : 늘·언제나. 『시경』(詩經)에 "願言思伯"(「衛·伯兮」 第3·4章)·"願言思子"(「邶·二子乘舟」 第1·2章)라는 용례가 보인다.

9) 복모구구지지(伏慕區區之至) : 그리는 마음이 지극함. '복모구구'(伏慕區區)는 '엎드려 그리는 하찮은 몸'을 뜻한다. '구구'(區區)는 '잘다'는 뜻으로 곧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다.

10) 환쇼(還巢) : 자기가 '집으로 돌아옴'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11) ᄒᆡᆼᄒᆞ번달(幸何煩達) : (자신의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써 번다하게 이르랴. 고목(告目)에 흔히 쓰이는 '행하달'(幸何達)이라는 투어에서 나온 말이다.

긔별(寄別)ᄒᆞ되 엇ᄯᅥᆫ ᄉᆞ졍(事情)으로 엿터 쇼식(消息)도 업고 ᄃᆡ면(對面)ᄒᆞ지 못ᄒᆞ와 아즉 죠약(條約) 못ᄒᆞ여 ᄂᆡ보ᄂᆡ치 못ᄒᆞ엿ᄉᆞ오나 슈일간(數日間) ᄃᆡ면(對面) 죠약(條約) 연후(然後)의 가부간(可否間) 긔별을 ᄒᆞ옵던지 제를 보ᄂᆡ던지 ᄒᆞᆯ 터온니 그리 ᄒᆞ량(下諒)ᄒᆞ옵고 신긔[15] 김ᄉᆡᆼ원(金生員) 환젼ᄉᆞ(換錢事)난 죵무쇼식(終無消息)ᄒᆞᆫ니 알 슈 업ᄊᆞ오나 ᄎᆞᄎᆞ(次次) 듯ᄉᆞ온니 김ᄉᆡᆼ원니 불앙(浮浪)ᄒᆞᆫ[16] 동ᄉᆡᆼ(同生) ᄉᆞ졍(事情)으로 ᄆᆡ우 뒤가 어지렵다 ᄒᆞ온니 셰상ᄉᆞ(世上事)을 아지 못ᄒᆞ온니 ᄐᆡᆨᄒᆞ(宅下)의 봉치(封置)ᄒᆞᆫ 돈 업ᄉᆞᆸ거던 짐작(斟酌) 환(換)ᄒᆞ지 마옵쇼셔 ᄉᆞ릴 말ᄉᆞᆷ ᄃᆡ강(大綱) 상달(上達)ᄒᆞ옵

갑진(甲辰) 니월(二月) 쵸육일(初六日) ᄒᆞᄉᆡᆼ(下生) 김히만[17]은 상셔

[追伸]

환젼ᄶᅩ(條) 五百兩은 봉치ᄒᆞ여 두어ᄊᆞ온니 그리 아옵

3. 현대어역

상서(上書)

---

12) 삼죵(三重) : '죵'을 '돈쭝'(←-重)과 같은 말로 추정해 보건대, '돈쭝'은 (약이나 귀금속 따위의) 한 돈 가량 되는 무게를 말하니, 여기서 말하는 '삼죵'(三重)은 곧 '석 돈 가량의 무게'로 풀이할 만하다.

13) 돗와 : 도와. 여기서는 '재촉하여'·'거들어'라는 뜻이다. 「돕(다)+오+아」의 결합형 '돕와'의 받침 'ㅂ'이 'ㅅ'으로 적힌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당시의 일반 문법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14) 윤존위 : 인명. '존위'(尊位)는 한 고장의 어른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5) 신긔 : 지명.

16) 불앙(浮浪)ᄒᆞᆫ :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17) 김히만 : 인명.

예절을 갖추지 못하옵니다. 절하고 물러난 뒤로 며칠 사이에 대감마님 기체는 줄곧 튼튼하시며, 진사나리 기체도 줄곧 튼튼하시며, 댁내 여러분도 다들 아무 일 없이 평안하오신지…. 언제나 그리는 마음 지극하오며. 저는 무사히 집에 돌아와 아직 다른 탈 없사오니 다행스러움을 어찌 다 이르겠으며…. 엎드려 아뢰올 일은, 일전에 시키신 일로서, [구해서 보내라 하신] 은(銀) 석 돈은 어제 재촉하여 보냈사옵고. 윤존위(尹尊位)[에 관한 일]은, 몇 차례 기별(寄別)하되 어찌된 사정인지 여태 소식도 없고 [또한] 만나 보지 못한 까닭에 아직 약조(約條)를 못하여 내보내지 못하였으나, 며칠 사이에 만나 약조하고 나서 가부간(可否間)에 기별을 하오든지 제를 보내든지 할 터이오니 그리 헤아려 주시옵고. 신기 김생원(金生員)에게 환전(換錢)해 주는 일은 끝내 아무 소식이 없으니 알 수 없사오나, [여기저기서] 조금씩 듣사오니, 김생원이 부랑한 동생 [때문에 겪는] 사정으로 뒤가 매우 어지럽다고 하오니, 세상사[라는 것이 앞으로 어찌될지]를 알지 못하오니, 댁내에 봉치(封置)하여 두신 돈이 없삽거든 짐작컨대 바꾸어 주지 마옵소서. 사뢸 말씀, 대강 올리옵.

갑진(甲辰 : 1904) 이월 초육일, 하생(下生) 김희만 올림.

[추신]

환전할 바[로 마련한] 500냥은 봉치하여 두었사오니, 그리 아옵.

59 8-09. 全柳_MF35-006421_596-1(22x19cm): 하인 → 상전(20세기 전반)

1. 판독

[隔2]녹상[移1]

세염ᄶᅩ난소오리ᄃᆡᆨ과ᄃᆡ강ᄡᅢᆨ가ᄊᆞ오나

미슈ᄶᅩ六百餘兩과읍술ᄶᅩ百餘兩은종속

마감할터오나근일ᄋᆡ난곡졍니무시

ᄒᆞ와젼슈합할그리만무ᄒᆞ온니ᄎᆞ〃

회계할터온니다시환젼넘무ᄌᆡ촉

마옵쇼셔그시소오리ᄃᆡ셔촘관ᄒᆞᆫ

ᄉᆞ정닌고로여려말ᄉᆞ리지못ᄒᆞ난니다

2. 전사 · 주석

녹상(錄上)[1]

세염ᄶᅩ(稅斂條)[2]난 소오리[3]ᄃᆡᆨ(宅)과 ᄃᆡ강(大綱) ᄡᅢᆨ가ᄊᆞ오나[4] 미슈ᄶᅩ

---

1) 녹상(錄上) : 하인이나 천인이 상전에게 무엇을 적어 아뢰는 일이나 또는 그 글월.

2) 세염조(稅斂條) : 세금(稅金)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것. '세염'(稅斂)은 곧 '수세'(收稅)와 같은 말로서 '세금(稅金)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뜻하는 말이고, '-조'(條)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어떤) '명목'(名目)이나 '조건(條件)을 뜻하는 말이다.

3) 소오리 : 지명. 소오리(所五里).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聲池里). 또는, '소오리(巢梧里)'로서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4) ᄡᅢᆨ가ᄊᆞ오나 : 바꾸었사오나. '바꿨사오나'라고 쓸 만한 데서 '바꿨-'에 들어 있는 된소

(未收條)[5] 六百餘 兩과 읍술조(邑收條)[6] 百餘 兩은 종속(從屬)[7] 마감할 터오나 근일(近日)이난 곡정(穀情)[8]니 무시(無時)ᄒᆞ와[9] 전슈합(全收合)할 그 리(理) 만무(萬無)ᄒᆞ온니 ᄎᆞᄎᆞ(次次) 회계(會計)할 터온니 다시 환전(換錢) 넘무 직촉(催促) 마옵쇼셔 그시[10] 소오리ᄃᆡ셔[11] 춤관(參觀)ᄒᆞᆫ[12] ᄉᆞ정(事情)닌 고(故)로 여러 말 ᄉᆞ리지 못ᄒᆞ난니다

3. 현대어역

적어 아룀

세염조(稅斂條)는 소오리 댁(宅)과 [더불어] 대강 [금액을 맞추어] 바꾸었사오나, 미수조(未收條)[로 남은] 육백여 냥과 읍수조(邑收條)[로 남은] 백여 냥은 줄곧 뒤를 이어 마감할 터이오나, 요즈음에는 곡식을 수확하고 유통하는 일에 일정한 시기가 없어서 모두를 수합(收合)할 그 리는 전혀 없사오니, [앞으로] 조금씩 따져 가면서 셈을 할 터이오니, 환전에 관한 일은 다시 너무 재촉하지 마옵소서. 그 사이 소오리 댁에서 관여한 사정인 까닭에, [자세히 모를 뿐더러 주제넘은 일이라] 여러 말

리를 어절의 첫 음절 첫 소리에 반영한 경우이다.

5) 미슈조(未收條) : (세금을) 아직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한 분량에 관한 것.
6) 읍술조(邑收條) : (다른 여러) 읍에서 수급(收給)할 바의 것.
7) 종속(從屬) : 줄곧 뒤를 이어.
8) 곡정(穀情) : 곡식(穀食)이 수확되고 유통되는 정황(情況).
9) 무시(無時)ᄒᆞ와 : 일정한 시기를 정함이 없어서.
10) 그시 : 그 사이.
11) 소오리ᄃᆡ셔 : 소오리댁에서.
12) 춤관(參觀)ᄒᆞᆫ : 관여(關與)한.

人便 군속(窘束)[2]ᄒᆞᆫ ᄉᆞ졍(事情) 듯ᄌᆞᆸ오니 더옥 초초(悄悄)[3]ᄒᆞᆫ 마음은 층양(測量) 업ᄉᆞ오나 此時 歲迫[4]니요 方今 結錢[5]을 물봉지장(勿捧之場)의[6] 錢갈(渴)리 틱심(太甚)ᄒᆞ와 萬事不如意 고(故)로 下人을 許行치 못ᄒᆞ와 창졸간(倉卒間) 左右 廣求ᄒᆞ온 거시 다만 紙貨 二十五圓 與葉三十五兩 合分一百六十兩[7] 納送니 미우 죄송(罪悚)ᄒᆞ오나 不得ᄉᆞ셰(事勢)온니 니ᄎᆞᄒᆞ량(以此下諒)ᄒᆞ옵고 또 家貰[8] ᄉᆞ졍(事情)을 말ᄉᆞᆷᄒᆞ엿ᄉᆞ오나 본시(本是) 니리 니렬 쥴 알아써면 가셰(家貰)을 洞任계[9] 지휘(指揮)ᄒᆞ와 ᄎᆞ질 거실 젹연(寂然) ᄉᆡᆼ각 못ᄒᆞᆫ 니리 되난 고(故)로 기언(開言)치 못ᄒᆞᆫ ᄉᆞ니예 져간(這間) 명ᄉᆡᆨ(名色)으로 家貰라 ᄒᆞ난 거신 林以仲[10]處 出給되엿난 ᄌᆞ리예 금ᄎᆞ(今次) 下書中 본온 후(後)의 卽時 以仲[11]계도 査貰ᄒᆞ고 洞任果[12] 隊中의 가 ᄌᆞ상(仔詳)니 査問ᄒᆞ온 즉

---

2) 군속(窘束) : 묶인 듯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군색(窘塞)함.

3) 초초(悄悄) : 조심되는 모양.

4) 歲迫 : 세모(歲暮).

5) 結錢 : 결작전(結作錢).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6) 물봉지장(勿捧之場)의 : 폐지한 마당에. '물봉'(勿捧)은 본디 '허물이 있는 관리를 유임하지 아니하고 파면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단순히 '폐지'의 뜻으로 쓰였다.

7) 合分 一百六十兩 : (紙貨 25圓과 葉錢 35兩을) 더한 돈 160냥. 조선 후기 및 고종 연간에 있어서, 1원(元·圓)은 100전(錢)에 해당하고, 1냥(兩)은 10전(錢)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1원은 10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을 그대로 따른 환전(換錢)일 경우의 계산이다. 여기서는 1원(元·圓)이 5냥 안팎으로 환산된 듯하니, 지화(紙貨) 25원과 엽전 35냥을 더한 돈 160냥이라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의 중간에 4원을 20냥으로 환산한 경우가 또 보인다.

8) 家貰 : 집세.

9) 洞任계 : 동임(洞任)에게. '동임'은 곧 '동네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10) 林以仲 : 인명.

11) 以仲 : 인명.

12) 洞任果 : 동임(洞任)과. 여기에 보이는 한자 '果'는 우리말 조사 '-과'를 불필요하게

(未收條)[5] 六百餘 兩과 읍술丕(邑收條)[6] 百餘 兩은 종속(從屬)[7] 마감할 터오나 근일(近日)이난 곡졍(穀情)[8]니 무시(無時)ᄒᆞ와[9] 젼슈합(全收合)할 그 리(理) 만무(萬無)ᄒᆞ온니 ᄎᆞᄎᆞ(次次) 회계(會計)할 터온니 다시 환젼(換錢) 넘무 지촉(催促) 마옵쇼셔 그시[10] 소오리ᄃᆡ셔[11] ᄎᆞᆷ관(參觀)ᄒᆞᆫ[12] ᄉᆞ졍(事情)닌 고(故)로 여려 말 ᄉᆞ리지 못ᄒᆞ난니다

3. 현대어역

적어 아룀

세염조(稅斂條)는 소오리 댁(宅)과 [더불어] 대강 [금액을 맞추어] 바꾸었사오나, 미수조(未收條)[로 남은] 육백여 냥과 읍수조(邑收條)[로 남은] 백여 냥은 줄곧 뒤를 이어 마감할 터이오나, 요즈음에는 곡식을 수확하고 유통하는 일에 일정한 시기가 없어서 모두를 수합(收合)할 그리는 전혀 없사오니, [앞으로] 조금씩 따져 가면서 셈을 할 터이오니, 환전에 관한 일은 다시 너무 재촉하지 마옵소서. 그 사이 소오리 댁에서 관여한 사정인 까닭에, [자세히 모를 뿐더러 주제넘은 일이라] 여러 말

리를 어절의 첫 음절 첫 소리에 반영한 경우이다.

5) 미슈丕(未收條) : (세금을) 아직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한 분량에 관한 것.

6) 읍술丕(邑收條) : (다른 여러) 읍에서 수급(收給)할 바의 것.

7) 종속(從屬) : 줄곧 뒤를 이어.

8) 곡졍(穀情) : 곡식(穀食)이 수확되고 유통되는 정황(情況).

9) 무시(無時)ᄒᆞ와 : 일정한 시기를 정함이 없어서.

10) 그시 : 그 사이.

11) 소오리ᄃᆡ셔 : 소오리댁에서.

12) ᄎᆞᆷ관(參觀)ᄒᆞᆫ : 관여(關與)한.

사뢰지 못하나이다.

60 8-10. 全柳_MF35-006422_997(24x65cm): 하인 → 상전(19세기 후반)

1. 판독

錢兩出送條其間의못조쥬션ᄒᆞ와도할나
ᄒᆞᆫ거시百萬事가마음ᄃᆡ로되지안니ᄒᆞ난고
로절박ᄒᆞ던ᄎᆞ의맛참下人便군속ᄒᆞᆫᄉᆞ정
듯ᄊᆞ오니더옥초〃ᄒᆞᆫ마음은층양업ᄊᆞ오나
此時歲迫니요方今結錢을물몽지장의錢갈리
ᄐᆡ심ᄒᆞ와萬事不如意고로下人을許行치
못ᄒᆞ와ᄎᆡᆼ졸간左右廣求ᄒᆞ온거시다만紙貨
二十五圓與葉三十五兩合分一百六兩納送니미우죄
송ᄒᆞ오나不得ᄉᆞ세온니니ᄎᆞᄒᆞ량ᄒᆞ옵고ᄯᅩ家貰
ᄉᆞ정을말슴ᄒᆞ엿ᄊᆞ오나본시니리니렬줄알아ᄶᅥ면
가셰을洞任계지휘ᄒᆞ와ᄎᆞ질거실젹연싱각못
ᄒᆞᆫ니리되난고로기언치못ᄒᆞᆫᄉᆞ니예져간명식으로
家貰라ᄒᆞ난거신林以仲處出給되엿난ᄌᆞ리예
금ᄎᆞ下書中본온후의卽時以仲계도査實ᄒᆞ고洞
任果隊中의가ᄌᆞ상니査問ᄒᆞ온즉前後合則十四元
九十錢也以仲處동독推尋條只是四元爾二十兩판

출ᄒᆞ옵고餘在十圓九十錢은未捧니오나不日內로推
捧之意단〃지휘ᄒᆞ옵고우션捧條二十兩은今便付
送ᄒᆞ오니고봉ᄒᆞ옵쇼셔총〃ᄒᆞ와세〃ᄒᆞᆫᄉᆞ정을다ᄉᆞ리
지못ᄒᆞ오나守備隊家貰事로幾月幾日名數을
ᄌᆞ세히알아보ᄂᆡ라ᄒᆞ옵긔로분부ᄃᆡ로긔록ᄒᆞ와보
ᄂᆡ오나제의山中소견으로난그시얼ᄆᆡ라도쥬난것슬마다
할슈업셔바든거시바다시나구톄여밧지못ᄒᆞᆫ거슬긔여찻긔가시원치
못ᄒᆞᆫ니리던ᄒᆞ옵고셜혹新식경계을쫏ᄎᆞ찻난다ᄒᆞ
ᄒᆞ와도상셔난안닌던ᄒᆞ오니단〃히상양ᄒᆞ와ᄒᆞ옵소
셔지금경계가ᄲᅢ리고즁ᄒᆞ다ᄒᆞ여도슬상은그법밋다가
난事〃낭ᄑᆡ될터온니짐즉할지험니官下人니民
間錢兩간음축을ᄒᆞ엿다가급긔발각지장의난제거친문
ᄉᆡᆼ각지못ᄒᆞ고필경후일의함혬할마음을두난터니온
ᄃᆡ향후권닌들경계난일푼젼니라도음축지단닌즉
그시將官은논벌지경니되계드면그무류ᄒᆞᆫ허물은뷔
계돌일던ᄒᆞ오리잇가니만ᄒᆞ오면ᄃᆡ강짐작할터온니
지피〃상양조쳐ᄒᆞ옵소셔

2. 전사 · 주석

錢兩 出送條 其間의 못조[1] 쥬션(周旋)ᄒᆞ와도 할나 ᄒᆞᆫ 거시 百萬事가 마음ᄃᆡ로 되지 안니ᄒᆞ난 고(故)로 절박(切迫)ᄒᆞ던 ᄎᆞ(次)의 맛촘 下

1) 못조 : 모쪼록. 부디.

人便 군속(窘束)[2]ᄒᆞᆫ ᄉᆞ졍(事情) 듯ᄌᆞ오니 더옥 초초(悄悄)[3]ᄒᆞᆫ 마음은 층양(測量) 업ᄉᆞ오나 此時 歲迫[4]니요 方今 結錢[5]을 물봉지장(勿捧之場)의[6] 錢갈(渴)리 ᄐᆡ심(太甚)ᄒᆞ와 萬事不如意 고(故)로 下人을 許行치 못ᄒᆞ와 창졸간(倉卒間) 左右 廣求ᄒᆞ온 거시 다만 紙貨 二十五圓 與葉三十五兩 合分一百六十兩[7] 納送니 미우 죄송(罪悚)ᄒᆞ오나 不得ᄉᆞ셰(事勢)온니 니ᄎᆞᄒᆞ량(以此下諒)ᄒᆞ옵고 ᄯᅩ 家貰[8] ᄉᆞ졍(事情)을 말ᄉᆞᆷᄒᆞ엿ᄉᆞ오나 본시(本是) 니리 니렬 쥴 알아ᄯᅧ면 가셰(家貰)을 洞任계[9] 지휘(指揮)ᄒᆞ와 ᄎᆞ질 거실 젹연(寂然) ᄉᆡᆼ각 못ᄒᆞᆫ 니리 되난 고(故)로 기언(開言)치 못ᄒᆞᆫ ᄉᆞ니에 져간(這間) 명ᄉᆡᆨ(名色)으로 家貰라 ᄒᆞ난 거신 林以仲[10]處 出給되엿난 ᄌᆞ리에 금ᄎᆞ(今次) 下書中 본온 후(後)의 卽時以仲[11]계도 査實ᄒᆞ고 洞任果[12] 隊中의 가 ᄌᆞ상(仔詳)니 査問ᄒᆞ온 즉

---

2) 군속(窘束) : 묶인 듯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군색(窘塞)함.
3) 초초(悄悄) : 조심되는 모양.
4) 歲迫 : 세모(歲暮).
5) 結錢 : 결작전(結作錢).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6) 물봉지장(勿捧之場)의 : 폐지한 마당에. '물봉'(勿捧)은 본디 '허물이 있는 관리를 유임하지 아니하고 파면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단순히 '폐지'의 뜻으로 쓰였다.
7) 合分 一百六十兩 : (紙貨 25圓과 葉錢 35兩을) 더한 돈 160냥. 조선 후기 및 고종 연간에 있어서, 1원(元·圓)은 100전(錢)에 해당하고, 1냥(兩)은 10전(錢)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1원은 10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을 그대로 따른 환전(換錢)일 경우의 계산이다. 여기서는 1원(元·圓)이 5냥 안팎으로 환산된 듯하니, 지화(紙貨) 25원과 엽전 35냥을 더한 돈 160냥이라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의 중간에 4원을 20냥으로 환산한 경우가 또 보인다.
8) 家貰 : 집세.
9) 洞任계 : 동임(洞任)에게. '동임'은 곧 '동네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10) 林以仲 : 인명.
11) 以仲 : 인명.
12) 洞任果 : 동임(洞任)과. 여기에 보이는 한자 '果'는 우리말 조사 '-과'를 불필요하게

(則) 前後合則十四元九十錢也 以仲處 동독(董督)[13] 推尋[14]條 只是 四元爾 二十兩 판츌(辦出)[15]ᄒᆞ옵고 餘在十圓九十錢[16]은 未捧니오나 不日內로 推捧之意 단단 지휘(指揮)ᄒᆞ옵고 우션(于先)捧條 二十兩은 今便 付送ᄒᆞ오니 고봉(考捧)[17]ᄒᆞ옵쇼셔 총총(悤悤)ᄒᆞ와 셰셰(細細)ᄒᆞᆫ ᄉᆞ경(事情)을 다 ᄉᆞ리지 못ᄒᆞ오나 守備隊 家貰事로 幾月 幾日 名數을 ᄌᆞ셰(仔細)히 알아 보ᄂᆡ라 ᄒᆞ옵긔로 분부(分付)ᄃᆡ로 긔록(記錄)ᄒᆞ와 보ᄂᆡ오나 졔의 山中 소견(所見)으로난 그 시[18] 얼ᄆᆡ라도 쥬난 것슬 마다할 슈 업셔 바든 거시 바다시나 구ᄐᆡ여 밧지 못ᄒᆞᆫ 거슬 긔여 찻긔가 시원치 못ᄒᆞᆫ 니리던 ᄒᆞ옵고[19] 셜혹(設或) 新식(式) 경계(境界)[20]을 쏫ᄎᆞ 찻난다 ᄒᆞᄒᆞ와도[21] 상셔(祥瑞)난 안닌던 ᄒᆞ오니[22] 단단히 상양(商量)ᄒᆞ와 ᄒᆞ옵소셔 지금 경계(境界)가 ᄉᆡ리고[23] 즁(重)ᄒᆞ다 ᄒᆞ여도 ᄉᆞᆯ상(實狀)은 그 법(法) 밋다가난 事事 낭ᄑᆡ(狼狽)될 터온니 짐ᄌᆞᆨ(斟酌)ᄒᆞᆯ 지험(至險)니 官下人니 民間 錢兩간(間) 음츅(陰蓄)[24]을 ᄒᆞ엿다가 급긔발각지장

음차(音借)한 것이다.

13) 동독(董督) : 감시하여 바로잡고 또한 독려함. 여기서는 단순히 '감독'(監督)을 뜻한다.

14) 推尋 :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냄.

15) 판출(辦出)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변통하여 마련하여 냄.

16) 餘在十圓九十錢 : (14원 90전에서 20냥에 해당하는 4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 10원 90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원(元·圓)이 5냥 안팎으로 환산된 것을 엿볼 수 있다.

17) 고봉(考捧) : 헤아려 받침. '고납'(考納)과 같은 말이다.

18) 그시 : 그 사이.

19) 니리던 ᄒᆞ옵고 : 일이던가 싶고.

20) 경계(境界) :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여기서는 '법규'(法規)에 상당하는 뜻으로 쓰였다.

21) ᄒᆞᄒᆞ와도 : 하여도. 글줄이 바뀌면서 'ᄒᆞ'를 한 번 더 쓴 것이다.

22) 안닌던 ᄒᆞ오니 : 아니던가 싶으니.

23) ᄉᆡ리고 : (법적으로) 급하고.

(及其發覺之場)의난[25] 졔거친문(諸擧親門)[26]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필경(畢竟) 후일(後日)의 햠헴할[27] 마음을 두난 터니온ᄃᆡ 향후(向後) 권닌(眷姻)[28]들 경계(警戒)난 일푼젼(一分錢)니라도 음축지단(陰蓄之端)닌 즉(則) 그 시 將官[29]은 논벌지경(論罰之境)니 되계 드면 그 무류(無謬)ᄒᆞᆫ[30] 허물은 뉘계 돌일던 ᄒᆞ오리잇가 니만 ᄒᆞ오면 ᄃᆡ강(大綱) 짐작(斟酌)할 터온니 지피[31] 지피 상양(商量) 조쳐(措處)ᄒᆞ옵소셔

3. 현대어역

전냥(錢兩)을 내어 보내는 명목으로 말하면, 그 동안에 아무쪼록 주선해도 하려 했던 것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절박하던 차에, 마침 하인 편에 매우 쪼들린다는 사정을 듣사오니 더욱 걱정이 되는 마음은 헤아릴 수 없사오나, 요즈음 때가 [그야말로] 세모(歲暮)인데다가 바야흐로 결작전(結作錢)을 폐지한 마당에 전갈(錢渴)이 너무 심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매, 하인을 [먼] 걸음하게 하지 못하고

---

24) 음축(陰蓄) : 남모르게 모아들임.

25) 급긔발각지장(及其發覺之場)의난 : 급기야(及其也)에 발각(發覺)되는 마당에는.

26) 졔거친문(諸擧親門) : 친속(親屬)이 모두 연좌(連坐)로 걸려듦.

27) 햠헴할 : 하암(鄕闇)처럼 헤아림을 할. '햠'은 곧 '하암'(鄕闇)의 준말로서 '시골 사람, 또는 시골 사람처럼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뜻하고, '헴'은 곧 '헤아림'의 옛말 '혬가림'의 준말이다.

28) 권닌(眷姻) : 친족(親族)과 인척(姻戚). 친인척(親姻戚).

29) 將官 : 여러 군영(軍營)에 소속된 종9품 초관(哨官) 이상의 군직. 또는, 대한 제국 시절에 대장(大將)·부장(副將)·참장(參將)을 통틀어 이르던 직함.

30) 무류(無謬)ᄒᆞᆫ : 잘못이 없는.

31) 지피 : 깊이.

갑자기 이웃에서 두루 찾아 얻은 것이 다만 지화(紙貨) 25원(圓)과 엽전(葉錢) 35냥(兩), [둘을] 더한 돈으로 [겨우] 160냥을 납송(納送)하게 되오니 매우 죄송하오나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오니, 이로써 헤아려 주시옵고. 또 집세 사정을 말씀하였사오나, 본디 일이 이럴 줄 알았다면 집세를 동임(洞任)에게 시켜서 찾을 것을, 감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된 까닭으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그 동안의 명색(名色)으로 [따져 볼 때의] 집세라고 하는 것은 임이중(林以仲)에게 출급(出給)되었던 터인데, 이번에 [보내오신] 편지를 본 뒤에 곧바로 이중(以仲)에게서도 사실을 조사하고 동임(洞任)과 부대(部隊) 안에 가서 자세히 탐문(探問)하여 보건대, 전후(前後)[의 액수]를 더한 것이 10원(元) 90전(錢)이고, 이중(以仲)이 감독하여 받아낸 명목의 것은 다만 4원(元)뿐이라, [이로써] 20냥을 마련하옵고, 나머지 10원(圓) 90전(錢)은 받들지 못하오나, 하루빨리 받들어 내라는 뜻을 단단히 가르쳐 주었사옵고, 먼저 받들어 올릴 바의 20냥은 이번에 부쳐 보내오니 살펴 받으시옵소서. 바빠서 자잘한 사정을 다 사뢰지 못하오나, 수비대(守備隊)[에 임대했던 바의] 집세[를 받아내는] 일로 몇 월[과] 몇 일[에 따른] 명수(名數)를 자세히 알아 보내라 하오기에, 분부대로 기록해서 보내오나, 저의 막힌 소견(所見)으로는, 그 동안에 얼마라도 주는 것을 마다할 수 없어 받기는 받았으나, 구태여 [일찍이]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어이 찾아받기가 시원치 못한 일인 듯싶고, 이를테면 신식 법규에 따라 찾는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듯하니, 단단히 헤아려 하시옵소서. 지금의 법규가 [일을 처리하는 데] 빠르고 [또한] 엄중하다고 해도, 실상은 그 법을 믿다가는 일마다 낭패를 겪게 될 터이오니, [미리] 짐작할 지극한 위험이, 관서(官署)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민간(民間)의 전냥(錢兩)을 남모르게 모아들였다가 발각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친속(親屬)까지 모두 [연좌(連

坐)로] 걸려들게 됨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침내 뒷날에 가서야 어리석게 구는 마음을 가지는 터이오니, 차후(此後)로 친인척(親姻戚)[의 범법 행위에 관한] 법규는, 한 푼의 돈이라도 [민간의 것을] 남모르게 모아들인 끝에는,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에 연루된] 장관(將官)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니,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아무] 잘못도 없[이 덮어쓰게 되]는 허물은 누구에게 돌리오리까? 이만 하오면 [그러한 일이 신상에 해로움을] 대강 짐작할 터이오니, 깊이깊이 헤아리고 조처하옵소서.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宗實錄』
『老乞大諺解』
『杜詩諺解(初刊)』
『詩經』
『新編尺牘大方』
『儒胥必知』
『重刻杜詩諺解』
『寒暄箚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金一根 編註, 『李朝御筆諺簡集』, 新興出版社, 195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柳靑, 『全州柳氏大同譜』, 全州柳氏時思齋大同譜所, 197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CD-ROM), Namo Interactive Inc, 1998.
海南尹氏兵曹參議公派門中, 『海南尹氏兵曹參議公派世譜』, 精微文化社, 1998.
黃建霖·趙振鈞, 『文言虛詞彙解』, 中國集郵出版社, 1986.